돈키호테 1편

El 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
(Primera parte)

미겔 데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1605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7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Claude Opus 검수

책 정보

원전

미겔 데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El 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 (Primera parte)" (Juan de la Cuesta, Madrid 1605)

저자

미겔 데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 1547–1616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000 (스페인어)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검수

Claude Opus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7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원작의 분위기와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제1장. 유명한 라만차의 귀족 돈키호테의 신분과 기사 생활에 대하여

라만차의 어느 마을에 어떤 곳인지 이름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한 귀족이 살고 있었다. 그는 창을 거치대에 세워두고, 낡은 방패를 쓰며, 말은 비쩍 말랐고 사냥개는 잘 달리는 녀석을 키우는 사람이었다. 그의 재산 중 4분의 3은 먹는 데 들어갔다. 양보다 소고기가 더 많이 들어간 고기찌개, 대부분의 밤에는 차게 무친 고기 요리, 토요일에는 달걀과 베이컨 요리, 금요일에는 렌틸콩 요리를 먹었고, 일요일에는 가끔 새끼 비둘기 요리를 곁들였다. 남은 돈으로는 벨라르테 천으로 만든 겉옷을 해 입고, 명절에는 벨벳 바지와 똑같은 벨벳 슬리퍼를 신었으며, 평일에는 아주 질 좋은 갈색 모직 옷을 입어 격식을 차렸다. 집에는 마흔이 넘은 가정부와 스무 살이 채 안 된 조카딸이 있었고, 말에 안장을 얹거나 전정 가위를 챙기는 등 집안팎의 일을 도맡아 하는 시골 소년 하나가 있었다. 우리 귀족의 나이는 쉰 살 가까이 되었는데, 체격은 건장했으나 살집은 없고 얼굴은 수척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고 사냥을 즐겼다. 이 일을 기록한 저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의 별명이 키하다(Quijada)인지 케사다(Quesada)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정황상 그의 성은 케하나(Quejana)였던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건 우리 이야기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저 이 이야기만큼은 조금의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전하면 그만이다.

앞서 말한 이 귀족은 일 년 중 대부분을 한가하게 보냈는데, 그 빈 시간에 기사도 소설을 읽는 데만 몰두했다. 그 열정과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냥은커녕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일조차 거의 잊어버릴 정도였다. 호기심과 어리석음이 극에 달한 나머지, 읽을 기사도 소설

을 사려고 경작지 수 마네가(hanegas)를 팔아치우기까지 했다. 그렇게 그는 구할 수 있는 소설은 모조리 집으로 들여왔다. 그 수많은 책 중에서도 그는 유명한 펠리시아노 데 실바가 쓴 책들을 가장 좋아했다. 문장이 명료하면서도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마치 진주처럼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특히 구애하는 대목이나 결투를 신청하는 편지를 읽을 때면 더욱 그러했다. 그 책들에는 이런 구절들이 자주 등장했다. "나의 이성이 당신의 아름다움에 대항해 겪는 부당한 처사로 인해 나의 이성이 이토록 약해졌으니, 당신의 미모를 찬양하며 원망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한 이런 대목도 있었다. "…당신의 신성함을 별들로써 신성하게 보좌하는 저 높은 하늘이, 당신의 위엄에 걸맞은 영광을 당신에게 선사하리라."

가여운 기사는 이런 문장들에 매료되어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실타래를 풀 듯 파헤치느라 밤잠을 설쳤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난해한지 설령 아리스토텔레스가 오직 이 일을 위해서만 부활한다 해도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 또한 돈 벨리아니스가 입히고 받던 상처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기도 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들이 치료해 준다 한들, 그의 얼굴과 온몸은 흉터와 자국으로 가득할 것이라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작가가 책의 끝을 끝도 없이 이어질 모험을 약속하며 마무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책에 약속된 대로 직접 펜을 들어 그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끝맺고 싶다는 욕망을 수없이 느꼈다. 만약 다른 더 크고 끊임없는 생각들이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그 일을 해냈을 것이고 실제로 성공했을 것이다. 그는 마을의 신부와 누가 더 훌륭한 기사인지 두고 자주 논

쟁을 벌이곤 했다. 신부는 시구엔사에서 학위를 받은 박식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팔메린 데 잉글라테라와 아마디스 데 가울라 중 누가 더 나은 기사인지를 두고 다퉜다. 반면 같은 마을의 이발사인 마에세 니콜라스는 두 사람 모두 페보의 기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 그와 비교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아마디스 데 가울라의 형제인 돈 갈라오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 갈라오르는 모든 면에서 기사로서의 자질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이다. 그는 까다로운 기사가 아니었고 형처럼 눈물도 많지 않았으며, 용맹함에 있어서도 형에게 뒤처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독서에 너무나 깊이 빠져든 나머지, 밤에는 밤을 꼬박 새워 읽고 낮에는 어스름한 상태로 읽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잠은 줄고 책 읽는 시간만 늘어나자 뇌가 말라버렸고,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의 머릿속은 책에서 읽은 온갖 내용으로 가득 찼다. 마법과 결투, 전투, 도전, 상처, 구애, 사랑, 폭풍, 그리고 불가능한 헛소리들이 그의 상상력을 점령했다. 그 허황되고 꿈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강렬하게 각인된 나머지, 그는 자신이 읽은 그 모든 허구의 설정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고, 세상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그것들이 가장 확실하다고 여겼다. 그는 시드 루이 디아스가 아주 훌륭한 기사였지만,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거대하고 사나운 거인 둘을 반으로 갈라버린 '불타는 검의 기사'에게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말했다. 또한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가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론세스바예스에서 헤라클레스의 지혜를 빌려 대지의 아들 안테오를 두 팔로 껴안아 익사시킴으로써 마법에 걸린 롤랑을 죽였기 때문이다. 거인 모르간테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

지 않았는데, 오만하고 무례한 거인 세대의 일원이면서도 오직 그만이 상냥하고 예의 바른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몬탈반의 레이날도스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특히 레이날도스가 자신의 성에서 나와 눈에 띄는 것마다 훔치고 다니는 모습이나, 책의 기록대로 저 너머에서 온통 황금으로 된 마호메트의 우상을 훔쳐 오는 대목을 볼 때면 더욱 그러했다. 그는 배신자 갈랄론에게 발길질을 실컷 해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부리던 하녀는 물론이고 그 조카딸까지도 기꺼이 내줄 판이었다.

실제로 정신을 완전히 잃은 그는, 세상의 미친놈들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기괴한 생각을 떠올리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방랑 기사가 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드높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마땅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무기와 말을 갖추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험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책에서 읽은 대로, 온갖 종류의 불의를 바로잡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몸을 던져 그 모든 일을 완수함으로써, 영원한 이름과 명성을 얻기로 결심했다. 가여운 그는 이미 자신의 무력으로 적어도 트라피손다 제국만큼은 손에 넣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이토록 즐거운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그 생각들이 주는 기묘한 쾌감에 이끌려 자신이 바라는 바를 실현하고자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증조부 때부터 내려온 무기들을 닦는 것이었다. 이 무기들은 구석진 곳에 방치된 채 수 세기 동안 잊혀 있었기에, 녹이 슬고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정성껏 무기를 닦고 손질했지만, 한 가지 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인 셀라다(celada)가 정교하게 맞물린 형태가 아니라 단순한 투구인 모리온(morrión) 형태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지를 발휘해 이를 보완했다. 판지로 일종의 반쪽짜리 셀라다를 만들어 투구에 끼워 맞추니, 겉보기에는 마치 온전한 셀라다를 갖춘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 투구가 튼튼해서 칼날의 공격을 견딜 수 있을지 시험해 보려고 검을 꺼내 두 번 내리쳤다. 그런데 첫 번째 칼질 한 번에, 일주일 동안 공들여 만든 것이 순식간에 박살 나 버렸다. 그는 투구가 너무나 쉽게 부서지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만약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투구를 다시 만들었다. 이번에는 안쪽에 철 막대들을 덧대어 보강했고, 그제야 투구의 강도에 만족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험해 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 투구를 아주 훌륭하고 정교한 셀라다라고 여기기로 했다.

그다음 그는 자신의 비루먹은 말을 살펴보러 갔다. 비록 그 말은 1레알보다도 더 흠집이 많고, 뼈와 가죽만 남았다는 고넬라의 말처럼 결점이 가득했지만, 돈키호테의 눈에는 알렉산드로스의 부케팔로스나 엘 시드의 바비에카조차 이 말과 비견될 수 없어 보였다. 그는 말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지 고민하느라 나흘을 보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처럼 훌륭한 기사가 될 사람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말을 타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방랑 기사가 되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모두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찾으려 애썼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름 또한 바꾸어야 마땅하며, 자신이 새로이 맹세한 기사도의 길과 수행하는 임무에 걸맞게 이름 또한 세상에 널리

알려질 만큼 장엄하고 위엄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이름을 떠올렸다가 지우고, 덧붙였다가 다시 없애고, 고쳤다가 다시 만드는 과정을 반복했다. 마침내 그는 로시난테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가 보기에 이 이름은, 한낱 비루먹은 말(rocín)이었던 예전의 모습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제는 세상의 모든 말 가운데 으뜸가는 첫째 말이 되었음을 높고 울림 있게,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잘 드러내 주는 이름이었다.

말의 이름을 마음에 쏙 들게 지어준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도 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 생각에 잠겨 또 8일을 보냈고, 마침내 자신을 돈키호테라고 부르기로 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때문에 이토록 진실한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들은 그의 성이 케사다(Quesada)가 아니라 분명 키하다(Quijada)여야 한다고 주장할 빌미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용맹한 아마디스가 단순히 아마디스라고만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유명한 헤필라 왕국의 이름을 덧붙여 '아마디스 데 가울라'라고 불렀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도 훌륭한 기사답게 자신의 이름 뒤에 고향의 이름을 붙여 '돈키호테 데 라 만차'라 부르기로 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혈통과 고향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고향의 이름을 별칭으로 삼음으로써 고향을 빛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무기를 깨끗이 닦고, 챙만 달린 투구에 가리개를 덧대어 제대로 된 투구로 만들었으며, 로시난테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새 이름을 확정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자신에게 남은 일이라곤 오직 사랑할 여인을 찾는 것뿐임을 깨달았다. 사랑이 없는 방

랑 기사는 잎도 열매도 없는 나무와 같고, 영혼이 없는 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내 죄가 깊어서든 혹은 운이 좋아서든, 방랑 기사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길을 가다 거인을 마주치게 된다면 어떠할까?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거인을 쓰러뜨리거나, 몸을 반으로 갈라버리거나, 아니면 마침내 거인을 굴복시켜 항복을 받아낸다면 말이다. 그때 그 거인을 내 사랑하는 여인 앞에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한 뒤, 아주 겸손하고 비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부인, 저는 말린드라니아 섬의 주인인 거인 카라쿨리암브로입니다. 마땅히 칭송받아야 할 위대한 기사 돈키호테 데 라 만차께서 저와 단독 결투를 벌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부인 앞에 직접 나아가, 부인의 위엄에 따라 저를 마음껏 처분하시도록 명하셨습니다'라고 말이다."

아, 우리 기사님이 이런 생각을 마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특히 자신의 여인에게 붙여줄 이름을 찾아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가 사는 곳 근처에 아주 예쁘장한 농가 처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예전에 그녀를 짝사랑한 적이 있었다. 비록 그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녀의 이름은 알돈사 로렌소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마음속 여인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고는 원래 이름과 너무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공주나 고귀한 귀부인의 이름처럼 들릴 만한 이름을 고민했다. 마침내 그는 그녀가 엘 토보소 출신이라는 점을 살려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가 보기에 이 이름은 자신이 자신과 자신의 물건들에 붙

여준 다른 이름들처럼 아주 운율이 넘치고, 신비로우며, 깊은 뜻을 담고 있었다.

제2장



제2장. 재치 있는 돈키호테가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모험을 시작하는 내용

준비를 마친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자신이 늦어질수록 세상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의 온갖 억울함을 풀어주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으며, 불합리한 일을 고치고, 악습을 개선하며, 밀린 빚을 갚아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내

를 알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어느 7월의 무더운 날, 동이 트기 전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섰다. 모든 무기를 갖춰 챙긴 그는 로시난테에 올라탔다. 엉성하게 쓴 투구를 쓰고 방패를 챙긴 뒤 창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뒤뜰의 쪽문을 통해 들판으로 나섰다. 자신의 고결한 뜻을 이토록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환희를 느꼈다.

하지만 들판에 나서자마자 무시무시한 생각이 그를 덮쳤다. 하마터면 시작한 모험을 포기할 뻔할 정도였다. 자신이 아직 기사 작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다. 기사도의 법도에 따르면, 기사가 아닌 자는 어떤 기사와도 무기를 들고 맞설 수 없을뿐더러 맞서서도 안 된다. 설령 기사라 할지라도 갓 입문한 기사라면 방패에 아무런 문장도 새기지 않은 백색의 무기를 들어야 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장을 얻기 전까지는 그래야만 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성보다는 광기가 앞섰기에, 그는 자신이 읽었던 기사도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길에서 처음 마주치는 사람에게 작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백색의 무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흰 족제비 털보다 더 깨끗하게 닦아 놓으리라 생각했다. 이로써 마음을 놓은 그는 말의 발걸음에 맞춰 길을 재촉했다. 모험의 힘이란 오직 그 발걸음에 달려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당당한 모험가가 길을 재촉하며 나아가는 동안,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장차 나의 위대한 업적을 담은 진실한 역사가 세상에 밝혀질 때, 그 기록을 남길 현자가 나의 이 첫 번째 새벽 나들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지 않겠느냐? '붉은 빛을 띠는 아폴로가 넓고 광활한 대지 위로 아름다운 금빛 머리카락을 펼쳐 놓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작고 알록달록한 새들이 달콤하고 감미로운 노래로 장밋빛 새벽의 도래를 축복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질투심 많은 남편의 부드러운 침대를 떠난 새벽빛이 라만차 지평선의 문과 발코니를 통해 필멸의 존재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자, 저 유명한 기사 돈키호테가 나태한 깃털 침대를 뒤로하고 그의 유명한 말 로시난테에 올라타, 예부터 잘 알려진 몬티엘 들판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다.' 과연 누가 이 사실을 의심하겠는가?"

그리고 그가 정말로 그 들판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오, 참으로 복된 시대요, 복된 세기이도다! 나의 이 위대한 업적들이 세상에 밝혀질 그 시대 말이다. 나의 업적은 청동에 새겨지고 대리석에 조각되며, 후세의 기억을 위해 화폭에 그려질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니라. 오, 현명한 마법사여! 그대가 누구이든, 이 기이한 여정의 연대기 작가가 될 운명이라면 간절히 부탁하노니, 나의 충직한 로시난테를 결코 잊지 말아 주오. 그는 나의 모든 길과 여정에서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이니라!"

그러고는 마치 정말로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말을 이었다.

"오, 공주님, 나의 이 사로잡힌 마음의 주인인 둘시네아여! 당신의 그 눈부신 미모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엄한 명령으로 저를 꾸짖고 작별

을 고하시니, 제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셨나이다! 오, 나의 주인님, 당신의 사랑 때문에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충직한 마음을 부디 잊지 말아 주소서."

그는 기사도 소설에서 배운 대로, 최대한 그 말투를 흉내 내며 온갖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렇게 말을 이어가는 동안 그는 아주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해는 무섭게 빠른 속도로 내리쬐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만약 그에게 뇌라도 있었다면, 그 열기에 아마 녹아내렸을 것이다.

그날 하루는 거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지나갔다. 돈키호테는 자신의 용맹한 팔이 얼마나 힘이 센지 시험해 볼 상대를 당장이라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기에,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겪은 첫 번째 모험이 푸에르토 라피세에서의 일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풍차를 만난 일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라만차 연대기」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는 하루 종일 길을 헤맸고 날이 저물 무렵에는 로시난테와 자신 모두 기진맥진하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몸을 피할 수 있는 성이나 양치기들의 막사라도 찾을 수 있을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자신이 가던 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관 하나를 발견했다. 그 여관은 마치 별빛처럼 빛나며, 여관의 입구가 아니라 구원을 선사할 거대한 성채로 그를 인도하는 듯했다.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고, 날이 저물 무렵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

아마도 여관 문 앞에는 젊은 여인 두 명이 서 있었을 것이다. 흔히들 '몸 파는 여자'라 부르는 부류로, 그날 밤 그 여관에서 하룻밤 묵게 된 노새몰이꾼들을 따라 세비야로 가던 길이었다. 하지만 온통 망상에 사로잡힌 우리 모험가에게는, 자신이 생각하고 보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마치 읽었던 책 속의 장면처럼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여관을 보자마자 그의 눈에는 네 개의 탑과 은빛으로 빛나는 첨탑을 갖춘 거대한 성채가 나타났다. 거기에는 성채를 묘사할 때 빠지지 않는 도개교와 깊은 해자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그는 성채처럼 보이는 여관을 향해 다가갔다. 그러다 여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로시난테의 고삐를 잡아 멈춰 세웠다. 성벽 위에서 어떤 난쟁이가 나팔을 불며 기사가 성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다린 것이다. 하지만 신호가 오지 않고 로시난테가 마구간으로 가려고 안달을 내자, 그는 여관 문 앞까지 다가갔다. 그곳에는 그 행실 가벼운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마치 성문 앞에서 한가로이 노닐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나 품격 있는 귀부인들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마침 근처 그루터기만 남은 밭에서 돼지 떼를 몰던 돼지치기가—용서를 구하지만, 돼지란 본디 그렇게 불린다—신호용 뿔나팔을 불었다. 그 신호에 맞춰 돼지들이 모여들자, 돈키호테는 마치 난쟁이가 자신의 도착을 알리는 신호를 보낸 것처럼 착각했다. 그는 기묘한 기쁨에 휩싸인 채 여관과 여인들에게 다가갔다. 무장을 한 채 창과 방패를 들고 나타난 기이한 모습의 남자를 본 여인들은 겁에 질려 여관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여인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겁을 먹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종이로 만든 투구의

가리개를 들어 올려 메마르고 먼지투성이인 얼굴을 드러내며, 아주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귀하신 분들, 부디 도망치지 마십시오. 어떠한 해코지도 하지 않을 터이니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받든 기사도의 도리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며, 하물며 이토록 고귀한 처녀분들께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인들은 그를 바라보며, 조잡한 투구 가리개에 가려진 그의 얼굴을 찾으려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하지만 자신들을 처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자, 그들의 신분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말에 그만 웃음이 터져 나오고 말았다. 그 모습에 돈키호테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들에게 말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는 절도가 어울리는 법이며, 사소한 일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언짢게 하거나 기분 상하게 하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제 마음은 오로지 여러분을 섬기는 데에만 가 있으니까요."

여인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우리 기사의 꼴사나운 차림새를 보자 웃음이 더욱 커졌으며, 돈키호테는 그만큼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만약 그때 여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일이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여관 주인은 어찌나 뚱뚱한지 그 덕에 성격이 무척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굴레와 창, 방패, 그리고 조잡한 갑옷처럼 제각각인 무장을 갖춘 채 기괴한 몰골로 서 있는 돈키호테를 보고는 하마터면 여인들의 웃음에 함께 끼어들 뻔했다. 하지만 막상 저 수많은 장비가 뿜어내

는 위압감이 두려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말을 건네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말했다.

"기사님, 혹시 잠자리를 찾으신다면, 침대만은 어렵습니다만(이 여관에는 침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곳에 아주 넉넉히 갖춰져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요새의 성주—그의 눈에는 여관 주인이 성주로, 여관이 요새로 보였다—가 보여준 겸손한 태도를 보고 이렇게 대답했다.

"성주님, 저는 무엇이든 충분합니다. 제 마구는 무기이며, 제 휴식은 전투이니 말입니다."라고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여관 주인은 돈키호테가 자신을 성주라고 부른 이유가, 비록 자신은 안달루시아 출신이고 산루카르 해변의 사람들처럼 카코 못지않은 도둑놈에 건달 시동 못지않은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카스티야의 건실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리께서 쓰실 침상은 딱딱한 바위일 것이고, 잠을 청하기는커녕 늘 뜬눈으로 지새우시겠군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오두막에서는 하룻밤은커녕 일 년 내내 잠들지 못할 구실을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을 테니, 마음 놓고 말에서 내리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여관 주인이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그는 돈키호테가 말에서 내릴 수 있도록 등자를 잡아주었다. 돈키호테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처럼 무척이나 힘들고 고생스럽게 말에서 내려왔다.

이어 돈키호테는 여관 주인에게 자신의 말을 각별히 잘 돌봐달라고 당부하며, 세상에서 빵을 먹는 짐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녀석이라고 자랑까지 덧붙였다. 여관 주인이 그 말을 살펴보니 돈키호테가 떠벌리는 것만큼 훌륭해 보이지도, 그 절반만큼도 못해 보였다. 주인은 그 말을 마구간에 들여놓은 뒤, 손님이 무엇을 분부하는지 살피러 돌아왔다. 그사이 여관 처녀들은 이미 돈키호테와 화해를 마치고 그의 무장을 하나씩 벗겨주고 있었다. 처녀들이 가슴받이와 등받이는 벗겨냈지만, 목을 감싼 목가리개와 초록색 리본으로 꽁꽁 묶인 조잡한 투구는 도무지 풀어낼 줄도, 풀 수도 없었다. 매듭이 풀리지 않아 리본을 잘라내야 할 판이었지만, 돈키호테가 한사코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밤새도록 그 투구를 쓴 채로 지냈으니, 그 꼴이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우스꽝스럽고 기이한 몰골이었다. 한편, 자신의 무장을 벗겨주는 처녀들이 실은 이 성의 고귀한 귀부인들이라고 상상한 돈키호테는, 아주 품격 있고 정중한 태도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키호테가 고향 마을을 떠나온 뒤로, 이토록 귀한 대접을 받은 기사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오. 처녀들은 나를 돌봐주고, 공주님들은 내 말 로시난테를 돌봐주고 있으니 말이오."

“부인들, 제 말의 이름은 로시난테이고, 제 이름은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께 이로움을 드리는 가운데 이룰 업적들이 저를 드러내 보이기 전까지는 제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으나, 지금 이 란슬롯의 옛 노래를 상황에 맞춰 들려드리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때 이르게 제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여러분께서 명을 내리시고 제가 그 명을 받드는 날이 올 것이

며, 제 팔의 용맹함이 여러분을 섬기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 화려한 말솜씨를 들어본 적 없는 여관 소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원하는지만 물을 뿐이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지금 제 형편으로는 무엇이라도 먹어야 할 것 같군요."

마침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여관에는 카스티야에서는 아바데호, 안달루시아에서는 바카야오, 다른 곳에서는 쿠라디요, 또 다른 곳에서는 트루츄엘라라고 부르는 생선 요리가 조금 남아 있을 뿐이었다. 여관 소녀들은 그에게 줄 생선이 그것밖에 없었기에, 혹시 트루츄엘라를 드시겠느냐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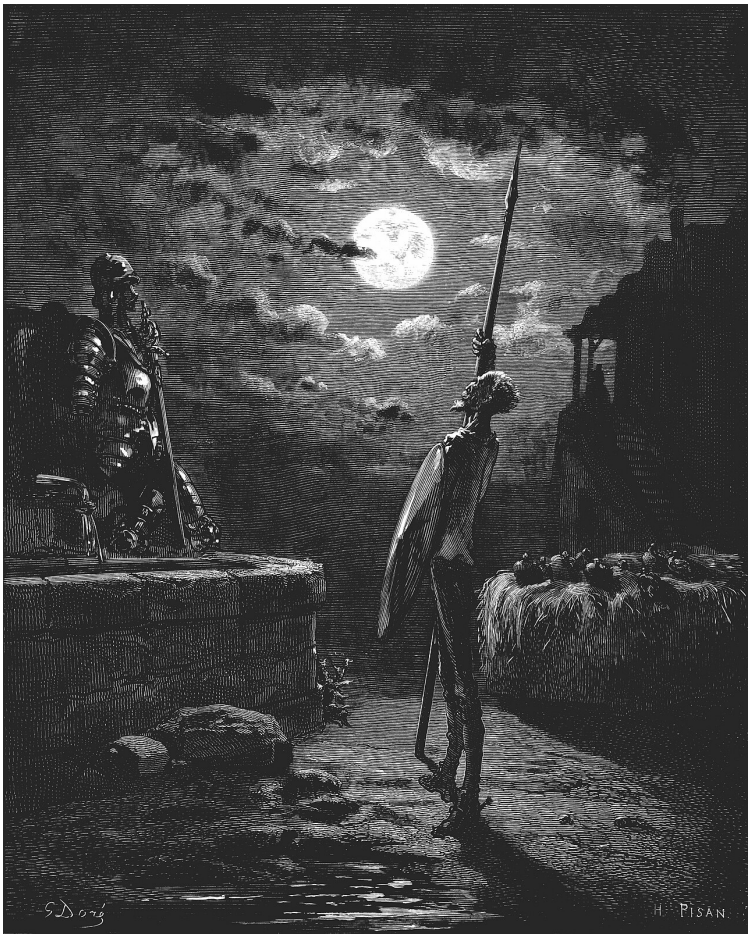
“트루츄엘라가 많이 있다면 송어 한 마리 몫은 충분히 할 겁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8레알을 잔돈으로 받든 8레알짜리 한 닢으로 받든 제게는 매한가지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어쩌면 이 트루츄엘라가, 소고기보다 맛있는 송아지 고기나 다 자란 염소보다 맛있는 새끼 염소 고기 같은 것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무엇이든 좋으니 어서 가져오십시오. 배 속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무기의 고됨과 무게를 견뎌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도록 여관 문 앞에 상을 차려 주었다. 여관 주인은 제대로 불리지도 않고 그보다 더 형편없이 삶은 바카야오 요리와,

그의 갑옷만큼이나 검고 지저분한 빵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그가 식사하는 모습은 구경하는 이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 돈키호테가 투구의 안면 가리개를 위로 올려둔 채였기에, 누군가 음식을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손으로는 아무것도 입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관의 여인 중 한 명이 그 수고를 맡았다. 마실 것을 가져다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관 주인이 대나무 대를 구멍 내어 한쪽 끝을 돈키호테의 입에 물리고 다른 쪽으로 와인을 조금씩 흘려 넣어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마실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돈키호테는 투구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러던 중, 돼지 거세꾼 하나가 우연히 여관에 도착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대나무 피리를 네다섯 번 불어댔는데, 이 소리를 듣자 돈키호테는 자신이 정말로 유명한 성에 와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음악이 연주되고 있으며, 아까 먹은 대구는 송어였고, 빵은 고급 밀가루로 만든 것이며, 여관의 여인들은 귀부인이고, 여관 주인은 성의 성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쯤 되니 자신의 결단과 모험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아직 기사 작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기사 서임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당한 모험도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3장



제3장. 돈키호테가 기사 작위를 받는 우스꽝스러운 과정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에 잠겨 기운이 다 빠진 그는 배를 채울 만큼의 소박한 저녁 식사를 서둘러 마쳤다. 식사를 끝낸 그는 여관 주인을 불러 마구간으로 들어간 뒤,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용맹하신 기사님, 제가 청하고자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저는 결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 은총은 기사님의 명성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여관 주인은 발치에 무릎을 꿇은 손님을 보고 그런 황당한 말을 듣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주인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만 일어나라고 거듭 권했지만, 돈키호테는 끝내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주인은 그가 청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제 주인님께서 보여주실 위대한 관대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니 말씀드리건대, 제가 청한 은총을 주인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셨으니,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일 바로 저를 기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은 이 성의 예배당에서 제 무기를 지키며 밤을 지새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그토록 염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래야 하듯, 저와 같은 편력기사의 의무로서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세상 사방을 누비며 모험을 찾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여관 주인은 약간의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손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돈키호테가 늘어놓는 황당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자 그가 정말 미쳤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주인은 그날 밤 심심풀이로 웃음거리라도 만들 작정이었기에, 기꺼이 그의 장단에 맞춰 주기로 마음먹었다.

주인은 돈키호테가 바라는 바와 청하는 바가 아주 적절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돈키호테의 늠름한 풍채를 보니, 그가 원하는 그런 계획이야말로 그처럼 고귀해 보이는 기사라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치켜세웠다. 그러고는 자신 또한 젊은 시절에 그 명예로운 길을 걸었다고 허풍을 떨었다. 세상 곳곳을 누비며 모험을 찾아다녔는데, 말라가의 페르첼레스부터 리아란 제도, 세비야의 콤파스, 세고비아의 아소케호, 발렌시아의 올리베라, 그라나다의 론디야, 산루카르 해변, 코르도바의 포트로, 톨레도의 벤티야스에 이르기까지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했다. 그곳들을 다니며 날랜 발놀림과 재빠른 손놀림을 익혀, 숱한 못된 짓을 저지르고, 수많은 과부를 홀렸으며, 처녀 몇몇을 농락하고, 어린 피후견인들을 속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리하여 결국 스페인 전역의 거의 모든 재판소와 법정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그저 이 성으로 은거해 들어왔다고 말을 이었다. 이곳에서 자신의 재산과 남의 재산을 함께 쓰며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로지 편력기사들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사의 신분이나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두 이곳으로 불러 모으는데, 그들이 자신의 선의에 보답하는 의미로 각자의 재산을 나누어 내며 함께 지내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주인은 또한 이 성에는 무기를 지키며 밤을 지새울 만한 예배당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예배당을 새로 짓기 위해 허물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급한 대로 어디서든 밤을 지새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오늘 밤은 성 마당 중 한 곳에서 무기를 지키면 된

다고 일러주었다. 그러고는 내일 아침, 하나님의 은총 속에 정식 의식을 치러 그를 기사로 임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기사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주인은 돈키호테에게 돈을 좀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돈키호테는 돈 한 푼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기사도 소설을 읽어보았지만, 돈을 챙겨 다니는 기사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주인은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소설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가들이 돈이나 깨끗한 셔츠를 챙기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기사들이 돈을 안 들고 다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수많은 책이 가득 담고 있는 저 편력기사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머니를 넉넉히 채우고 다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라고 주인은 일러주었다. 또한 기사들은 셔츠와 함께, 입은 상처를 치료할 연고를 가득 채운 작은 상자도 반드시 지니고 다녔다고 덧붙였다. 전투를 벌이다 다치는 곳은 대개 들판이나 황무지인데, 그곳에서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명한 마법사를 친구로 두어, 마법사가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처녀나 난쟁이를 보내 신비한 물이 든 병을 건네주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그 물을 한 방울이라도 맛보기만 하면, 마치 아무런 상처도 없었던 것처럼 즉시 깨끗이 나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 마법사가 없는 한, 과거의 기사들은 종자들이 돈과 함께 상처 치료에 필요한 실과 연고 같은 물건들을 챙겨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기사에게 종자가 없을 때는, 기사 스스로가 말의 엉덩이 부분에 아주 작고 정교한 가방을 매달아 이 모든 것을 직접 챙겨 다녔다. 마치 그 가방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물건인 양 말이다. 평소에 가방을 매달고 다니는 것은 기사들 사이에서 그리 흔한 모습은 아니었기에, 이런 상황이 아니면 잘 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인은 곧 자신의 대부(代父)가 될 돈키호테에게 조언을 건넸다. 앞으로는 돈과 앞서 말한 준비물들을 챙기지 않고는 길을 나서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준비를 갖추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 물건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키호테는 주인의 조언을 철저히 따르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곧장 여관 한편에 있는 넓은 마당에서 무기를 지키며 밤을 지새우기로 했다. 돈키호테는 무기를 모두 거두어 우물 옆에 쌓아 둔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방패를 팔에 끼고 창을 움켜쥔 채, 품위 있는 자태로 그 더미 앞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그가 행진을 시작할 무렵, 밤이 깊어 오고 있었다.

여관 주인은 여관에 있던 사람들에게 손님이 얼마나 미쳤는지, 그가 무기를 지키며 어떤 기사 작위 의식을 치르려 하는지를 모두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이토록 기이한 광기에 깜짝 놀라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보니, 돈키호테는 차분한 태도로 때로는 이리저리 거닐기도 하고, 때로는 창에 몸을 기대고 서서 한참 동안이나 무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밤이 완전히 깊었으나 달빛이 워낙 밝아, 달에게 빛

을 빌려주는 해와 견줄 만할 정도였다. 그래서 초보 기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들의 눈에 훤히 잘 보였다. 이때 여관에 있던 짐꾼 중 한 명이 자기 가축 떼에게 물을 먹이러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러려면 더미 위에 놓인 돈키호테의 무기를 치워야만 했다. 짐꾼이 다가오는 것을 본 돈키호테가 큰 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오, 그대가 누구든 간에, 감히 칼을 찬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기사의 무기에 손을 대려는 무모한 자여! 그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그 오만함의 대가로 목숨을 내놓고 싶지 않다면 당장 그 무기들에 손대지 마라!"

짐꾼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겁을 먹지 않았다(오히려 겁을 먹는 편이 신상에 좋았겠지만 말이다). 그는 오히려 가죽끈을 움켜쥐더니, 무기를 자신에게서 아주 멀리 내던져 버렸다. 돈키호테는 그 광경을 보고는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러고는 마치 자신의 여인 둘시네아를 떠올리는 듯한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께 굴복한 이 가련한 가슴에 닥친 첫 번째 모욕을 저를 도와 막아 주소서. 이 첫 번째 시련 속에서 당신의 은총과 보호가 저를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며 방패를 내려놓은 그는, 두 손으로 창을 높이 치켜들더니 짐꾼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그 일격이 어찌나 매서웠던지 짐꾼은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만약 누군가 한 번 더 공격했다면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다. 일을 마친 돈

키호테는 무기를 챙겨 들고는, 처음과 다름없는 여유로운 태도로 다시금 거닐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짐꾼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 또 다른 사람이 노새들에게 물을 먹이러 다가왔다. 그 사람은 물통을 치우려고 무기를 옮기려 했을 뿐이었다. 그때 돈키호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다시 방패를 내려놓고 창을 치켜들었을 뿐이다. 그는 창을 부러뜨리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짐꾼의 머리를 세 조각보다 많게 쪼개 놓았다. 머리를 네 갈래로 쩍 갈라 놓았기 때문이다. 소란을 듣고 여관 사람들이 모두 달려 나왔고, 여관 주인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이 광경을 본 돈키호테는 방패를 움켜쥐고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아름다우며 용맹하고 강인하신 나의 주인이시여! 이토록 거대한 모험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의 포로가 된 기사에게, 이제 당신의 위대한 눈길을 돌려 저를 굽어살펴 주소서!"

이 말을 내뱉은 돈키호테는 스스로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짐꾼이 한꺼번에 덤벼든다 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다. 부상당한 이들의 동료들은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는 멀리서부터 돈키호테를 향해 돌을 퍼붓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방패로 필사적으로 몸을 막아내면서도, 무기를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물통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 여관 주인은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이미 일러두었으니, 설령 저들이 모두 죽는다 해도 미친 사람이라서 무사할 것이라며 제발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돈키호테 역시 더 큰 목소리로 맞섰다. 그

는 사람들을 비겁하고 배신자라 욕하며, 성주라는 자는 기사들이 이런 대접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난봉꾼이자 천한 놈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만약 자신이 기사 작위를 받았다면, 저들의 비겁함을 똑똑히 깨닫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너희같이 천하고 비천한 무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겠다! 어디 마음대로 던져보고, 다가오고, 덤벼들어 보아라! 너희의 그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돈키호테가 이토록 기세등등하고 용맹하게 외치자, 덤벼들던 이들은 겁에 질려 공포에 떨었다. 결국 그들은 돌 던지기를 멈추었고, 여관 주인이 말린 덕분에 돈키호테도 부상자들을 물러나게 했다. 그러고는 다시 처음과 다름없이 차분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무기를 지키며 밤샘 의식을 이어갔다.

여관 주인은 손님이 보여주는 기이한 행동이 영 마뜩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불상사가 터지기 전에 기사 임명식을 서둘러 끝내고, 대충 형식만 갖춰서라도 빨리 보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주인은 돈키호테에게 다가가, 저 천한 무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점에 대해 대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무모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벌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주인은 이미 말했듯이 이 성에는 예배당이 없으며, 남은 절차를 치르는 데에도 예배당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이 알기로 기사 서임식의 모든 절차는 목을 가볍게 치고 등을 두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런 일은 들판 한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기를 지

키며 밤을 지새우는 의식도 이미 마쳤다고 덧붙였다. 보통 두 시간만 밤을 새워도 충분한데, 돈키호테는 이미 네 시간 넘게 지켰으니 차고 넘친다는 논리였다.

돈키호테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그는 주인의 말에 따를 준비가 되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식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 다시 자신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기사 서임을 받은 몸이라면, 성주가 존중의 뜻으로 살려두라 일러주는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이 성에 있는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광경을 보고 겁이 난 여관 주인은 곧장 짐꾼들에게 주는 짚과 보리를 기록해 두는 장부를 가져왔다. 그리고 한 소년이 가져다준 양초 한 자루와 아까 말한 두 처녀를 데리고 돈키호테가 있는 곳으로 갔다. 주인은 돈키호테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마치 경건한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손에 든 수첩을 읽어 내려가다가, 한창 읽는 도중에 손을 들어 돈키호테의 목을 세게 내리쳤다. 이어 주인은 자신이 든 칼로 등을 멋드러지게 두드려 주면서도, 마치 기도라도 하는 양 계속해서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의식이 끝나자 주인은 두 처녀 중 한 명에게 칼을 차라고 시켰다. 처녀는 아주 능숙하고 침착하게 칼을 차 주었는데, 사실 식을 치르는 내내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느라 꽤나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이 초보 기사가 보여준 활약들을 목격한 터라, 그녀는 웃음을 꾹 눌러 참을 수 있었다. 칼을 차 주며 그 착한 여인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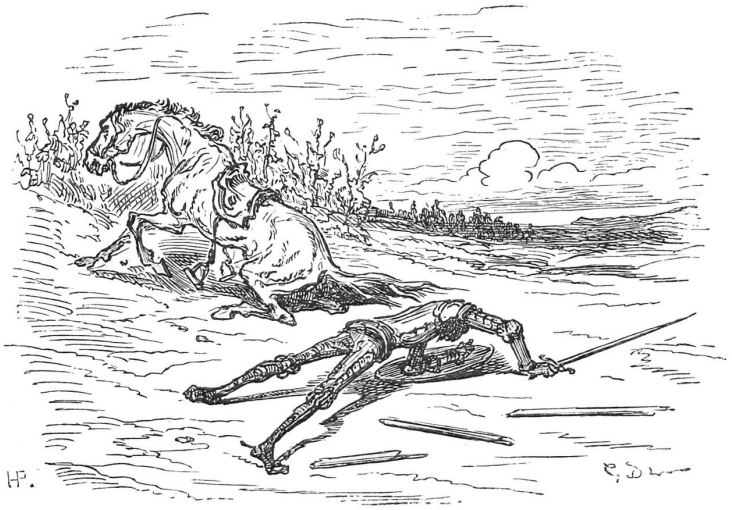
"신께서 귀하를 매우 운 좋은 기사로 만드시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돈키호테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앞으로 알아두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이 용맹을 떨쳐 얻게 될 영광의 일부를 이 여인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었다. 여인은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라 톨로사'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산초 비에나야의 가게 근처에 사는 톨레도 출신 구두 수선공의 딸이며, 자신이 어디에 있든 돈키호테를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그녀에게 부탁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앞으로는 '돈(don)'을 붙여 '도냐 톨로사'라고 불러달라고 말이다. 그녀가 이를 약속하자, 다른 처녀가 돈키호테에게 박차를 채워 주었다. 박차를 채울 때도 칼을 차 줄 때와 거의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그 처녀는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자신은 안테케라의 정직한 방앗간 주인의 딸인 '라 몰리네라'라고 대답했다. 돈키호테 역시 그녀에게도 앞으로 '돈'을 붙여 '도냐 몰리네라'라고 부르라고 청하며, 새로운 봉사와 은혜를 베풀겠노라 약속했다.

이토록 기이한 의식이 전례 없이 급히 마무리되자, 돈키호테는 한시라도 빨리 말에 올라타 모험을 찾아 떠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는 곧바로 로시난테에게 안장을 얹고 그 위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여관 주인을 껴안으며, 자신을 기사로 임명해 준 은혜에 감사하는 기이한 말들을 늘어놓았는데, 그 내용이 워낙 별난 나머지 차마 다 옮길 길이 없다. 여관 주인은 이미 여관을 나서는 돈키호테를 보며, 그보다 짧지만 못지않

게 화려한 수사로 화답했다. 그러고는 숙박비도 받지 않은 채, 돈키호테가 좋은 때에 길을 떠나도록 보내주었다.

제4장



제4장. 우리 기사가 여관을 나서자마자 겪게 된 일에 대하여

돈키호테가 여관을 나선 것은 아마도 동틀 무렵이었을 것이다. 이제 기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어찌나 기쁘고 늠름하며 들떴던지, 그 환희가

말 안장 밖으로 터져 나올 지경이었다. 하지만 여관 주인으로부터 꼭 챙겨야 할 필수품들, 특히 돈과 여벌 셔츠에 대해 들었던 조언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갖추고 종자도 한 명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웃에 사는 가난한 농부 중 하나를 종자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 농부는 자식은 많았지만, 기사 수행원 노릇을 하기에는 아주 적임자였다. 이런 생각을 하며 돈키호테는 로시난테를 몰아 마을로 향했다. 로시난테도 제 집 근처에 왔음을 아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힘차게 걷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돈키호테의 오른쪽 편에 있는 숲속 우거진 나무 사이에서 누군가 신음하며 울부짖는 듯한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말했다.

"하늘이 내게 베푸신 은총에 감사할 따름이로다! 기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직분에 충실할 기회를 눈앞에 가져다주시다니. 내 선한 의지의 결실을 거둘 기회를 주셨구나. 저 목소리들은 분명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내는 소리임이 틀림없으니, 내가 가서 힘을 보태고 도와주어야겠다."

그는 고삐를 돌려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로시난테를 몰았다. 숲속으로 몇 발자국 들어서자, 참나무 한 그루에 암말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옆의 다른 나무에는 상반신을 드러낸 열다섯 살 정도 된 소년이 묶여 있었는데, 바로 이 소년이 울부짖던 주인공이었다. 소년이 울부짖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체격이 건장한 농부 한 명이 허리띠로 소년을 마구 매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부는 채찍을 휘두

를 때마다 소년에게 꾸짖음과 훈계를 섞어 퍼부었다. 농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입은 다물고, 눈은 똑바로 떠라!"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인님.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양 떼를 훨씬 더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돈키호테는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다.

"무례한 기사여, 방어할 힘조차 없는 자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은 보기 흉한 짓이다. 어서 말에 올라타 창을 잡거라. —암말이 매여 있던 바로 그 참나무에는 창도 한 자루 기대어 세워져 있었다.— 네놈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짓이 얼마나 겁쟁이 같은 짓인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주마."

무기를 갖춘 채 창을 휘두르며 얼굴 앞까지 다가온 그 위협적인 형상을 본 농부는,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질려 비굴하게 대답했다.

"기사님, 제가 매질하는 이 아이는 제 하인입니다. 이 근처에서 제가 기르는 양 떼를 지키는 일을 맡고 있지요. 그런데 이 녀석이 워낙 부주의해서 매일 양이 한 마리씩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주의함, 아니 그

고약한 성미를 다스리려고 매를 드는 것인데, 이놈은 제가 제때 품삯을 주지 않아 자기를 굶겨 죽이려 한다며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과 제 영혼을 걸고 맹세컨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감히 거짓을 말하다니, 이 비열한 농부 놈이!" 돈키호테가 소리쳤다. "지금 내 눈앞을 비추는 저 태양을 걸고 맹세하건대, 당장 이 창으로 네놈의 몸을 두 동강 내버리겠다. 토 달지 말고 즉시 품삯을 지불해라.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맹세코 지금 이 자리에서 네놈을 끝장내고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어서 저 아이를 풀어주어라!"

농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하인을 풀어주었다. 돈키호테는 하인에게 주인이 밀린 품삯이 얼마인지 물었다. 하인은 아홉 달 치이며, 매달 7레알씩이라고 대답했다. 돈키호테가 계산해 보니 총 73레알이었다. 돈키호테는 농부에게 당장 그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죽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겁에 질린 농부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방금 한 맹세—사실 아직 아무런 맹세도 하지 않았음에도—를 들먹이며, 그만큼의 돈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동안 자신이 준 신발 세 켤레 값과, 병중에 피를 뽑은 비용 1레알을 차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만," 돈키호테가 대꾸했다. "신발 값과 피 뽑은 비용은 네놈이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휘두른 매질 값으로 치자꾸나. 만약 저 아이가 네놈이 사준 신발 가죽을 망가뜨렸다면, 네놈은 저 아이의 몸 가죽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냐? 또한 이발사가 병중에 피를 뽑

았다면, 네놈은 멀쩡한 아이의 피를 뽑은 셈이니 말이다.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는, 저 아이가 네놈에게 빚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사님, 문제는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스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레알씩 차근차근 다 갚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따라가라고요?" 소년이 말했다. "아이고, 재수 없으려니까! 아뇨, 기사님, 절대 안 갑니다. 저 혼자 남게 되면 저놈이 성 바르톨로메오 성인처럼 제 살가죽을 벗겨 놓을 게 뻔한걸요."

"그자가 감히 그러지는 못할 것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명령만 내려도 저자는 나를 두려워하며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오. 또한 저자가 방금 받은 기사도의 법에 따라 내게 임금을 주겠노라 맹세만 한다면, 나는 저를 자유롭게 보내줄 것이며 임금도 반드시 받도록 보장하겠소."

"기사님,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소년이 말했다.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기사도 아니고요, 기사 작위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킨타나르에 사는 부자 농부, 후안 알두도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알두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라도 기사가 될 수 있는 법이며, 무엇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 대접받는 법 아니겠소."

"정말 그렇습니다." 안드레스가 말했다. "하지만 제 임금과 피땀 어린 노력을 가로채는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행실을 보여준 사람인가요?"

"안드레스 형제여, 부정하는 게 아니네." 농부가 대답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게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사단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방금 말한 대로 밀린 임금을 한 레알도 빠짐없이, 아주 깨끗하게 챙겨주겠네."

"임금을 향기롭게 챙겨주겠다는 말은 사양하겠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저 레알로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니, 방금 맹세한 대로 반드시 지키도록 하시오. 만약 어긴다면 그 맹세를 걸고 내가 다시 당신을 찾아가 응징할 것을 맹세하겠소. 설령 당신이 도마뱀보다 더 교묘하게 숨는다 해도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오. 만약 당신이 약속을 더 확실히 지키게 하려고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바로 억울함과 불의를 타파하는 용맹한 돈키호테 데 라 만차임을 기억하시오. 그럼 이만 가보겠소. 방금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잊지 마시오. 만약 어긴다면 선포된 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말을 마친 돈키호테는 로시난테를 몰아 그들로부터 금세 멀어졌다. 농부는 눈으로 그의 뒷모습을 쫓았다. 돈키호테가 숲을 지나 더는 보이지 않게 되자, 농부는 다시 하인 안드레스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이리 오너라, 아들아. 저 억울함을 타파하는 기사가 명령한 대로 네게 줄 돈을 마침내 주마."

"그건 저도 맹세하지요." 안드레스가 말했다. "주인님께서 저 훌륭하신 기사님의 명령을 따르신다면 그야말로 잘하시는 일이고말고요. 천 년을 사셔야 할 분이지요! 그분이 어찌나 용맹하고 공정한 재판관이신지, 성 로케께 맹세코, 만약 주인님이 제게 돈을 주지 않으시면 그분이 다시 돌아와 말씀하신 대로 응징하실 테니까요!"

"나도 맹세하마." 농부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너무나 아끼는 마음에, 네가 받을 돈을 늘려주려고 빚도 같이 늘려주려는 것이란다."

그러고는 농부가 안드레스의 팔을 붙잡아 다시 참나무에 묶어 놓았다. 그러고는 매질을 퍼부었는데,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안드레스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자, 안드레스! 이제 그 잘난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사'를 불러보라고!" 농부가 말했다. "그자가 네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아, 그런데 아직 일을 다 끝내지 못한 것 같구나. 네가 두려워하던 대로, 너를 산 채로 가죽을 벗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거든."

하지만 결국 농부는 안드레스의 결박을 풀어주며, 판결을 집행할 재판관을 찾아가 보라고 내버려 두었다. 안드레스는 잔뜩 뾰루퉁한 얼굴로 떠나면서, 용맹한 돈키호테를 찾아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말해버리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이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스는 울면서 떠나갔고, 주인인 농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용맹한 돈키호테는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기사 생활의 아주 훌륭하고도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며, 일어난 일에 무척 만족해했다. 돈키호테는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마을을 향해 걸어갔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

"오, 아름답고도 눈부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여! 당신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여인보다도 행복한 이름이라 불러도 마땅하오! 세상 사람 모두가 알다시피, 어제 기사 작위를 받은 돈키호테가 오늘 바로 당신을 위해 정의를 실현했으니 말이오. 이 용맹하고 명성 높은 기사는 당신의 뜻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무엇이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소. 오늘 나는 불의와 잔혹함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과 억울함을 바로잡았소. 아무런 이유 없이 가련한 아이를 매질하던 무자비한 원수의 손에서 채찍을 빼앗아 버렸으니 말이오!"

그러던 중 그는 길이 네 갈래로 갈라지는 교차로에 다다랐다. 그러자 방랑 기사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곤 하던 그 교차로의 풍경이 돈키호테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기사들을 흉내 내고자 잠시 가만히 멈춰 서서 생각에 잠겼다. 한참을 깊이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로시난테의 고삐를 늦추어 말의 의지에 몸을 맡겼다. 로시난테는 평소 가던 길을 따라 곧장 마구간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2마일쯤 나아갔을 때, 돈키호테는 사람들이 무리 지어 가는 것을 발견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무르시아로 비단을 사러 가던 톨레도 상인들이었다. 상인은 여섯 명이었는데, 양산을 들고 말 탄 하

인 네 명과 나귀를 끌고 가는 하인 세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그들을 보자마자 이것이 새로운 모험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읽었던 책 속의 장면들을 가능한 한 똑같이 흉내 내고 싶었다. 마침 자신이 계획하던 일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품위와 용기를 갖추고 등자에 발을 단단히 딛고 섰다. 창을 꽉 쥐고 방패를 가슴에 밀착시킨 채 길 한복판에 멈춰 서서, 저 방랑 기사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이미 그들을 기사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만큼 가까이 다가오자, 돈키호테는 목소리를 높여 오만한 몸짓으로 말했다.

"모두 멈춰 서라! 라만차의 황후이자 비길 데 없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보다 더 아름다운 처녀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상인들은 그 말에 멈춰 서서, 말을 내뱉는 자의 기이한 차림새를 살펴보았다. 그 모습과 말하는 내용을 보고 상인들은 곧바로 이 자가 미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된 이 고백이 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천천히 지켜보기로 했다. 그중 조금은 익살스러우면서도 아주 분별 있는 상인 한 명이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기사님, 말씀하신 그 고귀한 부인이 누구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분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만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분이라면, 저희는 그 어떤 강요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이 요구하신 진실을 고백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분을 보여드린다면,"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토록 명백한 진실을 굳이 고백할 필요가 있겠소? 핵심은 그분을 보지 않고도 믿고, 고백하고, 확언하며, 맹세하고, 수호해야 한다는 점에 있소. 만약 그러지 못하겠다면, 나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무례하고 오만한 자들이여! 기사도의 규율에 따라 한 명씩 나오든, 아니면 당신들 같은 부류의 관습이자 나쁜 버릇대로 한꺼번에 덤비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내 논리에 확신이 있으니, 여기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겠소."

"기사님," 상인이 대답했다. "여기 모인 저희 모든 군주를 대신하여 간곡히 청하옵니다. 저희가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을 고백하여 양심에 짐을 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이 그것이 알카리아와 에스트레마두라의 황후와 여왕들께 누가 될 수도 있으니, 부디 그 부인의 초상화라도 보여주십시오. 설령 밀알 한 알만 한 크기라도 괜찮습니다. 실 한 가닥만 있으면 실타래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법이니,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만족하고 안심할 것이며, 기사님께서도 흡족하고 흐뭇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기사님 편으로 마음이 기울었기에, 설령 그 초상화 속 부인이 한쪽 눈이 멀고 다른 쪽 눈에서는 주홍빛 진사와 유황이 흘러내리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그분을 두둔하여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서 그런 것이 흐른다니, 이 천한 것들아!" 돈키호테가 분노로 격분하여 대답했다. "다시 말하건대, 그분에게서 풍기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솜에 곱게 싸인 용연향과 사향이란 말

이다! 또한 그분은 한쪽 눈이 멀지도, 등이 굽지도 않았으며, 과다라마의 물레 가락보다도 훨씬 곧으시다. 하지만 너희는 내 여인처럼 고귀한 미인을 모독한 그 엄청난 신성모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치자마자 돈키호테는 그 말을 내뱉은 상인을 향해 창을 낮게 겨누고 돌진했다. 그 기세와 분노가 어찌나 대단한지, 만약 운 좋게도 로시난테가 길 중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무례한 상인은 큰 화를 당했을 것이다. 로시난테는 넘어졌고, 주인은 들판 저 멀리까지 굴러떨어졌다. 그러고는 일어나려 애를 썼으나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옛 방식의 무거운 창과 방패, 박차와 투구의 무게 때문에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다음과 같이 외쳐댔다.

"도망치지 마라, 겁쟁이 놈들아! 포로가 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기 쓰러져 있는 것은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말이 발을 헛디뎠기 때문이다!"

그곳에 함께 있던 노새 몰이꾼 중 한 명은 심보가 그리 고운 놈이 아니었다. 쓰러진 불쌍한 노인이 호기롭게 떠드는 소리를 듣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그는, 돈키호테의 옆구리에 매운맛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는 돈키호테에게 다가가 창을 집어 들더니, 그것을 조각조각 부순 다음 그 파편 중 하나로 우리 돈키호테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어도 소용없었다. 그는 마치 고기를 다지듯 돈키호테를 짓이겨 놓았다. 주인들이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며 그만두라고 소

리쳤지만, 이미 흥분한 노새 몰이꾼은 화가 다 풀릴 때까지 이 장난을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남은 창 조각들을 모조리 가져와 쓰러져 있는 가련한 노인 위로 쏟아부으며 마무리를 지었다. 온몸에 매질이 폭풍처럼 몰아치는데도, 돈키호테는 입을 다물기는커녕 하늘과 땅, 그리고 눈앞의 악당들을 향해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노새 몰이꾼이 매질에 지쳐 멈추자, 상인들은 가는 길 내내 매 맞은 가련한 이의 이야깃거리를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혼자 남은 돈키호테는 다시 몸을 일으킬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다. 하지만 멀쩡하고 건강할 때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흠씬 두들겨 맞아 거의 만신창이가 된 지금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여겼다. 이런 시련이야말로 편력기사라면 마땅히 겪는 불행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자기 말의 탓으로 돌렸다. 온몸이 멍투성이로 짓이겨져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5장



제5장. 우리 기사가 겪는 불행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대목

돈키호테는 정말로 몸을 까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평소 쓰던 처방대로 기사 소설의 한 대목을 떠올리기로 했다. 그러자 광기가 그의 기억 속에 발도비노스와 만투아 후작의 이야기를 불러왔다. 카를

로토가 산속에서 발도비노스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버려 두었던 바로 그 대목이었다.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였고, 젊은이들도 모르는 이가 없었으며, 노인들은 그 이야기를 즐겨 이야기하며 믿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마호메트의 기적만큼이나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돈키호테는 이 이야기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몹시 비통한 기색으로 땅바닥을 뒹굴며, 숲에서 상처 입은 그 기사가 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힘없는 숨결로 내뱉기 시작했다.

"나의 여인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이 고통을 아파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기만하고 배신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 대목까지 그 노래를 계속 이어 나갔다.

"오, 고귀하신 만투아의 후작이시여! 나의 숙부이자 육신의 주인이시여!"

운명의 장난인지, 그 구절에 이르렀을 때 마침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농부 한 명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밀 한 짐을 방앗간에 부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농부는 길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고 다가가, 누구인지, 또 무슨 일로 그리 구슬프게 신음하며 괴로워하는지 물었다. 돈키호테는 그 농부를 자신의 숙부인 만투아 후작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자신이 읊던 노래를 계속 이어 가며

자신의 불행과, 황제의 아들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게 된 사연을 노래 가사 그대로 들려주었다.

농부는 그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으며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러고는 막대기에 맞아 이미 산산조각이 난 투구의 가리개를 들어 올려, 먼지로 뒤덮인 돈키호테의 얼굴을 닦아 주었다. 얼굴을 다 닦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키하나 나리," —그가 제정신이었을 적, 곧 평온한 시골 귀족에서 편력기사로 넘어가기 전에 불렸을 법한 이름이 바로 이것이다— "대체 누가 나리를 이런 꼴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지만 돈키호테는 농부가 무엇을 묻든 계속해서 기사 소설 속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착한 농부는 혹시 상처라도 입었는지 확인하려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돈키호테의 흉갑과 등갑을 벗겨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가 흐르거나 상처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그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 애썼고, 적잖은 고생 끝에야 자기 나귀 위에 그를 올려 앉혔습니다. 나귀가 로시난테보다 더 얌전한 탈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창 조각까지 포함해 무기들을 모두 챙겨 로시난테 위에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로시난테의 고삐와 나귀의 굴레를 잡고 마을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돈키호테가 내뱉는 헛소리를 들으며 농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키호테 역시 만만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부서질 듯 아파서 나귀 위에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했고, 때때로 하늘에 닿을 듯한 한숨을 내쉬어댔습니다. 그 바람에 농부는 돈키호테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악마가 돈키호테의 처지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키호테는 그 순간 발도비노스를 잊어버리고, 안테케라의 성주 로드리고 데 나르바에스에게 붙잡혀 그의 성에 포로로 끌려갔던 무어인 아빈다라에스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몸 상태가 어떤지, 어디가 아픈지 다시 물었을 때, 돈키호테는 포로가 된 아벤세라헤 사람이 로드리고 데 나르바에스에게 대답했던 것과 똑같은 말과 사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는 그가 호르헤 데 몬테마요르의 소설 「디아나」에서 읽은 그대로였는데, 그 소설에 바로 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돈키호테가 그 이야기를 자기 상황에 어찌나 그럴듯하게 끌어다 붙이는지, 농부는 그 끝없는 헛소리를 듣다 못해 진저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농부는 이웃이 미쳤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돈키호테의 길고 지루한 일장연설이 주는 짜증에서 벗어나려고 서둘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드리고 데 나르바에스 나리,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아름다운 하리파가 바로 지금의 어여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입니다. 저는 이분을 위하여, 세상에서 일찍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보지 못할 가장 빛나는 기사도의 위업을 이루어 왔고, 지금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나리, 제발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로드리고 데 나르바에스 나리도 아니고 만투아 후작도 아닙니다. 그저 나리의 이웃에 사는 페드

로 알론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리께서도 발도비노스나 아빈다라에스가 아니라, 그저 정직한 이달고이신 키하나 나리이실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잘 알고 있소!"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이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열두 기사 전부가 될 수도 있고, 명성을 떨친 아홉 명의 기사 모두가 될 수도 있소. 그들이 다 함께, 혹은 각자 일궈낸 그 모든 위대한 업적조차 나의 공적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니 말이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는 사이 해가 저물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만신창이가 된 귀족이 말도 제대로 못 타는 초라한 모습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밤이 좀 더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적당한 때가 되자 농부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돈키호테의 집은 이미 한바탕 소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곳에는 돈키호테와 막역한 사이인 마을 신부와 이발사가 와 있었고, 돈키호테의 가정부는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아니, 페드로 페레스 학사님, 저희 주인님께 닥친 이 불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부의 본명이 페드로 페레스였기에 가정부는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벌써 사흘째 주인님도, 로시난테도, 방패도, 창도, 무기도 보이지 않아요! 아,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제 말이 맞아요, 제가 죽으려고 태어난 게 분명한 것만큼이나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주인님이 평소에 늘 읽으시던 저 빌어먹을 기사도 소설들이 결국 주인님의 정신을 다 망쳐놓고 말았어요! 생각해보니 주인님이 혼잣말로, 편력 기사가 되어 온 세상을 누비며 모험을 찾아 떠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걸 몇 번이나 들었던 것 같아요. 저런 책들은 사탄과 바라바에게나 던져버려야 해요. 저런 책들 때문에 라만차에서 가장 명석했던 주인님의 정신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조카 역시 같은 말을 거들며, 심지어 더 심한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발사님, 아니, 니콜라스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이발사의 본명이 니콜라스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숙부님이 저 망할 놈의 불행한 책들에 빠져서 밤낮없이 이틀 내내 읽기만 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면 책을 손에서 내팽개치고는, 칼을 뽑아 들고는 벽을 향해 마구 휘두르며 칼부림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다 너무 지치면, 마치 네 개의 탑 같은 거인 네 명을 베어 죽였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으면, 그건 전투 중에 입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라고 우기셨고요. 그러다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들이켜고 나면, 그 물이 바로 숙부님의 친구이자 위대한 마법사인 현자 에스키페가 가져다준 아주 귀한 음료라며 다시 멀쩡하고 차분해지곤 하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숙부님이 이런 헛소리를 하실 때 신부님과 이발사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일이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손을 쓰고 저 빌어먹을 책들을 다 태워버렸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숙부님이 가진 책이 아주 많은데, 저 책들은 마치 이단자의 책처럼 당장 불태워 마땅한 것들이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저 책들을 공개적으로 처단하고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

니다. 그래야 저 책을 읽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저지를 기회를 주지 않을 테니까요."

농부와 돈키호테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덕분에 농부는 이웃집 양반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농부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도비노스 님과 만투아 후작님께 길을 비켜드리시오! 부상을 입은 채 오고 계신다! 또한 안테케라의 성주이신 용맹한 로드리고 데 나르바에스가 포로로 잡아 온 무어인 아빈다라에스 님께도 길을 비켜드리시오!"

이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친구를,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주인이자 삼촌을 알아보고는 그를 끌어안으려 달려갔습니다. 돈키호테는 몸이 성치 않아 아직 나귀에서 내리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모두 물러나시오! 내 말이 잘못하는 바람에 이 꼴로 부상을 입었으니 말이오. 나를 내 침상으로 옮겨다 주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명한 우르간다를 불러 내 상처를 치료하고 살펴달라고 전하시오!"

"이것 보세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 마음이 주인님께 무슨 탈이 났는지 진작에 일러주고 있었다고요!" 이때 가정부가 말했습니다. "어서 침상으로 올라가세요. 그 우르간다인지 뭔지 하는 여자는 부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 고쳐 드릴 테니까요. 아휴, 빌어먹

을! 주인님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저 기사도 소설들은 정말이지 저주를 받아 마땅해요. 한 번도 아니고 백 번이라도 저주를 받아야 해요!"

사람들은 곧 그를 침상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살펴보니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말 로시난테와 함께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온몸이 쑤시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무도하고 대담한 거인 열 명과 싸우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허, 참!" 신부가 말했습니다. "이 일에 거인까지 등장한단 말이오? 내 성호를 걸고 맹세컨대, 내일 밤이 오기 전에 그놈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리고 말겠소."

사람들은 돈키호테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자게 해달라는 말 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요구대로 해주었습니다. 그사이 신부는 농부로부터 돈키호테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주 자세히 물었습니다. 농부는 돈키호테를 발견했을 때와 집으로 데려오는 동안 그가 했던 온갖 헛소리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부는 다음 날 계획을 세우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신부는 친구인 이발사 마에스 니콜라스를 불러 돈키호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6장



제6장. 신부와 이발사가 우리 현명한 귀족의 서재에서 행한, 즐겁고도 거대한 검열에 대하여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신부는 조카에게 책들이 가득한 방의 열쇠를 달라고 부탁했고, 조카는 아주 흔쾌히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 방에는 해악을 끼친 원흉인 책들이 있었다. 신부와 이발사, 그리고 가정부까지 모두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주 잘 제본된 커다란

책이 백 권도 넘게 있었고, 작은 책들도 섞여 있었다. 가정부는 책들을 보자마자 아주 급히 방을 나갔다. 그러더니 곧 성수 그릇과 성수 뿌리개를 들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 여기 있습니다. 이 방에 성수를 뿌려 주십시오. 이 책들에 깃든 수많은 마법사 중 하나라도 숨어 있다가, 우리가 이 책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벌을 내리는 바람에 우리에게 마법을 걸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부의 그 순진한 말에 신부는 웃음이 터졌다. 신부는 이발사에게 책을 한 권씩 가져오라고 시켰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혹시 불태워 없앨 필요가 없는 책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아니요." 조카가 말했다. "한 권도 봐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해로운 책들이니까요. 차라리 창밖 마당으로 던져버린 다음, 한데 모아서 불을 지르는 게 낫겠어요. 그게 안 되면 마당 구석으로 가져가서 불을 피우면 되죠. 그러면 연기가 올라와서 눈이 따가울 일도 없을 거예요."

가정부도 똑같이 말했다. 그 두 여인이 그 무고한 책들이 사라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른다. 하지만 신부는 제목이라도 먼저 읽어보지 않고서는 선뜻 동의하려 하지 않았다. 마에세 니콜라스가 신부의 손에 처음으로 건네준 책은 『아마디스 데 가울라』 네 권이었다. 신부는 그 책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꽤나 미스터리한 물건이로군. 내가 듣기로는 이 책이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인쇄된 기사도 소설이라고 하더군. 다른 모든 책도 다

이 책에서 시작되었고. 그러니 이 책은 마치 해로운 이단에 교리를 전파한 자와 같으니, 아무런 변명의 여지도 없이 불태워 없애야 마땅할 것 같네." 신부가 말했다.

"아닙니다, 신부님." 이발사가 말했다. "저도 듣기로는 이 책이 이런 종류의 책들 중 단연 최고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작품인 만큼, 한 번쯤은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맞네." 신부가 말했다. "그러니 일단은 이 책을 살려두기로 하지. 자, 그 옆에 있는 다른 책도 한번 보세나."

"이건 '아마디스 데 가울라의 적자, 에스플란디안의 모험'이라는 책입니다." 이발사가 말했다.

"정말이지," 신부가 말했다.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아들까지 훌륭한 건 아니구먼. 여봐요, 가정부 아주머니. 저 창문을 열고 저 책을 마당으로 던져버리시오. 이제 곧 불을 지필 테니, 화덕에 쌓을 책더미를 만들기 시작합시다."

가정부 아주머니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리하여 착한 에스플란디안은 자신을 위협하는 불길이 닥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마당으로 날아갔다.

"자, 다음!" 신부가 말했다.

"자, 다음 건 이겁니다." 이발사가 말했다. "아마디스 데 그리스예요. 제 생각엔 이쪽에 있는 책들도 전부 아마디스와 같은 계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부 마당으로 가져가게." 신부가 말했다. "핀티키니에스트라 여왕과 목동 다리넬, 그의 목가시들, 그리고 그 작가의 악마같이 뒤엉킨 헛소리들을 태울 수만 있다면, 그 대가로 나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도 그 책들과 함께 태워버리겠네. 아버지가 편력기사 차림으로 돌아다니기라도 한다면 말일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발사가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카가 덧붙였다.

"정말 그래요." 가정부가 말했다. "어서 가져가서 마당 화로에 던져버립시다."

책이 워낙 많아서 다 옮기기 힘든 나머지, 가정부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덜려고 창문 아래로 책들을 바로 던져버렸다.

"저 통은 대체 무엇입니까?" 신부가 물었다.

"이건 '로라의 돈 올리반테'라는 책입니다." 이발사가 대답했다.

"그 책의 저자는 '꽃의 정원'을 쓴 사람과 같습니다." 신부가 말했다. "두 책 중 어느 쪽이 더 진실한지,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느 쪽이 덜 거짓말인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군요. 다만 이 책은 터무니없

고 오만하기 짝이 없어서 마당 화로에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음은 '히르카니아의 플로리모르테'입니다." 이발사가 말했다.

"플로리모르테 경이 거기 있습니까?" 신부가 대답했다. "그 기이한 출생과 이름난 모험들이 아무리 대단한들, 이 책도 곧 화로로 직행할 게 분명합니다. 문체가 워낙 딱딱하고 건조해서 다른 용도로 쓰일 리가 없거든요. 부인, 이 책과 저 책 모두 화로에 던져버리시지요."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주인님."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시키는 대로 아주 즐겁게 일을 해 나갔다.

"이건 『플라티르 경』이군요." 이발사가 말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책이군요." 신부가 말했다. "내용을 봐도 봐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토 달지 말고 다른 책들과 함께 치워버리세요."

그렇게 처리했다. 또 다른 책을 펼쳐 보니, 제목이 『십자가 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책의 이름이 이토록 성스럽다면 그 무지함 정도는 눈감아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십자가 뒤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서 불속으로 던져버리세요." 신부가 말했다.

이발사가 또 다른 책을 집어 들며 말했다.

"이건 『기사도의 거울』이라는 책이군요." 이발사가 말했다.

"그 책은 저도 잘 압니다." 신부가 말했다. "거기엔 레이날도스 데 몬탈반과 그의 동료들이 나오지요. 그놈들은 카코보다 더한 도둑놈들이에요. 열두 기사와 참된 역사가 투르핀도 등장하고요. 사실 저는 그 책들을 영원히 추방해 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책들이 유명한 마테오 보야르도의 상상력을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죠. 기독교 시인 루도비코 아리오스토도 그 내용을 가져다 썼고요. 만약 아리오스토가 여기 나타나서 저와 다른 언어로 말한다면 조금도 존중하지 않겠지만, 만약 제 언어로 말한다면 기꺼이 그를 우러러보겠습니다."

"그 책이라면 저는 이탈리아어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발사가 말했다. "하지만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신부가 대답했다. "그 대위 나리께서 이 작품을 스페인으로 가져와 카스티야어로 옮기지만 않으셨더라면, 우리도 그분을 용서해 드렸을 텐데 말입니다. 스페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작품 본연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었으니까요. 운문으로 된 책들을 다른 언어로 옮기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솜씨를 발휘한다 해도, 원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지닌 그 맛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 말은 이렇습니다. 이 책을 포함해서 프랑스 이야기를 다룬 책들은 전부 마른 우물에 던져 넣어 버립시다.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 더 좋은 방도를 찾아볼 때까지 말입니다. 다만 그 어디쯤 돌아다니는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와 론세스바예스라는 제목의 책 두 권만은 예외로 둡시다. 이 두 권은 제 손에

들어오는 즉시 가정부의 손으로 넘겨, 예외 없이 화로에 던져 버릴 겁니다."

이발사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신부의 판단이 아주 옳다고 생각했다. 신부가 워낙 신앙심 깊고 진실한 사람이라,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옳은 소리만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발사가 다른 책 한 권을 펼쳐 보니, 그것은 「팔메린 데 올리바」라는 책이었고, 그 옆에는 「팔메린 데 잉글라테라」라는 제목의 책이 놓여 있었다. 이를 본 학사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저 올리바(Oliva)는 당장 쪼개서 태워 버립시다. 재 한 줌조차 남지 않게 말입니다. 하지만 저 잉글라테라의 팔마(Palma)는 아주 귀한 물건인 양 잘 보관해야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다리오의 전리품 중에서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담아두려 찾아냈던 상자처럼, 저 책을 위한 상자를 따로 하나 만듭시다. 이보게, 친구. 이 책은 두 가지 이유로 가치가 있네. 우선 책 자체가 아주 훌륭하고, 또 포르투갈의 현명한 왕이 썼다는 명성이 자자하기 때문이지. 미라구아르다 성에서 벌어지는 모험들은 하나같이 기막히게 재미있고 구성도 아주 치밀하네. 대화 내용도 품격 있고 명쾌해서, 말하는 이의 예의와 품위를 아주 적절하고도 영리하게 잘 살려냈단 말일세. 그러니 니콜라스 선생, 자네 뜻이 허락한다면 이 책과 「아마디스 데 가울라」만큼은 화를 면하게 합시다. 나머지 책들은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전부 불태워 버리자고."

"아니오, 친구." 이발사가 대답했다. "여기 내가 들고 있는 이 책은 그 유명한 「돈 벨리아니스」라네."

"그렇다면 그 책은," 신부가 대답했다. "제2부, 제3부, 제4부와 더불어 지나친 혈기를 가라앉히려면 대황(大黃)을 좀 먹어야 할 정도라네. '명성의 성'에 나오는 이야기며 그보다 더 대단한 척하는 허튼소리들은 전부 다 솎아내야 해. 그러자면 바다 건너에서나 처리할 기한을 줄 수밖에 없지. 나중에 그 책들이 제대로 고쳐지면 그때 자비를 베풀든 엄벌을 내리든 합시다. 그러니 친구, 일단 자네 집에 가져가 두게나.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책을 읽게 해서는 안 되네."

"기꺼이 그러지요." 이발사가 대답했다.

더는 기사도 소설을 읽으며 힘을 빼고 싶지 않았던 신부는, 가정부에게 큰 책들을 전부 가져다가 마당 화로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했다. 가정부는 바보도, 귀머거리도 아니었다. 비단이 아무리 크고 얇다 한들, 그녀는 옷감을 챙기는 일보다 책을 태워버리는 일에 훨씬 더 열을 올렸다. 그녀는 한 번에 여덟 권씩 책을 움켜쥐고는 창밖으로 내던졌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책을 던지던 중, 책 한 권이 이발사의 발치로 떨어졌다. 호기심이 생긴 이발사가 그 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유명한 기사 티란테 엘 블랑코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다.

"맙소사!" 신부가 크게 소리치며 말했다. "여기 티란테 엘 블랑코가 있구나! 이보게, 친구, 그 책을 이리 내주게나. 이 책 안에서 나는 커다란 즐거움의 보물과 끝없는 재미의 광산을 발견한 기분이라네. 여기 용맹한 기사 돈 키리에레이손 데 몬탈반과 그의 형제 토마스 데 몬탈반이 있고, 기사 폰세카도 있네. 용감한 티란테가 맹견과 맞서 싸운 전투와 처녀 플라세르데미비다의 기지, 그리고 과부 레포사다의 사랑과 속임

수, 자신의 시종 히폴리토를 사랑하게 된 황후의 이야기도 여기 다 들어 있단 말일세. 친구, 내 진심을 말하건대, 이 책은 문체로 보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네. 여기서는 기사들이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죽기 전에 유언장까지 남긴다네. 다른 기사도 소설에는 없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단 말이지. 그렇긴 해도, 이 책을 쓴 작가로 말하자면, 그토록 많은 어리석은 짓을 일부러 지어낸 것도 아니면서 평생토록 갤리선 노역형에 처해 마땅한 자라네. 어쨌든 이 책을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보게나.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걸세."

"그렇게 하죠." 이발사가 대답했다. "그런데 남은 이 작은 책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은" 신부가 말했다. "기사도 소설이 아니라 시집인 모양이군."

신부가 책 한 권을 펼쳐 보니 호르헤 데 몬테마요르가 쓴 『디아나』였다. 신부는 나머지 책들도 모두 같은 종류일 것이라 짐작하며 말했다.

"이것들은 다른 책들처럼 태워버릴 가치도 없네. 기사도 소설들이 저지른 것만큼 해를 끼치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식견을 넓혀주는 책들이라네." 신부가 말했다.

"아이고, 나으리!" 조카가 말했다. "그 책들도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태워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삼촌이 기사도 광증에서 겨우 나았는데, 이런 책들을 읽다가 갑자기 목동이 되고 싶어지면 어쩌겠어요? 숲이나 초원을 돌아다니며 노래 부르고 악기나 연주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니까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시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시인이 되는 건 고치지도 못할 데다 전염성까지 있는 병이라잖아요."

"이 아가씨 말이 맞네." 신부가 말했다. "우리 친구가 다시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미리 치워두는 게 좋겠어. 우선 몬테마요르의 「디아나」부터 살펴보자면, 이 책은 태우지 않는 게 좋겠네. 다만 지혜로운 펠리시아와 마법의 샘물을 다루는 부분, 그리고 거의 모든 긴 운문(장형 시구)은 다 빼버리게나. 대신 산문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겠어. 이런 종류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책이라는 명예만큼은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

"다음 책은 살만카의 작가가 쓴, 「디아나」의 속편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이발사가 말했다. "그리고 이 책은 같은 제목을 가졌지만, 길 폴로가 쓴 또 다른 책입니다."

"살만카 작가의 책은 마당 화로로 던져질 죄인들의 수만 늘릴 뿐이니 태워버리세." 신부가 대답했다. "길 폴로의 책은 마치 아폴로가 쓴 것처럼 귀하게 보관해두고 말이야. 자, 어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보게. 시간이 늦어지고 있으니 서두르자고."

"다음 책은 이것입니다." 이발사가 다른 책을 펼치며 말했다. "사르데냐의 시인 안토니오 데 로프라소가 쓴, 「사랑의 운명에 관한 열 권의 책」입니다."

"내가 받은 성직(聖職)을 두고 맹세하건대." 신부가 말했다. "아폴로가 아폴로이고 뮤즈가 뮤즈이며 시인이 시인으로 존재했던 이래, 이 책만큼 재미있으면서도 황당무계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었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런 종류의 책들 중 가장 훌륭하고 독보적인 작품이지.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진정한 묘미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셈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라네. 자, 이보게, 그 책을 이쪽으로 넘겨주게나. 피렌체산 나사(羅紗)로 지은 수단복 한 벌을 받느니 이 책을 찾아낸 게 훨씬 더 값진 일일 테니까."

이발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책을 따로 떼어 놓았다.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다음 책들은 『이베리아의 목자』, 『에나레스의 님프들』, 그리고 『질투의 환멸』이라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없네." 신부가 말했다. "가정부에게 이 책들을 넘겨주는 수밖에. 왜 그래야 하는지 묻지는 말게나. 대답하다 보면 끝도 없을 테니까."

"다음 책은 『필리다의 목자』라네."

"이건 목자가 아니라 아주 신중한 궁정 관리라네." 신부가 말했다. "보석처럼 귀하게 보관하게나."

"여기 있는 이 커다란 책의 제목은 『여러 시 모음집의 보물』이라네." 이발사가 말했다.

"그 안에 담긴 시들이 그렇게 많지만 않았다면 더 귀하게 평가받았을 텐데." 신부가 말했다. "이 책은 그 빼어난 내용들 사이에 섞여 있는 저급한 부분들을 골라내고 깨끗이 다듬어야 하네. 그래도 잘 보관해 두게나. 저자가 내 친구이기도 하거니와, 그가 쓴 다른 영웅적이고 숭고한 작품들을 봐서라도 예우를 갖춰야 하지 않겠나."

"이건 로페스 말도나도의 『가요집』이라네." 이발사가 말을 이었다.

"그 책의 저자 또한 내 아주 친한 친구라네." 신부가 대답했다. "그가 읊는 시구는 듣는 이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훌륭하지. 시를 노래하는 목소리가 어찌나 감미로운지 듣고 있으면 넋을 잃을 정도라네. 목가시(牧歌詩) 부분이 좀 길긴 하지만, 본디 좋은 것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친 법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엄선된 책들과 함께 잘 보관해 두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건 무슨 책인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갈라테아』라네." 이발사가 말했다.

"그 세르반테스라는 친구와는 알고 지낸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네. 내가 알기로 그는 시를 쓰는 재주보다 불행한 사연을 늘어놓는 재주가 더 뛰어나더군. 그의 책은 구성 면에서 나쁘지 않은 구석이 있긴 하네. 무언가 이야기를 던져놓기는 하는데, 끝맺음을 못 하니 말이야. 약속한 대로 제2부가 나오기를 기다려봐야겠지. 아마 다음 편에서는 부족

한 점을 보완해서, 지금은 받지 못하는 찬사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네.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보게 친구, 그를 자네 숙소에 잠시 가두어 두게나." 신부가 말했다.

"기꺼이 그래야지." 이발사가 대답했다. "여기 세 권이 한꺼번에 나오는군. 돈 알론소 데 에르시야의 『아라우카나』, 코르도바의 시참사회원(jurado) 후안 루포가 쓴 『아우스트리아다』, 그리고 발렌시아의 시인 크리스토발 데 비루에스가 쓴 『몬세라토』라네."

"이 세 권의 책은 모두 스페인어로 쓰인 영웅 서사시 중에서 최고라 할 만하네.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작품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지. 스페인이 가진 가장 보배로운 시적 자산이니 잘 보관해 두게나." 신부가 말했다.

신부는 책을 더 살펴보는 것이 지겨워졌다. 그래서 남은 책들을 몽땅 한꺼번에 태워버리자고 했다. 하지만 이발사는 이미 『안젤리카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책 한 권을 펼쳐 든 상태였다.

"만약 그 책을 태워버리라고 했다면 내가 직접 눈물을 흘려주었을 것이네." 그 제목을 듣자마자 신부가 말했다. "그 책의 저자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 높은 시인이었네. 오비디오의 우화들을 번역한 작업도 아주 훌륭하게 해냈지."

제7장



제7장. 우리의 선량한 기사 돈키호테가 두 번째 모험을 떠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러던 중, 돈키호테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외치기 시작했다.

"여기다, 여기! 용맹한 기사들이여! 여기야말로 그대들의 용맹한 팔뚝 힘을 보여줄 때다! 궁정 기사들이 이 시합의 승리를 가로채고 있단 말이다!"

이 소란과 소동을 듣고 달려온 이들은 남은 책들을 일일이 검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래서 분명히 남아 있어야 했을 책들인 『카롤레아』와 『스페인의 사자』, 그리고 돈 루이스 데 아빌라가 지은 『황제의 업적』 같은 책들은 아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그대로 불길 속으로 사라진 듯하다. 만약 신부가 그 책들을 직접 보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돈키호테에게 다다랐을 때, 그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는 마치 잠을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처럼 정신이 말짱한 상태로, 사방에 칼질을 해대며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껴안아 억지로 침대에 눕혔다. 그가 조금 진정되자, 그는 다시 신부에게 말을 건넸다.

"사실 투르핀 대주교님, 우리처럼 열두 명의 기사단원이라 불리는 이들이, 지난 사흘 동안 모험가인 우리가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토너먼트의 승리를 궁정 기사들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은 우리 기사단의 큰 손실입니다."

"이보게, 친구—신부가 말했다—. 운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법이니, 오늘 잃은 것을 내일 다시 얻게 해달라고 하세. 지금은 그저 몸조리부터 하게나. 자네가 다친 데다 기운까지 다 빠져서 무척이나 지쳐 있는 것 같으니 말일세."

"다친 건 아니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온몸이 으스러지고 만신창이가 된 건 분명하네. 저 사생아 같은 롤단 녀석이 참나무 둥치로 나를 흠씬 두들겨 팼거든. 모두가 질투 때문이지. 나 혼자만이 제 용맹에 맞설 자라는 걸 알고 시기한 게야. 하지만 내가 이 침대에서 일어나, 그자가 어떤 마법을 부리든 기어이 앙갚음하지 못한다면, 나를 몬탈반의 레이날도라 부르지도 말게. 우선은 먹을 것을 좀 가져다주게. 지금 내게 가장 절실한 건 바로 그것일 테니. 복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게."

그들은 말한 대로 했다. 음식을 가져다주자 돈키호테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은 그의 광기에 혀를 내둘렀다.

그날 밤, 가정부는 마당과 집안 곳곳에 있는 책을 모조리 가져다가 불태워 버렸다. 그중에는 영구히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도 분명 함께 타 버렸으나, 불운한 운명과 검수자의 게으름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때로는 죄인 대신 애먼 의인이 벌을 받는다는 속담이 그 책들에게 그대로 들어맞고 말았다.

당시 신부와 이발사가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써낸 처방 중 하나는, 책이 가득한 방을 없애고 벽을 쌓아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돈키호테가 깨어났을 때 책이 보이지 않게 하면, 어쩌면 원인이 사라져 병도 나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마법사가 책은 물론 방 전체를 통째로 가져갔다고 말하라고 일렀다. 그들은 즉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틀 뒤 돈키호테가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책들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책이 있던 방이 보이지 않자, 그는 방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예전에 문이 있던 자리까지 가서 손으로 더듬어 보기도 하고, 아무 말도 없이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주변을 살피기도 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가정부에게 자신의 책들이 있는 방이 어느 쪽에 있느냐고 물었다. 가정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떤 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대체 무엇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집에는 이제 방도, 책도 남아 있지 않답니다. 악마가 전부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악마가 아니었어요." 조카가 대답했다. "어느 날 밤, 나으리가 이곳을 떠나신 다음 날에 구름을 타고 나타난 마법사였죠. 그는 기사처럼 올라타고 오던 뱀에서 내려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고는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붕을 뚫고 날아가 버리면서 집 안을 연기로 가득 채웠어요. 저희가 뒤처리를 살펴보려 정신을 차렸을 땐 책도, 방도 흔적조차 없었답니다. 저와 가정부는 그 고약한 노인이 떠나면서 큰 소리로 외치던 말만은 똑똑히 기억해요. 이 책들과 방의 주인에게 남몰래 원한을 품고 있던 터라, 나중에 드러나게 될 해코지를 이 집에 끼쳐 놓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현자 무냐톤이라고도 했답니다."

"프레스톤이라고 했겠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프레스톤인지 프리톤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정부가 대답했다. "그저 이름이 '톤'으로 끝났다는 것만 알 뿐이지요."

"그렇고말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자는 나를 미워하는 현명한 마법사이자 나의 큰 적이라네. 그자가 나를 그토록 시기하는 까닭은, 제 마법과 학문으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지. 세월이 흐르면 내가 어떤 기사와 단독 결투를 벌이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그자가 후원하는 그 기사를 내가 반드시 꺾으리라는 것, 게다가 그자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리되리라는 것을 말이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지. 하지만 하늘이 정해 놓은 일을 그자가 거스르거나 피하기란 어림없으리라고, 내 그에게 단언하는 바이네."

"그걸 누가 의심하겠어요?" 조카딸이 말했다. "하지만 삼촌, 대체 누가 삼촌을 그런 싸움질에 휘말리게 하는 건가요? 그냥 집에서 평온하게 계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괜히 고생만 사서 하지 마세요. 양털을 잡으러 나갔다가 알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사람이 한둘인 줄 모르시나 봐요?"

"오, 나의 조카딸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상황을 얼마나 잘못 짚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알거지가 되기 전에, 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려 하는 자들의 수염을 먼저 다 뽑아버리고 말 테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돈키호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보름 동안 집에서 아주 평온하게 지냈고, 처음의 그 망상에 다시 빠져들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두 친구인 신부, 이발사와 더불어 더없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는 세상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편력기사이며, 기사도가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신부는 때때로 그의 말에 반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맞장구를 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맞춰 주지 않으면 도무지 그와 대화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무렵, 돈키호테는 이웃에 사는 한 농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선량한 사람이었으나—가난한 사람에게 선량하다는 칭호를 붙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돈키호테가 워낙 간곡하게 말하며 설득하고 약속을 늘어놓은 나머지, 가난한 농부는 결국 그와 함께 길을 떠나 종자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돈키호테는 다른 말도 했지만,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를 다독였다. 어쩌면 모험 중에 눈 깜짝할 사이에 섬 하나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를 그 섬의 총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다. 이런 약속과 온갖 감언이설에 솔깃해진 산초 판사라는 이름의 그 농부는 아내와 자식들을 뒤로한 채 이웃집 돈키호테의 종자가 되기로 했다.

돈키호테는 곧 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물건을 팔기도 하고 저당을 잡기도 하며, 가진 것들을 닥치는 대로 처분한 끝에 제법 넉넉한 돈을 모았다. 또한 친구에게 방패 하나를 빌려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는 부서진 투구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손질해 갖추었다. 그러고 나서 종자인 산초에게 언제 길을 떠날 것인지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며, 산초 스스로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지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두라고 일렀다. 특히 그는 산초에게 짐을 실을 가방을 챙겨 오라고 당부했다. 산초는 가방을 가져가겠다고 대답하며, 자신은 오래 걷는 데 익숙하지 않으니 아주 상태가 좋은 당나귀도 한 마리 데려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돈키호테는 당나귀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혹시 예전에 어떤 편력기사가 당나귀를 타고 온 종자를 데리고 다닌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려 애썼으나, 끝내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일단 당나귀를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길에서 처음 마주치는 무례한 기사의 말을 빼앗아 더 번듯한 말을 구하겠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돈키호테는 여관 주인이 해준 조언에 따라 셔츠와 그 외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산초 판사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고 돈키호테 역시 주인 아주머니와 조카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떠났다. 그들은 밤새도록 아주 멀리 걸어갔기에, 날이 밝았을 때는 설령 누군가 자신들을 찾아 나선다 해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산초 판사는 짐 가방과 가죽 물통을 싣고, 마치 족장이라도 된 양 당나귀 위에 올라앉아, 주인이 약속한 섬의 총독이 될 날만을 간절히 꿈꾸었다. 돈키호테는 첫 번째 여정 때와 똑같은 길을 택해 몬티엘 들판을 지나갔다. 아침 시간이라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덕분에, 지난번보다는 한결 수월하게 길을 갈 수 있었다. 이때 산초 판사가 주인에게 말했다.

"나으리, 기사님, 제가 섬의 총독이 될 거라 약속하신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섬이 아무리 크더라도 제가 아주 잘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러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보게, 친구 산초 판사, 잘 들어두게나. 옛날의 편력기사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섬이나 왕국의 총독으로 종자를 임명하는 관습이 아주 흔했다네. 나 또한 그 고마운 관습을 반드시 따를 생각이라네.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앞서 나갈 작정이지. 옛 기사들은 종자가 늙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거든. 온갖 고생을 다 하며 모진 세월을 보낸 뒤에야 겨우 백작이나, 잘해야 후작 같은 작위를 내려주곤 했지. 그마저도 그리 대단치 않은 골짜기나 지방의 작위였네. 하지만 자네와 내가 살아만 있다면, 채 엿새가 지나기도 전에 내가 그런 왕국을 정복할 수도 있을 걸세. 게다가 그 왕국에 딸린 영토까지 얻게 된다면, 자네를 그중 한 곳의 왕으로 세우기에 딱 좋겠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기사들에게는 전례도 없고 상상조차 못 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네. 그러니 내가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자네에게 줄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나으리께서 말씀하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제가 왕이 된다면, 적어도 제 아내 후아나 구티에레스는 왕비가 될 테고, 제 자식들은 왕자가 되겠군요."

"그거야 의심할 여지가 무엇이겠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들을 비처럼 내려주신다 해도, 마리 구티에레스의 머리 위에는 그 어떤 왕국도 제대로 안착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나으리,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 여자는 왕비가 되기엔 두 마라베디의 가치도 안 됩니다.

차라리 백작부인이 딱 어울릴 테고, 그마저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게나,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을 내려주실 테니까. 하지만 너무 기죽지는 말게. 적어도 변경 총독(아델란타도) 자리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고 마는 일은 없도록 하게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으리." 산초가 대답했다. "무엇보다 나으리께서 저의 가장 중요한 주인님이시니, 제게 꼭 필요하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내어주실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8장



제8장. 용맹한 돈키호테가 무시무시하고 상상조차 못 했던 풍차 모험에서 거둔 의외의 성과와, 그 외에 행복하게 기억할 만한 여러 사건에 대하여

그때, 그 들판에 있는 서른 혹은 마흔 개의 풍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키호테는 풍차들을 보자마자 종자에게 말했습니다.

"운명이 우리의 일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끌어주고 있구나. 저기 보아라, 산초 판사 친구여. 서른 개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나는 저들과 싸워 모두 목숨을 빼앗을 생각이다. 그리고 저들의 전리품으로 우리는 부유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보람 있는 전쟁이지. 저토록 악한 씨앗을 지상에서 뿌리 뽑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커다란 봉사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거인이라니요?" 산초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자들 말이다."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팔이 아주 길어서, 어떤 놈들은 팔 길이만 거의 두 레구아나 된다고."

"나으리, 잘 보십시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거인이 아니라 풍차입니다. 팔처럼 보이는 건 풍차 날개고요. 바람이 불어 날개가 돌아가면 그 힘으로 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보아하니 너는 모험이라는 게 무엇인지 도통 모르는 모양이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저들은 거인이다. 만약 겁이 난다면 저기서 물러나, 내가 저들과 사납고 불공평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나 올리고 있거라."

말을 마친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의 옆구리를 걷어차며 돌진했습니다. 종자 산초가 저것은 거인이 아니라 분명 풍차라고 소리치며 만류했

지만, 그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돈키호테는 저것이 거인이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초의 외침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풍차가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겁쟁이 같으니! 비겁한 것들아! 오직 한 명의 기사가 너희에게 맞서러 왔다!"

그때 마침 바람이 조금 불어오더니 거대한 날개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좋다, 설령 너희가 거인 브리아레오보다 더 많은 팔을 휘두른다 해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말을 마치자마자 돈키호테는 자신의 여주인 둘시네아에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청하며, 방패로 몸을 잘 가리고 창을 겨눈 채 로시난테를 전력으로 질주시켜 눈앞에 있는 첫 번째 풍차로 돌진했습니다. 돈키호테가 풍차 날개를 향해 창을 내질렀으나, 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날개를 돌리는 바람에 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말과 기사까지 그 기세에 함께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돈키호테는 들판을 굴러다니며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산초 판사가 나귀를 타고 전력 질주하며 그를 도우러 달려갔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돈키호테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로시난테가 가한 충격이 그만큼이나 컸던 것입니다.

"맙소사, 세상에!" 산초가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건 그냥 풍차일 뿐이니 제발 잘 보고 행동하시라고요.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만 가득 찬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입 다물게, 산초 친구."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원래 다른 무엇보다도 변화무쌍한 법이라네. 게다가 내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한데, 내 거처와 책들을 훔쳐 간 저 마법사 프레스톤이 나에게 승리의 영광을 뺏으려고 저 거인들을 풍차로 바꿔버린 것이 분명하네.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악한 술수도 내 검의 선함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네."

"하느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요." 산초 판사가 대답했습니다.

산초 판사가 돈키호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자, 돈키호테는 어깨가 반쯤 어긋난 로시난테의 등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은 방금 겪은 모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푸에르토 라피세 방향으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곳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라, 수많은 모험이 끊이지 않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창을 잃은 것이 못내 아쉬운 듯 몹시 상심한 기색이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종자에게 그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디에고 페레스 데 바르가스라는 이름의 스페인 기사가 있었단다. 그가 전투 중에 칼이 부러지자, 상수리나무

에서 굵직한 가지나 밑동을 꺾어 그날 아주 대단한 일을 해냈지. 무어인들을 어찌나 박살을 냈던지 '마추카(Machuca, 짓이기는 자라는 뜻)'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와 그의 후손들은 바르가스와 마추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단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길을 가다 처음으로 마주치는 상수리나무나 참나무에서 그가 꺾었던 것만큼이나 훌륭한 밑동을 하나 꺾어낼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아주 대단한 업적을 세울 상상을 하고 있단다. 그러면 너도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곁에서 지켜본 행운아라고 자부하게 될 게다."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하느님 뜻에 맡기지요." 산초가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든 다 믿습니다만, 몸을 좀 똑바로 세우십시오. 자꾸 옆으로 기우는 게, 아까 넘어진 데가 아직 아파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 말이 맞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통증을 내색하지 않는 건, 설령 창자가 밖으로 쏟아지는 상처를 입더라도 편력기사는 결코 아프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가 있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어디든 아픈 곳이 생기면, 제발 좀 아프다고 불평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빌 정도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아주 작은 통증이라도 생기면 바로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는 성미거든요. 편력기사의 종자라면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법도 같은 게 있더라도 말입니다."

돈키호테는 종자의 단순함이 우스워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산초에게, 원할 때는 언제든 기분이 좋든 아니든 마음껏 아프다고 불평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사도 규율에서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읽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초가 이제 식사할 시간이라고 일러주자, 주인은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으니 산초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허락이 떨어지자 산초는 나귀 위에 최대한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괴나리봇짐에서 챙겨온 음식들을 꺼내, 주인 뒤를 아주 느긋하게 따라가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산초는 가끔씩 가죽 술부대를 들어 올려 어찌나 맛있게 포도주를 들이켜던지, 말라가의 그 어떤 호사스러운 선술집 주인이라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먹는 동안, 산초는 주인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모험을 찾아 떠도는 일이 아무리 위험할지언정, 그에게는 그저 더없이 편안한 휴식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들은 나무들 사이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돈키호테는 나무 중 하나에서 창 대신 쓸 만한 마른 가지 하나를 꺾더니, 부러진 창에서 떼어낸 철제 촉을 그 가지 끝에 끼웠습니다. 돈키호테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사들이 숲이나 황야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며 여러 밤을 뜬눈으로 지새운다는 기사도 소설의 내용을 본받아, 오로지 자신의 귀부인 둘시네아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초 판사는 달랐습니다. 치커리 물이 아니라 음식으로 배를 든든히 채운 산초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굴을 내리쬐는 햇살도, 새날을 반기며 즐겁게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도,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산초

를 깨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에서 깬 산초는 가죽 술부대를 들어 한 모금 마셔보더니, 어젯밤보다 부대가 홀쭉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부족분을 금방 채울 길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달콤한 추억만으로도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푸에르토 라피세로 향하는 원래의 길로 돌아갔고, 낮 세 시쯤 되어서야 목적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보아라." 돈키호테가 목적지를 발견하고는 말했습니다. "산초 판사 형제여, 드디어 우리가 이른바 '모험'이라는 것에 팔을 푹 담글 때가 되었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설령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더라도,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비천한 부류나 천한 자들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지 않는 한, 나를 돕겠다고 검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만약 상대가 천한 자들이라면 그때는 네가 나를 도와도 좋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기사라면, 네가 정식으로 기사 작위를 받기 전까지는 기사도 규율에 따라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돕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다."

"그건 그렇고,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싸움이나 소란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성미니까요. 하지만 제 몸을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그 법들을 그리 따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신의 법이든 인간의 법이든, 누구든 자신을 해치려는 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니까요."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에 맞서 나를 돕는 일에서만큼은, 네 타고난 충동을 억누르고 자제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그 규칙을 일요일처럼 엄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길 저편에서 성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도사 두 명이 마치 단봉낙타라도 탄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노새 두 마리가 단봉낙타 못지않게 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여행용 보안경을 쓰고 양산을 받쳐 든 채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마차 한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말 탄 수행원 네다섯 명과 나귀를 끄는 마부 두 명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마차에는 세비야로 향하는 비스카야 출신의 귀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비야에는 그녀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명예로운 직책을 맡아 신대륙(서인도 제도)으로 건너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그 귀부인과 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일행은 아니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들을 보자마자 종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 될 것이다. 저기 검게 보이는 형체들은 분명 저 마차에 공주를 납치해 실은 마법사들임이 틀림없으니, 내 모든 힘을 다해 저 불의한 일을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풍차보다 상황이 더 나쁠 겁니다." 산초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잘 좀 보세요. 저분들은 성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도사들이고, 마차도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잘 좀 살펴보시라고요. 혹시라도 악마가 주인님을 속이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산초야,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모험의 생리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 적구나.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마친 돈키호테는 앞으로 나아가 수도사들이 오는 길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악마 같은 괴물들아, 당장 그 마차에 강제로 태운 고귀한 공주들을 놓아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행에 대한 정당한 심판으로서,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수도사들은 고삐를 당겨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돈키호테의 기이한 모습은 물론, 그가 내뱉는 말에 깜짝 놀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사님, 저희는 악마도 아니고 괴물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성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도사 두 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마차에 강제로 태워진 공주님이 타고 계신지 아닌지는 저희도 알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감언이설은 통하지 않는다. 네놈들이 비열한 무리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돈키호테는 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로시난테를 몰았습니다. 그러고는 창을 낮게 겨눈 채 첫 번째 수도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기세와 용맹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만약 그 수도사가 타고 있던 노새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돈키호테의 창에 밀려 본의 아니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쳤을 것이며, 운이 나쁘면 죽지는 않더라도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동료가 당하는 꼴을 본 두 번째 수도사는 자신의 튼튼한 노새 옆구리에 두 다리를 힘껏 붙이고는, 바람보다도 더 빠르게 들판을 가로질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수도사를 본 산초 판사는 타고 있던 당나귀에서 가볍게 내려와 수도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수도사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도사들을 모시는 두 명의 시종이 나타나, 왜 옷을 벗기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산초는 자신의 주인인 돈키호테가 승리한 전투의 전리품으로서 이것을 챙기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 전리품이나 전투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시종들은, 돈키호테가 이미 멀리 떨어져 마차에 타고 온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는, 산초에게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그러고는 수염 한 가닥도 남기지 않겠다는 기세로 산초를 사정없이 걷어찼고, 결국 산초는 숨도 못 쉬고 정신을 잃은 채 땅바닥에 뻗고 말았습니다. 한편 수도사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겁에 질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 채 다시 노새에 올랐습니다. 노새에 오른 그는, 멀찍이 떨어져 이 소동이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보며 기

다리던 동료를 향해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 갑작스러운 소동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기다릴 여유도 없이, 마치 등에 악마라도 업은 듯 연신 성호를 그어 대며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돈키호테는 앞서 말한 대로 마차에 타고 온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그 고귀한 아름다움은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을 약탈했던 오만한 자들은 이미 제 강인한 팔에 쓰러져 땅바닥에 뒹굴고 있으니까요. 또한, 당신을 구해준 이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실 테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방랑 기사이자 모험가이며,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우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의 포로이지요. 제가 베푼 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께서 엘 토보소로 돌아가셔서, 저를 대신해 이 귀부인 앞에 나아가 당신의 자유를 위해 제가 무엇을 했는지 전해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돈키호테가 이 모든 말을 하는 동안, 마차를 수행하던 일행 중 비스카야 출신의 한 종자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키호테가 마차를 앞세워 보내려 하지 않고, 곧장 엘 토보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는 돈키호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돈키호테의 창을 붙잡고는, 서툰 카스티야어와 그보다 더 엉망인 비스카야식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쇼, 길을 잘못 든 기사 양반! 나를 키워주신 하느님께 맹세컨대, 마차를 비켜주지 않으면 지금 거기 서 있는 당신을 비스카야 놈처럼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말 테니까!"

돈키호테는 그 말을 아주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기사였다면 — 하지만 너는 기사가 아니지 — 내 진작에 그 어리석고 무례한 짓을 응징했을 것이다, 이 비천한 것아!"

그러자 비스카야 출신의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기사가 아니라고? 하느님께 맹세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만큼이나 네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창을 던지고 칼을 뽑아라, 그러면 고양이가 물을 채가듯 순식간에 끝장나는 꼴을 보게 될 테다! 땅에서도 비스카야 사람, 바다에서도 귀족, 악마를 걸고서도 귀족이다. 다른 소리를 지껄였다간 그게 바로 거짓말이니, 조심해라!"

"'이제 곧 보게 되리라!' 아그라헤스도 그렇게 말했지!" 하고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창을 땅에 내던지고는 칼을 뽑아 들고 방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비스카야 놈의 목숨을 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달려드는 돈키호테를 본 비스카야 놈은 급히 노새에서 내려오려 했으나, 빌려 온 노새가 워낙 형편없는 놈이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칼을 뽑아 드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차 근처에 있던 그는 마차에서 베개 하나를

집어 들어 방패 삼아 막아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마치 서로를 죽이려는 원수처럼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싸움을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스카야 놈이 횡설수설하며, 만약 싸움을 방해한다면 자기 주인과 방해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악을 썼기 때문입니다. 마차의 여주인은 눈앞의 광경에 놀라 겁에 질린 나머지, 마부에게 마차를 조금 멀리 떨어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는 멀찍이 떨어져 그 처절한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싸움이 한창 이어지던 중, 비스카야 놈이 휘두른 칼이 돈키호테의 방패 위를 지나 한쪽 어깨를 크게 내리쳤습니다. 만약 아무런 방비 없이 그대로 맞았더라면 허리까지 두 동강을 냈을 만한 일격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타격에 고통을 느낀 돈키호테가 크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오, 내 영혼의 여인이시여, 아름다움의 꽃이신 둘시네아여! 당신의 그 지극한 자애로움에 보답하고자 이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는 당신의 기사를 구원하소서!"

돈키호테는 이렇게 외침과 동시에 칼을 꽉 쥐고 방패로 몸을 단단히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단 한 번의 일격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비스카야 놈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돈키호테를 본 비스카야 놈은, 그 기세에서 상대의 용기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비스카야 놈도 돈키호테와 똑같이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방패 대신 베개를 단단히 앞세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타고 있던 노새가 너무 지친 데다 이런

유치한 싸움에는 익숙하지도 않아서, 어느 쪽으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노새는 한 발짝도 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돈키호테는 상대를 단칼에 베어 가르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칼을 높이 치켜든 채 신중한 비스카야 놈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비스카야 놈 역시 칼을 높이 든 채 베개를 방패 삼아 맞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 맞붙을 그 엄청난 충돌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몰라 잔뜩 겁에 질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마차에 타고 있던 여인과 하녀들은 신이 자신들과 종자를 이 커다란 위기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스페인 전역에 있는 온갖 성상과 신성한 곳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저자가 돈키호테의 이 전투를 바로 이 대목에서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돈키호테의 이러한 무용담에 대해 자신이 기록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적힌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두 번째 저자는, 이토록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망각의 법칙에 내맡겨졌을 리 없으며, 라만차의 식자들이 이 유명한 기사에 관한 기록을 보관함이나 책상 서랍에 단 한 장조차 남겨두지 않았을 만큼 호기심이 없었을 리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은 그는 이 평온한 이야기의 결말을 찾는 것을 단념하지 않았고, 다행히 하늘이 도운 덕분에 제2편에서 들려줄 방식으로 그 결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라만차의 영리한 귀족 돈키호테 제2편

제9장



제9장. 용맹한 비스카야인과 용감한 라만차인이 벌인 그 엄청난 전투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끝이 났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제1부에서, 용맹한 비스카야인과 유명한 돈키호테가 칼을 높이 치켜들고 뽑아 든 채 대치하던 장면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서로를 격렬하게 베어 넘기려는 듯이 맞서고 있었는데, 만약 그 칼날이 정통으로 맞물렸다면 최소한 몸이 위아래로 쪼개지거나 석류처럼 터져 나갔을 것입니다. 작가는 이토록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토록 불확실한 순간에 멈춰버린 채, 남은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내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토록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고작 이만큼밖에 읽지 못했다는 즐거움은, 이 재미있는 이야기의 남은 부분을 찾으려면 대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야 할지 생각하는 괴로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기사의 전무후무한 업적을 기록할 현자가 없었을 리 없는데, 이야기가 끊겨버린 상황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방랑 기사에게도 기록을 남길 현자가 없었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들의 모험담을 이야기할 때면 늘 그렇듯이 말입니다.

마치 정해진 틀이라도 있는 것처럼, 기사마다 한두 명의 현자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자들은 기사의 업적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기사의 아주 사소한 생각이나 장난스러운 행동까지도 낱낱이 그려낼 정도였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기사가, 플라티르나 그와 비슷한 다른 기사들이 넘치도록 누렸던 그런 기록조차 갖지 못할 만큼 불운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토록 당당하고 멋진 이야기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끊기고 망가진 채로 남았을 리 없다

고,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소멸시키는 가혹한 세월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기록을 어딘가에 숨겨두었거나, 아니면 이미 다 먹어 치워 없애버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읽던 책들 중에 『질투의 환멸』이나 『에나레스의 님프와 목자들』처럼 아주 최근에 나온 책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니, 그의 이야기도 분명 최근의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는 그가 살던 마을과 인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어지러우면서도, 라만차 기사도의 빛이자 거울이며 이 재난과도 같은 시대에 가장 먼저 방랑 기사의 무예와 길에 들어선 우리의 유명한 스페인 사람, 돈키호테의 삶과 행적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알고 싶다는 갈망이 일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 과부를 도우며, 처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 처녀들이란 채찍과 말을 몰고 순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이 산 저 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누비고 다니던 이들이었지요. 어떤 불량배나 도끼와 투구로 무장한 시골뜨기, 혹은 거대한 거인이 그들을 겁탈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옛날에는 여든 해를 사는 동안 단 하루도 지붕 아래서 잠들지 않고도,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처럼 순결한 몸 그대로 무덤에 들어간 처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우리의 당당한 키호테는 끊임없이 기릴 만한 인물입니다. 이 즐거운 이야기의 결말을 찾기 위해 내가 쏟

은 노력과 정성을 생각한다면, 나 또한 그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하늘과 운명, 그리고 행운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는 이들이 두 시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재미와 즐거움을 세상이 끝내 누리지 못한 채 끝나고 말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톨레도의 알카나(Alcaná)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소년이 낡은 서류 뭉치와 종이 꾸러미를 한 비단 장수에게 팔러 왔습니다. 나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라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타고난 습성에 이끌려 소년이 팔고 있던 서류 뭉치 가운데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힌 글자가 아랍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글자는 알아보았지만 읽을 줄은 몰랐기에, 나는 그 글을 읽어 줄, 스페인어를 아는 모리스코가 근처에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통역자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설령 더 훌륭하고 오래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찾으려 했더라도 결국에는 찾아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운 좋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바람을 전하며 책을 손에 쥐여 주었고, 그는 책을 가운데쯤 펼쳐 몇 줄 읽더니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무엇 때문에 웃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책의 여백에 주석으로 적힌 어떤 내용 때문에 웃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여백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는, 라만차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돼지를 소금에 절이는 솜씨가 일품이었다고들 한다.’”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멍하니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서류 뭉치들이 바로 돈키호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곧장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첫머리부터 읽어 달라고 재촉했고, 그가 그렇게 하여 아랍어를 즉석에서 스페인어로 옮기며 이렇게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인 역사가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쓴 라만차의 돈키호테 이야기."

책의 제목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벅차오르는 기쁨을 감추느라 어지간히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고는 비단 장수보다 한발 앞서, 그 청년에게서 종이와 서류 뭉치를 전부 반 레알에 사들였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눈치가 빨라 내가 이것들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았더라면, 분명 여섯 레알이 넘는 값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곧 그 모리스코를 데리고 대성당 회랑으로 가서, 돈키호테를 다룬 서류 전부를 무엇 하나 빼거나 보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스페인어로 옮겨 달라고, 원하는 만큼 보수를 주겠다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건포도 두 아로바와 밀 두 파네가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정확하고 충실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번역해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을 더 수월하게 진행하고 이토록 귀한 발견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를 내 집

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그는 한 달 반 남짓 만에 지금 여기 실린 그대로 전부를 번역해 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뭉치에는 돈키호테와 비스카야인의 결투 장면이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속 두 사람은 이야기의 내용과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둥근 방패를 들어 몸을 가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베개로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칼은 높이 치켜들려 있었고, 비스카야인이 타고 있는 노새는 어찌나 생생하게 그려졌는지 한눈에 봐도 세를 낸 노새임이 분명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비스카야인의 발치에는 '돈 산초 데 아스페티아'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이 분명 그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로시난테의 발치에는 '돈키호테'라는 또 다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로시난테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몸은 아주 길고 늘어졌으며, 등뼈가 앙상하게 도드라질 만큼 비쩍 마르고 야위어 영락없이 폐병 든 몰골이었는데, 그 모습은 로시난테라는 이름이 얼마나 세심하고 적절하게 붙여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곁에는 산초 판사가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 서 있었고, 당나귀 발치에는 '산초 잔카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모습으로 보아 그는 배가 불룩하고 허리는 짧으며 다리는 길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판사와 잔카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듯한데, 실제로 이 이야기에서도 그를 이 두 별명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사소한 것들이 더 있었지만, 모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이야기의 본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내용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무엇이든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이 기록의 진실성에 대해 혹여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저자가 아랍인이라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 민족은 워낙 거짓말을 잘하기로 유명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오랜 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기록은 무언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기보다는 빠뜨려진 채로 남았으리라 보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토록 훌륭한 기사를 찬양하는 데 마땅히 붓을 한껏 놀려야 했고 또 그럴 수 있었음에도, 저자는 일부러 그 부분을 침묵 속에 넘겨버린 듯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으로 잘못된 처사이자 더욱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사가라면 마땅히 치우침 없이 정확하고 진실해야 하며, 이익이나 두려움, 원한이나 애정 따위가 진실의 길에서 벗어나게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의 어머니가 바로 역사이니, 역사란 시간과 겨루고, 행적을 보관하며, 지나간 일을 증언하고, 현재의 본보기이자 경계이며, 다가올 일에 대한 일깨움입니다. 이 기록 안에는 더없이 즐거운 이야기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만약 이 기록에 무언가 좋은 점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소재의 탓이 아니라 그 개 같은 저자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번역을 따라가 보면 제2부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용맹하고 격앙된 두 전사가 날카로운 칼을 높이 치켜들자, 마치 하늘과 땅, 그리고 심연을 위협하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두 사람이 보여준 용기와 기백이 그토록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격을 가한 쪽은 성미 급한 비스카야인이었습니다. 그는 어찌나 강한 힘과 분노를 실어 내리쳤는지, 만약 칼날이 도중에 빗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일격 하나만으로도 이 치열한 싸움과 우리 기사의 모든 모험이 끝났을지도 모릅니

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 큰 일을 남겨두고 있었는지, 상대의 칼날을 비껴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칼은 돈키호테의 왼쪽 어깨를 강타했으나, 그 일격으로 입은 피해는 어깨 쪽 무장을 완전히 떨어뜨려 놓은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구의 상당 부분과 귀 절반이 함께 뜯겨 나갔고, 이 모든 것이 처참하게 부서지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저런! 자신이 그런 꼴을 당한 것을 본 라만차 출신 우리 기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 누가 감히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는 다시금 등자를 딛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양손으로 칼을 더욱 꽉 움켜쥔 채 무서운 기세로 비스카야인을 내리쳐, 그가 방패 삼은 베개와 머리를 정통으로 맞혔습니다. 베개도 변변한 방어가 되지 못해, 마치 산이 그를 덮친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비스카야인은 코와 입, 귀에서 피를 쏟기 시작했고, 당장이라도 노새에서 떨어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만약 그가 노새의 목을 끌어안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등자에서 발을 빼고 이내 팔의 힘을 풀고 말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일격에 겁에 질린 노새는 들판을 가로질러 내달리기 시작했고, 몇 번 날뛰다가 결국 주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말았습니다.

돈키호테는 아주 침착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비스카야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 아주 민첩하게 그에게 다가갔고, 칼끝을 그의 두 눈에 들이대며 항복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스카야인은 너무나 당

황한 나머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큰 두려움 속에 그 싸움을 지켜보던 마차 안의 귀부인들이 그에게 다가와, 자기들의 종자의 목숨만은 살려 주는 크나큰 자비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청하지 않았더라면, 분노로 눈이 먼 돈키호테 때문에 비스카야인은 험한 꼴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에 돈키호테는 아주 위엄 있고 엄숙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렴요, 아름다우신 귀부인들이시여. 요청하신 대로 하는 것은 저로서도 매우 기쁜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과 약속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기사가 반드시 엘 토보소로 가서, 저를 대신해 비할 데 없이 고귀하신 둘시네아 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원하시는 대로 그를 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 말입니다."

겁에 질려 망연자실해 있던 귀부인은 돈키호테가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혹은 둘시네아가 누구인지 따져 물을 겨를도 없이, 기사의 종자가 명령받은 모든 일을 그대로 수행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에게 더는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가 당한 일은 자업자득이니까요."

제10장



제10장. 돈키호테가 비스카이아인과 맞붙어 얻은 성과와, 양구에스 무리에게 둘러싸여 맞닥뜨린 위험에 대하여

이 무렵 산초 판사는 수도사들의 심부름꾼들에게 조금 두들겨 맞은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주인인 돈키호테의 싸움을 유심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주인에게 승리를 안겨 주

시기를,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승리의 대가로 그를 통치할 섬 하나를 얻게 해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주인이 다시 로시난테에 올라타는 것을 본 산초는 그에게 등자(발걸이)를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이 올라타기도 전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돈키호테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나의 주인 돈키호테님, 이번의 이 치열한 싸움에서 얻어낸 그 섬을 제게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섬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저는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 못지않게 훌륭하고 능숙하게 다스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산초, 잘 들어두게. 이런 모험이나 이와 비슷한 모험은 섬을 차지하는 모험이 아니라, 갈림길에서 벌어지는 모험이라네. 이런 싸움은 머리가 깨지거나 귀 하나를 잃는 것 말고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 인내심을 갖게나. 자네를 단순히 통치자로 만드는 것을 넘어, 그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올려줄 모험이 곧 눈앞에 펼쳐질 테니까."

산초 판사는 그 말에 매우 고마워하며, 돈키호테의 손과 갑옷 자락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춘 뒤 그가 로시난테에 오르도록 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당나귀에 올라타 주인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돈키호테는 마차에 탄 여인들에게 작별 인사도, 더 이상의 말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근처에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초는 당나귀를 한껏 몰아 뒤를 쫓았지만, 로시난테의 걸음이 워낙 빨라 자꾸 뒤처지는 통에 결국 주인에게 좀 기다려 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키호테

는 지친 종자가 따라올 때까지 로시난테의 고삐를 당겨 기다려 주었고, 마침내 다다른 산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 생각에는 어디 교회로 들어가 몸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과 싸운 자가 저 꼴이 된 걸 보니, 성스러운 형제단에 이 일이 알려져 우리가 붙잡히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아서요. 맹세컨대, 만약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며 감옥에서 나오는 게 먼저일 겁니다."

"조용히 해라."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네가 어디서 봤단 말이냐, 아니면 어디서 읽기라도 했느냐? 어떤 방랑 기사가 아무리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 한들,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를 말이다."

"저는 살인이니 뭐니 하는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일에 엮여 본 적도 한 번 없고요. 제가 아는 거라곤 성스러운 형제단이 들판에서 싸움질하는 자들을 단속한다는 것뿐입니다. 그 밖의 일에는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친구여."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성스러운 형제단 따위는 물론이고, 설령 칼데아인들의 손에 붙잡힌다 해도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내마. 그런데 내 목숨을 걸고 물으마. 이 세상 온 땅을 통틀어 나보다 용맹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느냐? 기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만큼 공격할 때 기백이 넘치고, 버틸 때 끈기가 있으며, 찌를 때 솜씨가 좋고, 쓰러뜨릴 때 재주가 뛰어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라서 기사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목숨을 걸고 장담하건대, 제 평생 주인님처럼 대담한 분을 모신 적은 없었습니다. 부디 이 대담한 행동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곳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기를 신께 빌 뿐입니다. 제가 주인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상처부터 치료하시라는 겁니다. 그 귀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여기 제 짐 자루에 실밥과 하얀 연고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단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내게 피에라브라스의 향유를 한 병 만들어 둘 기억만 있었어도 좋았을 것을. 그 향유는 단 한 방울만 있어도 시간과 약을 아낄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병이고 무슨 향유란 말씀입니까?" 산초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향유란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그 제조법을 내 머릿속에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지. 이 향유만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떤 상처로 죽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단다. 그러니 나중에 내가 향유를 만들어 네게 주면, 너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 전투 중에 누군가 내 몸을 반으로 갈라버리는 일이 생기면(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하지), 땅에 떨어진 몸의 절반을 아주 보기 좋게 집어 들어라. 그러고는 피가 굳기 전에 아주 정교한 솜씨로 안장에 남은 나머지 몸 위에 딱 맞게 올려놓는 거다. 이때 양쪽이 어긋나지 않도록 똑바로 잘

맞추어야 한다. 그다음 내가 말한 향유를 딱 두 모금만 마시게 하면, 내가 사과처럼 아주 싱싱하게 살아나는 걸 보게 될 게다."

"정말로 그런 게 있다면," 산초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받은 섬의 통치자 자리를 지금 당장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충성을 다해 모신 대가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인님께서 그 놀라운 약의 제조법만 알려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생각에 그 약 한 온스면 2레알이 넘는 가치가 있을 텐데, 그것만 있다면 평생을 명예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지 궁금하군요."

"3레알도 안 되는 돈이면 세 되나 만들 수 있단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 죄 많은 몸이여!" 산초 판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주인님께서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 약을 만들지도,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계시는 겁니까?"

"조용히 하게, 친구."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자네에게 알려줄 더 큰 비밀과 베풀 더 큰 은혜가 남아 있으니 말일세. 우선은 치료부터 하세나. 귀가 생각보다 너무 아프구먼."

산초 판사가 짐꾸러미에서 실과 연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부서진 투구를 보고는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칼자루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와, 그 기록이 가장 상세히 남아 있는 네 복음서의 성스러운 말씀 앞에 맹세하노라. 조카 발도비노스의 죽음을 갚겠다고 결심했던 만투아의 위대한 후작이 행했던 삶을 그대로 살겠노라고 말이다. 즉, 식탁보를 펴놓고 빵을 먹지 않으며, 아내와도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으리라. 그 외에도 지금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나에게 이런 불행을 안겨준 자에게 완벽한 복수를 마칠 때까지 지켜나갈 여러 가지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는 바이다."

그 말을 들은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돈키호테 나리, 이 점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만약 그 기사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 앞에 나아가 모습을 보이라는 명령을 받은 대로 이행했다면, 그는 이미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는 더 이상 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말이 아주 옳고 정확하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그자에게 새로 복수를 하겠다는 맹세는 지금 이 순간 취소하겠다. 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금욕하며 살겠다는 다짐만은 다시 굳게 세우겠다. 이것만큼 훌륭하고 좋은 투구를 어느 기사에게서 힘으로 빼앗을 때까지는 말이다. 산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이러는 거라고 여기지 마라. 나에게는 본받을 만한 선례가 분명히 있으니 말이다. 사크리판테가 그 대가로 큰 희생을 치러야 했던 맘브리노의 투구 사건에서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느니라."

"나리, 그런 맹세는 악마에게나 던져버리십시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맹세는 건강에도 해롭고 양심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디 말씀해 보십시오. 만약 며칠이 지나도록 투구를 쓴 무장한 자를 한 명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토록 많은 불편과 번거로움을 다 무릅쓰면서까지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단 말씀입니까?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마을에서는 잠을 자지 않는 등, 나리께서 지금 다시 지키겠다고 하시는 그 만투아 후작이라는 미친 노인이 했던 수천 가지 고행을 다 따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리. 이 길목들에는 무장한 자 따위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노새몰이꾼이나 짐마차꾼들뿐이지요. 그들은 투구를 쓰기는커녕 평생 투구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네 착각이다."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갈림길에 들어선 지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름다운 앙헬리카를 차지하려고 알브라카로 몰려왔던 무리보다 더 많은 무장한 자들을 만나게 될 테니 말이다."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산초가 말했습니다. "부디 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그리고 저에게 이토록 고생을 안겨주는 그 섬을 차지할 때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미련 없이 죽어도 좋습니다."

"산초야,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다고 말이다. 만약 섬이 없다면 덴마크 왕국이나 솔리아디사 왕국이 있지 않느냐? 그곳들은 네게 아주 딱 맞을 것이다. 게다가 그곳들은 육지

이니 너에게는 더 좋은 일이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우선 그 자루 안에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아라. 곧 오늘 밤 머물 성을 찾아 나서야 하니까 말이다. 가서 내가 말했던 그 향유도 만들어야 하고. 하느님께 맹세코, 귀가 너무 아파서 죽겠구나."

"여기 양파 하나랑 치즈 조금, 그리고 빵 조각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산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나리처럼 용맹한 기사님이 드실 만한 진수성찬은 아니지요."

"너는 참 이해력이 부족하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산초야, 잘 들어라. 한 달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야말로 방랑 기사의 명예로운 도리다. 설령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저 손에 닿는 대로 먹는 법이지. 네가 나만큼 기사도 이야기를 많이 읽었더라면 이 말이 맞다는 걸 알았을 게다. 내가 읽은 이야기가 아주 많지만, 그중 어디에서도 방랑 기사들이 끼니를 챙겨 먹었다는 기록은 본 적이 없다. 기사들이 식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가끔, 누군가 베푸는 화려한 연회 때뿐이었고, 나머지 날들은 변변한 식사도 없이 그냥저냥 지냈단다. 물론 그들도 우리처럼 사람이니, 먹지 않고는, 또 다른 온갖 생리적인 일을 보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으리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숲이나 황무지에서 요리사도 없이 떠돌며 보냈으니, 가장 흔하게 먹은 음식은 네가 지금 내게 권하는 것 같은 소박한 음식이었을 게 분명하다. 그러니 친구 산초야, 내가 즐겁게 먹겠다는데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너도 새삼 세상을 새로 만들거나, 기사도의 본분을 뒤엎으려 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용서하십시오, 나리." 산초가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다 보니 기사도의 법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기사이신 나리를 위해 제 자루에 갖가지 말린 과일을 챙겨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아닌 저를 위해서는 날짐승 고기처럼 좀 더 든든하고 실속 있는 것들을 챙겨 다니겠습니다."

"산초야,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방랑 기사들이 반드시 네가 말한 과일 말고는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다만 기사들의 가장 일상적인 양식이 그런 과일들이나, 그들이 잘 알고 또 나 역시 잘 아는 들판의 풀들이었을 거라는 말이다."

"그런 풀떼기들을 잘 아는 것도 실력이지요."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언젠가 그 지식이 꼭 필요할 날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고는 돈키호테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꺼내어,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묵을 곳을 찾아야 했기에, 두 사람은 보잘것없고 메마른 식사를 서둘러 끝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말에 올라타 해가 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하려고 서둘러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해는 이미 저물어 버렸고, 염원하던 마을에 닿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염소 치는 사람들의 오두막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산초는 마을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 못내 속상했지만, 주인인 돈키호테는 오히려 즐거워하며

노숙을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기사로서의 자질을 증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11장



제11장. 돈키호테가 염소치기들을 만나 겪게 된 일에 대하여

염소치기들의 환대를 받은 돈키호테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산초는 로시난테와 자신의 나귀를 최대한 잘 정돈해 둔 뒤, 솥 안에서 불

에 끓고 있는 염소 고기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산초는 그 고기가 솥에서 꺼내 배 속으로 들어갈 만큼 다 익었는지 당장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염소치기들이 고기를 불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염소치기들은 바닥에 양가죽을 깔고 서둘러 소박한 식탁을 차린 뒤, 아주 친절한 태도로 자신들이 가진 음식을 두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양 우리에 있던 여섯 명의 염소치기가 양가죽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돈키호테에게 거친 예의를 갖추며, 뒤집어 놓은 나무 여물통 위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돈키호테가 자리에 앉자, 산초는 뿔로 만든 잔을 채워 드리려고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서 있는 산초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초야, 너는 편력기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큰 선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이들이 세상의 존경과 명예를 얻는 일이 얼마나 머지않았는지를 직접 보아야 한다. 그러니 너도 여기 내 옆에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앉으렴. 나는 너의 주인이자 본래 너의 주군이니, 너는 나와 한 몸과 같이 되어야 한다. 내 접시에 담긴 음식을 함께 먹고, 내가 마시는 잔으로 너도 마시거라. 편력기사라는 것은 사랑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 사랑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산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께 한 말씀 올리자면, 먹을 것만 넉넉하다면 저는 황제 옆에 앉아 먹는 것보다 혼자 서서 먹는 게 그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낫고 맛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구석에 처박혀서 격식이나 예우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빵이랑 양파만 먹더라도, 다른 사람들 식탁에서 칠면조 요리를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틈에서 억지로 천천히

씹어야 하고, 조금씩 마셔야 하고, 수시로 입가를 닦아야 하고, 재채기나 기침이 나와도 꾹 참아야 하는 그런 자리보다는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자유로움이 주는 편안함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종자로서 편력기사의 길을 함께 걷는 동료라고 해서 이런 대접을 해주시려는 거라면, 차라리 저에게 더 편하고 이득이 되는 다른 걸로 바꿔 주십시오. 주인님의 호의는 감사히 받겠지만, 이런 격식만큼은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세상 끝까지 다 거절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기 앉아야 한다.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법이니까."

그러고는 돈키호테가 산초의 팔을 붙잡아 자기 옆에 억지로 앉혔습니다.

염소치기들은 종자와 편력기사가 나누는 저 해괴한 말투를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음식을 먹으며, 주먹만 한 육포를 아주 맛있고 싹싹하게 입안으로 밀어 넣는 손님들을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고기 요리가 끝나자, 그들은 가죽 위에 볶은 도토리를 한 가득 내놓고, 그 곁에 회반죽으로 만든 것처럼 딱딱한 치즈 반 덩이를 곁들였습니다. 이때 술잔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술잔이 가득 찼다 비었다 하며 물레방아의 물통처럼 끊임없이 돌았기에, 눈앞에 놓인 두 개의 술주머니 중 하나를 금세 비워버릴 정도였습니다. 돈키호테는 배를 든든히 채운 뒤, 손에 도토리를 한 움큼 쥐고는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옛사람들이 황금시대라 이름 붙인 그 시절과 그 시대는 참으로 복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금이 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철의 시대에는 금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지만, 그 복된 시절에는 아무런 수고 없이도 금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그 시대가 복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네 것'과 '내 것'이라는 이 두 마디 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시대에는 모든 것이 공통의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먹거리를 얻기 위해 손을 뻗어 튼튼한 참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따는 것 말고는 다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무들은 달콤하고 맛 좋은 열매를 아낌없이 내어주며 사람들을 초대했으니까요. 맑은 샘물과 흐르는 강물은 풍요롭고 맛깔스럽게, 아주 투명한 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바위틈과 나무 구멍에는 부지런하고 영리한 벌들이 모여 살며 자신들만의 나라를 이루었고,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에게나 달콤한 노동의 결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용맹한 코르크나무들은 그저 예의를 갖추듯 넓고 가벼운 껍질을 스스로 벗어 던졌고, 사람들은 그 껍질을 거친 말뚝에 얹어 하늘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막아낼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우정이며, 모든 것이 화합이었습니다. 심지어 무거운 쟁기가 대지의 속살을 헤집고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시절이었기에, 대지는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비옥하고 넓은 품 곳곳에서 자식들을 배불리고 먹이며 즐겁게 해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 시절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처녀들은 머리를 땋아 내린 채 계곡과 언덕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옷이라고는 그저 예의를 지키기 위해 가려야 할 곳을 가리는 정도의 소박한 차림뿐이었지요. 요즘 유행하는, 티로의 자줏빛 염료나 온갖 방식으로 고생하며 비싸진 비단 같은 장식은 없었습니다. 대신 초록빛 잎사귀와

담쟁이덩굴을 엮어 꾸몄는데, 아마도 그 모습은 요즘 우리 궁정 여인들이 한가한 호기심이 만들어낸 기묘하고 화려한 장식들만큼이나 근사했을 것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사랑 또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어 아주 소박하게 피어났습니다. 마음이 품은 그대로를 전했을 뿐, 꾸며낸 말로 치장하려 애쓰지 않았지요. 진실함과 솔직함 속에 기만이나 속임수, 악의가 섞일 일도 없었습니다. 정의는 그 본연의 자리를 지켰고, 오늘날 정의를 훼손하고 어지럽히며 쫓아다니는 특권이나 이권 같은 것들이 감히 정의를 흔들거나 해치지 못했습니다. 재판관이 제멋대로 자의로 판결을 내리는 일도 아직 판사의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판결할 일도, 심판받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앞서 말했듯 처녀들의 정절과 순결은 어디서나 당당하게 지켜졌습니다. 타인의 방탕함이나 음란한 의도가 그녀들을 해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으며, 만약 잘못이 생긴다 해도 그것은 오로지 본인의 선택과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받은 시대에는 아무리 크레타의 미궁처럼 몸을 숨기고 문을 걸어 잠근다 해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악랄한 욕망이 틈새나 공기를 타고 스며들어, 아무리 몸을 사려도 사랑이라는 이름의 역병이 침투해 모든 정조를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고 악의가 커짐에 따라, 처녀를 보호하고 과부를 보살피며 고아와 빈곤한 이들을 돕기 위해 편력기사의 기사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바로 그 기사단의 일원입니다. 저와 제 종자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과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있는 모든 이가 편력기사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지만, 여러분은 그런 의무도 모른 채 저를 맞아주고 대접해 주셨으니,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호의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길고 긴 웅변 —사실은 생략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을 우리 기사가 늘어놓은 것은, 그들에게 건네준 도토리를 먹다가 문득 황금시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염소치기들에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고, 염소치기들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멍하니 정신을 잃고 그의 말을 경청할 뿐이었습니다. 산초 역시 입을 다문 채 도토리를 먹으며, 술이 식도록 코르크나무에 매달아 둔 두 번째 술주머니를 아주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돈키호테의 일장 연설은 저녁 식사가 끝나는 데 걸린 시간보다 더 오래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 염소치기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저희가 정말 진심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 중 한 명을 불러 즐거움을 드리고 노래를 듣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곧 도착할 텐데, 이 친구는 아주 영리하고 사랑에 빠진 청년입니다. 무엇보다 글도 읽고 쓸 줄 알며 라벨을 연주할 줄도 아니,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염소치기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라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악기를 연주하는 청년도 도착했는데, 그는 스물두 살 정도 된 아주 싹싹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에게 저녁 식사를 했느냐고 물었고, 식사를 마쳤다고 대답하자 아까 대접을 제안했던 염소치기가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그렇게 말했으니 이제 노래를 불러 우리를 즐겁게 해주게나. 우리 귀한 손님께서도 산과 숲속에 음악을 아는 이가 있다는 걸

직접 보셔야 하지 않겠나? 자네가 얼마나 재주가 뛰어난지 이미 말씀드렸으니, 그 재주를 발휘해 우리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주게.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 어서 앉아서 마을에서 아주 반응이 좋았던 그 노래를 불러주게나. 자네 삼촌인 신부님이 자네를 위해 지어준 그 사랑 노래 말일세."

"기꺼이 불러드리지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더 망설이지 않고 가지가 다 쳐진 참나무 밑동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악기 줄을 고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멋스러운 솜씨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

"올라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눈빛으로조차 말하지 않는 그 침묵 속에 사랑의 언어가 숨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연모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건, 네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누군가에게 마음을 들킨 사랑이 불행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물론 올라야, 네가 청동처럼 단단한 영혼과 깎아지른 절벽처럼 하얀 가슴을 가졌다는 기색을 내비치긴 했지. 하지만 네가 내뱉는 꾸짖음과 아주 정중한 거절들 사이로, 어쩌면 희망이라는 놈이 제 옷자락 끝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 부름을 받지 못한다고 줄어들지도, 선택받았다고 해서 커지지도 않는 내 믿음은 그 미끼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만약 사랑이 예의를 갖추는 일이라면, 네 태도를 보건대 내 희망의 끝은 내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성 어린 봉사라면, 내가 해온 몇몇 일들이 내 진심을 뒷받침

해 줄 거야. 네가 눈여겨봤다면 내가 월요일에도 일요일에 입던 옷만큼이나 품위 있게 차려입는 걸 몇 번이나 봤겠지. 사랑과 멋스러움은 늘 같은 길을 가니까, 난 언제나 네 눈에 번듯한 모습이고 싶었어. 너를 위해서라면 춤추는 것도 그만둘 수 있고, 네가 새벽닭이 울 때나 뜬금없는 시간에 들었던 음악들을 내가 직접 연주해 줄 수도 있어. 네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내가 했던 말들은 차마 다 셀 수도 없구나. 비록 그 말들이 진실일지라도,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으니 말이야. 테레사 델 베로칼이 내 찬양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군. '저 사람은 천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짜를 숭배하는 거야. 수많은 장신구와 가발, 그리고 사랑의 신마저 속이는 위선적인 아름다움에 속고 있는 거지.' 내가 그 말을 부정하자 그녀는 화를 냈고, 사촌 오빠가 그녀를 데리러 왔어. 그자가 나에게 도전해 왔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너도 잘 알지. 나는 너를 가볍게 여기며 곁에 두려는 게 아니야.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뜨내기처럼 너를 섬기려는 것도 아니라고. 내 뜻은 그보다 훨씬 고결해. 교회에는 비단 끈으로 맺은 멍에가 있으니, 네가 먼저 그 멍에에 목을 걸어 보렴. 그럼 나도 기꺼이 내 목을 거는 걸 보게 될 테니까. 만약 그러지 않겠다면, 여기서 가장 거룩한 성인을 걸고 맹세하건대, 나는 이 산맥을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설령 나간다 해도 오직 카푸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일 뿐이리라."

이로써 염소치기는 노래를 마쳤습니다. 돈키호테는 노래를 좀 더 불러 달라고 간곡히 청했지만, 산초 판사는 노래를 들을 기분보다는 차라리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오늘 밤 묵으실 자리는 지금 바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선량한 분들이 하루 종일 얼마나 고되게 일하시는데요, 밤늦도록 노래나 불러줄 여유 따위는 없으실 겁니다."

"이제 알겠구나,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술자루를 들락거린 자에게는 음악보다 잠이라는 보상이 더 필요한 법이라는 게 내 눈에도 훤히 보이는구나."

"그 술이야 저희 모두에게 그만이지요, 하나님께 찬미를."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네가 편한 곳에 앉거라.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잠을 자는 것보다 깨어 있는 편이 더 어울리니까 말이다. 그건 그렇고, 산초야, 내 귀를 다시 좀 봐주겠느냐? 통증이 생각보다 심하구나."

산초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 염소치기 중 한 명이 상처를 보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금방 나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근처에 흔하게 널려 있던 로즈마리 잎 몇 장을 따서 입안에 넣고 씹더니 소금을 조금 섞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약을 귀에 바른 뒤 정성껏 붕대를 감아주며, 다른 약은 전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그랬습니다.

제12장



제12장. 염소치기가 돈키호테 일행에게 들려준 이야기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던 중, 마을에서 음식을 가져오던 다른 소년이 도착하여 말했다.

"동료 여러분, 저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들 중 한 명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들어보십시오." 그 청년이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 그 유명한 학생 출신 목동 그리소스토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저 근처를 목동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부유한 기예르모의 딸이자 악마 같은 마르셀라라는 처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 죽었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마르셀라 때문이라고 해야 맞겠지." 한 사람이 말했다.

"그 처녀 때문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염소치기가 대답했다. "그런데 다행인 건, 그가 유언으로 마치 무어인처럼 들판에 묻어달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코르크나무 샘이 있는 바위 발치에 묻어달라고 말이죠. 소문에 따르면,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그가 마르셀라를 처음 본 장소라고 합니다. 또 다른 유언들도 남겼는데, 마을 신부님들은 그 내용이 이교도들의 풍습 같아서 이행해서도 안 되고, 또 이행하는 것이 옳지도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학생이었던 암브로시오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암브로시오도 그와 함께 목동 차림을 하고 있는데, 그리소스토모가 남긴 유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마을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결국 암브로시오와 그의 친구인 목동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말씀드린 그곳에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분명 볼만한 광경이 될 겁

니다. 내일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저도 꼭 가서 구경할 생각입니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하겠네." 염소치기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누가 모두의 염소를 맡아 돌볼지 제비뽑기로 정해야겠군."

"맞는 말이네, 페드로." 한 염소치기가 말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어. 내가 모두를 대신해 여기 남을 테니까. 그렇다고 내가 착해서나 호기심이 없어서 남는 거라고 생각지는 말게. 요전날 나뭇가지에 이 발을 찔리는 바람에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네." 페드로가 대답했다.

돈키호테는 페드로에게 죽은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 목녀는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페드로는 자신이 아는 것이라고는, 죽은 이가 저 산맥 근처 마을에 사는 부유한 귀족 출신이라는 사실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살라망카에서 수년간 공부했으며, 공부를 마친 뒤에는 아주 박식하고 학식이 깊은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별의 이치를 잘 안다고들 했지요. 하늘에서 해와 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말이에요. 해와 달의 '크리스'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셨거든요."

"친구여, 해와 달이라는 저 두 커다란 빛이 어두워지는 현상은 '크리스'가 아니라 '일식' 혹은 '월식'이라 부르는 것이라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페드로가 그런 사소한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게다가 그분은 그해가 풍년이 들지 '숭년'이 들지도 미리 알아맞히곤 하셨지요."

"친구여, '흉년'이라고 말하려는 게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흉년이든 숭년이든 그게 다 거기서 거기지요." 페드로가 대답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았단 말입니다. 그분의 말을 믿고 따랐던 아버지와 친구들은 모두 큰 부자가 되었지요. 그분은 늘 이렇게 조언하셨거든요. '올해는 밀 대신 보리를 심으시오. 이번에는 보리 대신 병아리콩을 심는 게 좋겠소. 내년에는 올리브가 풍년이 들 테니, 그다음 세 해 동안은 수확할 게 하나도 없을 것이오'라고 말입니다."

"그건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이라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게 뭐라고 불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심지어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건 확실합니다. 결국 살라망카에서 돌아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학생 시절 입던 긴 옷을 벗어 던지고, 지팡이와 양털 옷을 갖춰 입은 목동의 차림으로 나타나셨지요. 그때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함께 공부했던 암브로시오도 똑같이 목동 옷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아,

참, 고인이 된 그리소스토모가 시를 짓는 데 얼마나 뛰어난 재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군요. 그 실력이 어찌나 대단했는지, 주님 탄생일을 위한 성탄 노래를 짓고 성체 축일용 연극을 지어 우리 마을 청년들이 공연할 정도였으니, 사람들은 모두 그 작품들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목동 차림을 한 두 학생을 보고는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이상하게 옷을 갈아입었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침 그 무렵 그리소스토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는 가구와 토지뿐만 아니라 대소 가축과 막대한 돈까지 아주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젊은이는 그 모든 재산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지요. 사실 그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아주 좋고 너그러웠으며 의로운 이들의 친구였고, 얼굴빛 또한 축복을 받은 듯 인자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옷을 갈아입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이 소년이 말한 그 목녀 마르셀라를 쫓아 이 황량한 들판을 헤매기 위해서였지요. 불쌍한 고인, 그리소스토모가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여인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니 이 계집애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평생을 살면서도, 설령 옴보다 더 오래 산다 해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라'라고 하게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염소치기가 자꾸 단어를 엉뚱하게 바꿔 쓰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옴도 어지간히 오래 삽니다요." 페드로가 대답했다. "그리고 주인님, 매번 제가 단어 하나 틀릴 때마다 그렇게 트집을 잡으실 작정이시라면, 일 년이 지나도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미안하네, 친구여." 돈키호테가 말했다. "'사라'와 '옴'의 뜻이 너무나 다르기에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라네. 하지만 자네 대답이 아주 옳았네. 옴은 '사라'보다 훨씬 오래 사니까 말이야. 자,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게나.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주인님." 염소치기가 말했다. "우리 마을에 그리소스토모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부유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기예르모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재물을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딸도 한 명 주셨는데, 그 딸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근방에서 가장 정숙한 여인이셨지요.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한쪽 얼굴에는 햇살이, 다른 쪽에는 달빛이 머금어진 듯한 그 모습이 말입니다. 게다가 아주 야무지고 가난한 이들을 아끼는 분이셨으니, 분명 저세상에서 하나님 곁에 머물며 지금쯤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선한 아내를 잃은 슬픔에 남편인 기예르모도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딸 마르셀라는 재산이 많은 처녀로 남았는데, 우리 마을의 신부이자 성직자인 삼촌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아름답게 자랐는데, 그 모습이 아이를 낳았던 어머니의 미모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미모를 그대로 물려받았으리라 짐작했지요. 과연 그랬습니다. 열네 살에서 열다섯 살쯤 되었을 때, 그녀를 보는 이라면 누구라도 이토록 아름다운 아이를 키워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

람들은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지요. 삼촌은 조카를 아주 조심스럽게, 외부와 격리하며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모가 워낙 자자한 탓에, 그녀의 미모와 막대한 재산을 탐내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수 리 밖의 내로라하는 귀한 신분의 사람들까지도 삼촌에게 그녀를 아내로 맞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매달렸지요. 하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삼촌은, 조카가 혼기가 찼으니 빨리 시집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그녀의 동의 없이는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재산을 차지해서 얻을 이득이나 이익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결혼을 미루었지요. 마을의 여러 모임에서 이 선한 신부를 칭송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염소치기가 말을 이었다. "기사님, 이 근방은 워낙 좁아서 온갖 이야기가 다 돌고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믿듯 기사님께서도 믿어주십시오. 신자들이 자신을 칭송하게끔 만드는 저 신부는, 특히 이런 마을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사실이로군."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 계속하게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고, 자네, 착한 페드로가 아주 맛깔나게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구먼."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함께하시길 빌 뿐입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제대로 풀릴 테니까요. 그 뒤의 일은 이렇습니다. 삼촌은 조카에게 청혼하는 수많은 사내를 한 명씩 소개하며 그들의 장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에게 직접 골라보라고, 어서 결혼하라고 간청했지요. 하지만 마르셀라는 그때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며, 아직 너무 어려

서 혼인 생활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타당한 핑계였기에, 삼촌도 더는 재촉하지 않고 조카가 나이를 좀 더 먹어 스스로 짝을 고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삼촌은 부모가 자식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혼인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 말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까다로운 마르셀라가 결국 목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촌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만류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려 마을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 제 양 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셀라가 밖으로 나와 그 미모를 드러내자, 얼마나 많은 부유한 청년과 귀족, 농부들이 그리소스토모의 옷차림을 하고 이 들판을 헤매며 그녀를 찾아다니는지 차마 다 말로 다 못 할 정도입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 고인이십니다. 그분은 마르셀라를 몹시 사랑하고 흠모했다고들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마르셀라가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격식 없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녀의 정숙함이나 품위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철저히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그녀를 모시고 사랑을 고백하는 이들 중 그 누구도 마르셀라가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며, 사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르셀라는 목동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정중하고 다정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군가가 결혼처럼 아무리 정당하고 성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기라도 하면, 마치 총을 쏜 것처럼 단칼에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그녀는 이 땅에 역병이 도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상냥함과 미모는 그녀를

섬기고 사랑하려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그녀의 냉담함과 거절은 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잔인한 여자', '은혜도 모르는 여자' 같은 험한 말로 그녀를 부를 뿐입니다. 기사님, 만약 기사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그녀를 쫓아다니다 상처 입은 이들의 통곡 소리가 이 산과 계곡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키 큰 너도밤나무가 스무 그루 정도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나무들의 매끄러운 껍질에는 마르셀라라는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나무 위에는 사랑하는 이가 '마르셀라는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가진 여인이다'라고 선언이라도 하듯, 나무에 직접 왕관 모양을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목동이 한숨을 내쉬고, 저기서는 다른 목동이 울부짖습니다. 이쪽에서는 사랑의 노래가 들려오지만, 저쪽에서는 절망적인 애가 들려옵니다. 어떤 이는 밤새도록 참나무나 바위 밑에 앉아, 눈물 젖은 눈을 감지도 못한 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여름날의 가장 뜨거운 낮잠 시간에도 한숨을 멈추지 않고, 달궈진 모래 위에 누워 하늘을 향해 울분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마르셀라는 이 모든 이들을 비웃듯 자유롭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녀의 그 오만한 성미가 결국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성격을 굴복시키고 그 눈부신 미모를 누릴 행운아가 과연 누가 될지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소치기가 말을 이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우리 마을 소년이 말한 그리소스토모의 죽음 원인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사님, 내일 열리는 장례식에 꼭 가

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볼만한 광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소스토모를 따르는 친구들이 아주 많거든요. 게다가 그가 묻힐 곳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반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잊지 않고 꼭 챙기겠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게 맛깔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아주 즐거웠네. 정말 고맙군."

"오!" 염소치기가 대답했다. "마르셀라를 사랑했던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제가 아직 절반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내일 길을 가다 어떤 목동이라도 마주친다면 그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서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잠을 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면 상처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바른 약이 워낙 잘 들어서 다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말입니다."

염소치기가 말을 너무 길게 늘어놓는 통에 짜증이 난 산초 판사는, 주인님께 어서 페드로의 오두막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라고 권했다. 돈키호테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마르셀라를 사랑했던 이들을 본받아, 밤새도록 자신의 여인인 둘시네아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산초 판사는 로시난테와 자신의 나귀 사이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그는 사랑에 실패한 연인처럼 뒤척이며 잠든 것이 아니라, 발길질을 당해 온몸이 쑤시는 사람처럼 깊이 잠들었다.

제13장



제13장. 목자 마르셀라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는 대목

하지만 동쪽 발코니 너머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마자, 여섯 명의 염소치기 중 다섯 명이 일어나 돈키호테를 깨우러 갔다. 그들은 돈키호

테에게 유명한 그리소스토모의 장례식을 보러 갈 마음이 여전한지 물으며, 자신들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돈키호테는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었기에 즉시 일어나 산초에게 당장 로시난테에 안장을 얹고 나귀에 길마를 얹으라고 명령했다. 산초는 아주 부지런히 그 일을 해냈고, 곧이어 모두 함께 길을 떠났다.

그렇게 4분의 1레구아도 채 가지 않았을 때였다. 길을 가로지르던 일행은 저 멀리서 여섯 명의 목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목자들은 검은 가죽옷을 입고 머리에는 사이프러스와 쓴 협죽도로 만든 화관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손에 두툼한 호랑가시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그들 곁에는 여행 채비를 잘 갖춘 말 탄 신사 두 명과, 그들을 수행하는 세 명의 보행 청년이 함께 오고 있었다. 일행이 서로 만나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어디로 가는지 물은 끝에, 모두가 장례식이 열리는 곳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함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말을 탄 이들 중 한 명이 동행에게 말을 건넸다.

"비발도 님, 이 유명한 장례식을 보러 가느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어보니, 죽은 목자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목녀의 이야기가 워낙 기이하고 놀라워서 이 장례식은 분명 유명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발도가 대답했다. "하루쯤 늦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장례식을 볼 수만 있다면 나흘을 지체한다 해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돈키호테가 마르셀라와 그리소스토모에 대해 무엇을 들었는지 물었다. 길을 가던 이가 대답하기를, 오늘 새벽에 그 목자들을 만났다고 했다. 목자들이 너무나 슬픈 차림을 하고 있기에 왜 그러한지 물었더니, 그중 한 명이 마르셀라라는 목녀가 얼마나 기이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녀를 연모하던 수많은 이의 사랑 이야기와 그들이 장례를 치러주러 가는 그리소스토모의 죽음에 대해 들려주었다고 했다. 결국 그는 페드로가 돈키호테에게 말했던 내용을 전부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었다. 비발도라는 이름의 사내가 돈키호테에게 물었다. 이토록 평화로운 땅에서 어찌하여 그런 무장을 한 채 길을 나서게 되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기사로서의 소명은 내가 다른 방식으로 다니는 것을 용납하지도, 허락하지도 않소. 여유로운 걸음걸이와 호사, 그리고 편안한 휴식 같은 것은 나약한 궁정 신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하지만 고된 노고와 끊임없는 분투, 그리고 무장은 오직 세상 사람들이 편력기사라 부르는 이들을 위해 고안되고 만들어진 것이오. 비록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미천한 몸이나, 그들 중 가장 말단에 있는 기사라오."

그의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비발도는 그가 어떤 종류의 광기에 빠진 것인지 더 자세히 알아내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는 돈키호테에게 "편력기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시 물었다.

"혹시 귀하신 분들께서는 영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연대기와 역사서들을 읽어보지 못하셨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책들에는 아서 왕의 위대한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우리 스페인어권에서는 흔히 아르투스 왕이라고 부르는 분이라오. 저 영국 땅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공통된 전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법에 걸려 까마귀로 변했다는 것이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다시 돌아와 왕국과 홀을 되찾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전설이지. 그 증거로,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영국인이 까마귀를 죽였다는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밝혀진 적이 있단 말이오? 이 위대한 왕의 시대에 바로 그 유명한 '원탁의 기사' 기사단이 창설되었소. 또한 그곳에서 전해지는 호수의 기사 란슬롯과 기네비아 왕비의 사랑 이야기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그 둘 사이를 중재하고 모든 사정을 꿰뚫고 있었던 이는 아주 명망 높은 퀸타뇨나 부인이었소. 그분 덕분에 우리 스페인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다음과 같은 노래가 탄생한 것이라오."

"란슬롯이 브르타뉴에서 왔을 때만큼 여인들의 극진한 시중을 받은 기사는 일찍이 없었을 것이오."

그토록 달콤하고도 부드러운 사랑과 용맹한 업적들이 이어졌지. 그 후로 그 기사단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며 세상 곳곳으로 널리 퍼져 나갔소. 그 기사단 안에서는 용맹한 아마디스 데 가울라와 그의 모든 아들과 손자들이 5대(代)에 이르기까지 그 업적으로 이름을 떨쳤고, 히르카니아의 용사 펠릭스마르테와, 마땅히 칭송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티란테 엘 블랑코도 유명했소. 또한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는 천하

무적의 용사 돈 벨리아니스 데 그리스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전하며 듣기까지 했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편력기사가 된다는 것이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기사도의 규율이라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비록 죄인이지만 이 길을 걷기로 서약했소. 앞서 언급한 기사들이 서약했던 것과 똑같은 길을 저 역시 걷고 있는 것이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황량하고 인적 드문 들판을 헤매며 모험을 찾아다니는 것이라오. 운명이 저에게 던져줄 그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도,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기 위해 제 팔과 몸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고 말이오.

돈키호테가 말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길을 가던 일행은 그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며 아주 기이한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매우 사려 깊고 성격이 쾌활했던 비발도는, 장례식이 치러지는 산등성이에 도착할 때까지 남은 짧은 여정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돈키호테가 앞으로도 계속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말했다.

"기사님, 제가 보기에는 기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서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카르투시오 수도회의 수도사들이 맺은 서약조차 기사님의 서약만큼 엄격하지는 않을 것 같군요."

"그만큼 엄격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그만큼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심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상관이 명령한 바를 실행에 옮기는 병사는 그 명령을 내리는 상관 자신만큼이나 중요한 법이니까요. 제 말은 이렇습니다. 수도사들은 평온하고 안락하게 하늘에 세상의 안녕을 빌 뿐이지만, 병사와 기사들은 그들이 비는 바를 직접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의 팔 힘과 칼날로 세상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그것도 지붕 아래가 아니라, 여름에는 참을 수 없이 내리쬐는 태양 빛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겨울에는 살을 에듯 몰아치는 추위를 견디며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팔과 같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일들은 땀 흘리고 애쓰며 고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업으로 삼는 이들은, 평온하고 안락하게 앉아 힘없는 이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보다 분명 더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사도의 삶이 수도사의 삶만큼이나 훌륭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생각조차 없습니다. 다만 제가 겪고 있는 일을 보건대, 기사의 삶이 분명 더 고되고, 더 얻어맞고,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르며, 더 비참하고, 더 만신창이에 이가 들끓는 삶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과거의 편력기사들이 살아생전 수많은 불행을 겪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설령 어떤 이들이 팔의 힘을 믿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피와 땀을 엄청나게 흘렸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오른 이들에게조차 자신을 도와줄 마법사나 현자가 없었다면, 그들은 간절히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한 채 헛된 희망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길을 가던 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편력기사들에게 아주 잘못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고 위험한 모험을 마주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땅히 그래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리는 일을 결코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그들은 마치 자신의 여인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온 마음을 다해 그 여인에게 자신을 의탁하곤 하지요. 제 눈에는 그런 모습이 영 이교도처럼 보입니다."

"나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말씀은 결코 틀린 데가 없습니다. 만약 편력기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위대한 무용을 펼치기 위해 나선 기사가 자신의 여인을 앞에 두고, 눈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빛내며 바라보는 것은 이미 기사도 세계의 관습이자 전통입니다. 마치 그 눈빛으로, 자신이 마주한 불확실한 위기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보호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령 곁에 아무도 듣는 이가 없더라도, 기사는 입속으로 마음을 다해 여인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말을 몇 마디 내뱉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사도 이야기 속에는 이런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일은 기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적절한 때와 장소를 찾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길을 가던 이가 대답했다. "여전히 의문이 남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사도 이야기를 읽다 보면 두 편력기사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울컥 화가 치밀어 말 머리를 돌려 들판 한쪽으로 멀

찍이 물러났다가, 곧장 아무 말 없이 전속력으로 말을 몰아 서로를 향해 마주 달려드는 장면이 자주 나오더군요. 그러고는 그 질주하는 한복판에서 자기 여인에게 자신을 의탁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맞붙었을 때 벌어지는 일을 보면, 한 명은 상대방의 창에 몸이 꿰뚫려 말 엉덩이 너머로 떨어져 죽고, 다른 한 명 역시 말갈기를 붙잡지 않았다면 같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을 상황이 되곤 합니다. 이토록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죽은 이가 대체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틈이 있었단 말입니까? 차라리 질주하며 여인에게 의탁하느라 낭비한 그 말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쓰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게다가 제 생각에는 모든 편력기사가 의탁할 여인을 가진 것도 아닌 듯합니다. 모든 기사가 다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여인 없는 편력기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기사가 사랑에 빠지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은 편력기사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설령 그런 기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정당한 기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생아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기사도의 성벽을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선 것이 아니라, 마치 강도나 도둑처럼 담장을 넘어 몰래 잠입한 자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길을 가던 이가 말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용맹한 아마디스 데 가울라의 형제인 돈 갈라오르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탁할 정해진 여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

고, 결코 기사로서 낮게 평가받지 않았으며 아주 용맹하고 유명한 기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자 우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선생님,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여름이 온 것은 아닙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 그 기사는 남몰래 아주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잘 대해 주는 것이야 그로서도 어쩔 수 없는 타고난 성품이긴 했지요.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에게는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맡긴 단 한 명의 여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을 지키는 기사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 여인에게 아주 자주,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자신을 의탁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떠돌이 기사라면 마땅히 사랑에 빠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 길을 가던 이가 말했다. "당신 또한 기사의 직업 정신을 생각하면 분명 사랑에 빠져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갈라오르 경처럼 비밀을 지키는 데 유독 철저한 분이 아니라면, 여기 모인 일행과 저를 대신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모시는 여인의 이름과 고향, 신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같은 기사에게 사랑받고 보필받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그 여인 또한 더없이 행복해할 것입니다."

돈키호테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그녀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나의 달콤한 적수가 기뻐할지 아닐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토록 정중하게 물으시니, 그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둘시네아이며, 고향은 라만차의 엘 토보소입니다. 신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주님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여왕이자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시인들이 여인들에게 부여하는, 불가능하고 환상적인 모든 미의 수식어들이 그녀에게는 모두 실재가 됩니다. 머리카락은 황금 같고, 이마는 낙원과 같으며, 눈썹은 하늘의 무지개 같고, 눈은 태양 같으며, 뺨은 장미 같고, 입술은 산호 같으며, 치아는 진주 같고, 목은 설화석고 같고, 가슴은 대리석 같고, 손은 상아 같습니다. 피부는 눈처럼 희디흰 데다, 정숙함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또한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기로는, 그 가치를 굳이 말로 늘어놓기보다 그저 깊은 사색을 통해서만 그 고귀함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가문과 혈통, 그리고 귀한 신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군요." 비발도가 대답했다.

이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녀의 가문은 로마의 고대 명문가인 쿠르키오스나 가요스, 키피오네스 가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콜로나나 우르시노 같은 근대의 명문가도 아니지요. 카탈루냐의 몬카다나 레케센스 가문도 아니고, 발렌시아의 레베야나 빌라노바 가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라곤의 팔라폭스, 누사, 로카베르티스, 코렐랴, 루나, 알라곤, 우레아, 포세스, 구레아 가

문도 아니며, 카스티야의 세르다, 만리케스, 멘도사, 구스만 가문도 아닙니다. 포르투갈의 알렌카스트로, 팔라스, 메네세스 가문도 아니지요. 하지만 그녀는 라만차 엘 토보소 출신의 혈통입니다. 비록 근대의 가문일지라도 그 기품만큼은 앞으로 다가올 수 세기의 가장 빛나는 가문들에게 고귀한 시작을 열어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합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저에게 반박하지 마십시오. 다만, 체르비노가 올란도의 무기 트로피 아래에 적어 놓았던 다음과 같은 조건부라면 모를까 말입니다."

"롤랑의 시험을 견뎌낼 수 없는 자라면, 그 누구도 이 가문의 명예를 흔들지 못하리라."

"제 가문은 라레도의 카초핀스 가문입니다만," 길을 가던 이가 대답했다. "감히 라만차 엘 토보소의 그 가문과 견주지는 않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성씨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게 어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돈키호테가 대꾸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대화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 양치기들과 목자들조차 우리 돈키호테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정도였다. 오직 산초 판사만이 주인이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그를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다만 산초가 유일하게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저 아름다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 관한 이야기였다. 엘 토보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그런 이름이나 그런 공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높은 산 두 개가 갈라진 골짜기를 따라 스무 명가량의 목자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검은 양털 가죽옷을 입고 머리에는 화환을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화환은 주목과 사이프러스 잎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들 중 여섯 명은 온갖 꽃과 나뭇가지로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를 메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양치기 중 한 명이 말했다.

"저기 오는 사람들은 그리소스토모의 시신을 운구하는 이들이오. 저 산기슭이 바로 그가 묻히기로 했던 장소라오. 그래서 다들 서둘러 오느라 저렇게 빨리 도착한 것이지. 마침 저들이 가마를 땅에 내려놓던 참이었소. 그리고 저들 중 네 명은 날카로운 곡괭이를 들고 단단한 바위 옆에 무덤을 파고 있었소."

양측은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돈키호테와 그의 일행은 가마를 살펴보았다. 가마 안에는 꽃으로 덮인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 목자 차림을 한 이 남자는 나이가 서른 살쯤 되어 보였다. 비록 죽은 상태였으나, 그 얼굴은 아름답고 풍채는 당당하여 생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시신 주변에는 가마 안에 몇 권의 책과 펼쳐지거나 접힌 수많은 종이 뭉치가 함께 놓여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들과 무덤을 파던 이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다른 모든 사람은 경이로운 침묵에 잠겼다. 그러다 시신을 운구해 온 이들 중 한 명이 다른 이에게 말을 건넸다.

"암브로시오, 잘 좀 봐주게. 자네가 그리소스토모의 유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니, 여기가 정말 그가 말했던 그 장소가 맞는지 확인해 보란 말일세."

"맞습니다." 암브로시오가 대답했다. "불행한 제 친구가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몇 번이고 이야기해 주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는 바로 이곳에서 인류의 숙적인 그 여인을 처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사랑만큼이나 정직했던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고백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마르셀라가 그를 완전히 깨우쳐 버리고 냉정하게 거절함으로써, 그의 비참한 삶이 불러온 비극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토록 많은 불행을 기억하는 대신, 영원한 망각의 심연 속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돈키호테와 길을 걷던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 저 몸은 하늘이 그 무궁한 보물을 쏟아부어 준 영혼을 담았던 그릇입니다. 저분은 바로 그리소스토모입니다. 재치에 있어서는 독보적이었고, 예의 바름에 있어서는 유일무이했으며, 품격은 더할 나위 없었고, 우정에는 불사조와 같았습니다. 한없이 너그러웠으면서도 거드름 피우지 않았고, 진중하면서도 우쭐대지 않았으며, 천박함 없이 늘 즐거웠고, 무엇보다 선함에 있어서는 으뜸이었으나 불행함에 있어서는 둘째가 없었습니다. 그는 선의를 베풀었으나 미움을 샀고, 사랑을 바쳤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맹수에게 간청하고 대리석에 매달렸으며, 바람을 쫓고 고독을 향해 외

쳤습니다. 배은망덕한 이를 위해 헌신한 대가로, 그는 인생의 절반을 채 지나기도 전에 죽음의 허망한 잔해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 목녀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있게 하려고 애썼으나, 결국 그 목녀가 그의 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종이들이 그 사실을 잘 증명해 주겠지만, 그리소스토모가 자신의 시신을 땅에 묻은 뒤 저 글들을 불태워 달라고 제게 명하지만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당신은 그 주인보다도 더 가혹하고 잔인하게 저 종이들을 다루려 하는군요." 비발도가 말했다. "이성적인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명령을 내린 이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공정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신성한 만투아노가 유언장에 남긴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허락했더라면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암브로시오 씨, 친구의 시신은 땅에 묻더라도 그가 남긴 글들까지 망각 속에 던져버리지는 마십시오. 그가 억울한 심정으로 명령했다고 해서, 당신이 경솔하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종이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야 마르셀라의 잔인함이 무엇인지 후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사람들이 저런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사랑에 빠져 절망했던 당신 친구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그 사이의 우정,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생을 마감하며 남긴 유언까지도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마르셀라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소스토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당신의 우정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친 사랑이 눈앞에 보여주는 길을 따라 제멋대로 달려가는 이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

하는지도 알 수 있겠지요. 우리는 어젯밤 그리소스토모가 죽었다는 소식과 그가 이곳에 묻힐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 소문으로만 듣고 마음 아파했던 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가던 길을 멈추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현명한 암브로시오 씨, 이 슬픔을 달래고 가능하다면 그를 위로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적어도 저 개인의 청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고—부디 저 종이들을 태우지 말고, 그중 몇 장만이라도 제가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목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손을 뻗어 가장 가까이 있는 종이 몇 장을 집어 들었다. 그 모습을 본 암브로시오가 말했다.

"예의상 이미 집어 드신 종이들은 가져가도록 허락하겠습니다만, 남은 종이들까지 태우지 않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십시오."

비발도는 종이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지 궁금하여 그중 하나를 펼쳐 보았다. 그러자 '절망의 노래'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 소리를 들은 암브로시오가 말했다.

"그것이 불행한 이가 남긴 마지막 종이입니다. 주인님, 그가 겪은 불행이 얼마나 끝도 없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소리 내어 읽어 주십시오. 무덤을 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충분히 읽으실 여유가 있을 테니까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발도가 말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기에 모두 그를 둘러싸고 모여들었습니다. 비발도는 명확한 목소리로 글을 읽어 내려갔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14장



제14장. 죽은 목동이 남긴 절망적인 시와 그 외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에 대하여

그리소스토모의 노래

잔인한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그 모질고 가혹한 성품의 위력을 사람들의 입을 거쳐 세상 구석구석에 퍼뜨리도록 하겠소. 나는 지옥마저 불러내어 내 슬픈 가슴에 비통한 가락을 전하게 하고, 그것으로 평소 내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울림을 빚어내리다. 내 고통과 당신이 저지른 만행을 알리려는 내 간절한 염원과 함께, 이 노래에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실릴 것이오. 그리고 더 큰 고통을 더하기 위해, 내 비참하게 찢겨 나간 내장 조각들까지 그 선율에 섞어 넣으리다. 그러니 들어보시오. 가다듬어진 노래의 운율이 아니라, 억눌린 광기에 사로잡혀 내 쓰라린 가슴 깊은 곳에서 오직 나의 갈망과 당신의 냉대 때문에 터져 나오는 이 비명에 귀를 기울이시오.

사자의 포효와 사나운 늑대의 두려운 울음소리, 비늘 돋친 뱀의 소름 끼치는 쉿쉿거림, 괴물의 무시무시한 울부짖음, 불길함을 예고하는 까마귀의 울음소리, 그리고 요동치는 바다 위를 휘몰아치는 바람의 굉음이 들려오리다. 이미 패배한 황소의 가차 없는 울음과 슬픈 산비둘기의 구슬픈 지저귐, 질투를 부르는 부엉이의 애처로운 노래, 그리고 지옥의 검은 무리가 내뱉는 통곡 소리까지 모두 한데 섞여 이 비통한 영혼과 함께 터져 나오리다. 이 모든 소리가 뒤섞여 사람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가 될 것이니, 내 안에 맺힌 이 잔인한 슬픔을 전하기 위해 이토록 새로운 방식의 울림이 필요한 까닭이오.

이토록 어지러운 울림은 타호 강의 모래사장에서도, 그 유명한 베티스의 올리브 나무 사이에서도 들리지 않을 것이오. 내 가혹한 고통은 높은 절벽과 깊은 구멍 속에, 죽어버린 혀와 살아있는 언어가 뒤섞인 채로 흩뿌려질 것이기 때문이오.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때로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해변에서, 혹은 인간의 온기가 전혀 없는 곳에서, 아니면 태양 빛조차 결코 비치지 않는 곳에서, 그것도 리비아 평원을 누비는 독한 짐승 떼 사이에서 울려 퍼지리다. 내 불행이 내뱉는 이 거친 메아리가 황량한 벌판에서 당신의 그 비할 데 없는 냉대와 함께 불확실하게 울려 퍼질지라도, 내 짧은 운명이 허락하는 특권으로 이 소리들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갈 것이오.

냉대는 사람을 죽이고, 인내심을 꺾어 놓소. 의심은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질투는 그보다 더 가혹하게 생명을 앗아가오. 기나긴 부재는 삶을 혼란에 빠뜨리고, 행복한 운명이 찾아올 것이라는 굳건한 희망도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막아주지는 못하오. 세상 모든 것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따르기 마련이오. 하지만 나는, 전례 없는 기적처럼, 질투와 부재와 냉대 속에서도 살아있소. 게다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의심들이 사실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소. 내 사랑의 불꽃을 지핀 그녀는 나를 잊었으나, 나는 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그림자조차 찾아내지 못하오. 절망에 빠진 내가 희망을 구하려 애쓰지도 않소. 오히려 내 원통함을 더욱 절절히 드러내기 위해, 희망 따위는 영원히 없이 살겠노라 맹세할 뿐이오.

혹시 찰나의 순간에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는 것이 가능하겠소? 아니면 두려움의 원인이 이토록 명백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오? 지독한 질투가 눈앞에 버티고 있다면, 내 영혼에 수천 개의 상처를 남긴 채 이 눈을 감아버려야 하겠소? 냉대를 목격하고, 의심이—오, 이 비참한 반전이여!—사실로 드러나며, 결백한 진실이 거짓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불신에 문을 활짝 열어젖히지 않을 수 있겠

소? 오, 사랑의 왕국을 지배하는 잔인한 폭군인 질투여, 내 손에 쇠사슬을 채워 주시오! 냉대여, 나를 묶을 뒤틀린 밧줄을 내게 주시오! 아, 슬프도다! 당신의 기억이 잔인한 승리를 거두며 나의 고통을 집어삼키는구나!

결국 나는 죽겠소.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결코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없으니, 나는 끝까지 내 환상만을 붙들겠소.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옳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겠소. 또한 옛 사랑의 폭압에 온전히 굴복한 영혼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법이라고 말하겠소. 나의 영원한 적이자 아름다운 그녀는 육체만큼이나 영혼 또한 아름다우며, 그녀가 나를 잊은 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겠소. 그리고 그녀가 내게 가한 고통들을 증거 삼아, 사랑이 정의로운 평화 속에서 그 통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겠소. 나는 이러한 신념을 품고 밧줄을 챙겨, 그녀의 냉대가 나를 몰아넣은 이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려 하오. 미래의 복락 따위는 바라지도 않은 채, 내 몸과 영혼을 바람에 내던지겠소.

그토록 터무니없는 말들로 내 이성을 마비시켜, 내가 혐오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스스로 끝내게 만들다니,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소.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이 상처가 이토록 선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소? 만약 당신이 운 좋게도, 나의 죽음으로 인해 당신의 아름다운 눈동자라는 맑은 하늘이 흐려질 만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해도, 제발 그러지는 마시오. 내 영혼의 잔해를 당신에게 바치면서, 당신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죽고 싶은 것은 아니니까 말이오. 오히려 이 비극적인 순간에 웃음을 터뜨리며, 나의 죽음이 당신에게는 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

내 주시오. 하지만 당신에게 그런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조차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겠지. 내 삶이 이토록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당신의 숨겨진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 말이오.

오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깊은 심연에서 갈증에 시달리는 탄탈로스가 오라. 시시포스는 그 무시무시하게 무거운 바위를 짊어진 채 오고, 티티오스는 독수리를 몰고 오며, 에기온 또한 그 바퀴를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일하는 저 자매들도 함께 오라. 그들 모두가 내 가슴속에 깃든 이 치명적인 파멸을 함께 짊어지고, 만약 절망에 빠진 자에게 노래를 불러줄 이가 있다면, 수의조차 허락되지 않을 이 육신을 위해 나직한 목소리로 슬프고도 비통한 애가를 불러다오. 세 개의 얼굴을 가진 지옥의 문지기가 수천 마리의 괴물과 함께 고통스러운 대위법을 연주하며 따라오게 하라. 죽어가는 연인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장엄한 의식은 없을 것이니 말이오.

절망의 노래여, 내가 이 슬픈 동행을 끝내고 떠날 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네가 태어난 원인이 나의 불행을 먹고 자라 오히려 행운을 누리고 있으니, 무덤 속에서조차 슬퍼할 필요는 없느니라.

그리소스토모의 노래는 그것을 들은 이들의 마음에 들었다. 다만 노래를 읽은 이는, 그 내용이 자신이 전해 들은 마르셀라의 정숙함과 선함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래 속에서 그리소스토모는 질투와 의심, 그리고 부재를 한탄하며 마르셀라의 좋은 명예와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친구의 가장 깊은 속마음까지 잘 알고 있던 암브로시오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여러분, 그 의구심을 풀 수 있도록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행한 친구가 이 노래를 쓸 당시, 그는 마르셀라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일부러 그녀를 떠나 있었던 것인데, 떨어져 있음이 그에게도 으레 그러하듯 위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해 보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엇이든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떤 두려움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소스토모 역시 상상 속의 질투와 두려워하던 의심을 마치 실제 일어난 일인 양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세상에 떠도는 마르셀라의 선함에 대한 평판이 사실임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녀는 비록 매정하고 조금은 오만하며 무척 쌀쌀맞은 면이 있을지언정, 질투 그 자체조차도 그녀에게서 어떠한 흠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찾아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비발도가 대답했다.

그리고 불길로부터 미리 건져 두었던 다른 종이를 읽으려던 찰나, 갑자기 눈앞에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마치 환영이라도 되는 듯한 모습이었다. 무덤을 파던 바위 언덕 위로 목동 마르셀라가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녀의 미모가 이미 자자한 명성마저 압도할 정도였다. 그때까지 그녀를 본 적이 없던 이들은 감탄하며 침묵 속에 그녀를 바라보았고, 이미 그녀를 보아 익숙했던 이들조차 처음 보는 이들 못지않게 넋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암브로시오는 그녀를 보자마자 분개한 기색을 내비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이 산맥의 사나운 바실리스크여! 당신의 잔혹함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 가련한 자의 상처에서, 당신이 나타나기만 해도 피가 쏟아지는지 확인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냉혹한 본성을 과시하러 온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자비한 네로 황제처럼 저 높은 곳에서 불타는 로마를 구경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배은망덕한 딸이 제 아비 타르퀴노의 시신을 짓밟았듯, 오만하게 이 불쌍한 시신을 짓밟으러 온 것인가? 무슨 일로 왔는지, 무엇을 즐기러 왔는지 어서 말하라! 그리소스토모가 살아생전 단 한 순간도 당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음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그가 죽은 지금은 그의 친구라 자처하던 이들이 당신의 뜻에 따르게 만들겠다!"

"오, 암브로시오! 당신이 말한 그 어떤 일 때문도 아니에요." 마르셀라가 대답했다. "나는 그저 내 스스로를 변호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리소스토모의 고통과 죽음을 두고 나를 탓하는 이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주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요. 사리에 밝은 분들이라면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많은 말을 늘어놓지 않아도 금방 진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하늘이 여러분의 말대로 저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고들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들 말하며 실제로도 그러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타고난 이성을 통해 생각해보건대, 아름다운 것이 사랑받을 만하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사랑받는

다는 이유만으로, 아름다워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반드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게다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못생겼을 수도 있는 법인데, 못생긴 것은 미움을 받기 마련이니 '당신이 아름다우니 내가 못생겼어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무례한 일이지요. 설령 아름다움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까지 똑같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아름다움이 사람을 사랑에 빠뜨리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아름다움은 눈을 즐겁게 할 뿐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만약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람을 매료시키고 마음을 굴복시킨다면, 사람들의 의지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길을 잃고 말 거예요. 아름다운 대상은 무수히 많은데, 그에 따른 욕망 또한 무수히 많아질 테니까요.

제가 듣기로 진정한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으며,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믿는 바가 그러한데, 왜 여러분은 그저 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제 의지를 억지로 굴복시키려 하나요? 차라리 대답해 보세요. 만약 하늘이 저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 못생기게 만드셨다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분을 원망하는 게 정당할까요? 무엇보다 제가 가진 이 아름다움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 아름다움을 구걸하거나 고른 적이 없으며, 하늘이 제게 거저 내려준 은총일 뿐이에요.

독사가 타고난 독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 독을 가진 죄를 물을 수 없듯이, 저 또한 아름답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정숙한 여인의 아름다움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불꽃이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태우지도 베지도 못하는 법이니까요. 명예와 미덕은 영혼의 장식이며, 이것들이 없다면 육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어요. 정숙함이야말로 몸과 영혼을 가장 빛나게 하는 미덕 중 하나인데, 단지 자신의 취향을 채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타락시키려는 이들의 의도에 맞추어,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받는 여인이 왜 그 정숙함을 잃어야 한단 말인가요?"

"저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이 들판의 고독을 선택했어요. 이 산의 나무들이 저의 동료이며, 이 시냇물의 맑은 물은 저의 거울입니다. 저는 나무와 물을 벗 삼아 제 생각과 아름다움을 나눕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불꽃이자, 멀리 놓인 칼과 같아요. 제 눈길에 매료된 이들에게는 말로써 환상을 깨뜨려 주었지요.

만약 욕망이 희망을 먹고 자라는 것이라면, 저는 그리소스토모나 그 누구에게도 단 한 줌의 희망도 주지 않았으니, 그들이 맞이한 결말은 저의 냉혹함 때문이라기보다 차라리 그들 자신의 고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혹여 그들의 마음이 정숙했기에 저 또한 그 마음에 보답할 의무가 있었다고들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지금 그의 무덤을 파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제게 순수한 의도를 드러냈을 때, 저는 제 삶의 방식은 영원한 고독 속에 머무는 것이며, 오직

대지만이 제 은둔의 결실과 아름다움의 흔적을 누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희망에 반하여 고집을 부리고 바람을 거슬러 항해하려 했다면,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이라는 거대한 만(灣) 한가운데서 침몰한들 어찌 이상한 일이겠어요? 만약 제가 그를 붙잡아 주었다면 그것은 거짓이었을 것이고, 그를 만족시켜 주었다면 제 신념과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는 진실을 깨닫고도 고집을 부렸고, 제가 미워한 적도 없는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 이제 그의 고통을 두고 저를 탓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지 보십시오!

속았다고 한탄하는 이는 스스로 한탄하게 두고, 약속된 희망을 얻지 못해 절망하는 이는 스스로 절망하게 두세요. 제가 부르는 이는 희망을 품게 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이는 기뻐하게 두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하지도, 속이지도, 부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저를 잔인하다거나 살인자라고 부르지는 마십시오."

"하늘은 지금까지도 제 운명이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니, 제가 스스로 선택하여 사랑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마십시오. 이 일반적인 진실이 저를 연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라도 저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긴다 해도, 그것은 질투나 불행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없는 법이니, 환상이 깨지는 것을 냉대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맹수나 바실리스크라고 부를 사람은 저를 해롭고 나쁜 존재로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은혜도 모르는 여자라고 부를 사람은 저를 섬기지 마십시오.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 부를 사람은 저를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저를 잔인하다고 할 사람은 저를 따르지 마십시오. 이 맹수이자 바실리스크이며, 은혜도 모르고 잔인하며 정체 모를 여자는 그 누구도 찾지도, 섬기지도, 알려고 하지도, 따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소스토모를 죽인 것이 그의 조급함과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었다면, 어찌 저의 정숙한 처신과 조심스러움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무들과 어울리며 저의 순결을 지키고 있다면,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순결을 잃기를 바라는 이가 어찌 저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저만의 재산을 가졌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신분이며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원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을 속이지도, 저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으며, 한쪽을 조롱하거나 다른 쪽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마을 소녀들과 나누는 정숙한 대화와 염소들을 돌보는 일로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제 욕망의 끝은 이 산맥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제 욕망이 이곳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영혼이 처음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인 저 하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듣고 싶지 않은 듯 등을 돌려, 근처에 있는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현명함과 아름다움에 모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이라는 강력한 화살에 맞은 몇몇 이들은, 방금 들은 명백한 진실을 깨닫기는커녕 그녀를 뒤쫓고 싶다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돈키호테는 지금이야말로 기사답게 행동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처녀들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고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분이나 처지가 어떠하든 그 누구도 아름다운 마르셀라를 뒤쫓을 엄두를 내지 마라! 만약 이를 어긴다면 나의 격렬한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리소스토모의 죽음에 자신에게 잘못이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음을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를 들어 밝혔으며, 연모하는 이들의 욕망에 응해줄 마음이 추호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녀는 쫓기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대신, 세상의 모든 선량한 이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의 정직한 뜻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의 위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암브로시오가 선한 친구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는지, 목동 중 그 누구도 움직이거나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소스토모의 글들을 불태운 뒤, 지켜보던 이들의 수많은 눈물 속에 그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무덤은 커다란 바위로 입구를 막아 두었는데, 이는 암브로시오가 따로 주문해 만들 생각이라고 말한 석판이 완성

될 때까지 임시로 막아 둔 것이었습니다. 그 석판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질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에 한 연인이 남긴 가련하고도 차디찬 시신이 누워 있나니,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으나 사랑을 잃고 방황하였도다. 그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아름답고도 냉담한 여인의 가혹함에 숨을 거두었으며, 그 여인이 휘두르는 사랑의 폭정 아래 영원히 굴복하였도다.

그 후 사람들은 무덤 위에 수많은 꽃과 꽃다발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암브로시오에게 위로를 건네며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비발도와 그의 일행도 똑같이 작별을 고했습니다. 돈키호테 역시 머물던 주인들과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행인들은 돈키호테에게 세비야로 함께 가자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세비야는 모험을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 거리마다 골목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모험거리가 넘쳐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돈키호테는 자신을 배려해 준 그들의 조언과 격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세비야에 갈 마음도 없고 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둑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저 산맥들을 모두 소탕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돈키호테의 확고한 결심을 본 행인들은 더는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그들은 마르셀라와 그리소스토모의 이야기나 돈키호테의 광기 어린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돈키호테는 양치기 처녀 마르셀라를 찾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그녀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한 이야기의 서술에 따르면, 일이 그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부를 마칩니다.

라만차의 명민한 귀족 돈키호테 제3부

제15장



제15장. 돈키호테가 무자비한 양구아스 사람들과 마주치며 겪게 된 불운한 모험에 대하여

현자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의 기록에 따르면, 돈키호테는 손님들과 양치기 그리스로스토모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모든 이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러고는 종자인 산초와 함께 양치기 마르셀라가 들어갔던 바로 그 숲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숲속을 두 시간 넘게 헤매며 마르셀라를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끝내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싱그러운 풀이 가득한 들판에 다다랐는데, 그 옆으로는 잔잔하고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곳의 풍경이 워낙 아늑하여, 두

사람은 막 시작되려던 무더운 낮잠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마음먹고 머물렀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말에서 내려, 당나귀와 로시난테가 그곳의 풍성한 풀을 마음껏 뜯어 먹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는 양쪽 가방을 풀어 놓은 뒤, 주인과 종자 사이의 격식 따위는 차리지 않고 아주 평온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방에 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산초는 로시난테가 워낙 온순하고 암말 따위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서, 코르도바 목장의 암말들이 죄다 몰려온다 해도 결코 엉뚱한 마음을 품지 않으리라 확신하고는, 다리를 묶어 둘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혹은 잠시도 쉬지 않는 악마의 장난인지, 마침 그 골짜기를 지나던 갈리시아 짐꾼들의 암말 무리와 마주치고 말았다. 이 짐꾼들은 풀과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짐을 멈추고 낮잠을 자는 습성이 있었는데, 돈키호테가 머물게 된 곳이 바로 그 갈리시아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그러던 중 로시난테가 암말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로시난테는 암말들의 냄새를 맡자마자 평소의 걸음걸이와 습성을 버리고는, 주인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경쾌한 발걸음으로 암말들에게 달려가 욕구를 채우려 했다. 하지만 암말들은 풀을 뜯는 것보다 로시난테를 상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모양인지, 편자와 이빨을 앞세워 로시난테를 공격했다. 순식간에 안장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로시난테는 안장도 없이 알몸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로시난테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짐꾼들이 자기 암말들이 당하는 꼴을 보고는 막대기를 들고 달려든 일이었다. 짐꾼들은 막대기로 로시난테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고, 결국 로시난테는 엉망진창이 된 채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이때 로시난테가 매 맞는 모습을 지켜본 돈키호테와 산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 산초야, 이들은 기사가 아니라 그저 상스러운 부류이자 천한 자들일 뿐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서 로시난테가 당한 이 모욕에 대해 마땅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대체 무슨 복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들은 스무 명이 넘는데 우리는 고작 둘뿐이잖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 둘을 합쳐도 한 명 반밖에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나는 백 명의 몫을 할 수 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돈키호테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듯 검을 뽑아 들고 갈리시아인들에게 달려들었다. 산초 판사도 주인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똑같이 행동했다.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돈키호테는 한 사람을 칼로 내리쳤는데, 그 바람에 상대가 입고 있던 가죽 겉옷은 물론 등판 살까지 크게 베여 갈라졌다. 하지만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던 갈리시아인들은 고작 두 명에게 당하는 것이 분했는지, 곧장 몽둥이를 챙겨 들고 달려들었다. 그들은 두 사람을 가운데 가두고는 아주 격렬하고 사납게 몽둥이를 휘

둘러댔다. 사실 두 번째 타격에 산초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돈키호테 역시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기개가 높다 한들 별수 없이 똑같이 쓰러지고 말았다. 운명의 장난인지 돈키호테는 아직 일어나지도 못한 로시난테의 발치에 떨어졌는데, 그곳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친 사내들이 몽둥이로 두 사람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는지 생생히 볼 수 있었다.

갈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서둘러 짐승들을 몰아 길을 떠났다. 그들은 몰골은 말이 아니고 심사는 더더욱 사나워진 두 모험가를 뒤로한 채 그대로 가버렸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앓는 소리를 낸 사람은 산초 판사였다. 그는 주인 곁에 쓰러져 있던 터라, 힘없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 돈키호테 나리! 아, 돈키호테 나리!

— 무슨 일이냐, 산초 형제여? —돈키호테가 산초와 똑같이 가냘프고 신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나리.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 나리께서 지금 바로 손닿는 곳에 가지고 계신다면, 그 못생긴 블라스가 만든 술을 딱 두 모금만 주셨으면 합니다. 상처를 낫게 하는 데 좋듯이, 부러진 뼈를 추스르는 데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 내가 만약 그 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불쌍한 놈아,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겠느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 하지만 산초 판사야, 내가 방랑 기사로서 맹세하건대, 운명이 다르게 흘러가지 않는 한 이틀

안에 반드시 그 술을 손에 넣고 말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내 손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 그럼, 나리께서는 우리가 언제쯤 발을 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초 판사가 되물었다.

—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두지. —만신창이가 된 기사 돈키호테가 말했다. — 이 고난의 나날이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 모든 건 내 잘못이다. 나처럼 무장을 갖춘 기사가 아닌 자들에게는 칼을 뽑아 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다. 기사도의 법도를 어겼으니, 전쟁의 신께서 내게 이런 벌을 내리도록 허락하신 게 분명하다. 그러니 산초 판사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라. 우리 둘의 안위에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앞으로 저런 천한 무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보거든, 내가 칼을 뽑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나는 절대로 칼을 뽑지 않을 것이니, 네가 직접 칼을 뽑아 네 마음대로 저들을 응징하거라. 만약 저들이 기사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그때는 내가 온 힘을 다해 너를 지키고 저들을 응징해 주마. 내 이 강인한 팔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는 이미 수많은 증거와 경험을 통해 네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용맹한 비스카야인을 무찌른 일로 가련한 주인님은 이토록 기세가 등등해져 있었다. 하지만 직접 칼을 뽑아 맞서라는 주인님의 당부가 산초 판사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았기에, 그는 이렇게 대꾸했다.

— 주인님, 저는 평화롭고 온순하며 차분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먹여 살리고 키워야 할 처자식이 있으니,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냥

못 본 체하며 넘길 줄도 압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도 미리 알아두십시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제 결심입니다. 저는 앞으로 천한 놈을 상대하든 기사를 상대하든, 절대로 칼을 뽑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지른 일부터 앞으로 저지를 모든 모욕까지, 신의 이름으로 모두 용서하겠습니다. 상대가 귀한 신분이든 천한 신분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귀족이든 세금을 내는 평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신분이나 처지도 따지지 않고 전부 용서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님이 대답했다.

— 숨을 좀 돌리면서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 갈비뼈의 통증도 좀 가라앉아야 네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라도 해줄 텐데 말이다. 이 죄인아, 이리 좀 와 보거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불리하게만 불던 운명의 바람이 이제 우리 편으로 돌아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돛을 밀어준다면 어쩌겠느냐? 그리하여 내가 약속한 어느 섬에 아무런 차질 없이 무사히 도착하게 된다면, 내가 그 섬을 정복한 뒤에 너를 그 섬의 영주로 삼아준다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설마 네가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기사가 될 마음도 없고 네가 당한 모욕을 갚거나 네 영지를 지킬 용기도 없다는 이유로 내 뜻을 가로막으려는 건 아니겠지? 잘 들어두어라. 새로 정복한 왕국이나 지방의 백성들은 결코 마음이 편안한 법이 없다. 새로운 영주가 나타나면, 그들은 언제든 반란을 일으켜 판을 뒤엎고 다시 예전의 운을 되찾으려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품고 살기 마련이다. 그러니 새로 영토를 차지한 자는 스스로를 다스릴 지혜를 갖추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맞서 싸우거나 자신을 방어할 용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법이다.

— 이번에 우리가 겪은 일 말입니다만—산초가 대답했다—저도 주인님 말씀처럼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지금 제 상태는 말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라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주인님, 일단 몸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세요. 로시난테도 좀 도와줍시다. 비록 이 녀석이 이 난리의 주범이라 그럴 자격은 없지만 말입니다. 저는 로시난테가 저만큼이나 순하고 평화로운 녀석인 줄로만 알았지, 결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에휴,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이 세상에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는 말도 다 틀린 게 하나 없군요. 주인님께서 그 불쌍한 방랑 기사에게 그토록 큰 칼질을 퍼부으셨을 때, 그 뒤를 이어 이토록 무시무시한 매질의 폭풍이 몰려와 우리 등에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 산초야, 네 어깨야 그런 험궂은 먹구름쯤은 이골이 났을 테지—돈키호테가 대답했다—하지만 고운 비단과 아마포 사이에서 곱게 자란 내 어깨는, 이 불행한 고통을 한결 더 뼈저리게 느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모든 곤욕이 무기를 다루는 자에게 으레 따라붙는 일이라고 내가 상상하지—아니, 상상이라니? 똑똑히 잘 알고 있지—않았더라면, 나는 분통이 터져 여기서 그냥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러자 종자가 대답했다.

— 주인님, 이런 불행이 기사도라는 이름 아래 겪어야 할 숙명이라면, 이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만약 신께서 그 끝없는 자

비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이런 일을 두 번만 더 겪고 나면 세 번째 수확을 거둘 때쯤엔 저희가 아주 쓸모없는 몸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 잘 알거라, 친구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편력기사의 삶이란 수천 가지의 위험과 불행에 노출되어 있는 법이다. 하지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많은 기사가 그러했듯 편력기사는 왕이나 황제까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 나는 그 기사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단다. 만약 지금 내 몸의 통증이 허락한다면, 오직 팔의 용맹함만으로 내가 말한 높은 지위에 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앞뒤로 온갖 재난과 비참함을 겪어야만 했지. 용맹한 아마디스 데 가울라를 보아라. 그는 숙적인 마법사 아르칼라우스의 손아귀에 떨어져 포로가 된 적이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아르칼라우스는 그를 안뜰 기둥에 묶어 놓고 말 고삐로 이백 대가 넘는 매질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꽤 신뢰할 만한 어느 익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페보의 기사가 어떤 성에서 발밑이 꺼지는 함정에 빠졌다고 말이다. 그는 땅속 깊은 구렁에 떨어져 손발이 묶인 채, 눈 녹인 물과 모래로 만든 '멜레시나스'라는 관장약을 받는 고초를 겪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만약 지혜로운 친구가 그 큰 재난 속에서 구해내지 않았더라면 가련한 기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을 것이다. 그러니 나 역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사이를 당당히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보다 저들이 겪은 치욕이 훨씬 더 크지 않으냐? 산초야, 명심하거라. 손에 잡히는 도구로 입은 상처는 결코 치욕이 아니다. 결투의 법전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지. 만약 구두 수선

공이 손에 든 구두 골로 누군가를 때렸다면, 그 골이 비록 나무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것 때문에 맞은 사람이 매를 맞았다고 말하지는 않는 법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싸움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서다. 저들이 우리를 두들겨 팰 때 휘두른 무기는 그저 막대기뿐이었고, 내가 기억하기로 그들 중 누구도 레이피어나 칼, 혹은 단검 같은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 저도 그렇게 따져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겨우 티소나를 손에 잡으려던 참이었는데, 저들이 휘두른 막대기에 어깨를 얻어맞는 바람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결국 지금 누워 있는 이 자리까지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저 막대기에 맞은 게 치욕인지 아닌지 따지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매 맞은 통증이 이토록 심한데 말입니다. 이 아픔은 제 등뿐만 아니라 기억 속에도 아주 깊이 새겨질 것 같습니다.

— 그 모든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 형제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도 결국 사라지기 마련이고, 죽음이 앗아가지 못할 고통이란 세상에 없는 법이라네.

— 그렇다면, 자신을 갉아먹는 시간과 자신을 끝장낼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만약 우리의 이 불행이 찜질약 한두 장이면 나을 정도의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아무래도 병원의 고약(膏藥)을 다 끌어다 붙여도 이 상처를 그럭저럭 추스르기조차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 기운을 내게, 판사 형제여. 약해진 몸에서 억지로라도 힘을 끌어올려 보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할 테니, 우선 로시난테가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세. 내가 보기에는 저 불쌍한 놈이 이 불행을 조금도 겪지 않은 것 같으니 말일세.

— 저분이 저토록 훌륭한 기사인데, 저런 일이 생기는 게 뭐 그리 놀라운 일입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정작 놀라운 건, 우리는 갈비뼈가 다 나갈 정도로 얻어맞았는데 제 당나귀 놈은 아무런 상처도 없이 멀쩡하다는 사실입니다.

— 불행 속에서도 운명은 언제나 구제할 길을 마련해 두려고 문 하나를 열어두는 법이라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저 짐승이 지금은 로시난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네. 저 놈을 타고 이곳을 떠나 내 상처를 치료해 줄 어느 성으로 가기만 한다면 말일세. 게다가 그렇게 한다 해도 기사로서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네. 예전에 읽은 책에서 보았는데, 웃음의 신을 기르고 가르친 현자 실레노 노인이 백 개의 문이 있는 도시에 들어갈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당나귀를 타고 기사처럼 들어갔다고 하더군.

— 주인님 말씀대로 저 노인네가 기사처럼 타고 가야 했던 건 맞겠지만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기사처럼 위풍당당하게 가는 거랑, 쓰레기 자루마냥 덜렁거리며 가는 건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러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 전투 중에 입는 상처는 명예를 앗아가기보다 오히려 명예를 높여 주는 법이다. 그러니 친구여, 산초 판사여, 더는 내 말에 토를 달지 마라. 이미 말했듯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몸을 일으켜서 나를 네 당나귀 위에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올려다오. 그러고는 밤이 찾아와 이 황량한 곳에서 우리를 습격하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자꾸나.

—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나리 —산초 판사가 말했다—. 편력기사들은 일 년 중 대부분을 황량한 들판이나 사막에서 잠을 자며 지낸다던데, 그게 아주 운이 좋은 일이라고들 하더라고요.

— 그렇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더는 버틸 힘이 없거나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러는 법이지. 이건 정말 사실이다. 어떤 기사는 자신의 귀부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2년 동안이나 바위 위에서 햇볕과 그늘을 견디며 하늘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온몸으로 받아내기도 했단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아마디스였지. 벨테네브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에 페냐 포브레 바위에 머물렀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8년이었는지 8개월이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가 거기서 고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리아나 님에게 무슨 서운한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자, 산초,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로시난테처럼 네 당나귀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치기 전에 어서 마무리하거라.

— 그러게 말입니다, 악마가 따로 없겠네요. —산초 판사가 말했다.

그렇게 산초 판사는 서른 번의 탄식과 예순 번의 한숨, 그리고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에게 퍼붓는 백이십 번의 저주와 악담을 쏟아내며 일어났다. 하지만 몸이 너무 고된 나머지, 길 한복판에서 마치 휘어

진 활처럼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쩔쩔맸다. 그러면서도 그 고생을 다 하며 당나귀에게 짐을 실었는데, 당나귀 역시 그날 너무 자유롭게 돌아다닌 탓에 기운이 좀 빠져 있는 상태였다. 이어 로시난테를 일으켜 세웠다. 만약 로시난테에게 불평할 수 있는 혀가 있었다면, 산초나 그의 주인 못지않게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을 것이 분명했다.

결국 산초 판사는 돈키호테를 당나귀에 태우고, 로시난테는 줄로 매어 뒤따르게 했다. 그러고는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 길을 재촉했는데, 대략 국도가 있을 법한 방향으로 향했다. 일이 잘 풀리려는지 운도 따라주었다. 채 한 마장도 가지 않았을 때, 길가에 여관 하나가 나타났다. 돈키호테의 눈에는 그곳이 분명 성으로 보였으나, 산초의 생각은 달랐다. 산초는 여관이라고 우겼고, 주인은 성이 아니면 안 된다며 고집을 피웠다. 두 사람의 실랑이는 끝을 보지 못한 채 계속되었고, 결국 그들은 그곳에 도착했다. 산초는 더 따져 물을 것도 없다는 듯, 자신이 끌고 온 짐짐승 무리와 함께 여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제16장



제16장. 재치 있는 귀공자가 성이라고 착각한 여관에서 겪게 된 일에 대하여

나귀에 걸터앉은 채 힘겹게 나아가는 돈키호테를 본 여관 주인은 산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산초는 별일 아니라며, 그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갈비뼈 쪽이 좀 욱신거릴 뿐이라고 대답했다. 여관 주인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보통 그런 장사를 하는 여자

들과는 달리 성품이 아주 자애로웠다. 남의 불행을 보면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안주인은 곧장 돈키호테를 치료하러 달려갔고, 아주 예쁘고 참한 처녀인 자신의 딸에게도 손님을 돌보는 일을 돕게 했다. 여관에는 아스투리아스 출신의 하녀도 한 명 있었는데, 얼굴은 넓적하고 목덜미는 펑퍼짐했으며 코는 뭉툭했다. 한쪽 눈은 멀었고 다른 쪽 눈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사실 몸매가 훤칠해서 다른 결점들은 가려질 정도였다. 키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채 일곱 뼘도 되지 않았고, 등에 짐을 좀 지고 다녀서 그런지 본의 아니게 고개를 땅 쪽으로 숙이고 다니는 형국이었다. 이 하녀는 처녀를 도와 돈키호테를 돌보았다. 두 사람은 돈키호테를 위해 다락방에 침상을 하나 마련해 주었는데, 그곳은 예전에 오랫동안 짚을 쌓아두던 곳이었음이 분명할 정도로 형편없는 곳이었다. 그 방에는 짐꾼 하나도 머물고 있었는데, 그의 침상은 우리 돈키호테의 침상보다 조금 더 안쪽에 놓여 있었다. 짐꾼의 침상은 비록 나귀에게 씌우던 덮개와 담요로 만든 것이었으나, 돈키호테의 침상보다는 훨씬 나았다. 돈키호테의 침상이라곤 고작 매끄럽지 않은 판자 네 개를 수평도 맞지 않는 벤치 두 개 위에 얹어놓은 것이 전부였고, 그 위에는 솜이 다 죽어 얇은 덮개처럼 보이는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 매트리스 속 솜뭉치들은 군데군데 터진 틈으로 양털임이 드러나지 않으면, 만졌을 때 마치 조약돌처럼 딱딱했다. 시트라고는 방패 가죽으로 만든 것 두 장뿐이었고, 담요는 실을 하나하나 세어 보려 해도 단 한 가닥도 놓치지 않을 만큼 낡아 있었다. 돈키호테는 이 저주받을 침상에 몸을 뉘었고, 곧이어 안주인과 딸이 그의 온몸에 약을 발라주었다. 아스투리아스 출신인 마리토르네스가 그 곁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었다. 안주인은 돈키호테의 몸 여기저기가 시퍼렇게 멍든 것

을 보고는, 이게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 세게 얻어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맞은 게 아닙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저 절벽이 울퉁불퉁하고 험해서 발을 좀 헛디뎠을 뿐입니다."

"그저 넘어진 곳이 워낙 험해서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든 것뿐입니다." 산초가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부인, 삼 부스러기를 좀 남겨 두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요. 실은 저도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산초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안주인이 대답했다. "당신도 틀림없이 넘어졌던 모양이군요."

"전 안 넘어졌습니다." 산초 판사가 말했다. "주인님께서 넘어지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온몸이 천 대를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플 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녀가 말했다. "저도 꿈속에서 탑 아래로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꾸거든요. 땅에 닿을 듯 말 듯 끝없이 떨어지다가 잠에서 깨고 나면, 마치 실제로 떨어진 것처럼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프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부인."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저는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정신이 말짱한 상태인데도 주인님 돈키호테께서 입으신 것만큼이나 온몸에 멍이 들었거든요."

"이 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아스투리아스 출신의 마리토르네스가 물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모험을 떠나는 기사님이신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나타났던 기사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강인한 분이시지요."

"모험을 떠나는 기사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하녀가 되물었다.

"그걸 모르실 정도로 세상 물정에 어두우신가요?"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가씨. 모험을 떠나는 기사라는 건 말하자면 한마디로, 매를 맞고 나앉았다가도 금세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니까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난한 처지일지 몰라도, 내일은 종자에게 두세 개의 왕국을 물려줄 수도 있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여관 주인이 말했다. "그렇게 훌륭한 주인님을 모시는 종자이신데도, 보아하니 백작령 하나조차 없으신 건가요?"

"아직 이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모험을 찾아 떠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모험을 하나도 만나지 못했고요. 어쩌면 찾는 건 따로 있는데 정작 발견하는 건 딴판일지도 모르

지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우리 주인님인 돈키호테께서 이 상처와 낙마의 고통에서 회복하시고 저 또한 다치지 않고 무사하기만 한다면, 저는 스페인에서 그 어떤 높은 작위를 가진 분과도 제 희망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돈키호테는 이 모든 대화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몸을 가누며 침상에 앉아, 여관 주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운 부인,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저 같은 사람을 이 성에 머물게 하셨으니 당신은 참으로 운이 좋은 분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칭송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치켜세우면 오히려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 때문이지, 결코 제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제 종자가 말해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당신이 베풀어 준 이 친절을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두고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감사하겠다는 사실뿐입니다. 아, 하늘이시여! 만약 사랑이 저를 이토록 무력하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제가 입술 사이로 차마 내뱉지 못하는 저 아름답고 냉정한 여인의 눈길에 이토록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아름다운 처녀의 눈길이 제 자유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관 주인과 그녀의 딸, 그리고 착한 마리토르네스는 편력기사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기사가 하는 말은 마치 그리스어로 말하는 것처럼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그 내용이 결국 자신들에게 구애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이라는 점만은 알아차렸다. 평소 이런 식의 말투를 접해

본 적 없는 그녀들은 기사를 쳐다보며 신기해했다. 그가 요즘 세상에는 보기 드문 별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여관 주인 일행은 여관 주인다운 방식으로 그의 구애에 감사를 표하며 그를 물러나게 했다. 한편, 아스투리아스 출신인 마리토르네스는 주인만큼이나 치료가 절실했던 산초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

그 짐꾼은 그녀와 오늘 밤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그녀 또한 손님들이 모두 잠잠해지고 주인들도 잠든 뒤에 그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 그의 욕구를 채워주겠노라 약속까지 한 상황이었다. 이 착한 처녀에 대해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녀는 설령 깊은 산속에서 증인 하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한 번 내뱉은 약속은 결코 어기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스스로를 귀한 집 자제라 자부하며, 여관에서 일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불행한 사고와 악재가 겹쳐 어쩔 수 없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라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가 누운 딱딱하고 좁으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침상은 별이 빛나는 마구간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 곁에는 산초 판사가 자신의 잠자리를 마련했는데, 산초에게는 갈대로 짠 멍석 한 장과 담요 한 장뿐이었다. 그런데 그 담요는 양털이라기보다는 거친 천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이 두 침상 다음에는 짐꾼의 잠자리가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자신이 끌고 온 열두 마리의 노새 중 가장 상태가 좋고 살집이 두툼하며 유명한 놈 두 마리에서 떼어낸 짐받이와 장식물들로 잠자리를 꾸몄다. 이 이야기의 저자가 말하기를, 그는 아레발로에서 꽤 부유한 짐꾼이었다고 한다. 저자가 이 짐꾼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그를

아주 잘 알았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친척 관계였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물론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모든 일을 아주 세심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역사가이기도 했다. 게다가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이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그는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낱낱이 기록하려는 성미였다. 이 점은 진중한 역사가들이 본받아야 할 대목이다. 그들은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부주의나 악의, 혹은 무지함 때문에 빠뜨린 채,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도 못할 만큼 너무 짧고 간략하게만 서술하곤 하기 때문이다. '타블란테 데 리카몬테'의 저자나, 톰이요스 백작의 이야기를 다룬 다른 책의 저자에게 천 번이라도 축복이 있기를! 그들은 모든 것을 어찌 그리도 세밀하게 묘사해 냈던가!

그러니 요컨대, 짐꾼은 자신의 노새 무리를 둘러보고 두 번째 여물을 준 뒤, 자신이 가져온 짐받이 위에 몸을 뉘어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 마리토르네스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산초 판사는 이미 고약을 붙인 채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청해보려 애써도 갈비뼈의 통증 때문에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돈키호테 역시 갈비뼈가 아픈 탓에 토끼처럼 눈을 부릅뜬 채 깨어 있었다. 여관 안은 온통 적막에 싸여 있었고, 현관 중앙에 매달린 등잔 하나가 내뿜는 불빛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빛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토록 경이로운 정적 속에서, 돈키호테는 자신의 불행을 빚어낸 책들에 매 걸음마다 등장하는 사건들을 떠올렸다. 그러다 결국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이한 망상 중 하나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어느 유명한 성에 도착했다고 상상했다. 앞서 말했듯이 그에게는 여관이란 곳이 모두 성처럼 보였으니 말이다. 또한 여관집 딸이 곧 성주의 딸이며, 그녀가 그(돈키호테)의 품격에 매료되어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다. 심지어 그녀가 부모 몰래 오늘 밤 자신을 찾아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다는 망상까지 더해졌다. 스스로 만들어낸 이 허황된 꿈을 마치 엄연한 사실인 양 굳게 믿게 되자, 돈키호테는 자신의 정조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휩싸여 전전긍긍하기 시작했다. 그는 설령 기네비아 여왕과 그녀의 시녀 킨타뇨나가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군이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배신하는 비겁한 짓은 결코 저지르지 않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런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그 아스투리아스 여인이 찾아올 시간이 되었다 — 그에게는 불운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었다. 여인은 속옷 차림에 맨발로, 무명 망에 머리카락을 거두어 넣은 채, 짐꾼을 찾아가려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발걸음으로 세 사람이 머무는 방에 들어섰다. 하지만 여인이 문에 다다르자마자 돈키호테는 기척을 느꼈다. 그는 갈비뼈의 통증과 온몸에 붙인 고약에도 아랑곳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처녀를 맞이하고자 두 팔을 벌렸다. 사랑하는 이를 찾아 손을 앞으로 내밀며 조용히 다가오던 아스투리아스 여인은 돈키호테의 팔과 맞닥뜨렸다. 돈키호테는 그녀의 손목을 꽉 움켜쥐더니, 여인이 감히 입을 떼지도 못하게 한 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침대 위에 앉혔다. 그러고는 그녀의 속옷을 만져보았는데, 비록 여인의 옷은 거친 삼베였으나 그의 눈에는 아주 곱고 얇은 비단처럼 보였다. 여인의

손목에 걸린 유리 구슬은 그에게 눈부시게 빛나는 동양의 진주처럼 보였고, 갈기처럼 거친 머리카락은 태양빛마저 무색하게 만들 만큼 찬란하게 빛나는 아라비아의 황금 실타래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의심할 여지 없이 차게 식어 밤새 군내가 밴 샐러드 냄새가 풍기는 여인의 숨결조차, 그에게는 입에서 배어 나오는 은은하고 향기로운 향기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는 상상 속에서, 사랑에 빠져 부상당한 기사를 찾아온 책 속의 그 공주와 똑같은 모습으로, 방금 묘사한 그 모든 화려한 장식을 갖춘 모습으로 그녀를 그려냈다. 가련한 귀족의 눈은 어찌나 멀었는지, 짐꾼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구역질이 났을 법한 그 처녀의 촉감도, 숨결도, 그 밖에 그녀가 지닌 다른 어떤 것도 그의 착각을 깨우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품에 미의 여신을 안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를 꽉 붙잡고는, 사랑이 넘치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고귀하신 여인이여, 당신의 그 눈부신 미모를 마주한 이 은혜에 보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선량한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운명의 장난 때문인지, 저는 지금 이 침상에 누워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 의지만 있다면 기꺼이 당신의 뜻을 따르고 싶으나, 지금의 몸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불가능함에 더해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오직 한 분뿐인 주군, 비할 데 없이 고결하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게 이미 맹세한 신의입니다. 만약 이 신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더라면, 당신의 그 크나큰 자비가 저에게

준 이 행운 같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만큼 어리석은 기사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마리토르네스는 돈키호테가 자신을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렸다. 그녀는 돈키호테가 하는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도, 귀 기울여 듣지도 못한 채 그저 아무 말 없이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한편, 나쁜 마음을 품고 있던 착한 짐꾼은 여인이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녀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돈키호테가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러다 혹시라도 아스투리아스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질투가 난 그는, 돈키호테의 침대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그리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 말들이 대체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려고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여인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돈키호테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자, 이 장난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 그는 팔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러고는 사랑에 빠진 기사의 좁은 턱을 향해 무시무시한 주먹을 내리쳤는데, 그 충격에 기사의 입안이 온통 피로 물들 정도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기사의 몸 위로 올라타더니, 마치 달리기라도 하듯 발을 구르며 기사의 갈비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정없이 짓밟아 버렸다.

침대는 구조가 다소 허술하고 바닥도 튼튼하지 못했다. 결국 짐꾼의 거친 발길질을 견디지 못한 침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깬 여관 주인은 마리토르네스가 소란을 피우는 것이라 짐작했다. 그가 큰 소리로 그녀를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인은 그런 의심을 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등잔불을 켜고,

소란이 일어난 곳을 향해 걸어갔다. 주인은 성격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다. 이를 본 마리토르네스는 겁에 질려 허둥대다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산초 판사의 침대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곳에 몸을 웅크리고 잔뜩 움츠러들었다. 여관 주인이 들어오며 말했다.

"이년아, 어디 있느냐? 분명히 네가 저지른 짓이겠지!"

이때 산초 판사가 잠에서 깨어났다. 자기 몸 위로 덩어리 같은 것이 느껴지자, 그는 악몽을 꾸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방으로 주먹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얼떨결에 마리토르네스를 몇 대나 때리고 말았다. 통증을 느낀 마리토르네스는 체면 따위는 내팽개치고 산초에게 마구 주먹을 되돌려 주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산초는 본의 아니게 잠이 확 달아나고 말았다. 대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이런 대접을 받자, 산초는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마리토르네스를 끌어안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격렬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난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짐꾼은 여관 주인이 켠 등잔불 빛으로 자기 여인이 어떤 봉변을 당하고 있는지 보고는, 돈키호테를 내버려 둔 채 그녀를 도우러 달려갔다. 여관 주인도 똑같이 달려들었지만 목적은 달랐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 분명 저 하녀에게 있다고 믿었기에 그녀를 벌주려 한 것이었다. 흔히 말하듯 '고양이는 쥐에게, 쥐는 줄에, 줄은 막대기에' 달려들 듯이, 짐꾼은 산초를 때리고, 산초는 하녀를 때리고, 하녀는 짐꾼을 때리고, 여관 주인은 하녀를 때리며, 모두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정신없이 서로를 두들겨 댔다. 그런데 마침 여관 주인의 등잔불이 꺼져 사방이 캄캄해지는 바람에, 어둠 속에서 다들 사정없이 손

에 잡히는 대로 후려치니, 손이 닿는 곳마다 멀쩡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여관에는 톨레도의 이른바 '구(舊) 성스러운 형제단'이라 불리는 치안대의 순찰 대원 한 명이 마침 묵고 있었다. 그 역시 난투극의 기이한 소란을 듣고는, 직권을 상징하는 단장(短杖)과 직위를 증명하는 양철 상자를 움켜쥔 채 어둠 속을 더듬어 방 안으로 들어서며 이렇게 외쳤다.

"법의 심판을 받아라! 성스러운 형제단의 심판을 받아라!"

그가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은 흠씬 두들겨 맞은 돈키호테였다. 돈키호테는 무너진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순찰대원은 더듬더듬 손을 뻗어 돈키호테의 수염을 움켜쥐고는,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다.

"법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오!"

하지만 붙잡고 있는 자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자, 그는 그자가 이미 죽었으며 방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를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의심이 들자 그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이렇게 외쳤다.

"여관 문을 닫으시오!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막으시오! 여기서 사람이 죽었소!"

이 외침에 모두가 깜짝 놀라, 저마다 그 소리가 들린 순간의 자세 그대로 싸움을 멈추었다. 여관 주인은 자기 방으로, 짐꾼은 자기 짐 안장

으로, 하녀는 자기 잠자리로 물러갔다. 오직 불운한 돈키호테와 산초만이 있던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때 순찰대원이 돈키호테의 수염을 놓아주고, 범인들을 찾아 붙잡을 불빛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는 불빛을 구하지 못했으니, 여관 주인이 자기 방으로 물러가면서 일부러 등불을 꺼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순찰대원은 하는 수 없이 벽난로로 가서, 한참을 애쓴 끝에야 겨우 다른 등불 하나를 밝힐 수 있었다.

제17장



제17장. 용맹한 돈키호테와 그의 충직한 종자 산초 판사가 불운하게도 성으로 착각해 버린 여관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이 계속되는 이야기

이 무렵 돈키호테는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상태였다. 그는 말뚝이 박힌 골짜기에 누워 있으면서, 전날 종자를 불렀을 때와 똑같은 목소리로 산초를 부르기 시작했다.

"산초야, 친구여, 자느냐? 자고 있느냐, 산초 친구?"

"잠이 문제입니까, 그게? 지금 내 심사가 얼마나 참담하고 분통 터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밤은 마치 온갖 악마가 나를 들볶고 지나간 것만 같단 말입니다." 산초가 울화와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그렇다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 성이 마법에 걸린 것이 분명하니까 말일세. 자네도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내가 죽고 난 뒤까지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하네."

"맹세하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누구든 그 명예가 훼손되는 꼴을 나는 두고 보지 못하기 때문일세."

"맹세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초가 다시 말했다. "나으리의 일정이 다 끝날 때까지는 입을 꾹 다물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내일은 이 사실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산초야, 내가 너에게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렇게나 빨리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게 아닙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저 저는 비밀을 너무 오래 간직하는 걸 질색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입도 못 떼고 속에서 썩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는 네 우정과 예의를 더 믿기로 하마. 그러니 네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오늘 밤, 나는 내 평생 겪은 일 중에서도 이루 다 추어올릴 수 없을 만큼 가

장 기이한 모험을 하나 겪었다. 짧게 들려주자면 이렇다. 조금 전에 이 성의 주인 되시는 분의 따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그녀는 이 세상 드넓은 땅을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아하고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 자태의 아름다움을 내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그 영민하고 빼어난 지혜는 또 어떻고? 하지만 내 주군이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그 밖의 은밀한 것들은 차마 입에 담지 않고 침묵 속에 고이 남겨 두겠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행운이 내 손에 쥐여 준 이 크나큰 복을 하늘이 시기한 탓인지, 아니면 내가 앞서 말한 대로 이 성에 마법이 걸린 탓인지 — 후자가 가장 확실하겠지만 — 내가 그녀와 더없이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나누고 있을 때였다. 그녀가 어디서 오는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거대한 거인의 팔에 붙은 듯한 손 하나가 날아와 내 턱을 주먹으로 한 대 후려쳤는데, 어찌나 세게 쳤던지 지금 내 턱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게다가 그 뒤로 어찌나 사정없이 나를 짓이겨 놓았는지, 로시난테가 너무 날뛰는 바람에 갈레고 사람들에게 그 봉변을 당했던 어제보다도 상태가 더 나쁘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처녀의 아름다움이라는 보물은 어떤 마법에 걸린 무어인이 지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모양이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무어인 사백 명도 넘게 달려들어 두들겨 팬 꼴이라, 지난번 말뚝 찜질은 이에 비하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우리 두 사람 꼴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대체 이 일을 어찌 좋고 진귀한 모험이라 부르시는 겁니까? 그래도 주인님은 사정이 좀 나으시지요.

말씀하신 그 비할 데 없는 미인을 두 손에 안아 보기라도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제 평생 받아 볼 매질 중에서도 가장 호된 매질 말고 무엇을 얻었단 말입니까! 아, 가엾은 내 신세, 나를 낳아 주신 어머니마저 가엾구나! 저는 편력기사도 아니고 앞으로 될 생각도 전혀 없는데, 온갖 궂은일은 죄다 저에게만 가장 많이 떨어지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도 얻어맞았단 말이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제 가문이 어쨌든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슬퍼하지 말게, 친구여."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지금 당장 아주 귀한 영약을 만들 테니,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둘 다 나을 수 있을 것이네."

순찰대원은 등불을 켜는 일을 마저 끝내고는, 자기가 죽었다고 여긴 그 사람을 보러 안으로 들어갔다. 산초는 셔츠 차림에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든 채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순찰대원을 보고,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님, 혹시 저자가 미처 다 끝내지 못하고 남겨 둔 일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벌하러 온 그 마법에 걸린 무어인은 아닐까요?" 산초가 물었다.

"그 무어인일 리 없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마법에 걸린 자는 누구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대신 몸으로 느껴지게라도 하겠지요." 산초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제 등짝이 증명해 줄 겁니다."

"내 등짝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눈앞에 보이는 저 자가 마법에 걸린 무어인이라고 믿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때 순찰대원이 다가왔다. 두 사람이 너무나 평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그는 어안이 벙벙해져 멈춰 섰다. 사실 돈키호테는 흠씬 두들겨 맞고 고약을 처바른 탓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다. 순찰대원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래, 몸 상태는 좀 어떠신가, 양반?"

"내가 만일 당신이라면 좀 더 예의를 갖춰 말했을 거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땅에서는 편력기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관례인가, 이 멍청한 자여?"

그렇게 흉한 몰골의 사내에게 그런 대접을 받자 순찰대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기름이 가득 담긴 등불을 들어 올려 돈키호테의 머리를 그대로 내리쳤고, 그 바람에 돈키호테는 머리가 아주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다. 사방이 어둠에 잠기자 순찰대원은 곧장 자리를 떠났고, 산초 판사가 말했다.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주인님. 저놈은 분명 마법에 걸린 무어인임이 틀림없습니다. 보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고, 우리에게는 그저 주먹질과 등불질이나 던져주려는 게 분명해요."

"그렇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런 마법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화를 내거나 분통을 터뜨릴 이유도 없다. 마법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환상에 불과하니, 아무리 애를 써도 복수할 대상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산초, 할 수 있다면 어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이 성의 성주를 불러오너라. 만병통치약을 만들 수 있게 기름과 포도주, 소금, 그리고 로즈마리를 좀 가져다 달라고 전해라. 이 유령 같은 놈이 입힌 상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으니, 지금 당장 약이 꼭 필요할 것 같구나."

산초는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어둠 속을 더듬어 여관 주인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러다 제 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엿들으려 귀를 기울이고 있던 순찰대원과 마주치자, 산초가 그에게 말했다.

"나리, 누구시든 좋으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로즈마리와 기름, 소금, 그리고 포도주를 좀 나눠주십시오. 저기 침대에 누워 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사 중 한 분을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여관에 있는 마법을 부리는 무어인 놈에게 당해 상처를 입으셨거든요." 산초가 이렇게 말하자, 순찰대원은 그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날이 밝아오고 있었기에, 순찰대원은 여관 문을 열고 주인을 불러다가 그 선량한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했다. 주인은 산초가 요청한 것을 모두 내주었고, 산초는 그것을 돈키호테에게 가져갔다. 돈키호테는 머리에 손을 얹은 채 등불에 맞은 통증을 호소하며 신음하고 있었다. 사실 등불에 맞은 것은 머리에 커다란 혹 두 개가 솟았을 뿐 별다른 상처를 입힌 것도 아니었으며, 그가 피라고 생각한 것은 지난밤의 소동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흘린 땀에 불과했다.

결국 돈키호테는 준비해 온 약재들을 모아 한데 섞은 뒤, 적당한 상태가 될 때까지 한참 동안 푹 달여 만병통치약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약을 담을 유리병을 찾았으나 여관에 마땅한 것이 없자, 주인에게서 기분 좋게 기증받은 양철로 만든 기름병에 담기로 했다. 약을 다 만든 뒤에는 축복을 내리는 의식이라며 기름병 위에서 주님의 기도 80번과 성모송, 살베, 사도신경을 그만큼씩 읊조렸고, 단어 하나하나를 말할 때마다 손으로 십자 성호를 그었다. 산초와 주인, 순찰대원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짐꾼은 이미 평온하게 돌아가서 노새들이 잘 있는지 살피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돈키호테는 자신이 만든 이 귀한 약이 정말 효험이 있는지 직접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기름병에 다 담지 못하고 솥에 남은 약을 거의 반 되 가까이 단숨에 들이켰다. 약을 다 마시자마자 그는 위장 속의 내용물을 모조리 게워낼 정도로 심하게 구토를 했다. 구토로 인한 고통과 격한 움직임 때문에 온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자, 그는 이불을 덮어주고 혼자 있게 해달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그 말대로 해주었고, 돈키호테는 세 시간 넘게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몸이 아주 가뿐해진 것을 느꼈고, 기운을 잃었던 몸 상태가 너무나 좋아져서 마치 완치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피에라브라스의 만병통치약을 만들어낸 것이라 믿었으며, 이 약만 있다면 앞으로 어떤 위험한 파멸이나 전투, 싸움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주인의 상태가 호전된 것을 기적이라 여긴 산초 판사도 솥에 남은 약을 좀 달라고 간청했다. 남은 양이 결코 적지 않았으나, 돈키호테는

흔쾌히 허락했다. 산초는 두 손으로 솥을 받쳐 들고는, 아주 정성스럽고 진지한 태도로 약을 들이켰는데, 그 양이 주인만큼이나 많았다. 아마도 불쌍한 산초의 위장은 주인만큼 예민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약을 마시자마자 산초는 구토를 하기 전부터 속이 뒤틀리고 메스꺼워졌으며,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정신을 잃을 듯 어지러워졌다. 산초는 정말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 만병통치약과 그것을 준 도둑놈을 저주하며 신음했다. 그 모습을 본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야, 내 생각에는 네가 기사 작위를 받지 못해서 이 고생을 하는 것 같구나.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약이 아무런 효험이 없는 모양이야."

"나리께서 그걸 알고 계셨다면," 산초가 대답했다. "저와 제 온 친척이 천벌을 받을 노릇이지요! 그런데 어째서 저더러 그걸 맛보게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까?"

그때 마침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엾은 종자 산초는 양쪽 구멍으로 속이 다 빠져나갈 듯 급히 배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워낙 기세가 대단한 나머지, 산초가 몸을 뉘었던 갈대 매트와 몸을 덮고 있던 얇은 천조각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산초는 땀을 비 오듯 쏟으며 격심한 발작과 경련에 시달렸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한지 산초 본인뿐만 아니라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곧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 난리통과 고생은 거의 두 시간 동안 이어졌다. 소동이 끝난 뒤 산초의 상태는 주인인 돈키호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도저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을 되찾은 돈키호테는 곧장 새로운 모험을 떠나고 싶어 했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만큼 세상과, 자신의 도움과 보호를 기다리는 가련한 이들을 저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이 만든 영약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까지 더해지니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결국 돈키호테는 이 열망을 이기지 못하고 직접 로시난테에 안장을 얹고 종자의 당나귀에는 길마를 얹은 뒤, 산초가 옷을 입고 당나귀에 올라타는 것까지 손수 거들어 주었다. 그러고 나서 말에 올라탄 돈키호테는 여관 구석으로 가서, 창 대신 쓸 만한 긴 막대기 하나를 집어 들었다.

여관에 있던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돈키호테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관 주인의 딸도 그를 바라보았는데, 돈키호테 역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돈키호테는 이따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듯한 긴 한숨을 내뱉었다. 사람들은 그 한숨이 어젯밤 입은 갈비뼈의 통증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전날 밤 그에게 찜질을 해 상처를 싸매주는 것을 본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두 사람이 여관 문 앞에 말을 세우자, 돈키호테는 여관 주인을 불러 세웠다. 그러고는 아주 침착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성주님, 이 성에서 제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고도 막대합니다. 제 평생 매일같이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당신에게 해를 끼친 오만한 자를 물리쳐 복수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보답은 없을 것입니다. 제 소명은 힘없는 이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위해 복수하며, 비겁한 자들을 응징하는 것뿐이니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혹시라도 제게 맡길 만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기사의 서약을 걸고, 당신의 뜻에 따라 반드시 그 보답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여관 주인도 똑같이 침착한 태도로 대답했다.

"기사님, 제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건드리면 제가 알아서 복수할 줄 아니까요. 다만 기사님께서 오늘 밤 이 여관에서 쓰신 비용만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두 마리 짐승이 먹은 짚과 보리값은 물론이고, 저녁 식사와 잠자리 비용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여관이란 말입니까?" 돈키호테가 되물었다.

"아주 번듯한 곳이지요." 여관 주인이 대답했다.

"지금껏 내가 속아 살았구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진심으로 이곳이 성인 줄 알았지, 결코 여관인 줄은 몰랐소. 하지만 성이 아니라 여관이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구려. 그러니 지금은 숙박비를 면제해 주시오. 나는 편력기사들의 규율을 어길 수 없소. 내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지금까지 읽은 그 어떤 책에서도 본 적이 없지만, 기사들은 여관에 머물 때 숙박비나 그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오. 밤낮없이, 겨울과 여름을 가리지 않고, 걷거나 말을 타며 갈증과 배고픔, 더위와 추위, 그리고 하늘의 온갖 변덕과 땅의 모든 불편함을 견뎌내며

모험을 찾아 헤매는 그 고통스러운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누구든 기사에게는 마땅히 친절한 대접을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오."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오." 여관 주인이 대답했다. "내게 줄 돈이나 내시오. 기사니 뭐니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집어치웁시다. 나는 내 재산을 챙기는 일 말고는 관심 없으니까."

"당신은 어리석고 형편없는 여관 주인이구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돈키호테는 로시난테를 몰아붙이며 창을 치켜든 채, 아무의 제지도 받지 않고 여관을 나섰다. 그러고는 종자인 산초가 따라오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한참을 멀리 달려가 버렸다.

돈키호테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관 주인은 산초 판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달려들었다. 그러자 산초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인님이 돈을 내지 않으려 하시니, 자기 역시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말이다. 산초는 자신이 편력기사의 종자이므로, 여관이나 숙소에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주인이나 자신이나 똑같은 규칙과 이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여관 주인은 이 말에 몹시 화가 나서,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산초는, 주인님이 받으신 기사도의 법도에 따라 설령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동전 한 닢도 낼 수 없다고 대답했다. 자기 때문에 편력기사들의 좋고 오래된 관습을 저버릴 수는 없으며, 그랬다가는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편력기사의 종자들이 이토록 정당한 특권을 어겼다고 자신을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불운한 산초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겹쳤다. 여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세고비아에서 온 양모 직공 넷과 코르도바 포트로 광장의 바늘 장수 셋, 그리고 세비야 헤리아 출신의 주민 둘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흥이 많고 의도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악동 기질이 다분하고 장난기 넘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마치 하나의 마음이라도 먹은 듯 산초에게 다가갔다. 그중 한 명은 산초를 나귀에서 끌어내린 뒤, 손님용 침대의 담요 속으로 쑥 들어갔다. 그러고는 산초를 담요 안에 던져 넣고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는데, 담요를 들어 올리기에는 천장이 너무 낮았다. 결국 그들은 하늘을 경계로 삼는 마당으로 나가기로 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담요 위에 산초가 올라가자, 그들은 산초를 높이 들어 올리며 마치 사육제 때 개를 가지고 놀듯 즐거워하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가련한 산초가 담요에 휩싸인 채 내지르는 비명은 워낙 컸기에 돈키호테의 귀에까지 들렸다. 돈키호테는 무슨 새로운 모험이 닥친 것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비명을 지르는 자가 자신의 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는 즉시 고삐를 돌려 안간힘을 다해 말을 몰아 여관으로 돌아왔다. 여관 문이 닫혀 있자 들어갈 곳이 있는지 찾아보려 여관 주변을 돌았다. 그런데 마당 울타리가 그리 높지 않아 그곳에 다다르기도 전에, 사람들이 산초에게 벌이는 짓을 목격하고 말았다. 산초가 공중을 이리저리 오르내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경쾌하고 민첩하던지, 만약 돈키호테가 화만 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웃음이 터졌을지도 모를 정도였다.

돈키호테는 말 위에서 울타리로 올라가 보려 했으나, 몸이 너무 만신창이가 된 나머지 말에서 내리는 것조차 힘들었다. 결국 그는 말 위에 올라탄 채 산초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그 욕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적어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장난도 계속했다. 공중에 떠 있는 산초 역시 협박과 애원을 섞어가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들이 힘이 빠져서야 산초를 놓아주었다. 그들은 산초를 나귀 곁으로 데려다 놓은 뒤, 산초를 나귀 위에 앉히고 겉옷으로 덮어주었다. 마리토르네스는 지칠 대로 지친 산초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시원한 우물물을 한 항아리 가져다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차가운 우물에서 물을 떠 왔다. 산초는 물을 받아 입가로 가져가다가, 돈키호테가 부르는 소리에 멈춰 서서 이렇게 말했다.

"산초야, 물을 마시지 마라! 얘야, 마시지 마라, 그 물이 네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보아라, 여기 아주 신성한 영약이 있다." 돈키호테는 약이 담긴 주전자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이걸 딱 두 방울만 마시면 의심할 여지 없이 곧 나을 것이다."

산초는 그 소리에 비스듬히 곁눈질로 흘겨보고는, 더 큰 소리로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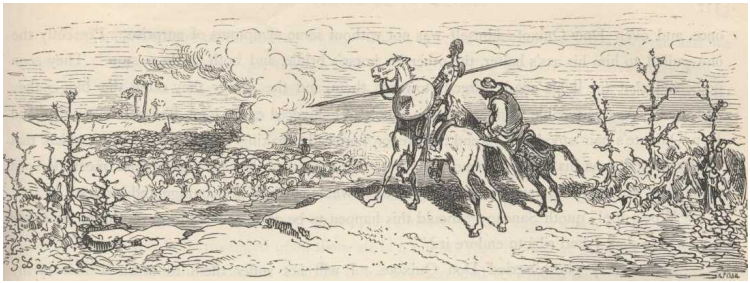
"주인님, 설마 제가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젯밤 겨우 남은 내장까지 다 게워내게 만드시려는 겁니까? 그놈의

약은 악마들이나 가져가게 내버려 두시고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산초가 소리쳤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산초는 약을 들이켜기 시작했다. 하지만 첫 모금을 마시자마자 그것이 그저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더 마시기를 거부했다. 산초는 마리토르네스에게 와인을 가져다 달라고 간청했고, 그녀는 아주 흔쾌히 와인을 가져다주었다. 산초는 그 값을 자기 돈으로 직접 치렀다. 사실 마리토르네스로 말하자면, 비록 그런 일에 몸담고 있긴 했어도 어딘가 기독교인다운 그림자와 어렴풋한 흔적만은 지니고 있었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기 때문이다.

산초는 와인을 마신 뒤 두 발꿈치로 나귀의 옆구리를 차서 몰았다. 그러고는 여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갔다. 돈 한 푼 안 내고 제 뜻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생각에 산초의 기분은 아주 좋았다. 비록 늘 그렇듯 제 보증인 노릇을 하는 등짝을 대가로 치른 셈이었지만 말이다. 사실 여관 주인은 산초가 갚아야 할 돈 대신 그의 안장 자루를 챙겨 두었다. 하지만 산초는 워낙 정신없이 빠져나가느라 그것이 없어진 줄도 몰랐다. 여관 주인은 산초가 나가는 것을 보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려 했으나, 담요질을 하던 자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돈키호테가 설령 원탁의 진짜 편력기사들 중 하나라 할지라도, 그를 동전 한 닢 값어치만큼도 쳐주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제18장



제18장. 산초 판사가 주인 돈키호테와 주고받은 대화와, 그 밖에 이야기할 가치가 충분한 또 다른 모험들에 대하여

산초는 기진맥진 시들어 빠진 몰골로 주인에게 다가왔다. 어찌나 기운이 없던지 제 나귀를 몰 힘조차 없을 정도였다. 돈키호테는 그런 산초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산초야, 이제야 믿음이 가는구나. 그 성인지 여관인지 하는 곳은 분명 마법에 걸린 곳임이 틀림없어. 너를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히며

즐거워하던 자들이 환영이나 저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내가 이를 확신하는 이유가 있다. 네가 겪은 그 비극적인 일을 지켜보려고 내가 마당 울타리 근처에 갔을 때, 울타리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었고 로시난테에서 내릴 수도 없었거든. 분명 누군가 나에게 마법을 걸었음이 분명하다.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만약 내가 올라가거나 내릴 수만 있었다면 너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었을 것이다. 그 무뢰한과 악당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조롱을 평생토록 뼈저리게 기억하도록 말이다. 설령 그것이 기사도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 해도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기사는 절박하고 중대한 위급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변을 지키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사가 아닌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기사도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말이다."

"저도 기사가 되었든 아니든,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복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를 괴롭히며 즐거워하던 자들이 주인님 말씀처럼 환영이나 마법에 걸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저를 뒤집어엎을 때 들리는 이름을 들어보니 다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한 명은 페드로 마르티네스라고 불렸고, 다른 한 명은 테노리오 에르난데스였으며, 여관 주인은 왼손잡이 후안 팔로메케라고 불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주인님, 마당 울타리를 넘지 못하거나 말에서 내리지 못한 건 마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내린 결론은, 우리가 찾아 헤매는 이 모험들이 결국에는 어느 것이 우리 오른발인지조차 분간 못 할 만큼 수많은 불행을 몰고 올 거라는 겁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은 수확철이라 농사일도 돌보고 재산도 관리해야 할 때이니,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짓은 그만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산초야, 너는 기사도의 도리에 대해 참으로 아는 것이 없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입을 다물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테니. 그렇지 않다면 내게 말해 보아라. 전투에서 승리하고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한 기쁨이 또 어디 있겠느냐? 단언컨대, 그 무엇도 이와 비길 수는 없다."

"그렇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잘 모르니까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편력기사가 된 뒤로, 아니 주인님께서 편력기사가 되신 뒤로(저야 그런 영예로운 축에 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비스카야 사람과 싸운 것 말고는 단 한 번도 전투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게다가 그 싸움에서도 주인님께서는 귀 절반과 투구 절반을 잃고 빠져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뒤로는 줄곧 매를 맞고 또 맞았고, 주먹질을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저는 덤으로 담요질까지 당했는데, 그것도 제가 복수할 수도 없는 마법에 걸린 자들 손에 당한 일이라, 주인님 말씀처럼 적을 물리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겪는 고통이자 너 또한 겪어야 할 고통이다,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아주 뛰어난 장인

이 만든 검을 손에 넣도록 하마. 그 검을 가진 자에게는 그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운명이 나에게 아마디스의 검을 가져다줄지도 모르지. 그가 '불타는 검의 기사'라 불리던 시절에 가졌던 검 말이다. 그 검은 세상의 기사들이 가졌던 검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검이었지. 그런 신비한 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서 아무리 튼튼하고 마법이 걸린 갑옷이라 해도 그 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갈라졌으니까."

"제 팔자가 어찌나 좋은지요." 산초가 말했다. "설령 그런 일이 생겨 주인님께서 그런 검을 손에 넣으신다 해도, 그건 발삼과 마찬가지로 무장한 기사들에게나 도움이 되고 쓸모가 있을 뿐, 종자들이야 제 설움이나 삼키는 신세겠지요."

"그 점은 걱정하지 마라,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늘이 너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열어줄 것이니 말이다."

돈키호테와 그의 종자는 이런 대화를 나누며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돈키호테는 그들이 가는 길 저편에서 크고 자욱한 먼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다. 먼지 구름을 발견한 돈키호테는 산초를 돌아보며 말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오 산초야! 운명이 나를 위해 남겨둔 축복을 마주할 날이 바로 오늘이다! 내 말은, 내 팔의 용맹함이 다른 어느 날과 다름없이 온 세상에 드러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말이다. 또한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명성의 기록에 남길 만한 위대한 업적을 이뤄낼 날이기도 하지. 산초야, 저기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이 보이느냐? 저것은 저

멀리서 온갖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행군하며 일으킨 것이란다."

"그렇다면 두 군대겠군요." 산초가 말했다. "이쪽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자욱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거든요."

돈키호테가 다시 그쪽을 바라보니 정말 산초의 말이 맞았다. 돈키호테는 무척 기뻐하며, 저 먼 광활한 평원 한복판에서 서로 맞붙어 격돌할 두 군대가 몰려오는 것이라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생각했다. 기사도 소설에 나오는 전투와 마법, 사건과 어처구니없는 일들, 그리고 사랑과 결투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에는 늘 가득 차 있었기에, 그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그런 일들에 맞추어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본 먼지 구름은 사실 같은 길을 따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몰려오던 양과 숫양 떼 두 무리가 일으킨 것이었다. 이 짐승들은 먼지 때문에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는 도저히 정체가 보이지 않았다. 돈키호테가 저것은 분명 군대라고 워낙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산초도 그 말을 믿고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그럼 저희는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산초가 물었다.

"무엇을 하느냐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돕고 보살펴야지. 그리고 산초야, 잘 들어라. 우리 정면에서 몰려오는 저 군대는 거대한 트라포바나 섬의 주인인 위대한 황제 알리판파론이 이끌고 있는 군대다. 반대로 내 등 뒤에서 행군해 오는 저들은 그의 적수인 가라만타스 왕의 군대지. 그 왕의 이름은 '소매를 걷어붙인 팔의 펜타

폴렌'이다. 그는 전투에 임할 때면 언제나 오른팔을 드러내고 싸우기 때문이지."

"그런데 저 두 분은 왜 저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겁니까?" 산초가 물었다.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이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저 알리판파론은 사악한 이교도인데, 펜타폴린의 딸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품까지 넘치는 귀한 분이지. 그런데 그녀는 그리스도교 신자라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저 이교도 왕이 가짜 예언자 마호메트의 교리를 버리고 다시 우리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딸을 내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라네."

"내 수염을 걸고 맹세하건대," 산초가 말했다. "펜타폴린은 아주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그분을 도와드려야겠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런 전투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굳이 정식 기사 작위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말일세."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산초가 대답했다. "전투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당나귀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형편없는 말에 올라타서 싸움에 뛰어드는 건,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라 말입니다."

"그 말이 맞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니 당나귀는 그냥 모험에 맡겨두게나. 잃어버리든 말든 상관없네.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말은 아주 넘쳐날 테니, 로시난테가 다른 말로 바뀌어 버릴까 봐 걱정할 정도가 될 걸세.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보게나. 저 두 군대 속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기사들이 누구인지 알려줄 테니까. 자, 저 두 군대를 더 잘 보고 살펴볼 수 있도록, 저기 언덕 위에 있는 높은 곳으로 옮겨가세나."

그들은 그렇게 했다. 두 사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 서면 돈키호테의 눈에 군대로 보였던 저 두 무리가 잘 보일 터였다. 비록 그들이 일으킨 먼지 구름이 시야를 가리고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말이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이런 상황에서도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상상 속에서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다.

"저기 보이는, 노란 갑옷을 입고 방패에는 왕관을 쓴 사자가 처녀의 발치에 엎드려 있는 문장을 새긴 저 기사가 보이나? 저자는 은빛 다리의 영주인 용맹한 라우르칼코라네. 그리고 금빛 꽃 갑옷을 입고, 푸른 바탕에 은색 왕관 세 개를 그려 넣은 방패를 든 저 기사는 키로시아의 대공이자 모두가 두려워하는 미코콜렘보라네. 또 그 오른편에 서 있는 거구의 기사는 결코 겁을 내지 않는 볼리체의 브란다바르바란으로, 세아라비아의 영주라네. 저자는 뱀 가죽 갑옷을 두르고 있는데, 방패에는 성전의 문 하나가 그려져 있지. 소문에 따르면 그 문은 삼손이 죽으면서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 무너뜨린 성전의 문 가운데 하나라더군. 하지만 눈을 이쪽으로 돌려 보게나. 그러면 저 반대편 군대의 맨 앞줄에서, 언제나 승리하고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누에바 비스카야의 왕자,

카르카호나의 티모넬을 보게 될 걸세. 그는 푸른색, 초록색, 흰색, 노란색으로 나뉜 조각 갑옷을 입고 있지. 방패에는 황갈색 바탕에 황금 고양이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미아우'라고 적힌 글자가 있네. 그건 그의 여인의 이름 첫 글자를 딴 것이라네. 전해지는 말로는 그 여인이 알가르베의 알페니켄 공작의 딸이자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미울리나라고 하더군. 또 저 힘센 준마의 등을 짓누르듯 올라탄 기사를 보게나. 눈처럼 하얀 갑옷을 입고 방패에는 아무런 문장도 없는 저자는 프랑스 출신의 풋내기 기사로, 우트리크 남작령의 영주인 피에르 파팽이라네. 그리고 저 화려하고 날렵한 얼룩말의 옆구리를 철 박은 발꿈치로 차며 나아가는, 청색 베어 문양 갑옷을 두른 기사는 네르비아의 강력한 공작이자 '숲의 에스파르타필라르도'라네. 그의 방패에는 아스파라거스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스페인어로 '내 운명을 쫓으라'라고 적혀 있지." 돈키호테는 이처럼 자신이 상상해낸 양쪽 군대의 수많은 기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댔다. 그러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기 어린 상상력에 사로잡혀, 그들에게 무기와 색깔, 문장과 별칭까지 즉석에서 마음대로 붙여 주었다. 그러고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 갔다.

"저 맞은편 군대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네. 여기에는 유명한 잔토 강의 달콤한 물을 마시던 이들이 있고, 마시리코의 들판을 밟는 산악 민족도 있지. 행복한 아라비아에서 아주 곱고 미세한 금을 체로 치는 이들도 있고, 맑은 테르모돈테 강의 유명하고 시원한 강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이들도 있다네. 황금빛 팍톨로스 강으로 수많은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이들과, 약속을 믿을 수 없는 누미디아인들, 활과 화살로 유명한 페르시아인들, 도망치며 싸우는 파르티아인과 메디아

인들, 거처를 자주 옮기는 아랍인들, 살결이 흰 만큼이나 잔인한 스키타이인들, 입술에 구멍을 뚫은 에티오피아인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은 똑똑히 알고 있는 수많은 민족이 저쪽에 있네.

반대편 군대에는 올리브 나무가 무성한 베티스 강의 수정 같은 물을 마시는 이들이 있고, 언제나 풍요롭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타호 강의 물로 얼굴을 씻고 가꾸는 이들도 있다네. 신성한 헤닐 강의 유익한 물을 누리는 이들과, 풀이 무성한 타르테소스의 들판을 밟는 이들도 있지. 헤레스의 낙원 같은 초원에서 즐거워하는 이들과, 금빛 이삭을 머리에 이고 풍요를 누리는 라만차 사람들도 있네. 고트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철갑을 두른 고대의 후예들도 있고, 물살이 완만하기로 유명한 피수에르가 강에서 목욕하는 이들도 있다네. 물길이 굽이쳐 흐르기로 유명한 과디아나의 드넓은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는 이들과, 울창한 피레네 산맥의 추위와 눈 덮인 아펜니노 산맥의 흰 눈송이에 몸을 떠는 이들도 있지. 마지막으로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민족이 저 군대에 포함되어 있다네."

세상에, 그는 얼마나 많은 지방을 입에 올리고 얼마나 많은 민족의 이름을 불러댔던가. 게다가 그 거짓말투성이 책들에서 읽은 것에 흠뻑 빠져 정신이 팔린 채, 각 민족에게 저마다 어울리는 특징까지 놀라운 속도로 척척 붙여 주었으니! 산초 판사는 한마디도 못 한 채 주인의 말에 입을 쩍 벌리고 매달려 있었다. 그러다 이따금 고개를 돌려 주인이 말하는 기사나 거인들이 정말 보이는지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자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며 거인이며 기사며 하는 것들은, 악마한테나 잡혀갔는지 이 사방 어디에도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어쩌면 어젯밤에 본 유령들처럼, 이 모든 게 다 마법에 걸린 환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말들이 히힝거리는 소리나 나팔 소리, 북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저 양이랑 숫양들이 매애매애 울어대는 소리뿐입니다."

실제로 그러했다. 두 양 떼 무리가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가 겁을 먹어서 그래."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너는 지금 눈과 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구나. 두려움이라는 건 감각을 어지럽혀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지. 그렇게 겁이 난다면 저쪽으로 물러나 있거라. 나 혼자 두란 말이다. 내가 누구를 돕기로 마음먹든, 그 승리는 오직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의 옆구리를 박차고, 창을 거치대에 단단히 고정한 채 언덕에서 번개처럼 달려 내려갔다. 산초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돈키호테 나리, 제발 돌아오십시오! 맹세코 나리께서 들이받으려는 건 숫양과 양 떼뿐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아이고, 저를 낳아 주신 아버

지가 가엾으셔라! 대체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보십시오, 거인도 기사도 없고, 고양이도, 무기도, 깨진 방패도 멀쩡한 방패도, 청색 베어 문양도, 악마에 들린 것도 없단 말입니다! 대체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오, 하느님, 죄 많은 이 몸을 어쩌면 좋습니까!"

돈키호테는 산초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갔다.

"자, 용맹한 펜타폴린 황제 폐하의 깃발 아래 모여 싸우는 기사들이여, 모두 나를 따르라! 적군인 트라포바나의 알리판파론에게 내가 얼마나 손쉽게 복수를 선사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친 돈키호테는 양 떼 무리 한복판으로 돌진하더니, 마치 진짜 원수를 상대하듯 용맹하고 기세등등하게 창을 휘두르며 양들을 찔러대기 시작했다. 양 떼를 몰고 오던 목자들과 축산 농가 사람들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자, 사람들은 투석기를 집어 들고 주먹만 한 돌멩이를 돈키호테의 귀를 향해 퍼붓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돌을 맞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오만방자한 알리판파론이여, 어디에 숨었느냐! 내게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라! 나는 홀로 선 기사로서, 용맹한 펜타폴린 가라만타에게 네가 가한 고통을 갚아주기 위해 오직 너와 일대일로 맞서 네 힘을 시험하고 네 목숨을 거두고자 한다!"

그때 마침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돈키호테의 옆구리를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갈비뼈 두 대가 몸 안으로 함몰되었다. 몸이 이 지경이 되자, 그는 자신이 죽었거나 치명상을 입었다고 확신했다. 문득 마시던 술이 생각난 그는 술병을 꺼내 입에 대고 위장 속으로 술을 들이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될 만큼 술을 다 마시기도 전에, 또 다른 돌멩이가 날아와 손과 술병을 정면으로 때렸다. 그 충격으로 술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과정에서 돈키호테는 치아와 어금니 서너 개가 빠져나갔으며 손가락 두 개도 처참하게 짓이겨졌다.

첫 번째 타격과 두 번째 타격이 워낙 강력했던 탓에, 불쌍한 기사는 어쩔 수 없이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양치기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양치기들은 서둘러 가축들을 거두어들였다. 그러고는 지나가던 죽은 소 일곱 마리 남짓을 짐에 실은 채, 다른 일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떠나버렸다.

그동안 산초 판사는 언덕 위에서 주인이 벌이는 광기 어린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 지경에 이른 시간과 상황을 저주하며 제 수염을 쥐어뜯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돈키호테와 이미 떠나버린 양치기들의 모습을 본 산초 판사는 언덕을 내려와 그에게 다가갔다. 돈키호테는 정신을 잃지는 않았으나 상태가 매우 처참했다. 산초 판사가 그에게 말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키호테 나리. 돌아가시라고 말입니다. 공격하려 하셨던 건 군대가 아니라 양 떼였다고요."

"그건 내 적이자 사악한 마법사가 환상을 만들어내어 눈속임을 한 것이란다. 산초야, 잘 들어라. 그런 자들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만드는 데 아주 능수능란하단다. 내가 이번 전투에서 거둘 영광을 시기한 저 사악한 마법사가 적군의 대열을 양 떼로 바꿔버린 것이지.

산초야, 내 명예를 걸고 제안하마. 네가 틀렸고 내 말이 맞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네 당나귀를 타고 저들을 바짝 뒤쫓아가 보렴. 그러면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저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될 거다. 양 떼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멀쩡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가지 마라. 지금은 네 도움이 절실하니까. 이리 와서 내 입속을 좀 봐다오. 이빨이 몇 개나 빠졌는지 말이다. 입안에 이빨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산초는 돈키호테의 입안을 들여다보려고 거의 눈을 입속에 밀어 넣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다행히도 그사이 돈키호테의 위장에서는 이미 약효가 나타나고 있었다. 산초가 돈키호테의 입을 살피던 바로 그 순간, 돈키호테는 입안에 머금고 있던 것들을 마치 산탄총을 쏜 것처럼 세차게 뿜어냈고, 그 내용물은 고스란히 자비로운 종자 산초의 수염 위로 쏟아졌다.

"성모 마리아여!" 산초가 말했다. "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틀림없이 이 죄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입으로 피를 토하는 것이로구나."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색깔과 맛, 냄새로 보아 그것이 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돈키호테가 마셨던 바

로 그 술병의 약이었다. 산초는 너무나 역겨운 나머지 속이 뒤집혀 자기 주인에게 토사물을 다 쏟아버렸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진주를 뿌려놓은 듯 엉망이 되었다. 산초는 닦아낼 것과 주인을 치료할 것을 찾으려고 당나귀에게 달려가 짐 주머니를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저주를 퍼부으며, 설령 그동안 일한 품삯과 약속받은 섬의 통치자 자리를 모두 포기해야 할지언정, 주인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때 돈키호테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입안에 남은 치아까지 다 쏟아내지 않으려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오른손으로는 로시난테의 고삐를 잡았다. 로시난테는 주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을 만큼 충직하고 영리한 말이었다. 한편 산초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한 손으로 뺨을 괸 채, 당나귀 위에 가슴을 내밀고 앉아 있었다. 돈키호테는 그토록 슬퍼 보이는 산초의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산초야, 잘 들어라. 남보다 더 나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 법이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풍파는 곧 날이 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징조란다. 불행도 행복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법이니, 불행이 이토록 오래 이어졌다면 이제 곧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뜻이지. 그러니 나에게 일어난 불행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그 불행은 네 몫이 아니니까."

"어찌 안 괴롭겠습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어제 매를 맞은 사람이 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제 보물들이 몽땅 들어있는 이 짐 주머니가 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산초야, 짐 주머니가 없어졌다는 말이냐?" 돈키호테가 물었다.

"정말 없어졌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먹을 것이 없겠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나으리가 잘 안다고 말씀하신 풀들이 이 초원에 하나도 없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나으리처럼 불운한 떠돌이 기사들은 보통 그런 상황이 오면 풀이라도 뜯어 먹으며 버티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지금 당장 빵 4분의 1 덩이나, 아니면 빵 한 덩이랑 청어 머리 두 개를 얻을 수 있다면 디오스코리데스가 묘사한 그 어떤 풀보다도 훨씬 낫겠구나. 설령 라구나 박사가 그 책에 주석을 달아 훌륭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아무쪼록 착한 산초야, 네 나귀에 올라타서 내 뒤를 따라오너라.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굶기지는 않으실 테니 말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며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느님께서는 공중에 떠다니는 모기 한 마리도, 땅속의 작은 벌레 한 마리도, 물속의 올챙이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어찌 잊으시겠느냐. 하느님은 자비로우셔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란다."

"나으리는 떠돌이 기사보다는 설교가에 더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산초야, 떠돌이 기사라면 모름지기 모든 것에 해박해야 하는 법이란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지난 세기에는 마치 파리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처럼, 드넓은 들판 한복판에 멈춰 서서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늘어놓던 기사들도 있었으니까. 이 말은 곧 창을 든다고 해서 펜을 잊는 법도 없고, 펜을 든다고 해서 창을 잊는 법도 없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나으리 말씀대로 하죠." 산초가 대답했다. "이제 여기서 나가서 오늘 밤 묵을 곳을 찾아봅시다. 부디 담요나 덮개도 없고, 유령이나 마법에 걸린 무어인도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네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전 짐이며 지팡이며 다 내팽개치고 도망갈 테니까요."

"그건 네가 하느님께 빌어야 할 문제란다, 얘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안내하거라. 이번만큼은 우리가 어디서 묵을지 네 선택에 맡기마. 대신 내 손을 좀 잡아다오. 그리고 손가락으로 여기를 잘 좀 짚어보렴. 오른쪽 턱뼈 위쪽에서 이쪽 치아와 어금니가 몇 개나 빠졌는지 잘 좀 봐다오. 그곳이 아주 아프구나."

산초가 손가락을 넣어 살펴보며 만져보더니 말했다.

"나으리, 원래 이쪽에 어금니가 몇 개나 있으셨습니까?"

"네 개였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사랑니를 제외하고는 전부 온전하고 아주 건강했단다."

"나으리, 하시는 말씀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산초가 대답했다.

"다섯 개가 아니었다면 네 개라고 말한 것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 평생 입안에서 이 하나, 어금니 하나 뽑아낸 적이 없으며, 그 어떤 병이나 통증 때문에 이가 빠지거나 썩은 적도 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나으리, 이 아래쪽엔 어금니가 두 개 반밖에 없습니다. 위쪽은 더 심해서 반 개도, 아니 아예 하나도 없어요. 손바닥처럼 아주 매끈하게 다 빠져버렸으니까요." 산초가 말했다.

"내 팔자야!" 종자가 전하는 비참한 소식을 들은 돈키호테가 말했다. "차라리 칼을 든 팔이 아니라 다른 팔 하나가 부러졌다면 좋았을 것을! 산초야, 내 말 잘 들어라. 어금니 없는 입은 맷돌 없는 방앗간과 같으니, 이 하나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귀한 법이다. 하지만 우리처럼 엄격한 기사도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이런 시련을 겪기 마련이지. 자, 어서 일어나 앞장서거라, 친구여. 네가 걷는 속도에 맞춰 나도 따라가마."

산초는 그렇게 하고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큰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머물 만한 곳을 찾아 길을 나섰다. 돈키호테의 턱 통증이 워낙 심해 산초가 마음 편히 걷거나 서둘러 움직일 수가 없었기에, 산초는 돈키호테의 기운을 북돋고 심심치 않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며 길을 갔다. 그가 했던 여러 말 중에서도 다음 장에서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제19장



제19장. 산초가 주인에게 늘어놓은 기막힌 논리들과, 죽은 시신과 마주하며 겪게 된 모험, 그리고 그 외에 이름난 사건들에 대하여

"주인님, 제가 보기에는 요 며칠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불행이 틀림없이 주인님께서 기사도의 규율을 어기신 죄에 대한 벌인 것 같습니다. 식탁보를 깔고 빵을 먹지 않겠다거나, 여왕과 함께 유흥을 즐기지 않겠다던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 맹세에는 말란드리노인지 뭔지 하는 그 무어인의 투구를 빼앗을 때까지 모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네 말이 아주 옳다,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그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구나. 그리고 네가 제때 나에게 일깨워주지 않은 잘못 때문에 담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책임도 있다고 봐도 좋다. 하지만 내가 바로잡도록 하마. 기사도의 규율에는 어떤 잘못이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아니, 제가 대체 무엇을 맹세했다는 말씀입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네가 맹세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다만 네가 이 일에 연루된 자로 엮일 위험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만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만일을 대비해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나쁠 건 없지 않겠느냐."

"정 그렇다면요," 산초가 말했다. "맹세 건은 잊어버리셨어도, 이번 일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 유령들도 저랑 다시 노는 게 재미있어질지 모르고, 주인님께서 저렇게 고집스럽게 버티시는 걸 보면 주인님과도 다시 놀고 싶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어 길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그날 밤 어디서 묵어야 할지, 어디서 잠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배가 너무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짐 꾸러

미를 챙기지 못한 탓에 먹을 것도, 비상식량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불행을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주기라도 하듯, 꾸며낸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짜 같은 모험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그럼에도 산초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이니 한두 리쯤 가면 분명 여관이 나올 것이라 믿으며 계속 걸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배고픈 종자와 주인은 먹을 것을 갈구하며 나아갔다. 그러던 중, 그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을 따라 수많은 불빛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마치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산초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굳어버렸고, 돈키호테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산초는 당나귀의 고삐를,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의 고삐를 움켜쥐고는 저것이 대체 무엇인지 살피려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지켜보았다. 불빛은 점점 그들에게 다가왔고, 가까워질수록 그 크기도 점점 커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산초는 수은처럼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고, 돈키호테는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섰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조금 기운을 내며 말했다.

"산초야,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거대하고도 위험한 모험이다. 내가 나의 모든 용맹과 기개를 아낌없이 발휘해야만 할 것이야."

"아이고, 나 죽네!" 산초가 대답했다. "만약 제 짐작대로 이게 유령들이 벌이는 일이라면, 대체 어느 놈이 저 괴물들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령 유령이라 할지라도,"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지난번에는 내가 마당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해

서 네가 조롱을 당한 것이지만, 지금은 탁 트인 벌판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칼을 휘두를 수 있느니라."

"그런데 만약 저들이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주인님께 마법을 걸어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산초가 말했다. "탁 트인 벌판에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산초야, 부디 기운을 내거라. 경험을 쌓다 보면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신의 뜻이라면 그러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길 한쪽으로 비켜나서, 저 멀리 움직이는 불빛들이 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흰 옷 입은 무리가 나타났는데,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자마자 산초 판사는 겁에 질려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산초는 마치 학질에 걸린 사람처럼 이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무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자 산초의 떨림과 이 부딪는 소리는 더욱 심해졌다. 모두 말을 타고 손에는 횃불을 든 흰 옷 입은 무리가 스무 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는 검은 상장으로 뒤덮인 가마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고, 그 뒤를 다시 여섯 명의 기수가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노새의 발끝까지 검은 상복으로 뒤덮고 있었다. 무리가 워낙 침착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흰 옷 입은 무리는 낮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무어라 중얼거리며 지나갔다.

이런 시각에 이런 황량한 곳에서 마주친 기이한 광경은 산초의 마음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고, 주인인 돈키호테의 마음조차 떨게 만들 정도였다. 돈키호테 역시 그렇게 되었을 터였으니, 산초는 이미 온 용기가 완전히 꺾여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인인 돈키호테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그는 그 순간, 눈앞의 광경이 자신이 읽은 책 속에 나오는 모험 중 하나라고 생생하게 상상했다. 그는 저 가마가 부상당하거나 죽은 기사를 실은 들것이며, 그 기사의 원수를 갚는 일은 오직 자신에게만 맡겨진 임무라고 믿었다. 돈키호테는 다른 말도 덧붙이지 않고 곧장 창을 치켜들고 안장 위에 단단히 올라탔다. 그러고는 기사다운 용맹함과 절제된 기품을 갖추고, 흰 옷 입은 무리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길 한복판을 가로막고 섰다. 무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멈추시오, 기사들이여! 당신들이 누구든 간에 멈추시오! 당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저 들것에는 무엇을 싣고 있는지 내게 밝히시오! 보이는 정황으로 보아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든, 혹은 당신들이 당한 일이든 분명 무슨 불상사가 생긴 모양인데, 내가 반드시 알아야겠소. 당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벌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당신들이 당한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든 말이오!"

"서둘러 가야 하오." 흰 옷 입은 무리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여관이 멀리 있어서, 당신이 요구하는 것처럼 구구절절 설명하며 멈춰 서 있을 여유가 없소."

그는 노새를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대답을 들은 돈키호테는 몹시 불쾌해하며 고삐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멈춰 서라! 예의를 갖추어 내가 물은 것에 답하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 모두 나를 적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싸움을 청하는 것으로 알겠다."

노새가 워낙 겁이 많은 탓에, 돈키호테가 고삐를 잡아당기자 깜짝 놀라 뒷발로 벌떡 일어섰다. 그 바람에 노새는 주인을 엉덩이 너머로 떨어뜨려 바닥에 나뒹굴게 했다. 곁에서 걷던 한 청년은 흰 옷 입은 그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돈키호테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돈키호테는 더 지체하지 않고 창을 곧게 세운 채 검은 옷을 입은 무리 중 한 명을 향해 돌진했다. 창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내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돈키호테는 곧바로 다른 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는데, 그가 얼마나 민첩하게 공격하며 무리를 흩뜨려 놓는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로시난테가 어찌나 빠르고 위풍당당하게 달리는지, 마치 그 순간 로시난테에게 날개가 돋아난 것만 같았다.

셔츠 차림의 무리는 모두 겁이 많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돈키호테의 공격에 금세 혼비백산하여 싸움을 멈추고는, 횃불을 든 채 들판을 가로질러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마치 축제나 잔칫날 밤에 가면을 쓰고 뛰어다니는 무리 같았다. 검은 옷을 입은 이들 역시 치맛자락과 망토에 발이 엉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덕분에 돈키호테는 아무런 방해 없이 그들을 모조리 두들겨 패서, 그들이 아주 불쾌해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다. 행렬의 사람들은 돈키호테가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운반하던 시신을 뺏으러 나타난 지옥의 악마라고 생각했다. 산초는 주인의 용맹함에 감탄하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고,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리 주인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용맹하고 기백이 넘치시는 분이로구나."

바닥에는 노새를 처음으로 쓰러뜨린 놈 옆에 횃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는데, 돈키호테는 그 불빛을 보고 그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돈키호테는 그에게 다가가 창끝을 얼굴에 갖다 대며, 항복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쓰러진 자가 대답했다.

"이미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꼼짝도 할 수가 없으니, 만약 당신이 기독교 기사라면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저는 학사 학위도 있고 성직품도 받은 몸인데, 저를 죽이신다면 그것은 커다란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악마가 성직자인 당신을 이런 곳까지 끌고 왔단 말인가?"라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누구냐고요, 나으리?" 쓰러진 이가 대답했다. "제 불운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재앙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말이오."

"제 대답을 들으시면 곧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아까는 제가 학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학사가 아니라 그보다 한 등급 아래인 바치예르일 뿐입니다. 제 이름은 알론소 로페스이고, 알코벤다스 출신이지요. 방금 횃불을 들고 달아난 다른 신부 열한 명과 함께 바에사 시에서 오는 길입니다. 저희는 지금 저 가마에 모신 시신을 세고비아 시로 운구하는 중인데, 저 관 속의 주인공은 바에사에서 사망하여 그곳에 임시로 안치되었던 한 기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분의 고향인 세고비아에 있는 묘지로 유해를 옮겨 드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죽인 자는 누구인가?" 돈키호테가 물었다.

"하느님께서 전염병으로 인한 고열을 내리신 탓입니다." 학사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돈키호테가 말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그분을 죽였다면 저는 그 복수를 위해 고된 일을 떠맡아야 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거두어 가시어 제 수고를 덜어 주셨군요. 하지만 그분을 데려가신 분이 다름 아닌 주님이시니, 이제는 그저 입을 다물고 어깨를 으쓱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주님께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저 역시 똑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며 뒤틀린 것을 바로잡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저의 직분이자 소명입니다."

"세상의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다는 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학사가 말했다. "바로잡기는커녕, 당신은 멀쩡하던 저를 오히려 비뚤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말입니다.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 놓으셨으니, 그 다리는 평생토록 제대로 펴질 날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당신이 제게서 풀어 주었다는 그 억울함이라는 게, 결국 저를 영원히 억울한 신세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 제 피해를 풀어 주기는커녕 평생 씻을 수 없는 한만 남기신 셈입니다. 모험을 찾아다니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제게는 커다란 불행입니다."

"모든 일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알론소 로페스 학사님, 문제는 당신들이 밤중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상복을 입고 횃불을 든 채 기도하며 행진하는 모습이 마치 저세상에서 온 불길한 존재들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당신들에게 달려들어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설령 당신들이 지옥에서 온 사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았더라도, 저는 당신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제 운명이 이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학사가 말했다. "기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정말 큰 변을 당했습니다.) 제 다리 하나가 등자랑 안장 사이에 끼어버려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대체 언제까지 당신의 사정을 말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게 할 작정이었소?"

돈키호테는 곧바로 산초 판사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산초는 달려오지 않았다. 그 신사들이 끌고 온 예비용 짐짐승을 뒤지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짐승에는 먹을거리가 아주 넉넉히 실려 있었다. 산초는 입고 있던 겉옷을 자루처럼 만들어, 거기에 담기는 대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챙겨 넣었다. 그러고는 제 당나귀에 짐을 가득 실은 뒤에야 주인의 부름을 듣고 달려왔다. 산초는 노새에 깔려 옴짝달싹 못 하던 학사를 도와 빼내 주었고, 그를 노새 위에 태운 뒤 횃불을 건네주었다. 돈키호테는 학사에게, 먼저 떠난 동료들의 뒤를 쫓아가 자기 대신 그들에게 무례를 사과해 달라고 일렀다. 자신이 그런 짓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말도 전하라고 했다. 그러자 산초도 학사에게 말했다.

"만약 저 신사분들께서 자신들을 이런 꼴로 만든 용맹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신다면, 그분은 '슬픈 형상의 기사'라고도 불리는 그 유명한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전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학사는 그 길로 떠나갔다.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슬픈 형상의 기사'라고 불렀는지 물었다.

"그건 말이죠." 산초가 대답했다. "저 가엾은 양반이 들고 있는 횃불 빛에 비친 주인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정말이지 요즘 들어 주인님 얼굴이 제가 여태 본 그 어떤 얼굴보다도 형편없으시더라고요. 아마 방금 치른 싸움에 기진맥진하셨거나, 아니면 어금니와 앞니가 다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 무용담을 기록할 책임을 맡은 그 현자가, 옛 기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어울리는 별칭을 하나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어떤 이는 '불타는 검의 기사'라 불렸고, 어떤 이는 '유니콘의 기사'라 불렸지. 또 어떤 이는 '처녀들의 기사', 이쪽은 '불사조의 기사', 저쪽은 '그리핀의 기사', 또 다른 이는 '죽음의 기사'라 불리며 그 이름과 문장으로 온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그러니 아까 네가 나를 '슬픈 형상의 기사'라고 부른 것도, 내가 앞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로 마음먹은 것을 그 현자가 미리 알고 네 입과 생각에 그 이름을 넣어둔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 이름에 더 잘 어울리도록, 기회가 되면 내 방패에 아주 슬픈 형상을 그려 넣을 작정이다."

"그런 그림을 그리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냥 주인님께서 얼굴을 드러내고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표정만 지어 보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문장이나 방패가 없어도 사람들이 그냥 '슬픈 형상의 기사'라고 부를 테니까요. 제 말이 맞다는 걸 믿으셔도 좋습니다. 주인님,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배가 고프신 데다 이빨까지 없으시니 얼굴이 워낙 험악해서 굳이 그림을 따로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슬픈 형상처럼 보이실 겁니다."

돈키호테는 산초의 재치에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앞서 구상한 대로 방패나 원형 방패에 그 형상을 그려 넣을 수 있게 되는 대로 그 이름으로 자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학사(bachiller)가 다시 돌아와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아, 제가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귀하께서 성스러운 물건에 폭력적으로 손을 대셨으니, 그 죄로 파문(破門)당하셨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는 '만약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로 시작하는 그 교회법 구절에 따른 것입니다."

"그 라틴어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손을 댄 게 아니라 이 창을 들이댄 것이라는 사실만은 잘 알고 있소. 게다가 나는 신부님들이나 교회의 물건을 모독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소. 나는 가톨릭의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오. 내가 맞선 것은 그저 유령과 저세상의 괴물들뿐이었소. 설령 정말로 성스러운 것이었다 해도, 시드 루이 디아스에게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구려. 그가 교황 성하 앞에서 어느 왕의 사절이 앉은 의자를 부순 일로 파문을 당했지만, 용맹한 로드리고 데 비바르는 그날 오히려 더없이 명예롭고 용감한 기사답게 처신했지 않소."

이 말을 들은 학사는 앞서 말한 대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돈키호테는 가마에 실려 오는 시신이 정말 뼈만 남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으나, 산초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를 만류했다.

"주인님, 이번 위험천만한 모험은 제가 본 그 어떤 일보다도 주인님께서 아주 무사히 잘 끝내신 겁니다. 저 사람들은 비록 패하고 흩어졌지만, 고작 한 사람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우리를 찾아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지요. 당나귀 상태도 괜찮고, 산도 가깝고, 배도 고프니, 그저 점잖게 발걸음을 재촉해 얼른 물러나는 게 상책입니

다. 말하자면 죽은 자는 무덤으로, 산 사람은 빵 덩어리로 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고는 산초가 앞장서서 당나귀를 몰며 주인에게 뒤따라 오라고 청했다. 산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돈키호테는 더는 대꾸하지 않고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작은 산등성이 두 개 사이로 얼마쯤 걸어가자, 넓고 외진 골짜기가 나타났다. 그들은 그곳에 이르러 짐승에서 내렸다. 산초는 당나귀의 짐을 덜어 준 뒤, 푸른 풀밭에 드러누워 허기라는 양념과 함께 아침과 점심, 간식과 저녁을 한꺼번에 해결했다. 좀처럼 끼니를 소홀히 하는 법이 없는 죽은 이의 신부님들이 예비용 짐짐승에 실어 둔 도시락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던 덕분에, 두 사람은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쳤으니, 산초는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불행이라고 여겼다. 바로 마실 포도주도 없고, 입에 댈 물 한 모금조차 없다는 사실이었다. 갈증에 시달리던 산초는 그들이 머무는 초원이 푸르고 잔잔한 풀로 가득한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이어진다.

제20장



제20장.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도, 들어본 적도 없는 모험에 대하여. 이 모험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사가 아주 적은 위험만으로 끝마쳤으니, 용맹한 돈키호테 데 라만차가 완수한 모험이 바로 그러하다.

“주인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풀들을 보니 근처에 분명 샘이나 시냇물이 있어서 이 풀들을 적시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앞으로 가시지요. 그러면 분명 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지독한 갈증도 달랠 수 있겠지요. 이 갈증은 분명 배고픔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법이니까요."

돈키호테는 그 조언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로시난테의 고삐를 잡았고, 산초는 저녁 식사 후 남은 음식들을 나귀 위에 얹어둔 뒤 나귀의 굴레를 잡았다. 두 사람은 밤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풀밭 위를 더듬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채 이백 걸음도 채 가기 전에, 마치 거대한 암벽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커다란 물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은 무척 기뻐했다.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는지 확인하려고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던 찰나, 물소리에 즐거워하던 마음을 단번에 꺾어놓는 또 다른 굉음이 들려왔다. 특히 본래 겁이 많고 기개가 부족한 산초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소리는 규칙적으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였는데, 쇠붙이와 사슬이 부딪히며 내는 기괴한 소리가 거친 물소리와 어우러져 들려왔다. 돈키호테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포에 질렸을 법한 소리였다. 앞서 말했듯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두 사람은 마침 키 큰 나무들이 우거진 곳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마치 무언가 속삭이는 듯하면서도 오싹하게 들렸다. 적막함과 으스스한 장소, 어둠, 그리고 나뭇잎의 속삭임과 뒤섞인 물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공포와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두드리는 소리는 멈출 기미가 없고, 바람은 쉬지 않으며, 아침은 올 줄 모르는 데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갔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용맹한 마음을 품고 로시난테에 올라탔다. 그는 방패를 앞세우고 창을 쥐며 말했다.

"친구 산초야, 잘 들어라. 하늘의 뜻에 따라 이 철의 시대에 태어난 나는, 이 시대를 다시 황금 시대, 혹은 흔히 말하는 빛나는 시대로 부활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위험과 위대한 업적, 그리고 용맹한 행보를 위해 준비된 자가 바로 나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원탁의 기사들과 프랑스의 열두 기사, 그리고 명예로운 아홉 기사의 영광을 되살릴 자다. 또한 플라티레스, 타블란테스, 올리반테스, 티란테스, 페보스, 벨리아니세스 같은 자들과 과거의 그 수많은 유명한 기사들을 잊히게 만들 것이다. 내가 처한 이 시대에 그들이 행했던 그 어떤 찬란한 업적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기사적 행보를 보여줄 것이다. 충직하고 법도를 아는 나의 종자여, 너도 잘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 밤의 어둠과 기괴한 정적, 나무들이 내는 낮고 혼란스러운 소리, 그리고 우리가 찾아 헤매던 저 물소리를 말이다. 마치 달의 높은 산맥에서 쏟아져 내리는 듯한 저 물소리와 우리의 귀를 때리는 저 끊임없는 두드림을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만으로도 전쟁의 신 마르스조차 두려움과 경악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며, 하물며 이런 모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죽하겠느냐? 하지만 내가 말한 이 모든 상황은 오히려 내 용기를 북돋우고 깨우는 자극제가 될 뿐이다. 이 모험이 아무리 험난해 보일지라도, 내 가슴은 이미 모험을 향한 열망으로 터질 것만 같구나. 그러니 로시난테의 안장을 조금 조여주고,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며 여기서 딱 사흘만 기다려라.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는 마을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 선행을 베푼다는 마음으로 엘 토보소에 가서, 나의 비할 데 없이 고귀한 여인인 둘시네아께 전해다오. 당신의 포로인 기사가 당신의 기사라 불릴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모험에 뛰어들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이다."

산초는 주인님의 말씀을 듣고는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모습으로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왜 이토록 무모하고 두려운 모험에 뛰어들려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밤이고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다 해도, 지금이라도 길을 틀어 위험을 피하면 그만입니다. 보는 이도 없으니 우리가 겁쟁이처럼 보일까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주인님께서도 잘 아시는 우리 마을 신부님께서도 위험을 찾아 나서는 자는 결국 그 위험에 목숨을 잃는다고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 없는 이런 무모한 일을 벌여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주인님께 베푸신 은총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담요에 싸여 헹가래쳐지는 꼴을 당하지 않도록 주인님을 지켜 주셨고, 죽은 이를 따르던 그 수많은 적들 한가운데서도 주인님을 승리자로, 자유롭고 안전한 몸으로 빠져나오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로도 주인님의 그 단단한 마음을 움직이거나 누그러뜨릴 수 없다면,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주인님께서 여기서 채 멀리 떨어지기도 전에, 저는 무서워서 제 영혼을 누구든 가져가라며 내던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주인님을 모시는 것이 값진 일이라 믿고 고향을 떠나 아내와 자식들까지 뒤로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끝내 주머니를 터뜨리듯, 그 욕심이 제 희망마저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주인님께서 그토록 자주 약속하셨던 그 검고 불길한 섬을 얻으리라는 희망이 가장 부풀어 올랐을 때, 주인님은 그 대가로 저를 사람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이 외딴곳에 버려두려 하시는군요.

하나님께 맹세코 주인님, 제게 이런 부당한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정 이 일을 단념하실 수 없다면, 적어도 아침까지만이라도 미뤄 주십시오. 제가 양치기 시절에 배운 별자리 지식으로 미루어 보건대, 여기서 새벽까지는 채 세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시나 별자리의 입이 머리 꼭대기에 와 있고, 자정은 왼팔 선에 걸려 있으니 말입니다."

"산초야,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밤이 이토록 어두운데, 네가 어떻게 그 선이 어디 있는지, 또 네가 말하는 그 입이며 뒤통수가 어디 있는지 본단 말이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하지만 두려움은 눈이 아주 많아서,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땅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인단 말입니다. 게다가 제가 아는 이치로 보건대, 여기서 날이 밝을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부족한 게 무엇이든 상관없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눈물과 간청 때문에 기사답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지금이나 나중이나 결코 듣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산초야, 제발 입을 다물거라. 내 마음속에 이토록 낯설고 두려운 모험에 뛰어들 용기를 주신 하느님께서, 나의 안녕을 돌보아 주시고 네 슬픔도 달래 주실 것이다. 너는 그저 로시난테의 안장을 단단히 조여 매고 여기 남아 있거라. 내가 살아서 돌아오든 죽어서 돌아오든, 금방 다녀오마."

주인의 결연한 의지를 본 산초 판사는 자신의 눈물과 충고, 간청이 아무런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산초는 기지를 발휘해, 가능하다면 날이 밝을 때까지 주인을 붙들어 두기로 마음먹었다. 산초

는 말의 안장을 조여 매는 척하면서, 눈치채지 못하게 당나귀 고삐를 가져와 로시난테의 양발을 묶어 버렸다. 덕분에 돈키호테가 길을 떠나려 했을 때, 로시난테는 껑충껑충 뛰는 것 말고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산초 판사는 자신의 속임수가 아주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자, 주인님. 제 눈물과 간청에 감복한 하늘이 로시난테를 움직이지 못하게 명을 내렸나 봅니다. 만약 주인님께서 고집을 부리며 박차를 가하고 채찍질을 하신다면, 그건 운명을 거스르는 일일 뿐 아니라 말하자면 '채찍질을 했는데 말한테 발길질을 당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돈키호테는 절망에 빠졌다. 아무리 말의 옆구리를 차며 다리를 움직여 보아도 로시난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발이 묶였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돈키호테는, 차라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날이 밝거나 로시난테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상황이 산초의 기지 때문이 아니라 분명 다른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고는 산초에게 이렇게 말했다.

"산초야, 네 말이 맞다. 로시난테가 움직이지를 못하니,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 비록 날이 밝을 때까지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다려야 할지라도 말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울지 마십시오."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여기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 주인님의 기분을 달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편안히 쉬었다가 날이 밝자마자 눈앞에 닥친 이 기

상천외한 모험에 맞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사도 정신에 따라 푸른 풀밭에 내려와 잠시 눈이라도 붙이시는 겁니다." 산초가 말했다.

"내려오라니, 잠을 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설마 내가 위험 속에서 잠을 청하는 그런 기사란 말이냐? 잠을 자고 싶거든 너나 자거라. 너는 잠이나 자려고 태어난 놈 아니냐. 네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내 신념에 가장 부합하는 길을 택할 뿐이다."

"주인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산초는 돈키호테에게 다가가 한 손은 안장 앞가지에, 다른 한 손은 뒷가지에 얹고는, 주인의 왼쪽 허벅지를 꽉 껴안은 채 손가락 하나만큼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여전히 간간이 울려오는 그 두드리는 소리가 어찌나 무서웠던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앞서 약속한 대로 심심풀이 삼아 이야기나 하나 해보라고 했고, 산초는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지 그것만 아니라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야기를 제대로 잘 풀어나가고 아무도 중간에 끼어들어 말을 끊지만 않는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 주인님, 이제 시작할 테니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옛날 옛적에, 모든 이에게 복이 깃들고, 악을 찾아 나서는 자에게는 화가 따르기를…' 아, 주인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 첫머리를 그렇게 시작한 건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 카토 존조리노가 남긴 격언에서 따온 것이랍니다. '악을 찾아 나서는 자에게는 화가 따르리라.' 이 말이 지금 우리 상황에 꼭 반지가 손가락에 맞듯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 주인님, 제발 가만히 계시고 어디 가서 악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차라리 다른 길로 돌아갑시다. 이 길을 꼭 가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겁나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산초야, 네 이야기는 계속하거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걱정은 내게 맡기고 말이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산초가 말을 이었다. "에스트레마두라의 어느 마을에 염소를 치는 목동이 살았답니다. 아, 그러니까 염소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 속의 그 목동, 아니 염소 치는 사람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로페 루이스였지요. 그런데 이 로페 루이스는 토랄바라는 이름의 목녀에게 푹 빠져 있었답니다. 그 토랄바라는 목녀는 부유한 축산업자의 딸이었는데, 그 부유한 축산업자는 바로…"

"산초야, 이야기를 그렇게 엉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방금 한 말을 두 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틀 안에 이야기를 끝내지도 못하겠구나. 군더더기 없이 쭉 이어서,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사람답게 말하거라. 그렇지 못하겠다면 아예 입을 떼지 말고 말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원래 우리 고향에서 옛날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는 말할 줄도 모르

고, 주인님께서 제게 새로운 방식을 써보라고 하셔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방식대로 말하거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운명이 나로 하여금 네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었으니, 어서 계속해 보아라."

"제 영혼의 주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산초가 말을 이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목동은 토랄바라는 목녀를 사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몸집이 통통하고 성격이 드세고 사나운 데다, 어딘가 사내 같은 구석이 있었지요. 콧수염도 약간 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도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하네요."

"그렇다면, 네가 그 여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 돈키호테가 물었다.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그러더군요. 워낙 사실이고 분명한 일이라,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가 전부 다 봤다고 확신하며 맹세해도 될 정도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잠도 자지 않고 모든 일을 뒤엉키게 만드는 악마가 농간을 부렸나 봅니다. 목동이 목녀에게 품었던 사랑을 미움과 악의로 바꿔 놓았지요. 험한 소문에 따르면, 그 원인은 그녀가 목동의 가슴에 불러일으킨 질투였다고 합니다. 그 질투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 금기의 영역까지 이를 정도였으니까요. 그 일로 목동은 그때부터 그녀를 몹시 혐오하게 되어, 다시는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아 그 땅을 떠나 눈길조차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려 했습니

다. 로페에게 거절당한 토랄바는 그제야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전에 없이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건 여자들의 본성이란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홀대하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법이지. 자, 계속해 보아라, 산초야."

"그랬답니다." 산초가 말을 이었다. "목동은 결심한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염소 떼를 몰고 포르투갈 왕국으로 넘어가려고 에스트레마두라 벌판을 따라 길을 떠났지요. 이 소식을 들은 토랄바가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녀는 멀찍이서 맨발로 지팡이를 짚고, 목에는 짐 꾸러미를 멘 채 따라갔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꾸러미 안에는 거울 조각이랑 빗 조각, 그리고 얼굴에 바르는 이름 모를 작은 병 같은 게 들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 무엇을 가져갔든 지금 와서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목동이 가축을 몰고 과디아나 강에 도착했다는 것만 말씀드리죠. 마침 강물이 불어나서 거의 범람하기 직전이었는데, 그가 도착한 곳에는 배도 없었고 그와 가축들을 반대편으로 건네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동은 무척 상심했습니다. 토랄바가 이미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녀가 울며 매달리면 아주 곤혹스러워질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주위를 두루 살피다가, 사람 한 명과 염소 한 마리만 겨우 탈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배를 가진 어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부에게 말을 걸어, 자신과 자신이 몰고 온 염소 300마리를 건너게 해달라고 협상을 했지요. 어부는 배에 올라타 염소 한 마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또 한 마리를 건넜고, 또 돌아와서 또 한 마리를 건넜습니다."

산초가 덧붙였다. “나리, 어부가 건네주는 염소 숫자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이야기가 끊겨서 더 이상 한 마디도 못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계속하겠습니다. 강 건너편 선착장은 진흙투성이라 매우 미끄러웠고, 그래서 어부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부는 또 한 마리를 위해 돌아왔고,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계속해서 그랬답니다…….”

“그 염소들을 다 건넜다고 치자.”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반복하지 마라. 그러다간 일 년이 걸려도 염소를 다 못 건너겠구나.”

“지금까지 몇 마리나 건넜습니까?” 산초가 물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숫자를 잘 세어 두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맙소사,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산초가 말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지나간 염소의 수를 하나하나 다 아는 것이 이 이야기의 본질이란 말이냐? 그 수를 하나라도 틀리면 이야기를 더는 이어갈 수 없단 말이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주인님께 지나간 염소가 몇 마리인지 여쭤봤을 때, 주인님께서 모르겠다고 대답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제가 하려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몽땅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정말이지 그 남은 이야기야말로 알차고 재미있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다는 말이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아주 끝났지요." 산초가 말했다.

"네 말이 맞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방금 들려준 건 세상 그 누구도 생각해 내지 못했을 만큼 진귀한 옛이야기이자 사연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놓다가 도중에 끊어 버리는 법은 평생토록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네 평소 말솜씨를 생각하면 다른 결말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만. 그래도 딱히 놀랍지는 않구나.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 매질 때문에 네 정신이 온통 혼미해진 모양이니 말이다."

"무엇이든 가능하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이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염소 떼가 지나가는 걸 세다가 실수한 데서 이야기가 끝났으니까요."

"네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든 상관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보다 우선 로시난테를 움직일 수 있는지부터 보자꾸나."

돈키호테는 다시 다리를 움직여 보려 했으나, 로시난테는 그저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기만 할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밧줄을 너무 단단히 묶어 놓은 탓이었다.

이때, 새벽의 찬 기운이 몰려와서였는지, 아니면 산초가 저녁에 먹은 음식 중 소화를 돕는 것이 있었던 덕분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었는지—아마 그게 가장 타당할 것이다—산초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공포가 너무나 커서, 주인 곁에서 손톱의 때만큼도 떨어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 또한 불가능했기에, 산초는 그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택했다. 그는 안장 뒤쪽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오른손을 슬며시 놓았다. 그러고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아주 능숙하게, 바지를 고정하던 미끄러지는 끈을 다른 도움 없이 혼자서 풀어냈다. 끈을 풀어내자마자 바지는 툭 하고 아래로 흘러내려 족쇄처럼 발목에 걸리고 말았다. 그다음 산초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셔츠를 들어 올려, 그리 작지 않은 두 엉덩이를 공중에 드러냈다. 산초는 이 정도면 이 끔찍한 곤경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더 큰 문제가 닥쳤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는 일을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어깨를 움츠린 채, 숨을 최대한 참았다. 그러나 이런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이 지독히도 없었던지, 결국 그는 작은 소리를 내고 말았는데, 그 소리는 그를 그토록 겁먹게 했던 소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들은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야, 방금 그 소리는 무엇이냐?”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분명 새로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모험이란 건 원래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는 법이 아니니까요.”

산초는 다시 한번 운을 시험해 보았다. 다행히 이번에는 운이 따라 주어, 아까와 같은 소란도 없이 그를 그토록 괴롭히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귀만큼이나 코도 예민했다. 게다가 산초가 그와 너무나 바짝 붙어 있는 바람에, 산초의 몸에서 올라온 기운이 거의 직선으로 곧장 위로 솟구쳤다. 덕분에 그 냄새가 돈키호테의 코끝에 닿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다. 냄새가 코에 닿자마자 돈키호테는 코를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 꽉 움켜쥐더니, 약간 맹맹한 목소리로 말했다.

"산초야, 네가 겁을 아주 많이 먹은 것 같구나."

"맞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주인님께서는 어찌하여 평소보다 지금 더 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네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구나. 그것도 결코 향수 같은 향내는 아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산초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주인님 잘못입니다. 저를 이 늦은 밤중에 이런 낯선 길로 끌고 오신 분이 바로 주인님이시니까요."

"친구여, 저쪽으로 서너 발자국만 물러나 있게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는 코를 틀어쥔 손가락을 떼지도 않은 채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는 네 몸가짐을 좀 더 조심하고, 나에게 어떤 도리를 지켜야 하는지도 잘 생각해야 할 게야. 너와 너무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네가 나를 이리 우습게 여기게 되었구나."

"장담컨대,"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께서는 제가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라도 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걸 건드리는 게 더 큰 화를 부를 게야, 산초 친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주인과 종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산초는 더 걷다가는 아침이 밝아올 것 같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로시난테의 고삐를 풀어주고 바지끈을 묶었다. 로시난테는 원래 성격이 그리 사나운 말은 아니었으나, 갑자기 몸이 자유로워지자 기분이 상했는지 앞발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주인님께 용서를 구하건대— 제대로 된 뒷발차기는 할 줄 몰랐던 탓에 앞발을 휘두른 것이었다. 돈키호테는 로시난테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이를 좋은 징조로 여겼다. 그는 로시난테가 저 무시무시한 모험을 향해 돌진하려는 것이라고 믿었다.

동이 트면서 사물의 형체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주변이 키 큰 밤나무 숲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밤나무는 그늘이 아주 짙게 지는 나무였다. 그를 때리는 듯한 소리도 여전히 들려왔으나, 대체 무엇이 그런 소리를 내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돈키호테는 더 지체하지 않고 로시난테의 옆구리를 차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고는 산초에게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건네며, 이미 전에도 말했듯이 길어야 사흘 안에는 반드시 돌아올 테니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일렀다. 만약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 위험한 모험 중에 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이 다한 것으로 여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여인인 둘시네아에게 전해달라던 당부와 전갈을 다시금 상세히 일러주었다.

또한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 유언장에는 자신이 봉사한 기간에 대해 아주 작은 부분까지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만약 신께서 자신을 저 위험에서 무사히, 아무런 탈 없이 구해 주신다면, 약속했던 그 섬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산초는 주인님의 애처로운 말을 다시 듣자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 모험이 완전히 끝나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주인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산초 판사가 흘린 이 눈물과 그 고결한 결심을 보며, 이 이야기의 저자는 산초가 분명 귀한 집안 출신이거나, 적어도 대대로 신앙을 지켜온 유서 깊은 그리스도교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산초의 이런 마음씨에 주인인 돈키호테도 마음이 조금은 뭉클해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물소리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산초는 평소처럼 나귀의 고삐를 잡고 돈키호테의 뒤를 따라 걸었다. 그 나귀는 산초가 잘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늘 곁을 지켜 온 변함없는 동반자였다. 어둡고 울창한 밤나무와 나무들 사이를 한참 동안 걸어간 두 사람은 높은 바위 절벽 아래에 펼쳐진 작은 풀밭에 이르렀다. 그 절벽 위에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바위 절벽 아래에는 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건물의 잔해처럼 보이는 허름한 집 몇 채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 집들 사이에서 아직도 그치지 않고 들려오

는 그 두드리는 소리와 요란한 소음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로시난테는 쏟아지는 물소리와 무언가 부딪히는 소음에 놀라 날뛰었다. 돈키호테는 로시난테를 달래며 천천히 집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마음속 깊이 자신의 여주인에게 기도를 올리며, 이 두렵고도 거대한 모험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또한 가는 길에 하나님께도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다. 산초는 돈키호테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산초는 밤새 자신을 이토록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 로시난테의 다리 사이로 목을 길게 빼고 눈을 부릅뜨며 앞을 살폈다. 두 사람이 백 걸음쯤 더 나아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밤새 그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소음의 원인이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그 소리의 주인공이었다. 오, 독자여!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겠지만, 그 소리의 정체는 바로 여섯 개의 직물 풀질용 망치(mazos de batán)가 번갈아 가며 내는 거친 소리였다.

돈키호테는 그 정체를 확인하자마자 말문이 막힌 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붙었다. 산초가 그를 바라보니, 돈키호테는 잔뜩 풀이 죽어 부끄러워하는 기색으로 고개를 가슴팍에 푹 숙이고 있었다. 돈키호테 역시 산초를 바라보았는데, 산초는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져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양 볼을 빵빵하게 부풀린 채 입가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돈키호테의 우울함도 산초의 그런 모습 앞에서는 그가 웃음을 참게 할 만큼 강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끝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산초는 주인이 웃기 시작한 것을 보고는 참았던 웃음을 한꺼번에 터뜨렸고, 웃다가 배가 터질까 봐 두 주먹으로 옆구리를 꽉 움켜쥐어야만 했다. 산초는 네 번이나 웃음을 가라앉혔지만, 그때마다 처음과 똑같은 기세로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돈키호테는 이런 산초의 모습에 진저리를 쳤고, 산초가 마치 빈정대듯 다음과 같이 말하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오, 나의 벗 산초여!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하늘의 뜻에 따라, 나는 이 철의 시대를 다시 황금시대로 되살리기 위해 이 시대에 태어난 몸이다. 나는 온갖 위험과 위대한 업적, 그리고 용맹한 행보를 위해 준비된 바로 그 사람이다!"

산초는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돈키호테가 했던 말들을, 아니 그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돈키호테는 산초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몹시 부끄럽고 화가 나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는 창을 높이 치켜들더니 산초를 두 차례나 세게 내리쳤다. 만약 산초가 그 매를 등이 아니라 머리에 그대로 맞았더라면, 돈키호테는 산초의 상속인들에게나 품삯을 치를까 산초에게 직접 줄 일은 영영 없었을 만큼 매서운 매질이었다. 산초는 자신의 농담 때문에 주인이 이토록 험악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러다 더 큰일이 나겠다 싶어 겁에 질린 채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주인님. 맹세코 그저 농담일 뿐입니다."

"너는 농담이라지만, 나는 농담이 아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리 좀 와 보게, 이 유쾌한 양반아. 방금 저것들이 직물 풀질용 망치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다른 위험한 모험거리였다면, 내가 그 일에 뛰어들어 끝까지 해낼 만한 용기를 마땅히 보여 주지 않았겠나? 내가 기사인 이상, 저 소리가 직물 풀질용 망치 소리인지 아닌지 일일이 가려내고 알아맞혀야 할 의무라도 있단 말인가? 더구나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평생 저런 것을 본 적이 없네. 하지만 자네는 저런 것들 사이에서 나고 자란 비천한 촌놈이니 숱하게 봤겠지. 정 그렇다면 저 망치 여섯 개를 여섯 명의 거인으로 둔갑시켜 내 수염에다 하나씩, 아니면 한꺼번에 들이대 보게나. 그래도 내가 그놈들을 모조리 나자빠뜨리지 못한다면, 그때는 자네 마음껏 나를 비웃어도 좋네."

"더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너무 웃어댄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가 풀리셨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님을 이번 일에서 무사히 건져주셨듯, 앞으로 닥칠 모든 모험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방금 겪은 그 엄청난 공포는 웃으며 이야기할 만한 일 아니었습니까? 적어도 제가 느낀 공포는 말입니다. 주인님께서는 두려움이나 경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건 부정하지 않겠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우리가 겪은 일이 웃을 만한 일이라는 건 인정하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야깃거리가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사물의 적절한 경중을 따질 줄 아는 현명한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적어도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께서는 제 머리를 겨냥해 창을 내지르시고도, 제가 재빨리 몸을 비튼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제 등짝을 때리셨으니, 그야말로 창을 '정확한 자리에' 놓으신 셈이지요. 하지만 뭐, 다 빨래하면 드러나는 법이지요. '너를 울리는 사람이 진정 너를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높으신 분들은 하인에게 모진 말 한마디를 내뱉고 나면 으레 바지 한 벌쯤 내려 주곤 하지요. 다만 매질을 한 뒤에는 무엇을 주는 게 보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편력 기사들은 매를 때린 뒤에 섬이나 본토의 왕국이라도 내려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겠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방금 한 말은 용서해라. 너도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놈이니, 처음 일어나는 움직임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테지. 다만 앞으로는 나에게 너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내가 읽은 수많은 기사도 소설 중에는 너처럼 주인에게 말을 많이 늘어놓는 종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니 말이다. 사실 이건 너와 나 모두의 잘못이다. 네가 나를 낮게 여기는 것도 잘못이고, 내가 나를 높게 대접받지 못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내 잘못이지. 아마다이스 데 가울라의 종자였던 간달린을 보아라. 그는 피르메 섬의 백작이 되었지. 그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는 항상 주인 앞에서 모자를 손에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몸을 굽혀 정중히 말하곤 했다. 돈 갈라오르의 종자 가사발은 또 어떻고? 그가 얼마나 과묵했는지, 그 위대한 침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 방대하고도 진실한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그의 이름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산초야, 내가 한 말을 들어보면 주인과 종자, 상전과

하인, 기사와 종자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격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서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화를 내는 것은 결국 너에게 해가 될 뿐이니까. 내가 약속한 은혜와 보상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내릴 것이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말했듯이 적어도 네 품삯만큼은 떼이지 않을 것이다."

"주인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때가 오지 않아서 품삯이라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그 옛날 떠돌이 기사를 모시는 종자는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품삯은 석공들처럼 날짜로 계산했는지, 아니면 달마다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시절 종자들은 품삯을 받고 일한 게 아니라, 주인의 자비에 기대어 대접을 받았던 것 같다. 내가 집에 봉인된 유언장을 남겨두며 너에게 보상을 약속한 것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였다. 요즘처럼 재난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기사도가 어떻게 될지 나도 알 수 없으니, 사소한 일 때문에 저세상에서 내 영혼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산초야, 이것만은 알아두어라. 이 세상에 편력 모험가만큼 위험한 처지에 놓인 신분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축융기의 방망이질 소리에 불과한 그 소음이, 주인님처럼 용맹한 편력 모험가의 마음을 이토록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본래

의 주인이자 상전이신 나으리를 공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결코 나으리의 일을 두고 농을 치려고 입을 놀리는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하거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래야 네가 이 땅 위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부모 다음으로는 주인을 부모처럼 공경해야 하는 법이니 말이다.”

제21장



제21장. 맘브리노의 투구에 얽힌 위대한 모험과 막대한 이득, 그리고 우리 불패의 기사에게 일어난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그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산초는 어서 저 축융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돈키호테는 지난번에 당한 지독한 봉변 때문에 그곳을 몹시 싫어해서 도무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오른쪽으로 꺾어, 전날 지나온 것과 비슷한 또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돈키호테는 말을 타고 가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머리에 금으로 만든 것처럼 번쩍이는 물건을 쓰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곧장 산초를 돌아보며 말했다.

"산초야, 내 생각에는 세상에 틀린 속담이란 하나도 없는 것 같구나. 속담이란 건 모두 모든 학문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이기 때문이지. 특히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라는 말은 더욱 그렇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젯밤 축융소의 속임수에 넘어가 우리가 찾던 행운의 문이 닫혔을지라도, 이제 더 좋고 확실한 모험을 향해 또 다른 문이 활짝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지, 축융소에 대한 빈약한 정보나 밤의 어둠 때문이라고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저기 맘브리노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한 명 보인다. 네가 이미 알고 있듯이, 내가 맹세까지 했던 바로 그 투구 말이다."

"나으리,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행동은 좀 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산초가 말했다. "또 다른 축융소의 속임수에 넘어가 우리 정신이 아주 너덜너덜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네놈이 정녕 미쳤구나!" 돈키호테가 대꾸했다. "투구와 축융소가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만약 제가 예전만큼 말을 잘할 수만 있다면, 나으리께서 스스

로 틀렸다는 걸 깨달으실 만큼 충분한 이유를 대 드릴 수도 있을 텐데요."

"말장난이나 하는 간사한 놈! 내가 어떻게 틀릴 수 있단 말이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말해 보아라. 저기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기사가 보이지 않느냐? 잿빛 말을 타고 머리에는 황금 투구를 쓴 저 기사를 말이다!"

"제 눈에 보이고 확인되는 건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제 당나귀처럼 갈색 당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뿐입니다. 머리에는 그저 번쩍거리는 물건 하나를 쓰고 있을 뿐이고요."

"저것이야말로 바로 맘브리노의 투구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저쪽으로 비켜서서 나 혼자 상대하게 두어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말 한마디 섞지 않고도 이 모험을 어떻게 끝내는지, 그리고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투구를 어떻게 차지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비켜서 있는 일이라면 제가 알아서 잘 챙기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디 그게 오레가노이지 또 축융기는 아니기를 하느님께 빕니다."

"형제여,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 축융소 이야기는 꿈에서라도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입에 올리지 말라고 말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맹세컨대 — 더는 말하지 않겠다만 — 네 영혼을 축융기에 넣고 흠씬 두들겨 패 줄 테다!"

산초는 주인이 공처럼 단단하고 단호하게 내뱉은 그 맹세를 정말로 실행에 옮길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사정은 이러했다. 돈키호테가 본 투구와 말, 그리고 기사의 실체는 이랬다. 그 근처에는 두 마을이 있었는데, 한 마을은 너무 작아서 약국도 이발소도 없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다른 마을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큰 마을의 이발사가 작은 마을까지 가서 일을 봐주곤 했다. 마침 그 작은 마을에서 환자 한 명이 피를 뽑아야 했고, 또 한 사람은 면도를 해야 했다. 이발사는 그 일을 하러 놋쇠 대야를 챙겨서 길을 나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새것인 듯한 모자가 젖을까 봐 이발사는 머리에 대야를 뒤집어썼다. 대야가 깨끗했던 덕분에 반 레구아 밖에서도 번쩍번쩍 빛이 났다. 산초의 말대로 이발사는 갈색 당나귀를 타고 오고 있었는데, 바로 이 때문에 돈키호테의 눈에는 그것이 잿빛 얼룩말과 기사, 그리고 황금 투구로 보였던 것이다. 돈키호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제멋대로인 기사도 망상과 종잡을 수 없는 생각에 아주 손쉽게 끼워 맞추곤 했다. 불쌍한 기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본 돈키호테는, 상대와 말을 섞기는커녕 로시난테를 전력으로 내달려 창을 낮게 겨누고는 상대를 단숨에 꿰뚫어 버릴 기세로 달려들었다. 그러고는 그 맹렬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은 채 상대에게 소리쳤다.

"가련한 자여, 스스로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내게 바쳐야 할 것을 네 의지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발사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그 유령 같은 형체를 미처 생각할 겨를도, 두려워할 겨를도 없이 맞닥뜨리고는, 창에 맞지 않으려고 당나귀에서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땅에 닿기가 무섭게 그는 사슴보다 더 날쌔게 일어나, 바람조차 따라잡지 못할 만큼 빠르게 그 벌판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이발사가 땅에 떨어뜨리고 간 대야로 만족한 돈키호테는, 저 이교도가 아주 영리하게 처신했다며 사냥꾼에게 쫓기는 비버를 흉내 낸 것이라고 말했다. 비버는 자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쫓긴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이빨로 그것을 물어뜯어 떼어 버린다는 것이었다.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그 투구를 주워 오라고 명령했고, 산초는 그것을 손에 들고는 이렇게 말했다.

"맙소사, 이 대야는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마라베디 한 푼 값이 확실한 것만큼이나, 틀림없이 8레알짜리 값어치는 나가겠는데요."

산초가 그것을 주인에게 건네주자, 돈키호테는 곧 그것을 머리에 쓰고는 제대로 맞는 자리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하지만 도무지 맞질 않자 이렇게 말했다. "이 유명한 투구를 처음 만들 때 그 치수에 맞춘 이교도는 분명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 투구에서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없다는 점이지." 산초는 대야를 투구라고 부르는 소리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주인의 노여움이 떠올라, 웃음을 터뜨리려다 말고 그 절반에서 얼른 입을 다물었다. "산초야, 무엇이 그리 우습느냐?" 돈키호테가 물었다.

"웃음이 나서 그렇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이 투구의 원래 주인인 이교도의 머리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니 웃음이 터져서요. 이 투구가 영락없이 이발사 대야와 똑 닮지 않았습니까."

"산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마법에 걸린 투구라는 유명한 물건이 어떤 기이한 사건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볼 줄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들어간 모양이다. 그 사람은 이게 순금인 줄 알고는, 돈을 챙기려고 나머지 절반을 녹여버린 게 틀림없어. 그러고는 네 말대로 이 이발사 대야처럼 보이는 나머지 절반을 만든 것이지.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 정체를 아는 내게는 이것이 모습을 바꾸었다 한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조만간 대장간이 있는 곳을 찾는 대로 내가 직접 손을 봐서 고쳐 쓰겠다. 그러면 대장간의 신이 전쟁의 신을 위해 벼려 만든 그 투구조차도 내가 고친 것을 능가하기는커녕 견줄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걸 들고 가련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있는 게 나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돌멩이를 막아내는 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테니 말이야."

"그렇게나 되겠습니까?" 산초가 말했다. "두 군대가 싸울 때 돌팔매를 던져대던 것처럼 누군가 새총으로 쏘아 올리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때 당신께 돌을 던져 어금니를 다 깨뜨려 놓더니, 제가 마신 그 지독한 약 때문에 구역질을 하던 그 성스러운 약사발까지 박살을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리 아쉽지는 않다,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 처방전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 처방전을 알고 있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약을 다시 만들거나 마신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약이 다시 필요할 상황을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거나, 혹은 제가 남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할 생각이니까요. 또다시 담요에 싸여 헹가래쳐지는 일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불운은 미리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만약 그런 일이 닥친다면,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숨을 죽인 채 눈을 감고, 운명과 담요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겠지요."

"너는 참으로 못된 기독교인이로구나, 산초야." 그 말을 듣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한 번 당한 수모를 결코 잊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고결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진 자의 도리다. 그 조롱을 잊지 못할 만큼 다리가 절게 되었느냐, 갈비뼈가 부러졌느냐, 아니면 머리가 깨지기라도 했느냐?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은 그저 장난이자 심심풀이였을 뿐이다. 내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그곳으로 돌아가 그리스인들이 헬레네를 빼앗겼을 때 저지른 것보다 더 큰 복수를 해놓았을 것이다. 만약 헬레네가 지금 시대의 여인이었거나, 혹은 나의 둘시네아가 그 시대의 여인이었더라면, 헬레네는 지금처럼 아름답다는 명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여기서 한숨을 내쉬고는, 그 한숨을 구름 위로 띄워 보냈다. 그러자 산초가 말했다.

"그건 장난으로 쳐 두지요. 어차피 복수는 진짜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진심과 장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 등에서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제 기억에서도 결코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주인님께서 쓰러뜨린 저 마르티노라는 자가 여기 버려두고 간 이 잿빛 얼룩 말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얼핏 보면 그냥 거무튀튀한 당나귀 같습니다만. 그자는 혼비백산해서 줄행랑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 다시 돌아와 이 말을 챙길 기미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제 수염을 걸고 말하는데, 저 잿빛 말은 정말 물건입니다!"

"나는 내가 이긴 자의 물건을 빼앗는 버릇이 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기사도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승자가 싸움 중에 자신의 말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패자의 말을 빼앗아 그를 걸어가게 만드는 법은 없다. 만약 승자가 말을 잃었다면, 정당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서 패자의 말을 취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러니 산초, 그 말인지 당나귀인지 네 마음대로 부르되 그만 내버려 두어라. 주인이 우리가 여기서 멀리 떠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 챙길 것이니 말이다."

"제가 저 말을 얼마나 데려가고 싶은지는 하느님만 아실 겁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아니, 적어도 저 말보다 못해 보이는 제 놈이랑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도 법도는 참으로 까다롭군요. 당나

귀와 당나귀를 바꾸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차라리 말 안장이나 굴레 같은 장구류라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확신이 서지 않는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허나 의심스러운 경우엔, 더 확실히 알아보기 전까지 일단은 물건을 맞바꾸어도 좋다고 해 두자. 만약 네가 정말로 그것들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말이다."

"그야말로 절박하다 못해," 산초가 대답했다. "설령 그것들이 제 몸에 직접 쓸 물건이라 한들 이보다 더 절실할 수는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산초는 그 허락을 받자, 마구를 바꿔 다는 '복장 교체'를 단행해 자기 당나귀를 더없이 멋지게 꾸몄고, 덕분에 녀석은 몰라보게 좋아졌다. 그 일을 마친 두 사람은 짐노새에서 빼앗은 식량의 남은 것으로 아침 끼니를 때우고, 축융기가 있는 개울물을 마셨다. 그러면서도 그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으니, 간밤에 그것들이 안겨준 공포 때문에 그 축융기들을 그만큼이나 끔찍이 싫어했던 것이다.

화가 가라앉고 우울한 마음마저 잦아들자, 두 사람은 말에 올라탔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은 편력기사의 도리가 아니었기에, 두 사람은 특별한 목적지 없이 로시난테가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길을 나섰다. 로시난테의 뜻은 곧 주인의 뜻을 끌고 갔고, 당나귀의 뜻마저 끌고 갔다. 당나귀는 로시난테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늘 정답게 그 뒤를 따랐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결국 다시 큰길로 돌아와, 별다른 계획 없이 운명에 몸을 맡긴 채 그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갔다.

그렇게 길을 가던 중, 산초 판사가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잠시 주인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주인님께서 아까 제게 입을 꾹 다물라는 엄한 명령을 내리신 뒤로, 뱃속에서 네 가지가 넘는 말들이 썩어 문드러질 지경입니다. 게다가 지금 혀끝에 맴도는 이 말 한마디만큼은 부디 그냥 사그라들어 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해보게." 돈키호테가 말했다. "대신 길게 늘어놓지는 말게나. 말이 길어지면 듣는 사람 입맛만 버리는 법이니까."

"그게 말입니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요 며칠 생각해보니, 주인님께서 이 황량한 벌판과 갈림길을 헤매며 이런 모험을 찾아다니시는 게 아무런 득도 없고 실속도 없는 일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멋진 모험을 해내고 끝을 맺는다 한들, 그걸 봐주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모험은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혀버릴 테고, 주인님의 뜻도, 모험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도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주인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차라리 어느 황제나 전쟁 중인 위대한 군주를 찾아가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인님께서 그곳에서 주인님의 용맹과 강인한 힘, 그리고 뛰어난 지혜를 마음껏 보여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시는 주군이 그 모습을 직접 본다면, 각자의 공로에 따라 반드시 보상을 내려줄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주인님의 업적을 글로 남겨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사람도 분명 있을 테고요. 제 업적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종자의 일은 종자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

요. 하지만 만약 기사단에서 종자의 무용담도 글로 써주는 풍습이 있다면, 제 이야기도 결코 행간에 묻히지는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말이 틀린 건 아니네,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우선 세상에 나가 모험을 하며 실력을 증명해야 하네. 모험을 몇 번 해내어 이름을 떨치고 명성을 쌓아야, 나중에 어느 위대한 군주의 궁정에 갔을 때 이미 그 업적으로 알려진 기사가 되어 있을 테니까 말일세. 아이들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기사를 보자마자 모두가 뒤를 따라 몰려나와 소리치며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저분이 바로 태양의 기사다!', 혹은 '뱀의 기사다!'라며, 그 기사가 위대한 업적을 남길 때 내걸었던 그 문장을 외치는 거라네. '저분이 바로 괴력의 거인 브로카브루노를 일대일 결투로 꺾은 분이다!', '거의 900년 동안이나 마법에 걸려 있던 페르시아의 위대한 마멜루크를 그 오랜 마법에서 풀어준 분이다!'라고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자네의 무용담을 전할 것이네. 그러면 아이들과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그 나라의 왕이 자기 궁전 창가로 나와 기사를 보게 될 것이고, 무기나 방패에 새겨진 문장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려 이렇게 외치겠지. '아, 어서! 내 궁정에 있는 기사들은 모두 나와서 기사도의 꽃을 맞이하라, 저기 그분이 오신다!' 왕의 명령에 모두가 밖으로 나갈 것이고, 왕은 계단 중간까지 내려가 기사를 꽉 껴안은 뒤 얼굴에 입을 맞추며 평화의 인사를 건넬 것이네. 그러고는 기사의 손을 잡고 왕비의 침소로 안내하겠지. 그곳에서 기사는 왕비와 그녀의 딸인 공주를 만나게 될 걸세. 그 공주는 이 세상 넓은 땅 어디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처녀일 것이네. 그러면 곧바로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

고, 서로를 보며 인간이라기보다 신성한 존재처럼 느끼게 될 것이네. 그러고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사랑의 그물에 걸려들어, 서로의 애타는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가슴을 졸이게 되겠지. 그 후 기사는 분명 궁전의 화려하게 꾸며진 방으로 안내될 것이네. 그곳에서 갑옷을 벗은 기사에게는 붉은색의 값비싼 망토가 입혀질 것이고, 무장을 했을 때도 멋졌지만 평상복을 갖춰 입었을 때는 훨씬 더 근사해 보일 걸세. 밤이 되면 기사는 왕과 왕비, 공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겠지. 기사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공주를 바라볼 것이고, 공주 또한 똑같이 영리하게 기사를 훔쳐볼 것이네. 내가 말했듯이 공주는 아주 사려 깊은 처녀니까 말이야. 식사가 끝나 상이 치워질 무렵, 흉측하고 작은 난쟁이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식당 문으로 들어올 것이네. 그 난쟁이 뒤에는 두 거인 사이로 그 여인이 따라 들어오는데, 이것은 아주 오래전 한 현자가 만들어 둔 모험이라네. 이 모험을 완수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로 추앙받게 되지. 그러면 왕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그 모험에 도전해보라고 명할 것이고, 오직 손님으로 온 기사만이 그 모험을 끝내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될 것이네. 그러면 공주는 매우 기뻐할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고귀한 분에게 두었다는 사실에 더없이 큰 만족을 느낄 것이네. 게다가 이 왕이나 군주는 자신만큼이나 강력한 다른 나라와 치열한 전쟁 중인데, 손님으로 온 기사는 궁정에 머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전쟁에 나가 왕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게 될 것이네. 왕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를 허락할 것이고, 기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왕의 손에 정중히 입을 맞추겠지. 그날 밤, 기사는 공주가 잠드는 침실로 면한 정원의 쇠창살 너머에서 공주와 작별 인사를 나눌 것이네. 이미 여러 번 그 창

살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어 왔는데, 공주가 깊이 신뢰하는 시녀가 그 모든 일의 중개자이자 비밀을 함께 아는 사람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지. 기사는 한숨을 내쉬고 공주는 정신을 잃을 듯 괴로워하겠지. 시녀는 물을 떠 오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몹시 걱정하며 공주의 명예를 위해 두 사람이 들키지 않기를 애태울 것이네. 마침내 공주는 정신을 차리고 창살 너머로 하얀 손을 내밀 것이고, 기사는 그 손에 수천 번 입을 맞추며 눈물로 적실 것이네.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의 길흉을 어떻게 알릴지 약속하고, 공주는 기사에게 되도록 빨리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겠지. 기사는 여러 번 맹세하며 약속할 것이고, 다시 한번 손에 입을 맞춘 뒤 목숨이 끊어질 듯 애틋하게 작별할 것이네. 기사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누이지만 이별의 슬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왕과 왕비, 공주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네. 그런데 왕과 왕비께 인사를 드리고 나면, 공주는 몸이 좋지 않아 면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지. 기사는 그것이 이별의 슬픔 때문이라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하마터면 자신의 괴로움을 그대로 드러낼 뻔하네. 이때 중개를 맡은 시녀가 그 모습을 죄다 지켜보다가 공주에게 전하러 가겠지.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시녀를 맞이하며, 자신의 가장 큰 슬픔은 그 기사가 누구인지, 왕족의 혈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네. 그러면 시녀는 자신의 기사처럼 예의 바르고 품격 있으며 용맹한 이는 오직 고귀하고 지체 높은 왕족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며 공주를 안심시키겠지. 그 말에 시름에 잠긴 공주는 위안을 얻고, 부모님께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으며, 이틀 뒤에 다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네. 그사이 기사는 이미 떠나 전쟁터에서 싸우며 왕의 적을 물리치고, 수많은 도시를 점령

하고 숱한 전투에서 승리하며 궁정으로 돌아오네. 기사는 늘 만나던 곳에서 공주를 다시 만나고, 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공주를 아내로 달라고 왕에게 청하기로 하지. 왕은 기사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선뜻 허락하지 않지만, 그래도 공주는 납치를 통해서든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 기사의 아내가 되고, 왕은 그것을 큰 행운으로 여기게 되네. 왜냐하면 그 기사가 지도에도 없을 법한 어느 먼 나라의 용맹한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이지. 이윽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공주가 왕위를 물려받고, 기사는 한마디로 왕이 되는 것이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종자와, 자신을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오르게 도와준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 차례가 오지. 기사는 자신의 종자를 공주의 시녀와 결혼시킬 것인데, 그 시녀는 분명 두 사람의 사랑을 중개해 준 바로 그 처녀이자 아주 지체 높은 공작의 딸일 것이네."

"주인님, 제 바람은 딱 그뿐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렇게 되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주인님께서 '슬픈 형상의 기사'라 불리며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내실 거라 믿으니까요."

"의심하지 마라,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방금 말한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편력기사들이 왕이나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말이다. 이제 남은 건 기독교인이든 이교도든, 전쟁 중이면서 아름다운 딸을 둔 왕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일뿐이다. 하지만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이미 말했듯이, 궁정으로 가기 전에 우선 다른 곳에서 명성을 쌓아야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다. 설령 전쟁 중인 왕을 만나고 그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으며, 내가 온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고 치자. 그렇다 해도 내가 왕족의 혈통이거나, 적어도 황제

의 육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내 업적이 아무리 대단해도, 왕이 그 사실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딸을 내 아내로 내어주려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부족함 때문에 내 팔이 마땅히 얻어야 할 영광을 놓칠까 봐 두렵구나. 내가 비록 연간 500수엘도를 벌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고 재산과 소유지가 분명한 향사의 자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내 이야기를 기록할 현자가 내 가계와 혈통을 아주 잘 정리해 준다면, 내가 왕의 다섯째나 여섯째 손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산초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문이 있다는 걸 알아두어라. 하나는 왕족이나 군주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나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몰락하여, 마치 거꾸로 세워진 피라미드처럼 끝이 뾰족하게 깎여 나간 가문이다. 다른 하나는 비천한 신분에서 시작했으나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 결국 위대한 귀족이 된 가문이지. 즉, 한쪽은 예전에는 귀족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들이고, 다른 한쪽은 예전에는 미천했으나 지금은 귀족인 이들이다. 나 또한 조사를 해보면 그 뿌리가 크고 유명한 가문일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된다면 장차 내 장인이 될 왕도 만족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공주는 아버지가 나를 비록 물장수의 아들이라고 명백히 알지라도, 나를 주인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공주마저 그러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녀를 빼앗아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지. 시간이 흐르거나 죽음이 찾아오면 부모의 노여움도 결국 풀릴 테니까."

"그 말도 딱 들어맞네요." 산초가 말했다. "어떤 매정한 자들이 하는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을 굳이 구걸하지 마라'라는 말 말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에게 통사정하느니 차라리 줄행랑이 낫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만약 주인님의 장인이 되실 왕이 공주님을 내어주기를 한사코 마다한다면, 주인님 말씀대로 그분을 빼앗아 빼돌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왕국이 평온을 되찾아 평화롭게 다스려질 때까지, 가엾은 종자인 저는 그 은혜라는 걸 받기는커녕 쫄쫄 굶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장차 제 아내가 될, 두 분의 사랑을 중개한 그 시녀가 공주님과 함께 따라 나와, 하늘이 달리 정해 주실 때까지 제가 그 시녀와 더불어 제 불운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주인님께서 당장에라도 그 시녀를 제 정당한 아내로 맺어 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건 아무도 못 뺏어가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운명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수밖에요."

"하느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너 산초에게 필요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스스로를 비천하다 여기는 자나 비천한 법이니라."

"하느님 맙소사." 산초가 말했다. "저도 나름대로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인데, 백작이 되려면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지요."

"그 정도면 차고도 넘치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설령 네게 그런 것이 없다 해도 아무 상관없다. 내가 왕이라면, 네가 돈을 내거나 나를 위해 무엇을 바치지 않아도 기꺼이 귀족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내

가 너를 백작으로 삼아준다면, 남들이 뭐라 하든 너는 당당히 기사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툴툴대더라도, 결국 너를 귀하신 분이라 부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럼요, 제가 그 '리타도(litado)'를 위엄 있게 갖출 줄 모를까 봐서요!" 산초가 말했다.

"'리타도'가 아니라 '딕타도(dictado, 칭호)'라고 해야지." 주인인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게 되죠, 뭐."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제 말은, 저한테 아주 잘 어울릴 거라는 뜻이었어요. 제 목숨을 걸고 맹세컨대, 예전에 한 형제회에서 일꾼 노릇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입었던 옷이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다들 제가 그 형제회의 회장이 될 관상이라고 말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제가 공작의 화려한 예복을 걸치거나, 외국 백작처럼 금과 진주로 치장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백 리 밖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보러 구름처럼 몰려들 겁니다."

"보기에는 좋겠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수염을 아주 자주 깎아야 할 게다. 네 수염이 워낙 덥수룩하고 지저분하게 자라 있어서 말이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면도날로 깔끔하게 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네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비웃을 테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이발사를 한 명 고용해서 집에 두고 부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산초가 말했다.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저를 따라다니며 훌륭한 마부 노릇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귀족들이 뒤에 마부를 거느리고 다닌다는 걸 아느냐?" 돈키호테가 물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지난 몇 년 전에 제가 궁정에 한 달 동안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주 작은 체구의 귀한 분이 산책하시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아주 위대한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말 위에서 계속 뒤를 쫓아다니는데, 마치 그분의 꼬리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 남자는 왜 저분과 함께 다니지 않고 항상 뒤만 졸졸 따라다니느냐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남자는 그분의 마부이며, 귀한 분들은 원래 저런 사람을 뒤에 거느리고 다니는 법이라고 대답해 주더군요. 그때부터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게 되어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니 너도 네 이발사를 거느리고 다녀도 된다. 관습이라는 게 한꺼번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발사를 뒤에 거느리고 다니는 최초의 백작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게다가 이발을 맡기는 것이 말에 안장을 얹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직하지 않느냐."

"이발사를 거느리는 일은 저에게 맡겨 두십시오." 산초가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왕이 되려고 애쓰시거나 저를 백작으로 만들어 주려는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렇게 될 것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바라본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제22장



제22장. 돈키호테가 본의 아니게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던 수많은 불행한 이들에게 자유를 선사한 이야기

아랍인이자 라만차 사람인 저자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이 매우 엄숙하고도 웅장하며, 짧으면서도 감미로운 상상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유명한 라만차의 돈키호테와 그의 종자 산초 판사 사이에 스물한 장 끝부분에 기술된 대화가 오간 뒤의 일이다. 돈키호테가 눈을 들어 길을 보니, 열두 명 남짓한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커다란 철제 사슬에 목이 꿰어 마치 구슬 꿰듯 줄줄이 엮여 있었고, 모두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그들 곁에는 말 탄 사람 둘과 걸어가는 사람 둘이 함께 오고 있었다. 말 탄 이들은 화승총을 들었고, 걸어가는 이들은 투창과 칼을 들고 있었다. 산초 판사는 이 광경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저건 갤리선으로 압송되는 죄수들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고요."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돈키호테가 물었다. "왕이 사람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는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왕의 갤리선에서 강제로 노역을 하도록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게 어떤 사정이든 간에, 저 사람들은 끌려가는 것이지 제 발로 가는 게 아니지 않은가. 즉,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강제로 가는 것이란 말일세."

"맞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야말로," 그의 주인이 말했다. "내 직무를 수행하기에 딱 알맞은 때가 아니겠느냐. 바로 부당한 힘을 꺾어놓고, 불쌍한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 말이다."

"나으리, 명심하십시오." 산초가 말했다. "왕 그 자체인 법이라는 것이, 저런 사람들에게 억지를 부리거나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저 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이때 갤리선으로 압송되는 죄수 무리가 도착했다. 돈키호테는 아주 정중한 태도로 호위병들에게 다가가, 저 사람들이 어째서 저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말을 타고 가던 호위병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저들은 국왕 폐하의 명을 받아 갤리선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이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자신도 더 알 필요가 없다고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째서 저런 불행을 겪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소."

돈키호테는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아주 정중하고도 사려 깊은 이유들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자 다른 호위병이 그에게 말했다. "비록 여기 이 불행한 자들 각자의 판결문과 기록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꺼내어 읽어줄 때가 아닙니다. 차라리 직접 가서 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들이 말하고 싶다면 말할 것이고, 분명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저들은 원래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떠벌리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부류니까요."

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허락이라도 받은 양, 돈키호테는 죄수들의 사슬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첫 번째 죄수에게 왜 저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느냐고 물었다. 죄수는 사랑에 빠진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고작 그것 때문이란 말이오?" 돈키호테가 되물었다. "만약 사랑에 빠진 죄로 갤리선에 끌려가는 것이라면, 나도 벌써 한참 전부터 저 배에서 노를 젓고 있었을 것이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갤리선 죄수가 말했다. "제 죄는 하얀 빨랫감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걸 아주 꽉 껴안아 버린 것입니다. 법의 심판이 강제로 떼어놓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제 의지로 그 바구니를 놓지 않았을 겁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니 고문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렇게 사건은 끝이 났고, 제 등에는 채찍 백 대를 안겨 주었습니다. 게다가 덤으로 구라파스(gurapas) 3년형까지 딱 떨어지게 더해졌으니, 아주 볼일 다 본 셈이지요."

"구라파스(gurapas)라니, 그게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돈키호테가 물었다.

"구라파스란 갤리선을 말하는 겁니다." 갤리선 죄수가 대답했다.

그는 스물네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피에드라히타 출신이라고 말했다. 돈키호테가 두 번째 죄수에게도 똑같이 물었으나, 그는 너무나 슬프고 우울한 기색이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첫 번째 죄수가 그를 대신해 이렇게 대답했다.

"이 사람은요, 나리, '카나리오(canario)' 때문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악사이자 가수라서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돈키호테가 되물었다—음악가나 가수라고 해서 갤리선으로 끌려가는 것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나리." 갤리선 죄수가 대답했다. "고통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으니까요."

"그보다, 나는 노래를 부르면 불행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갤리선 죄수가 말했다. "한 번 노래를 부른 사람은 평생을 눈물로 보내게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경비병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했다.

"기사님, 이 불경한 자들 사이에서는 고통 속에서 노래하는 것을 고문 중에 자백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여기 이 죄인은 고문을 당하다가 죄를 자백했습니다. 짐승을 훔치는 도둑질을 했다는군요. 자백했다는 이유로 6년 동안 갤리선에서 노를 저어야 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이미 등에 200대의 채찍질까지 당했습니다. 저 자는 늘 깊은 생각에 잠겨 슬픈 기색이 역력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남아 있거나 여기로 오는 다른 도둑들이 저를 괴롭히고 짓밟으며, 자백을 했다고 비웃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버틸 기개가 없었다면서 말입니다.

도둑들 말로는 '아니오'라는 글자나 '예'라는 글자나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범죄자에게는 참으로 운수 좋은 일이라며, 목격자나 증거가 아니라 오직 자기 혀에 생사가 달려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경비병이 말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돈키호테는 세 번째 죄인에게로 다가가 다른 이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 사연을 물었다. 그러자 그 죄인은 지체 없이 아주 거침없이 대답하며 말했다.

"저는 열 두카도가 모자라서 5년 동안 갤리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꺼이 스무 두카도를 내어주어 그대를 이 고통에서 구해 주겠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말씀은 마치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돈은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필요한 물건을 살 곳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군요." 갤리선 죄인이 대답했다. "제가 만약 당신께서 지금 제안하신 그 스무 두카도를 제때에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돈으로 서기의 펜에 기름칠을 하고 대리인의 머리도 좀 돌아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저는 오늘 이 길 위에서 사냥개처럼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톨레도의 소코도베르 광장 한복판에 서 있었겠지요. 하지만 신은 위대하시니,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요."

돈키호테는 네 번째 죄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흰 수염을 가진, 인자한 인상의 노인이었다. 돈키호테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묻자, 노인은 그 질문을 듣고는 울음을 터뜨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다섯 번째 죄인이 그를 대신해 입을 열었다.

"이 점잖은 분은 4년 동안 갤리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관례대로 번듯하게 차려입혀진 채 말에 태워져 거리를 한 바퀴 돌며 조리돌림을 당하고 난 뒤에 말이지요."

"그렇군요." 산초 판사가 말했다. "제가 보기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형벌, 그러니까 조리돌림을 치렀다는 말씀이군요."

"그렇고말고요." 갤리선 죄수가 대답했다. "이분이 이런 벌을 받게 된 까닭은, 남녀 사이를 귓속말로 이어 주는 중매쟁이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귀로만 그친 게 아니라 온몸까지 동원해서 그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기사님은 남의 연애를 몰래 주선하는 알코헤테(alcahuete, 뚜쟁이) 노릇을 한 데다, 마법사 기질까지 좀 있던 탓에 잡혀온 겁니다."

"그가 마법사 노릇까지 했다는 말은 빼고, 순수하게 알코헤테(alcahuete) 노릇만 했다고 칩시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갤리선에서 노를 저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배를 지휘하는 대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알코헤테라는 직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맡아야 하며, 잘 정돈된 국가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직업입니다. 따라서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만이 이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직업들이 그렇듯, 시장 중개인처럼 정해진 인원과 명단이 있는 감독관과 심사관을 두어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직업을 어리석고 식견 없는 자들이 함부로

휘두르며 일으키는 수많은 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견이 부족한 여자들이나, 철없고 경험 없는 어린 시종과 건달들이 이 일을 맡게 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대책을 세워야 할 때 입과 손 사이의 빵가루조차 삼키지 못할 정도로 당황해서 자기 오른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제가 더 나아가 왜 국가에서 이토록 필요한 직업을 가진 이들을 엄격히 선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자리가 아니군요. 언젠가 이 일을 맡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렇게 하얀 머리칼과 존엄한 얼굴을 가진 분이 알코헤테 노릇을 했다는 이유로 저토록 고생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으나, 마법사 노릇까지 했다는 덧붙은 죄목이 도리어 그 안타까움을 가시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거나 강요할 수 있는 마법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이들은 마법이 있다고 믿지만, 인간의 자유 의지는 그 무엇도 억지로 굴복시킬 수 없으며, 그 어떤 풀이나 주문도 의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이나 교활한 사기꾼들이 약물이나 독을 써서 남자를 미치게 만든 뒤, 마치 마법으로 사랑을 얻은 것처럼 떠벌리는 경우가 있지만, 앞서 말했듯 의지를 강제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인자한 노인이 말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리. 마법사 노릇을 했다는 건 제 잘못이 아니지만, 알코헤테 노릇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의도는 오로지 모든 사람이 다툼이나 근심

없이 평화롭고 안온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선한 마음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더불어, 잠시도 편히 쉬지 못하게 만드는 요도 질환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처음처럼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산초 판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품속에서 4레알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노인에게 자선으로 건네주었다.

돈키호테는 앞으로 나아가 다른 죄수에게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 죄수는 앞선 사람보다 훨씬 더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죄를 대답했다.

"저는 사촌 누이 둘과, 또 저와는 친척이 아닌 다른 자매 둘과 너무 지나치게 놀아난 탓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들 모두와 어찌나 깊이 놀아났던지, 그 바람에 친척이 불어나 핏줄 관계가 어찌나 복잡하게 얽혀 버렸는지 악마라도 그 친척 관계를 다 밝혀내지 못할 지경이 되고 말았지요. 결국 모든 죄가 다 드러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돈도 떨어졌습니다. 하마터면 목이 날아갈(교수형당할) 처지에 놓였지만, 6년 동안 갤리선에서 노를 저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달게 받아들였지요. 제 잘못으로 받는 벌이니까요. 게다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목숨만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법이지요. 기사님, 혹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만한 것이 있으시면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보답해 주실 겁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 기도를 올릴 때, 기사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하

느님께 간절히 빌겠습니다. 기사님의 훌륭한 풍채에 걸맞게, 그 삶이 아주 길고 복되기를 말입니다."

이 죄수는 학생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호위병 중 한 명이 말하기를 그는 말이 아주 많고 라틴어에도 무척 능통한 자라고 했다.

이들 뒤에는 인물이 아주 준수한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다만 눈을 맞출 때면 눈동자가 약간 사시처럼 안으로 몰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아주 기묘한 모습으로 묶여 있었다. 발에는 온몸을 휘감을 정도로 커다란 쇠사슬을 차고 있었고, 목에는 두 개의 고리가 채워져 있었다. 하나는 쇠사슬에 연결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흔히 '친구를 지키는 고리'라 불리는 형태였다. 이 고리에서 허리까지 두 개의 철봉이 내려왔는데, 그 끝에 손목을 결박하는 수갑이 달려 있었다. 수갑은 굵직한 자물쇠로 꽉 잠겨 있어서, 그는 손을 입 근처로 가져갈 수도 없었고 고개를 숙여 손을 만질 수도 없는 처지였다. 돈키호테가 저 남자는 어째서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구속을 당한 채 끌려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호위병이 대답하기를, 저 자는 다른 죄수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저 자는 워낙 대담하고 악랄한 악당이라, 저런 모습으로 끌려가면서도 호위병들은 그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저 자가 도망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자가 갤리선으로 보내지는 것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지 않았다면,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저자는 10년형을 선고받았소." 호위병이 대답했다. "그건 사실상 시민으로서의 죽음, 즉 사회적 사망이나 다름없지. 더는 캐묻지 마시오. 이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히네스 데 파사몬테요, 다른 이름으로는 히네시요 데 파라피라라고도 불리는 자요."

"나으리," 그때 갤리선 죄수가 말했다. "차근차근 말씀하시지요. 지금 와서 이름이니 별명이니 따져가며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히네스이지 히네시요가 아니며, 파사몬테는 제 가문 이름이지 당신이 말한 파라피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각자 갈 길이나 가자고요. 그러면 별 탈 없을 겁니다."

"목소리 좀 낮추시오." 관리가 대답했다. "이 보통내기가 아닌 도둑놈아, 싫어도 별수 없을 테니, 내가 네 입을 틀어막는 꼴을 보고 싶지 않거든 그쯤 해 두시지."

"그렇게 되나 보군요." 갤리선 죄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히네시요 데 파라피라인지 아닌지 누군가 알게 되겠지요." "그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더냐, 이 사기꾼 놈아?" 호위병이 말했다.

"그렇게 부르긴 하지요."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내 이빨 사이로 욕이라도 한 사발 퍼부어 줄 테니까요. 기사님, 우리에게 주실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주시고 어서 가던 길 가십시오. 남의 사정 캐묻는 것도 이쯤 되면 아주 지긋지긋하니까요. 만약 제 사정이 궁금하시

다면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제 이름은 히네스 데 파사몬테이며, 제 인생은 바로 이 손가락 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놈 말이 맞습니다." 관리가 말했다. "저놈이 직접 자기 인생사를 썼는데,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저놈은 그 책을 감옥에 200레알로 저당 잡혀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을 꼭 되찾을 생각입니다. 설령 200두카도가 잡혀 있다 해도 말이지요."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말했다. "그 책이 그렇게나 대단합니까?" 돈키호테가 물었다.

"그렇게 대단한 책이지요."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대답했다. "『라사리요 데 토르메스』 나 그와 비슷한 부류의 책들이 세상에 나왔거나 앞으로 나올 것들을 다 합쳐봐도, 이 책에 비하면 참으로 형편없는 수준일 겁니다.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책은 진실만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실들이 어찌나 아름답고 기막힌지, 세상 그 어떤 거짓말로도 감히 비길 데가 없을 정도랍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돈키호테가 물었다.

"『히네스 데 파사몬테의 생애』 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 책은 완결되었습니까?" 돈키호테가 물었다.

"제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책에 적힌 내용은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번에 갤리선으로 끌려오게 된 시점까지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에도 갤리선에 가 본 적이 있단 말이오?" 돈키호테가 물었다.

"하느님과 국왕 폐하를 받들기 위해 전에도 4년 동안 갤리선에 몸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먹는 딱딱한 빵 맛과 채찍 맛이 어떤지도 이미 잘 알고 있지요."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대답했다. "그렇다고 갤리선에 가는 게 그리 괴롭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제 이야기를 마저 끝낼 수 있을 테니까요. 아직 해야 할 말이 아주 많이 남았거든요. 게다가 스페인의 갤리선은 필요한 만큼의 평온함은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뭐, 제가 써야 할 내용이 워낙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 있어서 그렇게 많은 평온함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말입니다."

"말솜씨가 아주 능수능란하시군요." 돈키호테가 말했다.

"불운한 처지이지요."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대답했다. "불행이란 건 언제나 명석한 사람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법이니까요."

"악당들을 따라다니는 법이지요." 관리라고 불리는 사내가 말했다.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관리님."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대답했다. "천천히 좀 가시라고요. 저 귀하신 분들이 당신에게 그 직권의 지팡이를 들려준 건, 여기 끌려가는 불쌍한 놈들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라 국왕 폐하께서 명하신 곳까지 우리를 잘 인도하고 데려가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안 그러면, 내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아, 관두겠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언젠가 여관에서 저지른 잘못들이 빨래하다 얼룩 드러나듯 들통나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다들 입 다물고, 조용히 잘 살

면서, 말은 더 곱게 하고, 발걸음이나 재촉합시다. 이만하면 충분히 즐기셨지 않습니까."

관리는 파사몬테의 협박에 응수하려 막대기를 높이 치켜들었다. 하지만 돈키호테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손이 저토록 꽁꽁 묶인 이들에게 말할 자유라도 조금은 남겨주어야지 어찌 이리 모질게 대하느냐며 간곡히 만류했다. 그러고는 쇠사슬에 묶인 이들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내게 해준 말들을 종합해 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구려. 비록 그대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 하나,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며, 그대들은 모두 아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말이오. 또한, 어떤 이는 고문 중에 기운이 다했고, 어떤 이는 돈이 부족했으며, 또 다른 이는 도움을 받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판사의 판단마저 어긋나는 바람에, 그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의를 얻지 못한 채 파멸에 이르게 된 것 같구려.

이 모든 사연이 지금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떠오르니, 마치 하늘이 나를 세상에 보내고 기사 서품을 받게 한 이유를 일깨워 주는 것 같소. 하늘은 나에게 기사도를 실천하며,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들을 돕겠다는 서약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단 말이오. 하지만 선을 행하려다 도리어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혜의 일부임을 잘 알기에, 여기 계신 관리와 경비병들께 간청하겠소. 부디 이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평온하게 보내주시오. 국왕 폐하를 위해 더 좋은 기회에 봉사할 이들은 얼마

든지 또 나타날 것이니 말이오. 하나님과 자연이 자유롭게 태어나게 한 이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 아니겠소?

게다가 경비병 여러분," 돈키호테가 덧붙였다. "이 불쌍한 이들이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오? 죄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하는 법이지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내리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실 것이오. 그러니 자신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정직한 사람들이 남을 처형하는 망나니 노릇을 하는 것은 옳지 않소. 내가 이토록 온화하고 차분하게 청하는 것은, 만약 내 청을 들어준다면 그대들에게 고마워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오. 하지만 만약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창과 검, 그리고 내 팔의 용맹함이 그대들로 하여금 강제로라도 따르게 만들 것이오."

"이 무슨 망측한 소리인가!" 관리가 대답했다. "방금 전까지 잘난 체하더니, 이제 와서 아주 농담이 지나치군! 국왕 폐하의 죄수들을 풀어주라니,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 줄 아나, 아니면 당신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 줄 아나! 어서 길이나 가시오, 선생. 앞길이나 잘 살피고, 머리에 쓴 그 냄비 같은 투구는 똑바로 바로잡으시오. 괜히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며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고양이요, 쥐새끼이자 악당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를 향해 돌진했다. 관리는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창에 한 번 찔려 중상을 입고 바닥에 나동그라졌

다. 그리고 마침 운이 좋았던 것이, 이 관리야말로 (일행 중 유일하게) 총을 지닌 자였기 때문이다.

나머지 경비병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여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린 기병들은 칼에 손을 얹었고, 보병들은 창을 치켜들고 돈키호테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아주 차분한 태도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자유를 얻을 기회가 왔음을 알아챈 갤리선 죄수들이 자신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으려 필사적으로 달려들지 않았다면, 돈키호테 역시 분명 곤경에 처했을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비병들은 풀려나는 죄수들을 막아야 할지, 아니면 자신들을 공격하는 돈키호테를 상대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다.

그사이 산초 판사는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풀려나도록 도왔다. 파사몬테는 가장 먼저 자유의 몸이 되어 들판으로 뛰어 나갔다. 그는 쓰러진 관리를 덮쳐 검과 총을 빼앗았다. 그러고는 그 총으로 한쪽을 겨누고 다른 쪽을 가리키며, 단 한 발도 쏘지 않은 채 기세만으로 경비병들을 몰아붙였다. 파사몬테의 총과 이미 풀려난 죄수들이 던지는 수많은 돌멩이를 피해 경비병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산초 판사는 이 상황을 보고 몹시 근심했다. 도망치는 자들이 이 사건을 성스러운 형제단에 알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형제단은 종소리를 울려 범죄자들을 추격하러 나올 터였다. 산초는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지체하지 말고 이곳을 떠나 근처에 있는 산속으로 몸을 숨기자고 간곡히 청했다.

"그 말이 옳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는 내가 잘 알고 있소."

그리고 돈키호테는 소란을 피우며 관리를 옷 한 조각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버린 죄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죄수들은 돈키호테가 무엇을 명령할지 보려고 그의 주위를 둥그렇게 에워쌌고, 돈키호테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본래 귀한 신분이라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오. 하물며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함은 하느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죄악 중 하나라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나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몸소 겪어 보았기 때문이오. 그러니 그 보답으로, 내 간절히 바라는 바를 말하겠소. 내가 여러분의 목에서 풀어준 그 쇠사슬을 몸에 찬 채로, 즉시 길을 떠나 엘 토보소로 가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 앞에 나아가, '슬픈 형상의 기사'가 당신께 안부를 전하며 명을 받들라 하셨다고 전하시오. 또한 이 유명한 모험을 통해 여러분이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얻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말씀드리시오.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디로 가든 여러분의 운명에 맡기고 마음껏 가도 좋소."

죄수들을 대표하여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대답하며 말했다.

"저희의 주인이자 해방자이신 나리께서 명령하신 일은 도저히, 정말이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는 함께 길을 갈 수 없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희를 잡으러 뒤쫓아올 성스러운 형제단(Santa Hermandad)의 눈을

피해야 하니까요. 나리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 아니 마땅히 해주셔야 할 일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께 바치려던 그 정성을 대신하여 저희가 나리를 위해 성모송과 사도신경을 몇 번씩 바치게 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저희는 도망을 치든 쉬고 있든, 평화로울 때든 전쟁 중이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시 이집트의 솥단지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 쇠사슬을 다시 차고 엘 토보소로 향하라는 말씀은, 아직 낮 열 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밤이 되었다고 우기시는 격입니다. 저희에게 그런 일을 요구하시는 건 느릅나무에서 배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런 제기랄!" 돈키호테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소리쳤다. "이 빌어먹을 놈, 히네스 데 파사몬테인지 뭔지 하는 놈아! 네놈은 꼬리를 바짝 말고 쇠사슬을 온몸에 감은 채, 혼자서 기어 가야 할 것이다!"

참을성이 그리 많지 않았던 파사몬테는 돈키호테가 저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가 싶어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는 동료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다들 따로 떨어져 나와 돈키호테에게 돌을 퍼붓기 시작했다. 돌이 비 오듯 쏟아지는 바람에 돈키호테는 방패로 몸을 가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불쌍한 로시난테는 마치 청동으로 만든 말이라도 된 양, 박차를 가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산초는 당나귀 뒤로 몸을 숨긴 채, 두 사람 위로 쏟아지는 돌무더기를 막아내느라 급급했다. 돈키호테는 방패로 아무리 막아보려 했지만, 수많은 자갈이 몸에 맞았고 결국 그 충격에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그가 쓰러지기가 무섭게 한 학생이 달려들어 돈키

호테의 머리에 씌워진 대야를 낚아채더니, 그것으로 그의 등을 서너 차례 내리치고 땅바닥에도 몇 번이나 내리쳐서 박살을 내버렸다. 그들은 갑옷 위에 입고 있던 겉옷을 벗겨갔고, 정강이 가리개가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속바지까지 벗겨낼 기세였다. 산초 역시 겉옷을 빼앗기고 알몸이 되었으며, 남은 전리품을 서로 나눠 가진 이들은 각자 흩어졌다. 그들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 앞에 가서 쇠사슬을 차는 것보다, 두려운 형제단의 눈을 피해 도망치는 데 온 정신을 쏟았다.

결국 남은 것이라고는 당나귀와 로시난테, 산초와 돈키호테뿐이었다. 당나귀는 고개를 떨군 채 생각에 잠겨 이따금씩 귀를 털어댔는데, 귀에 쟁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돌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로시난테는 주인 곁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역시 돌에 맞은 충격으로 바닥에 나동그라진 상태였다. 산초는 알몸이 된 채 성스러운 형제단이 나타날까 봐 겁에 질려 있었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그토록 선의를 베풀려 했던 이들에게 이토록 비참한 꼴을 당했다는 사실에 몹시 분하고 속상했다.

제23장



제23장. 유명한 돈키호테가 시에라 모레나에서 겪은 일, 이 진실한 이야기에서 전해지는 가장 기이한 모험 중 하나

상황이 이토록 난처하게 돌아가자, 돈키호테가 종자에게 말했다.

"산초야, 평소에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지. 비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건 바다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말이다. 네 말을 믿었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쩌겠느냐. 참아야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제가 터키 사람인 것처럼 주인님도 이번 일을 교훈 삼으실 겁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었더라면 이런 화를 면했을 거라 말씀하셨으니, 이번에는 제 말을 믿으셔야 더 큰 화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스러운 형제단을 상대로는 기사도를 들먹여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편력기사를 죄다 합쳐도 2마라베디만큼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벌써 그들의 화살이 제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것만 같습니다."

"산초야, 네가 겁쟁이인 건 당연한 일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고집불통이라 네 조언을 결코 듣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번 한 번만은 네 말을 따라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분노로부터 몸을 피하겠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내가 두려워서 이 위험을 피해 물러난 것이라고는 누구에게도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 오직 네 간청을 들어주기 위해 물러난 것이라고만 말해야 한다. 만약 다르게 말한다면 너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 지금부터 그때까지,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네 말을 부정하며, 네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니 더는 대꾸하지 마라. 내가 어떤 위험을, 특히 자칫 두려움의 그림자가 어린 것처럼 보이는 이번 위험을 피해 물러난다는 생각만 해도, 나는 차라리 이곳에 홀로 남아

버티고 싶어진다. 네가 말하며 두려워하는 신성 형제단(산타 에르만다드)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형제들과 일곱 마카베오 형제들, 카스토르와 폴룩스, 나아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제와 형제단이 들이닥친다 해도 홀로 맞서 기다리겠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물러나는 것이 곧 도망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위험이 희망을 넘어설 때는 기다리는 것 또한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을 도모하려 오늘 몸을 사리고, 하루 만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처신입니다. 제가 비록 무식하고 천한 놈이라 해도, 소위 말하는 '훌륭한 처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압니다. 그러니 제 조언을 들은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다면 로시난테에 올라타십시오.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손보다 발이라고 자꾸만 일러 주고 있으니까요."

돈키호테는 더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말에 올랐다. 그리고 산초가 당나귀를 몰아 앞장서자, 두 사람은 바로 옆에 맞닿아 있는 시에라 모레나 산맥의 한쪽 길로 들어섰다. 산초는 산맥을 완전히 가로질러 비소나 알모도바르 델 캄포 쪽으로 빠져나갈 작정이었다. 그렇게 험준한 산속에 며칠간 몸을 숨겨야, 치안대가 자신들을 쫓더라도 발각되지 않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마음먹고 기운을 낸 데는 까닭이 있었다. 갈레오테들과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와중에도 당나귀에 실려 있던 식량 자루가 멀쩡히 살아남은 것을 보았던 것이다. 갈레오테들이 닥치는 대로 챙겨 가고 샅샅이 뒤진 것을 생각하면, 그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여겼다.

돈키호테는 그 산속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그가 갈망하던 모험을 펼치기에 더없이 알맞은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런 황량하고 험준한 곳에서 편력기사들이 겪었다는 경이로운 사건들이 하나둘 그의 기억 속에 떠올랐다. 돈키호테는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 넋을 잃은 나머지, 다른 어떤 것도 떠올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산초 역시 안전한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다른 걱정은 모두 접어 두었다. 오직 신부 일행에게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울 생각뿐이었다. 그리하여 산초는 여자처럼 옆으로 비스듬히 당나귀에 걸터앉은 채 주인 뒤를 따르며, 자루에서 음식을 꺼내 뱃속으로 밀어 넣기에 바빴다. 그렇게 가는 동안에는 다른 모험을 만나든 말든 손톱만큼도 개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산초가 눈을 들어 보니, 주인은 땅에 떨어져 있는 정체 모를 물건을 창끝으로 들어 올리려 애쓰며 멈춰 서 있었다. 산초는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 서둘러 달려갔다. 산초가 도착했을 때, 돈키호테는 창끝으로 쿠션 하나와 그에 매달린 가방 하나를 막 들어 올리던 참이었다. 가방은 반쯤 썩었거나 아예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다. 하지만 물건이 꽤 무거웠던 탓에 산초가 다가가 직접 받아 들어야만 했다. 그러자 주인은 산초에게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산초는 아주 재빨리 가방 안을 살폈다. 가방은 사슬과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이미 여기저기 찢어지고 썩어 문드러진 탓에 그 내용물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가방 안에는 얇은 홀란드 천으로 만든 셔츠

네 벌과 그에 못지않게 깨끗하고 정갈한 다른 천 제품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다 산초는 손수건에 싸인 금화 에스쿠도 한 뭉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 계신 모든 분께 찬미를! 우리에게 이토록 유익한 모험을 선사해 주시다니!"

산초가 더 뒤져 보던 중, 화려하게 장식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돈키호테는 그 수첩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뒤, 돈은 네가 잘 간수해 가지라고 일렀다. 산초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돈키호테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가방에 든 속옷가지를 모조리 꺼내 식료품 자루에 옮겨 담았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야, 내 생각에는 다른 무엇도 아닌, 길을 잃은 여행자가 이 산맥을 지나가다 불량배들에게 습격을 받아 살해당한 것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이토록 외진 곳에 시신을 가져와 묻어둔 것이리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만약 도둑놈들이었다면, 이 돈을 여기다 남겨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말이 맞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구나, 나도 이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구나. 하지만 기다려 보아라. 이 수첩에 무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자꾸나. 만약 적혀 있다면, 그것을 단서 삼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돈키호테는 수첩을 펼쳤다. 글씨체는 아주 정갈했으나 마치 초고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소네트 한 편이었다. 산

초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났다.

사랑은 지식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잔인함이 넘치거나, 아니면 내 고통이

나를 가장 모진 고통으로 내모는 이 처지에

걸맞지 않은 것이리라.

하지만 사랑이 신이라면, 사랑은 곧 증거가 된다.

그 무엇도 모르는 법이 없으니, 이는 참으로 훌륭한 근거가 된다.

신이 잔인할 리 없다는 더없이 마땅한 이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내가 숭배하고 느끼는 이 끔찍한 고통을 대체 누가 다스린단 말인가?

"필리, 만약 당신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겠지요."

그토록 큰 선함 속에 그토록 큰 악이 깃들 리 없고,

이런 파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머지않아 죽게 되겠지요, 그건 아주 확실한 일이니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는,

약이 잘 맞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요.

"그 시 구절만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산초가 말했다. "거기 적힌 실마리 하나로 실타래 전체를 풀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실마리가 있다는 말인가?" 돈키호테가 물었다.

"제 생각에는,"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서 방금 그 실마리라고 말씀하신 것 말입니다."

"나는 필리라고만 말했을 뿐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이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소네트의 작가가 한탄하며 노래하는 여인의 이름이 분명하다. 만약 이 시를 쓴 이가 합당한 시인이 아니라면, 내가 시의 도를 모르는 것이겠지."

"그럼 나리께서는 시도 좀 아시는 겁니까?" 산초가 물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단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나중에 내 귀하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께 시로만 빽빽하게 쓰인 편지를 전해 드리는 날이 오면, 내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산초야, 네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지난 시대의 기사들은 거의 모두가 위대한 시인이자 뛰어난 음악가였다는 사실 말이다. 이 두 가지 재능, 아니 더 적절한 표현을 쓰자면 이 두 가지 미덕은 편력기사들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이다. 물론 옛 기사들이 남긴 시 구절들이 기교 면에

서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정신만큼은 훨씬 더 깊고 뜨겁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리, 좀 더 읽어 보십시오." 산초가 말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게 분명 나올 겁니다."

돈키호테가 책장을 넘기며 말했다.

"이건 산문이군요. 편지 같습니다."

"편지 말씀이십니까, 주인님?" 산초가 물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랑에 관한 글처럼 보이는군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럼 좀 크게 읽어 주십시오." 산초가 말했다. "제가 이런 사랑 이야기는 아주 좋아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지요."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가 간곡히 부탁한 대로 돈키호테가 그 글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났다.

"그대의 거짓된 약속과 나의 확실한 불운이 나를 이런 곳으로 몰아넣었구려. 머지않아 그대의 귀에는 나의 원통한 탄식보다 나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 먼저 가닿겠지. 오, 은혜도 모르는 여인이여! 그대가 나를 버린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때문이었소. 만약 덕성이 재물처럼 값지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면, 나는 남의 행운을 부러워하지도, 나의 불행을 슬퍼하지도 않았을 것이오. 그대의 아름다움이 나를 일으켜 세웠으나, 그대의 행실이 그것을 무너뜨렸구려. 그대의 미모를 보고 천사인 줄 알았건만, 그대의 행동을 보니 그저 한낱 여인이었음을 알겠소. 내 마음의 전쟁을 일으킨 이여, 부디 평안히 계시오. 하늘이 도우시어 그대 남편의 기만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오. 그래야 그대는 저지른 일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원치 않는 복수를 하는 일이 없을 테니 말이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편지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 시 구절들을 통해, 글을 쓴 이가 버림받은 연인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겠구나."

그는 작은 책을 거의 다 넘겨보며 다른 시와 편지들도 찾아냈다. 어떤 것은 읽을 수 있었지만 어떤 것은 읽지 못했다. 하지만 그 내용물은 모두 원망과 탄식, 불신과 환희, 그리고 고통과 즐거움, 은혜와 냉대였다. 어떤 것은 격식을 갖추어 쓰였고, 어떤 것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돈키호테가 책을 넘겨보는 동안, 산초 판사는 가방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가방은 물론 쿠션까지 구석구석 살피고 헤집으며, 솔기란 솔기는 다 뜯어보고 양털 뭉치 하나까지 일일이 풀어 헤쳤다. 부지런히 살피지 않거나 허투루 넘겨 놓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발견한 에스쿠도가 백 개가 넘다 보니, 그 돈이 산초의 마음속에 그만한 탐욕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비록 더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는 담요에 싸여 헹가래질을 당하던 일, 물약을 토해내던 일, 몽

둥이 세례를 받던 일, 노새몰이꾼에게 주먹질을 당하던 일, 안장 자루를 잃어버린 일, 외투를 도둑맞은 일, 그리고 훌륭한 주인을 섬기며 겪은 온갖 배고픔과 갈증과 피로까지도 모두 값진 대가를 치른 셈이라 여겼다. 이 횡재를 손에 넣게 해 준 은혜만으로도 그간의 고생을 차고 넘치게 보상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슬픈 형상의 기사는 가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몹시 알고 싶어졌다. 그는 소네트와 편지, 금화, 그리고 아주 질 좋은 셔츠들을 보고는, 아마도 어떤 지체 높은 연인이 주인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 연인은 여인에게 냉대를 받고 모진 대우를 당한 나머지, 절망적인 지경에 이른 사람일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험한 산길이라 정보를 얻을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더 알아보려 애쓰는 대신 그저 길을 재촉했다. 로시난테가 가고자 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도 없었기에 그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나아갔다. 그러면서도 저 잡풀 사이에서 어떤 기이한 모험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 채로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아가던 중, 돈키호테는 눈앞에 나타난 작은 언덕 너머로 한 남자가 기이할 정도로 날렵하게 바위와 덤불 사이를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남자가 벌거숭이 상태라고 생각했다. 검고 덥수룩한 수염에 머리카락은 길고 풍성했으며, 맨발에 다리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듯 보였다. 허벅지에는 사자색 벨벳으로 만든 듯한 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여기저기 살결이 다 드러나 있었다.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말했듯 남자가 워낙 빠르게 지나갔지만, 슬픈 형상의 기사는 그 사소한 모습들

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았다. 돈키호테는 남자를 뒤쫓으려 애썼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로시난테가 워낙 발걸음이 짧고 느릿한 성격인 데다, 그 험한 길을 다니기에는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즉시 저 남자가 바로 쿠션과 가방의 주인일 것이라 짐작했다. 그리고 설령 그를 찾기 위해 이 산맥을 일 년 동안 헤매야 한다 해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산초에게 당나귀에서 내려 산의 한쪽 길로 질러가라고 명령했다. 자신은 산의 반대편으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면 방금 전 그토록 급히 사라져 버린 남자를 마주칠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 곁을 떠나면 곧바로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환영이 저를 덮쳐올 겁니다. 그러니 제 말을 미리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앞으로는 손가락 하나라도 주인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슬픈 형상의 기사가 말했다. "네가 내 용기를 빌리려 한다니 참으로 기쁘구나. 설령 네 육신의 생명이 다한다 해도, 내 용기만큼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내 뒤를 따라 천천히, 혹은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따라오너라. 눈을 등불처럼 밝게 뜨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말이다. 이 작은 산맥을 돌아가 보자꾸나. 그러면 우리가 본 그 남자를 마주칠지도 모른다. 그자가 우리가 찾아낸 물건의 주인임이 틀림없으니 말이다."

산초가 대답했다.

"찾지 않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만약 그자를 찾았는데 그가 정말 돈 주인이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쓸데없는 수고를 하느니, 차라리 주인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을 때까지 제가 정직하게 가지고 있는 게 낫겠습니다. 덜 번거롭고 덜 까다로운 방법으로 진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말입니다. 어쩌면 그사이에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을 테니, 그러면 왕께서도 저를 너그럽게 봐주시겠지요."

"산초야, 그건 네 착각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그자가 주인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으니, 눈앞에 두고도 찾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반드시 그를 찾아 물건을 돌려주어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가 주인일지도 모른다는 이 강렬한 의심만으로도 이미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내 친구 산초야, 그자를 찾는 일을 너무 귀찮아하지 마라. 그를 찾아내면 내 마음의 짐도 덜어질 테니까."

그렇게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의 옆구리를 차며 길을 재촉했고, 산초도 평소처럼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랐다. 산맥의 일부를 돌아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한 시냇가에서 안장과 굴레까지 갖춘 노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노새는 이미 죽어 있었고, 개들이 뜯어먹고 까마귀들이 쪼아댄 탓에 형편없이 망가진 상태였다. 이 광경을 본 두 사람은 도망치던 자가 바로 그 노새와 쿠션의 주인일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가축을 치는 목동의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러다 난데없이 그들의 왼쪽에서 염소 떼가 꽤 많이 나타났고, 산맥 너머로는 그 염소들을 몰고 오는 노인 목동의 모습도

보였다. 돈키호테가 목동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며 자신들이 있는 곳까지 내려와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목동은 누가 이들을 이런 곳으로 데려왔느냐며 소리를 질러 대답했다. 이곳은 염소나 늑대, 혹은 이 근처를 떠도는 다른 맹수들의 발길 외에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산초가 내려오시면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목동은 내려와 돈키호테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했다.

"저 골짜기에 죽어 있는 저 임대용 노새를 보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장담컨대 저 노새는 벌써 여섯 달 전부터 저곳에 방치되어 있었지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 근처에서 노새 주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다만 이 근처에서 쿠션 하나와 가방 하나를 발견했을 뿐이지요."

"저도 그걸 발견했습니다." 염소 치는 사람이 대답했다. "하지만 감히 손을 대거나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사고라도 터지거나, 제가 훔쳤다고 몰릴까 봐 겁이 났거든요. 악마란 참으로 교활한 법이라, 사람이 어떻게 발을 헛디뎌 넘어질지 모르게 발밑에 교묘히 함정을 파놓는 법이니까요."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저도 그걸 발견했지만, 돌 던지면 닿을 거리만큼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둔 채로 그대로 두었지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이보시오, 선량한 분이여." 돈키호테가 말했다. "혹시 이 물건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정도뿐입니다." 염소치기가 말했다. "대략 반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세 리그쯤 떨어진 곳에 있는 양치기들의 임시 거처에, 아주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 하나가 찾아왔지요. 바로 저기 죽어 있는 저 노새를 타고 온 청년이었는데, 당신들이 발견하고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바로 그 방석과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 산맥에서 어디가 가장 험하고 숨겨진 곳인지 묻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라고 알려주었지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반 리그만 더 들어가면 길을 잃어 나오지도 못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곳까지 어떻게 왔는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근처에는 이리로 이끄는 길도, 오솔길도 없거든요. 아무튼 그 청년은 우리 대답을 듣더니 고삐를 돌려 우리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습니다. 청년의 훤칠한 풍채에 우리 모두 기분이 좋았고, 그가 묻는 태도나 산맥을 향해 서둘러 떠나는 모습에 다들 감탄했지요. 그 후로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우리 양치기 중 한 명이 길로 나왔을 때 그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다가가 양치기를 마구 때리고 발로 차더니, 곧장 무리의 암나귀로 달려가 그 위에 실려 있던 빵과 치즈를 몽땅 뺏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놀라운 속도로 다시 산맥 속으로 몸을 숨겨버렸지요. 이 사실을 안 몇몇 염소치기들이 이틀 동안이나 산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뒤진 끝에, 마침내 크고 튼튼한 코르크나무 구멍 속에 숨어 있는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옷은 다 해지고 얼굴은 햇볕에 타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 된 채, 아주 순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옷이 워낙 너덜너덜해서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옷차림이라 그가 우리가 찾던 사람임을 알 수 있었지요. 그는 우리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이런 몰골로 떠돌아다니는지 묻지 말라고, 자신의 수많은 죄 때문에 내려진 어떤 고행을 수행 중이라며 아주 조리 있고 품격 있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 묻기도 했지만, 끝내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견디기 힘들 때면 어디로 가면 될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 음식을 가져다주겠다고 말이지요. 만약 그것조차 싫다면, 적어도 양치기들의 것을 뺏지 말고 제발 좀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제안에 고마워하며 지난날의 행패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구걸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지요. 머무를 곳에 대해서는, 밤을 지낼 때 마주치는 곳이 곧 자신의 거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마치며 너무나 애처롭게 울어대서, 우리가 그를 가엽게 여기지 않았다면 돌덩이처럼 무감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보았던 그 훤칠하고 기품 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더욱 그랬지요. 앞서 말했듯이 그는 아주 잘생기고 품위 있는 청년이었고, 정중하고 조리 있는 말투를 보니 분명 귀한 집 자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있던 우리가 비록 시골뜨기들이었지만, 그의 품격은 그 투박한 우리조차 단번에 알아챌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말을 멈추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고, 우리도 그가 왜 저토록 넋을 잃었는지 궁금해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한참 동안 눈꺼풀 하나 까딱하

지 않은 채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입술을 꽉 깨물고 눈썹을 치켜세우며 눈을 감는 것을 보니, 그에게 광기가 찾아왔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곧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가 갑자기 맹렬한 기세로 일어나 곁에 있던 사람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지, 우리가 말리지 않았다면 그를 때려죽이거나 물어뜯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 배신자 페르난도 같으니라고! 네가 나에게 저지른 부당한 짓을 여기서 갚아주마! 이 손으로 네 심장을 뽑아버리겠다! 그 심장 속에는 온갖 악함, 특히 사기와 기만이 가득 차 있구나!' 그는 페르난도라는 자를 배신자라 부르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간신히 그를 말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 덤불과 잡풀 사이로 달려가 몸을 숨겼기에, 도저히 뒤를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광기가 발작처럼 이따금 찾아오는 것이며, 페르난도라는 자가 그에게 어떤 몹쓸 짓을 저지른 탓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광기의 정도를 보면 그럴 법도 했지요. 그 뒤로도 그는 자주 길로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양치기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빌고, 어떤 때는 힘으로 뺏어가기도 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혔을 때는 양치기들이 기꺼이 음식을 내주어도 받지 않고 뺏어가지만, 제정신일 때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탁하며 눈물까지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정말이지 여러분," 염소치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저와 네 명의 젊은이, 그러니까 하인 둘과 제 친구 둘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뒤져서, 찾게 되면 강제로든 자발적으로든 이곳에서 여덟 리그 떨어진 알모도바르 마을로 데려가기로

말입니다. 거기서 그 병이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치료하고, 그가 제정신일 때 누구인지 알아내어 불행을 알릴 친척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신 것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들이 발견한 물건의 주인은 방금 전 쏜살같이, 그리고 헐벗은 몰골로 지나간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돈키호테는 그 남자가 산맥을 뛰어넘듯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미 말한 참이었다.

돈키호테는 염치꾼에게 들은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불행한 광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지요. 그는 이미 마음먹은 대로, 산맥의 구석구석과 동굴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가 결심을 굳히자마자, 바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뻗어 나온 산맥의 험한 골짜기 사이로 그토록 찾던 청년이 나타난 것입니다. 청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오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들어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라 멀리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청년의 차림새는 앞서 들은 설명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돈키호테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가 걸치고 있는 너덜너덜한 조끼가 호박색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돈키호테는 저토록 귀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결코 비천한 신분일 리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청년이 그들에게 다가와서는,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졌지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돈키호테 역시 그에 못지않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로시난테에서 내려 품위 있고도 멋스러운 자태로 청년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양, 한동안 청년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돈

키호테를 '슬픈 자'라 부르는 것처럼, 이 청년은 '망가진 몰골의 사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청년은 돈키호테의 포옹을 받아준 뒤 그를 조금 떼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돈키호테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혹시 자신을 알아보는지 확인하려는 듯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돈키호테가 청년의 모습을 살피는 만큼, 청년 또한 돈키호테의 풍채와 체격, 그리고 무장을 보고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결국 포옹을 마친 뒤 먼저 입을 연 쪽은 '망가진 몰골의 사내'였으며,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장



제24장. 시에라 모레나에서 이어지는 모험 이야기

이야기에 따르면, 돈키호테는 불행한 운명을 짊어진 산맥의 기사가 하는 말을 아주 집중해서 들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산맥의 기사가 말했다.

"그나저나, 당신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과 예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당신이 보여주신 그 따뜻한 환대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제 운명이 허락하는 것이라곤, 베풀어 주신 선의에 보답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뿐이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봉사뿐입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봉사가 얼마나 지극한지, 저는 당신을 찾아내어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그 슬픔에 어떤 해결책이라도 있을지 알아내기 전에는 이 산맥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정도입니다. 만약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찾아내겠습니다. 설령 당신의 불행이 그 어떤 위로도 소용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 곁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울어드리며 슬픔을 나누겠습니다. 불행을 겪을 때 누군가 함께 슬퍼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법이니까요.

만약 저의 이 선한 의도가 어떤 예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맺힌 그 깊은 고통을 보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거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걸고 맹세코 청하건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황량한 곳에서 짐승처럼 살다 죽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옷차림과 모습만 보아도,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이 외딴곳에 머물고 계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죄인이고 자격이 부족할지라도, 제가 받은 기사 작위와 방랑 기사로서의 서약을 걸고 맹세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청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제 신분에 걸맞은 진심을 다해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당신의 불행에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약속드린 대로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돕겠습니다." 돈키호테가 덧붙였다.

'숲의 기사'는 '슬픈 형상의 기사'가 하는 말을 듣고는, 그저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돈키호테를 유심히 살피고,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기를 반복했다. 한참 동안 그를 지켜보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어 말했다.

"만약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다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음식을 좀 먹고 나면, 저에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호의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산초는 자신의 자루에서, 염소치기도 자신의 가방에서 먹을 것을 꺼내 왔다. 덕분에 '부서진 자'는 허기를 채울 수 있었다.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주어진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한 입을 채 삼키기도 전에 다음 음식을 밀어 넣을 정도로 급하게 먹어 대는 바람에, 씹어 삼키기보다는 거의 집어삼키는 수준이었다. 그가 먹는 동안에는 그 자신은 물론이고 지켜보는 이들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그가 자신을 따라오라는 몸짓을 하자 사람들은 그를 따라갔다. 그는 근처 바위 언덕을 조금만 돌면 나오는 푸른 초원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초원에 도착하자 그는 풀밭 위에 몸을 뉘었고, 다른 이들도 똑같이 따라 누웠다. '부서진 자'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입을 열기 전까지, 그들 중 누구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겪은 이 거대한 불행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떤 질문도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일로도 제 슬픈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야기를 끊으신다면, 그 즉시 하던 이야기를 멈춰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부서진 자'가 이렇게 말하자, 돈키호테는 종자 산초가 강을 건너간 염소의 수를 제대로 맞히지 못해 이야기를 끝맺지 못했던 일이 떠올랐다. 하지만 다시 '부서진 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제가 미리 당부드리는 이유는, 제 불행에 관한 이야기를 최대한 짧게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을 떠올리다 보면 자꾸만 새로운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나거든요. 여러분께서 질문을 아껴주실수록 저는 더 빨리 이야기를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전히 풀어드리지 못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빼놓고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가 말했다.

돈키호테는 다른 이들을 대표하여 그렇게 약속했다. 그 확답을 얻은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이름은 카르데니오입니다. 고향은 이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좋은 도시 중 하나이고, 가문은 귀족이며, 부모님은 부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불행은 너무나 커서, 부모님과 가문이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며 울었을 정도입니다. 부모님의 재력으로도 그 불행을 달래줄 수는 없었지요. 하늘이 내린 불행을 고치기에는 세상의 재물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이 땅에는 제가 꿈꿀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품은 천사 같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루신다입니다. 그녀는 저만큼이나 고귀하고 부유한 처녀였지만, 저보다 운은 좋았어도 마음은 훨씬 약했습니다. 제 고결한 마음이 바랐던 것과는 달리 말이지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루신다를 사랑하고 아끼며 숭배했습니다. 그녀 역시 어린 나이에 걸맞은 순수함과 선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지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달가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면 결국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문과 재산이 비슷했으니 거의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도 깊어졌고, 그 무렵 루신다의 아버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를 집안에 들이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인들이 노래하는 그 유명한 티스베의 부모처럼 말입니다. 이 거절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갈망에 갈망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펜 끝까지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펜은 입보다 훨씬 자유로워서, 마음속에 갇

힌 진심을 전하고 싶은 이에게 전해주곤 합니다. 사랑하는 이 앞에 서면 아무리 결연한 의지와 대담한 혀를 가진 사람이라도 당황하여 말을 잃기 마련이니까요.

아, 하늘이시여! 제가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썼던가요! 그리고 그녀로부터 얼마나 다정하고 정중한 답장을 받았던가요! 영혼의 감정을 고백하고 뜨거운 갈망을 그려내며, 추억을 달래고 의지를 다졌던 수많은 노래와 연가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말했다.

"실제로 저는 그녀를 보고 싶은 갈망에 영혼이 타들어 가는 듯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땅히 얻어야 할 보상을 얻기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지요. 바로 그녀의 아버지께 루신다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청하자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저의 가문을 예우하려는 그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며, 저 또한 그분의 가문과 결합하여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뜻은 잘 알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한, 그런 청을 하는 것은 마땅히 아버님의 권한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루신다는 몰래 빼앗아 데려오거나 함부로 취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기에, 그 정중한 태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만 드리면 아버지께서도 당연히 그렇

게 하실 거라 믿었지요. 그래서 그 즉시 아버지께 제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손에 편지 한 통을 펼쳐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편지를 제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데니오야, 이 편지를 읽어보렴. 리카르도 공작께서 너에게 베풀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단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리카르도 공작은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좋은 땅에 영지를 가진 스페인의 대귀족입니다.

저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어찌나 간곡하던지, 아버지가 편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를 공작이 계신 곳으로 즉시 보내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공작은 저를 자신의 장남과 종이 아닌 동료로 삼고 싶어 하셨고, 저를 높게 평가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덧붙여 하신 말씀에 더욱 말문이 막혔지요. '카르데니오야, 이틀 뒤에 너는 공작의 뜻을 받들어 떠나게 될 거다.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려라.' 아버지는 조언하는 아버지로서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 덧붙이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마침내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루신다를 만나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루신다의 아버지께도 똑같이 말씀드리며, 리카르도 공작이 제게 무엇을 베풀려 하는지 알게 될 때까지

며칠만 기다려 주시고 루신다를 다른 곳에 혼인시키는 일을 미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루신다는 수많은 맹세와 거듭되는 실신으로 제 뜻을 굳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리카르도 공작이 계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우 환대받으며 대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기심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공작이 제게 베푸는 호의가 자신들의 몫을 뺏는 것이라 여긴 기존 하인들이 저를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 행차를 가장 기뻐한 사람은 공작의 차남인 페르난도였습니다. 그는 늠름하고 기품 있으며, 관대하고 정열적인 청년이었지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우리 사이는 모두가 입에 올릴 정도로 각별했습니다. 공작의 장남 또한 저를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지만, 돈 페르난도가 저를 아끼고 대접해 준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기에, 돈 페르난도와 저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각별한 사이였고, 그는 제게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특히 그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던 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지요.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영지에 속한 한 농가 처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매우 부유했지요. 그 처녀는 어찌나 아름답고 조신하며, 영리하고 품행이 단정했는지,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여러 장점 중 무엇이 가장 뛰어난지 가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처녀의 매력에 마음을 빼앗긴 돈 페르난도는 그녀의 마음을 얻고 정식으로 결합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제가 아는 가장 타당한 이유와 절실한 사례들을 들어 그를 만류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결국 그의 아버지인 리카르도 공작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영리하고 눈치 빠른 돈 페르난도는 이를 눈치채고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진정한 친구가 되기는커녕, 주군인 공작의 명예를 해칠 수도 있는 일을 숨기지 않고 고해바치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를 골탕 먹이고 속이려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잊기 위해서는 몇 달간 떠나 있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으니, 우리 둘이 함께 제 아버지 댁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제 고향은 세계 최고의 명마들이 나는 곳으로 유명하니, 공작께서도 아주 좋은 말들을 구경하고 거래하러 오시는 길에 들르시면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구실을 대면서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의 결정이 그리 옳지는 않았지만, 루신다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이토록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니 이보다 더 탁월한 방도가 어디 있겠느냐며 그 제안을 찬성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과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의 의견에 동조하며, 가능한 한 빨리 실행에 옮기라고 그를 부추겼습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한다 한들, 떨어져 지내다 보면 마음이 변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가 제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는 이미 그 농가 처녀와 남편이라는 명목하에 정을 통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단지 공작인 아버지가 자신의 망나니 같은 짓을 알게 되었을 때 보일 반응이 두려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사실을 밝힐 수 있을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이란 대개 사랑이라기보다 욕정에 가까운 법이지요. 욕정은 쾌락을 최종 목적으로 삼기에, 일단 그 쾌락을 맛보고 나면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사랑처럼 보였던 것도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자연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돈 페르난도가 그 처녀와 정을 통하고 나자 욕망은 가라앉았고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욕망을 다스리려고 떠나겠다고 핑계를 댔지만, 이제는 아예 그 일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려고 정말로 떠날 궁리만 하게 된 것입니다. 공작께서는 아들에게 허락을 내리셨고, 제게 그를 수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제 고향으로 왔고, 제 아버지는 그를 귀한 손님처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루신다를 다시 만났습니다. 루신다를 향한 제 갈망은 죽지도 사그라지지도 않았던 터라 곧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행하게도 이 마음을 돈 페르난도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 깊은 우정을 생각하면 친구로서 아무것도 숨겨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루신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재치 있고, 영리한지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제 칭찬을 들은 그는 그토록 훌륭한 자질을 갖춘 처녀를 직접 보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평소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그 창문을 통해 촛불 하나에 의지해 그녀를 보여준 것이지요.

그는 간소한 평상복 차림의 그녀를 보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그때까지 그가 보아온 모든 미인을 단숨에 잊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말을 잃고 정신을 놓은 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뒤이어 들려드릴 제 불행한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될 만큼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감추고 오직 하늘에만 홀로 털어놓던 그의 욕망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려는 듯, 운명의 장난으로 그는 어느 날 루신다가 쓴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에서 루신다는 제게 자기 아버지께 자신을 아내로 청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신중하고 정숙하며 사랑이 넘쳤는지, 그것을 읽고 난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여인에게 나뉘어 있는 아름다움과 총명함의 온갖 미덕이 오직 루신다 한 사람에게 모두 모여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사실 지금 고백하자면, 돈 페르난도가 루신다를 칭찬하는 이유가 얼마나 타당한지 저 또한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입에서 그 찬사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를 두려워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도 루신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듯했고, 설령 억지로 화제를 끌어다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루신다 쪽으로 몰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신다의 선함이나 신의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불운한 처지가, 그녀가 제게 굳게 다짐해 주던 바로 그 일을 도리어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돈 페르난도는 우리 두 사람의 글솜씨를 무척 좋아한다는 구실로, 제가 루신다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녀가 제게 보내는 답장을 늘 읽어보려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기사도 소설을 무척 좋아하던 루신다가 제게 읽을 만한 책을 한 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가울의 아마디스』였습니다."

돈키호테는 기사도 소설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참지 못하고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 이야기의 서두에 루신다 여인이 기사도 소설을 좋아한다는 말만 해주셨어도, 그녀가 얼마나 총명한지를 깨닫는 데 더 이상의 과장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토록 맛깔스러운 이야기를 즐기는 취향조차 없었다면,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토록 훌륭한 여인이 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용맹함, 지혜를 더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녀의 취향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리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루신다 여인께 『가울의 아마디스』를 보내실 때, 그리스의 선한 돈 루헬도 함께 보내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루신다 여인이 다라이다와 게라야를 무척 좋아하고, 목자 다리넬의 재치 있는 이야기와 그가 아주 품위 있고 영리하며 능숙하게 부르고 연기했던 목가들의 그 놀라운 시구들을 즐긴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실수를 바로잡을 날이 오겠지요. 당신께서 제 마을로 오시겠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 일은 금방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 오시면 제 영혼의 선물이며 제 삶의 낙인 책 삼백 권 넘게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사악하고 질투심 많은 마법사들의 농간 때문에 이제는 남은 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아, 이야기를 끊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점은 부디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기사도 이야기나 떠돌이 기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제가 말을 멈춘다면, 그것은 태양 빛이 열기를 멈추거나 달빛이 습기를 머금지 않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서하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그 뒷이야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돈키호테가 앞서 말한 내용을 이어가는 동안, 카르데니오는 깊은 상념에 잠긴 듯 고개를 가슴팍으로 떨구고 있었습니다. 돈키호테가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두 번이나 권했음에도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 생각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을 것이며, 다른 생각을 심어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만약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겠지요). 그 악질 같은 엘리사바트 스승이 마데시마 여왕과 눈이 맞아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맙소사!" 돈키호테가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그러고는 평소 버릇대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건 아주 고약한 악의이자, 아니, 차라리 비열한 짓이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마데시마 여왕은 매우 고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고귀한 공주가 돌팔이 외과의 따위와 눈이 맞아 살림을 차렸다는 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점을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걸어서든 말을 타고 가든, 무기를 들었든 아니든, 밤이든 낮이든, 아니면 그가 원하는 방식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카르데니오는 돈키호테를 아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광기가 찾아온 상태였던 그는 이야기를 계속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돈키호테 역시 마다시마 여왕에 대해 들은 내용이 못마땅했기에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돈키호테는 마치 마다시마 여왕이 정말로 자신의 진짜 주군이라도 되는 양 그녀를 옹호하고 나섰으니, 이는 그가 읽은 허황된 책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탓이었습니다! 이미 미쳐 있던 카르데니오는 거짓말쟁이니 악당이니 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듣자 그 조롱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더니, 돈키호테의 가슴을 향

해 힘껏 내리쳤고, 그 충격에 돈키호테는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본 산초 판사는 주먹을 꽉 쥐고 미친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더기 사내' 카르데니오는 산초를 맞받아 단 한 방의 주먹질로 그를 자기 발치에 쓰러뜨리고는, 그 위에 올라타 아주 신이 난 듯 그의 갈비뼈를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를 지키려던 염소치기도 똑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카르데니오는 그들을 모두 때려눕혀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놓고는, 아주 차분하고 태연하게 산속으로 모습을 감추러 떠나버렸습니다.

산초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두들겨 맞았다는 생각에 울화가 치민 그는 염소치기에게 복수를 하려 달려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미친놈이 언제 광기가 도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건 다 당신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조심했을 것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염소치기는 이미 말했었는데 듣지 않은 건 당신 잘못이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산초 판사가 다시 대꾸하자 염소치기도 맞받아쳤습니다. 서로 말싸움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결국 수염을 움켜쥐고 주먹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돈키호테가 말리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형체도 없이 박살 날 기세였습니다. 산초는 염소치기의 수염을 붙잡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고도 비참한 형상의 기사님,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 사람도 저처럼 비천한 신분에 기사 작위도 없는 평범한 놈이니, 저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저와 정정당당하게 맞붙어 싸워주게 함으로써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응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네."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네."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달랬습니다. 그러고는 카르데니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그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염소치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염소치기는 처음에 했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머무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이 근처를 계속 돌아다닌다면 제정신이든 미친 상태든 반드시 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25장



제25장. 라만차의 용맹한 기사가 시에라 모레나에서 겪은 기이한 일들과, 벨테네브로스의 고행을 흉내 낸 이야기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염소치기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로시난테의 등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산초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했다. 산초는 제

나귀를 끌고 아주 마지못해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산맥의 가장 험한 곳을 향해 조금씩 나아갔다. 산초는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가 명령을 어기게 될까 봐, 차라리 주인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도저히 침묵을 견딜 수 없었던 산초가 결국 입을 열었다.

"나리, 제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고 허락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들과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나누며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리께서는 저더러 밤낮으로 이런 황량한 곳을 따라다니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있으라 하시니, 이건 저를 산 채로 묻어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기소페테 시절처럼 짐승들이 말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제 나귀와라도 마음껏 수다를 떨며 이 불운을 달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평생 모험을 찾아다녀 봤자 돌아오는 건 발길질과 담요 헹가래질, 벽돌 세례와 주먹질뿐이니, 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말 못 하는 사람이라도 된 양, 가슴속에 품은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만 하니 말입니다."

"이제 네 마음을 알겠다,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 너에게 내린 금지령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로구나. 좋다, 그 금지령을 풀어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보아라. 다만, 우리가 이 산맥을 지나는 동안만 허락하겠다는 조건이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지금은 제가 말을 하겠지만, 나중 일이야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우선 이 통행 허가증을 얻었으니 말씀드립니다만, 그 마기마사인가 뭔가 하는 여왕을 위해 나리께서 왜 그렇게까지 두둔하고 나서신 겁니까? 그 수도원장이 그 여왕의 정부였든 아니든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나리께서는 그 여왕을 심판할 처지도 아니니, 그냥 그 말을 못 들은 척 넘기셨더라면 그 미친 사람도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 갔을 테고, 돌팔매질도, 발길질도, 게다가 여섯 대가 넘는 따귀질도 다들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산초야, 정말이지 네가 내가 아는 만큼만 알았어도 내 말이 옳다는 걸 알았을 게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마다시마 여왕이 얼마나 명예롭고 고귀한 분인지 네가 알았다면, 그런 모독적인 말을 내뱉은 그 입을 내가 박살 내지 않은 것만 봐도 내 참을성이 대단했다고 너도 말했을 게다. 여왕이 외과의사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말은 입에 담아서도, 생각해서도 안 될 아주 큰 모독이니까 말이다. 이야기의 진실은 이렇다. 그 미친 사람이 말한 엘리사바트 스승은 아주 신중하고 현명한 조언을 해 주는 사람으로, 여왕의 후견인이자 의사 노릇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여왕이 그와 정을 통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큰 벌을 받아 마땅한 헛소리다. 그리고 카르데니오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던 건, 그가 그 말을 할 당시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하거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미친 사람의 말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단 말입니다. 만약 운이 따라 주지 않아 그 돌멩이가 가슴이 아니라 나리의 머리를 맞혔더라면, 그놈의 여왕님인지 뭔지를

두둔한 대가가 참으로 뼈아팠을 겁니다. 게다가 카르데니오 그자는 미쳤다는 핑계로 아무 벌도 받지 않고 빠져나갔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제아무리 제정신인 사람이든 미친 사람이든, 모든 편력기사는 여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나서야 하는 법이다. 그 여인이 누구든 상관없지. 하물며 마다시마 여왕처럼 고귀하고 품격 있는 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나는 그분의 여러 훌륭한 자질에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기도 하단다. 그분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신중하고 인내심이 강한 분이셨지. 엘리사바트 스승의 조언과 보살핌은 그분이 고난을 신중하고 끈기 있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단다. 무지하고 악의적인 대중은 바로 이 점을 빌미 삼아 여왕이 그와 정을 통했다고 떠들고 생각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거나 입 밖으로 내뱉는 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이며, 앞으로도 이백 번은 더 거짓을 말할 게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전 그런 말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감당하라지 뭡니까. 그들이 정을 통했든 아니든, 하나님께 그 셈을 치르게 되겠지요. 전 제 포도밭에서 온 사람이라 그런 건 하나도 모릅니다. 남의 사생활 따위엔 관심 없거든요. 사고팔며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제 지갑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전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벌거숭이로 살고 있습니다.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지요. 설령 그들이 정을 통했다 한들,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떠들기도 하는 법이지만, 누가 들판에 문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곤 하더군요."

"맙소사."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야, 너는 어찌 그리 어리석은 소리를 줄줄이 늘어놓느냐!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와 네가 늘어놓는 속담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산초야, 제발 입 좀 다물거라. 앞으로는 네 당나귀 채찍질이나 신경 쓰고, 네가 상관없는 일에는 입도 뻥긋하지 마라. 그리고 명심해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할 모든 일은 지극히 이치에 맞으며 기사도의 규율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기사도를 맹세한 그 누구보다도 그 규율을 더 잘 알고 있단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길도 없고 제대로 된 통로도 없는 이 험한 산맥을 헤매며 길을 잃는 게 정말 기사도의 규율에 맞는 일입니까? 그 미친놈을 찾아다니는 게 말입니다. 설령 그놈을 찾아낸다 한들, 그놈이 자기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어 할까요? 그놈이 지어낸 이야기 말고요, 주인님과 저의 뼈마디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려고 작정한 일 말입니다."

"입 다물라고 다시 말하지 않았느냐,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이 근방까지 온 건 그 미친놈을 찾으려는 마음 때문만이 아니다. 이곳에서 대단한 업적을 세워, 세상 천지에 내 이름과 명성을 영원히 떨치려는 목적도 있다. 그 업적은 너무나 위대해서, 방랑 기사가 완벽하고 명예로워지기 위해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마침표 찍듯 완성해 줄 것이다."

"그 업적이라는 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까?" 산초 판사가 물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슬픈 형상의 기사가 대답했다. "물론 주사위가 어떻게 구르느냐에 따라, 좋은 끗수 대신 나쁜 끗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하다만. 하지만 모든 것은 네 정성에 달려 있다."

"제 정성에 달렸다고요?" 산초가 말했다.

"그렇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너를 보낼 곳에서 네가 빨리 돌아올수록, 나의 고난은 빨리 끝나고 나의 영광은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말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기다리느라 너를 더 이상 애태우게 하는 건 좋지 않으니, 산초야, 너도 알아두거라. 그 유명한 아마다스 데 가울라는 가장 완벽한 편력기사 중 한 명이었다. 내가 '한 명이었다'라고 말한 건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그는 그 자체로 유일한 자였고, 최초였으며, 둘도 없는 존재였고, 당대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기사의 주인이었다. 그와 조금이라도 비견될 수 있다고 말하는 돈 벨리아니스나 다른 이들에게는 참으로 재수 없는 해와 달이 될 것이다. 내가 맹세컨대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한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로 이름을 떨치고 싶어 할 때, 자신이 아는 가장 독보적인 화가들의 원작을 모방하려 애쓰는 법이다. 이 규칙은 국가를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기술이나 전문적인 직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혜롭고 인내심 강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려는 이들도 이와 같이 행동한다. 호메로스가 그의 인물과 업적을 통해 지혜와 인내의 생생한 초상으로 그려낸 울리세를 모방하는 것이 바로 그 예다.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효심 깊은 아들의 용기와 용맹하고 영리한 지휘관의 기지를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인물들

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밝혀낸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 덕목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모습으로 그려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마다스는 용맹하고 사랑에 빠진 기사들에게 북극성이자 새벽별이며 태양이었다. 사랑과 기사도의 깃발 아래서 싸우는 우리 모두는 그를 본받아야 한다.

그러니 친구 산초야, 상황이 이러하니 그를 가장 많이 닮으려 노력하는 편력기사야말로 기사도의 완벽함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마다스가 자신의 지혜와 용기, 용맹함, 인내, 결단력, 그리고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일 중 하나는, 오리아나 여인에게 거절당한 뒤 페냐 포브레로 물러나 고행을 시작했을 때였다. 그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벨테네브로스로 바꾸었는데, 참으로 그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에 걸맞고 의미심장한 이름이었다. 그러니 나에게는 거인을 베거나, 뱀의 머리를 자르거나, 괴물을 죽이거나, 군대를 격파하고 함대를 무너뜨리거나, 마법을 푸는 일보다, 바로 이 점을 본받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장소는 그런 일들을 하기에 아주 적당하니, 운명이 내게 이토록 편안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정말로 그렇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런데 나으리, 이토록 외딴 곳에서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아마다스를 본받으려는 것이다. 여기서 절망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며, 광기 어린 모습을 보임으로써, 용맹한 돈 롤란을 동시에 본받으려 하는 것이

지. 롤란은 아름다운 앙헬리카가 메도로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흔적을 샘가에서 발견하고는, 그 슬픔에 미쳐버려 나무를 뽑아버리고 맑은 샘물을 흐리고, 목자들을 죽이고, 가축을 도살하고, 오두막을 태우고, 집을 허물고, 암말들을 끌고 가는 등 영원히 기록될 만한 수만 가지 무례한 짓을 저질렀다. 내가 롤란, 혹은 올란도, 혹은 로톨란도(이 세 이름은 모두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가 저질렀거나 말했거나 생각했던 그 모든 광기를 하나하나 다 따라 하겠다는 건 아니다. 대신 그가 했던 일들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흉내 낼 작정이다. 어쩌면 해를 끼치는 광기가 아니라, 슬퍼하고 고뇌하는 방식의 광기만을 본받아 아마다스처럼 그 누구 못지않은 명성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지."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렇게 행동했던 기사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런 어리석은 짓과 고행을 할 만한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으리는 대체 무엇 때문에 미쳐버리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여인이 나으리를 거절했습니까? 아니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인이 무어인이나 그리스도인과 무슨 철없는 짓이라도 저질렀다는 증거라도 찾으신 겁니까?"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내 일의 묘미지. 편력기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미쳐버리는 것은 아무런 묘미도 없고 고마워할 일도 못 되네. 핵심은 아무런 계기도 없이 미쳐 날뛰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멀쩡한 상태에서도 이러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닥친다면 얼마나 더하겠느냐는 것을 내 귀한 여인께 보여드리는 데 있다네. 더구나 나의 영원한 여인이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곁을 내가 오래도록 떠나 있었으니, 그럴 만한 이유야 차고도 넘친다네. 아까 그 목자 암브로시오가 하는 말을 자네도 들었지 않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온갖 불행을 겪고 또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말이야. 그러니 여보게 산초, 이토록 드물고 행복하며 아무도 시도한 적 없는 모방을 그만두라고 나를 충고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나. 나는 미친 사람이고, 자네가 내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인께 보낼 편지의 답장을 가져올 때까지 계속 미쳐 있어야 하네. 만약 그 답장이 내 변함없는 마음에 마땅히 보답하는 것이라면, 나의 어리석음과 고행도 끝이 나겠지. 하지만 그 반대라면, 나는 진짜로 미친놈이 될 것이고, 진짜 미치광이가 되고 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테니 말일세. 그러니 답장이 어떻게 오든 간에, 자네가 가져다주는 소식이 좋다면 나는 제정신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며 자네가 남기고 간 혼란과 고생에서 벗어날 것이고, 소식이 나쁘다면 미친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벗어나게 될 것이네. 그건 그렇고 산초, 맘브리노의 투구를 잘 간수하고 있느냐? 아까 그 배은망덕한 놈이 투구를 박살 내려 할 때 자네가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네. 하지만 그놈은 투구를 깨뜨리지 못했지. 그 투구가 얼마나 단단한지 제대로 보여준 셈이지."

이에 산초가 대답했다.

"하나님께 맹세코, 슬픈 모습의 기사님, 주인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인님께서 기사도니, 왕국과 제국을 차지하느니, 섬을 하사하느니, 혹은 기사들이 흔히 하는 온갖 은혜와 영광을 누리느니 하며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자니, 그 모든 게 다 바람 같은 거짓말이고 허풍 아니면 사기극이라

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무튼 다 거짓말입니다. 이발사의 대야가 맘브리노의 투구라는 말을 듣고서, 나흘이 넘도록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말을 내뱉고 단언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야는 지금 제 자루 안에 찌그러진 채 들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셔서 언젠가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집으로 가져가서 깨끗이 닦아놓고 면도할 때 쓸 작정입니다."

"잘 듣게, 산초. 조금 전 자네가 내게 맹세했던 바로 그 근거를 들어 나도 자네에게 맹세하건대,"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네는 지금 세상에 있는, 또 지금껏 있었던 그 어떤 종자보다도 머리가 나쁘군. 나와 함께 길을 떠난 지가 언젠데, 기사들이 하는 일들이 왜 다 환상 같고 어리석으며 말도 안 되는 짓인지, 그리고 왜 모든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그건 원래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마법사 떼가 몰려다니기 때문이라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도와주거나 혹은 망가뜨리려는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을 바꾸고 뒤바꿔 놓지. 그래서 자네 눈에는 이발사의 대야로 보이는 것이 내 눈에는 맘브리노의 투구로 보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무언가로 보이게 되는 걸세. 사실, 진짜 맘브리노의 투구인 것을 모두에게 대야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나를 돕고자 하는 현자의 기묘한 섭리였다네. 그 투구가 워낙 귀한 물건이라,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닐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이발사의 대야일 뿐이니, 아무도 그것을 탐내지 않는 법이지. 아까 그 사람이 투구를 깨뜨리려다 포기하고 바닥

에 내팽개치고 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내 생각엔, 만약 그 사람이 투구의 진면목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을 걸세. 그러니 친구여, 그 물건을 잘 간수하게나.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만약 내가 아마다스보다 롤란의 고난을 따르기로 마음먹는다면, 차라리 이 모든 무기를 벗어 던지고 내가 태어났을 때처럼 벌거숭이가 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마치 깎아지른 절벽처럼 주변의 수많은 산봉우리 사이에서 홀로 우뚝 솟은 높은 산기슭에 다다랐다. 산기슭을 따라 작은 시냇물이 잔잔하게 흘렀고, 산을 둘러싼 주변은 온통 푸르고 싱그러운 풀밭이 펼쳐져 있어 바라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했다. 그곳에는 야생 나무와 여러 식물, 꽃들이 어우러져 있어 분위기가 아주 평온했다. 슬픈 모습의 기사는 고행을 이어갈 장소로 바로 이곳을 택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잡자마자,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오, 하늘이시여! 바로 이곳이, 여러분이 나를 몰아넣은 이 불행을 슬퍼하기 위해 내가 정하고 선택한 장소로다! 이곳에서 내 눈물이 이 작은 시냇물의 물을 더욱 불어나게 할 것이며, 나의 끊임없고 깊은 탄식은 이 야생 나무들의 잎사귀를 쉼 없이 흔들어, 내 고통받는 마음이 겪는 슬픔의 증거이자 표식이 되리라! 오, 이 황량한 곳에 거처를 둔 시골 신들이여, 그대가 누구이든 간에 이 불운한 연인의 통곡을 들어다오! 긴 이별과 근거 없는 질투 때문에 이 거친 산맥 사이에서 슬퍼하며,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의 끝이자 목적이며, 은혜도 모르고 아름답기만 한 그 여인의 가혹한 태도를 원망하러 온 이 연인의 목소리를 들어다

오! 오, 산속 덤불에 사는 것이 습성인 나페아와 드리아데스 님프들이여, 비록 헛되이나마 그대들을 사랑하는 저 가볍고 음탕한 사티로스들이 그대들의 달콤한 평온을 결코 깨뜨리지 않기를 비노니, 부디 나의 불행을 함께 슬퍼해 다오. 아니, 적어도 내 울음소리를 듣는 것을 지겨워하지는 말아다오! 오,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여, 내 밤의 낮이자 내 고통의 영광이며, 내 길의 나침반이자 내 운명의 별이여! 그대가 하늘에 무엇을 구하든 하늘이 그 소원을 어여삐 들어주기를 바라노니, 그대의 부재가 나를 어떤 처지로 몰아넣었는지 살펴보고, 나의 믿음에 걸맞은 자비로운 보답을 내려주소서! 오, 오늘부터 나의 고독한 동무가 되어 줄 외로운 나무들이여,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어 나의 존재가 그대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다오! 오, 나의 종자여, 번영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나 늘 즐거운 동료였던 자여,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해 두었다가,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이 된 그분께 낱낱이 전하고 이야기해 다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렇게 말을 마친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에서 내려 곧바로 고삐와 안장을 벗겨냈다. 그러고는 말의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 몸은 자유를 잃은 채로,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오, 네 공적으로는 그토록 빼어나면서도 네 운명으로는 그토록 불행한 말이여! 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마음껏 가거라. 네 이마에는, 아스톨포의 히포그리프도, 브라다만테가 그토록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그 이름난 프론티노도 너의 날렵함만은 따라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새겨져 있으니 말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모습을 본 산초가 말했다.

"우리에게서 말 안장을 벗기는 수고를 덜어준 사람이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정말이지 그 녀석을 토닥여주며 칭찬할 말들을 잔뜩 해주고 싶긴 하지만요. 만약 그 녀석이 여기 있었다면, 아무도 안장을 벗기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주인인 제가 신이 정하신 운명에 따라 사랑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진 것도 아닌데, 말이라고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슬픈 형상의 기사님, 만약 제 떠남과 주인님의 광기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차라리 로시난테에게 다시 안장을 얹는 게 낫겠습니다. 그 녀석 대신 로시난테를 타는 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아끼는 길이니까요. 걸어서 간다면 언제 도착하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걷는 솜씨가 영 형편없거든요."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 뜻대로 하거라. 네 계획이 나쁘지 않구나. 다만 사흘 뒤에 떠나도록 해라.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직접 보고 나중에 내게 전해주었으면 한다."

"그럼 제가 이미 본 것 말고 무엇을 더 봐야 한단 말입니까?" 산초가 말했다.

"넌 영 헛다리를 짚고 있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제 내게 남은 일은 옷을 갈기갈기 찢고, 갑옷을 사방에 내던지고, 이 바위들에 머리를 들이받는 것이다. 그 밖에도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잔뜩 남아 있느니라."

"제발 부탁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머리를 박으실 때 부디 어떻게 박으실지 조심하십시오. 자칫 험한 바위에, 그것도 하필 그런 자리에 부딪히는 날에는 단 한 번에 이 고행이라는 일이 통째로 끝장나 버릴지도 모릅니다. 주인님 생각에 여기서 머리를 박는 일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여기신다면 — 어차피 이 모든 것이 다 꾸며낸 일이요 거짓이며 장난에 불과하니 — 차라리 물 위에다 박으시거나 솜처럼 부드러운 것에 대고 하시는 걸로 만족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마님께는 주인님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바위 끝에 머리를 들이받으셨다고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의는 고맙게 받으마, 친구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결코 장난이 아니라 아주 진지한 일이라는 걸 알아두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며 어기는 자는 이단 재범자처럼 처벌받는다고 우리에게 명하는 기사도의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되니까 말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꾸며내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내 머리를 박는 고행은 꾸며낸 것이나 환상적인 것이 아닌, 아주 진짜이고 확실하며 값진 것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할 실뭉치도 좀 챙겨 두어야겠다. 운명의 장난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약이 없으니 말이다."

"당나귀를 잃은 게 더 큰 손해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놈을 잃으면서 실뭉치며 다른 것들도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제발 그 저주받을 영약 이야기는 더는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 이름만 들어도 속이

아니라 영혼이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주인님의 광기를 지켜보라고 정해주신 사흘이 이미 다 지났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미 그 광기를 다 보았고, 이제는 끝난 일로 치겠습니다. 제 주인님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러니 어서 편지를 써서 저를 보내 주십시오. 주인님을 이 연옥 같은 곳에 두고 떠나, 어서 주인님을 다시 모시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산초야, 네가 이곳을 연옥이라 불렀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차라리 지옥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 만약 지옥보다 더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라 부르는 게 훨씬 더 나을 게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머무를 곳이 없다던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머무를 곳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머무를 곳이라는 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고, 나올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으리께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만약 제가 로시난테를 채찍질하려고 신는 박차를 제대로 차고 있다면, 제 발이 꼬여서 엉망이 될 지경입니다. 차라리 저를 엘 토보소에, 제 여인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앞에 한 발씩 내려놓아 주십시오. 제가 그녀에게 나으리가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실 그 어리석고 미친 짓들이 사실은 다 하나로 통하는 것이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비록 코르크 나무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나으리의 말씀을 듣고 장갑처럼 부드러워지

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달콤하고 감미롭게 대답해 줄 것이고, 저는 마법사처럼 공중을 날아올라 나으리를 이 연옥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이곳은 지옥처럼 보이지만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은 빠져나갈 희망이라도 없지만, 이곳은 빠져나갈 희망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에 떨어진 이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없으니, 나으리께서도 제 말과 다르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네 말이 맞다." 슬픈 형상의 사내가 말했다. "그런데 편지는 어떻게 써야 하느냐?"

"폴리네스식 면죄부도 같이 써 주십시오." 산초가 덧붙였다.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을 것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종이가 없으니 옛날 사람들처럼 나뭇잎이나 밀랍 판에 쓰는 것도 좋겠구나. 물론 지금은 종이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그것들을 찾기도 어렵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어디에 쓰면 좋을지, 아니, 어디에 쓰면 아주 좋을지 마침 생각이 났다. 바로 카르데니오가 쓰던 수첩이다. 너는 나중에 종이를 구하는 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이 있는 곳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아주 정갈한 글씨로 옮겨 적도록 해라. 만약 선생이 없다면 성당지기 아무나 붙잡아도 옮겨 적어 줄 것이다. 다만 서기에게는 절대로 맡기지 마라. 그놈들은 글씨를 너무 꾸며 써서 사탄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니까."

"그럼 서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초가 물었다.

"아마다스의 서신에는 결코 서명을 하지 않는 법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불 증서는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내용을 옮겨 적더라도 서명이 가짜라고 하면, 전 당나귀 한 마리도 못 얻게 될 겁니다."

"지불 증서는 서명한 채로 같은 수첩에 넣어두거라. 내 조카딸이 그 증서를 보면 군말 없이 돈을 내줄 테니까. 그리고 연애 편지에는 이렇게 서명하거라. '죽는 순간까지 당신의 기사, 슬픈 형상의 기사로부터'라고 말이다.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전달된다 해도 아무 상관없다. 내가 기억하기로 둘시네아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니까. 게다가 내 글씨나 편지를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을 게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고결한 눈길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정신적인 사랑이었으니까. 그것조차 아주 가끔뿐이었지. 내가 맹세컨대, 흙을 먹게 될 이 두 눈의 불빛보다 그녀를 더 사랑해 온 지난 12년 동안 그녀를 마주한 건 고작 네 번뿐이었다. 어쩌면 그 네 번 중에서도 그녀는 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부모인 로렌소 코르추엘로와 어머니 알돈사 노갈레스가 워낙 조신하고 엄격하게 키웠으니 말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에이, 참!" 산초가 말했다. "그러니까 로렌소 코르추엘로의 딸이 바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름만 알돈사 로렌소로부를 뿐이고요?"

"그렇다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녀야말로 온 세상의 여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이지."

"제가 잘 알죠." 산초가 말했다. "그 아가씨로 말하자면, 쇠막대 던지기 하나는 온 마을에서 제일 힘센 총각 못지않게 잘 던진다니까요. 조물주께 맹세코, 어찌나 야무지고 씩씩하며 기운이 넘치는지, 어떤 편력기사가, 아니 앞으로 편력기사가 될 사람이라도 그분을 여주인으로 모신다면 진흙탕에 처박힌 수염까지 쏙 뽑아 줄 정도라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기운은 또 어찌나 세고 목소리는 어찌나 우렁찬지! 어느 날은 마을 종탑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휴경지에서 일하던 자기 집 머슴 총각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반 레구아 넘게 떨어져 있었는데도 바로 종탑 밑에 있는 것처럼 또렷이 들었다니까요. 게다가 제일 좋은 건 전혀 까다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사교적이고 넉살이 좋거든요. 누구에게나 농담을 던지고, 무슨 일이든 우스갯소리와 재치로 받아넘기죠. 그러니 슬픈 형상의 기사님, 이제 말씀드리건대, 주인님께서는 그분을 위해 미친 짓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셔야 합니다. 아니,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 차라리 절망해서 목을 매단다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설령 그 일로 악마가 잡아간다 해도,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주인님께서 참 잘하셨다고 말할 테니까요. 저야 그저 그분을 한 번 뵙고 싶을 뿐입니다. 못 뵌 지 꽤 오래되어서 얼굴이 많이 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늘 들판에서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지내니 얼굴이 금방 상하거든요. 그리고 돈키호테님, 솔직히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님이 주인님께서 사랑하시는 어

느 공주님이거나, 아니면 주인님께서 보내신 그 귀한 선물들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대단한 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비스카야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며 죄수들에게서 얻은 것이며, 또 제가 종자가 되기 전부터 주인님께서 거두신 그 수많은 승리만큼이나 많았을 그 모든 선물들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알돈사 로렌소, 아니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님께서 주인님이 보내셨고 또 앞으로 보내실 그 패배자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다 한들 뭐 그리 대수롭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 아가씨는 아마 아마를 빗질하고 있거나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떨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가씨를 보고 머쓱해질 테고, 아가씨는 그런 선물을 우습게 여겨 웃거나 화를 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산초야,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참으로 말이 많구나. 비록 머리는 좀 둔할지 몰라도, 가끔은 제법 날카로운 구석이 있긴 하다만 말이다. 하지만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분별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해 주려고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마. '옛날에 아름답고 젊으며, 자유로운 몸에 부유하고 무엇보다 거리낌 없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풍채 좋고 살집 있는 한 젊은 수도원 청년에게 반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의 윗사람, 곧 수도원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어느 날 형제애로 타이르듯 그 선량한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인, 제가 참으로 의아합니다. 그것도 까닭 없는 게 아니지요. 부인처럼 고귀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분이, 어찌하여 저런 천하고 비천하고 멍청한 자에게 반하셨단 말입니까? 이 집에는 부인께서 마치 배를 고르듯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다' 하며

고를 수 있는 석학들과 학위 후보들, 신학자들이 그토록 많은데 말입니다." 그러자 과부가 아주 재치 있고 거침없이 대답했다. "선생님, 당신이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저 청년이 아무리 멍청해 보일지라도 제가 그를 잘못 골랐다고 여기신다면, 그건 너무 구식 생각입니다. 제가 그를 원하는 그 용도로 말하자면,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더 많은 철학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산초야, 내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공주님인 것과 다를 바 없느니라. 그래, 여인을 찬양하는 시인들이 제멋대로 붙여 놓은 이름 아래의 여인들이 다 실제로 그들이 사귄 여인인 것은 아니다. 책이며 로맨스며 이발소며 연극 무대에 넘쳐나는 아마릴리스, 필리스, 실비아, 디아나, 갈라테아, 알리다 같은 이름들이, 정말로 그들을 찬양하는 이들의 살과 피를 지닌 진짜 여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대부분은 시의 소재로 삼으려고, 또는 자기들이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 사랑할 만한 용기를 지닌 사내로 보이게 하려고 꾸며낸 것일 뿐이다. 그러니 나로서는 그 착한 알돈사 로렌소가 아름답고 정숙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가문 따위야 아무래도 좋다. 무슨 작위를 내리려고 그 혈통을 조사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저 그분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공주님이라 여길 뿐이다. 산초야, 혹시 모르고 있을까 봐 일러두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으니, 바로 빼어난 아름다움과 좋은 평판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더없이 완벽하게 갖춘 분이 바로 둘시네아님이시다. 아름다움에서는 그 누구도 그분을 따를 자가 없고, 좋은 평판에서도 그분께 미칠 자가 거의 없으니 말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내가 하는 말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나는 내

상상 속에서 그분을, 아름다움에서나 고귀함에서나 내가 바라는 모습 그대로 그려 낸다. 그분에게는 헬레네도, 루크레티아도, 또 그리스인이든 이방인이든 라틴인이든 지난 시대의 그 어떤 이름난 여인도 미치지 못한다. 남들이야 뭐라 하든 상관없다. 무식한 자들에게 비난을 듣는다 한들, 엄정한 자들에게 벌을 받을 일은 아닐 테니까."

"주인님 말씀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옳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정말 당나귀 같은 놈입니다. 한데 제가 왜 제 입으로 당나귀란 말을 꺼내는지 모르겠군요. 목매달려 죽은 사람 집에서는 밧줄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 편지나 이리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전 이만 떠나겠습니다."

돈키호테는 수첩을 꺼내 들고는 한쪽으로 물러나 아주 차분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를 다 쓴 그는 산초를 불러 내용을 읽어 주었다. 혹시라도 길을 가다 편지를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내용을 외워 두라는 것이었다. 불행한 일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법이니 말이다. 그러자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 그 책에 두세 번 정도 다시 써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 외우겠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제 이름조차 까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주인님, 내용은 꼭 읽어 주십시오. 분명 아주 근사하게 쓰셨을 테니, 듣기만 해도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잘 듣게, 내용은 이러하다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게 보내는 돈키호테의 편지

고귀하고 높으신 여인이시여:

그리움에 찔려 상처 입고 마음의 고통으로 짓무른 이, 지극히 사랑스러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여, 당신을 향한 이 마음이 비록 제 몸은 돌보지 못할지언정 당신의 안녕만을 기원하나이다. 만약 당신의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하고, 당신의 용맹함이 나를 돕지 않으며, 당신의 냉대가 나의 의지를 꺾는다면, 내가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 해도 이 고통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이 시련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끝도 없이 길기 때문입니다. 나의 충직한 종자 산초가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오 아름답고 무정한 나의 사랑스러운 원수여! 그 모든 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할 것이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그저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소서. 내 목숨을 다하는 것으로 당신의 잔혹함에 보답하고 나의 갈망을 채우겠나이다.

죽는 순간까지 당신의 것이옵니다,

슬픈 형상의 기사.

"제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말하겠습니다." 편지를 읽던 산초가 말했다. "살면서 들어본 말 중 가장 고귀한 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주인님께서는 저 편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아주 다 쏟아부으셨군요. 게다가 '슬픈 형상의 기사'라는 서명과도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말입니다!

정말이지 주인님은 악마 그 자체이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시니 말이에요."

"내가 택한 이 직분을 수행하려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단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산초가 말했다. "그 수첩 뒷장에다 새끼 당나귀 세 마리에 대한 증서를 써서,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게 아주 또렷하게 서명해 두십시오."

"기꺼이 그러마."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는 증서를 다 쓴 뒤에 소리 내어 읽어 주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조카딸아, 새끼 당나귀에 대한 이 첫 번째 증서로써 네게 명하노니, 내 종자 산초 판사에게 내가 집에 두고 온 다섯 마리 가운데 세 마리를 주도록 해라. 그것들은 지금 네가 맡아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세 마리 새끼 당나귀는 여기서 현금으로 받은 같은 수만큼에 대해 내어주고 값을 치르도록 명하는 것이며, 그 내역은 분명하니, 산초의 수령증과 함께라면 정당하게 인도된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올해 8월 22일, 시에라 모레나 산속 깊은 곳에서."

"좋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어서 서명하십시오, 주인님."

"서명할 필요까지는 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저 내 인장만 찍으면 된다. 서명이나 다름없으니까. 당나귀 세 마리는 물론이고, 삼백 마리를 거래한다 해도 그것이면 충분하다."

"저는 주인님만 믿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럼 전 이만 가서 로시난테에게 안장을 얹겠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제게 축복을 내려 주실 준비나 하십시오. 주인님께서 하실 미친 짓들은 보지도 않고 곧장 떠날 생각이니까요. 어차피 제가 주인님이 미친 짓 하시는 걸 잔뜩 봤다고 말씀드리면 그만이니, 더 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산초, 나는 네가 꼭 봐 주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지. 다시 말해, 네가 내 알몸을 직접 보고, 또 내가 한두 다스쯤 미친 짓을 저지르는 걸 지켜봤으면 한다는 말이다. 그 일들은 채 삼십 분도 안 되어 다 끝날 테니, 네 눈으로 직접 보고 나면 나중에 거기에 더 보태고 싶은 다른 짓들에 대해서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맹세할 수 있을 게다. 게다가 분명히 말해 두건대, 내가 하려는 짓이 어찌나 많은지 네가 아무리 떠벌린다 해도 그 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느님 맙소사, 주인님! 제발 제 눈앞에서 알몸을 드러내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제 잿빛 나귀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머리가 다 아파서, 더는 새로 울 기운도 없습니다. 정 주인님께서 제가 미친 짓을 하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제발 옷을 입은 채로 짧고 간결하게, 상황에 맞는 것들만 몇 가지 보여주십시오. 더구나 저로서는 그런 것을 구경할 필요가 전혀 없

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제가 돌아오는 길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님께서 바라시고 또 마땅히 누리실 그 소식을 들고 돌아오는 길 말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신다면, 둘시네아 님께서는 단단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분이 마땅히 하셔야 할 대답을 내놓지 않으신다면, 제가 맹세컨대 발로 차고 뺨을 때려서라도 그분의 배 속에서 좋은 대답을 끄집어내고 말 테니까요. 아니, 주인님처럼 유명한 편력기사가 아무 까닭도 없이 한 여자 때문에 미쳐버리는 걸 세상이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그 아가씨에 대해 제 입으로 떠들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안 그러면 하느님께 맹세코 제가 마구 욕을 퍼붓고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요. 설령 아무 소득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그런 일에 만만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정말이지, 저를 제대로 아신다면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실 겁니다!" 산초가 말했다.

"정말이지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보아하니 너도 나보다 딱히 더 제정신인 것 같지는 않구나."

"그렇게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다만 화가 좀 더 날 뿐이지요.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돌아오는 동안 주인님께서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카르데니오처럼 길로 나가 목동들에게서 음식을 빼앗기라도 하실 작정입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설령 먹을 것이 없다 해도, 이 초원과 나무들이 내게 주는 풀과 열매 말고는 다른 건 입에

도 대지 않을 테니까. 내 과업의 숭고함은 음식을 멀리하고 그에 걸맞은 고난을 겪는 데 있는 법이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제가 무엇이 걱정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주인님을 숨겨드린 이 자리를, 나중에 다시 찾아오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내가 이 근처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 위치를 잘 기억해 두어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가 돌아왔을 때 너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지켜보기까지 하마. 게다가 네가 길을 잘못 들어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 그러니 이 근처에 널린 금작화 가지를 몇 개 꺾어서, 평지에 다다를 때까지 길을 따라 띄엄띄엄 놓아두거라. 테세우스가 미궁을 빠져나올 때 실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 가지들이 네가 돌아왔을 때 나를 찾아낼 이정표이자 표식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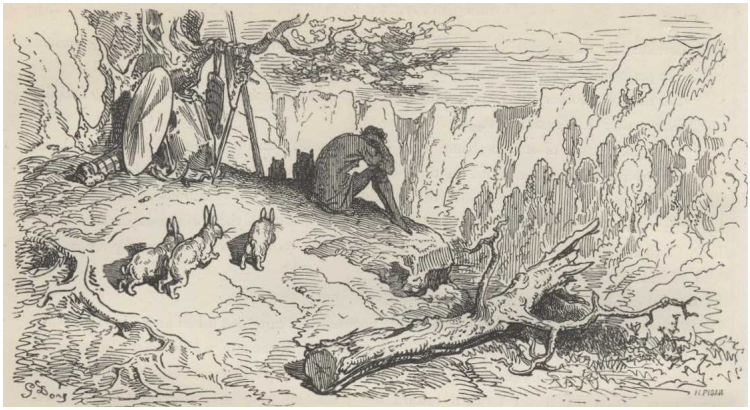
산초 판사는 금작화 가지를 몇 개 꺾은 뒤 주인에게 축복을 청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산초는 돈키호테가 자신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돌봐달라고 신신당부한 로시난테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주인의 조언대로 평지를 향해 길을 떠나며, 길을 따라 금작화 가지를 띄엄띄엄 놓아두었다. 산초는 길을 떠나면서도, 돈키호테가 미친 짓을 두 번이라도 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워 마음이 쓰였다. 하지만 채 백 걸음도 가기 전에 산초는 다시 돌아와 말했다.

"주인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주인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주인님께서 미친 짓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봤다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맹세하려면, 적어도 한 번은 그런 모습을 봐야겠지요. 하기야 주인님께서 이곳에 남기로 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미친 짓을 본 셈이긴 합니다만."

"내 말이 맞지 않더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기다려라, 산초야. 사도신경 한 번 욀 동안에 다 보여줄 테니."

그리고 그는 서둘러 바지를 벗어 던지고 알몸에 속옷 차림이 되었다. 그러더니 곧바로 허공에 발길질을 두 번 하고는, 머리를 아래로 하고 발을 위로 치켜든 채 공중제비를 두 번 돌았다. 그 바람에 어떤 것들이 드러났는데, 산초는 그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얼른 로시난테의 고삐를 돌렸다. 산초는 자신의 주인이 미쳤다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맹세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자, 이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가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자. 돌아오는 길은 그리 길지 않았다.

제26장



제26장. 돈키호테가 시에라 모레나에서 사랑에 빠진 기사처럼 보여준 기이한 행동들이 계속되는 이야기

이제 '슬픈 형상의 기사'가 홀로 남겨진 뒤에 한 일을 다시 들려주자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한다. 돈키호테는 하반신은 벗고 상반신은 옷을 걸친 채 공중제비, 곧 재주넘기를 마치고 나서, 산초가 더 이상의 어

리석은 꼴은 보지도 않고 떠나버린 것을 알아채자, 높은 바위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전에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문제를 다시 곱씹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롤랑이 저지른 무도한 광기를 흉내 낼 것인가, 아니면 아마디스의 우수에 찬 광기를 따를 것인가, 어느 쪽이 더 낫고 자신에게 더 어울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롤랑이 정말 훌륭하고 용맹한 기사였다 한들, 그게 뭐 그리 놀라운 일이겠는가? 결국 그는 마법에 걸린 몸이라, 발바닥에 한 푼짜리 핀을 찔러 넣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그는 늘 일곱 겹 쇠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다녔지. 하지만 론세스바예스에서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를 만났을 때는 그 수법도 통하지 않았으니, 베르나르도가 그 비밀을 꿰뚫어 보고는 두 팔로 끌어안아 그를 졸라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용맹함은 일단 제쳐두고, 정신을 놓아버린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그가 미쳤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샘가에서 발견한 흔적들과 목동에게서 들은 소식 때문이었지. 아그라만테의 시동이자 곱슬머리를 한 어린 무어인 메도로와 안젤리카가 두 번도 넘게 낮잠을 함께 잤다는 소식 말이다. 만약 그가 그 말을 사실로 믿고 자신의 여인이 자신에게 모욕을 안겼다고 여겼다면, 미쳐버린 것도 그리 무리는 아니었으리라. 그런데 나는 그가 미친 그 계기를 흉내 낼 수 없는데, 어떻게 그 광기를 흉내 낼 수 있겠는가? 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로 말하자면, 그녀는 평생토록 무어인이라고는, 본래 무어 차림을 한 메도로 같은 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이며, 지금도 그녀를 낳아 준 어머니가 낳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정결하리라고 나는 감히 맹세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그녀에 대해 엉뚱한 상상을 하며 광란의 롤랑처럼 미쳐버린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명백한 모욕이 될 것이다. 한편 가울라의 아마디스를 보면, 그는 정신을 놓거나 미친 짓을 하지 않고도 누구보다 사랑에 빠진 기사로 명성을 떨쳤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한 일이라곤 그저 이런 것뿐이었다. 연인 오리아나에게 멸시를 당하고—오리아나가 자신의 뜻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명령했기에—그는 은둔자 한 사람과 함께 페냐 포브레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이 가장 큰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서 그를 도와줄 때까지, 실컷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자신을 의탁했을 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실제로 그러하니, 내가 지금 굳이 옷을 다 벗어 던지며 고생을 사서 할 까닭이 무엇이며, 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이 나무들을 괴롭힐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또 갈증이 날 때 내게 마실 물을 내어 줄 이 맑은 시냇물을 흐려 놓을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아마디스의 기억이여, 영원하라! 그리고 라 만차의 돈키호테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본받게 하라! 돈키호테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 했던 말, 곧 비록 위대한 일을 이루지는 못했어도 그것을 이루려다 죽었노라는 말을 듣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게 버림받거나 멸시당한 것이 아니니, 이미 말했듯이 그녀와 떨어져 지내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하다. 자, 그러면 일을 시작해 보자. 아마디스의 행적들이여, 내 기억으로 찾아와 내가 어디서부터 너희를 본받아야 할지 가르쳐다오. 하지만 그가 한 일 중 으뜸은 기도하고 하느님께 의탁한 것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묵주가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이때 그에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늘어뜨려져 있던 셔츠 자락을 길게 한 가닥 찢어, 거기에 매듭 열한 개를 묶되 그중 하나는 다른 것들보다 굵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그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묵주 노릇을 했고, 그는 그것으로 백만 번의 성모송을 바쳤다. 그를 몹시 괴롭힌 것은 고해를 들어 주고 위로해 줄 다른 은둔자를 그 근처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그는 작은 풀밭을 거닐며 나무껍질과 고운 모래 위에 수많은 시구를 쓰고 새겼는데, 모두 자신의 슬픔에 어울리는 것이었고 더러는 둘시네아를 찬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훗날 사람들이 그를 그곳에서 발견한 뒤, 온전하게 남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시구들뿐이었다.

"이곳에 있는 나무와 풀과 식물들아, 너희가 아무리 높고 푸르며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한들, 나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나의 거룩한 탄식을 들어다오. 나의 슬픔이 아무리 처절할지라도 너희를 어지럽히지는 않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고통을 털어놓는 대가로, 이곳에서 돈키호테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와 떨어져 지내는 슬픔을 눈물로 달랬노라."

이곳은 자신의 여인에게 가장 충직한 연인이 몸을 숨긴 곳이요, 어찌하여, 또 어느 길로 이토록 큰 불행에 이르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여기까지 흘러든 자리라. 사랑이 그를 이리저리 휘둘러 끌고 다니니, 그 사랑이란 참으로 고약한 종자라. 그리하여 작은 술통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이곳에서 돈키호테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와 떨어져 지내는 슬픔을 눈물로 달랬노라.

험준한 바위틈 사이로 모험을 찾아 헤매며, 매정한 심사를 저주하노라. 바위와 덤불 사이에서 슬픈 이가 만나는 것은 오직 불행뿐이기에. 사랑은 부드러운 가죽끈이 아니라 매서운 채찍으로 그를 후려쳤고, 그 채찍이 목덜미에 닿자, 이곳에서 돈키호테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와 떨어져 지내는 슬픔을 눈물로 달랬노라.

둘시네아라는 이름 뒤에 '엘 토보소의'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놓은 시구절을 본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둘시네아라는 이름만 부르고 '엘 토보소의'를 함께 붙이지 않으면 그 시구를 알아들을 수 없으리라고 돈키호테가 생각한 게 분명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나중에 돈키호테 자신이 고백했듯이 정말 그러했다. 그는 이 세 구절 외에도 많은 시를 썼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세 구절처럼 온전하고 깨끗하게 옮겨 적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는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한숨을 내쉬고, 숲속의 파우누스와 실바누스들을 부르는가 하면, 강의 님프들과 슬프고도 물기 어린 메아리의 여신 에코를 불러 자기에게 대답해 주고 위로해 주며 귀 기울여 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산초가 돌아올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먹을 약초를 찾아 헤매기도 했다. 만약 산초가 사흘이 아니라 삼 주나 걸렸다면, '슬픈 형상의 기사'는 몰라보게 초췌해져서 제 어머니조차 못 알아볼 지경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숨과 시 구절에 파묻혀 지내는 그를 잠시 내버려 두고, 이제 산초 판사가 심부름을 하러 가며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편이 좋겠다. 산초는 대로로 나서자마자 엘 토보소를 찾아 나섰고, 이튿날 예전에 담요 키질

을 당하는 봉변을 겪었던 그 여관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관을 보자마자 또다시 자기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마침 들어가도 좋고 또 들어가야 할 시간—끼니때인 데다 따뜻한 음식이라도 좀 먹고 싶던 참—이었음에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날이나 차가운 음식만 먹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결국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산초는 여관 안으로 들어갈지 말지 망설이면서도 여관 근처까지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여관에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들은 곧 산초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법학사 양반. 저 말 탄 사람 말이야, 우리 모험가 나으리의 가정부가 종자로 나으리를 따라나섰다고 말했던 그 산초 판사 아닌가?"

"맞네." 법학사가 대답했다. "저 말은 우리 돈키호테 나으리의 말이고." 두 사람은 다름 아닌 돈키호테와 같은 마을의 신부와 이발사로, 일전에 그의 책들을 검열하고 대대적으로 처분했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기에 산초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산초 판사와 로시난테를 알아본 두 사람은 돈키호테의 소식이 몹시 궁금하여 그에게 다가갔고, 신부가 산초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친구 산초 판사, 자네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산초 판사는 즉시 그들을 알아보고는, 주인이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결코 발설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주인께

서 지금 아주 중요한 어떤 일에 몰두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두 눈을 걸고서라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아니, 아니야." 이발사가 산초 판사에게 말했다. "산초 판사, 자네가 주인이 어디 있는지 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짐작한 대로 자네가 주인을 죽이고 물건까지 빼앗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네. 자네가 주인의 말을 타고 오고 있으니 말이야. 정말이지 그 말 주인을 우리 앞에 내놓아야 할 걸세. 안 그러면 그땐 자네가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저를 협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남을 죽이거나 훔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람의 목숨은 각자의 운명에 달린 것이거나, 그를 만드신 하느님의 뜻에 달린 법이지요. 저희 주인님께서는 지금 이 산중턱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고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단숨에 이야기를 이어 갔다. 주인이 처한 상황과 그동안 겪은 모험들, 그리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게 전할 편지를 어떻게 지니고 있는지까지 모두 늘어놓았다.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는 로렌소 코르추엘로의 딸이었는데, 돈키호테는 그녀를 간이고 쓸개고 다 빠질 만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산초 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두 사람은 넋을 잃고 감탄했다. 돈키호테가 미쳤다는 사실과 그 광기가 어떤 종류인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번 새로이 놀라곤 했다. 두 사람은 산초 판사에게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게 전할 편지를 보여 달라고 청했다. 산초 판사는 그 편지가 수첩에 적혀 있으며, 도착하는 대로 가장 먼

저 종이에 옮겨 적으라는 것이 주인님의 명령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신부는 아주 정갈한 글씨로 옮겨 적어 줄 테니 그 편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산초 판사는 그 수첩을 찾으려고 품속에 손을 집어넣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뒤졌어도 못 찾았을 텐데, 돈키호테가 그 수첩을 가진 채 산초에게 건네주지 않았고, 산초 역시 달라고 하는 것을 깜빡했기 때문이다.

산초 판사는 수첩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얼굴이 죽을상으로 변했다. 그는 급히 온몸을 다시 뒤져보았지만, 역시나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산초는 앞뒤 재지 않고 두 주먹으로 턱수염을 움켜쥐더니 수염의 절반을 확 뽑아버렸다. 그러고는 멈추지 않고 다급하게 제 얼굴과 코를 대여섯 번이나 주먹으로 내리쳤고, 순식간에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다. 이 광경을 본 신부와 이발사는 산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며, 왜 저토록 자학을 하느냐고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어가듯 순식간에, 저마다 성채 하나만 한 어린 나귀 세 마리를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발사가 되물었다.

"적어 두었던 수첩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 수첩에는 둘시네아에게 보내는 편지와, 주인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증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 증서에는 집에 있는 네다섯 마리 나귀 가운데 세 마리를 조카더러 제게 내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초는 회색 당나귀를 잃어버린 일까지 덧붙여 이야기했다. 신부는 산초를 위

로하며, 주인님을 찾게 되면 그 명령이 다시 유효해지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 또한 수첩에 적어 둔 것은 결코 인정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법이니, 예부터 내려오는 관례대로 종이에 정식으로 다시 작성하라고 일러 주었다.

산초는 그제야 마음을 놓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둘시네아에게 보내는 편지를 잃어버린 건 그리 아쉽지 않다고 말했다. 편지 내용은 거의 다 외우고 있으니,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시 옮겨 적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산초, 나중에 우리가 다시 적어 넣도록 하지." 이발사가 말했다. 산초 판사는 편지 내용을 떠올리려 머리를 긁적이며 섰다. 그는 한쪽 발을 들었다가 다시 다른 쪽 발을 들었다가 하며, 때로는 땅을 보고 때로는 하늘을 보며 한참을 서성였다. 그러다 손가락 끝의 절반을 다 뜯어낼 정도로 애를 쓰더니, 편지 내용을 말하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한참이나 애태운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세상에, 법학사님, 편지 내용이 도통 기억나질 않네요. 악마들이 다 가져가 버렸나 봅니다. 그래도 시작 부분은 기억나요. '높으시고 낮으신 귀부인께'라고 했거든요."

"'낮으신' 게 아니라, '초월적이거나 지고하신' 귀부인이라고 했을 걸세." 이발사가 말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산초가 말했다. "그다음은,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상처 입은 이가 은혜도 모르고 무심한 미인인 귀하의 손에 입을 맞추나이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안부나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적었는지 잘 모

르겠지만, 대충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마지막에는 '죽을 때까지 귀하를 섬길, 슬픈 형상의 기사가 올림'이라고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산초 판사의 기억력이 제법 좋다는 데 무척 흡족해하며 그를 크게 칭찬했고, 나중에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자기들도 외워 두게끔 편지를 두 번만 더 읊어 달라고 부탁했다. 산초는 편지를 세 번이나 더 읊었고, 그때마다 또 다른 삼천 가지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고 나서 주인에 관한 일들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들어가기를 꺼리던 그 여관에서 담요 키질을 당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또한 주인님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게서 좋은 소식을 받기만 하면 황제가, 적어도 군주가 되는 길을 찾아 길을 나설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며, 주인의 용맹함과 팔 힘을 생각하면 그리되는 것쯤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인이 그리되면 자신은 어차피 홀아비가 되어 있을 테니—틀림없이 그럴 거라며—자신을 황후의 시녀와 짝지어 줄 거라고 했다. 그 시녀는 섬 따위는 딸리지 않은, 뭍에 있는 크고 부유한 영지의 상속녀인데, 산초는 이제 섬 따위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다.

산초는 때때로 코를 훌쩍이면서도 아주 태연하게 이런 말을 늘어놓았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앞뒤가 안 맞고 어리석던지, 두 사람은 돈키호테의 광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새삼 실감하며 다시금 경악했다. 그 광기가 저 가련한 사내의 이성마저 통째로 앗아가 버린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산초를 잘못된 길에서 깨우치려 애쓰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저렇게 믿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대로 두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게다가 산초의 헛소리를 듣는 것

이 그들에게는 훨씬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산초에게 주인의 건강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라고 일렀다. 산초의 말대로 시간이 흐르면 주인이 황제가 되거나, 적어도 대주교나 그에 준하는 높은 직위에 오르는 일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다. 그러자 산초가 대답했다.

"나으리들, 만약 운이 따라 주어 우리 주인님께서 황제가 되는 대신 대주교가 되기로 마음을 바꾸신다면, 지금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편력 대주교들은 보통 자기 종자에게 무엇을 챙겨 줍니까?" 하고 산초가 말했다.

"보통은," 신부가 대답했다. "사목을 맡지 않는 단순 성직록이든 본당을 맡는 성직록이든 성직록 하나를 주거나, 아니면 고정 수입이 짭짤한 성당 관리직 하나를 주지. 게다가 그런 자리에는 제단 봉헌금까지 따르는데, 그 액수도 그만큼은 된다고들 한단다."

"그러려면 종자가 미혼이어야 하고, 적어도 미사 보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할 텐데요."라고 산초가 대답했다. "만약 그렇다면, 유부남인 데다 ABC도 모르는 저는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주인님께서 떠돌이 기사들의 관례대로 황제가 되는 대신 대주교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신다면, 저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걱정 말게, 친구 산초."라고 이발사가 말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자네 주인님을 위해 기도하며 잘 권해드리지 않겠나. 주인님께서 대주교보다는 황제가 되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양심에 비추어 말씀

드려 보겠네. 주인님은 공부보다는 용맹함이 훨씬 뛰어나시니 그게 더 적성에 맞으실 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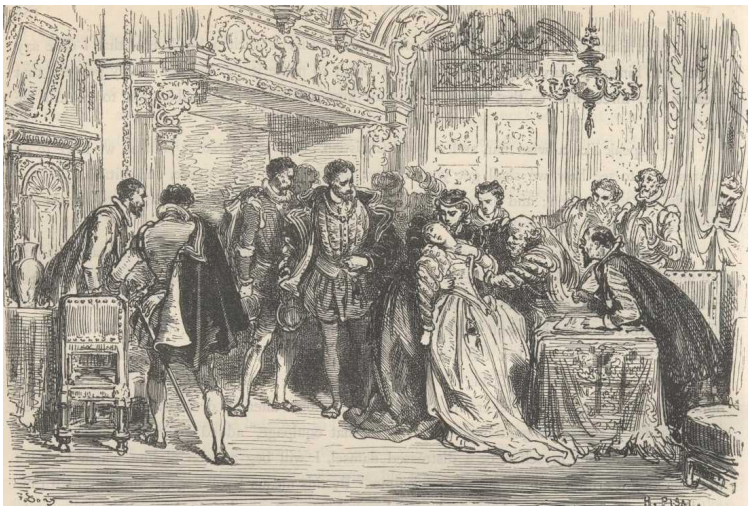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라고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주인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저는 그저 우리 주인님께서 가장 보람 있게 쓰이실 수 있는 곳으로 가시기를, 그리고 저에게도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자네 참 현명하게 말하는군."이라고 신부가 말했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참으로 훌륭한 신자라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네 주인이 하고 있다는 그 쓸데없는 고행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꺼내 올 수 있을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네. 우선 어떻게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좀 하고, 마침 식사 때가 되었으니 배도 좀 채워야 하니, 이 주막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네."

산초는 자신은 밖에서 기다릴 테니 먼저 들어가라고 말했다. 왜 들어가지 않는지, 그리고 왜 들어가는 것이 본인에게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따뜻한 음식과 로시난테가 먹을 보리만큼은 밖으로 가져다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들은 산초를 밖에 남겨둔 채 주막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발사가 산초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었다. 그 후 두 사람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던 중, 신부가 돈키호테의 취향에도 맞고 두 사람의 계획에도 딱 들어맞는 생각을 떠올렸다. 신부가 이발사에게 제안한 계획은 이러했다. 신부가 스스로를 방랑하는 처녀로 분장하고,

이발사는 종자로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는 것이었다. 그런 모습으로 돈키호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신부가 슬픔에 잠긴 가련한 처녀인 척 연기하며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용맹한 기사라면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신부가 청할 도움이란, 어떤 악한 기사에게 입은 원한을 갚을 수 있도록 자신이 이끄는 곳까지 함께 가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신부는 부탁할 때, 그 악한 기사에게 복수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얼굴을 가린 복면을 벗기려 들거나 자신의 일에 대해 캐묻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로 했다. 신부는 돈키호테가 이 조건만 지켜준다면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든 의심 없이 응해줄 것이라 믿었다. 이렇게 하면 돈키호테를 그곳에서 데려와 원래 살던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그의 기이한 광기를 고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었다.

제27장



제27장. 신부와 이발사가 자신들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들에 대하여

이발사는 신부의 기발한 생각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여관 안주인에게 치마와 머리 장식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담보로 신부의 새 사제복을 맡겨두었다. 이발사는 여관 주인이 빗을 걸어두던, 잿빛이 도는 붉은 소 꼬리를 가져다가 커다란 수염을 만들었다. 여관 안주인이 도대체 그런 물건들은 왜 필요하냐고 묻자, 신부는 돈키호테가 얼마나 미쳐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산에서 그를 데려오려면 왜 이런 변장이 필요한지를 짧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여관 주인 내외는 그 미친 사람이 바로 전에 자기네 손님으로 묵었던, 그 영약을 들고 다니던 사내이자 담요에 헹가래쳐진 종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러고는 산초가 그토록 입을 다물고 숨기던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신부에게 털어놓았다. 마침내 안주인은 더할 나위 없이 감쪽같이 신부를 변장시켰다. 폭이 한 뼘쯤 되는 검은 벨벳 띠가 칼집을 낸 듯 촘촘히 둘러진 천 치마를 입히고, 흰 공단 테두리를 두른 초록색 벨벳 보디스를 입혔는데, 이 옷도 치마도 아마 웜바 왕 시절에나 만들어졌을 법한 낡은 것이었다. 신부는 안주인이 머리에 머리쓰개를 씌우려는 것은 마다하고, 대신 밤에 잘 때 쓰던 누비 천 모자를 머리에 쓰고는, 검은 호박단 띠를 이마에 동여매고 또 다른 띠로 복면을 만들어 수염과 얼굴을 빈틈없이 가렸다. 이어 양산으로 써도 될 만큼 커다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짧은 망토를 둘러 몸을 감싼 뒤, 여자들이 하듯 한쪽으로 비스듬히 앉는 자세로 노새에 올라탔다. 이발사 역시 허리까지 내려오는 수염을 달고 자기 노새에 올라탔는데, 그 수염은 앞서 말했듯이 불그스름한 소 꼬리로 만든 것이라 붉은색과 흰색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착한 마리토르네스에게도 인사를 건넸는데, 그녀는 비록 죄인이긴 하나 자신들이 시작한 이토록 어렵고도 경건한 일이 부디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 묵주기도를 바치겠노라 약속했다.

하지만 여관을 나서자마자 신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더라도 사제가 그런 차림을 하는 것은 품위 없는 일이라 생각한 것이다. 신부는 이발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옷을 바꿔 입자고 제안했다. 차라리 자신이 가난한 처지의 처녀 역할을 맡고, 이발사가 종자가 되는 편이 더 옳으며, 그래야 자신의 위신도 덜 깎일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발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설령 돈키호테에게 악마가 들이닥치는 한이 있더라도 더는 나아가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때 산초가 도착했다. 두 사람이 그런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산초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사실 이발사는 신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랐다. 신부는 계획을 조금 수정하여, 돈키호테를 설득해 자신과 함께 떠나게 만들 방법과 그가 헛된 고행을 하겠다고 정한 장소를 포기하도록 유도할 대사들을 이발사에게 일러주었다. 이발사는 별다른 가르침이 없어도 자신이 알아서 잘 해내겠다고 대답했다. 이발사는 돈키호테가 있는 곳 근처에 도착할 때까지는 옷을 갈아입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게 이발사는 옷을 접어두고 신부는 수염을 매만진 뒤, 산초 판사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는 대로 길을 나섰다. 산초는 산에서 발견한 미친 놈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다만, 그가 발견한 가방

과 그 안에 든 물건들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비록 어리석은 청년이었으나, 욕심은 좀 있는 녀석이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그들은 산초가 주인을 남겨둔 곳을 찾으려고 나뭇가지로 표시해 둔 곳에 도착했다. 산초는 그 표시를 보고 여기가 입구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차림이 주인을 구해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제 옷을 갈아입어도 좋다고 말했다. 산초는 이전에 두 사람에게, 주인님이 선택한 그 나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려면 지금처럼 차려입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산초는 두 사람에게 신신당부했다. 돈키호테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혹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이다. 만약 돈키호테가 물어볼 것을 대비해, 둘시네아에게 편지를 전했느냐고 묻거든 그렇다고 대답하라고 일러두었다. 그리고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말로 대신 전했다고 하며, 둘시네아가 아주 급히 만나자고 전해달라고 했다. 만약 바로 달려오지 않으면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니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이 방법과 더불어 그들이 준비한 말들을 덧붙인다면, 돈키호테를 올바른 삶으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그가 곧 길을 떠나 황제나 군주가 되도록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대주교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산초는 그 말을 모두 듣고는 아주 잘 기억해 두었다. 그러고는 주인님이 대주교가 아니라 황제가 되도록 권하려는 두 사람의 뜻에 깊이 감사했다. 산초는 떠돌이 대주교보다는 황제가 종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훨씬 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산초는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주인님을 찾아가 여인분의 답변을 전해주는 것이 좋겠

다고 말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애써 고생하지 않아도 여인분의 말 한 마디로 주인님을 그곳에서 데려오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산초 판사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산초가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산초는 산의 험한 골짜기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작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어느 골짜기에 남았다. 그곳은 주변의 바위와 나무들이 만들어낸 그늘 덕분에 기분 좋게 시원했다. 그들이 도착한 날은 8월이었는데, 이 지역의 8월은 대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였다. 시간은 오후 세 시쯤이었다. 이런 날씨와 시간 덕분에 그곳은 오히려 머물기에 아주 쾌적한 장소가 되었고, 덕분에 두 사람은 산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곳에서 쉬기로 했다.

두 사람이 그늘 아래서 평온하게 쉬고 있을 때, 어떤 악기 소리도 섞이지 않았음에도 달콤하고 감미롭게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다. 두 사람은 이 소리에 적잖이 놀랐는데, 이런 곳에서 이토록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흔히 숲이나 들판을 다니다 보면 목소리가 아주 뛰어난 목동들을 만난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시인들이 과장해서 하는 말이지 실제 사실은 아니었다. 특히 그들이 들은 노래가 투박한 목동의 시가 아니라, 식견 있는 궁정 사람의 시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두 사람이 들은 노래가 바로 그러한 시였다는 사실이 다음의 구절을 통해 증명된다.

"누가 내 재산을 깎아내리는가? 바로 경멸이라네. 그럼 누가 내 슬픔을 키우는가? 질투라네. 누가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가? 바로 부재라네. 이런 식으로, 내 병에는 아무런 약도 없으니, 경멸과 질투와 부재가 내 희망을 앗아가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네. 누가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사랑이라네. 그럼 누가 내 영광을 거부하는가? 운명이라네. 누가 내 슬픔을 방관하는가? 바로 하늘이라네. 이런 식으로, 나는 이 기이한 병 때문에 죽을까 두렵다네. 사랑과 운명과 하늘이 내 고통을 더 키우고 있으니 말일세. 누가 내 운명을 나아지게 하겠는가? 오직 죽음뿐이라네. 그럼 사랑의 결실은 누가 얻겠는가? 변화라네. 그리고 사랑의 고통은 누가 치유하겠는가? 바로 광기라네. 이런 식으로, 치료법이 죽음과 변화와 광기뿐인데, 그 열정을 고치려 드는 것은 결코 제정신이 아니라네."

노래하는 이의 그 시각과 때, 외진 적막함과 목소리, 그리고 그 빼어난 솜씨는 듣고 있던 두 사람에게 경탄과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두 사람은 혹시 다른 소리가 더 들려오지 않을까 하며 가만히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하지만 침묵이 꽤 길어지자, 그들은 이토록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던 그 음악가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막 그렇게 하려는 순간, 바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노래는 이렇게 이 소네트를 부르고 있었다.

소네트

성스러운 우정이여, 그대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그대의 겉모습만 지상에 남겨둔 채, 복된 영혼들 사이에서 하늘로 기쁘게 날아올랐도

다. 그곳에서 그대가 원할 때면, 베일에 싸인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베일 너머로 끝내는 악행이 되고 마는, 선행을 가장한 열망이 비치기도 하는구나. 오, 우정이여! 차라리 하늘을 떠나버려라. 아니면 기만이라는 놈이 그대의 옷을 입고 나타나 진실한 마음을 파괴하게 두지 마라. 만약 그대가 그 겉모습의 허울을 벗겨내지 않는다면, 세상은 머지않아 처음의 불화와 혼란 속에서 서로 다투게 될 것이니라.

노랫소리는 깊은 한숨과 함께 끝이 났다. 두 사람은 노래가 더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음악은 어느새 흐느낌과 애처로운 탄식으로 변해 있었다. 신부와 이발사는, 목소리는 더없이 빼어나면서도 그 신음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저 가련한 이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했다.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바위 언덕 모퉁이를 돌아 나왔을 때, 산초 판사가 카르데니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묘사했던 것과 체격과 모습이 똑같은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두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갑작스레 그들이 다가온 처음 한 번 눈길을 줄 뿐,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고개를 가슴 쪽으로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말솜씨가 유창했던 신부는, 산초가 일러준 인상착의로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불행한 사연도 짐작하고 있던 터라, 그에게 다가갔다. 신부는 짧지만 아주 사려 깊은 말로, 그토록 비참한 삶을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간곡히 권하며 설득했다. 그러다 그곳에서 목숨까지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 중의 가장 큰 불행이 될 것이라면서 말이다. 당시 카르데니오의 정신은 온전했다. 그를 수시로 이성을 잃게 만들던

그 격렬한 발작에서도 벗어나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이 외딴곳을 지나다니는 이들이라면 결코 입지 않을 옷차림을 한 두 사람을 보고 내심 적잖이 의아해했다. 특히 신부가 자신의 사정을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자 더욱 놀라워했다. 신부의 말이 그렇게 들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카르데니오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들, 당신들이 누구이든 잘 알겠습니다. 선한 이들을, 또 자주 악한 이들까지도 보살피시는 하늘이, 내가 그럴 자격도 없건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이 멀고 외딴곳까지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군요. 그분들은 내가 지금 얼마나 분별없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생생하고 다양한 근거를 들어 내 눈앞에 보여주며,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곳으로 이끌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더 큰 불행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아마 나를 식견이 부족한 사람, 아니 더 나쁘게 말하자면 아무런 판단력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모양이지요. 사실 그렇게 여겨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내 불행을 떠올리는 상상의 힘이 너무나 강렬해서 나를 파멸로 몰아넣으니, 나 스스로도 어찌 막을 도리가 없이 마치 돌덩이처럼 온갖 분별력과 지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곤 하니까요. 그 끔찍한 발작이 나를 지배하는 동안 내가 저지른 일들을 누군가 말해주거나 그 증거를 보여줄 때에야 비로소 나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그저 헛되이 슬퍼하고 아무런 보람도 없이 내 운명을 저주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 광기에 대한 변명으로, 그 까닭을 듣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그 이유를 들려주곤 합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 원인을 보고 내 행동에 놀라지도 않을 것이고, 설

령 나를 고쳐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 탓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내 무모한 행동에 화를 내던 마음이 내 불행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겠지요. 만약 선생님들도 다른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오신 것이라면, 저를 설득하려 애쓰시기 전에 끝도 없는 제 불행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는 이 불행을 달래느라 헛수고하는 일을 면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두 사람 역시 그 불행의 원인을 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뿐이었기에,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를 치료하거나 위로해 주겠노라 약속하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그러자 비운의 기사는 슬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며칠 전 돈키호테와 염소치기에게 들려주었던 내용과 거의 같은 말과 순서로 이어졌다. 당시에는 엘리사벳 스승의 등장과 기사도의 예법을 지키려는 돈키호테의 유별난 태도 때문에, 소설의 서술처럼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 좋게도 광기 어린 발작이 멈춘 덕분에 이야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 카르데니오는 돈 페르난도가 『아마디스 데 가울라』 책 사이에서 발견했던 그 편지의 내용까지 기억해 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루신다로부터 카르데니오에게»

«루신다로부터 카르데니오에게.

당신을 알아갈수록 매일같이 새로운 미덕을 발견하게 되니, 그럴수록 당신을 더욱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께서 저

의 이 마음을 갚으라며 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려 하신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을 잘 알고 또 아껴주시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제 의사를 억지로 꺾지 않으실 분이니, 만약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아끼신다면 아버님께서도 마땅히 당신의 뜻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 이 편지를 읽고 나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루신다를 아내로 맞이하려 청했습니다. 이 편지 덕분에 루신다는 돈 페르난도의 눈에 당대에서 가장 지혜롭고 사리 분별이 밝은 여인 중 한 명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편지는 나의 청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가 나를 파멸시키고 싶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루신다의 아버지가 우려하는 점, 즉 내 아버지가 그녀에게 청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돈 페르난도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워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루신다의 품격과 선함, 미덕과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져 있고, 스페인의 그 어떤 가문이라도 그녀와 결합한다면 그 혈통을 드높일 만큼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그가 리카르도 공작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때까지, 내가 너무 빨리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나를 겁먹게 만드는 수많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버지께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저 내가 무엇을 원하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다는 기분이 들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에 돈 페르난도는 자신이 직접 내 아버지와 이야기하여, 내 아버지가 루신다의 아버님께 청혼하도록 만들겠다고 대답했습니

다. 오, 야심에 눈먼 마리우스여, 잔인한 카틸리나여, 악독한 술라여, 거짓쟁이 갈랄론이여, 배신자 벨리도여, 복수심에 불타는 훌리안이여, 탐욕스러운 유다여! 배신자이자 잔인하고 복수심에 불타며 거짓을 일삼는 자여, 이 가련한 자가 당신에게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토록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속 비밀과 소망을 다 털어놓았음에도 이 모양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해를 끼쳤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떤 조언을 건넸기에,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명예를 높이고 이익을 더하는 데 향해 있었음에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내가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아, 이 불행한 놈아! 별들의 흐름이 불행을 몰고 올 때, 그것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맹렬하고 격렬하게 쏟아져 내린다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고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도 미리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저토록 고결하고 사리 분별이 밝으며, 나의 봉사에 보답할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원하는 바를 얻어낼 힘을 가진 저 명망 높은 기사 돈 페르난도가, 아직 소유하지도 못한 양 한 마리를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이토록 독기를 품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이니 이쯤 해 두고, 이제 나의 불행한 이야기라는 끊어진 실타래를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결국 돈 페르난도는 자신의 간악한 속셈을 실행에 옮기려면 제가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떼어놓으려고, 즉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더 잘 꾸미기 위해 꾀를 내어 저를 멀리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로는 말 여섯 마리를 살 돈이 필요

하니 형님을 찾아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제게 아버지와 이야기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로 그날, 그는 말들을 사들인 뒤 저를 돈을 가지러 오게끔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배신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며 기쁜 마음으로 곧 떠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신다를 만나 돈 페르난도와 합의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하고 정당한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굳게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루신다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돈 페르난도의 배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제게 어서 돌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뜻이 결실을 맺는 일은 제 아버님이 그녀의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이나 금방 이루어지리라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었는지,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고 목구멍에는 무언가 걸린 듯 울컥 올라왔습니다. 마치 저에게 전하고 싶은 수많은 말이 더 있었는데도 차마 내뱉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루신다와 저는 운 좋게 만날 때마다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기에, 그녀가 보여준 이 생소한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대화에는 눈물이나 한숨, 질투나 의심, 혹은 두려움 따위는 섞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저에게 내려준 귀한 여인이라는 생각에 저는 늘 제 행운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녀의 용기와 총명함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제게 화답하며, 사랑에 빠진 여인의 눈에 비친 제 모습 중 칭찬할 만한 점들을 치켜세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일어난 온갖 사소한 일들을 수만 가지나 늘어놓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능숙하게 하던 일이라곤,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낮은 창살 틈을 이용해 그녀의 희고 고운 손 하나를 거의 억지로라도 붙잡아 제 입술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야 했던 그 슬픈 날의 전날 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며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가버렸습니다. 루신다에게서 이토록 생경하고 슬픈 고통의 기색을 보게 된 저는 혼란과 충격에 휩싸인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그녀의 깊은 사랑 때문이며, 서로 아끼는 사이에서 이별이 주는 슬픔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국 저는 슬픔과 생각에 잠긴 채 길을 떠났습니다.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상상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과 의구심만을 가득 품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앞에 닥칠 슬픈 운명과 불행을 암시하는 분명한 징조였습니다. 저는 임무를 맡은 곳에 도착하여 돈 페르난도의 형님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환대는 받았으나 대접은 영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기분을 상하게도 여드레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인 공작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공작의 허락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보내달라는 형님의 서신이 있었기에 공작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쟁이 돈 페르난도가 꾸며낸 수작이었습니다. 그의 형님에게는 저를 즉시 돌려보내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이 명령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루신다의 슬픈 모습을 뒤로하고 떠나온 마당에, 그녀 없이 그 긴

시간을 버티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직한 하인답게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제 건강을 해치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고 나흘째 되던 날, 어떤 남자가 편지 한 통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봉투를 보니 루신다의 필체가 분명했기에 그녀가 보낸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과 불안함을 안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편지를 쓰지 않던 그녀가 제가 없는 동안 이런 글을 보냈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지를 읽기 전에 그 남자에게 누가 이 편지를 주었는지, 그리고 오는 길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오 무렵 도시의 어느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창가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급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제여, 당신이 겉보기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하건대 이 편지를 봉투에 적힌 곳과 사람에게 지체 없이 전해주십시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테니, 이 일을 해준다면 우리 주님께 큰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손수건 안에 든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창밖으로 손수건 하나를 던져주었는데, 그 안에는 제가 지금 가져온 이 금반지와 편지, 그리고 100레알이 묶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장 창가에서 사

라졌습니다. 다만 제가 편지와 손수건을 받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몸을 뗐기에, 저는 손짓으로 시키는 대로 하겠노라 알렸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전해드리는 수고에 비해 보상이 아주 넉넉하다는 점을 느꼈고, 봉투에 적힌 수신인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 아름다운 여인의 눈물까지 생각하니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와서 전해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16시간 동안, 아시다시피 18레구아나 되는 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고마워하며 편지를 가져온 새 전령이 이같이 말하는 동안,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편지를 펼쳐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 페르난도가 당신의 아버님께 말씀드려 저희 아버님께 청을 넣게 하겠다던 그 약속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지켜지고 말았습니다. 그대여, 실은 그분이 저를 아내로 달라고 청했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돈 페르난도가 당신보다 나은 혼처라 여기시고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마셨습니다. 그 결심이 어찌나 확고한지, 이틀 뒤면 혼례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하늘과 집안사람 몇 명만이 증인이 될 만큼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심정일지는 짐작하시겠지요. 오시는 것이 좋을지는 그대가 직접 헤아려 보세요. 제가 당신을 진정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이번 일의 결말이 말해줄 것입니다. 부디 이 편지가, 약속한 신의를 지킬 줄도 모르는 자의 손에 제 손이 묶이기 전에 당신의 손에 먼저 닿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요컨대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글을 읽자마자 저는 다른 대답을 기다리거나 돈을 더 챙길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길을 떠났습니다. 돈 페르난도가 저를 그의 형님에게 보낸 것은 말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 페르난도에게 느낀 분노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얻어낸 소중한 연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날아오르듯, 루신다를 만나러 가기에 딱 적당한 때와 시간을 맞춰 다음 날 바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몰래 잠입하여, 편지를 가져다준 선량한 분의 집에 제가 타고 온 노새를 한 마리 묶어 두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곳에서 루신다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녀는 마침 우리의 사랑을 지켜본 그 창살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루신다는 저를 곧바로 알아보았고 저 또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서로를 알아봐야 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인의 복잡한 속마음과 변덕스러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해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루신다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르데니오, 저는 지금 혼례복을 입고 있어요. 배신자 돈 페르난도와 탐욕스러운 저희 아버님이 다른 증인들과 함께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그 증인들은 제 혼례가 아니라 제 죽음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친구여,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다만 이 희생의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만약 저의 이 간곡한 말로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면, 제가 숨겨둔 단검이 더없

이 단호한 힘마저 막아낼 것입니다. 그 단검으로 제 목숨을 끊어,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떠한지를 보여드릴 작정이니까요.'

저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녀에게 대답할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둘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행동이 말과 같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결심을 증명하려 단검을 품었다면, 저는 당신을 지키거나 혹은 운명이 우리를 거스른다면 제 목숨을 끊기 위해 여기 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말을 전부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며 누군가 그녀를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제 슬픔의 밤이 깊게 내려앉고, 제 기쁨의 태양은 저물어 버렸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의 집 안으로 발을 들여야 할지, 아니면 어디론가 몸을 피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니, 어떻게든 용기를 내어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의 출입구를 훤히 꿰뚫고 있었고, 집안이 워낙 소란스러웠던 터라 아무도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들키지 않고 거실 창가에 난 틈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두 폭의 태피스트리가 끝부분을 덮고 있는 자리였는데, 그 사이로 저는 들키지 않으면서도 거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제 심장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는지,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그 누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들이 어찌나 많고 복잡한지, 차마 다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말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저 신랑이 평소 입던 대로 평범한 예복 차림으로 거실에 들어왔다는 사실만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는 루신다의 사촌 형제를 대부로 데려왔고, 거실에는 집안 하인들 외에는 외부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루신다가 어머니와 두 시녀를 데리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미모에 걸맞게 아주 화려하고 정갈하게 꾸민 모습이었는데, 마치 궁정의 우아함과 기품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황홀경에 빠져 그녀가 무엇을 입었는지 자세히 살펴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옷 색깔이 진홍색과 흰색이었다는 것과, 머리 장식과 옷 전체에 박힌 보석과 장신구가 번쩍였다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알아챌 수 있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아름답고 금빛 찬란한 머리카락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거실에 놓인 네 개의 횃불이 내뿜는 빛이나 값비싼 보석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제 눈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아, 나의 안식을 앗아가는 원수 같은 기억이여! 내가 사랑했던 그 적수, 그녀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지금 다시 떠올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잔인한 기억이여, 차라리 그때 그녀가 저지른 일을 내게 상기시켜 주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 명백한 모욕에 분노

하여, 설령 복수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내 목숨이라도 끊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신부님과 이발사님, 제가 이렇게 곁가지로 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제 슬픔은 짧게 요약하거나 대충 넘겨짚으며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그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길게 늘어놓고 이야기할 가치가 충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부님은 대답하기를, 그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들려주는 사소한 이야기들조차 이야기의 핵심만큼이나 주의 깊게 경청하며 무척 즐거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침묵 속에 넘기기에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카르데니오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있을 때, 마을 신부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식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으셨지요. '루신다 양, 여기 계신 돈 페르난도 씨를 성스러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정식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휘장 사이로 머리와 목을 길게 빼고, 요동치는 마음으로 귀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루신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 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에, 그 대답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아, 그때 누군가 당당히 나타나 큰 소리로 외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루신다, 루신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보아라! 나에게 진 빚을 생각하라! 너는 내 사람이지, 결코 다른 사람의 것

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네가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내 목숨도 끝이 날 것이다! 아, 배신자 돈 페르난도, 내 영광을 훔쳐 간 자, 내 생명의 파멸아! 대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노리는 것이냐? 네 욕망을 채우려 해도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끝을 맺을 수는 없을 것이다. 루신다는 내 아내이고, 내가 바로 그녀의 남편이니까!'

아, 미련한 나여! 위험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에야, 그때 하지 못했던 일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있구나!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훔쳐 간 자를 이제야 저주하고 있다니! 내게 원망하는 마음만큼이나 복수할 용기만 있었어도 그놈에게 반드시 갚아주었을 것을! 결국 저는 그때 겁쟁이에 어리석은 자였으니, 이제 와서 이토록 후회와 광기에 휩싸인 채 죽는다 해도 그리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신부님은 루신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신다는 한참 동안 대답을 머뭇거렸지요. 저는 그녀가 절개를 지키려 단검을 빼 들거나, 혹은 제게 도움이 될 진실이나 진심을 밝히려 입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루신다가 힘없고 가냘픈 목소리로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페르난도 역시 똑같이 대답했지요. 신부님이 그들에게 반지를 끼워주자, 두 사람은 결코 풀 수 없는 인연의 매듭으로 묶이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껴안으려 다가갔고, 신부는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어머니의 품으로 쓰러지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제가 들은 그 '네'라는 대답 앞에서 어떤 처지가 되었는지 말씀드려야겠군요. 제 희망은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루신다가 했던 말과

약속은 모두 거짓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되찾을 길은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조언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하늘조차 저를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지탱해주던 이 세상은 저의 적이 되었으며, 한숨을 내쉴 숨결도, 눈물을 적실 물기조차 허락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오직 분노와 질투의 불길만이 더욱 거세게 타올라, 제 온몸을 태워버릴 듯이 일렁일 뿐이었습니다."

"루신다가 정신을 잃자 모두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옷깃을 풀어헤쳤는데, 그때 루신다의 품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돈 페르난도는 즉시 그 종이를 집어 들더니 횃불 하나의 불빛에 비추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은 그는 의자에 앉아 뺨에 손을 얹고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작 정신을 잃은 아내를 깨우기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소란스러워진 것을 보고, 저는 남의 눈에 띄든 말든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저를 본다면, 배신자 돈 페르난도를 벌하는 것이 제 가슴 속 분노를 달래는 정당한 일임을, 그리고 변덕스럽게 정신을 잃은 저 배신녀를 꾸짖는 것 또한 마땅함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여 더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저를 남겨두려는 듯한 제 운명은, 하필 그 순간만큼은 그 후로 줄곧 제게 부족했던 분별력을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장 큰 원수들에게 복수하려 들지 않았습니다(그들은 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기에 복수하기가 아주 쉬웠을 것

입니다). 대신 제 손으로 직접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제 자신에게 내리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리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고통을 금방 끝내주지만, 고통 속에서 길게 이어지는 형벌은 생명을 끊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그 집을 나와 노새를 세워두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주인에게 노새에 안장을 얹게 한 뒤, 작별 인사도 없이 올라타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성경 속 롯처럼, 뒤를 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들키거나 누군가 들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어두운 밤, 적막한 들판에 홀로 남게 되자 저는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루신다와 돈 페르난도를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치 그렇게라도 해야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조금이나마 씻겨 나갈 것 같았습니다. 루신다를 잔인하고, 은혜도 모르고, 거짓되고, 배은망덕한 여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탐욕스러운 여자라고 욕했습니다. 원수의 재산이 그녀의 눈을 멀게 하여, 저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운명이 가장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접해 준 저 남자에게 넘겨주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머물며 늘 순종하는 데 익숙한 처녀가, 그토록 지위 높고 부유하며 품격 있는 기사를 남편으로 맞이하려 한 것이 그리 큰 잘못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녀가 판단력이 없거나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 결국 그녀의 명성과 평판에도 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돌려 이

렇게 외쳤습니다. '그녀가 나를 남편이라고 말했어야 했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남자를 선택했을 리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했어야 했다! 그러니 그녀를 탓하지 마라. 돈 페르난도가 나타나기 전이라도, 그들이 정말로 이성적인 욕망을 가졌다면 내 딸의 남편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강제로 서약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내가 가서 그녀가 꾸며낸 모든 상황을 다 받아주었을 수도 있었단 말이다!'"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품은 사랑이 너무나 얕았고, 분별력 또한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지나친 야망과 높은 지위를 향한 욕심 때문에, 저를 속이고 유혹하며 굳건한 희망과 정직한 열망을 품게 했던 그 약속들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런 울분과 불안을 안은 채 밤이 다 지나가도록 걸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는 산맥의 입구에 다다랐고, 그곳에서부터 길도 없고 발자국도 없는 곳을 사흘 동안 더 헤맸습니다. 그러다 이 산맥의 어느 쪽 방향에 속하는지도 모를 어느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에게 이 산맥에서 가장 험한 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쪽 방향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는 심산으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길을 가던 중, 제 노새가 지치고 배가 고파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노새가 저라는 쓸모없는 짐을 더 이상 짊어지기 싫어서 스스로 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빈손으로 남겨졌습니다. 기력은 다하고 배는 고파서,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허기가 가시면서 몸을 일으켰는데, 제 곁에 염소 치는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저를 구해준 모양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정신을 놓은 게 분명할 정도로 온갖 헛소리와 망언을 늘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나중에 깨닫고 보니, 제가 항상 제정신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성이 너무나 흐릿하고 약해져서, 옷을 갈가리 찢고 이 황량한 들판에서 소리를 지르며 제 운명을 저주하고, 원수의 사랑스러운 이름을 헛되이 되뇌는 등 온갖 미친 짓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저 소리를 지르며 생을 마감하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다 제정신이 돌아오면 몸이 너무나 지치고 만신창이가 되어 움직일 기력조차 없습니다. 저는 주로 이 비참한 몸을 겨우 가릴 수 있는 코르크 참나무 구멍 속에 머물곤 합니다. 이 산맥을 오가는 목동과 염소 치는 사람들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를 돌봐줍니다. 제가 지나갈 만한 길목이나 바위틈에 먹을 것을 놓아두면, 제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때는 제정신이 아닐지라도, 몸의 본능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에, 그것을 먹고 싶다는 욕구와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가끔 제가 제정신일 때 그들이 말하기를, 제가 길가로 나가서, 마을에서 양 우리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목동들이 기꺼이 내어주려 하는데도 그것을 억지로 빼앗곤 한다고 합니다.

하늘이 제 삶을 끝내주시거나, 혹은 루신다의 아름다움과 배신, 그리고 돈 페르난도가 제게 저지른 모욕을 더는 떠올리지 못하도록 제 기억에서 지워주시거나 할 때까지, 저는 이 비참하고 극한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늘이 제 목숨을 거두지 않으면서 기억만 지워주신다면, 저는 다시 이성적인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스스로 빠져든 이 고통스러운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용기도 기력도 없으니, 그저 제 영혼에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할 뿐입니다.

오, 신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불행의 쓰라린 이야기입니다. 이 불행이 과연 여러분이 제게서 보신 것보다 더 적은 슬픔으로 한탄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설득하려 하거나, 여러분의 이성이 제게 도움이 되리라 일러주는 바를 조언하시느라 헛되이 수고하지 마십시오. 약을 먹기 싫어하는 환자에게는 유명한 의사가 처방한 약도 소용이 없는 법이니, 여러분의 조언 또한 제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루신다가 없다면 건강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마땅히 제 사람이 되어야 했음에도 타인의 여자가 되기를 택했다면, 저 또한 행운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행의 길을 걷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녀는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영원한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스스로를 망가뜨림으로써 그녀의 뜻을 이루어 주려 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사람들에게, 불행한 이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위안' 대신, 저처럼 '가질 수 없기에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사례'를 본보기로 보여주겠습니다. 제 고통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카르데니오는 길고도 비참하며, 동시에 애절한 자신의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신부가 그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을 건네려 준비하던 찰나,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

은 그 목소리가 애처로운 어조로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이 이야기의 제4부에서 전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명하고 신중한 역사가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제3부를 마칩니다.

재치 있는 귀족 돈키호테 데 라 만차 제4부

제28장



제28장. 신부와 이발사가 같은 산맥에서 겪게 된, 새롭고도 즐거운 모험에 대하여

라만차의 대담한 기사, 돈키호테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그 시절은 참으로 행복하고 운수 좋은 시대였다. 이미 사라져 가다 못해 거의 죽어버린 편력기사라는 기사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그 영광스러운 결단 덕분에, 즐거운 오락거리가 절실한 오늘날의 우리는 그의 진실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여러 이야기와 에피소드에서도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사실 그 에피소드들은 본편 못지않게 흥미롭고 정교하며 실감 나기까지 하다. 이제 그 뒤틀리고 험난한 이야기의 실타래를 따라가 보자면, 신부가 카르데니오를 위로해주려고 마음을 준비하던 찰나, 슬픈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울부짖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와 그 일을 가로막았다.

"아, 하느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짊어져야만 하는 이 무거운 몸뚱이를 숨겨줄 무덤을, 내가 드디어 찾아낸 것인가? 만약 이 산맥이 약속하는 고독이 거짓이 아니라면, 분명 그럴 것이다. 아, 불행한 여인이여! 이 바위와 잡풀들이 내 목적에 얼마나 좋은 동료가 되어주겠는가. 이곳에서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대신, 하늘을 향해 내 불행을 울부짖을 수 있으니 말이다. 세상에 내 고민을 들어줄 이가 어디 있겠는가? 의심스러울 때 조언을 해줄 사람도, 슬플 때 위로해 줄 사람도, 괴로울 때 해결책을 줄 사람도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데!"

신부와 일행은 이 모든 말을 듣고 상황을 파악했다. 목소리가 근처에서 들려오는 듯했기에 그들은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 나서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스무 걸음도 채 떼기 전, 커다란 바위 뒤편 물 흐르는 시냇가 근처 물푸레나무 아래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청년은 농부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시냇물에 발을 씻느라 고개를 숙

이고 있었기에 당시에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일행은 기척을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조용히 다가갔다. 청년 또한 발을 씻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그 발이 어찌나 희고 깨끗한지 마치 시냇가에 널린 다른 돌들 사이에서 솟아난 두 조각의 하얀 수정 같았다. 그 발의 눈부신 백색과 아름다움에 일행은 넋을 잃었다. 옷차림만 봐서는 흙덩이를 밟거나 쟁기와 소를 몰며 일하는 사람 같았으나, 그 발은 도저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일행이 들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자, 맨 앞에 서 있던 신부는 뒤따르던 두 사람에게 근처 바위 뒤로 몸을 낮춰 숨으라고 손짓했다. 두 사람도 그 신호에 따라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청년이 무엇을 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청년은 갈색 짧은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흰 수건으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있었다. 또한 갈색 천으로 된 바지와 각반을 착용하고 머리에는 갈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각반은 종아리 중간까지 올려져 있었는데, 그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새하얀 설화석고처럼 빛났다. 청년은 아름다운 발을 다 씻고 나서 모자 아래에서 꺼낸 수건으로 발을 닦았다. 그러다 수건을 치우려 고개를 들자, 숨어서 지켜보던 이들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눈부셨기에 카르데니오는 신부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분은 루신다도 아닐 테고, 분명 사람이 아니라 천사일 겁니다."

청년은 모자를 벗더니 고개를 양옆으로 흔들며 머리카락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그 머리카락은 태양조차 시샘할 만큼 눈부셨다. 그 모습

을 본 일행은 농부처럼 보이던 이가 사실은 여인이었음을 깨달았다. 게다가 그녀는 매우 고귀한 분위기를 풍겼으며, 지금까지 두 사람이 본 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다웠다. 카르데니오 역시 루신다를 알기 전이었다면 그녀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카르데니오는 나중에 루신다의 아름다움만이 그녀와 겨룰 만하다고 덧붙였다. 길고 금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은 그녀의 등뿐만 아니라 온몸을 감싸듯 덮고 있었다. 그 머리카락이 어찌나 풍성하고 길던지, 아까 보았던 발을 제외하면 몸의 그 어떤 부분도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때 그녀는 손을 빗처럼 사용하여 머리를 정돈했는데, 시냇물 속의 발이 마치 수정 조각 같았다면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손은 마치 뭉쳐놓은 눈 조각 같았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세 사람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과 경탄하는 마음이 한데 뒤섞여 넋을 잃고 말았다.

세 사람은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움직임을 본 아름다운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눈앞을 가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일행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신발을 신거나 머리카락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곁에 두었던 옷가지 꾸러미를 재빨리 움켜쥐고는 당황한 기색으로 황급히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채 여섯 걸음도 떼기 전, 가냘픈 발이 거친 돌바닥을 견디지 못해 그만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본 세 사람이 그녀에게 달려갔고, 신부가 가장 먼저 말을 건넸다.

"부인,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멈추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저 부인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의 발이 버티지 못할뿐더러, 저희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인은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일행이 그녀에게 다가갔고, 신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부인, 옷차림만 봐서는 도무지 알 수 없으나 그 머리카락이 정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고귀한 아름다움을 품은 분이 어찌하여 이런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이토록 외딴곳까지 흘러 들어오셨는지 그 사정이 예사롭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부인을 만난 것이 부인의 고난을 해결해 드리기 위함이든, 아니면 적어도 조언이라도 해드리기 위함이든, 그것은 분명 행운일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해도, 선의로 건네는 조언조차 거부할 만큼 삶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인, 혹은 귀하라고 불러야 할 분이여, 저희를 보고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부인이 겪고 계신 운명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디 들려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힘을 합쳐 돕거나, 혹은 각자가 힘을 보태어 부인의 슬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가 이와 같은 말을 건네는 동안, 변장한 여인은 마치 넋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일행을 바라보았다. 입술 하나 달싹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마치 평범한 시골 농부가 난생처음 보는 기이한 광경을 마주했을 때와 같았다. 신부가 같은 취지로 다시금 설득하려 하자,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이 산속의 외딴곳조차 저를 숨겨주지 못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마저 제 혀가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군요. 그러니 이제 와 다시 이야기를 꾸며낸들, 설령 여러분이 믿어 주신다 해도 그것은 진실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예의에서 비롯된 것일 테니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베풀어 주신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호의 덕분에 저는 여러분이 청하신 모든 것을 들려드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 불행한 사연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저를 가엾게 여기시는 동시에 마음에 무거운 짐까지 떠안게 되실까 두렵습니다. 제 불행을 풀어 줄 방책도, 달래 줄 위로도 찾지 못하실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미 저를 여자로 알아보셨고, 젊은 처녀가 홀로 이런 옷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 — 그 하나하나가, 또 그 모두가 어떤 정숙한 평판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지요 — 을 보신 이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명예가 의심받은 채로 남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싶은 일까지 모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 이는 막힘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말솜씨는 매우 유창했고 목소리는 또 어찌나 부드러운지, 일행은 그녀의 미모만큼이나 그 영특함에 감탄했다. 신부가 약속을 지켜달라며 다시금 정중히 권하고 간곡히 부탁하자, 여인은 더는 사양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위 있게 신발을 신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넘긴 뒤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세 사람이 그녀를 둘러싸고 앉자, 여인은 눈가에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이 안달루시아에는 어느 공작이 자신의 작위를 따온 고장이 있는데, 그 작위 덕분에 그는 스페인에서 이른바 대귀족이라 불리는 이들 중 한 명이 됩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가문의 영지를, 그리고 보아하니 훌륭한 품성까지 물려받을 상속자였으나, 작은 아들은 벨리요의 배신과 갈라론의 속임수 말고는 무엇을 물려받을지 저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 부모님은 이 공작의 가신입니다. 가문은 미천하나 재산만큼은 매우 풍족하셨지요. 만약 부모님의 타고난 혈통이 그 재산만큼이나 번듯했다면, 부모님께서는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것이고 저 또한 지금처럼 불행한 처지에 놓일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토록 운이 없는 것은, 부모님이 명문가에서 태어나지 못하신 그 불운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신분이 그것을 부끄러워할 만큼 낮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 불행이 그분들의 미천한 출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제 생각을 지워버릴 만큼 높은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평범한 평민이셨지만, 흠잡힐 혈통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흔히 말하는 유서 깊은 순혈 구(舊)그리스도교도이셨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워낙 많고 살림이 워낙 후한 덕분에, 사람들은 부모님을 점차 이달고, 더 나아가 기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가장 큰 재산이자 가문의 영예로 여기신 것은 다름 아닌 저를 딸로 둔 것이었습니다. 달리 물려줄 자식이 저 말고는 없었던 데다, 워낙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분들이셨기에, 저는 세상 어느 부모가 애지중지한 딸보다도 더 귀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들여다보는 거울이요, 노년의 지팡이였으며, 부모님의 모든 소망이 향하는 대상이었으니, 그분들은 그 소망을 늘 하늘의 뜻에 견주어 다스리셨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선하신 분들

이라, 제 소망 또한 그분들의 소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지요.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었던 것처럼, 재산 또한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인들을 들이고 내보내는 일도 제 소관이었고, 무엇을 심고 거둘지에 대한 모든 셈과 장부도 제 손을 거쳤습니다. 기름을 짜는 방앗간과 포도주를 거르는 압착기, 크고 작은 가축의 수와 벌통의 개수까지 말입니다. 요컨대 제 아버님처럼 부유한 농부가 가질 법한 모든 재산을 제가 관리했으니, 저는 그 집안의 집사이자 안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정성껏 맡았고 부모님께서도 워낙 흡족해하셨기에, 그 모습을 차마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관리인과 감독, 그 밖의 일꾼들에게 줄 몫을 다 챙겨 주고 남는 시간에는, 처녀에게 어울리면서도 꼭 필요한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늘과 자수 방석이 주는 일거리, 그리고 자주는 물레질이 그것이었지요. 그러다 기분을 풀고 싶어 이런 일감을 내려놓을 때면, 경건한 책을 읽거나 하프를 켜는 즐거움에 빠지곤 했습니다. 음악이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어 주고 정신에서 비롯된 시름을 덜어준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부모님 댁에서 누리던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시시콜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잘난 척을 하거나 제가 부유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누리던 그 좋은 처지에서 지금의 이 불행한 처지로 떨어진 것이 결코 제 잘못 때문이 아님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그토록 수많은 일에 매달리며, 마치 수도원에 버금갈 만큼 갇혀 지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집안 하인들 외에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지요. 미사에 갈 때도 아주 이른 아침에

어머니와 다른 하녀들을 거느리고 나섰고, 옷차림도 워낙 꽁꽁 싸매고 조신하게 굴었기에 제 눈은 발을 딛는 땅바닥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의 눈, 아니 차라리 게으름의 눈이라 해야 할, 스라소니조차 따를 수 없을 만큼 밝은 그 눈이 저를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작의 작은아들, 페르난도 도련님이 저를 좇으며 던진 눈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던 여인이 페르난도 도련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가 무섭게, 카르데니오의 안색이 변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심상치 않은지, 이를 지켜보던 신부와 이발사는 그가 가끔씩 발작한다는 그 광기가 다시 도진 것은 아닌지 겁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카르데니오는 그저 식은땀을 흘리며 멍하니 앉아, 저 농부 차림의 여인이 대체 누구인지 가늠하듯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여인은 카르데니오의 이런 동요를 알아채지 못한 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그가 나중에 말한 바에 따르면, 그의 눈이 저를 보자마자 그는 저를 향한 사랑에 사로잡히고 말았는데, 그가 보인 온갖 행동이 그 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제 불행 이야기를 어서 끝맺고 싶으니, 페르난도 도련님이 제게 마음을 고백하려고 어떤 공을 들였는지는 입에 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저희 집안 사람들을 죄다 매수했고, 제 친척들에게는 온갖 선물과 호의를 베풀며 환심을 샀습니다. 우리 동네는 날마다 축제와 흥겨움이 넘쳤고, 밤이면 음악 소리에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제 손에 전해지는 연서는 끝이 없었는데, 사랑을 속삭이는 말과 갖은 제안으

로 가득해서, 적힌 글자 수보다 약속과 맹세가 더 많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저를 누그러뜨리기는커녕, 마치 그가 제 철천지원수라도 되는 양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굴복시키려는 그의 모든 노력이 도리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셈이지요. 그렇다고 페르난도 도련님의 기품이 싫었다거나 그의 구애가 지나치다고 여긴 것은 아닙니다. 저토록 지체 높은 기사가 저를 이토록 아끼고 귀히 여겨 준다는 사실에 내심 흐뭇했고, 편지에 적힌 저에 대한 찬사를 읽는 것도 싫지 않았으니까요. 여자가 아무리 못났다 한들, 누군가 자신을 아름답다 불러주는 말을 듣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맞선 것은 저의 정숙함과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페르난도 도련님의 속내를 환히 알고 계셨는데, 이제 그는 온 세상이 그 속내를 알아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오직 딸의 미덕과 선함에만 가문의 명예와 평판을 맡기고 의지한다고 하시며, 저와 페르난도 도련님 사이에 놓인 신분의 격차를 잘 헤아리라고 이르셨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도련님이 겉으로 무어라 말하든 그의 속셈이 저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 도련님이 그 부당한 구애를 단념하게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과 곧바로 혼인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장 명망 있는 집안이든 이웃 마을의 누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저희 집안의 넉넉한 재산과 저의 좋은 평판이라면 무엇이든 바랄 수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의 이런 확실한

약속과 진심 어린 말씀에 힘입어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고, 페르난도 도련님에게는 아주 먼 희망의 기미조차 내비칠 만한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여준 이 모든 조심스러운 태도를 그는 저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오히려 그의 음탕한 욕망을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가 보인 그 마음을 '음탕한 욕망'이라 부르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마땅히 그래야 할 바와 같았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그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그것을 말씀드릴 일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페르난도 도련님은 제 부모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그에게 넘어갈 희망을 꺾으려는 의도였거나, 적어도 제가 스스로를 지킬 방책을 더 갖추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이 새로운 소식, 혹은 그에 대한 의구심이 그로 하여금 지금부터 들려드릴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혹여나 실수로라도 제 정조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저를 모시는 시녀 한 명과 함께 방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조심하고 대비하고 있었음에도, 그 고요하고 폐쇄된 적막 속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또 상상조차 못 한 사이에 그가 제 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를 마주한 순간 저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눈앞이 아득해지고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었으며, 설령 지르려 했더라도 그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곧장 제게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경황이 없던 터라 저항할 힘조차 없었지요. 그러고는

제게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거짓말이 어찌 그리 능수능란하여 마치 진실처럼 들릴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배신자는 눈물로 자신의 말을, 한숨으로 자신의 진심을 그럴듯하게 꾸며 보였습니다. 가련하게도, 이런 일에 익숙지 않았던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홀로, 어찌 된 영문인지 그 수많은 거짓을 사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과 한숨이 저를 움직였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숙한 동정심을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의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 정신을 차린 저는, 생각보다 훨씬 큰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지금 제가 도련님의 품에 안겨 있듯이 사나운 사자의 품에 안겨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 정조를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해야만 그 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짓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되돌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도련님이 팔로 제 몸을 꽉 껴안고 계실지언정, 저는 제 선한 의지로 제 영혼을 굳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도련님이 힘으로 저를 굴복시키려 하신다면, 제 의지가 도련님의 욕망과 얼마나 다른지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도련님의 신하일지는 몰라도 노예는 아닙니다. 도련님의 고귀한 혈통이 저의 비천함을 모욕하거나 업신여길 권리는 결코 없으며, 저 또한 비록 평민이자 농부의 딸일지라도, 영주이자 기사이신 도련님이 스스로를 귀히 여기시는 만큼 제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 도련님의 힘도, 재력도 제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며, 도련님의 감언이설도 저를 속이지 못할 것이고, 도련님의 한숨과 눈물도 제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제 부모님

이 정해주신 남편에게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분의 뜻에 제 뜻을 맞출 것입니다. 설령 제 마음이 흡족하지 않더라도 명예를 지킬 수만 있다면, 도련님이 지금 이토록 힘을 써서 얻으려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말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말을 하는 이유는, 제 정당한 남편이 아닌 사람이 저에게서 그 무엇도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그 불충한 기사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도로테아여—이 불행한 여인의 이름은 도로테아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오직 그것뿐이라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당신의 남편이 되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하늘과, 여기 당신 곁에 있는 이 성모 마리아 상이 이 진실의 증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카르데니오는 그녀의 이름이 도로테아라는 말을 듣고는 다시금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이 사실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끝을 맺을지 지켜보고 싶었기에, 이야기를 끊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하며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테아라 하셨습니까, 부인? 저도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 여인의 불행이 당신의 불행과 맞먹을지도 모르겠군요. 이야기를 계속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을 아프게 하는 만큼이나 놀라게 할 이야기를 들려드릴 날이 올 테니까요."

도로테아는 카르데니오가 하는 말과 그의 기이하고 초라한 옷차림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가 자신의 사정에 대해 아

는 것이 있다면 곧바로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만약 운명이 그녀에게 남겨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한 불행은 결코 닥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르데니오가 대답했습니다. "부인, 만약 제 짐작이 사실이라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를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때를 놓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지금 그것을 아셔야 할 까닭도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도로테아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돈 페르난도가 그 방에 있던 성상을 가져오더니, 우리의 혼약을 맺는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말과 비범한 맹세를 늘어놓으며 제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에게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살피라고, 자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이 일개 평민인 저와 결혼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노하실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제 외모에 눈이 멀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제 미모가 당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만큼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요. 만약 저를 사랑해서 제게 선을 베풀고 싶다면, 차라리 제 신분에 걸맞게 제 운명을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신분 차이가 이토록 큰 결혼은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감정만큼 오래가지도 못하고, 결코 행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 외에도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말을 그에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그가 자신의 뜻을 굽히게 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애초에 값을 치를 생각이 없는 사람이 흥정을 하면서 이런저런 곤란한 조건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 짧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래, 결혼을 통해 비천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올라간 사람이 나뿐이겠는가? 또한 미모,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맹목적인 애정 때문에 자신의 지체에 걸맞지 않은 상대와 짝을 맺은 사람이 돈 페르난도뿐이겠는가? 내가 새로운 세상이나 새로운 관습을 만들 것이 아니라면, 운명이 내게 베푸는 이 명예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그가 보여주는 마음이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동안만 지속될 뿐 금방 식는다 해도 말이다. 어쨌든 나는 신 앞에서 그의 아내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그를 냉대하며 거절한다면, 그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대신 강제로 나를 취하려 들 것이고, 결국 나는 명예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모른다면, 나는 그가 내게 씌울 죄에 맞서 나 자신을 변호할 길조차 없게 될 것이다. 이 기사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요구와 대답들을 저는 순식간에 머릿속으로 굴려 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파멸로 이끄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돈 페르난도의 맹세와 그가 내세운 증인들, 그가 흘린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압도한 그의 태도와 다정함 때문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증명하려는 그토록 많은 몸짓을 마주하니, 저처럼 자유롭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늘의 증인들과 더불어 땅에서도 함께해 줄 증인을 세

우기 위해 하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돈 페르난도는 자신의 맹세를 다시금 거듭 확인하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증인들에 더해 새로운 성인들을 증인으로 불러들였고, 만약 제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천벌을 받겠다며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고, 저를 품에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결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녀마저 방을 나가버리자, 저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니게 되었고, 그는 완전한 배신자이자 거짓 맹세를 한 자가 되었습니다."

"제 불행이 시작된 그날 밤 이후의 날은, 돈 페르난도가 바라던 것만큼 그리 빨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채우고 나면, 그 욕망을 이룬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 페르난도는 저를 떠나려고 서둘렀고, 저를 그곳으로 데려왔던 바로 그 하녀가 머리를 써준 덕분에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거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작별하며, 처음 왔을 때만큼 격렬하거나 열정적이진 않았지만, 자신의 신의를 믿어도 좋으며 그 맹세는 확고하고 진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더욱 굳게 다짐하려는 듯, 손가락에서 값비싼 반지 하나를 빼서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떠났고, 저는 슬픈 것인지 기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 일어난 일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생각에 잠겨,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페르난도를 제 방에 들여보낸 하녀의 배신을 꾸짖을 기운도 없었고, 꾸짖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떠나는 돈 페르난도에게, 제가 이미 그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가 원하는 때에 이 일을 세상에 공표할 때까지는 다른 날 밤에도 같은 길로 오면 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다음 날 밤에 한 번 온 것 말고는 다시 오지 않았고, 한 달이 넘도록 길거리에서도 성당에서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를 찾아 헤매느라 애만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마을에 머물면서도 대부분의 날을 그가 무척 좋아하는 사냥을 하러 다니는 데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날과 그 시간들이 제게 얼마나 불길하고 비참했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돈 페르난도의 신의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하녀가, 그제야 자신의 무엄한 짓을 꾸짖는,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말을 들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왜 시무룩한지 물으시며 거짓말을 지어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눈물을 참고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어야 했던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체면도 무너지고 점잖은 말도 끝나버리고, 인내심이 바닥나 제 은밀한 속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며칠 뒤, 돈 페르난도가 근처의 어느 도시에서 더없이 아름답고 가문도 훌륭한—다만 지참금만으로는 그토록 고귀한 혼사를 바랄 만큼 부유하지는 않은—처녀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이 마을에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루신다라고 했으며, 그들의 약혼식에서 일어난 다른 놀라운 일들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카르데니오는 루신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어깨를 움츠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세우더니, 이내 두 눈에서 눈물샘이 터진 듯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로테아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도로테아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을 때, 제 심장이 얼어붙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향한 분노와 격분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장이라도 거리로 뛰어나가 제가 당한 배신과 기만행위를 온 세상에 떠들며 알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그날 밤 당장 한 가지 일을 실행에 옮기리라 다짐하며 그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차림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옷은 제 아버지의 하인으로 농가에서 목동(zagal)이라 불리며 일하던 한 소년이 제게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에게 제 모든 불행을 털어놓고, 원수가 있다고 들은 그 도시까지 저와 동행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제 무모함을 꾸짖고 제 결심을 나무랐지만, 제가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기 말마따나 세상 끝까지라도 저와 함께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힌 직후, 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인 옷 한 벌과 보석 몇 점, 그리고 약간의 돈을 린넨 베갯잇 속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배신을 저지른 하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인 한 명과 수많은 상념을 동반한 채, 저는 걸어서 도시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어서 도착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저를 날아갈 듯 이끌었습니다. 비록 이미 벌어진 일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돈 페르난도에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직접 따져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반을 걸어 목적지에 도착한 저는 도시로 들어서자마자 루신다의 부모님 댁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제게 알려준 것은 제가 듣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는 루신다의 집 위치는 물론, 도시 전체에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떠들썩했던 그녀의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 돈 페르난도가 루신다와 결혼하여 그녀가 아내가 되겠다는 승낙을 한 그 날 밤, 루신다는 갑자기 심하게 실신하여 쓰러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숨을 쉬게 해주려고 그녀의 옷깃을 풀려던 찰나, 루신다 자신의 필체로 쓰인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자신이 돈 페르난도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카르데니오의 아내이며, 그 사람이 전한 바에 따르면 카르데니오는 바로 그 도시의 아주 지체 높은 신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돈 페르난도에게 결혼을 승낙한 것은 오직 부모님의 명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사실도 밝혀 두었습니다.

요컨대, 그 쪽지에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루신다의 의도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옷 어딘가에서 발견된 단검이 그 사실을 뒷받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돈 페르난도는 루신다가 자신을 조롱하고 우롱하며 업신여겼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실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달려들어, 발견된 바로 그 단검으로 그녀를 찌르려 했습니다.

만약 그녀의 부모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로 찌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페르난도는 곧바로 모습을 감추었고, 루신다는 이튿날에야 실신에서 깨어나 부모님께 자신이 앞서 말한 그 카르데니오의 진정한 아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말입니다. 저는 더 많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카르데니오도 그 결혼식 자리에 있었는데,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녀의 결혼 장면을 보고 절망에 빠져 도시를 떠났고, 떠나기 전에 편지 한 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루신다가 자신에게 입힌 모욕과, 자신은 이제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할 곳으로 떠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도시 전체에 널리 알려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사람들은 연일 이 이야기를 떠들어댔습니다. 특히 루신다가 부모님 댁과 도시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도시 어디를 뒤져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기에, 부모님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망연자실하여 딸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되자 제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돈 페르난도를 만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가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제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라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늘이 그 두 번째 결혼에 이런 장애물을 놓은 것은, 그가 첫 번째 결혼에서 놓쳤던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뜻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으로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의무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려는 하늘의 뜻 말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이미 혐오스러워진 이 삶을 어떻게든 이어가 보려고,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은 채 스스로를 위로하며 헛된 기대를 품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도시에서 돈 페르난도를 찾지 못한 채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제 나이와 차림새를 상세히 적어 저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주겠다는 공고문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함께 온 하인이 저를 부모님 댁에서 데리고 도망쳤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제 명성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가 집을 나간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저와 함께한 자가 누구인지까지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하인은 제 고결한 신뢰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아주 천한 자였는데도 말입니다.

공고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하인과 함께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그 하인은 제게 약속했던 충성심을 의심하며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으려는 두려움을 안고 그날 밤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겹쳐 오고, 한 가지 재앙이 끝나면 더 큰 재앙이 시작된다는 말처럼 제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충직하고 믿음직했던 제 하인이, 이 적막한 황야에 홀로 남겨진 저를 보자 제 아름다움에 홀린 것인지 아니면 본래 품고 있던 간교한 심보 때문인지, 이 황량한 곳이 제게 기회를 줄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도, 저를 존중하지도 않는 파렴치한 태도로 제게 사랑을 구걸하며 덤벼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 모진 말과 정당한 꾸짖음으로 응수하자, 그는 처음으로 이용하려 했던 저를 포기하고는 곧바로 힘으로 저를 제압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의도를 가진 이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늘 보살펴 주시는 하늘의 뜻 덕분에, 저는 제 미약한 힘을 다해 큰 어려움 없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그곳에 내팽개친 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과 피로를 느낄 새도 없이 서둘러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직 이 산속에 숨어들어, 저를 찾는 아버지와 추격자들을 따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속에 들어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한 목동을 만났고, 그가 저를 하인으로 데려가 이 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어느 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줄곧 목동 노릇을 하며, 지금처럼 이 머리카락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들판에서 지내며 몸을 숨기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제가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제 하인이 그랬던 것과 똑같은 불순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생을 한다고 해서 운명이 늘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니기에, 하인을 내팽개쳤던 때처럼 주인을 벼랑 끝이나 구덩이로 밀어 넣을 만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인

과 힘겨루기를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며 실랑이를 벌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를 떠나 이 거친 산속에 다시 몸을 숨기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시 은신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한숨과 눈물로 하늘에 간청하며 제 불행을 가엽게 여겨달라고 빌 수 있는 곳을 말입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날 방도와 도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아무런 죄도 없이 남의 집안과 타지까지 떠들썩하게 만든 이 슬픈 이름이 기억조차 남지 않도록, 이 적막한 황야에서 목숨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빌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29장



제29장. 아름다운 도로테아의 현명함과 그 외 아주 즐겁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겪은 비극의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내뱉은 한숨과 여러분이 들으신 말들, 그리고 제 눈에서 흘러나온 눈물들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 눈물들이 더 넘쳐흘러야 했을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제 불행의 성격을 생각하신다

면, 그 어떤 위로도 헛수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일을 되돌릴 방법은 없으니까요.

다만 여러분께 한 가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꺼이, 그리고 마땅히 해주실 수 있는 일인데, 저를 찾는 이들에게 들킬까 봐 느끼는 이 두려움과 경악을 떨쳐버리고 평생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제게 조언해 주십시오. 부모님께서 저를 무척 사랑하시기에 제가 돌아가면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기대하셨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그분들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수치심이 너무나 큽니다. 차라리 부모님의 얼굴을 영영 뵙지 못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정조를 지키지 못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영원히 스스로를 유배 보내는 편이 낫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의 얼굴은 영혼의 수치심과 슬픔을 여실히 드러내듯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그녀의 불행에 경탄하는 동시에 깊은 측은함을 느꼈습니다. 신부가 그녀를 위로하고 조언해주려 했으나, 그보다 먼저 카르데니오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아가씨는 부유한 클레나르도의 외동딸인 아름다운 도로테아님이시군요."

도로테아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깜짝 놀랐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사람의 행색이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

다. 앞서 카르데니오가 얼마나 초라한 차림을 하고 있었는지는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도로테아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제여, 당신은 대체 누구시기에 저희 아버지의 성함을 알고 계신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지금까지 제 불행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저는," 카르데니오가 대답했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루신다가 자신의 아내라고 불렀던 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불행한 카르데니오입니다. 당신을 지금의 처지로 몰아넣은 그자의 악행 때문에, 지금 당신이 보고 계신 이 꼴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몸은 벌거벗었으며, 인간적인 위로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처지입니다.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정신마저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잠시 동안만 허락해 줄 때에나 겨우 제정신이 돌아오곤 하니까요. 테오도라 부인, 저는 돈 페르난도의 불합리한 행동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며, 루신다가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승낙하는 소리를 들으려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루신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서 발견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불행이 한꺼번에 닥친 것을 견뎌낼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과 인내심을 모두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가 묵던 집 주인에게 편지를 남기며 루신다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이 외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치명적인 원수가 되어버렸기에,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목숨을 거두는 대신 정신을 앗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더군요. 아마도 당신을 만나는 행운을 위해 저를 살려두려는 모

양입니다. 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제가 믿는 대로라면, 우리 두 사람의 재앙 속에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말을 숨겨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루신다는 제 정혼자이기에 돈 페르난도와 결혼할 수 없고, 돈 페르난도 역시 당신의 정혼자이기에 루신다와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가 분명히 밝혔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이 우리의 것을 되찾아 주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아직 살아있으며, 누구에게도 넘어가거나 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터무니없는 망상이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 정도의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부인께 간곡히 청합니다. 부인의 고결한 뜻을 바꾸어 더 나은 운명을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더 나은 운명을 기다리며 제 결심을 굳히겠습니다. 기사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신념을 걸고 맹세하건대, 당신이 돈 페르난도의 아내가 되어 그의 곁에 서는 것을 제 눈으로 볼 때까지 결코 당신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성적인 말로 그가 당신에게 진 빚을 깨닫게 할 수 없다면, 그때는 기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여 그에게 정당하게 결투를 신청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한 그 불의를 근거로 삼아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원한은 잊겠습니다. 당신의 원한을 갚기 위해 이 땅에 달려가는 동안, 제 복수는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카르데니오의 말이 끝나자 도로테아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커다란 호의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몰라, 그의 발에 입을 맞추려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카르데니오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부가 두 사람을 대신해 대답하며 카르데니오의 훌륭한 말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자신을 따라 마을로 가자고 간곡히 권하고 설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부족한 물건들을 채우며 몸을 추스른 뒤, 돈 페르난도를 어떻게 찾아낼지, 혹은 도로테아를 어떻게 부모님께 모셔다드릴지, 아니면 그 외에 무엇이 가장 적절할지를 함께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카르데니오와 도로테아는 감사를 표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내내 가만히 지켜보며 침묵을 지키던 이발사 역시 친절하게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는 신부 못지않은 열의를 보이며, 두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경위와 돈키호테가 미쳐버린 기이한 사연을 간략히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돈키호테를 데려오기 위해 길을 떠난 그의 종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때 카르데니오는 마치 꿈을 꾸는 듯, 돈키호테와 벌였던 싸움이 떠올라 다른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만 그 싸움이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산초 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초는 주인 일행을 원래 두고 왔던 곳에서 찾지 못하자 큰 소리로 그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초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산초는 돈키호테가 어떤 상태였는지 물어보는 이들에게, 돈키호테가 셔츠 차림으로 벌거벗은 채 뼈만 앙상하고 안색은 누렇게 떠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돈키호테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그리워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산초의 말에 따르면, 둘시네아가 이곳을 떠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엘 토보소로 가라고 명령했다는 말을 돈키호테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자신의 아름다운 여주인 앞에 나타나기에 충

분할 만큼 위대한 업적을 쌓기 전까지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대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마땅히 되어야 할 황제는커녕 최소한의 목표인 대주교조차 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어서 그를 이곳에서 데려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해 보자고 산초는 말했습니다.

신부는 산초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그를 이곳에서 데려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돈키호테를 구제할 방법, 적어도 그를 집으로 데려갈 방안에 대해 카르데니오와 도로테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도로테아는 자신이 이발사보다 훨씬 더 실감 나게 가련한 처지의 처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자연스럽게 옷을 차려입을 수 있는 옷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상황을 연기하는 역할을 맡겨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기사도 소설을 아주 많이 읽었기에, 고난에 빠진 처녀들이 떠돌이 기사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어떤 말투를 써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습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어서 바로 실행에 옮깁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운이 우리 편인 모양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리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덕분에 우리 역시 고민하던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게 되었고요."

그러자 도로테아는 베개 밑에서 고급스러운 얇은 천으로 만든 치마 한 벌과 화려한 초록색 천으로 만든 작은 망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에서 목걸이와 다른 보석들도 꺼내어 순식간에 몸을 꾸몄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부유하고 귀한 귀부인 같았습니다. 도로테아는 혹시라도 필요한 일이 생길까 봐 집에서 이런 물건들을 챙겨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쓸 일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자태와 우아함, 그리고 재치 있는 모습에 모두가 크게 감탄했습니다. 또한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으니, 돈 페르난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녀를 놓쳤던 것이라며 모두가 그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산초 판사였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산초는 신부에게 저토록 아름다운 부인은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황량한 곳을 헤매고 다니느냐고 간곡히 물었습니다.

"산초 형제여, 이 아름다운 부인은 말이지."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미코미콘이라는 거대한 왕국의 직계 후계자라네. 지금 자네 주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지. 어떤 나쁜 거인에게 입은 상처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말일세. 자네 주인이 온 세상에 명성이 자자한 훌륭한 기사라는 소문을 듣고, 이 공주님이 멀리 기니에서부터 찾아온 것이라네."

"찾으시는 분을 만났으니 참으로 다행이고, 또 참으로 운이 좋은 만남입니다!" 산초 판사가 이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 주인님이 신부님 말씀대로 그 빌어먹을 거인을 죽여서, 그놈이 저지른 억울한 일과 상처를 다 해결해 주고 바로잡아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우리

주인님은 그놈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죽여버릴 분입니다. 그놈이 유령만 아니라면 말이지요. 유령을 상대로는 우리 주인님도 속수무책이니까요. 그런데 신부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걱정은 우리 주인님이 대주교가 되고 싶어 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 신부님께서 주인님께 이 공주님과 얼른 결혼하라고 권해주십시오. 그래야 주인님이 대주교 서품을 받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손쉽게 자신의 제국을 차지하게 되며, 저 또한 소원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따져보니 주인님이 대주교가 되는 건 저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을 해서 교회 일에는 소질이 없거든요. 제가 아내와 자식도 있는 처지에, 교회에서 돈을 벌려고 면제권 같은 걸 받으러 다니려면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신부님, 핵심은 우리 주인님이 이 부인과 얼른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분의 성함도 몰라서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있네요."

"미코미콘 공주라고 부르면 된다네."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왕국 이름이 미코미콘이니, 당연히 이름도 그렇게 불러야 하지 않겠나."

"그건 의심할 여지도 없지요."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태어난 곳의 이름을 성이나 가문 이름처럼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페드로 데 알칼라, 후안 데 우베다, 디에고 데 바야돌리드 같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기니에서도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왕들도 자기 왕국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신부가 말했습니다. "자네 주인님이 결혼하는 일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도와줌세."

산초는 무척 기뻐했고, 신부는 그의 단순함에 감탄했습니다. 신부는 산초가 주인과 똑같은 엉뚱한 망상을 얼마나 확고하게 품고 있는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초는 자기 주인이 장차 황제가 될 것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도로테아가 신부의 노새 위에 올라탔고, 이발사는 소꼬리로 만든 가짜 수염을 얼굴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산초에게 돈키호테가 있는 곳까지 길을 안내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면서 산초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었는데, 바로 법학사(신부)나 이발사를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초의 주인이 장차 황제가 되려면, 그가 이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모든 속임수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부와 카르데니오는 둘 다 그들과 동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르데니오는 돈키호테가 자신과 싸웠던 일을 떠올릴까 봐 가지 않았고, 신부는 지금 당장은 자신이 함께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산초 일행을 앞세워 보냈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서 천천히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신부는 도로테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도로테아는 기사도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요구하거나 묘사된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해낼 테니 걱정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4분의 3레구아쯤 갔을까요? 얽히고설킨 바위틈 사이로 돈키호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갑옷은 입지 않았지만 옷은 이미 갖

춰 입은 상태였습니다. 도로테아는 그를 보자마자, 그리고 산초로부터 그가 돈키호테라는 말을 듣고는, 곧장 자신의 말에 채찍질을 가해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염이 잘 다듬어진 이발사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돈키호테에게 다다르자 산초는 노새에서 뛰어내려 도로테아를 품에 안으려 다가갔습니다. 도로테아는 아주 능숙하게 말에서 내려 돈키호테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키호테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애를 썼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넸습니다.

"오, 용맹하고 기백 넘치는 기사님이시여! 당신의 너그러움과 예우가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저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 은총은 기사님의 명예와 위신을 드높일 것이며, 태양 아래서 가장 비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이 처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기사님의 강인한 팔뚝이 그 불멸의 명성에 걸맞은 용기를 지녔다면, 기사님의 명성을 듣고 불행을 구제받고자 이 먼 땅에서 찾아온 이 가련한 여인을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시여, 당신의 말씀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땅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당신의 사연에 대해 더는 듣지도 않겠습니다."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기사님." 비통해하는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의 너그러운 예우로 제가 청하는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시기 전까지는요."

"그 은총을 당신에게 허락하고 베풀겠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 일이 나의 국왕과 조국, 그리고 내 마음과 자유의 열

쇠를 쥐고 있는 그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말입니다."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에게 조금의 해나 손해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비통해하는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산초 판사가 주인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기사님, 청하신 대로 허락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그저 거대한 거인 하나만 물리치면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청하는 분은 에티오피아의 거대한 미코미콘 왕국을 다스리는 고귀한 공주, 미코미코나 님입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소."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서약한 바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내 양심이 명하는 바를 행할 것이오."

그러고는 다시 처녀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귀하께서는 이제 그만 일어나 주십시오. 귀하께서 무엇을 청하시든 기꺼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그토록 관대한 귀하께서 지금 즉시 저와 함께 제가 이끄는 곳으로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신의 법과 인간의 도리를 모두 저버린 채 제 왕국을 찬탈한 저 배신자에게 복수를 해줄 때까지는, 그 어떤 모험이나 사건에도 끼어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부인, 그러니 오늘부터는 귀하를 괴롭히는 우울함을 떨쳐버리십시오. 기운을 잃은 희망에 다시금 활력과 힘을 불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과 저의 힘을 빌린다면, 귀하를 방해하려는 자들이 아무리 발악하더라도 머지않아 반드시 왕국을 되찾고 예전의 위대한 지위에 다시 앉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야 합니다. 지체하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도움이 절실했던 처녀는 그의 손에 입을 맞추려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절제할 줄 알고 예의 바른 기사였던 돈키호테는 끝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아주 정중하고 품위 있게 안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산초에게 로시난테의 안장을 점검하고 즉시 무장을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산초는 전리품처럼 나무에 걸려 있던 무기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어 안장을 챙겨 주인에게 순식간에 무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무장을 마친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고귀한 부인을 돕기 위해 여기서 떠납시다."

이발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그는 웃음을 참느라, 그리고 수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느라 무척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만약 수염이라도 떨어졌다면, 아마도 그들의 선한 의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이발사는 돈키호테가 이미 허락을 내렸고, 그를 돕기 위해 부지런히 채비를 갖추는 모습을 보고서야 자리에

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 부인을 붙잡아 두 사람이 함께 그녀를 노새에 태워 주었습니다. 이어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에 올라탔고, 이발사도 자신의 말에 올라탔습니다. 산초는 땅에 남았는데, 그러자 아까 잃어버린 회색 나귀가 다시금 간절히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초는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주인이 이제 막 길을 떠나려 하고, 머지않아 황제가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주인이 저 공주와 결혼하여, 적어도 미코미콘의 왕이라도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그 왕국이 흑인들의 땅이라 백성들이 모두 흑인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초는 곧 상상력을 발휘해 훌륭한 해결책을 찾아내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흑인이면 뭐 어때? 그냥 그들을 짊어지고 스페인으로 데려가서 팔아버리면 그만이지. 거기서라면 현찰로 바로 받을 수 있을 테니, 그 돈으로 평생 편히 먹고살 수 있는 작위나 관직을 살 수도 있을 거야! 아니, 잠이나 자라지, 이 멍청한 놈아! 상황을 판단하고 만 명이나 삼만 명의 백성을 눈 깜짝할 새에 팔아치울 머리도, 재주도 없느냐! 하나님께 맹세코, 작은 놈이든 큰 놈이든 어떻게든 다 팔아 치워서, 흑인이든 뭐든 하얗거나 노랗게 만들어 버리고 말 테다. 내가 무슨 손가락이나 빠는 어수룩한 갓난애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니 산초는 마음이 무척 들떠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덕분에 땅을 딛고 걸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카르데니오와 신부는 덤불 사이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합류할 수 있을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잔꾀가 뛰어난 신부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곧 머리를 굴렸습니다. 신부는 가지고 있던 통에 든 가위를 꺼내더니, 아주 재빠르게 카르데니오의 수염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갈색 짧은 겉옷을 카르데니오에게 입히고 검은색 짧은 망토까지 둘러 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신부 자신은 반바지와 저고리 차림만 남게 되었습니다. 카르데니오의 변장한 모습은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서, 설령 거울을 본다 해도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변장하는 동안 다른 일행은 이미 앞서 나아간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어렵지 않게 그들보다 먼저 대로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잡풀과 험한 길 때문에 말을 탄 이들이 걸어가는 이들만큼 빨리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산맥을 벗어나 평지에 자리를 잡았고, 돈키호테와 일행이 산을 빠져나오자 신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듯한 기색을 보이며 천천히 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한참 동안 그를 지켜보던 신부는 팔을 활짝 벌리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기사도의 거울이자, 나의 친애하는 동포인 라만차의 돈키호테 님을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고귀함의 꽃이자 정수이시며, 궁핍한 이들의 안식처이자 구원자이시며, 편력 기사들의 정수이신 분이여!"

이렇게 외치며 신부는 돈키호테의 왼쪽 다리 무릎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돈키호테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과 저 남자가 하는 말, 그리고 행동에 깜짝 놀라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가 신부임을 알아보고는, 그를 보고 놀란 채 말에서 내려오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자,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제가 말 위에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신부님처럼 존경받는 분께서 땅을 딛고 서 계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합니다."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위대하신 분께서는 계속 말 위에 계십시오. 말 위에 계셔야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과 모험을 완성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제가 부족한 사제일지라도, 귀하와 함께 길을 가는 저 양반들이 언짢아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그분들의 노새 중 한 마리 궁둥이에 올라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치 페가수스라는 명마에 올라탄 기사가 된 기분이거나, 아니면 저 유명한 무어인 무사라케가 타고 다녔다는 얼룩말이나 알파나라는 준마에 올라탄 기분이라도 내겠습니다. 그 무어인은 지금까지도 큰 콤플루토에서 멀지 않은 줄레마의 가파른 언덕에 마법에 걸린 채 누워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군이신 공주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시어, 종자에게 명령하여 신부님께 자기 노새의 안장을 내어드리도

록 하실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는, 그 노새가 견뎌만 준다면, 노새 궁둥이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노새가 충분히 견뎌 줄 것 같습니다."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제 종자에게 굳이 명령할 필요도 없을 것 같군요. 그는 워낙 예의 바르고 정중한 사람이라, 성직자께서 말에 오르실 수 있는데도 걸어가시게 두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발사는 곧바로 말에서 내려 신부에게 안장을 권했고, 신부도 별로 사양하지 않고 안장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발사가 노새의 궁둥이 쪽으로 올라타려던 찰나, 사실 빌려 온 것이라—형편없는 놈이라는 말은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요—그 노새가 뒷다리를 슬쩍 들더니 허공에 발길질을 두어 번 해댄 것입니다. 만약 그 발길질이 니콜라스 선생의 가슴이나 머리에 정통으로 꽂혔다면, 그는 돈키호테 때문에 나선 이 길을 두고두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발길질에 어찌나 놀랐는지 이발사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고, 가짜 수염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어 그만 수염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수염이 없어진 것을 깨달은 이발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금니가 다 부러졌다고 우는 것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쓰러진 종자의 얼굴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턱뼈도 피도 없이 뭉텅이로 굴러다니는 그 수염 뭉치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신이시여!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마치 일부러 뽑아버린 것처럼, 수염이 얼굴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발한 속임수가 탄로 날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신부는 곧장 수염 뭉치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비명을 질러대며 쓰러져 있는 니콜라스 선생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자기 가슴팍에 바짝 끌어당긴 채 단번에 수염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수염을 붙이는 데 아주 효험이 있는 주문이라며, 곧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듯 그 위로 몇 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수염을 다 붙인 신부가 물러나자, 종자는 이전처럼 아주 말끔하고 멀쩡하게 수염이 돋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돈키호테는 몹시 놀라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그 주문을 가르쳐 달라고 신부에게 청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 주문의 효능이 단순히 수염을 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염이 통째로 뽑혀 나갔다면 당연히 살점이 상하고 엉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말끔히 낫게 하는 것을 보니 수염을 붙이는 것 이상의 능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부가 대답하며, 조만간 꼭 그 주문을 가르쳐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우선 신부가 올라타기로 하고, 두 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여관에 도착할 때까지 조금씩 거리를 두며 이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돈키호테와 공주, 그리고 신부는 말을 타고, 카르데니오와 이발사, 산초 판사는 땅을 밟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세 사람이 말을 타고 출발하자, 돈키호테가 그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고귀하신 공주님, 부디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법학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공주님께서는 대체 어느 나라로 저를 인도하시려는 겁니까? 혹시 미코미콘 왕국으로 가시려는 것 아닙니까? 분명 그곳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왕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셈이겠지요."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던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 주인님. 제 길은 바로 그 왕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신부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한복판을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귀하께서는 카르타헤나로 가는 길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운 좋게 배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바람이 순조롭고 바다가 잔잔하며 폭풍우만 없다면, 채 9년도 안 되어 거대한 메오나 호수, 아니, 제 말은 메오티스 호수 말입니다. 귀하의 위엄 넘치는 왕국에서 백 일 길을 조금 더 가다 보면 나오는 그 호수를 눈앞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 주인님,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곳을 떠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지만, 정말이지 항해 내내 한 번도 좋은 날씨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 와중에 간절히 바라던 일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라만차의 돈키호테 경을 뵙게 된 것이지요. 스페인 땅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분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에 이끌려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품격 있는 친절에 저를 맡기고,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용맹한 팔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믿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저에 대한 찬양은 이제 멈춰 주십시오."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종류의 아첨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요. 비록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첨은 아닐지라도, 이런 이야기는 제 정결한 귀에 거슬릴 뿐입니다. 부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게 용기가 있든 없든, 그 있고 없는 용기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오직 부인을 위해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저 법학사 나리께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근방까지 이토록 혼자서, 종자 하나 없이, 또 이리도 가벼운 차림으로 오게 되셨는지요? 그 모습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 질문에는 짧게 답하겠습니다."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돈키호테 경, 아시다시피 저와 우리 친구이자 이발사인 니콜라스 선생은 세비야로 가는 길이었지요. 아주 오래전에 인디아스로 건너간 제 친척이 보내준 돈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검증된 페소로 6만 페소는 족히 넘는 큰돈이니, 이만하면 대단하지요. 그런데 어제 이 근방을 지나는데 강도 네 명이 우리를 덮친 겁니다. 그놈들이 수염까지 몽땅 털어갔지 뭡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털렸는지 이발사 선생은 가짜 수염을 붙여야 할 정도였고, 여기 있는 이 청년도—카르데니오를 가리키며—새사람처럼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게다가 우스운 것은, 이 일대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에 따르면 우리를 턴 그놈들이 바로 얼마 전 거의 이 근처에서 풀려난 갤리선 죄수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용맹한 사내가 관리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그 죄수들을 모조리 풀어줬다고 하더군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사내는 제정신이 아니거나, 죄수들만큼이나 지독한 악당이거나, 혹은 양심도 영혼도 없는 인간임이 틀림없습니다. 양 떼 사이에 늑대를, 닭장 속에 여우를, 꿀단지 속에 파리를 풀어놓으려 한 셈이니 말입니다. 정당한 법을 농락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국왕 폐하께 맞서 그분의 정당한 명령을 거스른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자는 갤리선에서 노 젓는 죄수들을 빼내고, 오랜 세월 잠잠하던 성스러운 형제단(산타 에르만다드)을 발칵 뒤집어 놓았으며, 결국 자기 영혼은 잃고 육신도 득 볼 것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산초 판사가 신부와 이발사에게 갤리선 죄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인께서 그들을 구해주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말입니다. 신부는 돈키호테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피려고, 그 이야기를 더욱 힘주어 늘어놓았습니다. 돈키호테는 이야기가 이어질 때마다 얼굴색이 변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자신이 바로 그 선량한 사람들을 풀어준 구원자였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바로 우리를 털어간 놈들입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그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그자는, 부디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기를 빌어야 할 겁니다."

제30장



제30장. 사랑에 빠진 우리 기사가 스스로 자처한 그 혹독하기 그지 없는 고행에서 벗어나도록, 재치 있는 계략과 방책을 동원하여 그를 구해낸 이야기에 대하여

신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산초가 말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신부님. 그런 일을 저지른 건 제 주인님이에요. 제가 미리 말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는 짓을 잘 보라고, 저놈들은 다 흉악한 악당들이라 풀어주면 죄가 된다고 그렇게 경고했단 말입니다."

"무지한 놈!"

그때 돈키호테가 소리쳤다.

"편력기사에게는 길 위에서 만난 고통받고, 사슬에 묶이고, 억압받는 자들이 제 잘못 때문에 저런 처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은총을 입어 저런 고난을 겪는 것인지 따져 물을 권한도 의무도 없다! 기사는 오직 그들의 악행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여, 궁핍한 이들을 도와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나는 그저 불행하고 처량한 무리를 만났을 뿐이고, 내 신념이 명하는 대로 그들을 대했을 뿐이다. 그 뒤의 일은 그들의 사정에 맡기면 될 일이다. 만약 신부님께서 이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신부님의 거룩한 품위와 고결한 인격만은 별도로 존중하겠으나, 기사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며 후레자식에 천하게 태어난 놈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고 계신 것이라 말하겠다. 이 일은 내 칼로 깨닫게 해 주겠다. 그 자세한 사연인즉 칼끝에 더 길게 담겨 있느니라."

돈키호테는 등자를 굳게 딛고 서서 투구를 눌러썼다. 그가 맘브리노의 투구라 우기던 이발사의 양은 냄비는, 죄수들이 험하게 다뤄 망가뜨린 것을 손볼 때까지 안장 앞가지에 매달아 둔 까닭에, 대신 모리온 투구를 쓴 것이었다.

도로테아는 영리하고도 자태가 매우 우아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돈키호테의 성미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리고 산초 판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돈키호테가 몹시 화가 난 것을 본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기사님, 제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 약속에 따라 기사님께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모험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만약 신부님께서 저 무적의 팔 덕분에 죄수들이 풀려났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기사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말을 내뱉은 것을 후회하며 스스로 입을 꿰매거나 혀를 세 번이나 깨물며 자책하실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맹세하겠습니다." 신부가 말했다. "콧수염이라도 뽑았을 겁니다."

"부인,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미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른 이 정당한 분노를 억누르고,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조용히 평온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그 선한 뜻에 대한 보답으로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부디 괜찮으시다면, 부인께서 겪고 계신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마땅히 완벽하고 철저하게 복수를 해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디 제 슬픈 사연을 듣는 것이 괴롭지 않으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테아가 대답했다.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부인."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자 도로테아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도로테아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카르데니오와 이발사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앉았다. 재치 넘치는 도로테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꾸며낼지 무척 궁금했기 때문이다. 산초 역시 주인만큼이나 그녀의 말에 속아 넘어가 똑같이 곁으로 다가갔다. 도로테아는 의자에 몸을 바짝 붙여 앉은 뒤, 헛기침을 하고 여러 몸짓을 섞어가며 준비를 마쳤다. 그러고는 아주 능청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도로테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신부가 지어준 이름을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부는 그녀가 무엇을 망설이는지 눈치채고는 얼른 도움을 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인, 고귀하신 분께서 불행한 사연을 말씀하시느라 마음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불행이란 원래 워낙 기가 막힌 법이라, 그 일을 겪는 이들의 정신을 빼놓아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지금 고귀하신 분께서도 미코미콘 왕국의 정당한 후계자인 미코미코나 공주라는 이름을 잠시 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짚어 드렸으니, 이제 고귀하신 분께서는 상

처 입은 기억을 더듬어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쉽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소녀가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따로 적어둘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저절로 술술 풀릴 테니까요. 제 아버지인 티나크리오 현자 왕께서는 이른바 마법이라 불리는 학문에 매우 정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지식으로 어머니인 자라미야 왕비께서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며, 머지않아 자신 또한 이 세상을 떠나 저를 부모 없는 고아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보다 더 혼란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확실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셨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왕국과 거의 맞닿아 있는 거대한 섬을 다스리는 엄청난 거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거인의 이름은 '포스카비스타의 판다필란도'입니다. 그가 눈이 제대로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시처럼 항상 거꾸로 쳐다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악을 심어주려는 악의적인 의도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지요. 아버지는 이 거인이 저의 고아 신세를 알게 되면 막강한 권력으로 우리 왕국을 침범해, 제가 몸을 피할 작은 마을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셨습니다. 다만 제가 그와 결혼한다면 이 모든 파멸과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셨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격에 맞지 않는 결혼을 할 마음이 추호도 없을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참된 사실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거인과 결혼할 생각은커녕, 아무리 거대하고 무도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누구와도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요. 또한 아버지는 말씀하

셨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 판다필란도가 우리 왕국을 침범하기 시작할 때, 저를 지키겠다고 나서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저를 파멸로 몰아넣는 일일 뿐이니까요. 차라리 저의 충성스럽고 선량한 백성들이 죽거나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거인이 왕국을 마음 편히 차지하도록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거인의 악마 같은 힘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버지는 제가 곧 몇몇 사람을 데리고 스페인 땅으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 불행을 해결해 줄 방도를 찾게 될 텐데, 바로 지금 이 나라 전체에 명성이 자자한 어느 편력기사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기사의 이름은 돈 아소테 혹은 돈 히고테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부인, 그분은 아마 돈키호테라고 하실 겁니다." 이때 산초 판사가 끼어들며 말했다.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슬픈 모습의 기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정말 그렇군요." 도로테아가 말했다. "아버지는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 기사는 키가 크고 얼굴은 수척하며, 왼쪽 어깨 아래 오른쪽 옆구리쯤에 빳빳한 털이 섞인 갈색 점이 하나 있다고 말이지요."

이 말을 들은 돈키호테가 종자에게 말했다.

"자, 여기 있거라, 산초야. 얘야, 내가 옷을 벗을 수 있게 좀 도와다오. 그 현명한 왕이 예언했던 기사가 바로 나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왜 옷을 벗으려 하시는 건가요?" 도로테아가 물었다.

"당신의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점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옷까지 벗으실 필요는 없어요." 산초가 말했다. "어르신 등 한가운데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주 힘센 사내라는 증표랍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도로테아가 말했다. "친구 사이에는 사소한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요. 점이 어깨에 있든 등 한가운데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죠. 어디에 있든 결국 다 같은 몸인걸요. 우리 아버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돈키호테 어르신께 제 운명을 맡기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은 바로 이 기사님 같은 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을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는 표식은 명성에도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어르신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라만차 전역에서도 명성이 자자하시잖아요. 제가 오수나에 막 도착했을 때도 어르신의 무용담을 워낙 많이 들었던 터라, 제가 찾던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부인, 오수나에 어떻게 도착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곳은 바닷가 항구도 아닌데 말입니다." 돈키호테가 물었다.

하지만 도로테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신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공주님 말씀은 말라가에 상륙하신 뒤, 부인에 관한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곳이 오수나라는 뜻일 겁니다."

"제 뜻이 바로 그거였어요." 도로테아가 말했다.

"그 말도 이치에 맞는군요." 신부가 말했다. "공주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할 필요도 없어요." 도로테아가 대답했다. "결국 운 좋게 돈키호테 님을 만난 덕분에, 저는 이미 제 모든 왕국의 여왕이자 주인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거든요. 돈키호테 님이 워낙 예의 바르고 관대하신 분이라, 제가 어디로 가든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곳은 다름 아닌, 저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주기 위해 저를 판다필란도 데 라 포스카 비스타 앞에 데려다 놓을 곳이지요. 이 모든 일은 제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제 부친이자 현자이신 티나크리오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읽을 줄 모르는 칼데아 문자나 그리스 문자로도 그 내용을 남겨 두셨지요. 예언 속의 이 기사가 거인을 베고 난 뒤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저 또한 아무런 이의 없이 즉시 그의 정당한 아내가 되어 제 자신은 물론 제 왕국까지 모두 그에게 바치라는 내용이었답니다."

"이보게, 산초 친구.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 대목에서 돈키호테가 말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리지 않는가?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보게나, 이제 우리가 다스릴 왕국도 생겼고, 함께 혼인할 여왕도 생기지 않았는가!"

"저도 맹세코 한마디 하겠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판다필란도 나리의 멱을 따고도 결혼을 안 하는 놈이 있다면 그놈은 천하의 못난 놈입니다! 아니, 저 여왕님이 무슨 흠이라도 있답니까! 제 침대 벼룩들이 저한테 저 여왕님 절반만큼만 잘해 줘도 좋겠네요!"

이렇게 말한 산초는 아주 기쁘다는 듯 허공에 대고 발을 두 번이나 쾅쾅 굴렀다. 그러고는 도로테아의 노새 고삐를 붙잡아 멈춰 세우더니,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는 손을 내밀어 입을 맞추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를 자신의 여왕이자 주군으로 모시겠다는 표시였다. 주인은 미쳐 날뛰고 종은 어수룩하기 짝이 없으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들 중 누가 웃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실제로 도로테아는 산초에게 손을 내주며, 하늘이 도와 자신에게 왕국을 물려줄 만큼 복을 내려준다면 그곳에서 산초를 위대한 귀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산초는 이에 대해 어찌나 호들갑을 떨며 고마워했는지, 구경하던 사람들의 웃음보가 다시 한번 터지고 말았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도로테아가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 왕국에서 데려온 수행원 중 지금 제 곁에 남은 사람은 이 수염이 멋진 종자뿐입니다. 항구가 눈앞에 보일 무렵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다른 이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거든요. 저와 이 종자는 기적처럼 나무 판자 두 개에 의지해 간신히 육지로 올라왔답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제 삶의 이야기는 이처럼 온통 기적과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여 제 이야기가 너무 과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 학사

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 주십시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과 시련은 겪는 이의 기억력을 앗아가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오, 고귀하고 용맹하신 여왕님! 제가 당신을 모시는 동안 겪게 될 시련이 아무리 거대하고 전례 없는 것이라 해도, 결코 저의 기억력을 앗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니 당신께 약속한 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맹세하건대, 저는 당신을 따라 세상 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제 팔의 힘을 빌려, 당신의 사나운 원수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아, 히네스 데 파사몬테 그놈 때문에 잃어버린 제 좋은 칼 대신, 이 칼날로 그 오만한놈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겠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낮게 읊조리듯 말하더니, 이어서 말을 계속했다.

"그놈의 목을 베어 넘기고 당신의 나라를 평화롭게 되찾아 드린 뒤에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마음껏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이 사로잡혀 있고, 제 의지가 붙들려 있으며, 제 이성마저 빼앗긴 채 온통 그분께…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한 저는 설령 불사조와 결혼하라 해도 결코 결혼할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내뱉은 마지막 말이 산초에게는 너무나도 불쾌하게 들렸다. 그래서 산초는 몹시 화가 난 나머지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다.

"맹세코 말씀드리건대, 돈키호테 나리, 나리께서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토록 고귀한 공주님과 결혼하는 일을 망설이실 수 있단 말입니까?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이런 행운이 굴러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설마 제 주인님인 둘시네아께서 이분보다 더 아름다우시단 말씀입니까? 천만에요, 절반도 안 됩니다. 아니, 눈앞에 계신 이분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해야겠군요. 나리께서 이렇게 엉뚱한 데서 헛수고만 하고 계신다면, 제가 바라는 백작 작위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에잇, 그냥 당장 결혼해 버리십시오! 사탄이 나리를 데려가든 말든 상관없으니, 눈앞에 굴러들어온 저 왕국을 어서 차지하시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되시면 저를 후작이나 총독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뭐, 나중에 악마가 다 쓸어 가버린다 해도 말입니다!"

자신의 귀부인 둘시네아를 모욕하는 그런 망발을 들은 돈키호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산초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찍소리 한마디 내뱉을 틈도 주지 않은 채 창을 치켜들더니, 산초를 땅바닥에 나동그라지게 만들 정도로 두 차례나 세게 내리쳤다. 만약 도로테아가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소리치며 말리지 않았더라면, 돈키호테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산초의 목숨을 앗아갔을 것이다.

"이 비열한 놈아," 잠시 후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네놈은 언제나 나를 우습게 보고 네 멋대로 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네가 잘못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줘야 한다고 믿는 거냐? 꿈도 꾸지 마라, 이 정신 나간 악당 놈아! 감히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를 모욕하다니, 네놈은 분명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이 미천한 놈아, 독사 같은 혓바닥을 놀리는 놈아, 너는 모르느냐? 그녀가 내 팔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았다

면, 나는 벼룩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것이다! 말해 보아라, 이 간사한 놈아! 이 왕국을 차지하고, 저 거인의 목을 베어, 너를 후작으로 만들어 줄 이 모든 일이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둘시네아의 용기 덕분이다! 그녀가 내 팔을 자신의 업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준 덕분이란 말이다! 그녀가 내 안에서 싸우고, 내 안에서 승리하며, 나는 그녀 덕분에 살고 숨을 쉬며, 그녀 덕분에 존재한다! 오, 이 천하의 나쁜 놈아, 어찌 이리도 은혜를 모른단 말이냐! 땅바닥에서 일어난 네놈을 작위 있는 귀족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은혜를 베푼 이를 모욕하는 것으로 보답을 하다니!"

산초는 주인이 퍼붓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산초는 서둘러 몸을 일으키더니 도로테아의 말 뒤로 가서 숨었고, 그곳에서 주인을 향해 말했다.

"주인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만약 주인님께서 이 위대한 공주님과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 왕국은 분명 주인님의 것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불평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이 여왕님과 한 번쯤은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저희의 귀하신 둘시네아 님께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세상에는 정부를 둔 왕들도 있었던 법이니까요. 미모에 대해서는 제가 참견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미모를 논하자면, 제가 둘시네아 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두 분 다 참 아름다우실 것 같거든요."

"아니, 못 봤다니? 이 배신자 같으니, 신성모독을 일삼는 놈 같으니라고!" 돈키호테가 소리쳤다. "방금 그녀가 보낸 전갈을 내게 가져오지 않았느냐?"

"제 말은, 그분을 그렇게 느긋하게 뜯어보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래서 그분의 미모며 좋은 점이 하나하나 어떠한지 따져볼 정도는 아니었지만, 대충 보기에도 참 아름다우신 것 같다는 말이지요."

"이제야 네가 용서되는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화를 낸 것을 부디 용서해라. 처음 욱하는 마음은 사람의 뜻대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말이다."

"그렇고말고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 입장에서도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입안에 맴도는 말을 딱 한 번만이라도 내뱉지 않고는 못 배기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야, 말조심을 해라. 물항아리도 우물에 너무 자주 가다 보면 끝내 깨지고 마는 법이니까……. 더는 말하지 않으마."

"자, 그렇다면," 산초가 대답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함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그분이 판단하시겠지요. 제가 말을 제대로 못 한 죄인지, 아니면 나으리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죄인지 말입니다."

"더는 말하지 마세요." 도로테아가 말했다. "산초, 어서 가서 주인님의 손에 입을 맞추며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엘 토보소의 그 귀부인을 험담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기꺼이 그분을 섬길 마음이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왕자처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생길 테니까요."

산초는 고개를 떨군 채 주인님의 손에 입을 맞추며 용서를 구했다. 돈키호테는 침착하고 의연하게 손을 내주었다. 산초가 손에 입을 맞추자, 돈키호테는 그에게 축복을 내렸다. 그러고는 산초에게 조금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다. 물어볼 것도 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초가 그 말대로 하자 두 사람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가 온 뒤로, 네가 다녀온 심부름의 상세한 내용과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물어볼 틈이 전혀 없었구나. 이제 운 좋게도 시간과 장소가 마련되었으니, 이 기쁜 소식으로 내게 행운을 가져다줄 수 있는 너는 나를 외면하지 말거라." 산초가 대답했다. "나으리께서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큼이나 끝맺음도 잘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나으리, 제발 부탁이옵니다. 앞으로는 저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말아 주십시오."

"산초야,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산초가 대답했다. "이번 매질이 제가 주인님이신 둘시네아 님을 두고 한 말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난밤 악마

가 우리 둘 사이에 붙여 놓은 그 싸움 탓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성물처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비록 그분에게 그럴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오로지 나으리의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산초야, 제발 부탁이니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구나.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너도 잘 알다시피, 죄를 새로 지으면 벌도 새로 받는 법 아니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신부는 도로테아에게 이야기의 내용이나 전개 방식이 매우 재치 있다고 칭찬했다. 기사도 소설의 형식을 아주 잘 본떴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자 도로테아는 기사도 소설을 읽는 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대답했다. 다만 그 소설들에 나오는 지방이나 항구 이름이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기에, 오수나에 상륙했다는 말은 그저 적당히 둘러대어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도 그렇게 이해했네." 신부가 말했다. "그래서 나도 곧바로 내 생각을 말했고, 덕분에 모든 게 잘 해결된 것이지. 그런데 이 불행한 귀족이 기사도 소설의 어리석은 문체와 방식만 흉내 냈다고 해서, 이 모든 꾸며낸 거짓말을 어찌 이리도 쉽게 믿어버리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정말 그렇습니다." 카르데니오가 말했다. "참으로 기이하고 전례 없는 일이지요. 만약 누군가 거짓을 꾸며내려고 작정하고 머리를 쥐어짜낸다 해도, 과연 이토록 기막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네." 신부가 말했다. "이 선량한 귀족이 자신의 광기에 대해 늘어놓는 어리석은 말들을 제외하고,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주 훌륭한 논리로 대답하곤 하네. 모든 일에 명석하고 차분한 이해력을 보여주기도 하지. 그러니 기사도 이야기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그를 아주 뛰어난 지성을 지닌 사람으로만 여길 것이네."

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돈키호테도 자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며 산초에게 말했다.

"이보게, 산초 친구. 우리 사이의 다툼일랑 이제 깨끗이 물에 흘려보내기로 하세. 그러니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접어두고, 지금 내게 사실대로 말해주게. 둘시네아를 어디서, 어떻게, 언제 만났나?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자네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나? 그녀는 뭐라고 대답했나? 내 편지를 읽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어떠했나? 누가 자네에게 그 편지를 옮겨 적어 주었나? 그리고 이 일과 관련해서 알아둘 가치가 있거나, 물어보고 확인해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주게. 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말을 보태거나 거짓을 섞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말을 아껴서도 안 되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정말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그 편지는 아무도 옮겨 적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편지를 통 가져가지 않았으니까요."

"자네 말이 맞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편지를 써넣은 그 수첩이, 자네가 떠난 지 이틀 만에 내 수중에 그대로 있는 걸 발견했으니 말

일세. 그 일로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네. 편지가 없는 걸 알게 된 자네가 대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할까 봐 걱정됐거든. 나는 자네가 편지가 없어진 걸 알아챈 바로 그 자리에서 되돌아왔으리라고만 줄곧 믿고 있었네."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요."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께서 그 수첩을 읽어주실 때 제가 그 내용을 외워두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럴 뻔했지요. 저는 그 내용을 어느 성당 관리인에게 들려주었고, 그 사람이 제 기억에 담긴 그대로를 한 자 한 자 빠짐없이 받아 적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 말이, 평생 수많은 파문장을 읽어 봤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편지는 난생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산초, 자네 아직도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가?" 돈키호테가 물었다.

"아니요,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그 내용을 전해주고 나니 더 말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 '주물럭거리는', 아니 '고귀하신 여인' 어쩌고 하던 첫머리하고, 맨 마지막의 '죽을 때까지 당신의 것인, 슬픈 형상의 기사가'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내 영혼', '내 생명', '내 두 눈' 같은 말을 삼백 번도 넘게 집어넣었지요."

제31장



제31장. 돈키호테와 그의 종자 산초 판사가 나눈 맛깔난 대화와 그 밖의 사건들

“그 모든 건 전혀 상관없네.” 돈키호테가 말을 이었다. “자, 그래서 도착했을 때 그 아름다운 여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분명 진주를 꿰

고 있거나, 아니면 이 기사의 포로 된 몸을 위해 금실로 화려한 문양을 수놓고 있었겠지."

"그 여왕은 보지 못했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저 자기 집 마당에서 밀 두 한헤가를 까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게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밀알들은 여왕의 손길이 닿은 진주알이었다고 말일세. 그런데 여보게, 자네가 본 그 밀은 어떤 종류였나? 칸데알이었나, 아니면 트레첼이었나?"

"그저 루비온이었을 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는 확신하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으니,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귀한 칸데알 빵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말일세. 그건 그렇고 다음 이야기를 해보게. 내 편지를 건넸을 때, 그녀가 입을 맞추던가? 아니면 편지를 머리 위에 올려두기라도 했나? 그 편지에 걸맞은 예우를 갖추며 어떤 의식이라도 치렀단 말인가, 아니면 대체 어떻게 했단 말인가?"

"그 편지를 건네려 했을 때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분은 키질하는 밀을 한창 털어내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보게, 친구. 그 편지는 저 자루 위에 올려두게나. 여기 있는 밀을 다 키질하고 나서야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말일세.'"

"참으로 현명한 여인이시로군!"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건 분명 편지를 천천히 읽으며 그 내용을 음미하느라 그랬을 것이네. 계속 말해보

게, 산초. 그녀가 밀 키질을 하는 동안 자네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 나에 대해 무엇을 묻던가? 자네는 또 뭐라고 대답했는가? 어서 다 말해 보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다 말이야."

"그분은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주인님께서 주인님을 받들기 위해 고행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지요. 마치 야생인처럼 이 산맥 사이에 몸을 숨긴 채, 허리 위로는 옷도 입지 않고 맨몸으로 지내시며, 바닥에서 잠을 자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하고 수염도 빗지 못한 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울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내 운명을 한탄한다고 말한 건 틀렸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는 오히려 내 운명을 축복하며, 평생토록 매일같이 축복할 것이네.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처럼 고귀한 여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말일세."

"그분은 정말 높으신 분이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정말이지 키가 저보다 한 뼘도 넘게 크시거든요."

"그래, 어찌 된 일이냐, 산초?" 돈키호테가 물었다. "자네가 그분과 키를 재어 보기라도 했단 말이냐?"

"이렇게 재어 봤습죠." 산초가 대답했다. "밀 자루를 나귀 등에 올리는 걸 도와드리려고 다가갔다가 그만 아주 바싹 붙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 저보다 한 뼘은 훌쩍 더 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과연 사실이로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토록 고귀한 신분에 걸맞은 위엄을 갖추었으니, 그 품격이야말로 수만 가지 은총과 영혼의 축복으로 빛나고 있겠구나! 하지만 산초야, 이것 하나만은 부정하지 못하겠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울 만큼 향긋하고 기분 좋은, 마치 아라비아의 향료 같은 기막힌 향기를 맡지 않았느냐? 내 말은, 마치 실력 좋은 장갑 가게에 들어선 것처럼 아주 진하고 향기로운 냄새 말이다."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자면," 산초가 말했다. "사내 냄새 비슷한 큼큼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셔서 땀이 배고 살갗도 좀 거칠어지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건 네가 코감기에 걸려 코가 막혔거나, 아니면 네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은 것이 분명하다. 가시덤불 사이에 핀 장미나 들판의 백합, 혹은 녹아내린 용연향에서 풍기는 향기가 어떤 것인지는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단 말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엘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에게서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주 많거든요. 하지만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악마도 제 짝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말이다." 돈키호테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밀을 다 까불러서 방앗간으로 보낸 참이었단 말이냐? 그럼 편지를 읽고 나서 그녀는 어떻게 하더냐?"

"편지는요," 산초가 말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쓸 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편지를 갈가리 찢어버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비밀이 새어 나가는 게 싫다면서 말입니다. 그러고는 제가 말로 전한 내용, 그러니까 주인님께서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녀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고행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전하라 하시기를, 주인님의 손에 입을 맞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것보다 주인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보시는 대로 그만 덤불 속에서 나와서 헛된 짓 좀 그만하고, 혹시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면 당장 엘 토보소로 길을 떠나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명령하셨습니다. 주인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주인님의 성함이 '슬픈 형상의 기사'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크게 웃으시더군요. 그놈의 비스카야 사람은 거기 갔었느냐고 여쭈었더니, 갔었다고 하시면서 아주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갤리선 죄수들도 봤느냐고 물었지만, 그때까지는 한 명도 못 봤다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말해 보아라. 내 소식을 전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가 네게 어떤 보석을 주더냐? 소식을 전하러 온 종자나 시녀, 혹은 난쟁이에게 그들의 주인이 감사의 뜻으로 귀한 보석을 선물하는 것은 편력 기사와 귀부인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된 관습이니까 말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도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이야기지요. 요즘은 빵 한 조각이나 치즈 한 토막을 주는 게 고

작입니다. 제 주인이신 둘시네아 님께서도 제가 작별 인사를 드릴 때 마당 담장 너머로 빵과 치즈를 건네주셨거든요. 게다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건 양젖으로 만든 치즈였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분은 참으로 너그러우시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황금 보석을 주지 않으셨다면, 분명 그 자리에 줄 만한 것이 없어서였을 게다. 하지만 선물이란 때늦게 받아도 반가운 법이니, 내가 그분을 직접 뵙고 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산초야,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놀랐는지 아느냐? 네가 마치 공중을 날아서 다녀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여기서 엘 토보소까지는 30레구아(legua)가 넘는 거리인데, 네가 갔다 오는 데 고작 사흘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지 않느냐. 이쯤 되면 내 일에 관여하며 내 친구 노릇을 하는 그 현명한 흑마법사가 분명히 네 걸음을 도와주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 마법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도 있다. 그가 없다면 내가 어찌 훌륭한 편력기사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떤 현명한 마법사들은 잠든 기사를 침대에서 슬쩍 데려가, 본인이 어떻게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전날 밤 머물렀던 곳에서 천 레구아나 떨어진 곳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하기도 한다. 만약 이런 일이 없다면, 편력기사들이 매 순간 서로를 돕는 것처럼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를 구해주는 일도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아르메니아 산맥에서 괴물이나 사나운 짐승, 혹은 다른 기사와 싸우다 전투에서 밀려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고 치자.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 위나 불타는 마차를 타고 친구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친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 있었을 텐데, 나타나서 그를 도와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뒤 밤이 되면 어느덧 숙소

에 앉아 아주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다. 그 두 곳 사이의 거리는 보통 이천에서 삼천 레구아나 된다. 이 모든 일은 용맹한 기사들을 보살피는 현명한 마법사들의 재주와 지혜 덕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산초야, 네가 이 짧은 시간에 이곳에서 엘 토보소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이 나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내가 말했듯이, 어떤 현명한 마법사가 네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너를 공중에 띄워 날라다 준 것이 분명하니까 말이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산초가 말했다. "정말로 로시난테가 마치 귀에 수은을 부은 집시의 나귀마냥 걷는 것 같았거든요."

"그뿐이겠느냐! 마치 수은을 부은 것 같았겠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아니, 악마 군단이라도 타고 있었을 게다. 악마들이란 지치지도 않고 제멋대로 무엇이든 걷게 만들고 또 스스로도 걷는 존재들이 아니냐.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내 귀부인께서 나더러 직접 찾아오라고 명하신 일에 대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으냐? 비록 그분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건 알지만, 우리와 함께 오는 공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 고민이구나. 기사도의 법도는 내 기분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선하라고 나를 다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내 귀부인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나를 괴롭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한 약속과 이 모험에서 얻을 영광이 나를 부추기며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이다. 우선 서둘러 걸어서 저 거인에게로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놈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공주님을 평온한 상태로 되돌려 놓은 뒤, 곧장 발길을 돌려 내 눈을 밝혀주는 그 빛과 같은 분을 뵈러 갈 것이다. 그때 가서 아주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으면, 귀부인께서도 내 늦은 방문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게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력을 통해 얻은 모든 성취는 오로지 그분의 은총과 내가 그분의 기사라는 사실 덕분이며, 그 모든 것이 결국 귀부인의 영광과 명성을 드높이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테니까 말이다."

"아이구," 산초가 말했다. "주인님 머릿속이 어쩌면 그렇게 단단히 어떻게 되셨답니까! 그런데 주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 귀한 혼사를 그냥 허비하고 놓쳐버릴 생각이십니까? 이렇게나 대단한 결혼인데 말이에요. 지참금으로 나라 하나를 통째로 받는다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나라 둘레가 이만 레구아가 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것들이 아주 풍족하게 넘쳐난대요. 포르투갈이랑 카스티야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던걸요? 제발 부탁이니 그 말 좀 가만히 하시고, 방금 하신 말씀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 충고를 좀 들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신부님이 계신 첫 마을에서 당장 결혼하세요. 정 안 되면 우리 법학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처리해 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충고를 해드릴 나이가 됐으니, 제 말이 딱 들어맞는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날아다니는 독수리보다는 손안에 있는 참새 한 마리가 나은 법입니다. 좋은 걸 곁에 두고도 나쁜 걸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리 화를 내봤자 결국 손해를 보는 법이니까요."

"잘 들어라,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내게 결혼하라고 충고하는 이유가, 내가 저 거인을 죽이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되어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약속한 것을 쉽게 들어주기 위함이라면, 내 말 잘 들어라. 결혼하지 않고도 네 소원을 아주 쉽게 들어줄 수 있다. 전투에 들어

가기 전에 미리 덤으로 이런 조건을 받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내가 저 거인을 이기고 승리자로 돌아온다면, 비록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나라의 일부를 내게 주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라'고 말이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내 손에 넣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주길 바라느냐? 당연히 너 아니겠느냐?"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 땅을 고르실 때 꼭 바닷가 근처로 골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곳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제 검은 백성들을 배에 태워 가지고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여인님인 둘시네아를 뵈러 가는 건 지금 당장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 거인부터 죽이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 일을 마무리 짓자고요. 제 신념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이 일은 아주 영광스럽고 큰 이득이 될 겁니다."

"네 말이 옳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둘시네아를 보러 가기보다 공주를 먼저 만나라는 네 충고를 곧바로 따르도록 하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눈 이야기나 결정한 사항은 우리와 함께 오는 사람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일러두마. 둘시네아는 자신의 속마음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만큼 매우 정숙한 분이니, 나나 혹은 나를 대신한 그 누구라도 그녀의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인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산초가 물었다. "주인님께서 무력으로 굴복시킨 자들이 모두 제 여인님인 둘시네아를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그것 자체가 주인님께서 그녀를 사랑하며

그녀의 연인이라는, 주인님 이름으로 된 증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그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인님을 대신해 충성을 바치겠다고 말해야만 한다면, 두 분의 마음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오, 너는 어찌 그리 어리석고 단순하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야, 그런 일들이 모두 그녀의 명성을 드높이는 결과가 된다는 걸 모르겠느냐? 우리 기사도 방식에서는, 한 귀부인이 자신을 받드는 편력기사를 많이 거느리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영광이란다. 그 기사들의 마음은 오직 그녀가 그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섬기는 것 이상으로는 뻗지 않으며, 그 숱하고 선한 정성의 대가로 다른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그저 그녀가 자신들을 기사로 받아들여 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뿐이니 말이다."

"그런 식의 사랑이라니요." 산초가 말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도 영광을 얻으리라는 희망이나 고통을 겪으리라는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 그분만을 위해 사랑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 천한 놈아, 악마에게나 떨어져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어찌 이리 때때로 번뜩이는 재치를 내뱉느냐! 마치 공부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다."

"전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제 맹세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이때 니콜라스 선생이 그들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소리쳤다. 근처에 있는 작은 샘에서 목을 좀 축이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가 걸음을 멈추자 산초는 내심 무척 반가웠다. 산초는 이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데다, 주인이 말꼬리를 잡고 추궁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산초는 둘시네아가 엘 토보소의 농가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평생 그녀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한편 그사이 카르데니오는 일행이 도로테아를 발견했을 때 그녀가 지니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비록 아주 좋은 옷은 아니었으나, 그가 벗어 둔 옷에 비하면 훨씬 나아 보였다. 일행은 샘가에 내려섰고, 신부가 여관에서 챙겨 온 음식으로 모두가 지닌 큰 허기를 비록 조금이나마 달랬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길을 지나가던 한 소년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소년은 샘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곧 돈키호테에게 달려들었다. 그러고는 돈키호테의 다리를 껴안고는 아주 작정이라도 한 듯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주인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를 좀 잘 봐 주세요. 제가 바로 주인님께서 묶여 있던 참나무에서 구해 드린 안드레스입니다!"

돈키호테는 그를 알아보고는 소년의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 세상에 편력기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기사들이 있다면 무도하고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온갖 불의와 원한을 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제가 숲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처럼 아주

애처로운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기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 슬픈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곧장 달려갔지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소년이 떡갈나무에 묶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제 마음 깊이 기쁜데, 이 아이가 제가 무엇 하나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증언해 줄 증인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소년은 상체가 벗겨진 채 떡갈나무에 묶여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주인이라는 촌놈 하나가 암말 고삐로 소년을 매질하며 살점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는 왜 이토록 잔인하게 매를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매질하던 무례한 자는 이 아이가 제 종놈인데, 실수한 게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도둑질에 가깝다며 대답하더군요. 그러자 이 아이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제 품삯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때리시는 거잖아요!' 주인이라는 자는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제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소년의 결박을 풀어주었고, 그 촌놈에게서 이 아이를 데려가 품삯을 한 푼도 빠짐없이, 게다가 향을 입히듯 후하게 치러주겠다는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안드레스야, 내 말이 다 맞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엄하게 명령했는지, 그리고 그놈이 내가 시키고 통보한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얼마나 겸손하게 약속했는지 너도 보았지? 자, 어서 대답해 보렴. 당황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이분들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하거라. 그래야 길 위에 편력기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것 아니냐!"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소년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일의 결말은 주인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정반대란 말이냐?" 돈키호테가 되물었다. "그럼 그 촌놈이 네게 품삯을 주지 않았단 말이냐?"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년이 대답했다. "주인님께서 숲을 지나가시고 저희만 남게 되자마자, 그놈은 저를 다시 그 떡갈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살점이 다 벗겨져 나간 성 바르톨로메처럼 보일 때까지 저를 다시 매질했습니다. 매를 때릴 때마다 주인님을 조롱하는 농담과 야유를 던지는데, 제가 너무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 소리를 듣고 웃음이 터졌을 정도였습니다. 정말이지, 그놈이 저를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그 못된 촌놈에게 당한 상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주인님 탓입니다. 주인님께서 그냥 가던 길을 가셨더라면, 아무도 부르지 않은 곳에 나타나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으셨더라면, 제 주인도 기껏해야 한두 다스쯤 매를 때리고는 저를 풀어준 뒤 줘야 할 돈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놈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온갖 모욕을 주시는 바람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주인님께는 복수할 수 없으니 혼자 남았을 때 저에게 화풀이를 퍼부은 겁니다. 덕분에 저는 평생 다시는 남자 구실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곳을 떠난 게 화근이었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게 품삯을 다 챙겨줄 때까지는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알

았듯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약속을 지키는 촌놈이란 없는 법이니까. 하지만 안드레스야, 너도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만약 그놈이 네게 돈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겠다고, 설령 그놈이 고래 배 속에 숨는다 해도 기어코 찾아내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말이다."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안드레스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소용이 있을 것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게 말한 돈키호테는 아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풀을 뜯고 있던 로시난테에게 굴레를 씌우라고 산초에게 명령했다.

"무엇을 하려는 거냐?" 도로테아가 물었다.

"그 악당을 찾아가서 그놈의 무례함을 응징하고, 세상에 어떤 악당이 있더라도 안드레스가 못 받은 마지막 마라베디 한 푼까지 다 받아낼 생각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자 도로테아가 말했다. "약속한 기사로서의 도리에 따라,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기 전에는 그 어떤 일에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왕국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다리십시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드레스는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맹세하고 약속하건대, 그에게 복수를 해주고 밀린 돈을 다 받아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맹세는 믿지 않습니다." 안드레스가 말했다. "세상의 그 어떤 복수보다도, 지금 당장 세비야까지 갈 수 있는 먹을 것이 더 간절합니다. 나으리, 혹시 먹을 것 좀 챙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으리와 모든 편력기사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참 잘해주는 기사들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산초 판사는 챙겨온 것 중에서 빵 한 조각과 치즈 한 조각을 꺼내 소년에게 건네며 말했다.

"자, 받아라, 안드레스 형제여. 네 불행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그 불행 중 얼마만큼이 나으리께 돌아간다는 말씀입니까?" 안드레스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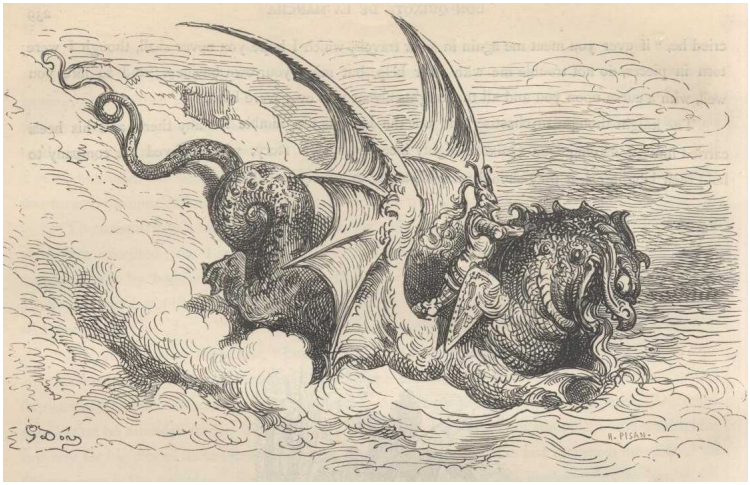
"제가 드리는 이 치즈와 빵 한 조각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이게 나중에 모자라게 될지 어떨지는 하느님만이 아시겠지요. 하지만 친구여, 이것 하나는 알아두십시오. 우리 편력기사들의 종자들은 늘 배고픔과 불운에 시달려야 하며, 말로 다 표현하기보다 차라리 몸으로 겪는 게 나은 고초도 참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드레스는 빵과 치즈를 움켜쥐었다. 아무도 다른 먹을 것을 내주지 않는 것을 본 그는, 흔히들 말하듯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길을 떠났다. 실제로 그는 떠나면서 돈키호테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사님. 만약 다음에 제가 또 길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설령 제가 갈기갈기 찢기는 꼴을 보더라도 제발 도와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불행을 저 혼자 짊어지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느님께 저주를 받을 당신이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편력 기사들이 베풀어 줄 도움보다는 지금의 불행이 차라리 나을 테니까요."

돈키호테가 그를 벌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안드레스는 누구도 감히 뒤쫓아오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도망쳐 버렸다. 안드레스가 한 말 때문에 돈키호테는 몹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주변 사람들은 돈키호테가 완전히 폭발해 버리지 않도록 웃음을 참느라 애를 써야 했다.

제32장



제32장. 돈키호테 일행이 여관에서 겪은 일에 대하여

맛있는 식사가 끝나자 일행은 곧 말에 안장을 얹었다. 그 후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채 이튿날 다시 그 여관에 도착했는데, 이는 산초 판사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움의 대상이었다.

산초는 여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었다. 돈키호테와 산초가 다가오는 것을 본 여관 주인 내외와 그 딸, 그리고 마리토르네스는 무척 반갑게 맞으러 나왔고, 돈키호테는 엄숙하고 위엄 있는 태도로 그들을 맞으며 지난번보다 더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안주인은 지난번보다 값을 더 쳐준다면 왕족이 누울 법한 잠자리를 내주겠다고 대답했다. 돈키호테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일행은 지난번에 묵었던 그 다락방 같은 곳에 제법 괜찮은 잠자리를 새로 마련해 주었고, 돈키호테는 몸이 몹시 지치고 정신도 혼미한 터라 곧바로 자리에 누웠다.

돈키호테가 방에 틀어박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주인이 이발사에게 달려들어 그의 수염을 움켜쥐며 말했다.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그 양반이 제 쇠꼬리를 수염으로 써먹는 일은 이제 더는 없을 거예요. 제 꼬리를 돌려주셔야 해요. 우리 남편 물건이 저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으니 참으로 창피한 노릇이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내가 평소에 내 잘난 꼬리에 걸어두곤 했던 그 빗 말이에요."

이발사는 안주인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꼬리를 내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학사(신부)가 나서서, 이제는 그런 잔꾀를 더 쓸 필요가 없으니 꼬리를 돌려주라고 했다. 대신 이발사 자신이 변장을 벗고 본래 모습을 드러낸 다음, 돈키호테에게는 갤리선 노예 도둑들에게 털렸을 때 도망쳐 이 여관으로 오게 되었다고 둘러대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 돈키호테가 공주의 종자에 대해 묻거든, 공주가 모든 이의 해방자를 모시고 직

접 가는 중이라는 소식을 자기 왕국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그 종자를 앞서 보냈다고 답하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이발사는 기꺼이 꼬리를 안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돈키호테를 구해 내기 위해 빌렸던 다른 물건들도 모두 돌려주었다. 여관 사람들은 모두 도로테아의 아름다움에, 그리고 젊은 카르데니오의 훤칠한 풍채에까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신부는 여관에 있는 재료로 음식을 차리게 했고, 여관 주인은 돈을 더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에 부지런히 제법 그럴듯한 식사를 차려냈다. 그러는 동안에도 돈키호테는 줄곧 잠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먹는 것보다 자는 편이 그에게 더 이로우리라는 생각에 모두 그를 깨우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여관 주인 내외와 딸, 마리토르네스, 그리고 손님들이 모두 자리한 가운데, 음식을 들면서 돈키호테의 기이한 광기와 그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정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주인은 돈키호테와 노새몰이꾼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고, 혹시 산초가 거기 있는지 둘러보더니 보이지 않자 그가 담요에 싸여 헹가래질을 당했던 일까지 죄다 털어놓아, 사람들은 적잖이 즐거워했다. 그리고 신부가 돈키호테가 읽어 온 기사도 소설 탓에 정신이 나가 버린 것이라고 말하자, 여관 주인이 입을 열었다.

"글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그보다 더 훌륭한 읽을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도 그런 책이 두세 권 있는데, 그 책들과 다른 서류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살맛 나게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추수할 때가 되면 이곳에 수많은 일꾼이 모여드는데, 그중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꼭 한둘씩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책을 한 권 집어 들기라도 하면, 저희 서른 명 넘는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어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 재미가 어찌나 좋은지 흰머리가 천 가닥은 줄어드는 것 같다니까요. 적어도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책 속에서 기사들이 휘두르는 그 격렬하고 무시무시한 타격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똑같이 휘둘러보고 싶은 충동이 일 정도입니다. 밤낮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만 싶을 정도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관 안주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즐거운 시간이라곤 당신이 그렇게 책 읽어 주는 소리에 푹 빠져 있을 때뿐이거든요. 어찌나 넋을 놓고 듣는지 그동안만큼은 잔소리하는 것도 잊어버리니까요."

"정말 그래요." 마리토르네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내용이 참 곱고 아름답잖아요. 특히 어떤 귀부인이 오렌지 나무 아래에서 기사님을 꼭 껴안고 있고, 그 곁에서 노시녀 한 명이 질투에 애가 타고 마음을 졸이면서도 두 사람을 위해 망을 봐 주고 있다는 대목이 나오면 더더욱 그렇고요. 제 말은,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정말 꿀맛 같다는 거예요."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가 여관 주인의 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글쎄요, 신부님, 정말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솔직히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듣고 있으면 참 즐겁긴 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좋

아하시는 싸움 이야기 같은 건 별로 재미없어요. 저는 기사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 있을 때 내뱉는 슬픈 탄식 같은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런 대목을 듣다 보면 그들이 너무 가여워서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가씨, 만약 기사들이 아가씨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어찌 달래주시겠어요?" 도로테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귀부인들은 너무나 잔인해서 기사들이 그녀들을 호랑이나 사자, 혹은 온갖 더러운 짐승 같다고 부르기도 한대요. 세상에나! 정직한 남자를 돌아봐 주지 않아서, 그 남자가 죽게 내버려 두거나 미쳐버리게 만드는 저 무자비하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이들일까요? 대체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 정숙한 척하려고 그러는 거라면, 차라리 그 남자들과 결혼이라도 하라지요. 남자들이 바라는 건 그것뿐이니까요."

"얘야, 조용히 하렴." 여관 안주인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런 일에 대해 아주 잘 아는 것 같구나. 하지만 처녀가 이토록 아는 것이 많고 말이 많은 건 좋지 않은 일이란다."

"이분께서 물으시는데, 어찌 대답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자, 그럼." 신부가 말했습니다. "여관 주인 양반, 그 책들을 좀 가져다주시오. 내가 좀 보고 싶구려."

"기꺼이 그러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작은 자루 하나를 꺼내 왔습니다. 자루는 작은 사슬로 잠겨 있었는데, 주인은 그 사슬을 열고 그 안에서 커다란 책 세 권과 필체가 아주 유려한 친필 문서 몇 장을 찾아냈습니다. 주인이 처음으로 펼친 책은 『트라키아의 돈 시롱힐리오』였고, 그다음 책은 『히르카니아의 펠릭스마르테』였습니다. 마지막 책은 『위대한 대장군 곤살로 에르난데스 데 코르도바의 역사』와 『디에고 가르시아 데 파레데스의 생애』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신부는 처음 두 권의 제목을 읽자마자 이발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친구의 부인과 조카딸만 있으면 딱 좋겠군." 그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이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마구간이나 벽난로 쪽으로 데려가면 그만이니까. 사실 벽난로 불이 아주 뜨끈뜨끈하거든."

"그럼, 나리께서는 책을 더 태우고 싶으신 겁니까?" 여관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 두 권만 태우면 되네."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돈 시롱힐리오의 책과 펠릭스마르테의 책 말일세."

"아니, 그럼 제 책들이 무슨 이단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는 책이라서 태워버리려는 건가요?" 여관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친구, 지루한 게 아니라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관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책을 태우고 싶다면, '그란 카피탄'과 디에고 가르시아의 책을 태우게 하십시오. 다른 어떤 책을 태우느니 차라리 그 책들을 먼저 태우겠습니다."

"형제여," 신부가 말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거짓투성이에 터무니없는 헛소리와 망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란 카피탄'의 책은 실제 역사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업적을 세워 온 세상으로부터 '그란 카피탄'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하며, 오직 그만이 누릴 수 있는 드높고 명백한 그 명성을 지닌 곤살로 에르난데스 데 코르도바의 실화를 담고 있지요. 그리고 이 디에고 가르시아 데 파레데스 또한 트루히요 출신의 저명한 기사였습니다. 그는 매우 용맹한 군인이었는데, 타고난 힘이 어찌나 강한지 한창 맹렬하게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손가락 하나로 멈춰 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다리 입구에서 커다란 칼을 들고 서서, 그 다리를 지나가려는 셀 수 없이 많은 대군을 막아내기도 했지요. 그가 행한 다른 일들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은 그 자신이 기사다운, 또 스스로의 연대기 작가다운 겸손함으로 직접 적은 것이라, 만약 다른 사람이 거리낌 없고 담담하게 기록했더라면 헥토르나 아킬레스, 롤랑의 무용담조차 잊히게 만들 만큼 대단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나 그러시지!" 여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라시는 겁니까? 고작 물레방아를 멈춰 세운 일 가

지고 말입니다! 세상에, 차라리 펠릭스마르테 데 히르카니아가 저지른 일을 읽어 보셨어야지요. 그는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거인 다섯 명의 허리를 마치 아이들이 만든 콩 인형처럼 툭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또 한 번은 백육십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끄는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군대에 맞서 싸웠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그 군사들을 마치 양 떼처럼 모조리 흩어놓아 버렸지요. 그럼 우리 착한 돈 시롱힐리오 데 트라키아는 또 어떻습니까? 이 책을 읽어 보시면 그가 얼마나 용맹하고 기백이 넘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강을 항해하던 중 강 한가운데서 불타는 뱀 한 마리가 솟아올랐는데, 그는 뱀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비늘 덮인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뱀의 목을 움켜쥐었는데, 그 힘이 어찌나 강했는지 질식할 것 같던 뱀이 결국 기사를 끌고 강 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지 뭡니까? 기사는 끝까지 뱀을 놓지 않았고요. 강 밑바닥에 도착하니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궁전과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곧이어 뱀은 한 노인으로 변해 기사에게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제발 그만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는 너무 즐거워서 미쳐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란 카피탄'이니 디에고 가르시아니 하는 분들은 저런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듣던 도로테아는 카르데니오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우리 손님께서도 제2의 돈키호테가 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카르데니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를 보니, 저 책들에 나오는 이야기가 글에 적힌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맨발의 수도사들이 온다고 해도 그 믿음을 꺾지는 못할 겁니다."

"형제여, 이것 좀 보십시오." 신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히르카니아의 펠릭스마르테나 트라키아의 돈 시롱힐리오 같은 기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도 소설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이자 허구일 뿐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시간을 때우려고 지어낸 것이지요. 당신네 낫질꾼들이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맹세코 말씀드리건대, 세상에 그런 기사는 없었으며, 그런 무용담이나 말도 안 되는 일들도 결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데 가서나 하쇼!" 여관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숫자 다섯이 얼마인지, 내 신발이 어디가 끼는지 모를 줄 아십니까! 저를 만만하게 보고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맹세코 저는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훌륭한 책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려는데, 이 책들은 국왕 평의회 위원들의 허가를 받아 인쇄된 것들입니다. 위원들이 제정신을 잃게 만드는 수많은 전투와 마법, 그리고 그 수많은 거짓말을 한데 모아 인쇄하도록 내버려 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관 주인 양반,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책들은 그저 한가한 생각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지는 법입니

다. 잘 짜인 국가에서 일할 수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으며, 일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체스나 공놀이, 당구 같은 놀이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런 식으로 이런 책들의 인쇄를 허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 책들 중 어떤 것도 실제 역사라고 믿을 만큼 무지한 사람은 없을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만약 지금 제게 권한이 있고 듣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기사도 소설이 훌륭한 작품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에 대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에게는 유익하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언젠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을 만나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관 주인 양반, 그동안은 제가 한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책들을 가져가서 그 책들이 말하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디 그 책들이 당신의 손님인 돈키호테가 빠져 있는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신께 빌 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관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직접 편력기사가 되겠습니까? 저 유명한 기사들이 세상을 누비던 그 옛날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던 중 산초도 마침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편력기사가 통하지 않는 시대이며 기사도 소설이란 그저 어리석은 거짓말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는 무척 당혹스러워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초는 속으로 일단 주인님의 이번 여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이번 여행이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행복하게 끝나지 않는다면, 주인을 떠나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생업에 종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짐가방과 책들을 챙겨 들고 가려 하자, 신부가 그를 불러 세우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이렇게 좋은 글씨로 쓰인 것들이 대체 어떤 문서인지 내 직접 확인해 보고 싶소.”

여관 주인이 책들을 꺼내어 신부에게 읽어 보라고 건네주었습니다. 신부가 살펴보니 손으로 직접 쓴 여덟 장 분량의 원고도 있었는데, 그 앞부분에는 ‘호기심 많은 참견쟁이의 소설’이라는 커다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는 혼자서 서너 줄을 읽어 내려가더니 말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나쁘지 않군. 아주 흥미로워 보여서 끝까지 다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려.”

그러자 여관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이 책을 읽었던 손님들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며 제게 간곡히 빌려달라고 부탁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차마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가방과 책, 서류들을 두고 간 주인이 조만간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책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주인님이 돌아오시면 반드시 돌려드려야지요. 제가 비록 여관 주인이긴 해도, 그래도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친구여, 당신 말이 백번 옳소.” 신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소설이 내 흥미를 끈다면 당신은 내게 이 책을 빌려주어야 하오.”

“기꺼이 그러지요.” 여관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카르데니오는 소설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카르데니오 역시 신부가 느낀 것과 같은 흥미를 느꼈는지, 신부에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소설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읽어 드리고말고요." 신부가 말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책 읽는 데 쓰기보다 잠을 자는 데 쓰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군요."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한 휴식이 될 거예요." 도로테아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마땅히 잠들어야 할 때도 잠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죠." 신부가 말했습니다. "호기심에라도 한번 읽어보고 싶군요. 어쩌면 꽤 재미있는 내용일지도 모르니까요."

니콜라스 씨도 똑같이 읽어보고 싶다며 간청했고, 산초도 거들었습니다. 신부는 이 광경을 보고 모두가 즐거워할 것이며 자신 또한 기쁘게 받아들일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33장

제33장. ‘호기심 많은 참견쟁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부유하고 유명한 도시 피렌체에 안셀모와 로타리오라는 두 귀족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부유하고 지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우정이 워낙 각별하여 그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진정한 친구'의 대명사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같고 성격도 비슷하며 미혼인 청년들이었는데, 이 모든 조건은 두 사람이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안셀모가 로타리오보다 연애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고, 로타리오는 사냥을 더 즐겼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안셀모는 로타리오를 따라 사냥을 하러 가기도 했고, 로타리오 역시 안셀모를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연애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뜻은 마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처럼 언제나 하나로 일치했습니다.

당시 안셀모는 같은 도시의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처녀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도 훌륭했고 본인 또한 매우 품

격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안셀모는 친구 로타리오의 동의 없이는 무엇 하나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를 의지했는데, 로타리오의 찬성 아래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가 청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로타리오가 직접 사절이 되어 청혼을 전했고, 친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일을 성사시킨 덕분에 안셀모는 머지않아 바라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밀라 역시 안셀모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하며, 자신에게 이토록 큰 복을 가져다준 로타리오와 하늘에 끊임없이 감사를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의 초기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날이 즐거웠습니다. 로타리오는 평소처럼 안셀모의 집을 드나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친구를 예우하고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축하 방문이나 인사가 잦아들 때쯤, 로타리오는 안셀모의 집을 찾는 횟수를 조심스럽게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하듯, 로타리오가 보기에는 결혼한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미혼이었을 때와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하고 진실한 우정이라면 그 어떤 의심을 살 일도 없어야 하고 또 없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이의 명예라는 것은 매우 섬세한 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제 사이라 해도 결례를 범할 수 있는 법인데, 하물며 친구 사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안셀모는 로타리오의 방문이 뜸해진 것을 알아차리고는 크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로타리오에게 만약 결혼 때문에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미혼이었을 때 보여준 깊은 우정 덕분에 '진정한 친구'라는 명성까지 얻게 되었는데, 단지 신중을 기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그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망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셀모는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로타리오가 다시 예전처럼 제 집 안방 드나들 듯 자유롭게 방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아내 카밀라 역시 자신이 바라는 것 외에는 다른 뜻이 없으며,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진실한지 잘 알고 있기에 로타리오가 이토록 피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셀모는 로타리오가 예전처럼 집을 드나들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이유를 비롯해 수많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로타리오는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셀모는 친구의 선한 의도를 확인하고 만족해했고, 두 사람은 일주일에 이틀과 축제일에만 로타리오가 안셀모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록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약속이 맺어졌지만, 로타리오는 자신의 명예보다 친구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겼기에 친구의 체면을 위해 무엇이 가장 적절할지를 고민하며 그 약속 이상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로타리오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아내를 점지해 준 결혼한 남자는, 집에 어떤 친구를 불러들이는지뿐만 아니라 아내가 어떤 여인과 어울리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장이나 성당, 공공 축제나 교회 순례처럼 — 남편이 아내에게 늘 금할 수만은 없는 곳들에서는 — 이루어지지도 꾸며지지도 않는 일들이, 정작

아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여자 친구나 친척의 집에서는 손쉽게 합의되고 성사되기 때문입니다.

로타리오는 또한 결혼한 이들에게는 각자 자신의 행동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일깨워 줄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때 이를 말해주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이 남편의 명예를 높일지 혹은 욕되게 할지는 모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이를 미리 알려준다면 모든 문제를 쉽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타리오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토록 분별력 있고 충직하며 진실한 친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로타리오만이 온 정성을 다해 주의를 기울이며 친구의 명예를 살폈을 뿐입니다. 그는 카밀라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집에 부유하고 품위 있는 귀족 청년이 드나드는 것이, 한가로운 군중이나 떠돌아다니는 악의적인 사람들의 눈에 좋지 않게 비칠까 염려하여, 두 사람이 약속한 방문 날짜를 최대한 줄이거나 조절하려 애썼습니다. 카밀라의 선량함과 품격이 수군거리는 입들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음에도, 로타리오는 그녀의 평판은 물론 친구의 명예까지 의심받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한 날 중 대부분을 다른 용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쪽은 서운함을 토로하고 다른 한쪽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두 사람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도시 외곽의 초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셀모가 로타리오에게 다시금 다음과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 로타리오여, 생각해보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 즉 내 부모님 같은 분들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과, 타고난 성품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아낌없이 내려주신 것에 대해 내가 아무리 감사한다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네. 게다가 자네를 친구로, 카밀라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신 은총은 더욱 그러하네. 이 두 가지 보물은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나는 온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괴로운 사람처럼 살고 있다네. 도대체 왜 나에게 이토록 기이하고 남들과는 다른 갈망이 찾아와 나를 괴롭히고 짓누르는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어 나 자신이 경이로울 정도라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스스로를 꾸짖고 다그치며, 이 마음을 애써 숨기고 감추려 노력해왔다네. 덕분에 이 비밀을 마치 일부러 세상에 알리려는 사람처럼 아주 잘 숨겨올 수 있었지. 하지만 이제 이 비밀은 광장으로 나가야만 하겠네. 다만 자네의 마음속이라는 광장으로 나가려 하네. 진정한 친구로서 자네가 정성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면,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자네의 보살핌 덕분에 내가 겪는 이 고통에서 곧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네. 나의 이 미친 짓 때문에 찾아온 불행이 자네의 노력 덕분에 곧 기쁨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네."

안셀모의 이런 말에 로타리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토록 긴 서론과 전제가 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타리오는 친구를 그토록 괴롭히는 갈망이 대체 무엇일

지 머릿속으로 온갖 추측을 해보았지만, 번번이 진실과는 거리가 먼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로타리오는 이 막막한 기다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속마음을 말하면서 이토록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우정에 명백한 결례라네. 자네의 가장 깊은 생각들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게나.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조언을 해주든, 아니면 그 고민을 달랠 방법을 찾아주든 하겠네."

"그 말이 맞네." 안셀모가 대답했습니다. "친구 로타리오여, 자네를 믿고 내 고통의 원인을 말하겠네. 나를 괴롭히는 갈망은 내 아내 카밀라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정말 선하고 완벽한 여인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라네. 불이 금의 순도를 증명하듯, 시험을 통해 그녀의 선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밝혀내지 않고서는 이 진실을 알 길이 없네. 오, 친구여! 내 생각에, 아무리 선한 여인이라 해도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그 선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오직 유혹에 굴하지 않고 약속이나 선물, 눈물, 그리고 구애하는 연인들의 끊임없는 성화에도 꺾이지 않는 여인만이 진정으로 강인한 법이라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데, 여인이 그저 착하기만 하다면 그게 무슨 대수겠나? 유혹할 기회조차 없어서 그저 조용히 몸을 사리고 있는 여인, 만약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가는 남편에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조심하는 여인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나? 나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하게 행동하는 여인을 높게 평가하고

싶지 않네. 나는 승리의 면류관을 쓴, 즉 수많은 구애와 유혹을 이겨낸 여인을 높이 평가하려 하네.

이러한 이유들과 내가 가진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많은 근거를 들어 말하자면, 나는 내 아내 카밀라가 시련을 겪기를 바라네. 구애와 유혹이라는 불꽃 속에서 그녀의 가치가 정금처럼 단련되고 증명되기를 원하네. 만약 내 예상대로 그녀가 이 전투에서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거머쥔다면, 나는 비로소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을 누리게 될 것이네. 내 갈망이 마침내 채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 또한 지혜로운 자가 '그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던 그 강인한 여인을 내가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네. 만약 내 예상과 달리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 생각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니, 비싼 대가를 치른 이 경험이 내게 어떤 교훈을 주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네.

그러니 친구 로타리오여, 자네가 내 뜻에 반대되는 말을 하더라도 결코 내 결심을 꺾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네. 그러니 부디 내 욕망을 실현해 줄 도구가 되어주게나! 정숙하고 품위 있으며, 조신하고 사심 없는 여인을 구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은 내가 다 마련해 주겠네. 내가 이토록 어려운 일을 자네에게 믿고 맡기는 이유는, 설령 카밀라가 자네의 공세에 굴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부도덕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오직 예의를 갖춘 정중한 행동의 결과로만 비칠 것임을 알기 때문이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내 욕망이 좌절된 것에 대해서만 아쉬워할 뿐, 자네의 침묵이라는 미덕 덕분에 내 체면은 지킬 수 있을 것이네. 자네의 침묵은 죽음처럼 영원할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네. 그러니 내가 살아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자네는 이 사랑의 전

투에 반드시 뛰어들어야 하네. 미지근하거나 게으른 태도가 아니라, 내 갈망이 요구하는 열정과 정성을 다해야 하며, 우리의 우정이 보장하는 신뢰를 가지고 임해야 하네."

안셀모가 로타리오에게 건넨 말은 이러했습니다. 로타리오는 어찌나 귀 기울여 들었던지, 앞서 적어 둔 그 말들 외에는 안셀모가 이야기를 다 마칠 때까지 입술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셀모가 더는 말이 없음을 확인한 뒤,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생전 처음 보는, 경이롭고도 두려운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친구 안셀모여! 자네가 방금 한 말들이 나를 놀리려는 농담이 아니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 만약 자네가 진심으로 한 말이라면, 내가 진작에 자네의 긴 연설을 가로막았어야 했네. 자네가 이토록 멀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을 테니까 말일세. 분명 자네가 나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자네를 잘 모르는 모양이네. 하지만 아니네, 나는 자네가 안셀모라는 것을 잘 알고, 자네 또한 내가 로타리오라는 것을 알지 않나. 문제는 내가 아는 안셀모는 예전의 그 안셀모가 아닌 것 같고, 자네가 아는 로타리오 또한 예전의 그 로타리오가 아닌 것 같다는 점이네. 자네가 한 말은 내가 알던 친구 안셀모의 말이 아니며, 자네가 요구하는 일 또한 자네가 알던 로타리오에게 부탁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네.

한 시인이 말했듯, 진정한 친구라면 '제단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시험하고 의지해야 하는 법이라네. 이는 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는 우정

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 만약 이교도조차 우정의 도리를 이토록 소중히 여겼다면, 하물며 인간의 우정 때문에 신의 우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오죽하겠나? 만약 친구가 하늘의 도리를 저버리고 친구의 요구를 따르려 할 만큼 무모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 친구의 명예와 목숨이 걸린 일이어야만 하네.

자, 이제 말해보게, 안셀모. 자네가 요구하는 그 일로 인해 명예와 목숨 중 어느 것이 위험에 처해 있기에 내가 자네의 비위를 맞추며 이토록 혐오스러운 일을 저지르라는 것인가? 내가 보기엔 둘 다 해당하지 않네. 오히려 자네는 나더러 자네의 명예와 목숨을 앗아가는 데 앞장서고, 동시에 내 명예와 목숨까지 함께 앗아가라고 요구하는 것 같네. 내가 자네의 명예를 앗아가는 일을 한다면, 명예 없는 사람은 죽은 목숨보다 못하니 자네의 목숨을 앗아가는 셈이 될 것이 분명하네. 게다가 자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악행의 도구가 된다면, 나 또한 명예를 잃고 그 결과로 목숨을 잃게 되지 않겠나?

안셀모여, 내 말을 잘 듣게나. 자네의 욕망이 요구하는 일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재차 대답하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으며 기다려주게. 자네가 내게 반박하고 내가 자네의 말을 듣는 시간은 얼마든지 남아 있으니 말일세."

"좋네." 안셀모가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나."

그러고 나서 로타리오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 안셀모! 내 생각에는 당신이 지금 마치 무어인들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 같소. 무어인들에게는 성경의 구절을 들어 그들의 교리가 틀렸음을 설명하려 해도 소용이 없고, 이성적인 추론이나 신앙의 원리를 근거로 설득하려 해도 통하지 않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예시를 가져다줘야만 하오. 마치 '두 개의 같은 양에서 같은 양만큼을 빼면, 남은 것들도 서로 같다'라는 수학적 증명처럼 말이오. 그런데 만약 말로 설명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면—실제로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손짓 발짓을 다 해가며 눈앞에 직접 보여줘야 하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도 그들에게 우리 거룩한 종교의 진리를 설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소.

당신에게도 똑같은 방식을 써야 할 것 같소. 당신이 품은 욕망은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성적인 면모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오. 지금 당신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고 시간을 쓰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인 것 같소. 일단은 당신의 그 어리석음을 그냥 어리석음이라 부르겠소. 당신의 그 나쁜 욕심 때문에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기도 하오.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우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려. 친구가 저토록 명백한 파멸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소?

자, 당신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말해주겠소, 안셀모. 당신은 내게 은둔하는 여인에게 구애하고, 정숙한 여인을 설득하며, 욕심 없는 여인에게 유혹을 건네고, 신중한 여인을 공략하라고 하지 않았소?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않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아내분이 은둔하며, 정숙하고, 욕심 없으며, 신중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오? 만약 당신이 내 모든 공세에도 아내분이 의연히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면—실제로 틀림없이 그럴 테니—그 승리 후에 아내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명예를 얻겠소?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소? 아니면 당신이 말하는 아내분이 실제로는 그런 분이 아니거나,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오?

만약 아내분이 당신 말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저 당신의 변덕스러운 욕심을 채우려고 아내를 시험하려는 것뿐 아니오? 하지만 아내분이 당신 믿음만큼 훌륭한 분이라면, 굳이 시험해 볼 필요가 없소. 시험이 끝난 뒤에 남는 건 결국 처음 가졌던 그 평가뿐일 테니까 말이오. 그러니 이성적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득은커녕 해만 될 것이 뻔한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법이오. 특히나 억지로 해야 하는 일도 아닌데, 시도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광기라는 사실이 빤히 보이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소.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이유로 어려운 일에 도전하오. 신을 위해서거나, 세상을 위해서거나, 혹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라오. 신을 위해 도전하는 이들은 성인들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오. 세상을 위해 도전하는 이들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부를 얻으려고 수많은 바다를 건너고, 온갖 기후를 견디며, 낯선 민족들 사이를 떠도는 이들이오. 그리고 신과 세상을 위해 동시에 도전하는 이들은 용맹한 군인들이오. 그들은 적진의 성벽에 대포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틈만 보여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위험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돌진하오. 오직 신념과 조국과 국왕을 위해 싸우겠다는 열망 하나로, 자신들을 기다리는 수천 가지의 죽음을 향해 거침없이 몸을 던지

는 이들이오. 이런 도전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일이며, 비록 위험과 난관이 가득할지라도 명예와 영광, 그리고 보람을 가져다주는 법이오.

하지만 당신이 하려는 그 일은 신의 영광도, 세속의 부도, 사람들의 명성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오. 만약 당신 뜻대로 일이 잘 풀린다 한들, 당신이 지금보다 더 자랑스럽거나 부유해지거나 명예로워지겠소? 전혀 그렇지 않소. 반대로 일이 잘못된다면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오. '아무도 내 불행을 모르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 스스로 그 불행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괴롭고 무너져 내릴 것이오.

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유명한 시인 루이스 탄실로가 그의 저서 『성 베드로의 눈물』 제1부 끝부분에 쓴 시 구절을 들려주겠소. 그 내용은 이러하오."

"날이 밝아오자 베드로의 고통과 수치심은 더욱 커져만 갔소. 비록 그곳에 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으나,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지. 도량이 넓은 가슴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남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오. 하늘과 땅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도, 잘못을 저지른 자는 제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법이라오."

그러니 당신의 고통은 비밀로 한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을 것이오. 오히려 당신은 끊임없이 울게 될 것이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면, 심장에서 솟아나는 피눈물을 말이오. 우리 시인이 들려주는, 그 잔의 시험을 직접 행했던 어리석은 의사가 흘렸던 것처럼 말이오. 현명한

레날도스는 더 나은 판단으로 그런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지요. 비록 그것이 시적인 허구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새기고 이해하며 본받아야 할 도덕적 교훈이 담겨 있소. 게다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듣고 나면, 당신이 저지르려는 그 거대한 잘못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오.

안셀모,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만약 하늘이나 운명이 당신에게 더없이 훌륭하고 정교한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고 칩시다. 그 품질과 캐럿이 너무나 뛰어나서 보는 보석 감정사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저 다이아몬드는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품질과 정교함을 갖췄다"라고 말하며, 당신 또한 다른 의심 없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다이아몬드를 얻고 나서,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그 보석을 모루와 망치 사이에 올려놓고는,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정말 단단하고 정교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온 힘을 다해 내리치고 싶어진다면, 그것이 정당한 일이겠소?

설령 당신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고 칩시다. 만약 그 보석이 그 어리석은 시험을 견뎌낸다 해도, 그 보석의 가치나 명성이 더 높아지겠소?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소. 반대로 보석이 깨져 버린다면—그럴 수도 있지 않겠소?—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아니겠소? 그렇고말고요. 게다가 주인인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라는 낙인만 찍히게 될 것이오.

자, 친구 안셀모, 이제 카밀라를 그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보시오. 당신의 눈에도, 남들의 눈에도 카밀라는 더없이 정교한 다이아몬드요.

그러니 그녀를 깨뜨릴지도 모르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옳지 않소. 설령 그녀가 깨지지 않고 온전하게 남는다 해도,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린다면, 그때 당신에게 무엇이 남겠소? 당신은 스스로를 원망하며, 그녀와 자신을 모두 파멸시킨 장본인으로서 얼마나 괴로워하겠소?

명심하시오. 세상에 정숙하고 명예로운 여인만큼 귀한 보석은 없소. 여인의 모든 명예는 사람들에게 받는 좋은 평판에서 나오는 법이오. 당신 아내에 대한 평판은 당신도 알다시피 지극히 훌륭한데, 대체 왜 이 진리를 의심하려 드는 것이오? 친구여, 잘 들으시오. 여인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만한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되오. 오히려 장애물을 치워주고 앞길을 깨끗이 닦아주어, 그녀가 부족한 덕성을 갖추기 위해 아무런 근심 없이 가볍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오.

박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담비는 털이 아주 하얀 작은 동물이라고 하오. 사냥꾼들이 담비를 잡을 때 쓰는 수법이 하나 있는데, 담비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을 진흙으로 막아버리는 것이오. 그러고는 담비를 몰아 그곳으로 유인하지. 그러면 담비는 진흙 앞에 이르러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서, 진흙탕을 지나며 제 하얀 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자유와 생명을 포기하고 순순히 잡히는 쪽을 택한다고 하오. 담비는 자유와 목숨보다 그 새하얀 털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오.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은 바로 이 담비와 같소. 정숙함이 지닌 덕성은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오. 만약 누군가 그녀의 정숙함을 잃지 않게

지켜주고 보존하고 싶다면, 담비를 다루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써야 하오. 끈질기게 구애하는 연인들이 바치는 선물과 시중이라는 진흙탕을 그녀의 앞길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오. 어쩌면,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그녀에게는 그런 장애물을 스스로 짓밟고 헤쳐 나갈 만큼의 덕성과 타고난 힘이 없기 때문이오. 그러니 오히려 장애물을 치워주고, 좋은 평판이 품고 있는 덕성과 아름다움이라는 깨끗한 길을 보여주어야 하오.

또한 선한 여인은 빛나고 맑은 거울과도 같지만, 작은 숨결만 닿아도 금세 흐려지거나 어두워질 수 있소. 그러니 정숙한 여인을 대할 때는 성물을 대하듯 해야 하오. 숭배하되 함부로 만지지 마시오. 선한 여인을 대할 때는 꽃과 장미가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아끼듯 해야 하오. 정원의 주인은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와 꽃을 짓밟거나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법이오. 그저 멀리서, 철제 울타리 너머로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만으로 충분하단 말이오.

마지막으로, 내가 들었던 현대 희극의 구절 중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와 딱 들어맞는 시 구절이 생각나는구려. 한 현명한 노인이 처녀의 아버지에게 딸을 잘 보살피고 보호하며 가두어 두라고 조언하며, 여러 이유와 함께 이렇게 말했소.

여인은 유리와 같소. 하지만 깨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려 들어서는 안 되오.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오. 깨지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며,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오. 모든 이가 이 의견에 동의해야 마

땅하며, 나는 이 타당한 근거에 내 주장을 두고 있소. 세상에 다나에가 있다면, 그녀에게 쏟아지는 황금 비 또한 존재하는 법이니까 말이오.

안셀모,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모두 당신이 마땅히 들어야 할 내용이었소. 이제는 내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려. 말이 좀 길어지더라도 부디 용서하시오. 당신이 스스로 발을 들인 이 미궁에서, 당신이 내게 탈출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그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말이오.

당신은 나를 친구로 여기면서도 나의 명예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소. 이것은 우정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오. 게다가 당신은 단순히 나의 명예를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 자신의 명예까지도 내가 앗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소.

내가 당신의 명예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오. 당신의 요구대로 내가 카밀라에게 구애하는 모습을 그녀가 보게 된다면, 그녀는 분명 나를 명예도 모르는 불한당이자 질 나쁜 사내로 여길 것이오. 내가 하려는 짓은 내 신분과 당신과의 우정에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오.

또한 내가 당신의 명예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의심의 여지가 없소. 카밀라가 나의 구애를 받게 되면, 그녀는 내가 자신의 어떤 가벼운 면모를 보고 감히 나쁜 욕망을 드러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스스로를 불명예스럽게 여길 것이고, 그녀의 소유물과 다름없는 당신 역시 그 불명예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오.

여기서 흔히들 말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오.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남편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내가 도리를 지키도록 방치한 적도 없으며, 남편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인해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남편을 비난하며 천박한 이름으로 부르곤 하오. 아내의 부정함을 아는 이들은 남편을 가엾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오.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그 불행한 배우자를 만난 운수 탓에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인데도 말이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지라도, 왜 부도덕한 아내를 둔 남편이 정당하게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되는가 하는 점이오. 내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시오. 이 모든 것이 결국 당신에게 이로울 것이니 말이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고 하오. 아담이 잠든 사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왼쪽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우리의 어머니 하와를 만드셨소. 아담이 깨어나 그녀를 보고 "이 사람은 내 살 중의 살이요, 내 뼈 중의 뼈로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씀하셨소.

그렇게 하여 오직 죽음만이 끊을 수 있는 강력한 결속을 지닌 신성한 혼인 성사가 제정된 것이오. 이 기적적인 성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하나의 몸으로 만드는 엄청난 힘과 덕성을 지니고 있소. 심지어 화

목한 부부에게는 그 힘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여, 비록 두 개의 영혼을 가졌을지라도 의지는 하나가 되게 만드오.

여기서 바로 그 이유가 나오오. 아내의 살은 남편의 살과 하나이기에, 앞서 말했듯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아내에게 떨어진 오점이나 그녀가 초래한 결점은 고스란히 남편의 살에 남게 되는 것이오. 마치 인체의 어느 한 부분, 예를 들어 발이나 다른 지체에 통증이 느껴지면 온몸이 그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고, 머리가 직접 다치지 않았어도 발목이 다치면 머리가 그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소. 이처럼 남편은 아내와 한 몸이기에 그녀의 불명예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불명예는 결국 혈육과 살에서 비롯되는 법이며, 부도덕한 여인이 겪는 불명예 또한 그러한 성질의 것이니, 남편 역시 그 불명예의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소. 그래서 남편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불명예스러운 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오.

그러니 안셀모, 당신의 정숙한 아내가 누리고 있는 평온을 깨뜨리려 함으로써 당신 스스로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똑똑히 보시오! 얼마나 헛되고 무모한 호기심인지 깨달으시오! 지금은 평온하게 가라앉아 있는 당신 아내의 마음속에 어찌하여 굳이 풍파를 일으키려 드는 것이오? 당신이 얻으려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잃게 될 것은 너무나 막대하여 차마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만약 내가 한 이 모든 말이 당신의 잘못된 결심을 돌리기에 부족하다면,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불명예와 불행을 자초하시오. 나는 당신의 친구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당신의 불행을 부추기는 도구가 되지는 않을 것이오. 당신의 우정을 잃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이겠지만 말이오.

이렇게 말한 덕망 높고 신중한 로타리오는 입을 다물었소. 안셀모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깊은 생각에 잠긴 나머지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소. 그러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어 말했소.

"로타리오, 내 친구여. 당신이 방금 한 말을 내가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는지 당신도 보았을 것이오. 당신의 논리와 비유, 그리고 예시들을 들으며 당신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이 나를 향해 품은 우정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 잘 깨달았소. 또한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선을 피하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짓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오.

하지만 이 점은 고려해 주어야 하오. 지금 나는 어떤 여인들이 앓는 병과 같은 증세를 겪고 있소. 그런 여인들은 흙이나 석고, 숯, 혹은 보기만 해도 역겨운 온갖 것들을 먹고 싶어 하는 병에 걸리곤 하지 않소? 나 역시 지금 그러하니,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떤 방책을 써야만 하오. 그리고 그 방책은 아주 간단하오. 당신이 그저 카밀라에게 구애를 시작하기만 하면 되오. 비록 그것이 미지근하고 가식적인 행동일지라도 말이오. 카밀라는 처음 몇 번 다가갔다고 해서 곧장 자신의 정조를 땅에 내던질 만큼 마음 약한 여인이 아닐 테니 말이오.

당신이 그저 시작만 해준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고, 당신은 우정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셈이 될 것이오.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명예를 잃지 않도록 설득해 주는 셈이 되니까 말이오.

당신이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소. 내가 지금처럼 이 시험을 치르기로 마음먹은 이상, 당신은 내가 이 어리석은 짓을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게 된다면, 당신이 지키려 애쓰는 나의 명예를 내가 스스로 도박판에 던져버리는 꼴이 될 것이오. 당신이 카밀라에게 구애하는 동안 당신의 명예가 조금 손상된다 한들,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녀가 정숙한 사람임이 드러난다면, 곧바로 우리가 꾸민 일의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명예는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오.

당신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아주 작은 데 비해, 내가 얻게 될 기쁨은 너무나 크지 않소? 그러니 설령 앞길에 더 많은 난관이 놓인다 해도 부디 망설이지 마시오. 이미 말했듯이, 당신이 그저 시작만 해준다면 나는 이 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오."

로타리오는 안셀모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는, 그가 이 고집을 꺾도록 더 이상 어떤 비유를 들거나 논리적인 이유를 대야 할지 알 수 없었소. 게다가 안셀모가 이 어리석은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니, 더 큰 화를 막기 위해 로타리오는 결국 그의 비위를 맞추어 요구대로 해주기로 마음먹었소. 다만 카밀라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면

서도 안셀모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 일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속셈이었소. 그리하여 로타리오는 안셀모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이 생각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자신이 이 일을 맡아 가장 적절한 때에 시작하겠다고 대답했소.

안셀모는 로타리오를 아주 다정하고 애틋하게 껴안으며, 마치 커다란 은혜라도 입은 양 그 제안에 감사를 표했소.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소. 로타리오가 카밀라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셀모가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주기로 했고, 그녀에게 줄 돈과 보석도 준비해 주기로 했소. 또한 안셀모는 로타리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그녀를 찬양하는 시를 써 보라고 권하며, 만약 로타리오가 직접 시를 쓰기 번거롭다면 자신이 직접 쓰겠다고까지 말했소. 로타리오는 이 모든 일에 흔쾌히 응했으나, 그 속마음은 안셀모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소.

두 사람은 이렇게 합의를 마친 뒤 안셀모의 집으로 돌아갔소. 그곳에서 만난 카밀라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며 근심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날따라 안셀모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소.

로타리오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안셀모는 자기 집에 남았소. 로타리오가 이 번거로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깊은 고민에 빠진 것과 달리, 안셀모는 매우 기분이 좋았소. 하지만 그날 밤, 로타리오는 카밀라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안셀모를 속일 방법을 궁리했소. 그리고 다음 날, 로타리오는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왔

소. 카밀라는 남편이 로타리오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아주 기쁘게 맞이하며 정성껏 대접했소.

식사를 마친 뒤 식탁보를 걷자, 안셀모가 로타리오에게 말했소. 급한 용무가 생겨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니, 한 시간 반 뒤에 돌아올 때까지 카밀라와 함께 머물러 달라는 것이었소. 카밀라는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했고, 로타리오도 그녀의 곁을 지켜주겠다고 나섰으나 안셀모는 요지부동이었소. 오히려 안셀모는 로타리오에게 아주 중요한 상의할 일이 있으니 가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졸라댔소. 그러면서 카밀라에게도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로타리오를 혼자 두지 말라고 당부했소. 실제로 안셀모는 자기 부재가 불가피한 일인 양 — 아니, 그 어리석은 핑계를 — 어찌나 그럴듯하게 꾸며냈는지, 그것이 꾸며낸 것임을 누구도 눈치챌 수 없을 정도였소. 안셀모가 떠나자 식탁에는 카밀라와 로타리오 둘만 남게 되었소.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점심을 먹으러 나간 뒤였소. 로타리오는 친구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소. 눈앞에는 무장한 기사 한 부대를 미모 하나로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적이 버티고 있었으니, 로타리오가 두려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소.

하지만 로타리오가 한 행동이라곤 의자 팔걸이에 팔꿈치를 괴고 손바닥을 뺨에 댄 채, 예의 없게 행동해서 미안하다며 카밀라에게 사과하는 것뿐이었소. 그러고는 안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잠시 쉬고 싶다고 말했소. 카밀라는 의자보다는 평상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이라며, 그곳에 들어가 잠을 청하라고 권했소. 로타리오는 사양했으나, 결국 그곳에서 잠이 들고 말았소. 뒤이어 돌아온 안셀모는 카밀라가 방에 있고 로타리오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너무 오래 비운 탓에 두

사람이 이미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잠자리까지 같이했을 것이라 생각했소. 안셀모는 로타리오가 어서 깨어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소. 그와 함께 밖으로 나가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오.

모든 일이 안셀모가 의도한 대로 흘러갔소. 로타리오가 잠에서 깨어나자 두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갔고, 안셀모는 로타리오에게 묻고 싶은 것을 물었소. 그러자 로타리오는 처음부터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았다고 대답했소. 대신 그는 카밀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만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소. 도시 전체가 그녀의 미모와 품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식이었지. 로타리오는 이것이 상대의 마음을 얻고,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기쁘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시작이라고 판단했소. 이는 마치 악마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자신을 살피는 사람을 속이려 할 때 쓰는 수법과도 같았소. 악마는 본래 어둠의 존재이면서도 빛의 천사로 변신하여 좋은 모습만을 보여준 뒤, 처음부터 정체가 탄로 나지 않는다면 결국 본색을 드러내어 목적을 달성하지 않소? 안셀모는 이 모든 상황이 매우 만족스러웠기에, 비록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매일같이 똑같은 기회를 마련해주겠다고 말했소. 집 안에서는 카밀라가 이 술책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른 일에 몰두해 있겠다고 말이오.

그리하여 여러 날이 지났으나, 로타리오는 카밀라에게 단 한 마디도 건네지 않았소. 대신 안셀모가 물을 때마다 로타리오는 이렇게 대답했소. 자신은 카밀라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나쁜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으며, 희망의 그림자조차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이오. 오히려 로타리오는 카밀라에게

이렇게 경고했소. 만약 그런 불순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남편에게 일러바치겠노라고 말이오.

"좋소." 안셀모가 말했소. "지금까지 카밀라는 말에는 잘 버텨냈으니, 이제 행동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겠구려. 내일 내가 당신에게 황금 2,000 에스쿠도를 줄 테니,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주시오. 게다가 그녀를 유혹할 보석을 살 수 있도록 그만큼의 돈을 더 주겠소. 여인들이란 아무리 정숙할지라도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법이니 말이오. 만약 그녀가 이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다면, 나는 만족하고 더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소."

로타리오는 이미 일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대답했소. 이 일에 매달리다가는 결국 지치고 패배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말이오. 이튿날 그는 4,000 에스쿠도를 받았소. 하지만 그 돈과 함께 4,000가지 고민거리도 떠안게 되었소. 다시 거짓말을 하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오. 하지만 결국 그는 카밀라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소. 카밀라는 말뿐만 아니라 선물과 약속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니, 더는 애써봤자 헛수고일 뿐이라고 말이오.

하지만 운명은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소. 평소처럼 안셀모가 로타리오와 카밀라를 단둘이 남겨두는가 싶더니, 실은 방 하나에 틀어박혀 열쇠 구멍으로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지켜보고 엿들었소. 그런데 로타리오는 반 시간이 넘도록 카밀라에게 단 한 마디도 건네지 않았고, 설령 그곳에서 백 년을 머문다 해도 말을 걸지 않을 기세

였소. 그제야 안셀모는 친구가 카밀라의 반응에 대해 했던 말들이 전부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소. 안셀모는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방에서 나왔소. 그러고는 로타리오를 따로 불러내어, 별일은 없는지, 카밀라의 기색은 어떠한지 물었소. 그러자 로타리오는 이제 그 일에 더는 손을 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대답했소. 카밀라가 너무나 쌀쌀맞고 무안을 주며 대답하는 바람에, 다시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꺼낼 기운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이오.

"아!" 안셀모가 말했다. "로타리오, 로타리오! 자네는 나에게 입은 은혜와 내가 자네를 믿는 마음을 어찌 이리도 배신하는가! 방금 열쇠 구멍 사이로 자네를 지켜보았는데, 카밀라에게 단 한 마디도 건네지 않더군. 그걸 보니 아직 그녀에게 꺼낼 첫마디조차 하지 않은 모양이야. 만약 정말 그렇다면, 아니 분명 그럴 테니, 대체 왜 나를 속이는 건가? 자네의 꾀로 내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마저 가로채려는 겐가?"

안셀모는 더 말하지 않았으나, 그 말만으로도 로타리오를 당황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소. 로타리오는 거짓말을 들킨 것을 마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것처럼 여기며, 안셀모에게 맹세했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자네를 기쁘게 하고 속이지 않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것이니, 혹시라도 궁금해서 훔쳐본다면 내 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이오. 게다가 굳이 애써 증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소. 자네를 만족시키기 위해 쏟을 나의 정성이 모든 의심을 말끔히 씻어줄 것이기 때문이오. 안셀모는 그의 말을 믿기로 했소. 그리고 카밀라를 더 편안하고 차분하게 대할 수 있도록, 여드레 동안 집을 비우기로 결심했소. 그는 도시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사는 친구의 집으로 떠나기로 했으며, 카밀라에게

자신이 떠났음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친구에게 아주 정중하게 자신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소.

"불행하고도 어리석은 안셀모여!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속셈인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것인가? 자네가 스스로를 해치고 있음을 보게나. 스스로 불명예를 자초하고 파멸을 재촉하고 있지 않은가. 자네의 아내 카밀라는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네. 자네는 그녀를 평온하고 안락하게 품고 있지 않은가. 그 누구도 자네의 안락을 방해하지 않고, 그녀의 생각 또한 집안의 담장을 넘지 않네. 자네는 지상에 내려온 그녀의 하늘이며, 그녀가 갈망하는 유일한 대상이자, 그녀의 모든 취향을 충족시키는 존재이며, 그녀의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네.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자네의 의지, 나아가 하늘의 뜻에 맞추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다스리고 있지 않은가.

자네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녀의 명예와 아름다움, 정숙함과 조신함이라는 광산이, 아무런 수고 없이도 자네가 원하는 모든 보물을 내어주고 있는데, 대체 왜 땅을 더 깊이 파헤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광맥과 보물을 찾으려 드는 것인가? 그러다 자네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위험을 왜 자초하는가? 결국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가냘픈 지지대 위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인데 말이네. 명심하게나. 불가능한 것을 좇는 자는 마땅히 가능한 것조차 누리지 못하게 된다네. 어느 시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 사실을 아주 잘 표현했지."

"죽음 속에서 삶을 찾고, 병 속에서 건강을 찾으며, 감옥 속에서 자유를 찾으려 하네. 닫힌 문 안에서 출구를 찾고, 배신자에게서 충성을 기대하려 하는군. 하지만 결코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은 하늘이 정해놓은 듯하네. 내가 불가능한 것을 구하니, 하늘은 마땅히 가능한 것조차 내게 허락하지 않는구먼."

어느 날 안셀모는 마을로 향하며 카밀라에게 이렇게 일렀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로타리오가 집을 살피러 올 것이니 함께 식사하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로타리오를 마치 자기 자신처럼 정성껏 대접하라고 당부했다. 현숙하고 정숙한 여인인 카밀라는 남편의 이런 명령에 마음이 괴로웠다. 그녀는 남편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식탁의 그 자리에 앉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혹시 자신이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까 미덥지 못해 이러는 것이라면, 이번 한 번만 시험 삼아 맡겨 보라며, 그러면 자신이 더 큰 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셀모는 그것이 자신의 뜻이니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카밀라는 비록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셀모가 떠나고 이튿날 로타리오가 집을 방문했다. 카밀라는 그를 사랑스럽고 정중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는 로타리오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결코 만들지 않았다. 항상 하인들을 곁에 두었기 때문인데, 특히 레오넬라라는 이름의 몸종을 늘 데리고 다녔다. 카밀라는 레오넬라를 무척 아꼈다. 두 사람은 카밀라의 부모님 댁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고, 카밀라가 안셀모와 결혼할 때 레오넬라도 함께 데려왔기 때문이다.

처음 사흘 동안 로타리오는 카밀라의 명령에 따라, 식탁보를 걷어내고 사람들이 서둘러 식사를 하러 떠날 때조차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레오넬라에게는 카밀라보다 먼저 식사를 마친 뒤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겨 있던 레오넬라는 그 시간과 장소를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싶어 했기에, 주인님의 명령을 매번 따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치 명령을 받은 것처럼 두 사람을 단둘이 남겨두곤 했다. 그러나 카밀라의 정숙한 자태와 엄숙한 표정,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이 워낙 대단했기에 로타리오는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카밀라의 수많은 미덕이 로타리오의 입을 다물게 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오히려 두 사람에게 더 큰 해가 되었다. 입은 침묵할지언정 생각은 쉼 없이 움직였고, 로타리오는 카밀라가 지닌 선함과 아름다움의 모든 면모를 구석구석 찬찬히 살펴볼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물론, 대리석 조각상조차 사랑에 빠지게 할 만큼 눈부셨다.

로타리오는 말을 건네야 할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카밀라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인인지 깊이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조금씩, 안셀모에 대한 예우를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는 안셀모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 또한 카밀라를 볼 수 없는 곳으로 도시를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며 느끼는 즐거움이 발목을 잡았고, 그 즐거움 때문에 차마 떠나지 못했다. 그는 카밀라를 바라보며 느끼는 이 기쁨을 떨쳐버리고 더는 느끼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그치며 내면의 싸움을 벌였다. 그는 혼자 있을 때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스스로를 나쁜 친구이자 나쁜 신자라고 비난했다. 자신과 안셀모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논리를 세워보기도 했지만, 결국 결론은 늘 같았다. 안셀모가 너무 지나치게 믿음을 주었던 것이 문제이지, 자신의 충성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만약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용서받는 것처럼 하느님께도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벌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실제로 카밀라의 아름다움과 선함,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만들어준 상황이 맞물리면서 로타리오의 충성심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로타리오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만 움직였고,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려 사흘 내내 내면의 싸움을 벌였으나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카밀라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가 건넨 말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우면서도 애틋한 구애를 담고 있어서, 카밀라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로타리오는 그녀의 이런 냉담한 반응에 낙담하지 않았다. 사랑이 생기면 희망도 함께 피어나는 법이니 말이다. 오히려 그는 카밀라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다. 로타리오의 이런 모습을 본 카밀라는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했다. 다시 말을 걸 기회를 만드는 것이 결코 안전하거나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그녀는, 그날 밤 곧바로 하인을 보내 안셀모에게 편지를 전하기로 결심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제34장

제34장. 참견하기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자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대목

“장군 없는 군대나 성주 없는 성이 위태로워 보인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지극히 정당한 사정이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 곁에 없는 젊은 유부녀야말로 훨씬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신이 곁에 없으니 너무나 괴롭고, 이 빈자리를 견디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 당신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의 집을 지킬 사람도 없이 그냥 부모님 댁으로 가버릴 거예요. 당신이 저를 지키라고 남겨두고 가신 그분도, 설령 여전히 그런 직함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에 관한 일보다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데 더 마음을 쓰는 것 같거든요. 당신은 사리에 밝은 분이니, 제가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히 알아들으시리라 믿어요. 더 말해봤자 좋을 것도 없으니까요.”

안셀모는 이 편지를 받고, 로타리오가 이미 일을 시작했으며 카밀라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답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무척이나 기뻤던 안셀모는 카밀라에게 직접 말로 전하기를, 자신이 곧 돌아올 테니 절대로 집을 옮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카밀라는 안셀모의 이런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답 때문에 그녀는 이전보다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집에 머물자니 정조를 잃을까 두렵고, 그렇다고 부모님 댁으로 떠나자니 남편의 명령을 어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카밀라는 가장 곤혹스러운 선택지인 '머무는 것'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인들에게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았기에, 로타리오의 눈앞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여 남편이 '로타리오가 카밀라에게서 어떤 대담한 기색을 읽었기에, 그녀가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를 저버리려 하는가'라고 오해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선량함을 믿었고, 하느님과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도 기대를 걸었습니다. 로타리오가 무슨 말을 하든 남편에게는 일절 알리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번거로운 일이나 걱정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나중에 남편이 왜 그런 편지를 썼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로타리오를 변호하며 상황을 둘러댈지 궁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옳지도, 유익하지도 않은 그저 도덕적인 고민일 뿐이었으나, 카밀라는 그렇게 하루를 보내며 로타리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로타리오는 아주 거세게 몰아붙였고, 이에 카밀라의 결심은 흔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을 내리깔아야 했습니다. 로타리오의 눈물과 호소에 마음이 흔들려, 눈동자에 애틋한 연민이 서릴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로타리오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고, 그럴수록 마음속 불길은 더욱 타올랐습니다.

결국 로타리오는 안셀모가 자리를 비운 이 시기와 장소를 틈타, 그녀라는 성채를 완전히 포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녀의 미모를 찬양하며 그 오만한 마음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인들의 허영심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는, 그 허영심을 자극하는 감언이설만큼 빠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로타리오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녀의 굳건한 의지라는 바위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설령 카밀라가 청동으로 만들어진 몸이었다 해도 무너져 내렸을 정도였습니다. 로타리오는 눈물로 호소하고, 간청하고, 약속하고, 아첨하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온갖 감정을 쏟아내며 진심인 양 연기를 펼쳤고, 결국 카밀라의 정조를 뚫고 그녀가 가장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가장 갈망했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카밀라는 굴복했습니다. 카밀라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로타리오의 우정마저 온전히 버텨내지 못했는데, 그것이 무슨 놀랄 일이겠습니까? 이는 사랑의 격정이란 오직 그것으로부터 달아남으로써만 이길 수 있으며, 그 누구도 그토록 강력한 적과 맞붙어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인간적인 힘을 이기려면 신성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인 여인의 이 약함을 아는 이는 레오넬라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연인이 된 그 두 나쁜 친구는

레오넬라에게만은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타리오는 안셀모가 무엇을 바랐는지, 또 안셀모가 자신에게 그 지경에 이를 빌미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을 카밀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밀라가 자신의 사랑을 가볍게 여길까, 혹은 자신이 일부러가 아니라 그저 어쩌다 우연히, 생각 없이 그녀에게 구애하게 된 것이라 여길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안셀모가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는 아내에게서 가장 소중하고도 귀한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안셀모는 곧장 로타리오를 만나러 갔고, 마침 그의 집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그동안 별일 없었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 안셀모 친구여! 내가 전해줄 소식은 이러하네." 로타리오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는 모든 선한 여인들의 본보기가 되고 영광이 될 만한 아내가 있다는 것이네. 내가 건넨 찬사들은 바람에 흩어졌고, 내가 제안한 것들은 무시당했으며, 내가 바친 선물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네. 심지어 내가 흘린 몇 방울의 가짜 눈물조차 그녀는 대놓고 비웃었을 정도라네. 결론만 말하자면, 카밀라는 미의 결정체일 뿐만 아니라 정숙함이 머무는 저장고이며, 절제와 조신함, 그리고 명예로운 여인을 칭송받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미덕이 살아 숨 쉬는 곳이라네. 그러니 친구여, 여기 있는 돈을 다시 가져가게나. 내가 손댈 필요조차 없었으니 말일세. 카밀라의 굳건한 의지는 선물이나 약속 같은 하찮은 것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네. 안셀모, 이제 만족하게나. 이미 충분히 시험했으니 더 이상의 확인은 하지 말게. 자네는 여인에 대해

품을 수 있는 의심과 어려움이라는 거친 바다를 이미 마른 몸으로 헤쳐 왔네. 그러니 다시는 새로운 문제라는 깊은 심해로 뛰어들려 하지 말게나. 하늘이 자네에게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라고 맡겨준 이 배가 얼마나 선량하고 튼튼한지, 다른 선장에게 시험해 보려 하지 말게. 그저 자네는 이미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다고 생각하게나. 그리고 선의라는 닻을 내리고 안주하게. 인간의 어떤 고결한 정신이라도 피할 수 없는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때까지는 말이네."

안셀모는 로타리오의 말을 듣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마치 신탁이라도 들은 듯 그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로타리오에게 부탁했습니다. 비록 호기심이나 재미 삼아 하는 일일지라도,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그토록 정성을 다하지는 않더라도, 이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말아 달라고 말입니다. 안셀모는 그저 로타리오가 클로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내를 찬양하는 시를 몇 구절 써주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는 카밀라에게, 자신이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의 정숙함에 걸맞은 예우를 갖추기 위해 그 여인에게 클로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만약 로타리오가 시를 쓰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이 직접 쓰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네." 로타리오가 말했습니다. "뮤즈의 신들이 나를 아주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 년 중 가끔은 나를 찾아오곤 하니 말일세. 자네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랑을 연기했다는 사실을 카밀라에게 전해주게나. 시는 내가 직접 쓰겠네. 비록 그 대상이 마땅

히 받아야 할 찬사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쓸 수 있는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시가 될 것이네."

이렇게 해서 뻔뻔한 자와 배신자 친구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안셀모는 집으로 돌아가 카밀라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카밀라는 왜 진작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 내심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안셀모는 카밀라에게, 그녀가 자신에게 보냈던 그 쪽지를 어떤 연유로 쓰게 되었는지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카밀라는 대답하기를, 남편이 집에 있을 때보다 로타리오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더 거침없게 느껴졌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로타리오가 자신을 피하고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애쓰는 것을 보니 그저 자신의 환상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셀모는 그 의심이 틀리지 않았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로타리오가 이 도시의 귀한 처녀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를 클로리라는 가명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로타리오가 정말로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로타리오의 진실함과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우정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만약 로타리오가 클로리를 향한 사랑은 모두 꾸며낸 것이며, 잠시나마 카밀라 자신을 찬양하는 데 몰두하기 위해 안셀모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카밀라에게 미리 귀띔해 주지 않았다면, 카밀라는 분명 질투라는 절망적인 그물에 걸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아무런 마음의 괴로움 없이 그 소동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날,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안셀모가 로타리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클로리를 위해 지은 시를 몇 구절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카밀라는 클로리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으니, 로타리오는 분명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설령 그녀를 안다고 해도," 로타리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연인이 자신의 여인을 아름답다고 찬양하면서 그녀가 냉정하다고 말한다 한들, 그것이 그녀의 명성에 결코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클로리의 배은망덕함을 주제로 소네트를 한 편 지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네트

밤의 정적 속에서, 달콤한 잠이 사람들을 사로잡을 때, 가련한 나는 나의 이 풍요로운 불행을 하늘과 나의 클로리에게 하소연하네. 그리고 태양이 장밋빛 동쪽 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때면, 나는 한숨과 불규칙한 흐느낌을 내뱉으며 해묵은 원망을 다시 시작하네. 태양이 별이 빛나는 자리에서 곧은 빛줄기를 땅으로 보낼 때면, 나의 눈물은 더욱 깊어지고 신음은 배가 되네. 밤이 돌아오면 나 또한 슬픈 하소연을 이어가지만, 죽을힘을 다해 부르짖어도 하늘은 귀를 닫고 클로리는 듣는 체도 하지 않네.

카밀라는 그 소네트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셀모는 그보다 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안셀모는 시를 찬양하며, 이토록 명

백한 진실에도 화답하지 않는 여인은 지나치게 냉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카밀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빠진 시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인가요?"

"—시인으로서 말한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겠지요." 로타리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그 말들은 언제나 진실에 못 미칠 만큼 부족할 뿐입니다."

"—그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안셀모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로타리오의 생각을 카밀라 앞에서 지지하고 그럴듯하게 믿게 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이미 로타리오에게 사랑에 빠져 있던 터라, 안셀모의 속임수 따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셀모는 자신의 일들에 대해 가졌던 그 기분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한 기분에 젖어 로타리오에게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소망과 글들이 카밀라를 향하고 있으며, 그녀야말로 진정한 클로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셀모는 로타리오에게 혹시 다른 소네트나 시를 더 알고 있다면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로타리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만큼 훌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첫 번째 시보다 못할 것 같군요.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바로 이 시입니다."

소네트

"나는 죽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죽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 아름답고 무정한 당신이여! 당신을 숭배한 것을 후회하느니, 차라리 당신의 발치에서 죽어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확실한 진실일 것입니다. 나는 망각의 땅, 삶과 영광과 은총이 모두 사라진 곳으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 가슴이 열린 채 놓여 있다면, 그 안에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불러온 가혹한 운명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이 유물을 간직하겠습니다. 당신의 냉정함이 거세질수록 나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질 뿐입니다. 아, 검은 하늘 아래, 북극성도 항구도 보이지 않는 낯설고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자에게 닥칠 불행이여!"

안셀모는 첫 번째 소네트에 그랬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소네트도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씩 고리를 이어가며 카밀라의 치욕을 엮어 묶어 나갔습니다. 로타리오가 그녀를 더 심하게 욕보일수록, 안셀모는 오히려 그녀가 더 명예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카밀라가 스스로를 경멸하며 중심부로 내려갈 때마다, 남편의 눈에는 그녀가 미덕과 명성의 정상을 향해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카밀라가 다른 이들 없이 하녀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오넬라, 친구여, 나는 부끄럽구나. 내가 나 자신을 이토록 하찮게 여길 줄 몰랐으니 말이야. 시간을 두고 로타리오가 내 마음의 온전한

소유를 차츰 얻어내도록 하지도 않은 채, 내 의지를 그토록 빨리 내어주고 말았으니. 그가 나를 억지로 몰아붙여 도저히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알아채지도 못한 채, 그저 내가 너무 성급했거나 경솔했다고만 여길까 봐 두렵구나."

"마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레오넬라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빨리 내어주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답니다. 만약 내어준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라면, 그것을 빨리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빨리 주는 사람이 두 번 주는 셈이라고요."

"쉽게 얻은 것은 가치 없게 여겨지기 마련이라는 말도 있지요." 카밀라가 말했습니다.

"그건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레오넬라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사랑이란 어떤 때는 날아다니고 어떤 때는 걸어간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랑은 달려가고 어떤 사랑은 느릿느릿 가기도 하죠. 누군가는 따스하게 데워주고 누군가는 불태워버리며, 누군가는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해요. 사랑의 욕망은 시작되는 순간과 끝나는 순간이 똑같답니다. 아침에는 요새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가도, 밤이 되면 그 요새를 함락시키고 말죠. 사랑을 막아설 힘이란 세상에 없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면 무엇을 겁내고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로타리오 역시 사랑을 도구 삼아 우리 주인의 부재를 틈타 우리를 굴복시키려 한 것이니, 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안셀모가 돌아와서 이 일이 미완성으로 남을 때까지 기다려 줄 여유 따위

는 없었을 거예요. 사랑이 결심한 일은 반드시 끝을 맺어야 하니까요. 사랑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 있어 '기회'보다 더 좋은 조력자는 없거든요. 사랑은 모든 일을, 특히 시작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니까요. 이 모든 건 제가 직접 겪어봐서 잘 아는 사실이에요. 마님도 저 역시 피와 살이 있는 젊은 여자니까요. 언젠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게다가 카밀라 마님, 마님은 그렇게 허겁지겁 자신을 내어준 게 아니잖아요. 로타리오의 눈빛과 한숨, 그가 건넨 말과 약속, 그리고 선물들 속에서 그의 영혼을 먼저 보지 않았나요? 그의 미덕을 보며 그가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런 까다롭고 결벽증적인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대신 로타리오가 마님만큼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만 믿으세요. 사랑이라는 덫에 걸린 이상, 그 덫이 마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다뤄주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지내시라고요. 그는 진정한 연인에게 필요하다는 그 네 가지 'S'는 물론이고, 알파벳 전체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읊어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그는 감사할 줄 알고, 선량하며, 기사답고, 아낌없이 주며, 열정적이고, 변함없고, 용맹하며, 정직하고, 명망 높고, 충직하고, 젊고, 고결하며, 품위 있고,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부유하며, 그 외에 'S'로 시작하는 모든 미덕을 갖춘 사람이에요. 게다가 과묵하고 진실하기까지 하죠. 'X'는 글자 모양이 거칠어서 어울리지 않고, 'Y'는 이미 다 말했으니 됐고요, 'Z'는 마님의 명예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뜻으로 남겨두죠."

카밀라는 하녀가 늘어놓는 알파벳 미덕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레오넬라가 말하는 것을 보니 사랑의 일에는 입에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력이 난 여자라고 여겼지요. 과연 레오넬라는 그것을 인정하며, 같은 도시에 사는 좋은 집안 청년과 어떻게 연애를 하고 있는지 카밀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카밀라는 자신의 명예도 그 길로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카밀라는 하녀에게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선 것인지 다그쳐 물었습니다. 하녀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아주 능청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주인이 방심하면 하녀의 부끄러움도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하녀들은 주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절뚝거리는 것쯤은, 또 그것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법입니다.

카밀라는 레오넬라에게 자신의 일을 연인이라는 자에게 발설하지 말아 달라고, 안셀모나 로타리오가 알게 되지 않도록 모든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오넬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카밀라의 걱정이 현실이 되도록 행동했습니다. 결국 카밀라가 자신 때문에 명예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맞았습니다. 부도덕하고 뻔뻔한 레오넬라는 여주인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자, 감히 집 안으로 들어와 연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설령 여주인이 자신을 본다 해도 차마 폭로하지는 못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인들이 자기 하녀의 노예가 되어, 카밀라의 경우처럼 하녀의 부도덕하고 비열한 짓을 은폐해 주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밀라는 레오넬라가 집 안 방에서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녀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연인을 방에 가둘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모든 방해물을 치워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로타리오는 동이 틀 무렵, 어떤 남자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기에 처음에는 유령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얼굴을 가리고 신중하게 몸을 숨기는 것을 보자, 그 단순한 생각을 버리고 또 다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카밀라가 손을 쓰지 않았다면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었을 생각이었습니다. 로타리오는 안셀모의 집에서 그토록 이른 시간에 나오는 저 남자가 레오넬라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레오넬라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기는 한 것인지조차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카밀라가 자신에게 쉬이 마음을 열었듯, 다른 남자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버렸습니다. 나쁜 여자의 악함은 바로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에게 간청하고 설득당해 몸을 맡긴 남자조차 그녀의 명예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녀가 다른 이에게도 훨씬 더 쉽게 몸을 던질 것이라 믿게 하며, 어떤 의심스러운 소문이 들려와도 그것을 사실로 믿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로타리오는 그동안 쌓아온 이성을 모두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경고와 이성적인 말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선량하거나 혹은 상식적인 행동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셀모가 일어나기도 전에, 속을 갉아먹는 질투의 광기에

눈이 멀어 성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카밀라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눈이 뒤집힌 그는, 안셀모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셀모, 잘 들어두시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한참을 싸워왔소. 더는 숨기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옳지도 않은 일을, 당신에게 차마 말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그쳐 왔단 말이오. 하지만 이제 카밀라의 절개는 이미 무너졌고, 내가 그녀에게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에도 굴복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시오. 내가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은, 이것이 그저 그녀의 가벼운 변덕인지, 아니면 당신의 허락 아래 내가 시작한 이 사랑이 확고한 결심에 따른 것인지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오. 또한 그녀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올바른 여인이라면, 진작에 당신에게 나의 구애를 알렸을 것이라 믿었소.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보니, 그녀가 내게 한 약속이 참이라는 것을 알겠더군. 당신이 다시 집을 비울 때면 보석을 보관하는 방에서 내게 말을 하겠다던 그 약속 말이오." 사실, 카밀라는 늘 그곳에서 그에게 말을 걸곤 했으니, 이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성급하게 복수를 하려 들지 마시오. 아직은 죄를 생각만 했을 뿐, 실제로 저지른 것은 아니니 말이오.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카밀라의 마음이 바뀌어 참회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겠소? 당신은 지금까지 나의 조언을 온전히 혹은 부분적으로나마 잘 따라주었으니, 이제 내가 말하는 조언 하나를 더 지켜보시오. 그래야 속임수 없이, 그리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당신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이 일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오. 예전처럼 이틀이나 사

흘 정도 집을 비우는 척하면서, 방 안에 몰래 숨어 있어 보시오. 방에 있는 벽걸이 장식이나 다른 물건들을 이용하면 몸을 숨기기에 아주 편할 것이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나는 나의 눈으로 카밀라의 본심을 보게 될 것이오. 만약 우려했던 대로 그녀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침묵과 기지, 그리고 신중함을 발휘하여 당신이 입은 수치를 되갚아주는 심판자가 될 수 있을 것이오."

안셀모는 로타리오의 말을 듣고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멈춰 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로타리오의 말을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셀모는 이미 카밀라가 로타리오의 가식적인 유혹을 모두 물리쳤다고 믿고 있었고, 승리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눈길 한 번 움직이지 않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타리오, 역시 당신답구려. 내 친구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앞으로도 모든 일에 당신의 조언을 따르겠소. 그러니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리고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비밀을 꼭 지켜주시오."

로타리오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고는 안셀모의 곁을 떠나자마자 자신이 한 말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카밀라에게 복수할 방법이 따로 있었음에도, 굳이 이토록 잔인하고 치욕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 못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을 저주하며 경솔했던 결정을 자책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리거나, 혹은 어떻게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카밀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이야기를 나눌 만한 상황이 생기자, 그는 그날 바로 혼자 있는 카밀라를 찾아갔습니다. 카밀라 역시 그가 말을 걸어올 만한 상황임을 알아채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로타리오 씨,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들어보세요. 가슴이 터져 버릴 것만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레오넬라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 여자는 매일 밤 자기 애인을 이 집으로 불러들여 다음 날 아침까지 함께 있어요. 제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제 집에서 그런 수상한 시간에 드나드는 사람을 본 이들이 저를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더 괴로운 건, 그 여자를 벌할 수도, 꾸짖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자가 우리 사이의 일을 다 알고 있는 비결을 쥐고 있다 보니, 저도 그 여자의 잘못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꾹 참아야만 하거든요. 이러다 정말 큰 화를 당할까 봐 두렵기만 합니다."

카밀라가 이 말을 시작했을 때, 로타리오는 그녀가 자신이 본 남자가 자신의 애인이 아니라 레오넬라의 애인이라고 부정하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해결책을 구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믿게 되자 그는 혼란스러움과 후회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밀라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레오넬라의 무례함을 막을 방법을 자신이 마련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그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안셀모에게 했던 말들을 카밀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불충실한지 침실에 숨어서 똑똑히 지켜

보겠다고 했던 말도 전했습니다. 그는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경솔한 말 때문에 빠져버린 이 복잡한 미로를 어떻게 헤쳐 나가고 수습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카밀라는 로타리오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몹시 화를 내며, 그의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고 경솔한 결단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조목조목 따지며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두에 기지가 뛰어난 법입니다. 비록 작정하고 논리적인 말을 늘어놓을 때는 그 기지가 모자라긴 하지만 말입니다. 카밀라는 곧바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이 난관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로타리오에게, 안셀모가 말했던 그곳에 다른 날 다시 숨어 있도록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안셀모가 숨어 있는 틈을 이용해, 앞으로는 두 사람이 아무런 걱정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이 방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속셈을 전부 밝히지는 않은 채,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당부했습니다. 안셀모가 숨어 있을 때 레오넬라가 부르면 로타리오가 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안셀모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타리오는 필요한 조치를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취할 수 있도록, 그녀의 의중을 끝까지 말해달라고 간곡히 졸랐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카밀라가 말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그대로 대답만 해주신다면, 더 이상 지킬 것은 없어요." (카밀라는 자신이 하려는 일을 미리 밝히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로타리오가 자신에게는 아주

좋은 방책이라 생각되는 이 계획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망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제안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로타리오는 떠났습니다. 며칠 뒤, 안셀모는 친구가 사는 마을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길을 나섰다가 다시 숨어들었습니다. 카밀라와 레오넬라가 머리를 써서 도와준 덕분에 그는 아주 수월하게 숨을 수 있었습니다. 안셀모는 자신의 명예가 처참히 짓밟히는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숨어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카밀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안셀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카밀라와 레오넬라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카밀라는 방에 발을 들이자마자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친구 레오넬라! 차라리 내가 네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네가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부탁한 안셀모의 단검을 가져와서, 이 수치스러운 가슴을 찔러 죽여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그러지는 마라.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짊어질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알아야겠어. 그 무모하고도 파렴치한 로타리오의 눈이 내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친구를 배신하고 내 명예를 더럽히는 이런 나쁜 마음을 품도록 나를 유혹했는지 말이야. 레오넬라, 어서 저 창가로 가서 그를 불러보렴. 분명히 나쁜 마음을 실행에 옮기려고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전에, 잔인하면서도 명예로운 내 결심부터 실행에 옮기겠다."

"아, 아가씨!" 영리하고 눈치 빠른 레오넬라가 대답했습니다. "이 단검으로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건가요?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로타리오를 죽이려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아가씨의 명성과 평판에는 치명적일 뿐이에요. 차라리 지금은 이 수치를 모르는 척 넘기시는 게 나아요. 저 나쁜 남자가 이 집에 들어와 우리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아가씨,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연약한 여자들이지만 그는 기세등등한 남자잖아요. 게다가 저 자는 지금 눈이 멀어 나쁜 마음을 품고 달려들고 있어요. 아가씨가 결단을 내리기도 전에, 저 자가 아가씨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얼굴만 번지르르한 놈에게 제 집에서 이런 화를 당하게 만든 안셀모 주인님은 정말 큰 잘못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 만약 정말로 저 자를 죽이려 하신다면, 그가 죽고 난 뒤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무슨 말이니, 친구?" 카밀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를 죽여두면 안셀모가 직접 묻어주게 될 거야. 그가 저지른 그 수치스러운 짓을 땅속에 묻느라 고생하는 게, 그에게는 마땅한 안식이 될 테니까. 어서 그를 불러오렴. 내가 받은 수치를 갚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치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한 죄를 짓는 것만 같아 마음이 조급하구나."

안셀모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카밀라가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그의 생각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요동쳤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정말로 로타리오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서 나가서 정체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등등하고도 정직한 결단이 결국 어떻게 끝을 맺을지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로막을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일단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카밀라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카밀라가 근처에 있던 침대 위로 몸을 던지자, 레오넬라는 아주 서럽게 울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만약 세상에서 가장 정숙한 꽃이자, 선한 여인들의 왕관이며, 순결의 귀감이 될 이분이 내 품 안에서 숨을 거두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 끝장이고 말 거야!"

레오넬라는 이와 비슷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말을 들었다면, 카밀라를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은 충직한 처녀로 여겼을 것이며, 그녀의 여주인을 새로운 고난을 겪는 페넬로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밀라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카밀라가 말했습니다.

"레오넬라, 어서 가서 해가 비추고 밤이 덮어 본 가장 충직한 친구를 불러오지 않고 뭐 하느냐? 어서, 빨리, 서둘러서 가거라! 내 안의 분노의 불길이 지체되는 사이에 사그라들지 않도록, 또 내가 기다리는 정당한 복수가 한낱 위협과 저주로 흩어져 버리지 않도록 하란 말이다."

"어서 불러오겠습니다, 주인님." 레오넬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저 단검부터 제게 주십시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인님께

서 무슨 일을 저지르셔서, 주인님을 아끼는 모든 이들이 평생 눈물로 지내게 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 마라, 레오넬라.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마." 카밀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눈에는 내 명예를 지키려는 내 행동이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다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저 루크레시아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불행에 빠뜨린 자에게 복수하기도 전에 죽음을 택했으니까. 나 역시 죽게 된다면 죽더라도, 내 잘못도 없이 이런 곳에서 그의 만행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게 만든 그놈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응징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레오넬라가 로타리오를 불러오기까지 한참을 망설이며 주저했지만,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레오넬라가 돌아오는 동안 카밀라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맙소사, 신이시여! 전에도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로타리오를 그냥 돌려보냈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을, 어찌하여 나는 그를, 지금처럼, 적어도 그의 오해를 풀어 줄 때까지는 나를 부정하고 나쁜 여자로 여기게 만드는 처지에 몰아넣었단 말인가? 의심할 바 없이 그 편이 나았으리라. 하지만 그가 그 못된 마음을 품고 들어온 이곳에서 아무런 응징도 받지 않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빠져나간다면, 나의 복수도 남편의 명예를 되찾는 일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배신자가 그토록 음탕한 욕망으로 저지르려 한 일의 대가를 제 목숨으로 치르게 하리라. 혹시라도 세상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카밀라가 남편에게 충실했을 뿐

만 아니라 감히 그를 모욕하려 한 자에게 복수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그렇긴 해도, 이 일을 안셀모에게 알리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마을로 보낸 편지에 그 일을 넌지시 일러두었지. 그런데도 그가 거기서 내가 일러둔 화를 바로잡으러 오지 않은 것은, 그토록 선량하고 사람을 잘 믿는 탓에, 그토록 굳건한 친구의 가슴속에 제 명예를 해칠 만한 생각이 깃들 수 있으리라고는 믿고 싶지도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리라. 나 역시 한동안은 그것을 믿지 못했고, 만약 그자의 무례함이 극에 달해 노골적인 선물과 장황한 약속과 끊임없는 눈물로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끝내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늘어놓고 있는가? 과감한 결단에 무슨 조언 따위가 필요하단 말인가?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 물러가라, 배신자들이여. 이리 오라, 복수여! 그 거짓된 자를 들이라, 오게 하라, 다가오게 하라, 죽고 끝장나게 하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다! 나는 하늘이 내 사람으로 점지해 준 이의 품에 깨끗한 몸으로 들어왔으니, 깨끗한 몸으로 그 품을 떠나리라. 설령 그리된다 해도, 기껏해야 나의 순결한 피와, 이 세상이 본 가장 거짓된 친구의 더러운 피로 흠뻑 젖은 채 떠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단검을 뽑아 든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갈팡질팡하고 거칠던지, 몸짓 또한 얼마나 격렬하던지,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조신한 여인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린 악당과도 같았습니다.

안셀모는 자신이 숨어 있던 태피스트리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하나하나에 감탄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그보다 더 큰 의심이라도 말끔히 풀어 주기에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혹여 갑작스러운 불상사라도 생길까 두려워, 로타리오가 나타나 시험이 치러지는 일만은 차라리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어 아내를 껴안고 그녀의 오해를 풀어 주려는 순간, 레오넬라가 로타리오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카밀라는 로타리오를 보자마자 단검으로 자기 앞 바닥에 길게 선을 하나 긋고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로타리오, 내 말을 똑똑히 들어. 만약 네가 감히 내가 그어 놓은 이 선을 넘으려 한다면, 아니 그 근처에 발이라도 들이려 한다면, 네가 움직이는 걸 보는 즉시 내 손에 든 이 단검으로 내 가슴을 찔러버릴 거야. 그리고 네가 대답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이 더 있으니 우선 끝까지 들어. 대답은 네 마음대로 나중에 해도 좋아. 우선 로타리오, 네게 묻고 싶은 첫 번째는, 내 남편 안셀모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야. 두 번째는 나를 알고 있는지 말해줘. 자, 당황하지 말고 대답해 봐. 뭐라고 말할지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 내가 묻는 것들은 그리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로타리오는 그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카밀라가 안셀모를 숨으라고 말한 첫 번째 대목에서부터,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의도에 맞춰 아주 기민하고도 적절하게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그 거짓말을 마치

명백한 사실인 양 꾸며낼 수 있었습니다. 로타리오는 카밀라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카밀라여, 내가 이곳에 온 의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질문을 하려고 나를 부른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약속한 은총을 미루기 위해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면, 차라리 더 멀리서부터 시간을 끄는 편이 나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을수록, 그것을 얻지 못할 때의 괴로움은 더욱 커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남편 안셀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우리 우정이 어떠한지는 당신도 이미 잘 알고 있으니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이 저로 하여금 그에게 저지르게 하는 그 잘못의 증인으로 저 자신을 세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사랑이란 더 큰 잘못조차 너끈히 변명해 주는 강력한 핑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저는 안셀모가 당신을 소유한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보다 못한 매력을 지닌 여인을 위해서라면 저는 결코 제 본분과 진실한 우정의 성스러운 법도를 저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법도는 지금 사랑이라는 더없이 강력한 적으로 인해 제 손에 의해 깨지고 짓밟히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정당하게 사랑받아야 마땅한 모든 것의 불구대천의 적이여,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카밀라가 대답했다—, 당신이 마땅히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그분의 거울과도 같은 이 앞에, 대체 무슨 낯으로 감히 나타난단 말입니까? 그 거울을 보면 당신이 얼마나 하찮은 구실로

그분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아, 불행한 나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도리를 이토록 저버리게 만들었는지를. 분명 저의 어떤 경솔함 때문이겠지요. 차마 부도덕이라고는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의도적인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계할 상대가 없다고 믿는 여인들이 무심코 저지르곤 하는 그런 실수였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말해 보십시오, 이 배신자여! 내가 언제 당신의 간청에 그 비열한 욕망을 품게 할 만한 말이나 몸짓으로 응답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달콤한 말들을 내가 언제 엄격하고 거칠게 꾸짖어 물리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늘어놓은 수많은 약속과 과한 호의를 내가 언제 믿거나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이토록 오랫동안 구애를 계속할 수는 없는 법이니, 당신의 이 끈질긴 집착은 결국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분명 나의 어떤 부주의함이 당신의 마음을 이토록 오랫동안 붙들어 두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당신의 잘못에 걸맞은 벌을 스스로에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마저 이토록 모질게 구는 이상 당신에게도 모질게 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당신을 증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당신이 온 힘을 다해 모욕한 나의 그토록 고결한 남편의 명예, 그리고 혹여 내가 당신에게 빌미를 주어 당신의 나쁜 의도를 부추기고 정당화한 꼴이 되었을지 모를, 그 기회를 피하지 못한 나의 부족한 조심성으로 함께 더럽혀진 그 명예를 위해 내가 바칠 희생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나의 어떤 경솔함이 당신에게 이토록

빗나간 생각을 불러일으켰으리라는 의심, 바로 그것이 나를 가장 괴롭히며, 내 손으로 직접 벌하고자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리가 나를 벌한다면 나의 죄가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질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나는 죽으면서 함께 죽이고자 합니다. 내가 품고 또 바라는 복수의 욕망을 마저 채워 줄 자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어디든, 사사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가, 나를 이토록 절망적인 처지로 몰아넣은 자에게 굽힘 없이 내리는 그 벌을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친 카밀라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과 민첩함으로 단검을 뽑아 들고 로타리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그 칼을 그의 가슴에 박아버리려는 듯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로타리오는 저 몸짓이 연기인지 진심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카밀라가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재치 있게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카밀라는 이 기묘한 속임수와 소동을 너무도 생생하게 꾸며냈기에, 그 연기에 진실성을 더하고자 자신의 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로타리오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혹은 쓰러뜨릴 수 없는 척하기 위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이 나의 이 정당한 갈망을 온전히 채워주지는 않으려 하나, 적어도 그 욕망을 완전히 꺾어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로타리오가 붙잡고 있는 단검의 손잡이를 힘껏 밀쳐내어 칼을 빼낸 뒤, 칼끝을 깊지 않은 곳으로 조절하여 왼쪽 어깨 근처, 갈비

뼈 윗부분에 칼을 찔러 넣고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레오넬라와 로타리오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땅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카밀라를 보면서도, 과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로타리오는 겁에 질려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달려가 단검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그제야 두려움이 가셨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카밀라가 보여준 그 영리함과 신중함, 그리고 기지 넘치는 대처에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이어 로타리오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밀라가 마치 죽은 사람이라도 되는 양, 그녀의 몸 위에서 길고 슬픈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런 지경에 빠뜨린 원인 제공자를 향해서도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또한 친구인 안셀모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듣는 이로 하여금 카밀라보다 로타리오를 훨씬 더 가엽게 여기게 만들 만큼 처절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비록 안셀모는 카밀라가 죽었다고 생각했을지언정 말입니다.

레오넬라는 카밀라를 품에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로타리오에게 몰래 카밀라를 치료해 줄 사람을 찾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또한, 만약 카밀라의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안셀모가 돌아온다면, 부인의 상처에 대해 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조언과 의견을 구했습니다.

로타리오는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카밀라의 피를 뽑아 두도록 하라고만 말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몹시 슬프고 괴로운 기색을 보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겨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이르자, 로타리오는 연신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그는 카밀라의 영리한 기지와 레오넬라의 능숙한 몸짓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안셀모가 자신의 아내가 제2의 포르시아와 같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로타리오는 안셀모를 만나, 세상에서 가장 교묘하게 숨겨진 거짓과 진실을 함께 축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레오넬라는 주인에게서 피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그 속임수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데 필요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레오넬라는 와인을 조금 부어 상처를 씻어낸 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상처를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치료하는 내내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는데, 설령 다른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더라도 안셀모로 하여금 카밀라가 정조의 화신이라고 믿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레오넬라의 말에 카밀라의 말도 더해졌습니다. 카밀라는 스스로를 겁쟁이라 부르며 기개가 부족하다고 자책했습니다. 그토록 혐오하던 목숨을 끊어야 할, 용기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정작 그 용기가 자신을 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시녀에게 이 모든

일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시녀는 말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만약 사실을 말한다면 로타리오에게 복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 그것은 시녀 자신에게도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선량한 여인이라면 남편이 다툴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런 빌미를 할 수 있는 한 모두 없애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밀라는 시녀의 의견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안셀모가 반드시 보게 될 그 상처에 대해, 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레오넬라는 자신은 속임수를 쓰는 일조차 못 할 정도로 거짓말에는 소질이 없다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니," 카밀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겠어요? 설령 목숨이 걸린 일이라 해도 나는 감히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끝까지 둘러댈 줄 모르는걸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빠져나갈 방도를 찾지 못한다면, 거짓말을 하다 들통나느니 차라리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편이 나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마님." 레오넬라가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궁리해 볼게요. 어쩌면 상처 부위가 그곳이니, 안셀모가 보지 못하게 잘 숨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늘도 우리의 이 정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가엽게 여겨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마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동요하지 않도록 애써 주세요. 주인님께서 마님의

당황한 모습을 보시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나머지는 저와, 그리고 선한 뜻을 언제나 굽어살피시는 하느님께 맡겨 두세요."

안셀모는 자신의 명예가 죽어가는 비극적인 연극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지켜보았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워낙 기묘하고도 절실하게 연기한 덕분에, 마치 그들이 꾸며낸 거짓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안셀모는 어서 밤이 오기만을, 그리고 집을 나가 친한 친구 로타리오를 만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내가 선량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찾아낸 그 귀한 진주를 두고 로타리오와 함께 기뻐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은 안셀모가 편히 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했고, 안셀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장 집을 나서 로타리오를 찾아 나섰습니다. 로타리오를 만난 안셀모는 그를 얼마나 세차게 껴안았는지, 기쁜 마음을 담아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지, 그리고 카밀라를 얼마나 찬양했는지는 차마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로타리오는 이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기쁜 기색을 내비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당하게 그를 해치고 있는지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안셀모는 로타리오가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이 카밀라에게 상처를 입힌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셀모는 여러 이유와 함께 로타리오에게 카밀라의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상처가 가벼운 데다 함께 잘 숨겨보기로 뜻을 모았으니 아무 걱정할 것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자신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안셀모는 로타리오의 재치와 방책 덕분에 자신이 꿈꾸던 최고의 행복에 이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는 카밀라를 찬양하는 시를 짓는 일 외에 다른 즐거움은 찾지 않겠노라 말하며, 그 시로 카밀라의 이름을 후세에 영원히 남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로타리오는 그의 결단이 훌륭하다며, 자신 또한 그 고귀한 업적을 쌓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안셀모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속아 넘어간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파멸시킬 도구를 손에 쥐고서도,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가져다줄 보물이라 믿으며 스스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카밀라는 겉으로는 얼굴을 찌푸린 듯했으나 속으로는 웃음을 참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 기만극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자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악행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안셀모는 자신의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35장



제35장. 참견하기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자의 이야기가 끝나는 대목

그 소설을 읽을 내용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돈키호테가 쉬고 있던 정자에서 산초 판사가 소란을 피우며 뛰어나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제 주인님을 도와주십시오! 제 눈으로 본 것 중 가장 치열하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주인님께서 미코미코나 공주님의 원수인 거인을 칼로 내리치셨는데, 마치 무를 썰 듯 거인의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셨단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 사람아?" 신부가 소설의 남은 부분을 읽다 말고 말을 끊으며 물었다. "산초, 제정신인가? 거인은 여기서 이천 레구아나 떨어진 곳에 있는데, 자네가 말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 방 안에서 커다란 소음이 들려왔다. 돈키호테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도 함께였다.

"꼼짝 마라, 이 도둑놈아! 악당 놈, 말썽꾸러기 자식! 내가 여기 잡아두었으니 네놈의 곡도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소용없을 것이다!"

돈키호테가 벽을 향해 거세게 칼질을 해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산초가 말했다.

"멈춰 서서 듣고만 있지 말고, 어서 들어와서 싸움을 말리거나 제 주인을 도와주십시오! 뭐, 이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요. 거인은 분명히 죽었으니까요. 바닥에 피가 흐르는 걸 제가 똑똑히 봤고, 커다란 와인 가죽 주머니만 한 머리가 옆으로 툭 떨어져 있는 것도 봤으니, 이제 저 거인은 신 앞에 가서 제멋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다 털어놓아야 할 겁니다!"

"돈키호테인지 악마인지 하는 자가 머리맡에 가득 차 있던 붉은 와인 가죽 주머니 중 하나라도 찔러 터뜨린 게 아니라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여관 주인이 그제야 말했다. "이 선량한 사람이 피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 쏟아진 와인일 게다."

여관 주인이 이 말을 마치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들이 마주한 돈키호테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기괴했다. 그는 셔츠 차림이었는데, 앞자락은 허벅지까지 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짧았고 뒷자락은 앞보다 여섯 치나 더 짧았다. 다리는 아주 길고 말랐는데, 털이 숭숭 나 있어 전혀 깔끔해 보이지 않았다. 머리에는 여관 주인의 기름진 붉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왼쪽 팔에는 산초가 유독 미워하는 침대 담요가 엉망으로 엉켜 있었는데, 산초가 왜 그 담요를 싫어하는지는 본인만 잘 알고 있었다. 오른쪽에는 칼을 뽑아든 채, 마치 정말로 거인과 싸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온 사방에 칼질을 해대고 있었다. 다행히 그는 눈을 뜨고 있지는 않았다. 잠든 채로 거인과 전투를 벌이는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험에 대한 상상력이 어찌나 강렬했는지, 그는 자신이 이미 미코미콘 왕국에 도착해 적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꿈을 꿀 정도였다. 그는 거인을 찌르고 있다고 믿으며 가죽 주머니들을 수없이 찔러댔고, 그 바람에 방 안은 온통 와인으로 가득 찼다. 이 광경을 본 여관 주인이 몹시 화가 나 돈키호테에게 달려들었다. 여관 주인이 주먹을 휘두르며 사정없이 매질을 해대는 바람에, 만약 카르데니오와 신부가 말리지 않았다면 거인과의 전쟁을 끝내버릴 기세였다. 그런데도 가련한 기사는 깨어나지 않았다. 이발사가 우물에서 커다란 솥에 찬물을 떠 와서 그의 온몸에 한꺼번에 끼얹고 나

서야 비로소 돈키호테는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자신이 지금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도로테아는 돈키호테의 옷차림이 얼마나 짧고 해괴한지 보고는, 조력자와 적수가 벌이는 그 전투를 구경하러 방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산초는 바닥 여기저기를 뒤지며 거인의 머리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산초가 말했다.

"이제야 알겠구나. 이 집안의 모든 일이 마법 때문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누가 때리는지도 모른 채 수없이 얻어맞고 두들겨 맞았는데 그 누구도 볼 수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내 두 눈으로 직접 베어 넘기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그 머리가 보이지 않으니, 마치 분수에서 피가 솟구치듯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건만 말이다."

"하나님의 원수 같은 놈아, 피니 분수니 하는 소리가 대체 무슨 소리냐!" 여관 주인이 소리쳤다. "이 도둑놈아, 저기 구멍 난 가죽 주머니들과 이 방 안을 헤엄쳐 다니는 붉은 와인이 피와 분수라는 게 안 보이느냐? 저 주머니를 찔러 터뜨린 놈의 영혼이 지옥에서 헤엄치고 있는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말지!"

"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다만 이 머리를 찾지 못해서, 제가 얻게 될 백작령이 물에 녹는 소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 같다는 생각뿐입니다."

잠에서 깬 산초는 잠든 주인보다 더한 상태였다. 주인이 약속한 것들이 산초를 그토록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관 주인은 종자의 태평스러운 태도와 주인놈의 마법에 걸린 듯한 행동을 보며 절망했다. 그러면서 돈만 떼먹고 도망갔던 지난번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번에는 저놈이 기사라는 특권을 내세운다 해도 음식값은 물론 터져버린 가죽 주머니를 때울 헝겊값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맹세했다.

신부는 돈키호테를 붙잡아 일으켰다. 돈키호테는 모험이 이미 끝났다고 믿은 모양이었다. 자신이 미코미코나 공주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 그는 신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다.

"고귀하고도 명성 높은 공주님, 이제부터는 이 천한 놈이 공주님께 해를 끼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 또한 이제야 비로소 공주님께 드렸던 약속을 다 지켰으니, 주님과 제가 숨 쉬며 살아가는 이유인 그분(둘시네아)의 보살핌 덕분에 약속을 완수했다는 사실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거봐요, 제가 뭐랬어요?" 산초가 그 말을 듣고 외쳤다. "제가 술에 취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주인님께서 거인을 소금에 절여 두신 것 좀 보세요! 이제 모든 게 틀림없어요. 제 백작령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요!"

주인과 종자, 이 두 사람의 엉뚱한 짓을 보고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분통이 터져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지경이던 여관 주인만 빼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쨌든 이발사와 카르데니오, 그리고

신부가 적잖은 고생 끝에 무진 애를 써서 돈키호테를 겨우 침대에 눕혔고, 돈키호테는 몹시 지친 기색으로 이내 잠이 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대로 자게 내버려 두고는, 여관 입구로 나가 거인의 머리를 찾지 못한 산초 판사를 달래주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은, 가죽 부대들이 갑작스레 '죽어' 버린 탓에 절망에 빠진 여관 주인을 진정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관 안주인은 목소리를 높여 고래고래 소리쳤다.

"운도 지지리 없지, 하필이면 이런 불길한 때에 이 편력기사라는 자가 내 집에 들어오다니! 차라리 내 눈에 띄지나 말 것을, 저자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지난번에는 자기가 모험을 찾아다니는 기사라느니 뭐라느니 떠들면서, 기사도 규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돈을 한 푼도 낼 의무가 없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자기랑 종자가 먹은 저녁이며 잠자리며 짚이며 보리, 게다가 말 한 마리와 나귀 한 마리 값까지 죄다 떼먹고 가버렸지. (하느님께서 저자와 세상의 모든 모험가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를!) 그런데 이번에는 그자 때문에 또 다른 양반이 와서는 내 소꼬리를 가져가더니, 두 쿠아르티요가 넘는 손해를 끼쳐 털이 죄다 뽑힌 채로 돌려줬지 뭐야. 이제 남편이 쓰려고 해도 도무지 못 쓰게 됐다고! 게다가 마지막 결정타로 내 가죽 부대들을 터뜨려 와인을 몽땅 쏟아버렸으니! 그자 피도 그렇게 쏟아지는 꼴을 봤으면 좋겠어! 어디 두고 보라지. 내 아버지의 유골과 어머니의 넋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자가 한 푼도 빠짐없이 갚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내가 버리고 내 부모의 딸이기를 그만두겠어!"

여관 안주인은 이런저런 말로 몹시 화를 내며 떠들어댔고, 충직한 하녀 마리토르네스도 옆에서 거들었다. 딸은 잠자코 있으면서 이따금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신부가 나서서 모든 상황을 진정시켰다. 그는 가죽 부대와 와인 값은 물론, 다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소꼬리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도로테아는 산초 판사를 달래며, 주인님이 거인의 목을 베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기만 하면, 자신이 왕국을 되찾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백작령을 산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산초는 그 말에 위안을 얻으며, 공주님께 자신이 거인의 머리를 분명히 보았다고 장담했다. 게다가 그 거인은 수염이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그 머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도 예전에 이 집에 묵었을 때 이미 그런 마법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느냐고 말이다. 도로테아는 정말 그럴 것이라며,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모든 일이 잘 풀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진정되자, 신부는 소설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보고 마저 읽어주려 했다. 카르데니오와 도로테아,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이 끝까지 읽어달라고 간청했다. 모두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었던 데다 자신도 읽는 재미가 있었던 신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내용은 이러했다.

"그리하여 안셀모는 카밀라의 선량함에 만족하며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렸으나, 카밀라는 속셈을 품고 로타리오를 쌀쌀맞게 대했다. 안셀모가 그녀의 본심을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로타리오 역시 카밀라가 자신을 보는 것을 몹시 괴로워하는 기색이 역력하자, 안

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녀의 집에는 들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안셀모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며 그를 만류했다. 이처럼 안셀모는 자신이 그녀의 사랑을 얻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온갖 방식으로 스스로 자신의 치욕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즈음 레오넬라는 자기 연애를 떳떳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데서 느낀 만족감이 어찌나 커졌던지,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이 거침없이 제 애인의 뒤를 쫓아다녔다. 주인마님이 자신을 감싸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님은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고 그 일을 해치울 수 있는 방법까지 일러 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안셀모는 레오넬라의 방에서 발소리를 듣고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 문을 열려 했으나, 누군가 문을 막아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욱 힘을 주어 문을 열려 했고, 마침내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창문을 통해 거리로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다. 안셀모는 그를 붙잡거나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서둘러 달려갔지만, 결국 어느 쪽도 이루지 못했다. 그때 레오넬라가 그에게 매달리며 이렇게 말했다."

"진정하세요, 주인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창밖으로 뛰어내린 자를 쫓아가지도 마세요. 이건 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안셀모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에 눈이 멀어 단검을 꺼내 들고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레오넬라를 위협했다. 겁에 질린 그녀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대답했다.

"죽이지 마세요, 주인님. 그러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드릴게요."

"당장 말해라." 안셀모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넌 죽은 목숨이다."

"지금은 불가능해요." 레오넬라가 말했다.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서 그래요. 내일까지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람은 이 마을 청년이에요. 저와 결혼하겠다며 청혼까지 한 사람이라고요."

안셀모는 이 말을 듣고 일단 진정하며 요구받은 기한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다. 카밀라의 선량함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녀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방을 나서며 레오넬라를 그 안에 가두어 두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할 말을 다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히 말했다.

그는 곧 카밀라를 찾아가, 시녀와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그리고 대단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겠다던 약속도 잊지 않고 전했다. 카밀라가 얼마나 당황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레오넬라가 자신의 부정함을 안셀모에게 전부 말해버릴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럴 법한 상황이었기에, 카밀라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는지 아닌지 확인하며 기다릴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

그날 밤, 안셀모가 잠든 것 같자 카밀라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보석들과 돈을 챙겼다. 그리고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집을 빠져나와 로타리오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로타리오에게 현재 상황을 모

두 설명하며, 자신을 보호해 주거나 아니면 안셀모의 눈을 피해 둘이서 멀리 떠나자고 간청했다. 카밀라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로타리오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결국 로타리오는 카밀라를 수도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의 원장 수녀는 카밀라의 친언니였다. 카밀라도 이에 동의했다. 로타리오는 상황이 급박한 만큼 지체 없이 그녀를 수도원으로 데려다주었다. 그러고는 자신 또한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곧장 도시를 떠나버렸다.

날이 밝았을 때, 안셀모는 카밀라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레오넬라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밀라를 가두어 두었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 레오넬라는 없었다. 다만 창가에 매듭지어 걸린 시트 몇 장이 보일 뿐이었는데, 이는 그녀가 그곳을 통해 창밖으로 내려가 도망쳤다는 증거였다. 안셀모는 매우 슬픈 마음으로 카밀라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갔으나, 침대 위는 물론 집안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집안 하인들에게 그녀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 누구도 그가 찾는 답을 알지 못했다.

카밀라를 찾아 나선 안셀모는 마침 그녀의 궤짝들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보석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였다. 이를 보고서야 그는 자신의 불행을 온전히 깨달았으며, 자신의 불운을 초래한 장본인

이 레오넬라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안셀모는 옷도 채 다 입지 못한 채 슬픔과 상념에 잠겨 친구 로타리오에게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러 갔다. 하지만 로타리오는 그곳에 없었다. 하인들은 로타리오가 어젯밤 집을 떠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챙겨갔다고 말했다. 안셀모는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하인 남녀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다. 집은 그저 텅 빈 채 적막할 뿐이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은 조금씩 나가고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여인도, 친구도, 하인도 모두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마치 자신을 보살펴 주던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명예를 잃었다고 느꼈다. 카밀라를 잃은 것이 곧 자신의 파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큰 결심을 내렸다. 이 모든 불행의 단초가 되었던 친구의 마을로 가기로 한 것이다. 그는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맥이 풀린 채 힘겹게 길을 떠났다. 하지만 길의 절반쯤 갔을 때, 밀려드는 상념을 견디지 못한 그는 어쩔 수 없이 말에서 내려 나무에 말을 매어 두었다. 그러고는 나무 밑동에 몸을 기대어 앉아 애처롭고 고통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날이 저물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다 해 질 녘쯤, 도시에서 말을 타고 오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남자에게 인사를 건넨 뒤, 피렌체에 무슨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도시 사람이 대답했다.

"최근 며칠 사이 그 도시에서 들려온 소식 중 가장 기이한 소식입니다. 산 후안에 살던 부유한 안셀모의 절친한 친구 로타리오가 어젯밤 안셀모의 아내 카밀라를 데리고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온 동네에 파다합니다. 게다가 안셀모마저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카밀라의 하녀가 전한 것인데, 어젯밤 그 하녀가 안셀모의 집 창문에서 시트를 타고 내려오다 행정관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온 도시 사람들이 이 일로 발칵 뒤집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워낙 깊고 각별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워낙 친해서 아예 '두 친구'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혹시 로타리오와 카밀라가 어느 길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안셀모가 물었다.

"도저히 모릅니다."라고 시민이 대답했다. "행정관이 그들을 찾으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나리."라고 안셀모가 말했다.

"부디 평안히 계십시오."라고 시민이 대답하고는 떠났다.

"이토록 불행한 소식을 접한 안셀모는 제정신을 잃는 것을 넘어, 목숨마저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아직 안셀모에게 닥친 불행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셀모가 안색이 노랗게 질린 채 기운 없이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자, 친구는 그가 무언가 중대한 병환을 앓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안셀모는 친구에게 누울 곳을 마련해 주고 글을 쓸 도구도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그의 뜻에 따라 문을 닫아걸고 그를 홀로 누워 있게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안셀모는 불행한 상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는 이 기이한 죽음의 원인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기 시작해 하고 싶은 말을 다 채 적기도 전에, 숨이 가빠지며 결국 멈추지 않는 호기심이 불러온 고통 속에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집주인은 시간이 이미 늦었는데도 안셀모가 아무런 기척이 없자,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러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안셀모가 몸의 절반은 침대에, 나머지 절반은 탁자 위로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글을 쓰다 만 종이가 펼쳐져 있었고, 안셀모의 손에는 여전히 깃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먼저 그를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자,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안셀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셀모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몹시 놀라며 슬퍼했습니다. 주인은 안셀모에게 닥친 이 불행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탁자 위의 종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종이는 안셀모가 직접 쓴 것이었으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리석고도 무모한 욕망이 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만약 나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 카밀라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녀를 용서한다는 말을 전해주십시오. 그녀가 기적을 일으킬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 또한 그녀가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바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스스로 불명예를 자초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이니, 더는 따질 것도 없습니다…”

안셀모는 여기까지 글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바로 그 대목에서 미처 문장을 끝맺지 못한 채 숨이 끊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그의 친구는 안셀모의 친척들에게 그의 죽음을 알렸으나, 친척들은 이미 그 불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밀라가 머물던 수도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밀라는 그 피할 수 없는 여정에 올라 남편의 뒤를 따를 지경에 이미 거의 이르러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남편의 부고 때문이 아니라 멀리 떠나 버린 친구에 대해 전해 들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카밀라는 과부가 되었음에도 수도원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수녀 서원을 하려는 마음조차 더더욱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뒤늦게 후회하며 떠났던 친구 로타리오가 나폴리 왕국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무슈 드 로트레크가 대장군 곤살로 페르난데스 데 코르도바를 상대로 치른 전투에서, 그곳으로 흘러들어 갔던 로타리오가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카밀라는 그제야 수녀 서원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슬픔과 우울함이라는 가혹한 손길에 붙들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시작에서 비롯된 이들의 결말은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좋소.” 신부가 말했다. “이 소설은 꽤 흥미롭군.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네. 만약 지어낸 이야기라면 작가가 글을 잘못 쓴 것이야. 안셀모처럼 그토록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런 실험을 하

려 드는 어리석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만약 이런 일이 귀족 청년과 여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니라고 보네. 이야기하는 방식 자체는 나쁘지 않구먼."

제36장



제36장. 돈키호테가 붉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들과 벌인 용맹하고도 엄청난 전투와, 여관에서 일어난 또 다른 기이한 사건들에 대하여

이런 상황에서 여관 문 앞에 서 있던 여관 주인이 말했다.

"자, 저기 오는 일행을 좀 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무리가 아닙니까? 저분들이 우리 여관에 머물러 주신다면, 우리는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건가요?" 카르데니오가 물었다.

"네 사람이 말을 타고 옵니다." 여관 주인이 대답했다. "모두 검은 가면을 쓴 채 창과 방패를 들고 있군요. 그 곁에는 얼굴을 가린 채 가마를 타고 오는 흰옷 차림의 여인과, 걸어서 오는 하인 두 명도 함께입니다."

"그들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까?" 신부가 물었다.

"그만큼 가깝습니다." 여관 주인이 대답했다. "이미 다 도착했군요."

이 말을 들은 도로테아는 얼굴을 가렸고, 카르데니오는 돈키호테가 머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채 움직이기도 전에 여관 주인 말대로 일행이 모두 여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명의 일행은 모두 체격과 자태가 아주 훤칠했는데, 말에서 내린 뒤 안장 위에 앉아 있던 여인을 부축하러 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여인을 품에 안아 카르데니오가 숨어 있는 방 입구에 놓인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동안 여인도 일행도 가면을 벗거나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인은 의자에 앉으며 마치 병들고 기운이 다한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팔을 힘없이 늘어뜨렸을 뿐입니다. 그사이 하인들은 말들을 마구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신부는 저토록 기묘한 차림을 하고 말 한마디 없이 나타난 이들이 대체 누구인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중 한 명에게 알고 싶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나으리. 이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주 귀한 신분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아까 보신 여인을 품에 안아 올린 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분을 깍듯이 대접하는 데다, 그분이 시키고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그럼 저 여인은 누구입니까?" 신부가 물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라고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오는 길 내내 그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다만 한숨을 내쉬는 소리는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신음 소리를 내실 때면, 그 소리 한 번 한 번에 혼을 다 쏟아내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 말고는 더 아는 게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와 제 동료가 이분들을 모신 지 이제 겨우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길에서 이 일행을 만났는데, 안달루시아까지 같이 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여비를 아주 넉넉히 쳐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럼 그들 중 누군가의 이름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라고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일행 모두가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지키며 걷고 있거든요. 가련한 부인께서 내뱉는 한숨과 흐느낌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뿐입니다. 분명 부인께서는 어딘가로 억지로 끌려가고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차림새로 미루어 보아 수녀이거나 곧 수녀가 될 분인 듯한데, 아마도 수녀가 되는 것이 본인의 뜻이 아니기에 저토록 슬퍼 보이는 것이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신부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뒤로한 채 도로테아가 있던 곳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면사포를 쓴 여인이 한숨짓는 소리를 들은 도로테아는 타고난 동정심에 이끌려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무엇이 그리 괴로우십니까? 혹시 여인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 치료법을 잘 아는 이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이 모든 말에도 슬픔에 잠긴 여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로테아가 더욱 정성껏 도움을 제안해 보았지만, 여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인이 다른 이들이 모두 따른다고 했던 가면을 쓴 기사가 다가와 도로테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 여인에게 무언가를 해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저 여인은 자기를 위해 행해진 일에 대해 고마워할 줄 모르는 버릇이 있습니다. 또

한 저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대답을 들으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너무나 진실하고 거짓을 꾸밀 줄 모르는 성격 탓에 지금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직접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순수한 진실함이 오히려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카르데니오는 그 말을 아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돈키호테의 방 문이 바로 앞에 있을 만큼 여인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다 들은 카르데니오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내 귀에 들리는 이 목소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비명에 놀란 여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소리를 질렀는지 보지 못한 채, 황급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사가 그녀를 가로막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인은 당황하고 불안한 나머지 얼굴을 가리고 있던 타프타 실크 면사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래로 비친 모습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얼굴이었으나, 안색은 창백하고 경악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필사적으로 눈을 굴리며 주위를 살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정신을 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여인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은 도로테아와 그녀를 바라보던 모든 이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기사는 여인의 등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

다. 여인을 붙잡는 데 온 정신을 쏟느라 기사는 흘러내리는 면사포를 들어 올려줄 겨를이 없었고, 아니나 다를까 면사포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을 껴안고 있던 도로테아가 눈을 들어 보니, 여인을 함께 껴안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페르난도였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알아보고는 가슴 깊은 곳에서 길고도 슬픈 비명을 내지르며 그대로 뒤로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마침 곁에 있던 이발사가 그녀를 품에 안지 않았더라면, 여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곧이어 신부가 달려와 여인의 얼굴에 물을 끼얹어 주려고 면사포를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고, 다른 여인을 껴안고 있던 페르난도는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고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르난도가 루신다를 놓아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신다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루신다는 카르데니오의 한숨 소리를 듣고 그를 알아챘고, 카르데니오 역시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한편, 카르데니오는 도로테아가 기절하며 내지른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비명이 루신다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에 질린 채 방에서 뛰쳐나왔고, 가장 먼저 본 것은 루신다를 껴안고 있는 페르난도였습니다. 페르난도 또한 곧 카르데니오를 알아보았습니다. 루신다와 카르데니오, 그리고 도로테아까지 세 사람 모두는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로테아는 페르난도를, 페르난도는 카르데니오를, 카르데니오는 루신다를, 그리고 루신다는

카르데니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적을 가장 먼저 깨고 입을 연 사람은 루신다였습니다. 그녀는 페르난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르난도 님, 다른 이유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 도리만이라도 생각하시어 저를 놓아주세요. 제가 담쟁이덩굴처럼 휘감겨 있는 그 벽, 곧 당신의 끈질긴 집착도, 협박도, 약속도, 그 어떤 선물도 저를 떼어놓지 못한 그 의지처로 가게 해주세요. 하늘이 이토록 예사롭지 않은, 우리조차 알 수 없는 길을 통해 저를 진짜 남편 앞에 데려다 놓았음을 보십시오. 수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오직 죽음만이 제 기억에서 그분을 지워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토록 분명한 진실을 깨닫고, 달리 어쩔 수 없으시다면 차라리 사랑을 분노로, 마음을 앙심으로 바꾸어 저를 죽여주세요. 제 선한 남편 앞에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 죽음을 통해, 제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께 지켜온 신의를 그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사이 도로테아는 정신을 차리고 루신다가 하는 말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루신다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테아는 페르난도가 여전히 루신다를 품에 안은 채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루신다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름답고도 애처로운 눈물을 쏟아내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주인님, 당신의 품에 안겨 빛을 잃은 저 태양의 광채가 당신의 두 눈마저 멀게 하고 어지럽힌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발치에 무릎 꿇

고 있는 이가 바로—당신이 원하시기 전까지는—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련한 도로테아라는 사실을 이미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 선량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당신의 취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감히 당신의 여인이라 불릴 만큼 높은 지위로 올려주려 했던 그 비천한 시골 처녀입니다. 저는 정조의 울타리 안에서 평온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당신의 끈질긴 집착이, 그리고 겉으로는 정당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감정이 호소해 왔을 때, 저는 정숙함의 문을 열고 제 자유의 열쇠를 당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선물에 너무나도 야속하게 보답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과, 당신의 이런 모습을 마주하게 된 상황만 보더라도 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당신에게 잊혔다는 슬픔과 비통함에 이끌려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아주 단호하게 원하셨기에, 설령 지금은 아니기를 바라실지언정 당신이 제 사람이 아니게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주인님,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향해 품고 있는 이 비할 데 없는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저를 버리고 좇으려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루신다의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신다 역시 당신의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카르데니오의 사람이니까요. 이 사실을 잘 따져보신다면, 당신을 증오

하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보다, 당신을 흠모하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돌리는 편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방심을 부추기셨고, 저의 절개에 간청하셨으며, 저의 신분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뜻에 온전히 저를 내맡겼다는 사실을 당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속았다고 발뺌할 여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리고 당신이 기사다운 만큼 그리스도인답다면, 어찌하여 처음에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셨으면서 끝에 가서는 이토록 먼 길을 돌아 그 행복을 미루시는 겁니까? 만약 저를 제 본모습 그대로, 즉 당신의 진실하고 정당한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면, 최소한 저를 당신의 노예로라도 받아들여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손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운이 좋다고 여길 것입니다.

저를 버리고 외면함으로써 제 명예가 훼손되고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저의 부모님께 너무나 가혹한 노후를 안겨주지도 마십시오. 그분들은 당신의 가문에 충성을 다해 좋은 신하로서 봉사해 오셨는데, 그런 대접을 받을 분들이 아닙니다. 혹여 제 혈통과 섞이는 것이 당신의 가문을 더럽힐까 걱정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고귀한 가문도 이런 길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인을 통해 이어지는 혈통은 명문가의 위상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고귀함은 덕성에 있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 덕성이 부족하여 저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권리를 거부하신다면, 결국 당신보다 제가 더 고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주인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저를 업신여기는 근거로 삼는 그 명예를 정녕 자랑스러워하신다면, 거짓이 아니며 거짓이어서도 안 될 당신의 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신이 직접 하신 서약과, 당신이 증인으로 부르셨던 하늘이 모두 증인입니다. 설령 이 모든 것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당신의 양심만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양심은 소리 없이 외치며 제가 드린 이 진실을 되새기게 하고, 당신의 더없는 기쁨과 평온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비통함에 젖은 도로테아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쏟아내며 애절한 감정과 눈물을 보였고, 그 모습에 페르난도를 따라온 이들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페르난도는 도로테아가 말을 마치고 흐느낌과 한숨을 내뱉을 때까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토록 큰 슬픔을 드러내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청동으로 만든 심장을 가진 사람일 것이었습니다. 루신다는 도로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도로테아의 감정에 못지않게 마음 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뛰어난 분별력과 아름다움에 경탄했습니다. 루신다는 도로테아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으나, 페르난도가 루신다를 품에 꽉 안고 놓아주지 않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도로테아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페르난도는 혼란과 경악에 휩싸인 채, 마침내 팔을 벌려 루신다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도로테아여, 당신이 이겼소. 당신이 이겼어. 이토록 수많은 진실을 한꺼번에 부정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 말이오."

루신다는 아까 겪은 실신 때문에 페르난도가 놓아주자마자 바닥으로 쓰러질 기세였습니다. 마침 카르데니오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난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페르난도의 등 뒤에 숨어 있었는데, 두려움을 뒤로하고 위험을 무릅쓴 채 루신다를 붙잡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는 루신다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충직하고 굳건하며 아름다우신 나의 여인이여, 만약 자비로운 하늘께서 당신이 이제쯤은 평온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신을 받아 안은 이 품만큼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전에 운명이 우리를 이어주어 당신을 나의 여인이라 부를 수 있었을 때, 당신을 품에 안았던 이 품이 바로 그곳이었으니까요."

이런 말을 들은 루신다는 카르데니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로 그를 알아차렸고, 다시 눈으로 확인하며 그가 맞다는 확신이 들자, 루신다는 거의 정신을 잃은 듯 체면도 돌보지 않고 카르데니오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카르데니오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맞대며 말했습니다.

"나의 주인님, 비록 모진 운명이 끝내 가로막고, 당신께 의지해 지탱되는 이 목숨에 아무리 많은 위협이 가해진다 해도, 당신이야말로 이 포로가 된 여인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 기이한 광경은 돈 페르난도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 이토록 보기 드문 일에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도로테아는 돈 페르난도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고, 그가 칼에 손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는 카르데니오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돈 페르난도의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무릎에 입을 맞추고 그를 꽉 붙들어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 채, 한순간도 눈물을 멈추지 않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신 당신, 이 뜻밖의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하실 작정인가요? 당신의 발치에는 당신의 아내가 있고, 당신이 아내로 삼고 싶어 하시는 여인은 지금 자기 남편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늘이 맺어 놓은 인연을 되돌리는 것이 과연 당신에게 옳은 일인지, 아니 가능하기라도 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또한 모든 장애를 뒤로한 채 자신의 진실함과 굳건함을 지키며, 바로 당신이 보는 앞에서 자기 눈을 진정한 남편에게 두고 사랑의 눈물로 그의 얼굴과 가슴을 적시고 있는 저 여인을, 당신과 같은 자리로 끌어올려 짝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과연 당신에게 어울리는 일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을 걸고 간청하오니, 또한 당신 자신을 걸고 애원하오니, 이토록 명백한 진실을 마주하고도 분노를 키우지 마시고 오히려 그 화를 가라앉혀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방해 없이, 하늘이 허락하는 시간만큼 저 두 연인이 평온하고 고요하게 서로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의 고귀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며, 세

상 사람들도 당신이 욕망보다 이성을 더 중히 여기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도로테아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카르데니오는 루신다를 껴안고 있으면서도 눈만큼은 돈 페르난도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돈 페르난도가 자신을 해치려는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설령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을 해치려는 모든 이들에게 맞서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저항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돈 페르난도의 친구들과 더불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신부와 이발사가 달려왔습니다. 착한 산초 판사도 빠지지 않고 함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돈 페르난도를 에워싸고, 도로테아의 눈물을 헤아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또한 도로테아가 말한 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었기에, 그녀의 정당한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신부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특별한 섭리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두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만이 루신다를 카르데니오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령 칼날이 그들을 갈라놓는다 해도, 두 사람은 차라리 죽는 편이 더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신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진 이들에게는, 스스로를 억누르고 이겨내어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더없는 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늘이 이미 허락한 행복을 두 연인이 오직 돈 페르난도의 뜻만으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도로테아의 아름다움에도 눈을 돌려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견줄 이

가 거의 없을 만큼, 하물며 능가할 이는 더더욱 없을 만큼 빼어나며, 그 아름다움에 겸손함과 그가 품은 지극한 사랑까지 더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부는 돈 페르난도가 기사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면,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식견 있는 사람들 또한 만족시키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식견 있는 이들은 비록 신분이 낮더라도 아름다움에 정숙함이 더해진다면, 그를 높여준 사람의 품위를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어떤 고귀한 신분과도 대등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움의 특권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끄는 강력한 법칙을 따르는 일이라 해도 거기에 죄가 끼어들지 않는 한, 그 법칙을 따르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덧붙여 나갔습니다. 그 말들이 워낙 많고 거셌던 탓에, 돈 페르난도의 용맹한 마음은(결국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답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마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항복했음을, 그리고 제시된 선한 뜻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증표로 돈 페르난도는 몸을 낮추어 도로테아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나의 여인이여. 내 영혼에 간직한 당신이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까지 말한 바를 행동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늘의 뜻일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향해 품은 그 믿음을 보며,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를 제가 온전히 깨닫게 하려는 뜻이었겠지요. 다만 제가 간청하고

싶은 것은, 저의 잘못된 결말과 그간의 큰 소홀함을 꾸짖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제 사람으로 맞이하려 했던 바로 그 마음과 힘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 애쓰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행복을 되찾은 루신다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눈 속에서 제 모든 잘못이 용서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마침내 이루었으니, 그녀가 카르데니오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하늘에 빌어, 저 역시 도로테아와 함께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그는 다시 그녀를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그녀의 얼굴에 맞대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애틋했는지, 눈물이 그만 자신의 사랑과 참회를 의심할 여지 없이 드러내 버리지 않도록 그는 무던히 애를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루신다와 카르데니오의 눈물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이들의 눈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기쁨에 겨워, 혹은 남의 기쁨에 감격하여 어찌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는지, 마치 모두에게 어떤 중대하고 불행한 일이라도 닥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산초 판사조차 눈물을 흘렸는데, 나중에 그는 자기가 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토록 많은 은혜를 기대했던 미코미코나 여왕이 자기 생각과 달리 알고 보니 도로테아였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눈물과 함께 놀라움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카르데니오와 루신다가 돈 페르난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베푼 은혜에 더없이 정중한 말로 감사를 표하니, 돈 페르난도는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

다. 그리하여 그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워 깊은 애정과 예우를 담아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후 돈 페르난도는 도로테아에게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도로테아는 이전에 카르데니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간결하고도 품위 있게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도로테아가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솜씨가 어찌나 매력적이었던지, 돈 페르난도와 그 일행은 그 이야기가 좀 더 길게 이어지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돈 페르난도는 루신다의 품 안에서 카르데니오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힌 그 종이를 발견한 뒤, 도시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습니다. 그는 루신다를 죽이고 싶었으며, 만약 부모님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죽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분노와 상처를 안고 집을 뛰쳐나와, 더 치밀하게 복수하리라 다짐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신다가 부모님의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그는 루신다가 카르데니오와 함께 살 수 없다면 평생 수도원에 머물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돈 페르난도는 세 명의 기사를 동행하여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루신다가 알게 되면 수도원의 경비가 더 삼엄해질까 두려워, 그동안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참아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는 날을 기다려, 그는 두 사람에게 문을 지키게 한 뒤 다른 한 명과 함께 루신다를 찾아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회랑에서 수녀와 대화를 나누던 루신다를 발견했고, 그녀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낚아채듯 데리고 나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근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도원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돈 페르난도의 말에 따르면, 루신다는 자신의 손에 붙잡히자마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뒤에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눈물과 한숨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침묵과 눈물 속에 이 여관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며, 돈 페르난도에게 이곳은 세상의 모든 불행이 마침내 끝을 맺는, 마치 천국에 도달한 것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37장



제37장. 유명한 공주 미코미코나의 이야기가 이어지며, 그 외의 익살스러운 모험들

산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적잖이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희망이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

니다. 아름다운 미코미코나 공주는 도로테아로 변해 버렸고, 거인은 돈 페르난도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주인은 방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도로테아는 자신이 누리는 이 행복이 혹시 꿈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카르데니오 역시 같은 생각에 잠겼고, 루신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페르난도는 자신을 그 복잡한 미로에서 구해준 하늘의 은총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명예와 영혼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관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토록 얽히고설켜 절망적이었던 일들이 이토록 좋게 해결된 것을 보며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 들었습니다.

신부는 사려 깊은 태도로 모든 상황을 매끄럽게 정리하며, 각자에게 일이 잘 풀린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사람은 여관 안주인이었습니다. 카르데니오와 신부가 돈키호테 때문에 입은 모든 손해와 손실을 물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직 산초만이 괴로워하며 불행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초는 울적한 표정으로 막 잠에서 깨어난 주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픈 형상님, 원하신다면 마음껏 주무셔도 됩니다. 거인을 죽일 걱정도, 공주에게 왕국을 되찾아줄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그 말이 맞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을 통틀어 그 거인과 벌인 싸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격

렬했으니까요. 단칼에 옆으로 후려쳐서, 얍! 하고 그놈의 머리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지요. 그때 흘러나온 피가 어찌나 많던지, 마치 물로 된 것처럼 개울을 이루어 땅 위를 흘렀답니다."

"차라리 레드 와인 같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주인님께서 혹시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죽은 거인은 그저 구멍 난 가죽 부대일 뿐이고, 그놈 배 속에 들어있던 피는 레드 와인 여섯 아로바나 다름없습니다. 잘려 나간 머리요? 그건 저를 낳아준 창녀나 다름없으니, 사탄이 다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군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미친놈아!"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제정신이냐?"

"주인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산초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주인님께서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왕님이 도로테아라는 이름의 평범한 여인으로 변해버린 모습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주인님께서 알게 되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어떤 일도 내게는 놀랍지 않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이 맞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법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그때와 같다고 해도 그리 이상할 건 없다."

"제가 다 믿었을 겁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담요에 들려 헹가래당한 일도 그런 마법 같은 것이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실

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아주 현실이고 진짜였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바로 그 여관 주인이 담요 한쪽 끝을 붙잡고는, 아주 능청스럽고 기운차게, 힘 못지않게 크게 웃으면서 저를 하늘 높이 밀어 올리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빤히 아는 마당이라면, 제가 비록 어리석고 죄 많은 사람이긴 해도, 이건 마법 같은 게 아니라 그저 흠씬 두들겨 맞은 일과 지독한 불운이 겹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입을 옷을 내주게. 그리고 밖으로 나가게 해다오. 네가 말한 그 사건들과 변화된 모습들을 직접 보고 싶구나."

산초가 옷을 내주었고, 그가 옷을 입는 동안 신부는 돈 페르난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돈키호테가 저지른 광기 어린 행동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돈키호테가 자신의 여인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머물던 페냐 포브레에서 그를 데려오기 위해 자신들이 어떤 수법을 썼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신부는 이어서 산초가 말했던 모험담들도 거의 다 이야기해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꽤 놀라워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두에게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즉,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기괴한 종류의 광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신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로테아 여인이 겪은 이 좋은 사건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기는 어려워졌으니, 돈키호테를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를 새로 짜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카르데니오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나섰고, 루신다는 도로테아 역할을 맡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오." 돈 페르난도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도로테아가 구상한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 훌륭한 기사의 고향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면, 그를 구제할 방도를 마련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여기서 채 이틀 거리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더 멀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행을 베풀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때 돈키호테가 모든 장비를 갖추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머리에는 비록 찌그러졌을지언정 맘브리노의 투구를 쓰고, 한 팔에는 둥근 방패를 끼고 창인지 장대인지에 몸을 기댄 채였습니다. 돈 페르난도와 다른 사람들은 돈키호테의 기이한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반 레과는 될 듯이 길쭉하고 메마르고 노르스름한 그의 얼굴이며, 제각각인 무장이며, 점잖은 몸가짐을 보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돈키호테가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며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고, 돈키호테는 아주 엄숙하고 차분한 태도로 아름다운 도로테아에게 눈길을 둔 채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귀부인이시여, 당신의 위엄이 무너지고 본래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제 종자에게서 들었습니다. 한때 여왕이자 고귀한 귀부인이셨던 당신이 이제는 평범한 처녀가 되셨다니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가 당신께 마땅히 드려야 할 도움을 주지 못할까 두려워한 흑마법사 왕, 곧 당신 아버님의 명령 때문이라면, 그분은 그 일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분이며 기사도 이야기에도 아주 문외한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만약 그분이 저처럼 기사도 이야기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면, 저보다 명성이 낮은 기사들조차 얼마나 더 어려운 일들을 해내었는지 곳곳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만한 자라 해도 자그마한 거인 하나를 죽이는 것쯤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요. 제가 그 거인을 마주한 지도 채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아, 이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세울까 두렵군요. 하지만 모든 것을 밝혀내는 시간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맞붙은 건 거인이 아니라 가죽 부대 두 개였소." 여관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대꾸했습니다.

돈 페르난도는 여관 주인에게 입을 다물고 돈키호테의 말을 절대로 가로막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고귀하시나 왕국을 잃으신 여인이시여, 만약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귀하의 아버님이 이토록 형체를 바꾸는 마법을 부린 것이라면 그 말을 결코 믿지 마십시오. 세상 그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해도 제 검이 뚫지 못할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은 날에 제가 적의 머리를 땅에 박아버리고, 귀하의 머리 위에는 잃어버린 왕국의 왕관을 다시 씌워 드리겠습니다."

돈키호테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공주가 대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공주는 돈 페르난도가 돈키호테를 자신의 땅까지 데려가기 위해 이 속임수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주 품위 있고 엄숙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슬픈 형상의 용맹한 기사여, 제가 모습이 바뀌고 본래의 모습에서 변했다고 말한 자가 누구든 그 말은 거짓입니다. 저는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제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사실 운 좋은 일들이 겹치면서 제 처지가 조금 변하기는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제가 아니게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의 그 용맹하고 경외로운 팔의 힘을 빌려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예전의 마음가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사님,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낳아주신 아버님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아버님을 사리분별이 밝고 신중한 분으로 여겨 주십시오. 아버님께서는 지혜를 발휘하여 제 불행을 해결할 아주 쉽고도 확실한 길을 찾아내셨으니까요. 만약 기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같은 행운을 누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점은 여기 계신 귀한 분들이 모두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내일 길을 떠나는 것뿐입니다. 오늘은 이미 해가 저물어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은 모두 하느님과 기사님의 용맹한 가슴에 맡기겠습니다."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현명한 도로테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돈키호테는 산초를 돌아보더니, 몹시 화가 난 기색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놈 산초, 아니 산초 녀석아! 네놈은 스페인에서 제일가는 악당이로구나. 말해 보아라, 이 떠돌이 도둑놈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공주

가 도로테아라는 이름의 처녀로 변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게다가 내가 거인의 머리라고 생각해서 베어버린 것이 사실은 네놈을 낳아준 그 천한 년이었다느니 하는 헛소리까지 늘어놓으며, 내 평생 겪어본 적 없는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느냐! 젠장……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당장 네놈을 아주 박살을 내놓으리라!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그 어떤 편력기사의 종자라 할지라도, 거짓말쟁이 놈들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아주 혼쭐을 내주겠어!"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미코미코나 공주님이 변하셨다는 부분이라면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인의 머리라든가, 적어도 가죽 부대가 뚫린 것이나 그 피가 붉은 포도주였다는 사실만큼은, 맹세코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침대 머리맡에 그 가죽 부대들이 칼에 찢긴 채 그대로 있고, 붉은 포도주가 방 안에 호수처럼 흥건하지 않습니까? 정 못 믿으시겠다면 때가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이 모든 손해를 물어내라고 청구할 때 직접 보시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여왕님이 예전 모습 그대로 계신다는 점은, 남들과 마찬가지로 저한테도 제 몫이 걸린 일이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놈 산초, 내가 말하건대 너는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놈이로구나."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용서해라,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만하십시오." 돈 페르난도가 말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공주님께서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내일 출발하자고 하시

니, 그렇게 합시다. 오늘 밤은 내일까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보낼 수 있겠군요. 내일은 우리 모두 돈키호테 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돈키호테 님이 맡으신 이 거대한 과업을 수행하며 보여줄, 그 용맹하고도 전대미문의 업적을 우리 모두 직접 목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당신들을 모시고 동행해야 할 사람입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저를 좋게 봐주시는 그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혹여 목숨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돈키호테와 돈 페르난도 사이에 정중한 인사와 호의적인 제안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관으로 들어온 한 나그네가 나타나면서 모든 대화가 멈추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을 보니 무어인 땅에서 막 건너온 기독교인 같았습니다. 그는 밑단이 짧고 소매가 중간까지 오는 푸른색 모직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깃은 없었습니다. 바지 역시 푸른색 천으로 된 것이었고, 모자도 같은 색이었습니다. 신발은 대추야자 빛깔의 가죽 반장화였으며, 가슴을 가로지르는 가죽 띠에는 무어식 곡도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뒤이어 당나귀를 타고 무어인 여인처럼 차려입은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자수가 놓인 작은 모자를 썼으며, 어깨부터 발끝까지 몸을 감싸는 긴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체격이 건장하고 풍채가 좋았으며, 나이는 마흔을 조금 넘긴 듯했습니다. 얼굴은 약간 검은 편이었고, 콧수염은 길었으며 턱수염은 아주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한마

디로, 그는 옷차림만 제대로 갖춰 입는다면 귀한 신분의 태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훤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방 하나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관에 빈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무척 낙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무어인 차림을 한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를 번쩍 안아 당나귀에서 내려주었습니다. 루신다와 도로테아, 여관 안주인과 그녀의 딸, 그리고 마리토르네스는 난생처음 보는 그 신기한 옷차림에 이끌려 무어인 여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언제나 품위 있고 사려 깊으며 분별력 있던 도로테아는, 방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여인과 그녀를 데려온 남자 모두가 상심한 것처럼 보이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곳에 갖춰지지 못한 편의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여관이란 원래 그런 것이 넉넉하지 않은 법이니까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지내시지요." 도로테아가 루신다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길을 오시는 동안, 아마 이곳만 못한 다른 잠자리들도 겪으셨을 테니 말입니다."

베일을 쓴 여인은 이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가슴 위에 겹쳐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하듯 몸을 굽힐 뿐이었습니다. 여인이 아무 말이 없자, 사람들은 그녀가 틀림없는 무어인이며 그리스도교 언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던 포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인들이 동행해 온 여인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과, 여인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들, 이 처녀는 제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합니다. 고향 말 말고는 다른 언어를 할 줄 모르니, 그래서 질문을 받아도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루신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오늘 밤 저희와 함께 머물며 저희가 묵을 자리를 나누어 쓰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뿐입니다. 머무는 동안 편히 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대접할 생각이고요.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라면 누구든, 특히 여인이라면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녀와 저를 대신해서라도," 포로가 대답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손에 입을 맞추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호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배려가 참으로 마땅하고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부인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훌륭한 분들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면,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나리." 도로테아가 말했습니다. "이 부인은 그리스도교인인가요, 아니면 무어인인가요? 옷차림과 저토록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 쪽인 것 같아 보여서 말입니다."

"옷차림과 겉모습은 무어인 같으나, 그 영혼만큼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교인입니다. 그리스도교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무척이나 간절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가요?" 루신다가 되물었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포로가 대답했습니다. "고국인 알제를 떠난 이후로, 성스러운 어머니이신 교회가 명하는 모든 예식을 미리 알지 못한 채 급히 세례를 받아야 할 만큼 죽음이 코앞에 닥친 위기 상황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녀의 신분에 걸맞은 품위를 갖추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 그것으로 신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녀의 신분은 지금 입고 있는 옷차림이나 저의 모습보다 훨씬 고귀하니까요."

이런 설명을 듣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무어인 여인과 포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그들이 좀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도 선뜻 묻지 않았습니다. 도로테아는 여인의 손을 잡고 자기 곁에 앉힌 뒤, 쓰고 있는 베일을 벗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인은 마치 포로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과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포로는 아랍어로 베일을 벗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여인은 그 말에 따라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드러난 얼굴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도로테아는 그 여인이 루신다보다 더 아름답다고 여겼고, 루신다는 그 여인이 도로테아보다 더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

람들도 두 여인의 미모에 견줄 만한 얼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 무어인 여인의 얼굴이라고 인정했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여인이 두 사람보다 더 낫다고까지 여겼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뜻을 사로잡는 특별한 힘이 있는 법이라, 사람들은 금세 그 아름다운 무어인 여인을 정성껏 모시고 보살피고 싶어 했습니다.

돈 페르난도는 포로에게 저 무어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포로는 그녀의 이름이 조라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고는 애절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으로 아주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조라이다가 아니라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조라이다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어인 여인이 이 말을 전할 때 보여준 깊은 애정은 그 말을 듣던 이들 중 몇몇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본래 마음이 여리고 동정심이 많은 여성들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신다는 그녀를 아주 사랑스럽게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마리아, 마리아예요."

그러자 무어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마리아예요. 조라이다 마캉헤!"라고 무어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캉헤라는 말은 '아니요'라는 뜻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갔습니다. 돈 페르난도와 함께 온 이들이 시킨 대로, 여관 주인은 그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때가 되자 모두가 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여관에는 둥글거나 네모난 탁자가 없었기에 마치 하인들 식당에나 있을 법한 긴 탁자에 앉은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키호테가 한사코 사양했음에도 그에게 상석이자 가장 윗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그녀의 보호자였기에 미코미코나 공주를 자기 곁에 앉게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루신다와 조라이다가 앉았고,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가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으로 포로와 다른 기사들이 앉았으며, 여인들의 옆자리에는 신부와 이발사가 앉았습니다. 모두가 매우 즐겁게 저녁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돈키호테가 식사를 멈추자 사람들의 흥겨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예전에 염소치기들과 저녁을 먹을 때 그토록 말을 늘어놓게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기세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방랑 기사의 길을 걷는 자들은 실로 거대하고 전대미문의 일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성문으로 들어와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를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의 우리라고 믿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 곁에 계신 이 부인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여왕이며, 제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저 '슬픈 형상의 기사'라고 누

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기술과 행위, 곧 기사도야말로 인간이 고안해 낸 그 어떤 기술과 행위보다도 뛰어나며, 더 많은 위험에 처할수록 그만큼 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학문이 무예보다 낫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 제 앞에서 물러가라고 하십시오. 그가 누구든 간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그들이 흔히 내세우는 논리, 즉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근거는 정신의 수고가 육신의 수고보다 더 크며 무예는 오직 육체로만 수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치 무예가 그저 튼튼한 힘만 있으면 되는 짐꾼의 일이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혹은 우리처럼 무예를 업으로 삼는 자들이 하는 일에 용맹의 행위가 담겨 있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용맹을 실천하려면 깊은 지혜가 필요한 법인데도 말입니다. 마치 군대를 책임진 전사나 포위된 도시를 방어하는 전사가 육체뿐 아니라 정신으로도 애쓰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적의 의도와 계획, 책략과 난관을 헤아리고 우려되는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일을 오직 육체의 힘만으로 해낼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지성으로 하는 일이며, 육체는 거기에 아무런 몫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여 무예도 학문과 마찬가지로 정신을 필요로 하는 이상, 이제 학자의 정신과 전사의 정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고되게 일하는지 살펴봅시다. 이는 각자가 향하는 목적과 종착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고결한 목적을 지닌 의도일수록 더 높이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영혼을 하늘로 이끌어 인도하는 신성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처럼 끝이 없는 목적에는 그 무엇도 견줄 수 없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문입니다. 그 목적은 분배적 정의를 바로 세워 각자에게 자기 몫을 돌려주고, 좋은 법이 지켜지도록 이해하고 또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그럽고 드높으며 큰 칭송을 받아 마땅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무예가 추구하는 목적이 받아 마땅한 만큼은 아닙니다. 무예의 목적이자 종착점은 바로 평화이며, 평화야말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인류가 받은 첫 번째 기쁜 소식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낮이 된 그 밤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노래하며 전한 소식 말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가장 위대한 스승께서 당신의 가까운 이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인사도, 어떤 집에 들어가든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여러 차례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남기노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러한 손길이 건네고 남겨 주신 보석이요 정표와도 같습니다. 이 보석이 없으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어떤 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평화야말로 전쟁의 진정한 목적이니, 무예라 함은 곧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의 목적은 평화이며 이 점에서 무예의 목적이 학문의 목적보다 앞선다는 이 진리를 전제로 삼고, 이제 학자의 육

체적 수고와 무예를 닦는 자의 육체적 수고를 견주어 어느 쪽이 더 큰지 살펴봅시다."

돈키호테는 이처럼 훌륭한 논리로 이야기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 솜씨가 어찌나 대단한지, 당시 그의 말을 듣던 이들 가운데 누구도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듣는 이들 대부분이 무예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사들이었기에, 그들은 아주 기꺼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키호테는 말을 계속 이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학자가 겪는 고난이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난입니다. 모든 학자가 가난한 것은 아니나, 이 상황을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난을 겪는다고 말한 이상, 그 불행에 대해 더 보탤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그 무엇도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은 때로는 배고픔으로, 때로는 추위로, 때로는 옷차림의 초라함으로, 혹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비록 남들보다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지거나 부자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게 될지언정 말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국물이나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바로 이들의 가장 큰 비참함이지요. 그래도 남의 집 화로 근처나 벽난로 곁을 찾아가 추위를 조금이라도 녹일 수는 있고, 결국 밤에는 어디든 덮고 잘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셔츠가 부족하고 신발이 모자란 것, 옷감이 성기고 보풀이 다 닳은 것, 혹은 운 좋게 잔치라도 열리는 날이면 얼마나 맛있게 허기를 채우는지 같은 사소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묘사한 이 험난하고 고된 길을 따라, 이리저리 걸려 넘어지고, 저리저리 구르고, 다시 일어났다 다시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학자들은 마침내 원하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그 경지에 오른 이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마치 행운의 바람을 타고 날아온 듯, 온갖 험난한 난관을 다 헤쳐 나온 뒤에는, 배고픔은 배부름으로, 추위는 따스함으로, 초라한 옷차림은 화려한 의복으로, 그리고 멍석 위에서의 잠자리는 고운 아마포와 다마스크 천 위에서의 휴식으로 바뀌어, 의자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는 그들의 미덕에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하려는 것처럼, 학자의 고난을 무예를 닦는 전사의 고난과 맞대어 비교해 본다면, 학자의 고난은 모든 면에서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38장



제38장. 돈키호테가 무예와 학문에 관하여 펼친 흥미로운 연설에 대하여

돈키호테가 말을 이었다.

자, 우선 가난한 학생의 처지부터 살펴봅시다. 그 고달픔을 따져본 뒤에 군인의 처지가 더 가난한지 확인해 보지요. 아마 군인이야말로 가난 중에서도 으뜸가는 가난뱅이일 것입니다. 군인은 제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급료의 빈곤함에 매여 살거나, 제 목숨과 양심을 위태롭게 걸어가며 제 손으로 직접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야 하니까요. 때로는 너무나 빈곤해서 여기저기 구멍 난 겉옷 한 벌을 예복이자 셔츠 삼아 입기도 합니다. 한겨울에는 들판에 노숙하며 하늘의 모진 풍파를 견뎌야 하는데, 빈 속에서 나오는 입김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차갑게 느껴질 정도라니 말입니다.

이런 고생을 다 겪고 나서야 밤이 오기를 기다려 잠자리에 들 수 있겠지요. 그가 누울 침대는, 만약 본인 잘못이 아니라면 결코 좁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땅 위에서 발을 뻗고 싶은 만큼 뻗을 수 있고, 이불이 몸을 조일 걱정 없이 마음껏 뒤척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직무를 완수하고 영광을 누릴 날이 오기나 할까요? 전투가 벌어지는 날이 오면, 그는 관자놀이를 관통했거나 팔다리를 불구가 되게 했을 총알을 치료하기 위해, 누더기로 만든 헝겊을 머리에 얹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자비로운 하늘이 그를 보살펴 건강하고 살아 있게 해준다면, 그는 예전과 똑같이 가난한 처지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그가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려면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전투를 거쳐야 하고,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법이지요.

자, 신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죽어간 이들에 비하면 살아남아 보상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분명 여러분은

죽은 이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고 계산에 넣을 수도 없지만, 살아남아 보상을 받는 이들은 손가락 몇 개로도 셀 수 있을 만큼 적다고 대답하시겠지요. 학자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소매가 아니라 옷 전체가 넉넉해서, 무엇이든 즐길 거리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 군인의 노고가 더 크다 해도, 그 보상은 훨씬 적은 법입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학자 이천 명에게 보상하는 것이 군인 삼만 명에게 보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입니다. 학자들에게는 그들의 직업에 맞는 관직을 내려 보상하면 되지만, 군인들에게는 오직 그들이 섬기는 주군이 가진 재산으로만 보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능함이야말로 제 논리를 더욱 뒷받침해 줍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빠져나오기 힘든 미로와 같으니 일단 접어둡시다. 대신 학문보다 무력이 우월하다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각자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근거들이 있으니,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이 문제를 더 파헤쳐 보지요. 제가 말한 근거들 중, 학문 측에서는 무력이 학문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에도 법이 있고 법을 따라야 하며, 법은 학문과 학자들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무력 측은 법 또한 무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맞섭니다. 무력이 있어야 공화국을 방어하고, 왕국을 보존하며, 도시를 지키고, 길을 안전하게 하며, 바다에서 해적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력이 없다면 공화국과 왕국, 군주국과 도시, 그리고 육로와 해로의 길들은 전쟁이 몰고 오는 혼란과 가혹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법이라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학문에서 뛰어난 경지에 오르려면 시간과 밤샘, 굶주림과 빈곤, 어지럼증과 소화불량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며, 이는 제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되어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은 학생이 겪는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매 순간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겪는 결핍이나 가난의 공포가, 적에게 포위된 채 보초를 서거나 요새를 지키는 군인의 공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적군이 자신이 있는 곳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떤 이유로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눈앞에 닥친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는 그 심정을 말입니다.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대장에게 상황을 알려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뿐이며, 자신은 그저 가만히 앉아, 언제 갑자기 날개도 없이 구름 위로 솟구치거나 원치 않게 깊은 심연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조차 작은 위험처럼 보인다면,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서 두 갤리선이 선수끼리 충돌하는 상황과 견주어 보십시오. 배들이 서로 맞물려 박히면, 군인에게 남은 공간이라곤 충각(선수의 뱃부리)에 걸친 두 자 남짓한 판자뿐입니다. 게다가 눈앞에는 적진에서 겨눈 대포의 수만큼이나 많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를 위협하는데, 그 대포들은 그의 몸에서 창 한 자루 길이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뎌도 곧장 넵투누스의 깊은 품을 찾아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군인은 두려움 없는 가슴으로 자신을 부추기는 명예에 이끌려 그 숱한 화승총의 표적이 되기를 자처하며, 그 좁디좁은 길목을 지나 적의 배로 건너가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할 곳

으로 쓰러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마저 적처럼 그를 기다리는 바다에 빠지면, 또 다른 이가, 다시 또 다른 이가 그 뒤를 이으며 죽음과 죽음 사이에 시간을 두지도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그 어떤 위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용맹과 대담함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화기라는 악마의 도구가 없던 지난 세기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화기를 발명한 자가 지옥에서 그 사악한 발명품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발명품 때문에 비겁하고 천한 자가 용맹한 기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용맹한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기세가 한창일 때, 저주받은 기계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치던 자가 쏜 무모한 총알 한 발이,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날아와 수많은 세월을 누려야 할 고결한 이의 생각과 생명을 순식간에 끊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저는 지금처럼 비참한 시대에 편력기사의 길을 택한 것이 못내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비록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지만, 화약과 주석 따위가 제 무력과 검술로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칠 기회를 앗아갈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대로 되겠지요. 만약 제가 목표한 바를 이룬다면, 과거의 기사들이 겪었던 그 어떤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을 무릅쓴 만큼, 저는 훨씬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이토록 긴 서론을 늘어놓는 동안, 다른 이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정작 돈키호테 본인은 음식을 입에 넣는 것조차 잊

고 있었는데, 산초 판사가 몇 번이나 그에게 우선 저녁부터 들고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얼마든지 하라고 일렀는데도 그러했다. 그의 말을 듣던 이들은 돈키호테가 겉보기에는 모든 사안에 대해 식견이 깊고 말솜씨도 훌륭한 사람임에도, 저 음울하고 지긋지긋한 기사 놀음 이야기만 나오면 이토록 철저히 정신을 놓아버린다는 사실에 새삼 안타까움을 느꼈다. 신부는 돈키호테가 무력을 옹호하며 늘어놓은 말들이 모두 옳다고 말하며, 자신 또한 학문과 학위를 갖춘 자이지만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저녁 식사를 마친 이들은 식탁보를 걷었다. 여주인과 그녀의 딸, 그리고 마리토르네스가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묵을 다락방을 정돈하는 동안 — 그날 밤은 여인들끼리만 그 방에서 쉬기로 정해둔 터였다 — 돈 페르난도가 포로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했다. 조라이다와 동행하며 보여준 모습으로 보아, 그의 이야기는 분명 기이하고도 흥미진진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포로는 기꺼이 그 청을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자신의 이야기가 듣는 이들의 기대만큼 재미있지 않을까 봐 걱정될 뿐이지만, 그래도 명령을 어길 수는 없으니 들려주겠다고 덧붙였다. 신부와 다른 이들은 포로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다시 한번 간곡히 청했다. 그러자 그토록 많은 이들이 청하는 것을 본 포로는, 명령의 힘이 이토록 강력한 마당에 굳이 부탁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참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꾸며내는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말을 마친 그는 모두가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경청하도록 유도했다. 마침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그가 무슨 말을 꺼내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확인한 그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39장



제39장. 포로가 자신의 삶과 그간의 사건들을 들려주는 대목

“레온 산맥의 어느 마을에서 제 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은 제 조상들에게 운명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풍요로운 복을 내려주었습니

다. 비록 그 마을들이 워낙 척박한 곳이라 해도, 아버지는 부자라는 명성을 얻으셨지요. 사실 아버지가 재산을 쓰는 데 부리신 솜씨만큼 재산을 지키는 데도 솜씨를 부리셨더라면, 정말로 부자가 되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너그럽고 낭비벽이 심했던 건 젊은 시절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인색한 자를 대범하게 만들고, 대범한 자를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으로 만드는 학교와도 같으니까요. 간혹 인색한 군인이 있긴 하지만, 그건 마치 괴물처럼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아버지는 너그러움의 선을 넘어 낭비의 경계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업을 이어받고 이름을 지켜줄 자식들을 둔 유부남에게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지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모두 남자아이였고 각자 자신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말씀하시길,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억지로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낭비와 베풂을 부추기는 근원을 없애기로 결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재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산이 없었다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 할지라도 궁핍함을 느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우리 세 형제를 방으로 따로 불러 모으시고는 이제부터 드릴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려면,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충분할 것이다. 반대로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면, 너희 재산을 지키는 일에 내가 도무지 자제할 줄 모른다는 점만 보아도 충분하겠지.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사람이지, 계부처럼 너희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 온 일을 너희에게 제안하려 한다. 너희는 이제 각자 직업을 갖거나, 적어도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명예롭고 유익할 만한 기술을 배울 나이가 되었다.

내 계획은 내 재산을 네 몫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중 세 몫은 너희에게 나누어 주되, 각자 몫을 넘지 않도록 한 푼도 틀림없이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몫은 하늘이 허락하는 한 내가 살아가며 생계를 유지하는 데 쓰려 한다. 다만, 너희가 각자 자기 몫의 재산을 손에 넣은 뒤에는 내가 말하는 길 중 하나를 따랐으면 좋겠구나. 우리 스페인에는 아주 진리인 속담이 하나 있는데, 짧은 문장에 긴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어 참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그 속담은 바로 '교회냐, 바다냐, 아니면 왕실이냐'라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교회에 들어가거나, 상업을 익혀 바다로 나가 항해를 하거나, 아니면 왕의 궁정에서 봉사하라'는 뜻이다. '영주의 은혜를 입느니 왕의 빵부스러기를 얻는 게 낫다'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 중 한 명은 학문에 힘쓰고, 다른 한 명은 상업에 종사하며, 나머지 한 명은 왕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길 바라기 때문이다. 왕의 궁정에서 일하는 건 워낙 어려우니 말이다. 전쟁이 큰 부를 가져다주지는 못해도, 명예와 용맹함만큼은 확실히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드레 뒤에 너희 몫의 돈을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전부 내어주마. 내 말이 어떤지, 내 뜻과 조언을 따를 의향이 있는지 지금 말해 보거라."

장남인 제게 아버지는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재산을 다 써버리지 마시고 적당히 남겨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재산을 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젊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저의 길은 하나님과 국왕을 섬기며 무기를 다루는 군인의 길을 걷는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둘째 형도 같은 뜻을 밝히며,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인도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막내 형은—제가 보기엔 가장 분별력이 있는 아이였습니다—교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작한 공부를 마치기 위해 살라망카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길을 정하자,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지체 없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돌아갈 몫은 제 기억으로는 각각 3,000두카도씩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친척 삼촌 한 분이 가문의 재산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재산을 통째로 사서 현금으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날, 사랑하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너무 노년에 적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게 못내 마음 아파서, 제 몫인 3,000두카도 중 2,000두카도를 아버지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은 1,000두카도만 있어도 군인으로서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으니까요. 제 형제들도 제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각자 1,000두카도씩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현금 4,000두카도와 더불어, 팔지

않고 땅으로 남겨두기로 하신 재산의 가치만큼인 3,000두카도 정도를 더 가지게 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깊은 슬픔과 눈물 속에서 아버지, 그리고 앞서 말한 삼촌과 작별했습니다. 두 분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잘되든 못되든 우리 소식을 꼭 알려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겠다고 약속드렸고, 두 분은 우리를 껴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뒤 한 명은 살라망카로, 다른 한 명은 세비야로 떠났고, 저는 알리칸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제노바로 보낼 양모를 싣는 제노바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어느덧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몇 통의 편지를 쓰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버지나 형제들에게서 그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낸 세월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알리칸테에서 배를 타고 제노바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밀라노로 이동해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무기와 몇 가지 화려한 군복을 마련한 뒤, 피에몬테에서 입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알레산드리아 델라 팔라로 향하던 길에, 알바 대공이 플랑드르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바꾸어 대공을 따라갔고, 그가 치른 전투들에 참여했습니다. 에구에몬 백작과 호르노스 백작이 처형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디에고 데 우르비나라는 이름 높은 과달라하라 출신 대위 밑에서 기수(旗手)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플랑드르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 비오 5세 성하께서—그분의 이름은 참으로 복되게 기억될 것입니다—공동의 적인 터키에 맞서 베네치아, 그리고 스페인과 동맹을 맺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터키는 해군을 앞세워 베네치아의 지배하에 있던 유명한 키프로스 섬을 점령했는데, 이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 동맹군의 총사령관으로 우리 국왕 폐하의 이복동생이신 돈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께서 오신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 중인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은 저를 자극했고, 곧 다가올 전투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기회가 오면 분명 대위로 승진할 것이라는 예감과 확신이 있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처럼 이탈리아로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운 좋게도 돈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 님은 막 제노바에 도착한 참이었고, 나중에 메시나에서 했던 것처럼 베네치아 함대와 합류하기 위해 나폴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지극히 복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고, 운 좋게도 제 실력보다는 과분하게도 보병 대위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기독교 세계에 있어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터키군이 바다에서는 천하무적이라 믿었던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날 비로소 착각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오만과 교만이 꺾인 그날, 그곳에는 수많은 승전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전사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아 승리를 거둔 이들보다 더 큰 복을 누렸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수많은 행운 속에서 오직 저만이 불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만약 제가 로마 시대의 군인이었더라면 해전의 영광스러운 관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유명한 전투가 끝난 뒤 찾아온 밤에 저는 발에는 쇠사슬을, 손에는 수갑을 찬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알제의 왕이자 대담하고 운 좋은 해적이었던 우찰리가 몰타의 기함을 들이받아 항복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단 세 명의 기사만이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들조차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후안 안드레아의 기함이 그 배를 구하러 달려왔고, 저 또한 제 부대를 이끌고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기 위해 적의 갤리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뛰어든 적선이 자신을 들이받은 배, 곧 저를 태우고 온 배에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제 병사들이 저를 따라오지 못하고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적진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고, 적의 수가 너무 많았던 탓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찰리는 자신의 함대와 함께 무사히 도망쳤습니다. 그 바람에 저만 그의 포로가 되어, 수많은 승전의 기쁨 속에 홀로 슬픔에 잠겼고, 수많은 자유인 사이에서 홀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터키 함대의 노를 저으며 오던 기독교인 만 오천 명은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얻었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저를 콘스탄티노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위대한 터키의 술탄 셀림은 제 주인을 해군 제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제 주인이 전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몰타 기사단의 깃발을 전리품으로 가져와 그 용맹함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572년, 저는 나바리노에서 세 개의 등불이 달린 기함의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가지 기회를 목격했습니다. 터키 함대 전체를 항구 안에서 통째로 잡아챌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함대에 타고 있던 레반트 해군과 예니체리 군사들은 항구 안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곧장 육지로 도망치려고 신발과 파사마케를 이미 다 챙겨 둔 상태였습니다. 우리 함대가 그들에게 심어준 공포가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달랐습니다. 우리 군을 이끌던 제독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할 채찍을 항상 곁에 두기로 뜻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찰리는 나바리노 옆에 있는 모돈이라는 섬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육지에 내려놓은 뒤 항구 입구를 요새화했고, 돈 후안이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여정 중에 '라 프레사'라고 불리는 갤리선 한 척이 탈취당했는데, 그 배의 선장은 그 유명한 해적 바르바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나폴리의 기함인 '라 로바'호가 그 배를 탈취했습니다. 당시 '라 로바'호는 전쟁의 번개이자 병사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운이 좋고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위대한 선장 산타크루스 후작 돈 알바로 데 바산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 프레

사'호에서 벌어진 일을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르바로사의 아들은 매우 잔인한 데다 포로들을 몹시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노를 젓던 포로들은 '라 로바'호가 자신들에게 다가와 따라잡는 것을 보자마자, 일제히 노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선반 위에 서서 어서 노를 저으라고 소리치던 선장을 붙잡았습니다. 포로들은 선장을 선미에서 선수까지 이쪽저쪽 노 젓는 자리로 끌고 다니며 사정없이 물어뜯었습니다. 선장이 돛대 근처를 겨우 지나쳤을 때, 그는 이미 영혼이 지옥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포로들을 대하던 잔인함과 포로들이 그에게 품었던 증오가 그토록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갔습니다. 이듬해인 1573년, 돈 후안 경이 튀니즈를 정복했다는 소식이 그곳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튀니즈를 터키로부터 탈취하여 물레이 하메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로써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용맹한 무어인이라 불리던 물레이 하미다가 그곳을 다시 통치하려던 희망은 완전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터키의 술탄은 이 손실을 매우 뼈아프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가문 사람들이 모두 갖춘 특유의 영리함을 발휘하여, 자신보다 훨씬 더 평화를 간절히 원하던 베네치아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듬해인 1574년, 돈 후안 경이 반쯤 세워두고 떠났던 튀니즈 근처의 라 골레타와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격변의 시기 동안 저는 자유를 얻을 희망도 없이 노를 저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적어도 몸값을 치르고 풀려날 희망조차 품지 못했습니다. 제 불행한 소식을 아버지께 차마 글로 써서 보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 골레타도 함락되었고 요새도 함락되었습니다. 그 두 곳에는 급료를 받는 터키 군인 7만 5천 명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무어인 및 아랍인 40만 명 이상이 주둔했습니다. 이 엄청난 인원이 가져온 군수품과 전쟁 물자, 그리고 소모품의 양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해서, 흙을 한 움큼씩 손으로 퍼 나른다면 라 골레타와 요새를 통째로 덮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먼저 함락된 곳은 그때까지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라 골레타였습니다. 라 골레타가 무너진 것은 수비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비군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다만 경험을 통해 그 황량한 모래사장 위에 참호를 파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수비대가 있던 곳은 두 뼘만 파도 물이 솟았지만, 터키군 쪽 땅에서는 두 바라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터키인들은 수많은 모래 자루를 이용해 요새의 성벽보다도 높은 참호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쏘아 댔기에, 누구도 버티거나 방어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 편이 라 골레타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해안 상륙 지점에서 야전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은 멀리서 소문만 들었을 뿐,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라 골레타와 요새에 겨우 7천 명의 병사뿐이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용맹하다 한들 어떻게 적의 그 엄청난 대군을 상대로 야전으로 나가 진지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적들이 자기 땅에서 그토록 많고 끈질기게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군도 없는 요새가 함락되는 것을 막는 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악행의 소굴과 그곳을 뒤덮은 불행의 근원을 허물어뜨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하늘이 스페인에 내린 특별한 은총이자 자비였습니다. 그곳은 무익하게 돈을 탕진하는 거대한 스펀지이자 좀벌레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은 그저 불멸의 카를로스 5세가 그곳을 정복했다는 기억을 보존하는 데 쓰일 뿐, 다른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의 돌덩이들이 받쳐주어야만 카를로스 5세의 영광이 영원해질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광은 이미 영원하며,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요새 또한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터키인들은 한 치씩 땅을 점령해 나가야 했습니다. 요새를 지키던 병사들이 워낙 용맹하고 끈질기게 싸운 덕분에, 스물두 차례에 걸친 총공세 속에서 적군 2만 5천 명 이상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병사 300여 명 중 단 한 명도 온전한 모습으로 포로가 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그리고 요새를 얼마나 잘 방어하며 지켜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발렌시아 출신의 기사이자 이름 높은 용사였던 돈 후안 사노게라가 지휘하던, 호수 한가운데 있던 작은 요새나 탑 하나가 협상 끝에 항복했습니다. 라 골레타의 지휘관이었던 돈 페드로 푸에르토카레로도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요새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요새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콘스탄티노플로 압송되던 길에 그 비통함 때문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요새의 지휘관 역시 포로가 되었는데, 그는 밀라노 출신의 기사로 뛰어난 공학자이자 매우 용맹한 군인이었던 가브리오 세르베욘이었습

니다. 이 두 곳의 요새에서 수많은 명망 있는 인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에는 성 요한 기사단의 기사였던 파간 데 오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인 유명한 후안 데 안드레아 데 오리아에게 베푼 엄청난 관대함에서 알 수 있듯 매우 너그러운 성품을 지닌 귀족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더욱 비극적이었던 이유는, 요새가 이미 함락된 것을 보고 자신을 타바르카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한 아랍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타바르카는 그 해안가에서 산호 잡이 일을 하는 제노바인들이 머무는 작은 항구나 집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랍인들은 그의 목을 베어 터키 함대의 사령관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사령관은 '배신은 반가울지언정 배신자는 미움받는 법'이라는 우리 카스티야의 속담을 그대로 보여주듯, 그 선물을 가져온 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산 채로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새에서 목숨을 잃은 그리스도교인 중에는 돈 페드로 데 아길라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안달루시아의 어느 마을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새의 기수(旗手)로서 매우 이름 높은 군인이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이였습니다. 특히 소위 시(詩)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을 지녔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운명의 장난으로 그가 제 갤리선과 제 노를 함께 쓰게 되었고, 결국 제 주인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항구를 떠나기 전, 이 기사는 라 골레타와 요새를 각각 기리는 비문 형식의 소네트 두 편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 시들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데다, 그 시들이 슬픔보다는 오히려 즐거움을 줄 것이라 믿기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로가 돈 페드로 데 아길라르에 대해 이야기하자, 돈 페르난도는 동료들을 쳐다보았고 세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소네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야기를 계속하시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돈 페드로 데 아길라르라는 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꼭 들려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포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콘스탄티노플에 머문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르나우테 복장을 한 채 그리스인 스파이와 함께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돌아왔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그리스인을 다시 보았거든요. 그때 그 여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모양이군요."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돈 페드로가 바로 제 형제거든요. 지금은 고향에 머물며 부유하고 평온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꾸려 세 아이를 두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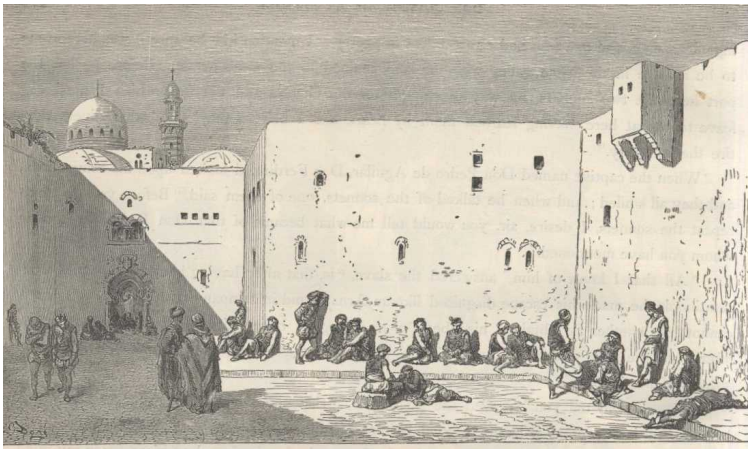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포로가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총에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 그 어떤 즐거움도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는 기쁨에는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사가 덧붙였습니다. "제 형제가 지은 소네트들을 제가 다 꿰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읊어 보십시오.” 포로가 말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읊으실 테니까요.”

"기꺼이 그러지요."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라 골레타에 바친 소네트를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제40장



CHAPTER XXXVI.

THE STORY OF THE CAPTIVE CONTINUED.

SONNET.

BLEST souls, discharged of life's oppressive weight,
Whose virtue proved your passport to the skies;
You there procured a more propitious fate,
When for your faith you bravely fell to rise.

When pious rage, diffused through every vein,
On this ungrateful shore inflamed your blood,
Each drop you lost was bought with crowds of slain,
Whose vital purple swell'd the neighb'ring flood.

Though crush'd by ruins, and by odds, you claim
That perfect glory, that immortal fame,
Which, like true heroes, nobly you pursued;
On these you seized, even when of life deprived,
For still your courage even your lives survived;
And sure 'tis conquest thus to be subdued.

제40장. 포로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대목

소네트

소네트

죽음이라는 베일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떠난 복된 영혼들이여, 그대들이 행한 선행 덕분에 낮은 땅을 떠나 하늘의 가장 높고 귀한 곳으로 올라갔도다. 분노와 명예로운 열정으로 타오르며 육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니, 그대들 자신의 피와 타인의 피로 인근의 바다와 모래사장을 물들였도다. 지친 두 팔에서 용맹함이 다하기도 전에 생명이 먼저 다하였으니, 그 팔은 죽어가면서도 비록 패할지언정 승리를 거머쥐었도다. 성벽과 칼날 사이에서 맞이한 그대들의 이 비극적이고도 장엄한 죽음은, 세상에는 명성을 남기고 하늘에는 영광을 선사하도다.

"나도 그 시를 똑같이 알고 있소." 포로가 말했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 요새에 관한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네." 기사가 말했다.

소네트

"이 황폐하고 무너져 내린 척박한 땅, 바닥에 흩어진 이 흙더미 사이에서 삼천 명의 용사들의 거룩한 영혼이 살아있는 채로 더 나은 안식처로 올라갔노라. 그들은 먼저 힘껏 팔을 휘두르며 싸웠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지친 몸으로 칼날 끝에 목숨을 바쳤도다. 이 땅은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비통한 기억으로 가득 찬 곳이라네. 하지만 이 가혹한 대지의 품에서 이보다 더 정의로운 영혼들이 맑은 하늘로 올라간 적은 없었으며, 이 땅조차 이토록 용맹한 육신을 떠받쳐 본 적은 없었으리라."

소네트는 모두에게 꽤 괜찮게 여겨졌고, 포로는 자기 동료에 관해 전해 들은 소식에 기뻐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라 골레타와 요새가 함락되자, 터키인들은 라 골레타를 허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새는 워낙 형편없이 망가져서 더 허물 것도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일을 더 빠르고 수월하게 끝내려고 라 골레타의 세 군데에 갱도를 파 폭파하려 했지만, 어느 것으로도 가장 약해 보였던 옛 성벽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프라틴이 새로 쌓았던 요새의 남은 부분들은 아주 쉽게 무너져 내렸지요. 요컨대 함대는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하게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제 주인이었던 우찰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찰리 파르탁스라고 불렀는데, 터키어로 '딱지투성이 배교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가 그랬으니까요. 터키인들은 자기들의 결점이나 장점을 따서 이름을 짓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스만 가문에서 내려오는 혈통의 성씨는 딱 네 가지뿐이라, 제가 앞서 말했듯이 나머지 사람들은 몸의 결함이나 정신의 미덕을 따서 이름과 성을 정하곤 합니다.

이 딱지투성이 사내는 위대한 군주의 노예로 14년 동안 노를 저었습니다. 서른네 살이 넘었을 때, 노를 젓다가 한 터키인에게 뺨을 한 대 맞은 것이 화근이 되어, 복수하려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위대한 터키 군주의 측근들이 출세하는 비열하고 추잡한 길을 거치지 않고도 알제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 영지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직위인 해군 총사령관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칼라브리아 출신이었고 성품도 선량하여 포로들을 아주 인자하게 대했습니다. 포로가 삼천 명이나 되었는데, 그가 죽은 뒤 유언에 따

라 포로들은 위대한 군주와 그의 배교자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위대한 군주는 죽는 모든 이의 상속자나 다름없어서, 고인이 남긴 다른 자식들과 함께 유산의 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네치아 출신의 한 배교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배의 견습 선원이었다가 우찰리에게 붙잡혔는데, 우찰리가 그를 무척 아껴서 가장 총애받는 시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가장 잔인한 배교자가 되었지요. 그의 이름은 아잔 아가였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어 알제의 왕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콘스탄티노플에서 왔는데, 스페인과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내심 기쁘기도 했습니다. 불행한 제 사연을 누군가에게 써 보내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콘스탄티노플에서 도망치려 온갖 수단을 다 써봤지만 번번이 때를 못 만나고 운도 따르지 않았으니, 알제에서는 운이 좀 더 따를지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유를 얻으리라는 희망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기에, 알제에서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이룰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계획하고 궁리하여 실행에 옮긴 일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저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설령 보잘것없고 희미할지라도 저를 지탱해 줄 또 다른 희망을 꾸며내어 찾아내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삶을 버텨냈습니다. 터키인들이 '바뇨'라고 부르는 감옥이나 집에 갇힌 채 말입니다. 그곳에는 국왕의 소유인 포로와 개인의 소유인 포로가 함께 갇힙니다. 또한 '알마센'이라 불리는 포로들도 있는데, 이들은 시의 공공사업이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며 도시에 봉사하는, 말하자면 시 의회의 포로들입니다. 이들은 자유를 얻기가 무척 어

렵습니다. 특정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에, 몸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도 협상할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뇨에는 마을의 개인들이 자신의 포로들을 맡겨두곤 합니다. 특히 몸값을 치르고 데려갈 포로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몸값을 치를 때까지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왕의 소유인 포로들 중에서도 몸값을 치를 예정인 이들은 다른 잡다한 무리와 함께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몸값을 치르는 데 시간이 걸릴 때면, 몸값을 더 열심히 받아내려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땔감을 구하러 다니게 만드는데, 이것도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 몸값 대상 포로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대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재산도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이 기사들과 몸값을 치를 신분 있는 자들의 명단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감시하려는 목적보다는 몸값을 치를 사람이라는 표시로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바뇨에서, 몸값 대상으로 지목되어 분류된 다른 여러 기사와 귀한 신분의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배고픔과 헐벗음이 때때로, 아니 거의 언제나 우리를 지치게 했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이만큼 괴롭히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제 주인이 기독교인들에게 저지르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잔혹한 행위들을 매 순간 지켜보고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한 명씩 교수형에 처하고, 누군가는 말뚝에 박아 죽이며, 또 다른 이는 귀를 잘라버렸습

니다. 그 모든 일이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이거나, 혹은 아예 이유조차 없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터키인들조차 그가 그저 그러고 싶어서, 즉 모든 인류를 죽이는 것이 그의 타고난 본성이라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걸 알 정도였습니다.

오직 사베드라라는 이름의 스페인 병사 하나만이 그에게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병사는 모두가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었던, 그곳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일들을 해냈는데도, 주인은 그에게 매질 한 번 하지 않았고, 매질하라 명하지도 않았으며, 험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수많은 일 중 가장 사소한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그가 말뚝에 박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했고, 그 자신도 한 번 이상 그렇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만 않다면 이 병사가 행한 일들을 지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신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흥미를 끌고 감탄을 자아낼 만한 이야기니까요."

"말씀드리자면, 우리 감옥의 안뜰 위로는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무어인 한 명의 집 창문들이 내려다보이고 있었습니다. 무어인들의 집이 대개 그렇듯, 그 창문들은 창문이라기보다 구멍에 가까웠고, 그마저도 아주 촘촘하고 두꺼운 격자창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은 모두 일하러 나가고 우리만 남게 되어, 저는 동료 세 명과 함께 감옥 옥상에서 시간을 때우려 쇠사슬을 찬 채 뛰어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보니, 아까 말씀드린 그 좁은 창문 사이로 대나무 막대 하나

가 보였습니다. 그 막대 끝에는 천 조각이 묶여 있었는데, 그 대나무가 마치 우리더러 잡아 가라고 손짓이라도 하듯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사람들이 막대를 놓아줄지 아니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막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막대를 들어 올리더니, 마치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오'라고 말하듯 양옆으로 흔들어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기독교인이 돌아가자 사람들은 다시 막대를 내려 처음과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동료가 나섰지만,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결국 세 번째 동료까지 나섰으나 앞선 두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도 운을 시험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막대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사람들이 막대를 툭 떨어뜨렸고, 그것은 바뇨 안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천 조각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 매듭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속에는 무어인들이 쓰는 품질 낮은 금화인 시아니 1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니 한 개는 우리 돈으로 10레알에 해당했습니다.

그 행운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큰 기쁨만큼이나 놀라웠던 것은, 이 행운이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만 막대를 놓아주려 했던 정황을 보아하니, 분명 저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사실이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그 귀한 돈을 챙기고 대나무를 부러뜨린 뒤 다시 작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창

문을 다시 보니, 아주 하얀 손 하나가 창문 밖으로 나와 손가락을 급히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사는 어떤 여인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표시로 무어인식 예법을 갖추어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힌 뒤 가슴 위에 팔을 얹어 절을 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같은 창문을 통해 대나무로 만든 작은 십자가를 내보냈다가 다시 들여보냈습니다. 이 신호는 그 집에 기독교인 여인이 갇혀 있으며, 그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얀 손과 그 손목에 보인 팔찌를 보고 우리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배교한 기독교인 여인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보통 그런 여인들은 주인들이 정식 부인처럼 대하며 곁에 두곤 하는데, 주인들은 그녀들을 자기 나라 여인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그 일의 진상을 두고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유일한 낙은 대나무 막대가 행운을 가져다주었던 그 창문을 바라보며 그곳을 이정표 삼아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보름 동안은 그 창문도, 하얀 손도, 그 어떤 신호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혹시 배교한 기독교인 여인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내려고 온갖 정성을 다해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기 모라토라는 이름의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무어인이 살고 있으며, 그는 그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직책인 라 파타의 성주를 지냈던 사람이라는 말 외에는 아무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아니가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거의 접고 있을 때쯤, 뜻밖에도 대나무 막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천 조각이 묶여 있었고, 그 안의 매듭도 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번처럼 바뇨에 사람이 아무도 없이 비어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평소 하던 대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있던 세 명의 동료가 저보다 먼저 차례대로 나섰지만, 막대를 놓아준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제가 막대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막대를 툭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스페인 금화인 에스쿠도 40개와 아랍어로 쓰인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글 끝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에스쿠도를 챙긴 뒤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어인식 예법을 갖추어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손이 나타났고, 저는 종이를 읽겠다고 손짓을 보냈으나 사람들은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벌어진 일에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중 누구도 아랍어를 읽을 줄 몰랐기에,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읽어줄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르시아 출신의 한 배교자에게 이 일을 믿고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저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자처했고, 제가 부탁하는 비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표까지 내놓았습니다. 어떤 배교자들은 기독교인의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고, 신분

이 높은 포로들의 서명을 미리 받아두기도 합니다. 자신이 선량한 사람이며, 항상 기독교인들에게 선을 베풀어 왔고,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 도망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속셈이지요.

어떤 이들은 정말 좋은 의도로 이런 증명서를 구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교묘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땅으로 몰래 침입했다가 운 나쁘게 들키거나 붙잡히게 되면, 미리 받아둔 서명을 내밀며 '이 종이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애초에 기독교인의 땅에 머물 목적으로 왔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터키인들과 섞여 함께 항해를 했던 것뿐이다'라고 변명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교회와 화해하여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베르베리아로 돌아가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종이를 진심으로 구해서, 정말로 기독교인의 땅에 정착해 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한 배교자 중 한 명이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그는 우리 동료 모두의 서명을 받아두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무어인들이 이 종이들을 발견한다면, 그는 산 채로 불태워질 판이었습니다. 그는 아랍어를 아주 잘 알았는데,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도 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와 완전히 속내를 터놓기 전에, 혹시 내 거처의 구멍에서 발견한 것이라며 그 종이를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치더니 한참 동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내용을 이해하느냐고 묻자, 그는 아주 잘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글자 하나하나 빠짐없이 내용을 알고 싶다면, 차라리 잉크와 펜을 가져다주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즉시 그가 요구한 것을 가져다주었고, 그는 내용을 조금씩 번역해 나갔습니다. 번역을 마친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랍어 종이에 적힌 내용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말하는 스페인어로 다 옮겨졌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레라 마리엔(Lela Marién)'이라고 적힌 부분은 '성모 마리아님'을 뜻한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우리는 그 종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에게 노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인이 제 모국어로 그리스도교식 기도를 가르쳐 주며 성모 마리아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교 여인은 죽었지만, 지옥 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알라의 곁으로 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여인을 두 번이나 보았는데, 저를 무척 아끼니 그리스도교 땅으로 가서 성모 마리아님을 뵙고 오라고 말해주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창밖으로 그리스도교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당신처럼 기사다운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주 예쁘고 젊은 처녀인 데다 가져갈 돈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곳에서 저의 남편이 되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원하지 않으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님께서 제게 맞는 짝을 찾아주실 테니까요.

이 글은 제가 직접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지 잘 살피십시오. 무어인들은 모두 사기꾼이니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도 정체를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만약 저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당장 우물에 던져버리고 돌무더기로 덮어버릴 것입니다. 대나무에 실을 매달아 놓을 테니, 거기에 답장을 묶어 두십시오. 만약 아랍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다면 몸짓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모 마리아님께서 당신의 뜻을 제가 알아듣게 해주실 겁니다. 성모 마리아님과 알라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길, 그리고 제가 자주 입을 맞추는 저 십자가가 당신을 지켜주시길 빕니다. 그 포로 여인이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에 담긴 사연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한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인 놀라움과 기쁨이 어찌나 컸던지, 그 배교자는 이 글이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중 누군가에게 쓰인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 자신의 짐작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아 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겠노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품 안에서 금속으로 된 십자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은 죄 많고 악한 자일지라도 진심으로 충실히 믿고 있는 하느님, 즉 그 십자가가 형상화한 그 신께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털어놓든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 글을 쓴 여인을 통해 자신과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느꼈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갈망하던 일, 즉 무지함과 죄악 때문에 썩은 지체처럼 떨어져 나와 있던 어머니 같은 성스러운 교회로 다시 돌아가 그 일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교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토록 간절히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모두는 마음이 움직여, 사건의 진상을 전부 털어놓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갈대가 보이는 창문을 가리켜 주었고, 그는 그곳에서 집의 위치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각별히 큰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어인 처녀가 보낸 쪽지에 답장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마침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기에, 배교자는 내가 불러주는 내용을 즉시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다음에 전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겪은 일 중 중요한 대목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있는 한 결코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어인 처녀에게 보낸 답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의 여인이시여, 참된 알라와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을 보살펴 주시기를 빕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참된 어머니이시며, 당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땅으로 떠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어

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청하십시오. 성모님은 자애로우신 분이니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기 함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디 저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할 생각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언제든 답장을 보내겠습니다. 위대한 알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언어를 이 종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창하게 말하고 쓸 줄 아는 그리스도인 포로를 보내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알려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땅으로 온다면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셨는데, 저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어인보다 약속을 더 잘 지킨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나의 여인이시여, 알라와 그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편지를 쓰고 봉한 뒤, 나는 평소처럼 포로 수용소가 비기를 이틀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갈대가 나타나는지 보려고 평소처럼 옥상 테라스의 정해진 자리로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갈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누가 그것을 내리는지 볼 수는 없었지만, 실을 매달아 달라는 뜻을 전하듯 편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갈대에는 실이 매달려 있었고, 나는 그 실에 편지를 묶었습니다. 잠시 후, 평화의 상징인 하얀 천을 두른 우리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떨어뜨려 주었고, 내가 그것을 건져 올리니 천 안에는 온갖 종류의 은화와 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려 50에스쿠도가 넘는 액수였

는데, 이 돈은 우리의 기쁨을 쉰 배나 더 키워주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굳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와 함께 있던 배교자가 다시 찾아와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집에는 예전부터 아기 모라토라고 불리던 무어인이 살고 있는데, 그가 온 지역을 통틀어 엄청난 부자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외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였습니다. 또한 그 딸은 베르베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이 온 도시에 자자한 평판이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수많은 총독이 그녀에게 청혼했으나, 그녀는 단 한 번도 결혼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집에 그리스도인 포로 여인이 한 명 있었으나 이미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받은 편지의 내용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배교자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무어인 여인을 데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땅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고자 하는 조라이다의 두 번째 연락을 기다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해결해 줄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녀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논을 마친 뒤, 배교자는 우리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나흘 동안은 포로 수용소에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래서 갈대가 나타나기까지 나흘이나 걸린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평소처

럼 수용소가 한산해지자, 갈대가 아주 묵직한 천 뭉치를 매달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아주 경사스러운 출산이라도 앞둔 모양새였습니다. 갈대와 천 뭉치가 내 쪽으로 기울어지기에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 한 통과 금화 100에스쿠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동전은 한 푼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교자를 불러 우리 거처 안에서 그 편지를 읽게 했고,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희가 어떻게 스페인으로 떠날 수 있을지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레라 마리엔에게 물어보아도 알려주는 법이 없으니 말입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창문을 통해 금화를 아주 많이 보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돈으로 주인님과 동료들의 몸값을 치르고, 우선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의 땅으로 보내십시오. 그가 그곳에서 배를 한 척 사서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러 돌아오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 여름 내내 아버지와 하인들과 함께 지내야 해서, 바바손 성문 근처 해안가에 있는 아버지의 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아무 걱정 말고 저를 그곳에서 데려다가 배로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제 남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신다면, 마리엔에게 시켜 당신을 벌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배를 타고 오려는 사람을 아무도 믿을 수 없다면, 차라리 주인님께서 직접 몸값을 치르고 탈출하십시오. 당신은 기사이자 그리스도인이니, 다른 누구보다도 잘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정원이 어디인지 알아내십시오. 당신이 그 근처를 거닐고 있으면 수용소가 비었다는 것을 알 테니, 그때 금화를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라께서 주인님을 보살피시기를."

"이것이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편지를 읽고 나자, 저마다 자신이 몸값을 치르고 탈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맞춰 반드시 갔다가 돌아오겠다고들 장담했지요. 저 또한 똑같이 자청했습니다. 그러자 배교자가 이를 가로막으며, 모두가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자유의 몸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포로 생활을 해본 경험상 자유의 몸이 된 이들이 갇혀 있을 때 한 약속을 지키는 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높은 신분의 포로들 중에는 이런 수법을 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발렌시아나 마요르카로 갈 수 있도록 돈을 챙겨 한 사람의 몸값을 먼저 치러 보낸 뒤, 그가 배를 마련해 자신들을 데리러 오게 하는 식이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떠난 이들 중 다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단 자유를 얻고 나면, 다시는 그 자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의무를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겠다며, 거의 바로 그 무렵 그곳에서 몇몇 그리스도인 기사들에게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경악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그 지역에서 일찍이 일어난 일 중 가장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준비한 돈을 차라리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알제에서 배를 한 척 사서, 테투안과 그 근처 해안을 오가는 상인이자 무역업자로 위장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이 배의 주인이 된다면, 수용

소에 갇힌 이들을 모두 탈출시켜 배에 태우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의 말대로 무어인 여인이 모두의 몸값을 치러준다면, 일단 자유를 얻은 뒤에는 대낮이라도 배를 띄우는 일이 아주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무어인들이 배교자가 배를 사거나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배를 산 사람이, 특히 스페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땅으로 도망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탈용 대형 선박이 아닌 이상 배를 갖는 것을 금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도 해결할 방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지 무어인 한 명을 배에 태워 동업자로 삼고 물건을 팔 때 이익을 나누게 하여, 겉모습만 꾸미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배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 나머지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는 장담했습니다."

"무어인 여인이 제안한 대로 마요르카로 향할 배를 보내는 편이 우리와 동료들에게는 더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말에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가, 우리 모두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조라이다의 거래를 그가 폭로해 버리기라도 한다면,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과 배교자의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우리는 조라이다에게 그녀가 조언한 대로 모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마치 렐라 마리엔에게 직접 들은 것처럼 상황을 아

주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에, 이제 이 일을 미룰 것인지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인지는 오직 그녀에게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청혼했습니다.

그 후, 수용소에 우리만 남게 된 어느 날, 그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갈대와 천을 통해 금화 2,000에스쿠도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종이에 글을 적어 주었는데, 첫 번째 주마(jumá, 금요일)에 아버지의 정원에 갈 예정이며, 떠나기 전에 돈을 더 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으로도 부족하면 언제든 말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돈이 아주 많아서 얼마쯤은 아깝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그녀가 모든 금고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배를 사는 데 쓰라고 배교자에게 500에스쿠도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800에스쿠도를 가지고 몸값을 치렀는데, 당시 알제에 머물던 발렌시아 상인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는 발렌시아에서 첫 배가 들어오는 대로 제 몸값을 치르겠노라 약속하며 저를 왕으로부터 구해내 주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치렀다면, 제 몸값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제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왕이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인이 돈을 챙기려고 이를 숨겼다는 의심까지 살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제 주인은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돈을 즉시 지불하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조라이다가 정원으로 떠나기로 한 금요일 전 목요일에, 그녀는 우리에게 1,000에스쿠도를 더 건네주며 떠날 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게 된다면, 꼭 아버지의

정원이 어디인지 알아내어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 가서 그녀를 만날 기회를 찾아보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짧게 대답하며, 그 기독교인 여종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모든 기도문을 정성껏 외워 렐라 마리엔에게 우리를 잘 보살펴 달라고 빌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한 뒤, 수용소에서 나가는 일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동료 세 명도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 제가 몸값을 치르고 풀려났는데 돈이 남아 있음에도 동료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들이 동요하여 악마의 유혹에 빠져 조라이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성품을 잘 알기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몸값을 치렀던 방식 그대로 그들도 풀려나게 했습니다. 상인에게 모든 돈을 건네주어 그가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이 너무 컸기에, 우리는 상인에게도 우리의 거래나 비밀에 대해서는 결코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제41장



제41장. 포로의 사건이 계속되는 대목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 개종자는 서른 명 넘게 탈 수 있을 만큼 아주 튼튼한 배를 한 척 마련했습니다. 그는 계획을 확실히 하고 겉으로 의심을 피하고자, 사르겔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르겔은 오란 방향으로 알제에서 30레구아 떨어진 곳에 있으며, 그곳

에는 말린 무화과 거래가 아주 활발한 곳입니다. 그는 이전에 말했던 타가리노와 함께 두세 번 정도 이 길을 오갔습니다. 베르베르 지역에서는 아라곤 출신 무어인을 타가리노라 부르고, 그라나다 출신은 무데하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페스 왕국에서는 이 무데하르들을 엘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그 왕이 전쟁터에서 가장 요긴하게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갈 때마다, 조라이다가 기다리는 정원에서 석궁을 두어 번 쏠 거리밖에 안 되는 작은 만에 배를 대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개종자는 노를 젓는 무어인들과 함께 아주 의도적으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진짜로 하려는 일을 시험 삼아 조롱거리로 삼으려는 듯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라이다의 정원에 가서 과일을 달라고 청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과일을 내주었습니다. 나중에 개종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는 조라이다에게 다가가 자신이 나의 명령을 받아 그녀를 기독교인 땅으로 데려다줄 사람이라고 말하며 안심시켜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라이다에게 말을 거는 것은 결코 불가능했습니다. 무어인 여인들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무어인이나 투르크인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로로 잡혀온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상식 밖의 일까지 허용하며 친근하게 대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의 계획이 개종자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기에, 그가 조라이다에게 말을 걸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까 봐 나는 내심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다른 뜻을 품고 계셨는지, 우리 개종자가 품은 그 선한 의도가 실현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개종자는 자신이 사르겔을 얼마나 자유롭게 오가는지, 원할 때 언제든 원하는 곳에 배를 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동행인인 타가리노도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나 역시 이미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 상태라 이제 노를 저을 기독교인 몇 명만 더 구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 사람들 말고도 함께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발하기로 정한 첫 번째 금요일까지 그들을 미리 설득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나는 스페인인 열두 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용맹한 노잡이들이었고, 도시를 가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스무 척의 배가 약탈 항해에 나가 있었고 노잡이들도 죄다 끌려간 상태였기에, 이 정도 인원을 찾아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인이 그해 여름에 조선소에 두었던 갈레오타(소형 갤리선)를 완성하느라 약탈 항해를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첫 번째 금요일 오후에 한 명씩 몰래 빠져나와 아기 모라토의 정원 쪽으로 가서 내가 갈 때까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따로 주의를 주며, 그곳에서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했을 뿐이라고만 말하라고 일렀습니다.

이런 준비를 마친 뒤에 내게는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조라이다에게 계획이 진행 중

임을 알려서 그녀가 미리 대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인들의 배가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한 시간보다 더 일찍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녀를 데려가더라도 그녀가 너무 놀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원에 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떠나기 전 어느 날, 약초를 좀 캐는 핑계로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베르베르 지역은 물론 콘스탄티노플의 포로들과 무어인들 사이에서도 통용되는 언어로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언어는 모리스코의 것도, 카스티야의 것도, 그 어떤 민족의 것도 아닌, 모든 언어가 뒤섞여 있어 누구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가 그런 식으로 내게 정원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누구의 노예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아르나우테 마미의 노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미의 아주 귀한 친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샐러드를 만들 약초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몸값을 치르고 풀려날 사람인지, 내 주인은 내 몸값으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문답이 오가던 중, 정원 집에서 아름다운 조라이다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보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어인 여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으며,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

려 아버지는 그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를 불러 내 곁으로 오라고 일렀습니다.

지금에 와서 내가 사랑하는 조라이다가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미모가 얼마나 눈부셨는지, 그 품위와 기품,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고 값진 장신구로 치장했는지를 일일이 말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저 한 가지만 말하자면, 그녀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목과 귀, 그리고 머리카락에는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은 진주가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뿐입니다. 또한 그녀는 무어인 풍습에 따라 발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발목에는 순금으로 만든 두 개의 발찌(무어인들은 발목 장식을 이렇게 불렀습니다)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어찌나 촘촘히 박혀 있었는지, 나중에 그녀의 말이, 아버지가 그 발찌의 값을 만 도블라로 쳤다고 하더군요. 손목에 찬 팔찌 역시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주는 양도 엄청났고 질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무어인 여인들이 가장 화려하게 꾸미는 방법은 값비싼 진주와 자개로 치장하는 것이기에,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무어인들 사이에 진주와 자개가 더 흔하기 때문입니다. 조라이다의 아버지는 알제에서 가장 많고 질 좋은 진주를 가진 것으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에스쿠도 20만 개 이상을 가진 부자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여인이 된 이분은 그 모든 재산을 소유한 주인이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장신구를 갖추었음에도 당시의 모습이 이 정도였다면, 그간 겪은 온갖 고초 속에서 남은 흔적들을 보아 짐작건대, 형편이

좋을 때는 대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여인들의 미모는 때와 계절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며, 상황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마음의 격정은 미모를 돋보이게 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미모를 해치기 마련이라는 점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시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치장하고 있었으며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이 오직 저의 즐거움과 구원을 위해 지상에 내려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아버지는 앞서 말한 그 혼합된 언어로 내가 친구인 아르나우테 마미의 포로이며 샐러드를 만들러 왔다는 사실을 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조라이다는 내 손을 잡더니, 앞서 언급한 그 뒤섞인 언어로 내가 기사인지, 그리고 왜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이미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 상태라고 대답하며, 내 주인이 나를 얼마로 평가하는지 그 가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몸값으로 1,500 졸타니가 책정되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사람이라면, 그분이 당신을 두 배의 몸값으로 내놓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을 거

예요.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말할 때 항상 거짓말을 하고, 무어인들을 속여서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곤 하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가씨." 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주인과 정직하게 거래해 왔고, 세상 그 누구와도 정직하게 거래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 언제 떠나나요?" 조라이다가 물었습니다.

"내일 떠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출항하는 프랑스 배가 여기 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가려 합니다."

"프랑스 배보다는 스페인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배를 타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조라이다가 되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배가 곧 온다는 소식이 있다면 기꺼이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떠나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고향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설령 더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향에 분명히 아내가 있나 보군요." 조라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내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아내는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도착하면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여인이 아름다운가요?" 조라이다가 물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워서,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아가씨가 보시기에도 훨씬 더 아름답다고 느끼실 정도입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의 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기독교인 양반. 내 딸이 이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 여인을 닮았다면 분명 아주 아름다운 여인임이 틀림없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나. 그러면 내 말이 사실인지 알게 될 테니."

조라이다의 아버지는 아주 영리한 사람답게, 이런 대화와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의 통역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조라이다는 그곳에서 쓰이는 앞서 말한 혼종 언어로 말하긴 했지만, 말보다는 몸짓으로 자신의 의사를 더 분명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한 무어인이 달려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원의 울타리와 담장을 넘어 터키인 네 명이 침입했으며, 아직 익지도 않은 과일들을 마구 따 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노인은 깜짝 놀랐고 조라이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어인들이 터키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터키 군인들은 무어인들을 굴복시킬 만큼 오만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무어인들을 마치 자신들의 노예처럼 부리곤 합니다.

그러자 조라이다의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거라. 내가 가서 저 무례한 놈들을 상대하

마. 그리고 기독교인 양반, 당신은 어서 볼일이나 보고 이만 가보시오. 부디 알라의 가호 속에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라겠소."

나는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했고, 그는 터키인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덕분에 나는 조라이다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그녀는 아버지의 말대로 자리를 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원의 나무들 뒤로 몸을 숨기자마자, 그녀는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멕시, 기독교인, 아멕시!" 이는 "가세요, 기독교인, 어서 가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를 두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떠날 예정이니, 나중에 우리를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인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우리가 나눈 모든 말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내 목에 팔을 감고는 힘없는 걸음걸이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돕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말한 모습 그대로, 즉 그녀가 내 목에 팔을 감은 채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을 때, 터키인들을 쫓아내고 돌아오던 그녀의 아버지가 우리의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가 우리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르고 영리한 조라이다는 내 목에서 팔을 떼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더 밀착하며 무릎을 살짝 굽히고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

다. 그녀는 마치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듯한 명확한 몸짓을 보였고, 나 또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딸의 상태를 보고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이 없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저 무뢰한 놈들이 침입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 기절한 모양이구나." 그는 나에게서 그녀를 떼어내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도 채 닦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멕시, 기독교인, 아멕시!" 즉, "가세요, 기독교인, 어서 가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저 기독교인이 떠난들 어떠냐. 그가 너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터키인들도 이미 물러갔단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했듯이, 내 간청에 못 이겨 터키인들이 들어왔던 길로 되돌아갔으니 너를 괴롭힐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저들이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더러 가라고 하니, 그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계십시오. 허락하신다면 나중에 이 정원에 샐러드용 채소를 구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제 주인 말씀으로는 이 정원만큼 채소가 좋은 곳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기 모라토가 대답했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와도 좋네. 내 딸이 저렇게 말하는 건 자네나 다른 기독교인들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그저 터키인들이 물러갔다는 말을 하면서 자네도 가라고 한 것이니, 아마 채소를 구할 시간도 다 되었기 때문일 걸세."

나는 즉시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조라이다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나는 채소를 찾는다는 핑계를 대고 정원 구석구석을 내 마음껏 돌아다녔습니다. 정원의 출입구와 나가는 길은 어디인지, 집의 방어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얼마나 편리한 구조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모두 마친 뒤, 나는 돌아와 개종자와 동료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보고했습니다. 아름답고 눈부신 조라이다가 운명처럼 내게 선사한 이 행복을,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껏 누릴 날만을 간절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날과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중하게 고민하고 긴 논의를 거쳐 세운 계획과 방침을 모두 따랐고, 마침내 바라던 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내가 정원에서 조라이다와 이야기를 나눈 날로부터 돌아온 금요일 저녁, 개종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조라이다가 타고 있는 배와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작은 배를 대어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노를 저어야 할 기독교인들은 이미 준비를 마친 채 주변 곳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긴장하면서도 흥분한 기색으로 나를 기다리며, 눈앞에 보이는 배를 몰아 돌격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종자가 짠 계획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힘껏 노를 저어 배 안에 있는 무어인들을 죽이고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모습을 드러내자, 숨어 있던 동료들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침 성문이 닫힌 시간이라 들판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

았습니다. 우리는 한데 모였으나, 먼저 조라이다를 데려오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배에서 노를 젓고 있는 무어인들을 먼저 제압하는 것이 좋을지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개종자가 우리에게 다가와 왜 지체하느냐며 이제 때가 되었다고 재촉했습니다. 무어인들은 모두 방심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잠들어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를 설명하자, 그는 무엇보다 먼저 배를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쉽고 위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 후에 조라이다를 데려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체하지 않고 그를 길잡이 삼아 배로 향했습니다. 그가 먼저 배 안으로 뛰어든 뒤 칼을 뽑아 들고는 무어인 말로 외쳤습니다.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면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이때쯤이면 거의 모든 기독교인 동료들도 배 안으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겁이 많은 무어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그렇게 호통치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버렸습니다. 무어인들은 무기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기에, 누구 하나 무기를 잡으려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기독교인들에게 붙잡혀 손이 묶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어인들에게 만약 어떤 식으로든 소리를 지르면 즉시 칼로 모두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아주 신속하게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이 일을 마친 뒤, 우리 일행 중 절반은 무어인들을 감시하며 경계를 섰습니다. 남은 우리는 개종자를 길잡이 삼아 아지 모라토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운 좋게도 문을 열려 하자마자 문이 마치 열려 있었던 것처럼 아주 쉽게 열렸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아

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조라이다는 창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우리가 '니사라니'인지 물었는데, 이는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묻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어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알아본 그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즉시 내려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미모와 화려한 옷차림은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다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었고, 개종자와 내 동료 두 명도 똑같이 했습니다. 상황을 몰랐던 다른 이들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는, 마치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리 자유의 여주인으로 예우하는 것처럼 따라 했습니다. 개종자가 무어인 말로 정원에 그녀의 아버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렇다며, 아버지가 잠들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개종자가 "그럼 아버지를 깨워서 우리와 함께 데려가야겠군. 이 아름다운 정원에 있는 값진 것들도 전부 다 말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아니요, 아버지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이 집에는 제가 가진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어 만족할 만큼 충분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금방 돌아올 테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채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개종자에게 그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내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라이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는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조라이다가 금화 에스쿠도가 가득 담긴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는데, 상자가 너무 무거워 겨우 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사이 그녀의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정원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크고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아랍어로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들! 도둑놈들이다, 도둑놈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명 소리에 우리는 모두 커다란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개종자는 우리가 처한 위험을 보았고, 들키기 전에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신속하게 아지 모라토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중 몇 명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나는 조라이다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신을 잃은 듯 내 품으로 쓰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라간 이들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처하여, 순식간에 아지 모라토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아지 모라토의 손을 묶고 입에 수건을 물려 아무 말도 못 하게 한 뒤, 만약 소리를 내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차마 보지 못해 눈을 가렸고, 아버지는 딸이 얼마나 자진해서 우리 손에 몸을 맡겼는지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발이 빨라야 할 때였기에, 우리는 지체 없이 재빨리 배로 향했습니다. 배에 남아 있던 동료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든 지 채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우리는 모두 배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조라이다의 아버지를 묶었던 손의 결박과 입에 물린 수건을 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종자는 그에게 만약 한마디라도 내뱉었다가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딸을 보자 아주 애처롭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내가 조라이다를 품에 꼭 안고 있는 모습과, 그녀가 저항하거나 불평하거나 피하지도 않은 채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더니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개종자가 퍼붓는 수많은 위협이 현실이 될까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조라이다가 배에 탄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노를 저으려 할 때, 그녀는 묶여 있는 아버지와 다른 무어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개종자에게 내게 전해달라며, 저 무어인들을 풀어 주고 아버지의 자유를 찾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준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바다에 몸을 던지겠다고 말입니다. 개종자가 내게 그 말을 전했고,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개종자는 그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을 그 자리에 풀어 주었다가는 곧바로 육지에 소식을 알리고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벼운 프라가타선을 타고 나와 육지와 바다를 모두 장악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탈출할 길도 막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대신 첫 번째 기독교인 땅에 도착하면 그들을 풀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의견에 동의했고, 조라이다에게도 우리가 왜 그녀의 요구를 즉시 들어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자 그녀도 납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기쁨 섞인 침묵 속에서 즐겁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용맹한 노잡이들이 각자 노를 잡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가장 가까운 기독교인 땅인 마요르카 섬을 돌아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라몬타나 바람이 다소 불고 바다가 거칠게 일렁이는 바람에, 마요르카 방향으로 항로를 잡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큰 아쉬움을 안은 채 오란 쪽으로 육지를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해안에 있는, 알제에서 60마일 떨어진 사르겔 마을에서 들키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서 테투안의 상품을 싣고 흔히 오가는 갤리선과 마주칠까 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만약 마주친 배가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배가 아니라 단순한 상품 운반선이라면, 우리가 붙잡히기는커녕 오히려 그 배를 탈취하여 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각자, 또 다 함께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항해하는 동안 조라이다는 아버지를 차마 볼 수 없어 머리를 내 두 손 사이에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자꾸만 레라 마리엔을 불러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른 마일쯤 항해했을 무렵 날이 밝았습니다. 육지에서 화승총 세 발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바라본 해안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상태라 우리를 발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을 다해 조금 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바다는 이제 제법 잔잔해진 상태였습니다. 거의 2레구아 정도 나아갔을 때, 음식을 좀 먹는 동안 교대로 노를 저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배에는 먹을 것이 넉넉히 실려 있었습니다. 노를 젓던 이들은 지금은 한시도 쉴 때가 아니니, 노를 젓지 않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노를 손에서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한 대로 일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바람이 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노를 내려놓고 돛을

올려 오란 방향으로 경로를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항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돛을 올린 채 우리는 시간당 8마일 이상의 속도로 항해했습니다.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배를 마주칠까 봐 걱정되는 마음 외에는 다른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젓는 무어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개종자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니, 첫 기회에 반드시 자유를 주겠노라 말하며 그들을 달랬습니다. 조라이다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말해주었으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의 관대함과 선량함이라면 다른 무엇이든 기대하고 믿을 수 있겠으나, 저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말만큼은 믿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믿을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사로잡는 위험을 무릅쓴 것은, 이렇게 선뜻 자유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을 테니 말입니다. 특히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를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여러분이 얻게 될 이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면서 말입니다. 그 이득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고 싶으시다면, 저와 불행한 제 딸을 위해서, 혹은 제 영혼의 가장 크고 소중한 부분인 딸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마친 그는 너무나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조라이다로 하여금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조라이다는 마음이

너무나 미어지는 나머지, 내 발치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맞댄 채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고, 그곳에 있던 우리 중 많은 이도 그 슬픔에 동참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딸을 보았는데, 딸이 잔칫날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보석을 잔뜩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이게 대체 무엇이냐? 어제 해 질 녘,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불행이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너는 평소 입던 평범한 옷차림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고, 이 슬픈 상황을 기념하며 몸단장을 하거나 꾸밀 기회조차 없었을 텐데, 어찌하여 지금은 내가 운이 좋았을 때 네게 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옷들을 입고 이렇게 차려입고 있는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지금 내가 처한 이 불행보다도 네 모습이 내 마음을 더 어지럽히고 놀라게 하는구나."

무어인이 딸에게 건네는 모든 말은 개종자가 우리에게 전해주었으나, 조라이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배 한 편에 놓인 작은 보석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평소 보석을 넣어 두던 상자였는데, 아버지는 딸이 그 상자를 알제에 두고 왔으며 정원으로 가져오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무척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그 상자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개종자는 조라이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딸인 조라이다에게 이것저것 묻느라 힘 빼지 마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궁금증이 풀릴 테니까요. 그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사슬을 갈아낸 것은 바로 그녀였으며,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해 준 것도 그녀입니다. 그녀는 제 짐작건대,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듯한 이 기분을 만끽하며 스스로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딸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이냐?" 무어인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라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네 아버지를 적들의 손에 넘긴 것이냐?"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조라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저이지만, 아버지를 이런 처지로 몰아넣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버리거나 해치려는 마음은 단 한 번도 품은 적이 없으며, 오직 저 자신을 위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네가 스스로를 위했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딸아?"

"그건—" 조라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렐라 마리엔께 여쭤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분이 훨씬 더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무어인이 이 말을 듣자마자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몸짓으로 바다에 머리부터 뛰어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입고 있던 길고 거추장스러운 옷

이 물 위에서 그를 조금이라도 붙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익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조라이다가 그를 건져내라고 소리쳤고, 우리는 즉시 달려들어 그의 겉옷을 붙잡고 물에 반쯤 잠겨 정신을 잃은 그를 끌어 올렸습니다. 조라이다는 그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도 된 양 슬퍼하며 애처롭고도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엎어 놓았고, 그러자 그가 물을 많이 토해 냈으며, 두 시간쯤 지나자 그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사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는 육지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노를 힘껏 저어 육지 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작은 곶 옆에 있는 한 작은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어인들은 그곳을 '라 카바 루미아'라고 부르는데, 우리 말로는 '나쁜 그리스도인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어인들 사이에서는 스페인을 망하게 한 '카바'라는 여인이 그곳에 묻혀 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들의 말로 '카바'는 나쁜 여인을, '루미아'는 그리스도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정박해야 할 때라도 그곳에 닻을 내리는 것을 불길하게 여깁니다. 그곳에 닻을 내릴 때면 언제나 그 여인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곳은 나쁜 여인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거칠게 출렁이는 바다 속에서 우리를 구해준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우리는 파수꾼들을 육지에 배치하고, 노를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개종자가 준비해 둔 음식을 먹으며, 이 행운 가득한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조라이다가 간곡히 부탁하여, 밧줄에 묶인 채 함께 타고 온 그녀의 아버지

와 다른 무어인들을 육지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조라이다는 눈앞에서 아버지와 고국 사람들이 포로로 묶여 있는 모습을 차마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 그들을 내려놓아도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며, 출발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고 하늘에 닿았습니다. 곧 바람의 방향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작한 이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손짓하며 권하는 듯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우리는 무어인들의 결박을 풀어 한 명씩 육지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어인들은 이 뜻밖의 행동에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 조라이다의 아버지가 육지에 내릴 때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이 요사스러운 여자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기뻐할 거라 생각하는가? 나를 가엾게 여겨서 그러는 줄 아는가? 아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내가 그녀의 사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 방해물이 될까 봐 그러는 것이다. 또한 그녀가 종교를 바꾼 것이 우리 종교가 그대들의 종교보다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님을 알아라. 그저 그대들의 땅에서는 우리 땅보다 부도덕한 짓이 훨씬 더 자유롭게 행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그는 조라이다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이 양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오, 천하의 불효녀에 어리석은 계집 같으니! 우리의 천적인 저 개 같은 놈들의 손에 넘어가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눈먼 네가 대체 어디로 가려는 게냐! 너를 낳은 내 운명이 저주받을 것이며, 너를 키우

며 누렸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 또한 저주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저주를 다 쏟아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였기에, 나는 서둘러 그녀를 육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저주와 통곡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마호메트에게 빌어 알라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수치를 안겨주며, 끝장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돛을 올리고 떠나느라 그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우리는 그가 수염을 쥐어뜯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땅바닥을 뒹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가 목청을 높여 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너라! 육지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하마! 저 사람들에게 그 돈을 넘겨주어라, 그 돈은 원래 저들의 것이니! 그리고 이 슬픈 아비에게 돌아와 위로가 되어다오. 네가 나를 버린다면 나는 이 황량한 모래밭에서 목숨을 끊고 말 것이다!" 조라이다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새기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어떤 말도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부디 알라께 빌어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계기가 된 렐라 마리엔이 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가 한 일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라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 의지 때문에 저를 데려간 것도 아니에요. 비록 저들이 저를 데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집에 머물고 싶다 해도, 제 영혼이 이 일을 실행하라고 재촉하는 기세가 너무나 빨라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께는 이 일이 악하게 보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이토록 선한 일인걸요." 아버지는 이미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 역시 그녀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녀가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조라이다를 달래며 우리 모두

는 항해에 집중했습니다. 바람마저 우리를 도와준 덕분에, 우리는 다음 날 동이 틀 무렵이면 분명 스페인 해안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고 소박한 행운이 다른 불행을 동반하거나 뒤따르지 않고 찾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거나 아예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러했는지, 아니면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 무어인의 저주가 작용했는지 모르겠으나, 행운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따라붙었습니다. 이미 밤이 깊어 세 시간 가까이 흘렀고, 순풍 덕분에 노를 저을 필요가 없어 노를 묶어둔 채 돛을 높였다 낮췄다 하며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달빛이 아주 밝게 비치고 있었는데, 그 빛 속에서 우리 근처를 지나가는 둥근 형태의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그 배는 돛을 모두 펼친 채 키를 약간 옆으로 틀어 우리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온 탓에 우리는 충돌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여야 했고, 그쪽 배 역시 우리가 지나갈 길을 내어주려고 키를 힘껏 조작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우리에게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프랑스어로 질문을 던지자, 우리 일행의 개종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마시오. 저들은 분명히 아무나 닥치는 대로 약탈하는 프랑스 해적들이오." 이 경고를 듣고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배가 우리 앞을 조금 지나쳐 우리 배의 바람 아래쪽으로 멀어질 무렵, 갑자기 그들이 대포 두 문을 발사했습니다. 보아하니 두 발 모두 사슬탄이었던 모양인지, 한 발이 우리 돛대를 한가운데서 끊어버렸고, 돛대와 돛은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대포를 쏘았는데, 그 탄환이 우리 배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맞히는 바람에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우리는 모두 목청을 높여 구조를 요청하며 저 배에 탄 이들에게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돛을 내리더니 작은 배를 바다에 띄웠고, 화승총과 불붙은 심지로 단단히 무장한 프랑스인 열두 명가량이 거기에 올라 우리 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것과 우리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는 무례를 범했기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그사이 우리 개종자는 조라이다의 보물 상자를 챙겨서, 아무도 그가 하는 일을 눈치채지 못하게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프랑스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알고 싶은 것을 다 캐물은 뒤에는, 마치 우리의 철천지원수인 양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조라이다에게서는 발에 차고 있던 발찌까지 벗겨 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괴롭힌 것은 조라이다가 당하는 수난보다, 저들이 그 값비싸고 귀한 보석들을 빼앗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장 값지고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곧 그녀 자신마저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욕심은 오로지 돈에만 향해 있었고, 그 탐욕은 결코 채워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들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포로들의 옷가지라도 돈이 될 성싶으면 그것마저 벗겨 갈 기세였습니다.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를 모두 돛에 싸서 바다에 던져버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브르타뉴 사람인 척하며 스페인의 여러 항구에서 장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만약 우리를 산

채로 데려갔다가 약탈 사실이 들통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조라이다의 물건을 털어간 선장은, 이미 손에 넣은 전리품만으로 만족하니 스페인의 어떤 항구에도 들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밤을 틈타, 혹은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자신들이 출발했던 라로셸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작은 배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항해에 필요한 물품들을 내어주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다음 날 스페인 땅이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 땅을 보는 순간, 우리는 마치 그간의 모든 고난과 가난이 전혀 없었던 일인 양 그 모든 슬픔을 단번에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는 기쁨이 그만큼이나 컸기 때문입니다.

정오쯤 되었을 무렵, 그들은 우리에게 물통 두 개와 비스킷 약간을 건네며 작은 배에 태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무슨 자비심이 생겼는지, 눈부시게 아름다운 조라이다가 배에 오를 때 금화 40에스쿠도를 내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부하들이 조라이다가 지금 입고 있는 바로 이 옷마저 빼앗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올라타 그들이 베풀어 준 친절에 감사를 표하며, 불평하기보다는 고마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해협의 항로를 따라 멀어져 갔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땅 말고는 다른 방향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해안에 닿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밤이 깊어지기 전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이 뜨지 않고 하늘마저 어두웠던 데다, 우리가 정확히 어디쯤 있는지도 알 수 없었기에, 무작정 육지로 배를 대는 것은 위험해 보

였습니다. 우리 중 여럿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바위투성이 해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땅에 닿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그 근방을 떠돌지 모를 테투안 해적들에 대한 당연한 두려움을 덜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해적들은 밤이면 베르베르 해안에 있다가 아침이면 스페인 해안에 나타나 으레 약탈을 일삼고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이 갈린 끝에,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다가 바다가 잔잔해지면 닿을 수 있는 곳 어디든 상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뜻을 모아 나아갔고, 자정이 되기 조금 전쯤 우리는 기괴하리만치 거대하고 높은 산기슭에 다다랐습니다. 그 산은 바다에 바짝 붙어 있지는 않아서, 편안하게 상륙할 만한 약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으로 배를 몰아 육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땅에 입을 맞추며, 우리에게 이토록 비할 데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하느님께 더없이 기쁜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배에 실려 있던 식량을 꺼내고 배를 육지로 끌어올린 뒤, 산 위로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고,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이 땅이 그리스도교인의 땅이라는 사실이 채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날이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늦게 밝았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까지 마저 올라가 마을이나 목동의 오두막이라도 보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내다보아도 마을도, 사람도, 오솔길도,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땅 안쪽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머지않아 이곳 사정을 알려줄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게

될 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조라이다가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그녀를 어깨에 업기도 했지만, 제가 지쳐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업혀서 얻는 편안함보다 더 큰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는 제가 그런 수고를 하도록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갖고 기쁜 기색을 띤 채 줄곧 그녀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4분의 1 레구아도 채 가지 못했을 무렵, 근처에 가축이 있다는 분명한 신호인 작은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니, 코르크나무 아래에서 젊은 목동 하나가 아주 느긋하고 무심하게 칼로 나무 막대기를 깎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리쳐 부르자 그는 고개를 들더니 가볍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바로 우리 개종자와 조라이다였습니다. 목동은 그들이 무어인 차림을 한 것을 보고는 베르베르의 무어인들이 모조리 자신을 덮치러 온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숲속으로 놀랄 만큼 민첩하게 뛰어들더니,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어인이다, 땅에 무어인이 나타났다! 무어인이다, 무어인! 무기를 들어라, 무기를 들어라!"

그의 외침에 우리는 모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목동의 비명이 온 동네를 소란스럽게 만들 것이고, 곧 해안을 지키는 기병들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달려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종자에게 터키식 옷을 벗게 하고, 대신 우리 중 한 명이 건네준 포로들이 입는 겉옷을 입히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는 셔츠

차림이 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께 몸을 맡긴 채, 목동이 지나갔던 바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해안 기병들이 언제쯤 우리를 덮칠지 늘 긴장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덤불을 벗어나 평지에 다다른 지 채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 고삐를 반쯤 늦춰 재빠르게 달려오는 기병 쉰 명가량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자마자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기병들이 찾아 헤매던 무어인 대신 가련한 그리스도인 무리를 마주하자,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와, 혹시 우리가 목동이 무기를 들라고 소리치게 만든 장본인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제 막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인지 설명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그리스도인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진 기사를 알아보고는, 제가 말을 더 잇기도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군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벨레스 말라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포로 생활로 보낸 세월 탓에 기억이 지워진 게 아니라면, 방금 우리에게 누구냐고 물으신 귀하께서는 제 숙부님이신 페드로 데 부스타만테 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인 포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사는 말에서 뛰어내려 그 청년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자 내 생명 같은 조카야, 이제야 너를 알아보겠구나! 나도, 네 어머니인 내 누이도, 아직 살아 있는 네 모든 친척들도 너를 죽은 줄로만 알고 눈물로 슬퍼했단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살려 두신 것은 너를 다시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뜻이었구나. 네가 알제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만, 네 옷차림과 함께 있는 이 일행의 행색을 보니 기적적으로 자유를 얻은 모양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들이 우리가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 포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두 말에서 내려 우리를 벨레스 말라가 시로 데려가겠다며 저마다 자신의 말에 올라타라고 권했습니다. 그곳은 여기서 1.5 레구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배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고 다시 배를 도시로 실어 나르러 갔고, 다른 이들은 우리를 말 안장에 태워주었습니다. 조라이다는 그 그리스도인 청년의 숙부가 탄 말의 안장에 올라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는데, 이미 앞서 나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포로를 보거나 무어인 포로를 보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해안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는 일에 워낙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라이다의 아름다움에는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미모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길을 오느라 쌓인 피로와, 다시는 길을 잃을 염려 없이 그리스도인의 땅에 발을 디뎠다는 기쁨이 한데 어우러져 그녀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눈부셨던지, 당시의 제 눈이 잠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감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제가 본 세상 속에서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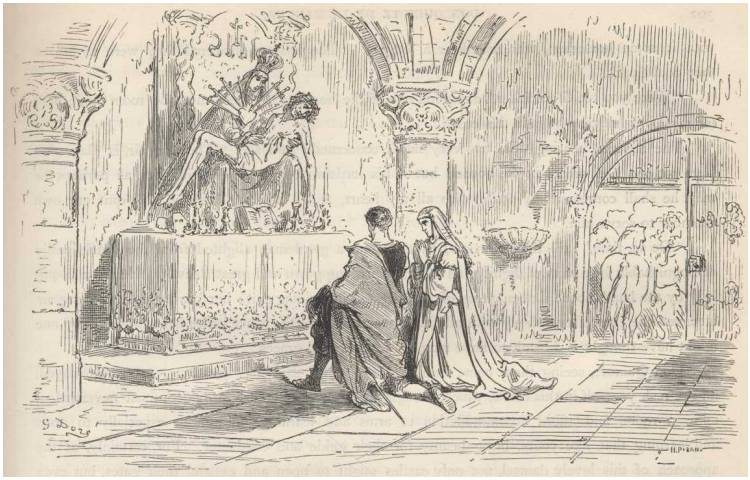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곧장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조라이다는 그곳에 있는 얼굴들이 렐라 마리엔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성상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개종자가 그녀가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렐라 마리엔을 실제로 마주한 것처럼 그 성상들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상의 의미를 그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총명하고 이해력이 빠른 조라이다는 성상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우리를 마을의 여러 집으로 나누어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왔던 그리스도인 청년은 개종자와 조라이다, 그리고 저를 자신의 부모님 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적당히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우리를 마치 친아들을 맞이하듯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벨레스에서 엿새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자 개종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수집한 뒤, 그라나다 시로 떠났습니다. 그는 성 이단 심문소를 통해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습

니다. 해방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원하는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조라이다와 저만 남게 되었는데, 수중에 가진 것이라고는 프랑스인이 조라이다에게 예의상 건네준 에스쿠도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그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을 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이자 종자로서 그녀를 모셔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 혹은 제 형제들 중 누군가가 저보다 더 번창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늘이 저에게 조라이다라는 반려를 허락해 주셨으니, 설령 세상에 아무리 좋은 운명이 있다 한들 그녀를 얻은 것보다 더 나은 행운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라이다가 가난이 가져다주는 고초를 견뎌내는 인내심과, 하루빨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경탄을 금치 못하며, 평생 그녀를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녀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녀 또한 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어지럽고 괴롭기도 합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데리고 머물 만한 곳을 찾을 수 있을지, 혹은 세월과 죽음이 제 아버지와 형제들의 재산과 삶을 너무도 바꿔 놓아서, 만약 그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를 알아봐 줄 사람조차 찾기 힘들게 된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롭고 색다르다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을 너무 오래 붙잡아두는 것이 실례가 될까 두려워 이야기를 더 짧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42장



제42장. 여관에서 벌어진 더 많은 일들과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포로가 이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자, 돈 페르난도가 그에게 말했다.

"대장님, 사실 당신이 이 기이한 사건을 들려주시는 방식이 워낙 놀라워서, 이야기 내용만큼이나 그 방식 또한 참으로 기묘합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드문 일이라, 듣는 이의 넋을 빼놓고 감탄하게 만들 정도로 사건이 쉴 새 없이 몰아치니까요.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이 어찌나 큰지, 설령 내일 다시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해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달라고 청할 정도입니다."라고 돈 페르난도가 말했다.

돈 페르난도와 다른 일행은 이 말을 마친 뒤, 포로를 정성껏 모시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이 건넨 말과 제안은 어찌나 다정하고 진실한지, 대장인 포로는 그들의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돈 페르난도는 포로에게 만약 자신과 함께 떠나고 싶다면, 자신의 형인 후작이 조라이다의 세례 대부라도 되어 주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포로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 신분에 걸맞은 권위와 안락함을 누리며 입국할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포로는 이 모든 호의에 아주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으나, 그들의 너그러운 제안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무렵 어느덧 밤이 깊어갔고, 밤이 저물 무렵 마차 한 대와 말을 탄 몇 명의 사내들이 여관에 도착했다. 그들이 묵을 방을 찾자, 여관 주인은 여관 안에는 손님이 머물 만한 빈 공간이 단 한 뼘도 남아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타고 들어온 일행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여기 오시는 판사님을 위한 방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여관 주인은 당황하며 말했다.

"손님, 문제는 제가 침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판사님께서 침구를 가져오신다면, 아니 분명히 가져오시겠지요, 그럼 언제든 환영입니다. 판사님을 모시기 위해 저와 제 남편이 저희 방에서 비켜나겠습니다."

"그럼 언제든 환영입니다." 산초 판사가 말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입고 있는 옷차림만 보아도 직업과 직위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하인이 말한 대로, 소매를 걷어 올린 긴 옷을 보니 판사임이 분명했다. 그는 열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여행복 차림의 소녀는 어찌나 씩씩하고 아름답고 기품이 넘치는지 보는 사람마다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여관에 있던 도로테아와 루신다, 조라이다를 보지 못했더라면, 이 소녀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 것이라 믿었을 정도였다. 판사와 소녀가 들어왔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돈키호테는, 판사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분명 귀하께서는 이 성 안으로 들어와 편히 머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 성이 좁고 누추하기는 하나, 세상에 아무리 좁고 불편한 곳이라 한들 무용과 학문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곳은 없으니까요. 하물며 무용과 학문이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길잡이이자 지도자로 모시

고 있다면 오죽하겠습니까? 귀하의 학문이 이 아름다운 소녀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소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문이 열리고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험한 바위산이 비켜서고 높은 산들도 갈라지고 낮아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낙원 같은 곳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곳에서 귀하께서는 귀하가 지닌 하늘을 빛내줄 별과 태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무용의 절정과 미의 극치를 동시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판사는 돈키호테의 기이한 말에 깜짝 놀라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판사는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풍채에도 적잖이 감탄했다. 판사는 딱히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자, 눈앞에 나타난 루신다와 도로테아, 그리고 조라이다를 보고 다시금 넋을 잃고 말았다. 새로 온 손님들이 도착했다는 소식과 여관 주인으로부터 소녀가 무척 아름답다는 말을 전해 들은 그녀들이, 소녀를 구경하고 맞이하려 나온 것이었다. 한편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 그리고 신부는 판사에게 더욱 정중하고 예우를 갖추어 환대를 표했다. 사실 판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과 들려오는 말들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당황한 상태였다. 여관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이 아름다운 소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결국 판사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귀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차렸다. 하지만 돈키호테의 풍채와 생김새, 그리고 기이한 모습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모두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여관의 편의를 살핀 뒤에는, 원래 정해져 있던 대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모든 여인은 앞서 말한 큰 방으로 들어가고, 남성들은 밖에서 그들을 지키듯 머무는 것이었다. 판사는 자신의 딸인 그 처녀가 다른 부인

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흡족해했으며, 딸 또한 기쁜 마음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날 밤, 사람들은 여관 주인의 좁은 침대 일부와 판사가 가져온 침대의 절반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포로는 판사를 본 순간부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자신의 형제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포로는 함께 온 하인 중 한 명에게 판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고장 사람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하인은 그분의 성함이 후안 페레스 데 비에드마 학사이며, 레온 산맥 근처 마을 출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하인의 말과 자신이 직접 본 모습을 종합해 보니, 아버지의 권유로 학문의 길을 걸었던 그 판사가 바로 자신의 형제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기쁨과 흥분이 몰려온 포로는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 그리고 신부를 따로 불러 모은 뒤, 저 판사가 자신의 형제라는 사실을 밝히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하인에게서 형이 멕시코 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기 위해 인디아로 떠난다는 소식도 들었다. 또한 저 처녀가 자신의 어머니가 산고 끝에 세상을 떠나며 낳은 딸이며, 어머니가 남긴 지참금 덕분에 형이 아주 부유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포로는 일행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하면 형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지, 혹은 정체를 밝히기 전에 형이 가난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수치스럽게 여길지 아니면 진심으로 반겨줄지를 먼저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를 물었다.

"그 시험은 제게 맡겨 주십시오." 신부가 말했다. "게다가 대위님, 형님께서는 분명 당신을 아주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형님의 겉모습

에서 엿보이는 용기와 신중함을 보건대, 그분은 오만하거나 남을 모른 체하는 분이 아니며, 운명의 변화를 헤아릴 줄 모르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대위가 말했다. "그럼에도 저는 갑작스럽게 정체를 밝히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 서서히 형님께 저를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 계획을 세워 두겠습니다." 신부가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 무렵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다만 포로와 부인들은 각자 방에서 따로 식사를 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신부가 말했다.

"판사님, 실례지만 성함이 같으시군요. 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 판사님과 이름이 똑같은 동료를 한 명 알았습니다. 그는 스페인 보병대 전체를 통틀어 손꼽히는 용맹한 군인이자 지휘관이었지요. 하지만 그 용맹함만큼이나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휘관의 성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리?" 판사가 물었다.

"그의 이름은 루이 페레스 데 비에드마였습니다." 신부가 대답했다. "그는 레온 산악 지대의 어느 마을 출신이었지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처럼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저 겨울날 화롯가에서 노파들이 지어내는 허무

맹랑한 옛날이야기 정도로 치부했을 겁니다. 그 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재산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카토의 가르침보다도 더 훌륭한 조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조언을 따라 전쟁터로 나갔던 아들이 아주 잘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오로지 자신의 용맹과 노력만으로 보병 대위의 자리에 올랐고, 머지않아 야전 사령관까지 될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운이 따를 법한 곳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말았으니까요. 수많은 이들이 자유를 되찾았던 그 영광스러운 전투, 바로 레판토 해전에서 그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저는 골레타에서 자유를 잃었고, 그 후 여러 사건이 겹치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그와 동료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알제로 건너온 뒤,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를 겪게 됩니다."

신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그는 조라이다와 그의 형제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들려주었다. 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야기에 몰입하여 귀를 기울였다. 신부는 프랑스인들이 배에 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약탈하고, 그의 동료와 아름다운 무어인 여인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목까지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신부 자신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스페인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아니면 프랑스인들에게 끌려 프랑스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신부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대위는 그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신부가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형이 보이는

기색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폈다. 신부가 마침내 이야기를 끝맺자, 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시울을 붉히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 선생님, 제게 들려주신 그 소식들을 직접 아신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찌르는지 아신다면, 제가 왜 이토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시겠지요. 제 이성과 체통을 다 무너뜨리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신 그 용맹한 대위는 바로 제 큰형님입니다. 형님은 저나 다른 동생들보다 훨씬 강인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니셨기에, 우리 아버지가 제시하신 세 가지 길 중 하나인 명예롭고 숭고한 전사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동료가 당신에게 들려주었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말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지요. 저는 학문의 길을 따랐고, 하느님의 보살핌과 저의 정진 덕분에 지금 보시는 만큼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페루에 있는데,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와 제게 보낸 돈만 해도 자기가 가져간 몫을 충분히 갚고도 남을 정도이며, 게다가 아버지께서 타고난 너그러움을 마음껏 베푸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돈을 아버지 손에 쥐여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저 또한 품위와 권위를 지키며 학업에 매진한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지요.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지만, 큰아들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차마 눈을 감지 않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신중하신 분인데, 어찌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혹은 번창하던 시절 속에서도 아버지께 소식 한 자 전하는 일을 이토록 소홀히 하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나 우리 중 누구라

도 형님의 소식을 알았더라면, 형님이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기 위해 갈대의 기적 따위를 기다릴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그 프랑스인들이 형님을 풀어주었을지, 아니면 자신들의 약탈을 숨기려고 형님을 죽였을지 하는 점입니다. 이 모든 일 때문에 저는 이제 여행을 계속하더라도, 처음에 가졌던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온통 우울함과 슬픔만을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 나의 착한 형님아! 지금 형님이 어디 계신지만 알 수 있다면, 설령 제 것을 다 잃더라도 형님을 찾아가 그 고난에서 구해낼 텐데! 아, 형님이 살아 계신다는 소식을 우리 늙으신 아버지께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님이 설령 베르베르의 가장 깊숙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형님의 재산과 제 재산, 그리고 동생의 재산을 모두 꺼내어 형님을 구해낼 텐데! 아, 아름답고 너그러운 조라이다여! 당신이 형제에게 베푼 은혜를 누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과,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줄 그 결혼식에 함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판사는 형의 소식을 듣고 깊은 연민과 슬픔에 잠겨 이런저런 말을 이어갔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이야기를 듣던 이들 모두가 그의 비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슬퍼해 주었다.

신부는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이 잘 풀리고 대위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더는 모두를 슬픔에 잠겨 있게 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조라이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루신다와 도로테아, 그리고 판사의 딸도 그 뒤를 따라왔다. 대위는 신부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신부는

대위의 손마저 한쪽으로 잡더니, 두 사람의 손을 양쪽에서 잡은 채 판사와 다른 기사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판사님, 이제 눈물을 거두십시오. 대신 제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판사님의 소망을 가득 채우길 빌겠습니다. 바로 눈앞에 판사님의 친형님과 형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비에드마 대위이고, 이분은 대위에게 큰 은혜를 베푼 아름다운 무어인 여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프랑스 놈들이 판사님을 이토록 곤란한 처지에 빠뜨린 것은, 판사님의 너그러운 마음씨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대위는 형을 껴안으려 달려갔고, 판사는 대위를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찬찬히 보려고 양손을 그의 가슴에 얹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를 완전히 알아본 판사는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리며 형을 아주 꽉 껴안았고, 그 모습에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축복했다. 두 형제가 서로 나눈 말과 그들이 보여준 감정은, 글로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짧게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각자 겪었던 일을 전했다. 형제간의 두터운 우애가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다. 판사는 조라이다를 껴안았고, 자신의 재산을 그녀에게 내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신의 딸도 그녀를 껴안게 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여인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어인 여인이 보여준 모습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돈키호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토록 기이한 사건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편력기사 소설에나

나오는 허황된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자리에서 대위와 조라이다는 형과 함께 세비야로 돌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 돌아온 사실을 아버지께 알려, 아버지가 형편이 닿는 대로 조라이다의 결혼식과 세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판사가 가던 길을 떠날 수 없는 것은, 한 달 뒤면 세비야 함대가 뉴에스파냐로 출항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판사에게 너무나 큰 손해였다.

결국 모두가 포로에게 닥친 경사스러운 결말에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밤이 이미 삼분의 이가량 지나 있었기에, 사람들은 남은 밤 동안 휴식을 취하며 잠자리에 들기로 뜻을 모았다. 이때 돈키호테가 성의 보초를 서겠다고 자처했다. 이 성에 갇힌 눈부시게 아름다운 보물을 탐내는 거인이나 질 나쁜 무리가 나타나 습격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돈키호테를 잘 아는 이들은 그의 제안에 고마워하면서도, 판사에게는 돈키호테의 이 기이한 성미를 일러주었다. 판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꽤나 재미있어했다.

오직 산초 판사만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못 견뎌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누구보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은 사람은 그였으니, 그는 자기 당나귀의 길마 위에 몸을 뉘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길마는 그에게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한 물건이었다.

여인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다른 이들도 형편에 따라 최대한 몸을 뉘었을 때, 돈키호테는 약속한 대로 성의 보초를 서기 위해 여관 밖으로 나갔다.

동이 트기 직전, 아주 낭랑하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여인들의 귀에 들려왔다. 그 소리가 워낙 좋아서 여인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깨어 있던 도로테아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다. 그녀의 곁에는 판사의 딸인 도냐 클라라 데 비에드마가 잠들어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며, 악기 하나 없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울려 퍼지는 노래였다. 어떤 때는 마당에서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구간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여인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카르데니오가 방문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잠 안 자는 사람은 다 들어보시오! 노새를 모는 젊은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황홀한지 사람을 홀릴 정도라오!"

"이미 듣고 있습니다, 나리." 도로테아가 대답했다.

말을 마치고 카르데니오는 자리를 떴다. 도로테아는 온 신경을 집중해 귀를 기울였고, 노래 가사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제43장



제43장. 노새 몰이꾼의 유쾌한 이야기와 여관에서 벌어진 또 다른 기이한 사건들

"나는 사랑의 선원이라, 그 깊고도 아득한 바다 위에서 어느 항구에도 닿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노라. 멀리서 발견한 저 별 하나를 따라가

고 있으니, 그 빛은 팔리누로가 보았던 그 어떤 별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하구나. 저 별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알 길은 없으니, 나는 그저 정신을 잃은 채 별을 바라보며 주의를 기울이다가도 이내 넋을 놓으며 방황할 뿐이라. 무모한 조심스러움과 관습에 어긋나는 정숙함은, 내가 그 별을 간절히 보고자 할 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구름이 되는구나. 오, 밝고 빛나는 별이여! 그 빛에 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노라. 그대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죽음의 순간이 되리라."

노래를 부르던 남자가 이 대목에 이르자, 도로테아는 클라라가 저토록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냥 흘려듣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도로테아는 클라라를 이리저리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말했다.

"얘야, 잠을 깨워 미안하구나. 하지만 네 평생 들어본 목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주렴."

클라라는 잠결에 비몽사몽 깨어났기에, 처음에는 도로테아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클라라가 다시 물어보자 도로테아가 같은 말을 반복해 주었고, 그제야 클라라는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남자가 이어가는 노래 중 단 두 구절을 듣자마자, 클라라는 마치 심한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처럼 이상할 정도로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테오도라를 꽉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 내 영혼과 생명의 주인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깨우셨나이까? 지금 제게 운명이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저 불행한 음악가의 모습

도 목소리도 보지 않고 듣지도 못하도록 제 눈과 귀를 닫아두는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저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새 몰이꾼이라고들 하던데."

"그분은 그저 어느 지역의 귀한 분이실 뿐이에요." 클라라가 대답했다. "제 영혼 속에 그분을 너무나 확고하게 모시고 있어서, 그분이 스스로 떠나려 하지 않으신다면 영원히 제 곁을 떠나지 못하실 분이라니까요."

도로테아는 소녀의 절절한 말에 깜짝 놀랐다. 어린 나이치고는 어찌 그리 사리에 밝고 분별력이 있는지, 그 깊이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로테아는 이렇게 말했다.

"클라라 아가씨,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속마음이 어떤지, 그분이 대체 어떤 신분의 어떤 분인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노래하는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졸이시는 이유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말씀하시지는 마세요. 아가씨가 놀라신 것 때문에 노래 듣는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 노래하는 분이 새로운 시와 새로운 곡조로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클라라가 대답했다.

클라라는 노래를 듣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양쪽 귀를 틀어막았다. 도로테아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다. 도로테아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의 달콤한 희망이여, 그대는 불가능한 장벽과 잡초를 헤치며 스스로 만들어낸 길을 꿋꿋이 나아가고 있구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죽음이 그대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말지어다. 게으른 자는 명예로운 승리도, 그 어떤 영광도 얻을 수 없으며, 운명에 맞서 싸우지도 않은 채 무력하게 모든 감각을 나태함에 내맡긴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느니라. 사랑이 그 영광을 값비싸게 팔려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공정한 이치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금을 입히는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은 없기 때문이다. 값싼 것은 결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바 아니냐. 사랑하는 이들의 치열한 다툼은 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 이루어내기도 한다. 그러니 비록 나는 내 사랑을 위해 이토록 험난한 길을 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땅 위에서 하늘에 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노라."

노래가 끝나자 클라라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모든 모습은 도로테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도로테아는 저토록 감미로운 노래와 저토록 슬픈 울음이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도로테아는 아까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물었다. 그러자 클라라는 루신다가 혹여 듣지 않을까 겁이 났는지, 도로테아를 꼭 껴안은 채 입술을 도로테아의 귀에 바짝 갖다 댔다. 다른 이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가까이 다가간 클라라는 이렇게 속삭였다.

"아가씨, 노래하는 저 사람은 아라곤 왕국 출신 귀족의 아들로, 두 곳의 영지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궁정에 사실 때, 그분은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 사셨답니다. 겨울에는 창문에 천을 치고 여름에는 격자창을 달아두었지만, 공부하러 다니던 그 귀족분이 저를 어디서 보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성당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었는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그분은 저와 사랑에 빠졌고, 자기 집 창가에서 온갖 몸짓과 눈물로 마음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도 전에 그 마음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분이 보내온 신호 중 하나는 두 손을 맞잡는 것이었는데,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무척 바랐지만, 홀로 남겨진 데다 어머니마저 안 계신 처지라 누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저 아버님과 그분 아버님이 모두 집을 비우셨을 때, 살짝 천이나 격자창을 들어 올려 제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 외에는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분은 제가 그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미칠 듯이 기뻐하며 신호를 보내곤 하셨지요.

그러다 아버님이 떠나실 때가 되었는데, 그분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그분은 슬픔 때문에 몸져누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던 날, 작별 인사라도 나누고 싶었지만 눈길 한 번 마주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여기서 하루 거리쯤 되는 어느 마을의 여관에 들어서는데, 여관 문 앞에 노새 몰이꾼 차림을 한 그분을 보게 되었어요. 만약 제 마음속에 그분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평범한 차림이었지요.

그분을 알아보자마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그분은 제가 길을 가거나 여관에 머물 때마다 제 아버지 눈을 피해 몰래 저를 쳐다보곤 해요.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오직 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고생을 하며 걸어오고 있다는 걸 알기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분이 발을 딛는 곳마다 제 눈길도 그곳을 향하게 돼요.

그분이 어떤 의도로 오신 건지, 또 어떻게 그분 아버지를 피해 빠져나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 아버지는 다른 상속자도 없는 터라 그분을 지극히 아끼시거든요. 게다가 그분은 그렇게 아낌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분이에요. 아가씨께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 노래는 전부 그분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듣기로는 아주 뛰어난 학자이자 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분을 보거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온몸이 떨리고 깜짝깜짝 놀라요. 혹시라도 아버님이 그분을 알아채고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될까 봐 겁이 나거든요. 살면서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지만, 그럼에도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가씨, 노래하는 저 사람에 대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예요. 아까 그 목소리가 참 듣기 좋다고 하셨지요? 그 목소리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아가씨 말씀처럼 평범한 노새 몰이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와 영혼을 다스리는 귀한 분이라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클라라 아가씨, 더는 말씀하지 마세요." 도로테아가 말하며 클라라에게 수천 번의 입맞춤을 건넸다. "더는 말씀하지 마시고, 우선 새날이

밝기를 기다리세요. 아가씨의 일이 그토록 고결한 시작에 걸맞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느님의 도우심을 빌어 잘 해결해 보겠다고 약속할게요."

"아이고, 아가씨!" 클라라가 말했다. "어떤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분 아버님은 워낙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으셔서, 제가 그분의 아내가 되기는커녕 하녀로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텐데요. 아버님 몰래 결혼하는 일이라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받더라도 결코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저 청년이 뒤돌아 저를 떠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분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걸어온 먼 길만큼 떨어져 지내면 지금 이 슬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질까 싶어서요. 물론 제가 상상하는 이런 방법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건 저도 잘 알지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어린 소녀이고 그분도 어린 소년일 뿐인데 말이에요. 정말이지 우리는 같은 나이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열여섯 살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아버님 말씀으로는 다가오는 성 미겔 축일이 되어야 비로소 열여섯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클라라 아가씨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을 듣고 도로테아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도로테아가 클라라에게 말했다.

"아가씨, 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선 좀 쉬어요. 날이 밝으면 신의 뜻대로 다 잘 풀릴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제 손이 묶여 버리는 게 낫겠지요."

이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진정되었고, 여관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오직 여관 주인의 딸과 그녀의 하녀 마리토르네스만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돈키호테가 어떤 기행을 일삼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가 무기를 갖추고 말을 탄 채 여관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그를 골려 주거나 아니면 그가 늘어놓는 엉뚱한 소리라도 들으며 시간을 때워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여관에는 들판으로 통하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밖에서 짚을 집어넣기 위해 뚫어 놓은 짚더미 구멍뿐이었다. 두 젊은 여인은 그 구멍에 바짝 다가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돈키호테는 말을 탄 채 긴 창에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이따금씩 어찌나 애절하고 깊은 한숨을 내뱉는지 마치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영혼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듯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부드럽고 감미로우며 다정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들렸다.

"오, 나의 여주인이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여! 당신은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이며, 지혜의 정점이자 완성입니다. 기품의 보고이자 정숙함의 보관소이며, 무엇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익하고 고결하며 즐거운 모든 것의 표상입니다! 지금 당신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당신을 모시기 위해 스스로 수많은 위험 속에 몸을 던진 이 포로가 된 기사를,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요? 오, 세 얼굴을 가진 빛이여, 부디 저에게 그녀의 소식을 전해주소서! 어쩌면 당신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시샘하여 지금 그녀를 바라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궁전의 회랑을 거닐거나, 혹은 어느 발코니에 가슴을 기댄 채,

자신의 정숙함과 위엄을 지키면서 자기 때문에 이 가련한 내 마음이 겪고 있는 폭풍을 어떻게 잠재울지, 나의 고통에는 어떤 영광을, 나의 근심에는 어떤 평온을, 그리고 마침내 나의 죽음에는 어떤 생명을, 나의 헌신에는 어떤 보상을 내려줄지 헤아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태양이여, 당신은 이미 나의 여주인을 뵙기 위해 서둘러 말에 안장을 얹고 새벽같이 길을 나설 채비를 하고 계시겠지요. 여주인을 보거든 부디 저를 대신해 문안 인사를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녀를 보고 인사할 때 그 얼굴에 입맞춤을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질투하게 될 터인데, 그 질투는 당신이 테살리아의 평원에서, 아니면 페네오 강가에서—그때 당신이 질투와 사랑에 빠져 어디를 내달렸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그토록 당신을 땀 흘리며 들판을 헤매게 했던 그 가볍고 배은망덕한 여인을 향해 품었던 질투보다 더 클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이토록 애절한 말을 늘어놓고 있을 때, 여관 주인의 딸이 말을 더듬거리며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리, 괜찮으시다면 이쪽으로 좀 와 주십시오."

돈키호테는 그 몸짓과 목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돌렸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가운데, 그는 창문처럼 보이는 구멍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구멍은 마치 금빛 창살이 달린 것처럼 보였는데, 돈키호테가 상상하던 그 화려한 성채와도 같은 여관의 모습에 딱 어울리는 모양새였다. 그 순간, 그의 미친 상상력은 지난번처럼 성주 부인의 아름다운 딸이 사랑에 패배하여 다시금 자신에게 구애하러 온 것이라고 멋

대로 그려냈다. 돈키호테는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 로시난테의 고삐를 돌려 그 구멍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두 젊은 여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운 귀부인이시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하의 그 고결한 마음을, 귀하의 드높은 가치와 품격에 걸맞은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두셨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비천한 떠돌이 기사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저 또한 눈이 마주친 그 찰나에 제 영혼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어버린 그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선량한 귀부인이시여,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방으로 돌아가 쉬십시오. 제게 더 큰 마음을 표현하셔도 제가 무례하게 굴 수밖에 없다면,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만약 저를 향한 그 사랑 말고도 저에게서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비록 그것이 사랑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맹세컨대, 멀리 계신 저의 달콤한 원수께 이름을 걸고 약속하건대, 설령 귀하께서 머리카락마다 뱀이 돋아난 메두사의 머리카락 한 줌을 요구하시거나, 태양빛을 병 속에 가둔 것을 달라고 하셔도 즉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기사님, 제 주인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마리토르네스가 이때 대답했다.

"그렇다면 현명하신 귀부인이시여, 주인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저 귀부인의 아름다운 손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리토르네스가 말했다. "이 구멍까지 그분을 이끈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손으로나마

풀어 드리시면 되는 것이지요. 이는 그분의 명예가 걸린 위험천만한 일이라, 만약 아버님께서 이를 눈치채셨더라면 적어도 귀 한 짝은 잘려 나갔을 만큼 위태로운 짓이거든요."

"그 광경을 저도 꼭 보고 싶군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런 짓을 단단히 삼가야 할 겁니다. 사랑에 빠진 딸의 연약한 몸에 손을 댔다가는, 세상 그 어떤 아버지도 맞은 적 없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정녕 그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마리토르네스는 돈키호테가 분명히 손을 내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행동할지 머릿속으로 궁리하며 구멍에서 몸을 빼내어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마구간에 도착한 그녀는 산초 판사의 노새 고삐를 챙겨 들고는 아주 재빨리 다시 구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사이 돈키호테는 창살 너머에 상처 입은 처녀가 있다고 믿는 그 창문에 손을 뻗으려고 로시난테의 안장 위에 발을 올리고 서 있었습니다. 마리토르네스는 돈키호테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 손을 잡으십시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의 악당들을 처단할 이 집행관의 손을 잡으십시오. 제 말은, 다른 여인의 손은 커녕 제 몸의 온전한 주인이신 분의 손조차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이 손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손을 내미는 것은 부인께서 입을 맞추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손의 힘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근육이 얼마나 단단히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혈관이 얼마나 굵고 넓게

뻗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손을 가진 팔의 힘이 어느 정도일지 절로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럼 어디 한번 확인해 보죠." 마리토르네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밧줄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그의 손목에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구멍에서 내려와 남은 줄을 헛간 문빗장에 아주 단단히 묶었습니다. 손목에 닿는 밧줄의 거친 감촉을 느낀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제 손을 선물이 아니라 마치 갉아먹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다루시는군요. 제 손을 너무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제 의지가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이 손이 대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 이 작은 부분에 당신의 분노 전체를 쏟아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토록 모질게 되갚아 주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돈키호테가 늘어놓는 이런 이유들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리토르네스가 그의 손목을 묶어버리자, 그녀와 다른 여인은 웃음보가 터진 채 떠나버렸고, 돈키호테는 도저히 스스로 풀 수 없을 만큼 꽉 붙들린 채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돈키호테는 로시난테 위에 올라탄 채 팔 전체를 구멍에 집어넣고 손목까지 묶인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팔은 문빗장에도 걸려 있었지요. 그는 로시난테가 이쪽저쪽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팔이 통째로 매달려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몹시 두려워하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움직임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로시난테가 워낙 인내심이 강하고 얌전한 놈이라, 마음만 먹으면 한 세기 동안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녀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키호테는 자신이 묶여 있는 데다 귀부인들마저 이미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난번 그 성에서 마주쳤던 마법에 걸린 노새 몰이꾼처럼 이 모든 일이 마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했다며 혼자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지난번 그 성에서 일이 아주 잘못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다시 그 성에 발을 들이는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편력기사들 사이에서는 모험을 시도했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모험은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는 경고가 전해지곤 합니다. 그러니 굳이 두 번이나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을 빼낼 수 있을지 확인하려 팔을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단히 묶여 있는 탓에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시난테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팔을 당겨보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안장에 몸을 기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로시난테 위에 선 채로 버티거나, 아니면 아예 손이 뽑혀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마디스의 검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검이라면 어떤 마법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마법에 걸려 있는 동안 세상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일지 과장하며 한탄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마법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랑하는 엘토보소의 둘시네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충직한 종자 산초 판사

를 불렀으나, 산초는 노새 안장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진 나머지 그 순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줄 현자 리르간데오와 알키페를 불렀고, 선한 친구 우르간다에게 도움을 청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았으나, 그는 황소처럼 울부짖을 정도로 절망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법에 걸렸다고 확신했기에, 날이 밝는다고 해서 이 고통이 해결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로시난테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며 그는 더욱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이 불길한 별의 기운이 물러가거나, 혹은 더 지혜로운 마법사가 나타나 마법을 풀어줄 때까지, 자신과 로시난테가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자지 못한 채 이 상태로 버텨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말에 올라탄 네 명의 남자가 여관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장 위에 총을 얹은 채 아주 말끔하고 근사한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닫혀 있는 여관 문을 커다란 소리가 나도록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보초를 서며 상황을 살피던 돈키호테는 그 모습을 보고는, 거만하고 높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사들이든, 종자들이든, 아니면 그 누구든 간에 말하건대, 이 성의 문을 두드릴 필요는 없소. 이 시간에 문을 연다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해가 온 땅을 비출 때까지는 성문을 열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니까 말이오. 그러니 일단 밖으로 물러가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시오. 그러면 문을 열어주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아닌지 그때 가서 따져 봅시다."

"도대체 무슨 성이나 요새길래 그런 격식을 다 따지라는 거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관 주인이라면 어서 문을 열라고 전하시오. 우리는 그저 말들에게 보리를 먹이고 얼른 길을 떠나고 싶은 나그네들이오. 지금 아주 급한 몸이란 말이오."

"기사님들, 제가 보기에 제가 여관 주인처럼 보입니까?"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관을 성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구려."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성이라니까요."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방에서 가장 훌륭한 성입니다. 안에는 손에 홀을 쥐고 머리에 왕관을 쓴 이들도 살고 있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겠지요." 그 행인이 말했습니다. "머리에 홀을 이고, 손에 왕관을 들고 있겠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안에는 아마 배우 일행이 묵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런 자들이야말로 당신이 말한 그런 왕관이며 홀을 곧잘 지니고 다니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여관에, 게다가 이토록 정적이 흐르는 곳에 왕관과 홀을 누릴 만한 귀하신 분들이 묵고 계실 리는 없다고 봅니다."

"세상 물정을 참 모르시는군요."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편력 기사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계시니 말입니다."

질문을 던지던 자와 함께 온 일행들은 그가 돈키호테와 나누는 대화가 길어지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맹렬한 기세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여관 주인은 물론 여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고, 주인은 누가 부르는 것인지 물으려 일어섰습니다. 마침 문을 두드리던 네 사람이 타고 온 말 중 한 마리가 로시난테의 냄새를 맡으려 다가왔습니다. 로시난테는 우울하고 슬픈 기색으로 귀를 축 늘어뜨린 채, 꼿꼿이 매달린 주인을 떠받치고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시난테도 나무토막처럼 보일지언정 결국은 살아 있는 몸이었기에, 자신에게 다가와 알랑거리는 말의 냄새를 맡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시난테가 아주 조금 몸을 움직이자 모아져 있던 돈키호테의 두 발이 미끄러졌고, 안장에서 흘러내린 그는 한쪽 팔로 매달려 있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 뻔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손목이 잘려 나가거나 팔이 통째로 뽑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발끝이 땅에 닿을 듯 말 듯한 높이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기까지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자, 그는 땅에 닿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몸을 늘리고 또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도르래 고문을 받으며 발끝이 땅에 닿을 듯 말 듯한 높이에 매달린 죄수들이, 조금만 더 뻗으면 땅에 닿으리라는 헛된 희망에 속아 스스로 더 안간힘을 쓰며 고통을 키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44장



제44장. 여관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사건들이 계속되는 대목

실제로 돈키호테가 내지르는 고함이 워낙 컸던 나머지, 여관 주인은 깜짝 놀라 문을 벌컥 열고 누가 저리 소리를 지르는지 확인하러 달려 나왔고, 밖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달려 나왔다. 같은 고함 소리

에 이미 잠이 깬 마리토르네스는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건초 창고로 가서 돈키호테를 붙들고 있던 고삐를 몰래 풀어버렸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여관 주인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손목에 묶여 있던 끈을 풀어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로시난테의 등에 올라탔다. 그는 방패를 움켜쥐고 창을 곧게 세운 뒤, 들판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는 반쯤 질주하며 이렇게 외쳤다.

"누구든 내가 정당한 이유로 마법에 걸렸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나의 주인이신 미코미코나 공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전제하에, 나는 그자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꾸짖으며 일대일 결투를 신청하노라!"

새로 나타난 행인들은 돈키호테의 말에 깜짝 놀라 멍하니 서 있었으나, 여관 주인이 그들에게 돈키호테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알려주며 그를 무시하라고 일렀다. 그는 돈키호테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행인들은 여관 주인에게 열다섯 살 정도 된 소년이 이곳에 왔는지 물었다. 그 소년은 노새를 모는 아이처럼 입고 있었으며, 도냐 클라라의 연인이 입은 옷과 똑같은 차림에 생김새도 이러저러하다고 설명했다. 여관 주인은 여관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들이 묻는 소년이 왔는지 못 봤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행인 중 한 명이 재판관이 타고 온 마차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 마차가 바로 그들이 말하던 그 마차니까요. 우리 중 한 명은 문 앞을 지키고, 나머지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

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한 명은 여관 주변을 다 돌아보는 게 좋겠어요. 축사 울타리를 넘어 도망갔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들 중 한 명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고, 한 명은 문 앞을 지켰으며 다른 한 명은 여관 주변을 돌아보러 떠났다. 여관 주인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저들이 대체 왜 저러나 싶어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저들이 찾는 이가 분명 자신이 설명해 준 인상착의를 가진 청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돈키호테가 일으킨 소란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도냐 클라라와 도로테아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도냐 클라라는 연인이 이토록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을 졸였고, 도로테아는 그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네 명의 행인이 자신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자, 분통이 터져 미칠 지경이었다. 만약 기사도 규율에, 한 번 약속한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저들에게 달려들어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호통을 쳤을 것이다. 하지만 미코미코나를 자신의 왕국에 귀속시키기 전까지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에, 그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저 행인들이 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보며 기다렸다.

그 행인 중 한 명은 마침내 찾던 청년을 찾아냈다. 청년은 누군가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노새를 돌보는 소년 옆에서 아무렇게나 잠들어 있었다. 그 남자는 청년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참으로, 돈 루이스 나리, 그 옷차림이 나리 같은 분께 어찌 그리 잘도 어울리는지요. 그리고 제가 나리를 발견한 이 잠자리 또한 어머님께서 나리를 그토록 곱게 키우신 정성에 어찌나 걸맞은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은 졸음이 가득한 눈을 비비며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가 아버지의 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너무 놀란 나머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하인이 말을 이었다.

"돈 루이스 나리,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인내심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뿐입니다. 나리의 아버님이자 제 주인이신 그분을 저세상으로 보내드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입니다. 나리께서 떠나신 뒤로 그분이 겪고 계신 시름을 생각하면, 그것 말고는 달리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 아버님께서는 제가 이 길로, 그것도 이런 차림으로 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라고 돈 루이스가 물었다.

"한 학생이 알아냈습니다." 하인이 대답했다. "나리께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던 바로 그 학생 말입니다. 아버님께서 나리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비탄에 빠지신 모습을 보고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나리를 찾으라며 하인 네 명을 급히 보내셨고, 저희 모두는 이렇게 나리를 모시러 와 있습니다. 나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분들 곁으로 무사히 모시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쁩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혹은 하늘의 뜻대로 되겠지요."라고 돈 루이스가 대답했다.

"나리를 모시고 돌아가는 것 말고, 나리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혹은 하늘이 또 무슨 뜻을 내리시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돈 루이스 곁에 있던 나귀 몰이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 그리고 이미 옷을 다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서 전했다. 나귀 몰이는 저 남자가 저 청년을 '돈'이라고 부르며 나누는 대화 내용과, 청년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려는 남자와 이를 거부하는 하인 사이의 실랑이를 상세히 일러주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는 청년의 맑고 고운 목소리까지 떠올리며, 그가 대체 누구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안달이 났다. 나아가 만약 누군가 청년을 강제로 데려가려 한다면 도와줄 마음까지 생겼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남자가 하인과 여전히 말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는 쪽으로 향했다.

이때 도로테아가 방에서 나왔고, 그 뒤를 이어 도냐 클라라가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따라 나왔다. 도로테아는 카르데니오를 따로 불러내어, 그 음악가와 도냐 클라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점만 추려 설명했다. 카르데니오 역시 도냐 클라라의 아버지 집에서 보낸 하인들이 그녀를 데려가려 한다는 소식을 도로테아에게 전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클라라가 듣지 못할 만큼 낮게 속삭이지는 않았다. 이 말을 들은 클라라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만약 도로테아가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을 정도였다. 카르데니오는 도로테아에게 일단 방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하며, 자신이 어떻게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고 다독였다. 두 여인은 그의 말에 따라 방으로 돌아갔다.

돈 루이스를 데려오려던 네 사람은 이미 여관 안으로 들어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돈 루이스에게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돌아가 아버지를 위로해 드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자 돈 루이스는 자신의 목숨과 명예, 그리고 영혼이 걸린 일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하인들은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그를 데려갈 것이며, 그를 혼자 두고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압박하며 몰아붙였다.

"그렇게는 못 할 거요." 돈 루이스가 대꾸했다. "나를 죽여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면 말이오. 설령 어떤 식으로든 나를 데려간다 해도, 결국은 숨이 끊어진 상태로 데려가게 될 것이오."

이때 여관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실랑이에 가세했다. 특히 카르데니오와 돈 페르난도, 그의 동료들, 재판관, 신부, 이발사, 그리고 돈키호테가 달려왔다. 돈키호테는 이제 더 이상 성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카르데니오는 이미 그 청년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데려가려는 사람들에게 왜 저 청년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억지로 데려가려 하는지 물었다.

"그건 저희 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사람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이 기사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아버님께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셨거든요."

이때 돈 루이스가 말했다.

"여기서 제 사정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몸이니까요. 제 마음이 내키면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중 누구도 저를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도리가 귀하를 따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도리가"

"귀하께는 통하지 않더라도 저희에게는 통할 것이니, 저희가 여기 온 목적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루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뿌리부터 확실히 알아내야겠군." 이때 재판관이 말했다.

하지만 그를 이웃으로 알고 있던 남자가 대답했다.

"재판관님, 혹시 이 기사를 아십니까? 재판관님 이웃의 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해괴한 차림을 하고서 아버지 집을 몰래 빠져나왔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그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재판관은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돈 루이스 님, 이게 대체 무슨 어린애 같은 장난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떤 중대한 사정이 있기에,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해괴한 차림을 하고 이토록 황당하게 나타나신 겁니까?"

그 청년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관은 네 사람에게 모두 진정하라고,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돈 루이스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대체 어찌 된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물었다.

재판관이 돈 루이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여관 문 밖에서 커다란 고함이 들려왔다. 그 소동의 원인은 그날 밤 여관에 묵고 있던 손님 두 명 때문이었다. 네 사람이 무엇을 찾는지 사람들이 모두 그쪽으로 정신을 빼앗긴 틈을 타, 그들이 숙박비를 내지 않고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남의 일보다 제 장사가 우선이었던 여관 주인은 문을 나서려는 그들을 붙잡아 숙박비를 요구했다. 주인이 그들의 못된 심보를 거칠게 몰아세우자, 화가 난 손님들이 주먹을 휘두르며 맞섰고, 결국 가엾은 주인은 흠씬 두들겨 맞아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여관 안주인과 그 딸은 주인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돈키호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챘고, 안주인의 딸이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기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사님께 주신 그 용맹함으로 제 불쌍한 아버지를 좀 도와주세요. 나쁜 놈 두 명이 아버지를 아주 가루로 만들 듯이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러자 돈키호테는 아주 느긋하고 침착한 태도로 대답했다.

"고귀한 처녀여, 지금은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없소. 내 명예를 걸고 시작한 이 모험을 끝내기 전까지는 다른 모험에 끼어들 수 없기 때문이오. 하지만 당신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말해주는 대로 하시오. 어서 달려가서 아버님께 전하시오. 지금 벌어진 싸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버티며, 절대로 패배하지 말고 버티시라고 말이오. 그동안 나는 미코미코나 공주님께 허락을 구해 당신의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겠소. 만약 공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아버님을 구해낼 것이니 믿어도 좋소."

"이런, 죄 많은 사람 같으니라고!" 앞에 서 있던 마리토르네스가 이 말을 듣고 소리쳤다. "나리께서 말씀하신 그 허락을 받기도 전에, 우리 주인님은 이미 저세상으로 떠나 계실 겁니다."

"부인, 제가 말씀드린 그 허락을 꼭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허락만 받는다면, 그분이 저세상에 계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를 가로막는다 해도 저세상에서 그분을 반드시 구해낼 것이니까요. 아니, 적어도 그분을 그곳으로 보내버린

자들에게 아주 처절한 복수를 해드림으로써, 부인의 원한을 충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돈키호테는 더 말하지 않고 도로테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기사도 소설에나 나올 법한 거창한 말투로, 이 성의 성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으니 그를 구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다. 공주님은 흔쾌히 허락을 내주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즉시 방패를 움켜쥐고 칼자루를 잡은 채 여관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두 손님이 여관 주인에게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괴롭히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방패를 치켜들고 멈춰 서서 상황을 살폈다. 마리토르네스와 여관 여주인이 왜 가만히 서 있느냐며, 어서 가서 주인님과 남편을 도와달라고 재촉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돈키호테가 말했다. "종자 따위 신분의 사람들에게 칼을 빼 드는 일이 기사인 내게는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오. 그러니 내 종자 산초를 이리로 불러 주시오. 이 방어와 복수는 바로 그가 맡아야 할 일이니 말이오."

여관 문 앞에서는 주먹질과 따귀가 한창 절정에 이르러, 모든 것이 여관 주인에게만 쏟아지고 있었다. 그 광경에 마리토르네스와 여관 안주인, 그리고 그 딸은 분통이 터졌다. 돈키호테가 겁쟁이처럼 가만히 있는 모습과, 남편이자 주인이며 아버지인 이가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던 세 사람은 속이 타들어 갈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를 여기 그냥 두기로 하자. 그를 도와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니 말이다. 만약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자신의 역량 밖의 일

을 벌인 대가로 고통을 감내하며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한 발짝 뒤로 돌려보자. 재판관은 돈 루이스를 한쪽으로 데려가, 왜 걸어서 왔는지, 그리고 왜 저토록 초라한 차림을 하고 있는지 그 까닭을 물었었다. 그때 돈 루이스가 재판관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살펴보자. 돈 루이스는 마치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커다란 슬픔에 잠긴 듯, 재판관의 손을 꽉 움켜쥐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리,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하늘의 뜻으로 우리 이웃이 되어 제가 귀하신 따님이자 저의 여인인 도냐 클라라를 뵙게 된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온통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 진정한 주인이며 아버지이신 나리께서 허락하신다면, 바로 오늘 그녀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그녀를 따르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화살이 과녁을 향하듯, 혹은 선원이 북극성을 찾아가듯 그녀가 어디에 있든 뒤쫓으려 지금의 이 차림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멀리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가끔 보았을 뿐,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아직 모릅니다. 나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제 부모님은 재력과 명망이 높으시며, 저는 그분들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만약 이런 조건들이 나리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저를 아들로 받아 주십시오. 만약 제 아버지가 다른 뜻을 품고 제가 스스로 찾아낸 이 행복을 가로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보다는 흐르는 시간이 만물을 무너뜨리고 변화시키는 힘이 더 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이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었다. 재판관은 돈 루이스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방식과 그 사려 깊음에 감탄하면

서도, 이토록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채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인들을 붙들어 두어 그날은 자신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모두에게 무엇이 최선일지 곰곰이 따져 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며, 그 말 외에는 달리 대답하지 않았다. 돈 루이스는 억지로 재판관의 손에 입을 맞추었고, 심지어 눈물로 그 손을 적시기까지 했다. 그것은 대리석 같은 마음조차 녹일 만한 모습이었으니, 현명한 재판관의 마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는 이미 이 혼사가 자신의 딸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가능하다면 돈 루이스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작위를 얻어 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무렵 투숙객들과 여관 주인 사이의 소동은 일단락된 상태였다. 돈키호테가 위협보다는 설득과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말한 덕분에, 여관 주인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모두 받아낸 터였다. 돈 루이스의 하인들은 재판관의 대화가 끝나고 주인이 결정을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잠들지 않는 악마가 일을 꾸몄다. 돈키호테가 맘브리노의 투구라며 빼앗은 그 투구, 그리고 산초 판사가 나귀의 마구를 빼앗아 제 나귀의 것과 바꿔치기했던, 바로 그 이발사가 그 순간 여관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발사는 자신의 나귀를 마구간으로 데려가다가, 산초 판사가 안장 가죽의 무엇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발사는 그것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채고는 산초 판사에게 달려들며 이렇게 소리쳤다.

"이 도둑놈아, 거기 딱 서라! 네놈이 훔쳐 간 내 대야와 안장 가죽, 그리고 내 마구들을 전부 다 내놓지 못할까!"

산초 판사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데다 욕설까지 듣자, 한 손으로는 안장 가죽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발사에게 주먹을 한 방 날렸다. 그 주먹에 맞은 이발사는 이가 온통 피로 물들었다. 하지만 이발사는 산초 판사가 붙잡고 있는 안장 가죽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여관의 모든 사람이 소란과 싸움 소리를 듣고 달려올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외쳤다.

"사람 살려! 왕과 법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오! 이 노상강도 도둑놈이, 내가 빼앗긴 내 재산을 되찾으려는 것도 모자라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소!"

"거짓말 마십시오!"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길거리 도둑놈이 아닙니다. 제 주인 돈키호테께서 정당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으신 전리품이란 말입니다."

돈키호테는 이미 앞서 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종자가 얼마나 용맹하게 맞서고 또 상대를 몰아붙이는지를 보며 무척 흡족해했다. 돈키호테는 그 순간부터 산초를 용맹한 사내로 여겼다. 그리고 기사 작위를 수여할 기회만 생긴다면 당장이라도 그를 기사로 만들어 주겠노라 마음먹었다. 기사 작위라는 것이 산초 같은 인물에게 쓰기에 참으로 적절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 대해 이발사가 한참 동안 떠들던 중,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여러분, 이 안장은 제가 하느님께 빚진 목숨만큼이나 분명히 제 것입니다! 제가 직접 낳기라도 한 듯이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기 마구간에 제 나귀가 있으니, 그놈이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게 해 줄 겁니다. 못 믿으시겠거든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놈에게 딱 들어맞지 않는다면, 저를 파렴치한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안장을 빼앗기던 바로 그날, 한 번도 써 본 적 없는 새 놋쇠 대야까지 함께 빼앗겼는데, 그 대야는 1에스쿠도의 값어치가 있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돈키호테는 참지 못하고 대답하며 나섰다. 그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 떼어놓고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 안장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러분, 이 선량한 종자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이 자는 맘브리노의 투구였던 것을 대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투구는 제가 정당한 전쟁을 통해 빼앗아,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로 차지한 것입니다! 안장 문제에는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제 종자 산초가 이 겁쟁이 패배자의 말에서 마구 용품을 떼어내 자기 말에 달아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했기에 제가 허락했다는 것뿐입니다. 산초가 그것들을 가져갔는데, 마구가 안장으로 변해 버렸다면 그건 기사도 이야기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그 외에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산초야, 어서 달려가서 이 양반이 대야라고 우기는 그 투구를 가져오너라!"

"아이고, 주인님!" 산초가 말했다.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는 저희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이 양반이 말하는 맘브리노의 투구가 대야인지, 아니면 이 선량한 분의 마구가 안장인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마법 때문일 수는 없지 않느냐."

산초는 대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가져왔다. 돈키호테는 그것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집어 들고는 말했다.

"여러분, 이 종자가 어떤 얼굴로 이것을 대야라고 말하는지 좀 보십시오. 제가 말한 투구와는 전혀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맹세하건대, 제가 따르는 기사도의 이름으로 단언컨대, 이 투구는 제가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져온 바로 그 투구입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 산초가 말했다. "우리 주인님께서 투구를 얻으신 뒤로, 사슬에 묶인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내셨을 때를 제외하면 아직 전투를 한 번도 치르지 않으셨으니까요. 만약 이 대야 투구가 아니었다면, 그때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난리 통에 돌을 워낙 많이 맞았거든요."

제45장



제45장. 맘브리노의 투구와 안장 굴레에 관한 의문이 마침내 풀리고, 그 외에 일어난 여러 모험에 관한 진실한 이야기

"여러분,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발사가 말했다. "이분들은 이 물건이 대야가 아니라 투구라고 여전히 우기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와 다르게 말한다면,"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자가 기사라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줄 것이요, 종자라면 천 번이고 만 번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러 줄 것이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발사는 돈키호테의 성미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그의 억지를 더 부추겨 농담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옆에 있던 다른 이발사에게 말을 건넸다.

"이보시오, 이발사 양반, 아니 당신이 누구든 간에 이것 하나는 알아두시오. 나 또한 당신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오. 이 면허증을 따낸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으니, 이발에 쓰이는 도구라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잘 알고 있단 말이오. 게다가 젊은 시절에는 군인이기도 했으니, 투구가 무엇인지, 모자가 무엇인지, 얼굴을 가리는 투구 덮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군사들이 사용하는 무기 종류가 무엇인지도 아주 잘 안단 말이오. 내 의견을 묻는다면, 그리고 가장 현명한 판단에 따라 말하자면, 여기 앞에 놓인 이 물건은, 즉 이 귀하신 분이 손에 들고 계신 이것은 이발사의 대야가 아닐뿐더러, 흰색이 검은색과 다르고 진실이 거짓과 다른 것처럼 대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오. 또한 이것은 비록 투구의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온전한 투구라고 할 수는 없소."

"아니오, 틀렸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투구는 절반이 빠져 있소. 바로 턱 가리개가 없단 말이오."

"그렇고말고요." 친구인 이발사의 의도를 이미 눈치챈 신부가 말했다.

카르데니오와 돈 페르난도, 그리고 그의 일행도 모두 같은 말로 맞장구를 쳤다. 심지어 재판관마저 돈 루이스의 일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지만 않았더라면 그 역시 이 농담에 거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골똘히 잠긴 생각이 그를 너무도 사로잡고 있던 터라, 그는 그들의 익살에는 거의, 아니 아예 신경 쓰지 못했다.

"맙소사!" 조롱을 당한 이발사가 이때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직한 분들이 이 대야를 투구라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대학이라 해도 이 광경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만약 이 대야가 투구라면,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 안장 덮개도 말 굴레라고 불러야 할 판이군요."

"제 눈에는 안장 덮개로 보입니다만,"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장 덮개인지 말 굴레인지 하는 문제는 돈키호테께서 말씀만 하시면 끝날 일입니다." 신부가 말했다. "기사도에 관한 일이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저를 통틀어도 돈키호테께서 훨씬 앞서시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성에서 두 번이나 머무는 동안 겪은 일이 워낙 많고 기이해서, 여러분이 이 성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무엇을 물으시든 저는 감히 단정 지어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마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머물렀을 때는 이곳에 사는 마법에 걸린 무어인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산초도 그 부하들 때문에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이 팔에 매달린 채로 거의 두 시간 동안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또 무슨 영문으로 그런 변을 당하게 되었는지 저로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에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모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투구가 아니라 대야라고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것이 안장인지 말 굴레인지에 대해서는 감히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 그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처럼 기사 작위를 받은 몸이 아니기에 이 성에 서린 마법이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을 테고, 그래서 판단력이 자유로운 채로 이 성의 사물들을 제게 보이던 대로가 아니라 실제 그대로 올바르고 진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돈 페르난도가 이에 대답했다. "오늘 돈키호테께서 이 사안의 판결은 우리 몫이라고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 제가 남몰래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본 뒤 그 결과를 온전히 그리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상황은 그저 배꼽 잡는 웃음거리였지만,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보였다. 특히 돈 루이스의 하인 네 명과 돈 루이스 본인, 그리고 마침 여관에 도착한 세 명의 행인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 행인들은 실제 직업이 그러하듯 순찰대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장 속이 타들어 가는 사람은 바로 이발사였다. 눈앞에 있는 자신의 대야가 맘브리노의 투구로 변해버렸고, 자신의 안장 덮개가 틀림없이 값비싼 말 굴레로 변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 페르난도가 저 보석 같은 물건이 안장 덮개인지 말 굴레인지 비밀리에 대답해달라며 사람들의 귓가에 대고 의견을 묻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너나 할 것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돈키호테를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모은 뒤, 돈 페르난도가 큰 소리로 말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보게. 내가 너무 많은 의견을 묻느라 이제 지쳐버렸소. 내가 알고 싶은 걸 물어보려 해도, 저게 당나귀 안장 덮개가 아니라 말, 그것도 아주 품종 좋은 말의 굴레라고 말하면 다들 헛소리라고 해버리니 말이오. 그러니 자네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오. 자네나 자네 당나귀나 내키지는 않겠지만, 이건 안장 덮개가 아니라 분명히 말 굴레라네. 자네는 방금 아주 잘못된 주장과 근거를 내놓았어."

"만약 여러분 모두가 틀린 것이라면, 차라리 내 영혼이 하늘에 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발사가 말했다. "저게 말 굴레가 아니라 안장 덮개로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 영혼이 저에게 보이는 모습 그대로 안장 덮개라고 주장하는 셈 치겠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게 다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뭐,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참으로 말씀드리건

대,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일만큼은 아침 식사도 거른 상태니까요."

이발사가 늘어놓는 헛소리도 돈키호테가 하는 황당한 소리 못지않게 웃음을 자아냈는데, 이때 돈키호테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서 더 할 말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저 각자 자기 물건을 가져가면 그만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사람에게 성 베드로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빌 뿐입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 명 중 한 명이 말했다.

"이것이 지독한 농담이 아니라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식견이 높거나 혹은 높아 보이는 분들이 어찌 감히 이 물건이 이발사의 대야가 아니고 저것이 당나귀 안장 덮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말씀하시니, 진실과 경험이 보여주는 사실과 정반대되는 것을 굳이 우기시는 데에는 분명 무슨 신비로운 이유가 있는 모양이군요. 아니, 세상에! —그는 대야를 둥글게 굴려 던지며 덧붙였다— 오늘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물건이 이발사의 대야가 아니고 저것이 당나귀 안장 덮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이 뒤집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정말로 당나귀 안장 덮개일 수도 있겠군요." 신부가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종자가 말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것이 안장 덮개가 맞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소동과 논쟁을 엿듣고 있던, 방금 안으로 들어온 순찰병 중 한 명이 분노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나 저 안장 덮개나 다를 게 없습니다. 만약 다른 말을 했거나 앞으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습니다."

"비열한 마을 놈처럼 거짓말을 하는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돈키호테는 손에서 결코 놓지 않던 창을 치켜들더니, 그 창잡이가 피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질 정도로 그의 머리를 향해 세차게 내리쳤다. 창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동료가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본 다른 창잡이들은 소리를 높이며 성안의 치안대인 산타 에르만다드에 도움을 요청했다.

창잡이 중 한 명이었던 여관 주인은 즉시 지팡이와 칼을 챙겨 들고 들어와 동료들 곁에 섰다. 돈 루이스의 하인들은 주인이 소란에 휘말릴까 봐 그를 에워쌌다. 이발사는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보고 다시 허리춤의 칼집을 움켜쥐었고, 산초 역시 똑같이 행동했다. 돈키호테는 칼에 손을 뻗으며 창잡이들에게 달려들었다. 돈 루이스는 하인들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고 돈키호테와 카르데니오, 그리고 돈 페르난도를 도우러 가라고 소리쳤다. 그들 모두는 돈키호테의 편을 들고 있었다. 신

부는 소리를 질렀고, 여관 주인 부인은 비명을 내질렀으며, 그녀의 딸은 슬퍼하고 마리토르네스는 울었다. 도로테아는 혼란에 빠졌고, 루신다는 안절부절못했으며, 도냐 클라라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발사는 산초를 두들겨 팼고, 산초는 이발사를 몰아붙였다. 돈 루이스는 주인이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려고 감히 팔을 붙잡은 하인에게 주먹질을 하여 그 입안이 피로 범벅이 되게 만들었다. 판사는 그를 방어하고 있었고, 돈 페르난도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창잡이 한 명을 발밑에 깔아뭉개고 있었다. 여관 주인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성안의 치안대인 산타 에르만다드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듯 여관 전체는 울음과 외침, 비명과 혼란, 공포와 경악, 불행과 칼부림, 욕설과 몽둥이질, 발길질과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이 아수라장과도 같은 혼돈의 한복판에서, 돈키호테는 자신이 마치 아그라만테의 전장에서 낫과 발길질이 난무하는 싸움에 휘말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여관을 뒤흔드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모두 멈춰라! 모두 칼을 거두어라! 모두 진정하라! 모두 살아서 살아남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라!"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모두가 동작을 멈추자, 그는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제가 이 성은 마법에 걸린 곳이며, 분명 악마들이 사는 땅일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로, 아그라만테의 전장에서 벌어지던 불화가 이곳에까지 넘어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쪽에서는 칼 때문에 싸우고, 여기서는 말 때문에 싸우며, 저기서는 독수리 때문에, 또 이쪽에서는 투구 때문에 싸우고 있

습니다. 모두가 싸우기만 할 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청강자님, 그리고 신부님, 어서 오셔서 이 소동을 말려 주십시오. 한 분은 아그라만테 왕을, 다른 한 분은 소브리노 왕을 맡아 우리를 화해시켜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느님께 맹세코, 여기 모인 귀한 분들이 이토록 사소한 일로 서로 죽이려 드는 것은 참으로 큰 난장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키호테의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 일행에게 당하고만 있는 기사들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발사는 싸움 중에 수염과 안장 끈이 엉망이 되는 바람에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산초는 주인이 아주 작은 소리로만 불러도 충직한 종답게 즉각 따랐다. 돈 루이스의 하인 네 명 역시, 가만히 있는 편이 신상에 이롭다는 것을 깨닫고는 입을 꾹 다물었다. 오직 여관 주인만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여관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저 미치광이의 무례함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울 뿐이었다. 결국 소란은 그제야 잦아들었다. 안장 끈은 심판의 날까지 굴레 대신 그대로 남겨졌고, 돈키호테의 상상 속에서 이발사의 대야는 투구가 되었으며 여관은 성이 되었다.

마침내 소란이 잦아들고 청강자와 신부의 설득 덕분에 모두가 화해하자, 돈 루이스의 하인들은 그에게 당장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다시금 재촉했다. 돈 루이스가 하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안, 청강자는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 그리고 신부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설명하며 돈 루이스가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사정들을 들려주었다. 결국 돈 페르난도가 돈 루이스의 하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돈 루이스가 자신과 함께 안달루시아로 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로 합의했다. 그곳에 가면 돈 루이스의 형인 후작의 보살핌 아래, 그의 용맹함에 걸맞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면 설령 아버지가 그를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 해도, 돈 루이스가 이번만큼은 결코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다. 돈 페르난도의 신분과 돈 루이스의 결심을 모두 이해한 네 사람은, 세 사람이 먼저 각자의 아버지에게 이 일을 알리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돈 루이스의 곁을 지키며, 세 사람이 돌아오거나 아버지가 내리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그라만테의 권위와 소브리노 왕의 신중함 덕분에 그 난장판 같던 싸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화합을 방해하고 평화를 깨뜨리려던 자는, 자신이 모두를 이토록 혼란스러운 미로 속에 몰아넣고도 얻은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과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그는 다시 한번 승부를 겨루어 보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싸움과 소란을 일으켜 판을 흔들기로 결심했다.

결국 싸움을 벌이던 무리 중 순찰대원들은 자신들과 맞붙었던 이들의 신분을 전해 듣고는 기세가 꺾여 물러났다.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든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 페르난도에게 호되게 얻어맞았던 대원 한 명은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몇 가지 영장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돈키호테를 체포하라는 영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성스러운 형제단은 돈키호테가 갤리선 죄수들을 풀어준 죄로 그를 체

포하라고 명령한 상태였으니, 이는 산초가 합당한 이유로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한 순찰대원은 자신이 가진 돈키호테의 인상착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는 품속에서 양피지 뭉치를 꺼내더니, 찾던 영장을 찾아냈다. 그는 글을 잘 읽지 못했기에 양피지를 꺼내어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단어를 하나 읽을 때마다 돈키호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영장에 적힌 특징과 돈키호테의 얼굴을 대조해 보았다. 확인 결과, 영장에 적힌 인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눈앞의 돈키호테가 맞았다. 확인을 마친 대원은 양피지를 챙겨 넣고 왼손에는 영장을 든 채, 오른손으로는 돈키호테의 목을 숨도 못 쉴 정도로 꽉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성스러운 형제단에 맡기겠다! 내가 빈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테니, 이 영장을 읽어 보아라. 여기 이 길 위의 강도 놈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적혀 있다!"

신부가 영장을 받아 들고 살펴보니, 순찰대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고 영장에 적힌 인상착의가 돈키호테와 딱 맞아떨어졌다. 돈키호테는 저 천박한 악당에게 모욕을 당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을 주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기세로 순찰대원의 목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만약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순찰대원은 돈키호테에게 목을 잡힌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을 것이다. 여관 주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도와야 했기에 즉시 달려가 그를 거들었다. 남편이 또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본 여관 주인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고, 마리토르네스와 그녀의 딸도 하늘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함께 소리를 질렀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산초가 말했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인님께서 이 성에 마법이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시간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으니까요!"

돈 페르난도는 순찰대원과 돈키호테를 떼어놓았다. 그러고는 두 사람 모두의 뜻을 존중하여 꽉 맞물려 있던 손을 풀어주었다. 한 사람은 상대의 겉옷 깃을, 다른 사람은 상대의 목을 움켜쥐고 있었기에 손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순찰대원들은 범인을 내놓으라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범인을 꽁꽁 묶어 넘겨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국왕 폐하와 성스러운 치안대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길을 가로막고 약탈을 일삼는 저 강도 놈을 붙잡아 가두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했다. 돈키호테는 이런 이유들을 듣고는 그저 웃어넘겼다. 그러고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이 천하고 비천한 놈들아, 이리 좀 와 보아라! 쇠사슬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죄수를 놓아주며, 불쌍한 이들을 돕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궁핍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어찌 길을 가로막는 약탈이란 말이냐? 아, 참으로 비열한 자들이로구나! 너희처럼 식견이 낮고 천박한 자들에게는, 하늘이 기사도에 깃든 용기를 내려주지 않음은 물론, 기사도를 경외하지 않는 너희의 죄악과 무지를 깨닫게 하지도 않으시

는구나! 기사의 그림자만 보더라도 마땅히 경의를 표해야 하거늘 말이다! 순찰대원이 아니라, 성스러운 치안대의 허락을 받은 길거리 강도 놈들아, 이리 와서 대답해 보아라! 나 같은 기사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무지몽매한 자가 대체 누구냐? 기사도는 모든 사법적 관할권에서 면제되며, 그들의 법은 곧 검이고, 그들의 특권은 곧 기개이며, 그들의 규율은 곧 의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란 말이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사가 되어 고된 기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날 얻게 되는 그 수많은 특권과 면제권을 가진 귀족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도대체 어떤 기사가 몸값이나 세금, 여왕의 통행세, 지역세, 통행료, 혹은 나룻배 이용료를 지불한 적이 있느냐? 어떤 재단사가 기사의 옷을 맞추기 위해 치수를 쟀단 말이냐? 어떤 영주가 자기 성에 기사를 맞아들이며 숙박비를 받아냈단 말이냐? 어떤 왕이 기사를 자기 식탁에 앉히지 않았으며, 어떤 처녀가 기사의 뜻과 의지에 따라 그에게 반해 몸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았단 말이냐? 마지막으로, 앞길을 가로막는 순찰대원 사백 명을 상대로 혼자서 매 사백 대를 때려눕힐 기개가 없는 기사가 세상에 있었느냐, 지금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있겠느냐?”

제46장



제46장. 경찰들의 놀라운 소동과 우리들의 고결한 기사 돈키호테가 보여준 엄청난 용맹에 대하여

돈키호테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신부는 경찰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돈키호테가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기에, 신부는 굳이 이런 소동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다. 설령 그를 붙잡아 끌고 간다 한들, 결국에는 미친 사람이라며 곧 풀어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경찰 책임자는 돈키호테의 광기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며, 자신은 그저 상부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일단 그를 체포하고 나면, 적어도 300마라베디는 내놓아야 풀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말했다. "이번만큼은 그를 데려가선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역시 끌려가려 하지 않을 것 같군요."

실제로 신부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고, 돈키호테가 저지른 광기 어린 행동들은 또 어떠했는가. 만약 경찰들이 돈키호테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차라리 그들이 돈키호테보다 더 미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결국 경찰들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여전히 서로를 몹시 원망하며 싸우고 있던 이발사와 산초 판사 사이를 중재하여 화해시키기까지 했다. 마침내 정의를 수호하는 이들로서 경찰이 사건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린 덕분에, 양측은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어느 정도는 합의를 보았다. 서로의 손해를 조금씩 양보하여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본 것이다. 한편 맘브리노의 투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신부가 돈키호테가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이발사의 대야 값으로 8레알을 건넸다. 그러자 이발사는 돈을 잘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주며,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 일로 속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가장 크고 중대한 두 싸움이 이처럼 일단락되자, 이제 남은 일은 돈 루이스의 하인들이 세 사람 모두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한 명은 돈 페르난도가 데려가려는 곳까지 그를 수행하며 동행하는 것뿐이었다. 이미 행운과 더할 나위 없는 운수가 여관의 연인들과 용맹한 이들의 편에 서서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었기에, 운명은 이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을 안겨주려는 듯했다. 실제로 하인들은 돈 루이스가 원하는 대로 따랐고, 이로 인해 도냐 클라라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 그 순간 그녀를 바라보는 이라면 누구라도 그녀의 영혼이 얼마나 환희에 차 있는지 단번에 알아챌 정도였다.

조라이다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며 상황에 따라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다. 특히 그녀는 늘 눈길을 떼지 못하고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있는 스페인 남자의 안색을 유심히 살폈다. 여관 주인은 신부가 이발사에게 베푼 사례와 보상을 놓치지 않고 챙겼다. 주인은 돈키호테가 먹어 치운 음식과 술, 그리고 손상된 가죽 제품들에 대한 숙식비를 청구하며,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지불하기 전에는 로시난테도, 산초의 당나귀도 이 여관을 떠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신부가 모든 상황을 잘 수습했고, 돈 페르난도가 비용을 지불했다. 심지어 판사였던 돈 페르난도의 하인 또한 흔쾌히 비용을 보태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덕분에 모든 이들이 평온과 안식을 되찾았다. 여관은 이제 돈키호테가 말했던 아그라만테 들판의 불화가 일어나는 전쟁터가 아니라, 마치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처럼 변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들은 입을 모아 신부의 선한 의도와 유창한 말솜씨, 그리고 돈 페르난도의 비할 데 없는 너그러움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돈키호테는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종자 산초의 일까지 얽힌 수많은 분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자, 이제는 시작한 여행을 계속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부름을 받고 선택된 그 위대한 모험을 마침내 완수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단호한 결의를 품고 도로테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로테아는 그가 일어설 때까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게 했다. 돈키호테는 그녀의 뜻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름다운 귀부인이시여, 부지런함이 행운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중대한 일들을 겪어온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상인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불확실한 거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적의 계략을 미리 차단할 수 있고, 상대가 방어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귀부인이시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에 머무는 것이 이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계속 머물다가는 언젠가 큰 화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교활하고 부지런한 첩자들이 이미 제가 물리치러 가려는 그 거인을 적에게 알려버렸다면 어쩌겠습니까? 만약 적에게 준비할 시

간을 주어 그가 난공불락의 성이나 요새에 틀어박혀 버린다면, 저의 부지런한 노력과 지치지 않는 팔의 힘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귀부인이시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 적의 계략을 미리 꺾고, 곧장 행운을 향해 길을 떠납시다. 제가 적과 맞서 싸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귀부인의 위엄이 바라시는 바인 행운은 더욱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돈키호테는 말을 멈추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름다운 공주가 대답하기를 아주 차분하게 기다렸다. 그러자 공주는 돈키호테의 방식에 맞춘 듯 기품 있고 정중한 몸짓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기사님, 저의 큰 고통을 덜어주려 애쓰시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아와 궁핍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기사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지요. 부디 하늘이 도우시어 기사님의 염원과 저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은혜를 아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사님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떠나는 일 또한 바로 진행하도록 하지요. 저 역시 기사님과 뜻을 같이할 뿐입니다.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 기사님의 뜻과 방식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한때 기사님께 자신의 몸을 지켜달라 부탁하며, 잃어버린 영지를 되찾아달라고 기사님의 손에 맡겼던 여인이, 기사님의 현명한 판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귀한 여인께서 이토록 저를 낮추어 대하시니,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분을 다

시 드높여 본래의 왕좌에 앉혀 드리고 싶소. 떠나는 일 또한 바로 진행합시다. '지체하면 위험이 따른다'는 말처럼, 마음도 길도 자꾸만 서두르라고 재촉하는구려. 하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옥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자가 나인데, 그 무엇이 나를 겁주고 위축시키겠소? 산초, 어서 로시난테에게 안장을 얹어라! 네 당나귀와 공주님의 말도 준비시키고. 자, 이제 여관 주인과 이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지체 없이 곧장 이곳을 떠납시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산초가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며 말했다.

"아이고, 주인님, 주인님! 세상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한 악행이 도사리고 있는 법입니다.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놈아, 세상 어느 마을이나 도시를 통틀어 대체 어떤 악행이 있기에 감히 나를 깎아내리려 드느냐?"

"주인님께서 노하신다면," 산초가 대답했다. "입을 다물겠습니다. 충직한 종자로서, 그리고 모름지기 주인에게 마땅히 고해야 할 하인으로서 해야 할 말도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 보아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다만 네 말이 나를 겁주려는 의도가 아니어야 한다. 네가 겁을 먹었다면 네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내가 겁을 먹지 않았다면 내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 맹세코 제가 죄인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저 제가 확실히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저기 위대한 미코미콘 왕국의 여왕이라고 자칭하는 부인께서는, 제 어머니 말고는 다른 분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면, 저 바퀴 위에 있는 사람들과 저렇게 뒤집힌 채로 이리저리 엉겨 붙어 싸우고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산초의 논리에 도로테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산초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인 돈 페르난도가 예전에 남들의 눈을 피해 그녀의 입술에 자신이 갈망하던 보상을 몰래 나누어 준 적이 있었다. 산초는 그 광경을 목격했었는데, 그 행동이 위대한 왕국의 여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교태를 부리는 정부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다. 도로테아는 산초에게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으며,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산초가 말을 이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산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부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길을 달리고 또 달리고, 험한 밤과 그보다 더한 낮을 견뎌냈는데, 정작 그 수고의 결실을 이 여관에서 빈둥거리는 자가 가로챈다면,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서둘러 로시난테에게 안장을 얹고, 저 당나귀에게 짐을 싣고, 말에게 먹이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만히 앉아 각자 제 갈 길이나 가고, 밥이나 먹는 게 상책입니다."

"맙소사, 돈키호테가 종자의 망언을 듣고 얼마나 크게 분노했는지 모른다! 그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는 눈에서 불꽃을 쏘아대며 거친 목소리로 말을 더듬거리며 이렇게 외쳤다."

"오, 이 비열하고 사악한 마을 놈아! 눈매가 매섭고 말도 안 되게 무례하며, 무식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놈! 입만 열면 망언을 내뱉고 무모하게 굴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남을 헐뜯는 놈 같으니! 감히 내 앞과 이 고귀하신 부인들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다니, 네 그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어찌 그런 망측하고 무례한 생각들을 해낼 수 있단 말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천성이 괴물 같고 거짓말만 늘어놓으며, 온갖 속임수를 보관하고 사악함을 쌓아두는 놈! 악행을 꾸며내고 멍청한 소리를 퍼뜨리며, 고귀한 분들께 마땅히 갖춰야 할 예의를 모르는 놈 같으니! 당장 꺼져라! 내 분노를 사고 싶지 않거든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말한 돈키호테는 눈썹을 치켜뜨고 볼을 부풀린 채 사방을 둘러보더니, 오른발로 땅을 세게 내리찍었다. 그 모습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돈키호테의 말과 격렬한 몸짓에 산초 판사는 겁에 질려 몸을 잔뜩 움츠렸고, 차라리 그 순간 발밑의 땅이 갈라져 자신을 삼켜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산초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저 등을 돌린 채 화가 난 주인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돈키호테의 성미를 이미 잘 파악하고 있던 영리한 도로테아가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픈 형상의 기사님. 당신의 충직한 종자가 내뱉은 멍청한 소리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쩌면 저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저런 말을 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저 아이의 총명함과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양심을 생각할 때, 누군가를 모함하려고 거짓 증언을 할 아이는 아니니까요. 그러니 의심할 여지 없이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 안의 모든 일이 마법에 의해 움직이고 일어나는 것처럼, 산초가 본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의 정조를 해치려는 저 사악한 마법의 수법에 속아 산초가 저런 환상을 보았을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전능하신 하느님께 맹세코,"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대의 통찰이 정확하오. 죄인인 산초의 눈앞에 어떤 사악한 환영이 나타나, 마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만든 것이 분명하오. 이 불쌍한 녀석이 누군가를 모함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렇고말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돈 페르난도가 말했다. "그러니 돈키호테 님, 저 아이를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즉 저런 환영 때문에 정신을 놓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너그러운 품 안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돈키호테는 그를 용서한다고 대답했다. 신부가 산초를 데려오자, 산초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나타나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손을 잡아달라고 청했다. 돈키호테는 산초의 손을 잡아주었고, 산초가 그 손에 입을 맞추게 한 뒤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축복을 내렸다.

"이제야 깨닫겠느냐, 산초야?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이 성 안의 모든 일은 마법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초가 말했다. "다만 그 담요 일만큼은 마법이 아니라 정말로 평범하게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만약 정말로 네 말이 맞다면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너를 위해 복수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네가 입은 피해를 되갚아 줄 상대를 찾을 수가 없었구나."

모두가 그 담요 사건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여관 주인은 그 일을 하나하나 상세히 들려주었다. 산초 판사가 겪은 그 우스꽝스러운 소동에 모두가 한바탕 크게 웃었다. 또한 주인이 그것이 마법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지 않았다면, 산초 역시 그만큼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도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산초는 제 주인이 믿고 주장하는 것처럼 담요가 환상이나 상상 속의 유령에 의해 날아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 던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녀석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화려한 일행이 여관에 머문 지도 벌써 이틀이 지났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웠다. 도로테아와 돈 페르난도가 미코미코나 여왕의 자유를 되찾아준다는 기발한 이야기를 꾸며내어 돈키호테를 마을로 데려가려 애쓰는 대신, 신부와 이발사가 원하는 대로 돈키호테를 데려가 고향에서 그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를 모는 마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돈키호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우선 돈키호테가 안에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무 창살로 만든 새장 같은 틀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돈 페르난도와 그의 일행, 돈 루이스의 하인들, 경찰들, 그리고 여관 주인까지 모두 신부의 지시에 따라 얼굴을 가리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변장했다. 이는 돈키호테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그 성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준비를 마친 일행은 아주 조용히, 그간의 소동을 뒤로하고 잠을 자며 쉬고 있는 돈키호테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잠든 그에게 다가간 일행은, 돈키호테의 손과 발을 아주 단단히 묶어 버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돈키호테는 몸을 까딱할 수도 없었다. 그는 눈앞에 나타난 낯선 얼굴들을 보고 그저 어안이 벙벙해할 뿐이었다. 그러다 이내 자신의 끊임없이 헛도는 망상 속에서 그려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눈앞의 인물들이 모두 그 마법에 걸린 성의 유령들이며, 몸을 움직일 수도 방어할 수도 없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자신이 마법에 걸린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이 계획을 꾸민 신부가 예상했던 대로 딱 맞아떨어졌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오직 산초만이 제정신을 유지하며 본래의 모습 그대로였다. 산초는 주인의 광기에 전염되기 직전의 상태이긴 했으나, 변장한 인물들이 누구인지만큼은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는 주인이 당하는 이 습격과 구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기 위해, 입을

꾹 다문 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주인인 돈키호테 역시 자신의 불행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피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일행은 가져온 새장 안에 돈키호테를 가두었고, 두 번 잡아당겨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나무 창살을 아주 단단히 고정했다.

그들은 곧 돈키호테를 어깨에 메고 방을 나섰다. 그때 이발사가 미리 준비해둔 대로, 짐꾼이 아닌 다른 이의 입에서 겁에 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 슬픈 형상의 기사여! 지금 겪는 이 구금이 너무 괴롭다고 생각지 마시오. 그대의 위대한 노력이 이끈 이 모험을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이 또한 필요한 과정이니 말이오. 높은 자존심이 부드러운 결혼의 멍에에 굴복하고 난 뒤, 분노에 찬 사자와 엘 토보소의 하얀 비둘기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이 모험은 끝이 날 것이오. 그 기이한 결합에서 태어날 용맹한 새끼들은 아비의 사나운 발톱을 꼭 닮을 것이오. 그리고 도망친 요정을 쫓는 자가 빛나는 천체들의 운행을 두 번이나 지켜보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오!

그리고 오, 허리춤에 칼을 차고 얼굴에는 수염을, 코에는 후각을 갖춘,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순종적인 종자여! 그대의 눈앞에서 기사도의 꽃이라 불리는 주인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오. 만약 세상의 창조주께서 원하신다면, 그대는 머지않아 스스로도 못 알아볼 만큼 높고 고귀한 신분이 될 것이며, 주인께서 그대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 또한 현명한 거짓말쟁이의 이름으로 보증하건대, 그대는 이 일이 끝날 때쯤 약속된 보수를 받

게 될 것이니, 그 결과가 증명해 줄 것이오. 그러니 용맹하고 마법에 걸린 기사의 뒤를 묵묵히 따르시오.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하니 말이오. 더는 말을 보탤 수 없으니, 이만 작별을 고하겠소. 나는 내가 아는 곳으로 돌아가겠소."

예언을 마친 그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가, 이어서 아주 다정한 어조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 기세가 어찌나 그럴듯한지, 농담임을 잘 아는 사람들조차 그가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 줄 믿을 뻔했을 정도였다.

돈키호테는 방금 들은 예언에 위로를 받았다. 예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곧바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예언이, 사랑하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와 성스럽고 정당한 혼인을 맺게 될 것이며, 그녀의 복된 태에서 태어날 아이들이 곧 자신의 자식으로서 라만차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라는 약속임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아주 확고하게 믿은 돈키호테는 목소리를 높여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 나에게 이토록 좋은 예언을 해준 이가 누구든 간에, 부디 내게 부탁하노니, 나의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는 현명한 마법사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지금 끌려가는 이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고 말이오. 방금 들은 이토록 즐겁고 비할 데 없는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는 말입니다. 만약 이 예언대로 된다면, 나는 감옥에서 겪는 고통을 영광으로 여길 것이며, 나를 묶은 이 사슬 또한 위안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눕는 이 침상은 거친 전쟁터가 아니라, 부드러운 침대이자 행복한 잠자리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종자인 산초 판사의 위로에 관해서라면, 나는 그의 선량함과 올바른 행실을 믿기에 그가 나를 운이 좋든 나쁘든 결코 저버리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설령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그의 탓이든 나의 불운 때문이든 간에, 내가 그에게 약속한 섬이나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을 줄 수 없게 되더라도, 적어도 그의 품삯만큼은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작성해 둔 나의 유언장에 그에게 줄 것을 명시해 두었으니, 이는 그가 보여준 수많은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형편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초 판사는 아주 정중하게 몸을 굽혀 돈키호테의 양손에 입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두 손이 모두 묶여 있는 탓에 한 손만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 환영 같은 이들이 새장을 어깨에 메고는,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올려놓았다.

제47장



제47장. 돈키호테가 어떤 기이한 방식으로 마법에 걸렸는지, 그리고 그 밖의 유명한 사건들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자신이 새장 속에 갇힌 채 수레 위에 올라타 있는 꼴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수많은 편력기사의 이야기를 읽어왔고, 그중 아주 중대한 이야기도 많이 읽었네. 하지만 마법에 걸린 기사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 게으르고 느릿느릿한 짐승들이 약속한 속도로 끌려간다는 이야기는 읽어본 적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네! 보통 마법에 걸린 기사라면 언제나 기이할 정도로 가볍게 공중을 날아다니거나, 거무스름하고 어두운 구름 속에 갇혀 있거나, 불타는 수레를 타고 있거나, 아니면 히포그리프나 그와 비슷한 짐승을 타고 가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지금 나를 황소 수레에 태워 끌고 가다니, 맙소사, 정말이지 당황스럽기 짝이 없군! 하지만 아마도 우리 시대의 기사도와 마법은 옛날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하는 모양이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새로 등장한 기사이자, 이미 잊힌 편력기사의 전통을 부활시킨 첫 번째 인물이라서, 마법의 종류나 마법에 걸린 자를 실어 나르는 방식 또한 새롭게 발명된 것일지도 모르지. 산초, 자네 생각은 어떤가?"

"글쎄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나으리만큼 기사도 이야기를 많이 읽지는 못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들은 결코 가톨릭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감히 단언하며 맹세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라고? 세상에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이런 꼴로 만들려고 기괴한 형상을 하고 나타난 악마들인데, 어찌 가톨릭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겠나? 만약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저들을 만져보고 더듬어 보게나. 그러면 저들이 실체가 없는 공기뿐이며,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르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네."

"맙소사, 나으리."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이미 저들을 만져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 악마는 살집이 아주 통통합니다. 게다가 제가 듣기로 악마들이 그렇다는 것과는 아주 다른 특징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악마는 온통 유황 냄새나 다른 고약한 악취를 풍긴다고들 하지만, 이놈은 반 리 밖에서도 느껴질 만큼 향긋한 용연향 냄새가 납니다."

산초가 이렇게 말한 것은 돈 페르난도 때문이었다. 돈 페르난도는 워낙 신분이 높고 귀한 분이니, 산초의 말대로 향기로운 냄새가 날 법도 했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게, 나의 친구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악마들은 아는 것이 아주 많다네. 악마들이 몸에 어떤 향기를 지니고 다닌다 해도, 그들은 영적인 존재라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법일세. 만약 냄새가 난다 해도 좋은 냄새가 아니라 고약하고 불쾌한 냄새뿐이지. 그 이유는 악마들이 어디에 있든 지옥을 함께 끌고 다니기 때문이라네. 그들은 고통 속에서 그 어떤 위안도 얻을 수 없으니,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니 자네가 말한 그 악마에게서 용연향 냄새가 난다는 것은, 자네가 착각했거나 아니면 그 놈이 자네를 속여서 악마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속셈일 뿐이라네."

주인과 종 사이의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는 산초가 자신들의 계략을 완전히 눈치챌까 봐 걱정되었다. 산초가 이미 진실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둘러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여관 주인을 따로 불러 로시난테에게 안장을 얹고 산초의 나귀에 창을 얹어 두라고 일렀다. 여관 주인은 아주 재빨리 그 일을 수행했다.

그때 신부는 마을 순찰대원들에게 매일 일정 금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신부는 카르데니오를 로시난테의 안장 끈에 매달고, 한쪽에는 방패를, 다른 한쪽에는 대야를 걸었다. 그러고는 산초에게 수신호로 나귀에 올라타 로시난테의 고삐를 잡으라고 일렀다. 또한 총을 든 순찰대원 두 명을 수레 양옆에 배치했다. 하지만 수레가 움직이기도 전에 여관 주인과 그녀의 딸, 그리고 마리토르네스가 나타났다. 그들은 돈키호테의 불행이 마치 자기 일인 양 슬프게 우는 척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말했다.

"착한 부인들, 울지 마십시오. 이런 불행은 저처럼 기사도를 맹세한 자에게는 늘 따라붙는 법입니다. 만약 제게 이런 재난이 닥치지 않는다면, 저는 스스로를 이름난 기사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명성도 없는 하찮은 기사들에게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을 기억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맹한 기사들에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들의 미덕과 용기를 시기하는 수많은 군주와 기사들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선한 이들을 파멸시키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덕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비록 이 길을 처음 개척한 조로아스테스가 온갖 흑마법을 부렸을지라도, 미덕은 그 모

든 역경을 뚫고 스스로 승리할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태양이 빛을 발하듯, 세상에 스스로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여, 혹여 제가 부주의하여 본의 아니게 결례를 범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결코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디 하느님께 기도하여, 사악한 마음을 품은 마법사가 저를 가두어 버린 이 감옥에서 저를 구해 주시기를 간청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 성에서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에 걸맞게 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성 안의 여인들이 돈키호테에게 이 말을 건네는 동안, 신부와 이발사는 돈 페르난도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대장과 그의 형제, 그리고 즐거움에 잠긴 모든 귀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도로테아와 루신다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모두가 서로를 껴안으며 각자 겪은 일들을 나중에 꼭 전해주기로 약속했다. 돈 페르난도는 신부에게 돈키호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소식을 전해줄 주소를 알려주며,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또한 자신도 신부에게 기쁨이 될 만한 소식들을 빠짐없이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즉, 자신의 결혼 소식이나 조라이다의 세례식, 돈 루이스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루신다가 집으로 돌아온 소식 같은 것들 말이다. 신부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신속하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고, 몇 번이고 더 작별의 인사를 주고받았다.

여관 주인은 신부에게 다가와 종이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호기심 많은 참견쟁이의 소설'이 들어있던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이 종이들을 발견했다고 했다. 가방 주인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차라리 신부가 이 종이들을 다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자신은 글을 읽을 줄 모르니 필요 없다는 이유였다. 신부는 고맙다고 인사를 건넨 뒤 곧바로 종이들을 펼쳐 보았다. 글의 첫머리에 '린코네테와 코르타디요의 소설'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신부는 이것이 어떤 소설임을 알아차렸다. 신부는 '호기심 많은 참견쟁이의 소설'이 훌륭했으니, 이 소설 또한 같은 작가가 쓴 것이라면 분명 재미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리하여 신부는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읽어보리라 마음먹고 그 종이들을 잘 챙겨 두었다.

신부도 말에 올라탔고, 그의 친구인 이발사도 돈키호테에게 금방 들키지 않으려고 복면을 쓴 채 말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수레를 뒤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들이 행렬을 구성한 방식은 이러했다. 먼저 수레가 앞장서고, 그 주인이 직접 수레를 몰았다. 그 양옆으로는 앞서 말한 대로 총을 든 경비병들이 늘어섰다. 그 뒤를 이어 산초 판사가 나귀를 타고 따라가며 로시난테의 고삐를 잡았다. 이 모든 행렬의 맨 뒤에는 신부와 이발사가 튼튼한 노새를 타고 뒤따랐다. 그들 역시 앞서 말한 대로 얼굴을 가린 채, 소들이 느릿느릿 걷는 속도에 맞춰 품위 있고 차분한 태도로 걸음을 옮겼다. 돈키호테는 수레의 우리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두 손이 묶인 채 다리를 쭉 뻗고 창살에 몸을 기댄 모습이었는데, 마치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돌로 만든 조각상이라도 된 듯 아주 고요하고 인내심 있게 앉아 있었다.

그렇게 느릿느릿 고요한 걸음으로 두 리쯤 걸어가니 어느 골짜기에 다다랐다. 소를 모는 이는 그곳이 쉬어가며 소들에게 풀을 먹이기에 적당한 곳이라 생각했다. 그는 이 의견을 신부에게 전했다. 그러자 이발사는 조금 더 가자고 제안했다. 근처에 보이는 언덕 너머에 풀이 훨씬 더 무성하고 상태도 훨씬 좋은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발사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일행은 다시 길을 재촉했다.

그때 신부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뒤편에서 말 탄 사내 대여섯 명, 혹은 일곱 명 정도가 잘 차려입고 위풍당당하게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소들처럼 느긋하고 차분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직자들의 노새를 타고 여관에 얼른 도착해 낮잠이라도 한숨 자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속도를 내어 오고 있었기에 금방 일행을 따라잡았다. 그 여관은 여기서 채 1리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보였다. 서두르던 이들이 느릿느릿 가던 이들을 따라잡자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 일행 중 한 명은 사실 톨레도의 참사회원으로, 나머지 일행을 거느린 우두머리였는데, 수레와 경비병들, 산초와 로시난테, 신부와 이발사가 줄지어 가는 행렬을 보았다. 그러다 우리에 갇혀 포로가 된 돈키호테의 모습을 보고는, 저 남자를 왜 저런 식으로 끌고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경비병들의 표식을 보고, 저 자가 산타 에르만다드(성 형제단)가 처벌해야 할 악명 높은 노상강도나 그 밖의 범죄자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짐작은 했지만 말이다. 질문을 받은 경비병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리, 이 기사가 왜 이런 꼴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돈키호테가 그 대화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기사 나리들, 혹시 기사도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정통한 식견을 갖추고 계신지요? 만약 그러하시다면 제 불행한 처지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굳이 힘을 빼며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 무렵 신부와 이발사가 도착했다. 그들은 길을 가던 사람들이 돈키호테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계략이 탄로 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서둘러 나섰다.

돈키호테의 말에 참사회원이 대답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형제여. 저는 비얄판도의 요약서보다 기사도 소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 되는 게 그것뿐이라면, 형제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 놓고 저와 나누셔도 좋습니다.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기사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사악한 마법사들의 질투와 농간 탓에 마법에 걸려 이 우리에 갇힌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미덕이란 선한 이들에게 사랑받기보다 악한 이들에게 박해받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떠돌이 기사입니다. 다만, 명성의 여신이 그 이름을 기억해 영원히 남기는 것을 잊어버린 그런 잊힌 기사가 아니라, 질투 그 자체는 물론이고 페르시아가 길러낸 마법사들, 인도의 브라만들, 에티오피아의 나체 현인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가로막아도 끝내 그 이름을 불멸의 신전에 새겨 넣을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하여 다가올 세월의 기사들이 무예의 영광스럽고 드높은 정점에 이르고자 한다면, 제가 걸어간 발자취를 본보기이자 귀감으로 삼아 따라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 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때 신부가 말했다. "그분은 지금 이 수레에 갇혀 마법에 걸린 상태입니다. 본인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선한 덕성을 시기하고 용맹함을 질투하는 자들의 악한 의도 때문이지요. 기사님, 혹시 예전에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바로 '슬픈 형상의 기사'입니다. 질투가 그분의 업적을 흐리려 하고 악의가 이를 숨기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용맹한 행보와 위대한 업적은 단단한 청동판과 영원한 대리석 위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 수감자와 자유로운 몸인 자가 나누는 대화를 들은 참사회원은, 그 기이한 말투에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성호를 그을 뻔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와 함께 온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때 대화를 들으려 가까이 다가와 있던 산초 판사가, 모든 일을 한층 그럴듯하게 거들어 보려고 입을 열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좋게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나쁘게 생각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 주인 돈키호테 님도 제 어머니처럼 마법에 걸린 상태라는 겁니다. 주인님은 정신이 아주 멀쩡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음식도 드시고 술도 드시

며, 생리 현상도 똑같이 해결하십니다. 어제 수레에 갇히기 전에도 다 그렇게 하셨고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제가 마법에 걸렸다는 말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듣기로 마법에 걸린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말도 못 한다던데, 우리 주인님은 말문이 트이기만 하면 변호사 서른 명보다 더 떠들어대시는걸요."

그러고는 다시 신부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아이고, 신부님, 신부님! 제가 신부님을 못 알아볼 줄 아셨습니까? 이 새로운 마법들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가 눈치채고 알아채지 못할 거라 생각하셨나요? 아무리 얼굴을 가리셔도 저는 신부님을 알아봅니다. 아무리 속임수를 감추셔도 저는 그 속을 다 압니다. 결국 시기심이 다스리는 곳에는 미덕이 살 수 없고, 인색함이 있는 곳에는 너그러움이 깃들 수 없는 법이지요. 에이, 빌어먹을! 신부님만 아니셨다면, 우리 주인님은 벌써 미코미코나 공주님과 혼인하셨을 테고, 저는 적어도 백작쯤은 되었을 겁니다. 우리 '슬픈 형상의 기사' 주인님의 너그러운 성품과 저의 충성스러운 공로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맞나 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물레방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서, 어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바닥에 나뒹군다더니 말입니다. 제 자식들과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가 어느 섬이나 왕국의 총독이나 부왕이 되어 당당히 대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길 기대했을 텐데, 정작 마구간 하인이 되어 들어오는 꼴을 보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신부님, 제가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라, 신부님께서 우리 주인님이 받고 있는 이 부당한 대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도록 간곡히 청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부디 잘 살피십시오. 저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님의 이 감금을 두고 신부님께 책임을 물으시고, 주인님이 갇혀 계신 동안 베풀지 못하게 된 그 수많은 도움과 선행을 신부님께 추궁하시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원,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군!" 이 대목에서 이발사가 외쳤다. "산초, 너까지 네 주인과 한패냐? 주님 맙소사, 보아하니 너도 그 양반의 변덕과 기사도 놀음에 물들어, 주인이 갇힌 저 우리에 같이 갇혀 주인만큼이나 마법에 걸린 신세가 되게 생겼구나! 네가 그 약속들을 덜컥 잉태한 것도 운수 사나운 일이고, 그토록 바라는 섬이 네 머릿속에 들어앉은 것도 참 재수 없는 일이다."

"전 누구의 아이를 밴 것도 아니고," 산초가 대답했다. "설령 임금님이라 해도 누가 저를 임신시키게 둘 사람도 아닙니다. 비록 가난할지언정 저는 대대로 내려온 정통 기독교 집안 사람이라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습니다. 제가 섬을 바란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더 못한 것들을 바라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가 한 일로 평가받는 법이지요. 게다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저도 교황까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섬의 총독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더구나 우리 주인님은 섬을 하도 많이 정복하실 수 있어서, 오히려 그걸 나눠 줄 사람이 모자랄 지경인걸요. 이발사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수염 깎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같은 사람이라도 다 같은 게 아니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저한테 속임수를 쓰셔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마법에 걸렸다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

시니,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일이 더 나빠지기만 할 테니까요."

이발사는 산초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산초의 그 단순한 말들이 자신과 신부가 그토록 감추려 애쓰던 사실을 들춰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걱정 때문에 신부는 미리 참사장에게 조금 앞서 걸어가 달라고 청해 두었다. 신부가 따라가며 돈키호테가 왜 저 우리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신비로운 사연과 함께 참사장이 흥미로워할 만한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겠노라 한 것이다. 참사장은 그 말대로 종자들을 데리고 신부와 함께 앞서 나갔다. 그리고 신부가 돈키호테의 신분과 삶, 광기, 평소 행실에 관해 들려주려는 이야기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였다. 신부는 돈키호테가 왜 미치게 되었는지 그 시작과 원인을 짧게 설명했고, 그가 저 우리에 갇히기까지 겪은 일들과, 그의 광기를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그를 고향으로 데려가려는 계획까지 모두 들려주었다. 참사장과 종자들은 돈키호테의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참사장이 입을 열었다.

"신부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사도 소설이라는 것들이 사회에 해롭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저 역시 한가롭고 허황된 취미에 빠져 출판된 책들 중 거의 대부분의 앞부분을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 내려간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았거든요. 이 책이나 저 책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류의 글과 구성은 소위 '밀레시아(milesias)'라고 불리는 우화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저 즐거움을 주기 위해 지어낸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일 뿐, 교훈을 주지는 못하니까요. 즐거움과 교훈을 동시에 주는 우화들과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이런 책들의 주된 목적이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어찌 그토록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놓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느끼는 즐거움이란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나 상상력이 그려내는 형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에서 오는 법입니다. 추하고 뒤틀린 것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열여섯 살 먹은 소년이 탑처럼 거대한 거인에게 칼을 휘둘러, 마치 설탕 공예품이라도 되는 양 단숨에 두 동강을 내버리는 책에서 대체 어떤 아름다움이나 조화로운 비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전투 장면을 묘사할 때, 적군이 백만 명이나 된다고 해놓고는 정작 주인공 기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설명도 없이, 그저 힘센 팔 하나로 이겼다고 결론지어 버리니 독자로서는 마지못해 그렇게 믿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여왕이나 황후가 이름도 모르는 떠돌이 기사의 품에 그토록 쉽게 안겨 버리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거대한 탑이 마치 순풍을 탄 배처럼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가는데, 오늘 밤에는 롬바르디아에 있다가 내일 아침이면 인도의 프레스터 존의 땅이나, 프톨레마이오스도 마르코 폴로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읽고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야만적이고 무식한 사람일 뿐입니다.

혹자는 이런 책을 쓰는 이들이 거짓을 말하려는 것이니 세세한 사실이나 진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처럼 보일수록 더 훌륭한 법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고 가능해 보일수록 더 큰 즐거움을 주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거짓 우화는 읽는 이의 이성에 부합하도록 쓰여야 합니다. 즉,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거대한 일을 수월하게 묘사하여, 독자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감탄과 즐거움이 한데 어우러져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글쓰기의 완성이자 핵심인 '개연성'과 '모방'을 저버린 글은 결코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저는 기사도 소설 중에서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이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하나의 온전한 이야기를 이루는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앞뒤 맥락도 없이 조각조각 이어 붙여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조화로운 형상을 만들기보다는 마치 괴물을 만들어내려는 듯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문체는 딱딱하고, 무용담은 믿기 힘들며, 사랑 이야기는 저속하고, 예법은 품위가 없습니다. 전투 장면은 지루하게 길고, 논리는 어리석으며, 여행 이야기는 터무니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책은 세련된 기교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존재로서 기독교 사회에서 퇴출당해도 마땅합니다."

신부는 참사장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경청했다. 신부가 보기에 참사장은 식견이 높고, 방금 한 말도 일리가 있는 사람 같았다. 그래서 신부는 자신도 참사장과 같은 생각이며 기사도 소설을 몹시 싫어한다고 말하며, 돈키호테가 가진 수많은 기사도 소설을 죄다 불태워 버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어 신부는 자신이 그 책들을 어떻게 검열했는지, 어떤 책은 불길 속으로 던져 넣고 어떤 책은 살려두었는지 그 과정을 들려주었다. 참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꽤 크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 비록 그런 책들에 대해 나쁜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뛰어난 식견을 가진 이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점이지요. 그 책들은 작가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펜을 휘두를 수 있도록 아주 넓고 광활한 무대를 제공하니까요. 난파와 폭풍, 접전과 전투를 마음껏 그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용맹한 지휘관을 묘사할 때도 그에게 필요한 모든 자질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적의 책략을 미리 알아차리는 신중함, 병사들을 설득하거나 만류하는 유창한 웅변술, 사려 깊은 조언과 결단력 있는 행동, 그리고 기다릴 때나 공격할 때나 변함없는 용기까지 말입니다.

때로는 비극적이고 애처로운 사건을, 때로는 뜻밖의 즐거운 사건을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없이 아름답고 정숙하며 사려 깊고 조신한 여인을, 저기서는 용맹하고 절제할 줄 아는 기독교 기사를 등장시킬 수 있지요. 또 다른 곳에서는 무모하고 허풍 떠는 야만인을, 여기서는 예의 바르고 용맹하며 사려 깊은 왕자를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신하의 충성심과 선량함, 주군의 위엄과 은혜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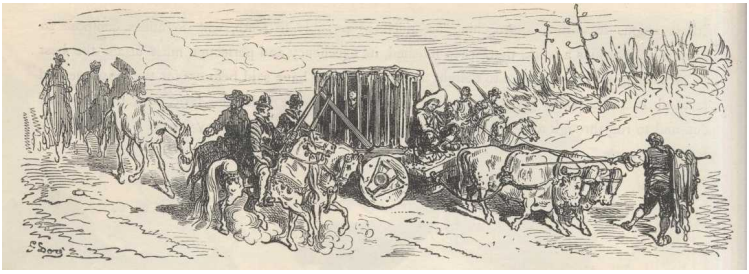
작가는 점성술사나 뛰어난 지리학자가 될 수도 있고, 음악가나 정무에 밝은 지략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흑마법사가 되어 볼 수

도 있겠지요. 오디세우스의 기지, 아이네아스의 경건함, 아킬레우스의 용맹함, 헥토르의 불행, 시논의 배신, 에우리알리오의 우정, 알렉산드로스의 관대함, 카이사르의 용기, 트라야누스의 자비와 진실, 조피로의 충성심, 카토의 신중함을 모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인물에게 이 모든 덕목을 몰아넣거나 혹은 여러 인물에게 나누어 담음으로써, 이름 높은 영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을 품격 있는 문체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내어, 가능한 한 진실에 가깝게 묘사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다채롭고 아름다운 매듭으로 짜인 한 폭의 비단 같은 작품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은 그 완벽함과 아름다움이 너무나 뛰어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을 주면서 동시에 즐거움을 준다'는 글쓰기의 가장 고귀한 목적을 완벽히 달성할 수 있겠지요.

이런 책들이 가진 자유로운 서사 구조 덕분에, 작가는 서사시나 서정시, 비극이나 희극 등 시학과 수사학이라는 달콤하고 즐거운 학문이 품고 있는 모든 요소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서사시 또한 운문뿐만 아니라 산문으로도 충분히 써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제48장



제48장. 참사장이 기사도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며, 그 재치 넘치는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대목

"참사장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신부가 말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런 책들을 써 내려간 이들이 더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문장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리스와 라틴 시의 두 거장이 운문에서 그러했듯 산문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예나 규칙도 전혀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참사장이 대답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원칙을 지키며 기사도 소설을 한 권 써보고 싶다는 유혹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이미 백 장 넘게 써 두기도 했지요. 제가 쓴 글이 제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이런 류의 읽을거리에 열광하면서도 식견이 높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었고,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걸 즐기는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양쪽 모두에서 꽤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필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제 본업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분별 있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현자에게 찬사를 받는 것이 다수의 바보에게 조롱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법인데, 이런 책을 주로 읽는 철없는 대중의 혼란스러운 판단에 저를 맞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로 하여금 집필을 포기하게 만들고, 아예 생각조차 못 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요즘 상연되는 연극들을 보며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상연되는 연극들이 상상력을 동원한 극이든 역사극이든, 그 전부 혹은 대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도 대중은 그 내용이 전혀 훌륭하지 않음에도 즐겁게 듣고, 좋다고 치켜세우며 박수를 보낸다. 극을 쓰는 작가들과 연기하는 배우들은 대중이 원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그런 식의 연극을 고집한다. 반면 예술적 원칙에 따라 짜임새 있게 이야기를 구성한 극은 그 이치를 이해하는 소수의 식견 있는 사람들에게나 통할 뿐, 나머지 사람들은 그 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 결국 배우들에

게는 소수의 인정보다는 다수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먹고사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까다로운 원칙들을 다 지키느라 눈썹이 다 탈 정도로 고생하며 책을 써봤자, 결국은 삯도 못 받고 실까지 제 돈으로 대다 손해만 보는 모퉁이 재봉사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결론이었지요.

가끔은 배우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설득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의 연극보다는 예술적 원칙을 지킨 연극을 해야 더 많은 관객을 모으고 명성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어떤 논리나 증거를 들이밀어도 도무지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그 고집불통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해 보시오. 불과 몇 년 전 이 나라의 유명한 시인이 쓴 비극 세 편이 스페인에서 상연되었던 걸 기억하지 못하오? 그 연극들은 평범한 사람부터 식견 있는 사람까지, 대중부터 귀족까지 모두를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하며 넋을 잃게 만들었소. 그 세 편의 연극이 벌어들인 수익이 이후에 만들어진 훌륭한 연극 서른 편을 합친 것보다 많았단 말이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사장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분명 <이사벨라>, <필리스>, <알레한드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제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작품들을 말하는 것이오! 그 작품들이 예술의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또 그 원칙을 지켰다고 해서 본연의 훌륭함을 잃거나 만인을 즐겁게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잘 보시오. 그러니 문제는 헛소리를 찾는 대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여줄 줄 모르는 이들에게 있는 것이오. <복수하는 배은망덕>도 헛소리가 아니었고, <누만시아>에도 그런 것이

없었으며, <사랑에 빠진 상인>에서도, 또 <우호적인 적>에서도 그런 헛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소. 식견 있는 시인들이 자신의 명성과 그것을 상연한 이들의 수익을 위해 쓴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였소.'

저는 이 외에도 여러 이야기를 덧붙여 그를 꽤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채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사장님,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때 신부가 말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요즘 상연되는 연극들에 대해 제가 품고 있던 오래된 원한이 다시금 치밀어 오르는군요. 그 분노가 기사도 소설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툴리오가 말했듯, 연극이란 인간 삶의 거울이자 풍습의 본보기이며 진실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연되는 극들은 헛소리의 거울이며, 어리석음의 본보기이자, 음란함의 형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소재를 놓고 볼 때,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막의 첫 장면에서는 강보에 싸인 갓난아이가 나오더니, 2막에서는 어느새 수염이 덥수룩한 성인 남자로 변해 나오는 식이지요. 또 어떤 극은 용맹한 노인과 겁쟁이 청년을 등장시키고, 거창한 변설을 늘어놓는 하인, 조언자 행세를 하는 시종, 막일꾼 같은 왕, 부엌데기 같은 공주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또 어떻습니까? 극 중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지키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1막은 유럽에서 시작했는데, 2막

은 아시아로 넘어가고, 3막은 아프리카에서 끝나더니, 4막까지 가면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연극도 보았습니다.

연극의 핵심이 '모방'이라면, 어떻게 중간 정도의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페피노 왕이나 샤를마뉴 시대의 사건을 다룬다면서, 정작 주인공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들고 입성하여 성지를 탈환한 고드프루아 드 부용 같은 헤라클리우스 황제라고 우겨대니 말입니다. 두 시대 사이에는 수만 년의 간극이 있는데도 말이지요. 허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뜬금없이 역사적 사실을 끌어다 붙이고, 서로 다른 인물과 시대의 조각들을 뒤섞어 놓습니다. 그것도 개연성 있는 구성이 아니라,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이들은 이런 것이 완벽한 연극이라 말하고, 제대로 된 연극을 하려는 시도는 쓸데없는 짓이라 치부하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종교적인 연극은 또 어떻습니까? 가짜 기적을 얼마든지 지어내고, 출처도 불분명하거나 잘못 이해된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심지어 한 성인의 기적을 다른 성인의 것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을 다룬 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런 기적이 나오면 보기 좋겠지'라는 얄팍한 생각만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관객을 모으겠다는 속셈으로 기적을 흉내 냅니다. 이는 진실을 해치고 역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 예술가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연극의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런 황당무계한 연극을 보고 우리를 야만적이고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연하게 연극을 허용하는 국가의 주된 목적이 건전한 오락으로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나태함이 불러오는 우울함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목적은 좋은 연극이든 나쁜 연극이든 상관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니, 굳이 법을 만들거나 작가와 배우들에게 제대로 된 연극을 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런 목적은 나쁜 연극보다 좋은 연극을 통해 훨씬 더 훌륭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짜임새 있고 잘 구성된 연극을 본 관객은 해학을 통해 즐거워하고, 진실된 교훈을 얻으며, 사건을 보며 감탄하고, 이치를 깨달으며, 속임수를 간파하고, 사례를 통해 지혜를 얻으며, 악행에는 분노하고 미덕에는 매료될 것입니다. 좋은 연극은 아무리 투박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듣는 이의 마음속에 이 모든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두루 갖춘 연극은 그렇지 못한 연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상연되는 대부분의 연극은 이런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작가들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이 팔아치우는 상품이 되어버린 탓에, 배우들이 그런 수준 낮은 극을 사지 않으려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자신에게 돈을 지불할 배우들의 입맛에 맞추려 애쓰는 것이지요.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아주 뛰어난 천재가 쓴 수많은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작품들은 품격과 재치, 우아한 운율과 훌륭한 논리, 엄숙한 격언, 그리

고 풍부한 수사와 고결한 문체로 가득 차 있어 온 세상에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조차 배우들의 취향에 맞추려다 보니, 어떤 작품들은 요구되는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극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극이 끝난 뒤 배우들은 왕실의 권위를 해치거나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

만약 궁정에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물이 있어서, 모든 연극이 상연되기 전에 미리 검토할 수 있다면 이 모든 문제, 그리고 제가 다 말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궁정에서 상연되는 극뿐만 아니라 스페인 전역에서 상연되려는 모든 극을 말입니다. 그 인물의 승인과 인장이 없으면 어느 지역에서도 연극을 상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배우들은 극을 궁정으로 보내 검토를 받을 것이고, 안심하고 공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들 또한 식견 있는 이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욱 주의 깊고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들겠지요. 그러면 좋은 연극이 만들어질 것이고, 백성들은 즐거움을 얻고, 스페인 예술의 명성도 높아지며, 배우들은 흥행과 안전을 보장받고, 국가적으로는 처벌에 드는 수고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임무를 다른 사람이나 저에게 맡겨서, 새로 쓰이는 기사도 소설들까지 검토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분명 참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는 유려하고 값진 수사학이라는 보물로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새로 나오는 훌륭한 책들이 옛 책들을 빛바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뿐만 아니라 바쁜 사람들까지도 건전한 오락을 위해 그 책들을 읽게 되겠지요. 활시위를 계속 당기고 있을 수 없듯이, 인간의 본성과 나약함 또한 적절한 휴식 없이는 견뎌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참사장과 신부의 대화가 바로 이 대목에 이르렀을 무렵, 이발사가 앞으로 나서며 두 사람에게 다가와 신부에게 말을 건넸다.

"학사님, 바로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쉬고 있으면, 소들이 싱싱하고 풍성한 풀을 뜯기에 딱 좋은 곳이지요."라고 이발사가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신부가 대답했다.

신부는 참사장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말해주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계곡의 풍경에 마음을 빼앗긴 참사장 또한 그들과 함께 머물고 싶어 했다. 이미 신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참사장은 신부와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돈키호테의 모험담도 더 자세히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하인 몇 명을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보내 모두가 먹을 음식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곳에서 그날 오후 내내 쉬어갈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인 중 한 명이 대답하기를, 여관에 이미 도착해 있을 여분의 짐을 실은 나귀에 먹을 것이 충분히 들어 있으니, 여관에서는 보리만 좀 가져오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참사장이 말했다. "말들은 모두 저쪽으로 가져가고, 짐을 실은 나귀는 이쪽으로 돌려보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평소 신부와 이발사를 의심스럽게 여기던 산초는 그들이 줄곧 곁에 붙어 있지 않은 이 틈을 타면 주인에게 말을 걸 수 있겠다고 보고, 주인이 갇혀 있는 우리로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제 양심을 위해서라도 지금 주인님께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기 얼굴을 가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두 사람은 바로 우리 마을의 신부님과 이발사입니다. 제 생각에 저분들은 주인님께서 위대한 업적을 세워 유명해지는 꼴을 도저히 못 보겠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주인님을 끌고 가려는 수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주인님은 마법에 걸린 게 아니라 그저 속아서 바보가 되신 겁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예상한 대로 대답하신다면, 주인님께서는 이 속임수가 눈앞에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인님이 마법에 걸린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간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묻고 싶은 건 무엇이든 물어보게나,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자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대답해 주겠네. 그리고 저기 우리와 함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 사람인 신부님과 이발사님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분들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맞다고는 절대로 믿지 말게나. 자네가 말한 대로 그분들과 닮았다면, 나에게 마법을 건 자들이 그분들의 모습과 형상을 빌려 쓴 것이 분명하네. 마법사들이라면 원하는 모습은 무엇이든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말이야. 아마도 자네가 지금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설령 테세우스의 실타래를 쥐고 있다 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상

의 미로 속에 자네를 가두려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빌린 것이겠지. 또한 내가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도록 내 정신을 어지럽히려고 그렇게 했을 걸세. 자네는 우리 마을의 이발사와 신부님이 나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나는 지금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은가?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면 인간의 힘으로는 나를 이렇게 가둘 수 없다는 걸 나 스스로도 잘 아는데 말일세.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생각해야 하겠나? 내가 읽었던 그 어떤 기사도 문학 속의 마법 이야기보다도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훨씬 더 기이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 그러니 저분들이 자네 말대로 그분들이라고 믿고 마음 편히 있게나.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이라면, 내가 터키인이라는 말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말이야. 자, 무엇이든 물어보게. 내일 아침까지 물어본다 해도 다 대답해 줄 테니."

"맙소사, 성모 마리아여!" 산초 판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대답했다. "주인님은 어쩜 그리도 머리가 굳고 생각이 모자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순전한 진실이라는 것도, 지금 겪고 계신 이 감옥살이와 불행에는 마법보다 누군가의 악의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정 그러시다면, 주인님께서 마법에 걸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하느님께서 주인님을 이 폭풍 같은 고난에서 건져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둘시네아 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라신다면 말입니다……."

"어서 그 간청을 마저 하거라,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묻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물어보게나. 이미 말했듯이 자네가 묻는 것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답해 줄 테니까."

"바로 그걸 부탁드립니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인님께서 기사도를 숭상하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그리고 주인님께서 방랑 기사라는 이름 아래 기사도를 실천하고 계시듯, 한 치의 보탬도 빼거나 버리는 것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거짓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제 그만 질문을 시작하게나. 산초, 자네가 자꾸만 예의를 차리고 조심스럽게 묻는 통에 정말이지 지칠 지경이라네."

"저는 제 주인님이 선량하고 정직한 분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산초 판사가 말했다. "그러니 우리 이야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예의를 갖추어 여쭙겠습니다. 주인님께서 저 새장 안에 갇히신 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마법에 걸린 상태로 계신 지금, 혹시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큰 볼일이든 작은 볼일이든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볼일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산초야. 내가 네 질문에 곧바로 대답해 주길 바란다면, 좀 더 분명하게 말해 보거라."

"주인님께서는 큰 볼일이든 작은 볼일이든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신단 말입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것부터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주인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일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산초 판사가 말했다.

"아, 그래, 이제 알겠다, 산초야! 아주 잘 알겠어. 예전에도 여러 번 그랬고, 지금도 마렵구나. 그러니 어서 이 곤경에서 나 좀 꺼내다오. 사정이 영 깨끗하지가 못하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제49장



제49장. 산초 판사가 주인 돈키호테와 나눈 영리한 대화에 대하여

"아, 잡았다!" 산초가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꼭 알고 싶었던 사실입니다. 이리 좀 와 보세요, 주인님. 누군가 영기운이 없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먹지

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물어보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 게 꼭 마법에라도 걸린 것 같아'라고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보통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며, 제가 말하는 그런 생리적인 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법에 걸렸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인님처럼 드리고 싶을 때 마시고, 먹고 싶을 때 드시며, 물어보는 말에도 다 대답을 잘하시는 분은 마법에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산초, 네 말이 맞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마법에 걸리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시간이 흐르면서 마법의 방식이 서로 바뀌었을 수도 있는 법이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더라도, 요즘은 마법에 걸린 사람들이 나처럼 행동하는 게 관례가 되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 시대의 흐름을 두고 따지거나 그것을 근거로 무언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마법에 걸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내 양심은 충분히 당당하다. 만약 내가 마법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 감옥 안에 게으르고 겁쟁이처럼 처박혀 있다면, 오히려 내 양심은 커다란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절실하고 극심한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불쌍한 이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구제와 보호를 외면하는 꼴이 될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산초가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주인님께서 확실히 확인하고 마음을 놓으시려면, 우선 이 감옥에서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 나가시도록 돕고, 나아가 감옥 밖으로 모셔 나가는 것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님의 훌륭한 로시난테 위에 다시 올라타 보십시오. 로시난테도 기분이 우울하고

슬퍼 보이는 걸 보니 꼭 마법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 운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만약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이 감옥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주인님께서 운이 없으시거나, 혹은 제 말이 틀려 제가 헛된 소리를 한 것이라면, 충직하고 의리 있는 종자의 명예를 걸고 저도 주인님과 함께 이 감옥에 갇히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산초, 네 말대로 하겠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내 자유를 되찾아줄 기회를 잡는다면,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다 따르마. 하지만 산초야, 내 불행이 어떤 것인지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편력기사와 그 가련한 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마침내 도착한 곳에는, 이미 말에서 내린 신부와 정식 성직자, 그리고 이발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소를 모는 농부가 수레에서 황소들을 풀어주자, 황소들은 푸르고 평온한 그곳을 마음껏 거닐기 시작했다. 그곳의 싱그러운 기운은 절로 즐기고 싶게 만드는 곳이었는데, 돈키호테처럼 마법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산초처럼 사리 분별이 밝은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즐거움이었다. 산초는 신부에게 주인님을 잠시라도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만약 주인님을 내보내 주지 않는다면, 주인님 같은 기사의 품위에 걸맞게 감옥을 깨끗이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이다. 신부는 그의 말을 알아듣고는, 주인님이 자유를 얻는 순간 또다시 소동을 피우며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쳐 버릴까 봐 걱정될 뿐이지, 산초가 부탁한 일은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대답했다.

"주인님께서 도망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나도 전적으로 동감하네." 정식 성직자가 말했다. "게다가 만약 주인님께서 기사로서, 우리 뜻이 다할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이라도 해주신다면 더욱 믿음직스럽겠지."

"물론 약속합니다."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처럼 마법에 걸린 사람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자유조차 없습니다. 나에게 마법을 건 자가 마음만 먹으면, 300년 동안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도망이라도 친다면, 순식간에 다시 끌어다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당장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풀어주는 편이 모두에게 훨씬 이득이지요. 만약 풀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한 내가 여러분의 코를 악취로 괴롭히게 될 게 뻔하니까요."라고 그는 덧붙였다.

성직자는 돈키호테의 손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의와 약속을 믿고 그 손을 잡으며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돈키호테는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자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크게 환호했다. 그는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온몸을 쭉 펴서 기지개를 켰다. 그러고는 곧장 로시난테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의 엉덩이를 두 번 탁탁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과, 말들의 꽃이자 거울이신 성모님께 매달리고 있다네. 머지않아 우리가 바라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야. 자네는 주인을 등에 태우고, 나는 자네 위에 올라타서 하느님이

나를 세상에 내보내신 그 소명을 다하며 기사 노릇을 하는 모습 말일세."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하고는 산초와 함께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갔다가, 한결 후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이제 종자인 산초가 시키는 대로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정식 성직자는 그를 바라보며, 그토록 대단한 광기가 어찌나 기이한지 놀라워했다. 돈키호테는 말을 하고 대답할 때만큼은 아주 명석한 판단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다만 예전부터 말해왔듯이, 기사도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고 날뛸 뿐이었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든 성직자는, 모두가 푸른 풀밭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자신이 가져오게 한 음식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돈키호테에게 이렇게 말했다.

"귀하신 분이여, 어찌 기사도 소설이라는 그 쓰디쓰고 쓸모없는 독서가 당신을 이토록 망가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책들이 당신의 이성을 어지럽혀서, 거짓말 그 자체가 진실에서 동떨어진 것만큼이나 진실과는 거리가 먼 온갖 것들을, 이를테면 당신이 마법에 걸렸다는 것까지 믿게 만들다니요. 세상에 어떻게 아마디스 같은 인물이 무수히 존재했다거나, 그 유명하다는 기사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다녔다고 믿는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트라피손다의 황제니, 히르카니아의 펠릭스마르테니, 수많은 승용마와 방랑하는 처녀들, 그리고 수많은 뱀과 괴물, 거인들, 전례 없는 모험과 온갖 종류의 마법, 전투와 무모한 충돌들, 화려한 의상과 사랑에 빠진 공주들, 백작 작위를 가진 종자들, 익살스러운 난쟁이들, 온갖 연애편지와 달콤한 구애의 말, 용맹한 여인들까

지, 기사도 소설에 담긴 그 수많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그 책들이 모두 거짓이고 경박한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읽을 때만큼은 나름대로 즐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저는 그중에서 가장 잘 쓴 놈을 골라 벽에 내던져 버립니다. 만약 그 책이 제 곁에 있거나 눈앞에 있었다면, 거짓되고 사람을 속이는 데다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들이니 마땅히 그런 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길 속에 던져버렸을 겁니다. 그 책들은 새로운 이단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어, 무지한 대중이 그 속에 담긴 수많은 헛소리를 진실로 믿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게다가 그 책들은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어서, 분별력 있는 고귀한 신사들의 정신마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결국 당신을 우리에 가두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사자나 호랑이를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소달구지에 실어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당신을 달구지에 태워 옮겨야 하는 상황을 만들다니 말입니다.

자, 돈키호테 님, 이제 스스로를 가엽게 여기고 제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늘이 당신에게 내려주신 그 뛰어난 재능을, 당신의 양심에 유익하고 명예를 높여줄 다른 책을 읽는 데 쓰십시오! 만약 타고난 성미 때문에 여전히 영웅담이나 기사도 이야기를 읽고 싶다면,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Judges)를 읽으십시오. 그곳에는 용맹하면서도 진실한, 위대한 진리와 사실들이 가득합니다. 루시타니아에는 비리아투스가 있었고, 로마에는 카이사르가, 카르타고에는 한니발이, 그리스에는 알렉산

드로스가 있었습니다. 카스티야에는 페르난 곤살레스 백작이, 발렌시아에는 엘 시드가, 안달루시아에는 곤살로 페르난데스가, 에스트레마두라에는 디에고 가르시아 데 파레데스가, 헤레스에는 가르시 페레스 데 바르가스가, 톨레도에는 가르실라소가, 세비야에는 돈 마누엘 데 레온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용맹한 행적을 읽는다면, 그 어떤 명석한 사람이라도 즐거움을 얻고 가르침을 받으며 감탄할 것입니다.

나의 돈키호테 님,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명석한 두뇌에 걸맞은 독서입니다. 이 책들을 읽어야만 당신은 역사에 정통해지고, 미덕을 사랑하며, 선함을 배우고, 품행이 고결해질 것입니다. 또한 무모하지 않으면서도 용감해지고, 겁쟁이가 아니면서도 대담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유익, 그리고 당신의 고향인 라만차의 명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돈키호테는 신부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경청했다. 한참 동안 신부를 빤히 바라보던 돈키호테는 신부의 말이 끝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하신 분이여,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세상에 방랑 기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기사도 소설은 거짓되고 거짓말투성이며,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쓸모없는 책들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또한 제가 그 책들을 읽은 것도 잘못이고, 그것들을 믿은 것은 더 큰 잘못이며, 심지어 그 책들이 가르치는 가혹한 기사도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여 그 삶을 모방하기 시작한 것은 더욱 큰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갈리아의 아마디스도 그리스의 아마디스도, 그 밖에 책마다

가득한 그 수많은 기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정하시니 말입니다."

"귀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틀림없이 전부 맞습니다." 그때 신부가 대답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런 책들이 저에게 아주 큰 해를 끼쳤다고 귀하신 분께서도 덧붙여 말씀하셨지요. 그 책들 때문에 제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우리에 갇히고 만 것이니, 차라리 잘못을 바로잡고 독서를 바꾸는 게 낫겠다고 말입니다. 더 진실하고, 더 즐거움을 주며, 교훈도 되는 다른 책들을 읽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이지요."

"그렇고말고요."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정신이 나가고 마법에 걸린 쪽은 바로 귀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이토록 널리 알려져 있고 진실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두고 그토록 신성모독적인 말을 내뱉으시다니요. 귀하신 분처럼 이것을 부정하는 자라면, 책을 읽다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귀하신 분이 책들에게 내리겠다고 말한 그 벌을 똑같이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아마디스 같은 기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수많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른 모험가 기사들이 실존하지 않았다고 누구에게든 주장하려 든다면, 그것은 태양이 빛나지 않는다거나 얼음이 차갑지 않다거나 땅이 만물을 지탱하지 않는다고 설득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샤를마뉴 시대에 일어났던 피에라브라스와 만티

블 다리 이야기나, 인판타 플로리페스와 기 드 보르고냐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재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맹세컨대, 그 이야기들은 지금이 낮인 것만큼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헥토르나 아킬레우스도 없었을 것이고, 트로이 전쟁도, 프랑스의 열두 기사도, 영국의 아서 왕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서 왕은 지금도 까마귀로 변한 채 떠돌고 있으며, 그의 왕국에서는 시시각각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과리노 메스키노의 이야기나 성배를 찾는 이야기도 거짓이라고 말할 것이며, 돈 트리스탄과 이세오 왕비의 사랑이나 기네비어와 랜슬롯의 사랑도 가짜라고 우길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술 따르는 시녀였던 퀸타뇨나 노시녀를 보았다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제 할머니께서도 경건한 베일을 쓴 여인을 볼 때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지요. '얘야, 저 여인은 퀸타뇨나 노시녀를 닮았구나.' 이 말을 들으니 할머니께서 그녀를 직접 알았거나, 적어도 초상화라도 보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피에르와 아름다운 마갈로나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용맹한 피에르가 공중을 날아다닐 때 탔던 나무 말의 방향을 돌리던 나무못이 오늘날까지도 왕실 무기고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못은 수레 끌채보다 조금 더 큽니다. 또한 그 못 옆에는 바비에카의 안장이 있고, 론세스바예스에는 커다란 들보만 한 롤랑의 뿔이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열두 기사가 존재했다는 것과 피에르, 시드, 그리고 그와 같은 다른 기사들이 실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험을 찾아 나선다고들 말하는 바로 그런 기사들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맹한 루시타니아인 후안 데 메를로가 편력기사였다는 사실도 거짓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는 보르고냐로 가서 유명한 샤르니의 영주, 즉 모센 피에르와 라스 시에서 결투를 벌였고, 그 후 바젤 시에서는 모센 엔리케 데 레메스탄과 싸워 두 모험 모두에서 승리하며 명예로운 명성을 떨쳤습니다. 또한 용맹한 스페인인 페드로 바르바와 구티에레 키하다도 보르고냐에서 모험과 결투를 벌여 산 폴 백작의 아들들을 물리쳤다고 말해 보십시오. (나는 바로 이 키하다 가문의 부계 직계 후손입니다.) 또한 돈 페르난도 데 게바라가 독일로 모험을 떠나 오스트리아 공작 가문의 기사인 미세르 호르헤와 싸웠다는 사실도 부정해 보십시오. 엘 파소의 수에로 데 키뇨네스가 벌인 마상 창 시합이 그저 장난이었다거나, 모센 루이스 데 팔세스가 카스티야의 기사인 돈 곤살로 데 구스만과 벌인 모험도 가짜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외에도 우리 나라와 외국 기사들이 일궈낸 수많은 업적은 너무나 확실하고 진실하여, 이를 부정하는 자라면 이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제대로 된 판단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돈키호테가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늘어놓는 것을 듣고, 또 그가 자신의 편력기사 활동과 관련된 온갖 일들에 대해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는 신부도 무척 놀랐다.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돈키호테님,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스페인 편력기사들에 관한 부분은 더러 사실인 데가 있음을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프랑스

의 열두 기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투르핀 대주교가 기록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실제로 했다는 건 믿기 어렵군요. 사실 그들은 프랑스 국왕들이 선발한 기사들이었으며, 용맹함과 자질, 용기 면에서 모두가 대등했기에 '열두 기사'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설령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릴 만한 이유가 충분했지요. 마치 오늘날 산티아고 기사단이나 칼라트라바 기사단처럼, 그 단에 속한 이들은 반드시 용맹하고 용기 있으며 고귀한 신분의 기사여야 한다고 전제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산 후안 기사나 알칸타라 기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시절에는 열두 기사단 기사라고 불렀던 것인데, 이는 이 군사 기사단에 선발된 이들이 동등한 열두 명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드나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가 실존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들이 전해지는 이야기만큼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님께서 말씀하신 피에르 백작의 쐐기에 관한 이야기도 말입니다. 국왕의 무기고에 있는 바비에카의 안장 옆에 그 쐐기가 있다는 말씀 말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군요. 제가 너무 무지하거나 눈이 어두워서, 그 안장을 직접 보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커다란 쐐기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더 확실한 증거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가죽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고들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참사회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성직을 두고 맹세컨대, 저는 그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설령 그 쐐

기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아마디스 이야기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기사들의 소란스러운 모험담을 다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돈키호테님처럼 고결하고 성품도 좋으시며 총명하기까지 한 분이, 어찌 그 터무니없는 기사도 소설에 적힌 온갖 기괴한 망상들을 다 사실이라 믿으신단 말입니까?"

제50장



제50장. 돈키호테와 참사회원이 나눈 사려 깊은 설전과 그 밖의 사건들

“그건 그렇다 칩시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국왕의 허가를 받고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어 출판된 책들, 그래서 귀한 몸이나 어린

애나, 가난한 이나 부유한 이나, 학식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평민이나 기사나, 한마디로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즐겁게 읽고 칭송하는 그런 책들이 어찌 거짓이겠습니까? 게다가 그 책들은 얼마나 진실처럼 보이는지, 그 기사가 혹은 기사들이 행한 업적을 아버지, 어머니, 조국, 친척, 나이, 장소, 그리고 날짜와 사건 하나하나까지 아주 상세하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그런 불경한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현명한 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제가 조언해 드리는 것이니 제 말을 믿으십시오.) 대신 그 책들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야기에서 얻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장면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 지금 우리 눈앞에 역청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대한 호수가 나타났다. 그 호수 위로는 수많은 뱀과 구렁이, 도마뱀, 그리고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온갖 종류의 맹수들이 헤엄치며 지나간다. 그런데 호수 한가운데서 아주 슬픈 목소리가 들려온다. "기사여, 네가 누구든 간에, 이 두려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여! 만약 저 검은 물 아래 숨겨진 보물을 얻고 싶다면, 네 강인한 가슴의 용기를 증명하고 저 검고 이글거리는 액체 한가운데로 몸을 던져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 검은 물 아래 잠겨 있는 일곱 요정의 일곱 성이 간직한 저 높은 경이로움을 볼 자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이다. 기사가 이 무시무시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앞뒤 재지 않고 자신이 처한 위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심지어 무거운 갑옷을 벗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자신의 여인께 기도를 올리며 끓

어오르는 호수 한가운데로 몸을 던진다. 그러고는 정신없이 헤엄치다 어디에 닿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엘리시온의 낙원조차 견줄 수 없을 만큼 꽃이 만발한 들판에 닿게 된다. 그곳은 하늘이 더 투명하고 태양은 더 새롭고 맑게 빛나는 듯 보인다. 눈앞에는 푸르고 울창한 나무들이 가득한 평온한 숲이 펼쳐져 있어 초록빛이 눈을 즐겁게 하고, 덤불 사이를 누비는 작고 형형색색인 수많은 새들이 배우지 않은 달콤한 노래를 불러 귀를 즐겁게 한다. 한쪽에는 액체 수정처럼 맑고 시원한 물이 고운 모래와 하얀 자갈 위로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 있고, 저쪽에는 화려한 벽옥과 매끄러운 대리석으로 만든 정교한 분수가 보인다. 또 다른 곳에는 조개껍데기와 뒤틀린 모양의 흰색, 노란색 달팽이 껍데기를 불규칙하게 늘어놓고, 그 사이에 반짝이는 유리 조각과 가공된 에메랄드를 섞어 만든 투박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수가 있어, 마치 자연을 모방한 예술이 자연을 이긴 듯한 모습이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에 웅장한 성이나 화려한 궁전이 나타나는데, 성벽은 순금이고 총안은 다이아몬드이며 문은 히아신스 보석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그 성은 다이아몬드, 홍옥, 루비, 진주, 금, 에메랄드로 만들어졌음에도 그 정교한 솜씨가 재료보다 더 경이로울 정도다.

이런 광경을 본 뒤에 무엇을 더 보겠습니까? 성문에서 수많은 처녀가 나오는 것을 보는 것 말입니다. 그들이 입은 화려하고 멋진 의상을 하나하나 설명하려 들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가장 귀해 보이는 처녀가 용기 있게 호수에 뛰어든 기사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화려한 성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기사의 옷을 모두 벗겨 따뜻한 물로 씻겨준 뒤, 향기로운 기름을 온몸에 발라주고, 향

긋한 냄새가 나는 아주 얇은 비단 셔츠를 입혀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처녀가 다가와 어깨에 망토를 걸쳐주는데, 그 망토 하나가 도시 하나 값은 족히 나간다고들 하지요. 그 후에 기사가 또 다른 방으로 안내되어, 너무나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호박과 향기로운 꽃에서 추출한 물로 손을 씻고, 상아 의자에 앉아, 모든 처녀가 경건한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음식을 대접받는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온갖 진미가 너무나 맛있게 요리되어 나와서, 기사가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식사하는 동안 어디선가 들려오는, 누가 부르는지 어디서 들리는지도 모를 아름다운 음악은 또 어떻고요?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치운 뒤, 기사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관습대로 이쑤시개로 이를 다듬고 있을 때, 앞서 본 처녀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처녀가 예고도 없이 방으로 들어와 기사의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어떤 곳인지, 자신이 그곳에서 어떻게 마법에 걸려 있는지 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기사를 매료시키고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기사도 소설이라면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읽는 이에게 즐거움과 경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말을 믿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들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가진 우울함이 씻겨 나가고, 혹시 마음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편력기사로서 용맹하고 신중하며, 관대하고 예의 바르며, 너그럽고 친절합니다. 또한 인내심이 강해 고난과 투옥, 마법의 저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친 사람처럼 우리에 갇히기

도 했지만, 제 팔의 용기와 하늘의 도움, 그리고 운이 저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어느 왕국의 왕이 되어 제 가슴 속에 품은 감사함과 관대함을 마음껏 베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선생, 제 진심입니다. 저는 비록 관대함이 넘쳐나지만, 지금은 그 덕을 베풀 대상이 없어 무력한 처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감사함은 실천이 없는 믿음처럼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운명이 저에게 빨리 기회를 주어 제가 황제가 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 친구들에게, 특히 제 종자인 이 가련한 산초 판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테니까요. 산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 제가 오랫동안 약속해 온 백작령을 그에게 주고 싶지만, 혹시나 그가 영지를 다스릴 능력이 없을까 봐 걱정될 뿐입니다."

산초는 주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거의 다 들은 뒤,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키호테 나리, 저에게 그 백작령을 주시려고 애 좀 써 주십시오. 나리께서 그토록 약속하셨으니 저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지를 다스릴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능력이 모자라게 되더라도, 세상에는 영주로부터 영지를 임대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주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바치고 영지를 관리하며, 영주는 다른 걱정 없이 그 돈을 받아 편히 쉬면서 수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어떻든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곧 모든 일을 그만두고, 공작처럼 편히 쉬면서 제 수익이나 즐기며 살겠습니다. 그 뒤 일은 하늘에 맡기면 그만이지요."

"그건 그렇다, 산초야." 정교가 말했다. "수익을 누리는 일이라면 네 말이 맞다. 하지만 영지를 다스리며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영주가 직접 신경 써야 하는 문제다. 거기에는 능력과 분별력, 무엇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는 선한 의지가 필요하지. 만약 시작부터 의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수단과 목적이 언제나 어긋나기 마련이다. 하느님께서는 순박한 이의 선한 의지는 도와주시지만, 영악한 이의 악한 의도는 외면하시는 법이란다."

"그런 철학적인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백작령을 맡게 되면 곧바로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만은 압니다. 저도 남들만큼이나 영혼이 있고, 누구보다도 튼튼한 몸뚱이를 가졌으니까요. 제가 다스리는 영지에서만큼은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당당한 왕이 될 겁니다. 왕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제 마음대로 살게 되겠지요. 제 마음대로 살다 보면 즐거울 것이고, 즐겁게 살다 보면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더 바랄 게 없으면 그걸로 끝이지요. 그러니 영지가 어떻게 되든, 하느님께 맡기고 나중에 다시 봅시다. 눈먼 사람이 다른 눈먼 사람에게 하듯 말입니다."

"네 말처럼 그런 철학이 나쁜 건 아니란다, 산초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백작령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주 많구나."

그러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더 할 말이 있을까 싶구나. 나는 그저 위대한 아마디스 데 가울라가 보여준 본보기만을 따를 뿐이란다. 그는 자신의 종자를 '인술라 피르메'의 백작으로 만들어 주었지. 그러니 나 또한 양심의 가책 없이 산초 판사를 백작으로 삼을 수 있단다. 산초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편력기사가 거느렸던 종자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 중 한 명이니까 말이다."

돈키호테가 조리 정연하게 늘어놓은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정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호수의 기사가 겪은 모험을 묘사하는 방식이나, 그가 읽어온 책들이 심어준 허황된 거짓말들이 정교에게 준 충격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인에게 약속받은 백작 자리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산초의 어리석음 또한 정교를 경탄케 했다.

그때 마침 정교의 하인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여분의 짐을 실은 노새를 데려오려고 주막에 갔던 참이었다. 하인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 카펫을 깔고 푸른 풀밭을 상으로 삼아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이 소몰이가 그 편안한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배려한 덕분이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근처의 가시덤불과 무성한 덤불 사이에서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그 무성한 풀숲 사이에서 검은색, 흰색, 갈색 무늬가 얼룩덜룩한 아름다운 염소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그 뒤를 따라 염소치기가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왔는데, 염소를 멈춰 세우거나 무리로 돌려보내려고 평소 쓰던 말투로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었다. 겁에 질려 정신없이 도망치던 염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듯 사람들을 향해 달려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뒤따라온 염소치기는 마치 염소가 말이라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도 되는 양, 염소의 뿔을 움켜쥐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이 제멋대로 쏘다니는 것아, 산을 헤매는 것아, 만차다, 만차다, 요새는 왜 그렇게 다리를 절며 다니는 게냐? 대체 어떤 늑대가 너를 이토록 겁주더냐, 이 예쁜 것아? 어서 말 좀 해보렴, 응? 하지만 네가 암컷이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겠지. 네 성질머리도 참 못됐고, 너를 닮은 다른 것들도 다 그 모양이겠구나! 어서 돌아가자, 친구야. 지금처럼 신이 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네 우리 안이나 동료들 곁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할 게다. 너처럼 무리를 지키고 이끌어야 할 녀석이 이렇게 갈 길을 잃고 헤매고 다니는데, 나머지 녀석들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겠느냐?"

염소치기의 그 말은 듣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는데, 특히 정교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제발 부탁이니 조금만 진정하십시오. 그 염소를 서둘러 무리로 돌려보내려고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요. 형제님 말씀대로 저 염소가 암컷이라면, 형제님이 아무리 방해하셔도 제 본능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선 이 음식 좀 드시고 물도 한 모금 마셔 보세요. 그러면 화도 좀 가라앉을 테니, 그동안 염소도 좀 쉬게 두시고요."

그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칼끝으로 식은 토끼 고기 한 점을 건넸으니, 말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진 셈이었다. 염소치기는 고기를 받아

들고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흥분을 가라앉히며 입을 열었다.

"제가 이 미천한 짐승에게 이토록 분별 있게 말을 건넸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저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는 말아 주십시오. 사실 제가 건넨 말에는 다 그만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비록 시골뜨기이긴 하나, 사람과 짐승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부가 말했다. "산속에서 학자가 나고, 목동의 오두막에서 철학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저 또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이렇습니다, 나으리." 염소치기가 대답했다. "이런 곳은 모진 경험으로 단련된 사람들을 품어 주지요. 이 말이 사실임을,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주제넘게 끼어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고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저 신부님(신부를 가리키며)께서 하신 말씀과 제 말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이야기에 기사도 모험담 같은 묘한 구석이 있는 것 같으니, 나 또한 기꺼이 들어보겠소, 형제여. 여기 계신 다른 나으리들도 모두 기꺼이 들어주실 거요. 다들 식견이 높으신 데다, 감각을 깨우고 즐겁게 하며 마음을 달래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좋아하시니 말이오. 자네

이야기가 분명 그런 재미를 줄 것이라 믿네. 그러니 어서 시작하게, 친구여. 우리 모두 경청하겠네."

"제 것도 챙겨야겠어요." 산초 판사가 말했다. "저도 이 엠파나다를 들고 저 시냇가로 갈 겁니다. 이걸로 사흘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돈키호테 나으리께서 말씀하시길, 편력기사의 종자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배가 터지도록 먹어둬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기사들을 모시다 보면 자칫 빽빽한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엿새가 지나도록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일이 허다하니까요. 만약 배를 든든히 채워두지 않거나 짐 꾸러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챙겨두지 않으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그곳에서 미라처럼 말라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자네 말이 맞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가서 먹을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먹게나.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니, 이제 이 선량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만 남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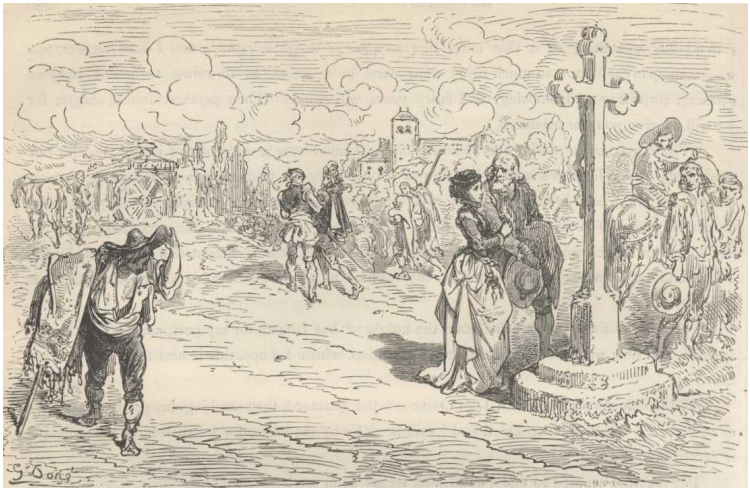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 영혼에게도 그 양식을 주기로 합시다." 정교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염소치기에게 약속했던 이야기를 시작해 달라고 청했다. 염소치기는 뿔이 달린 염소의 등을 두 번 탁탁 두드리며 염소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차다, 내 옆에 누워라. 다시 일하러 돌아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염소도 그 말을 알아들은 모양인지, 주인이 자리에 앉자 아주 차분하게 그 옆에 몸을 뉘었다. 그러고는 주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데, 마치 염소치기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었다. 염소치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51장



제51장. 돈키호테를 따라온 모든 이에게 염소치기가 들려준 이야기

“이 골짜기에서 세 레구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이 근방에서는 손꼽히게 부유한 곳이지요. 그 마을에는 아주 정직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함이 정직함의 밑거

름이 된다지만, 그는 가진 재산보다 타고난 덕망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 말로는, 그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늘이 내린 미모와 남다른 총명함, 우아함, 그리고 덕성을 두루 갖춘 딸을 둔 것이었지요.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하늘과 자연이 얼마나 경이로운 모습으로 그녀를 빚어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뻤던 아이는 자랄수록 미모가 꽃피어,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 미모에 대한 명성은 인근 마을은 물론이고 멀리 떨어진 도시들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왕의 궁전까지 그 소문이 전해졌고, 온갖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니 말 다 했지요. 사람들은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 혹은 세상에 보기 드문 구경거리라도 있는 양 사방에서 그녀를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귀하게 여겨 보호했고, 딸 또한 스스로를 잘 다스렸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자물쇠나 파수꾼이라 해도,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하는 절제만큼 처녀를 잘 지켜주는 것은 없으니까요."

아버지의 재력과 딸의 미모는 마을 사람들은 물론 외지인들까지 마음을 움직여, 너도나도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귀한 보석을 누구에게 내어줄지 결정해야 하는 아버지는, 끊임없이 청혼해 오는 수많은 이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또한 그토록 간절한 마음을 품은 수많은 이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 태생으로 혈통이 깨끗하고, 한창때의 젊음과 풍족한 재산,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뛰어난 재치까지 갖춘 사람이라, 아버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저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

을 거라는 큰 기대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의 또 다른 사내도 저와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그녀에게 청혼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저와 그 사내를 두고 저울질하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우리 둘 중 누구에게 딸을 맡겨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 혼란을 끝내고자 레안드라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레안드라, 바로 이 여인 때문에 제가 지금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는 우리 둘의 조건이 대등하니, 사랑하는 딸이 원하는 대로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식을 번창하게 키우려는 부모라면 누구나 본받아야 할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천박하고 나쁜 일을 고르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길을 제시해 주고, 그 좋은 길들 중에서 자식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고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레안드라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아버지는 딸이 아직 어리다는 핑계와 함께, 우리 두 사람 모두를 거절하지도 그렇다고 허락하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말로 시간을 끌었을 뿐입니다. 저의 경쟁자는 안셀모라 부르고, 저는 에우헤니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비극에 등장할 인물들의 이름을 알려 드렸으니,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분명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지요.

»그 무렵, 우리 마을에 비센테 데 라 로사라는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가난한 농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지요. 비센테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여러 곳을 떠돌며 용병 생활을 하다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비센테가 열두 살쯤 되었을 무렵, 마침 부대를 이끌고 그곳을 지

나던 한 대위가 그를 마을에서 데려갔고, 그로부터 다시 열두 해가 지나서야 그 젊은이는 돌아왔습니다. 그는 온갖 색깔로 화려하게 장식된 군복을 입고, 수많은 유리 장신구와 가느다란 강철 사슬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옷을 입고 내일은 또 다른 옷을 입었지만, 그 옷들은 모두 겉만 번지르르할 뿐 가볍고 부피도 작았습니다. 본래 심술궂은 데다 한가할 때면 그 심술이 더 심해지는 농부들은 이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비센테가 차려입은 옷과 장신구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옷은 색깔이 다른 세 벌뿐이었고, 가터와 양말도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옷들을 가지고 워낙 갖은 수법을 부리며 꾸며댔던 터라, 만약 사람들이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다면 열 벌이 넘는 옷과 스무 개가 넘는 깃털 장식을 보여주었다고 맹세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옷 이야기를 구태여 늘어놓는 것이 쓸데없거나 지나치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옷들이 이번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마을 광장의 커다란 미루나무 아래에 있는 낮은 돌계단에 앉아, 자신이 늘어놓는 무용담에 우리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세상 천지에 가보지 않은 땅이 없었고 싸워보지 않은 전투도 없었습니다. 모로코와 튀니지에 사는 무어인보다 더 많은 적을 죽였으며, 갠트와 루나, 디에고 가르시아 데 파레데스 같은 영웅들보다도 훨씬 더 기상천외한 결투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싸움에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승리하며 돌아왔다고 떠벌렸지요. 한편으로는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비록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들이 여러 번의 교전과 전투 중에 입은 총탄 자국이라고 우리를 납득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하무인 격인 오만함을 부리며, 자신과 동등한 처지의 사람이나 심지어 자신을 잘 아는 이들에게조차 말을 놓으며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곧 자신의 팔이자 가문이며 업적이라고 치켜세웠고, 용병 신분임에도 국왕에게는 아무런 빚진 것이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러한 오만함에 더해, 그는 악기 연주에도 소질이 있어 기타를 아주 기가 막히게 퉁겼는데, 어떤 이들은 그가 기타를 연주하면 기타가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재주도 있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한 장 반은 족히 될 법한 긴 서사시로 지어내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묘사한 용병, 즉 이 비센테 데 라 로사, 이 용맹하고 멋쟁이에 음악과 시에 능한 사내는,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집 창가에서 레안드라의 눈에 여러 번 띄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가 지어내는 시구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시를 한 편 지을 때마다 스무 번씩이나 옮겨 적을 정도로 재주가 좋았지요. 게다가 그가 스스로 늘어놓던 무용담까지 그녀의 귀에 들어갔으니, 아마 악마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구애할 마음을 품기도 전에 레안드라가 먼저 그와 사랑에 빠져버렸으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여인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준다면 그보다 더 쉽게 이루어지는 일도 없듯이, 레안드라와 비센테의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를 흠모하던 수많은 구혼자가 그녀의 마음을 눈치채기도 전에, 레

안드라는 이미 그와 약속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용병과 함께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비센테는 그동안 치러온 그 어떤 전투보다도 이번 모험에서 훨씬 더 큰 승리감을 맛보며 떠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모든 이가 이 사건에 경악했습니다. 안셀모는 망연자실했고, 저는 충격에 빠졌으며, 아버지는 슬픔에 잠겼고, 친척들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마을 순찰대원들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뒤지고 숲과 그 주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뒤에야, 제멋대로 행동한 레안드라를 산속 동굴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옷 차림으로 알몸이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집에서 챙겨온 돈이나 값비싼 보석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상심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심문했습니다. 왜 이런 불행을 겪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레안드라는 재촉하지 않아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비센테 데 라 로사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남편으로 맞이할 것이라 약속하며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흥이 넘치는 도시인 나폴리로 데려가 주겠다고 말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데다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간 레안드라는 그 말을 믿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아버지의 재물을 훔쳐 그를 따라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험한 산으로 데려가더니,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한 바로 그 동굴에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용병이 그녀의 명예만은 건드리지 않은 채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그 동굴에 버려두고 떠났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모든 이들을 경악게 했습니다.

»그 청년이 정조를 지켰다는 말은 믿기 어려웠지만, 레안드라가 워낙 진실하게 확언했기에 상심한 아버지는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재물은 모두 잃었으나, 딸에게는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가망이 없는 보석 하나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안드라가 나타난 바로 그날, 아버지는 딸을 우리 눈앞에서 데려갔습니다. 딸에 대한 나쁜 평판이 시간의 흐름 속에 조금이라도 씻겨 내려가기를 바라며, 근처 마을에 있는 수도원에 그녀를 가두어 둔 것입니다. 레안드라가 아직 어리다는 사실이 그녀의 잘못을 어느 정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행실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분별력과 총명함을 잘 아는 이들은 그녀의 죄를 단순히 무지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대담한 성격, 그리고 대개는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여인들의 타고난 기질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레안드라를 가두고 나자, 안셀모는 더 이상 눈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을 볼 수 없게 되어 눈이 멀어버린 듯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눈앞이 캄캄해져 그 어떤 즐거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레안드라가 사라지자 우리의 슬픔은 깊어만 갔고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용병의 화려한 차림새를 저주했고, 레안드라의 아버지가 보여준 부족한 절제력을 경멸했습니다. 결국 안셀모와 저는 마을을 떠나 이곳 계곡으로 내려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곳에서 안셀모는 자신의 양 떼를, 저는 제 염소 떼를 몰며 나무 사이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

리는 때로는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아름다운 레안드라를 찬양하거나 혹은 비난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때로는 홀로 남겨져 하늘을 향해 우리의 원통함을 토로하며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레안드라를 연모하는 수많은 구혼자가 이 험한 산맥으로 몰려와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과 양 우리가 워낙 가득 들어차 있어서, 마치 이곳이 목가적인 아르카디아로 변한 것만 같습니다. 이 근방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레안드라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저주하며 제멋대로이고 변덕스러우며 품위가 없다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는 그녀가 너무나 가볍고 방탕하다고 비난합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용서하고 면죄부를 주지만, 누군가는 그녀를 단죄하고 꾸짖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녀의 행실을 부정합니다. 결국 모두가 그녀를 욕하면서도 동시에 모두가 그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광기 어린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레안드라와 말 한마디 섞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녀의 냉대에 가슴 아파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녀가 누구에게도 준 적 없는 질투라는 격정적인 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녀가 품었던 욕망보다 그녀가 저지른 죄가 먼저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바위틈 하나, 시냇가 언저리 하나, 나무 그늘 아래조차 자신의 불행을 허공에 대고 떠드는 목자들로 붐비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레안드라의 이름이 되풀이됩니다. 산맥은 레안드라를 울려 퍼뜨리고, 시냇물은 레안드라를 속삭입니다. 그리고 레안드라

는 우리 모두를, 희망 없는 기다림과 이유 모를 두려움 속에 사로잡아 매료해 놓았습니다. 이 미친 자들 사이에서 그나마 가장 이치에 맞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는 이는 저의 경쟁자인 안셀모입니다. 그는 불평할 거리가 산더미만큼 많으면서도 오로지 그녀의 부재만을 한탄합니다. 그는 놀라운 솜씨로 연주하는 레벨(rabel) 선율에 맞춰, 자신의 총명함을 보여주는 시구들을 읊으며 노래로 슬픔을 토로하곤 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쉽고,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적절한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들의 경솔함과 변덕스러움, 이중적인 태도와 지키지 못할 약속, 깨져버린 신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그 빈약한 언변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 염소에게 늘어놓았던 말과 논리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염소는 암컷이라 별 볼 일은 없지만, 제 가축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녀석이니까요. 이제 제가 약속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말이 길어졌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을 대접하는 데 인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근처에 제 양 떼를 모아두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신선한 우유와 아주 맛있는 치즈, 그리고 맛도 좋고 보기에도 즐거운 여러 가지 제철 과일들이 가득합니다.

제52장



제52장. 돈키호테가 염소치기와 벌인 싸움, 그리고 고행단과 마주한 기이한 모험과 자신의 땀을 흘려 얻어낸 행복한 결말에 대하여

염소치기의 이야기는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특히 정론관이 흡족해했는데, 그는 묘한 호기심을 느끼며 염소치기가 이야기를 풀어낸 방식에 주목했다. 투박한 시골 염소치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식견 있는 궁정 신사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신부가 "산골에서는 학자들을 길러낸다"라고 말한 것이 참으로 옳다고 했다. 사람들은 모두 에우헤니오에게 도움을 베풀겠다고 나섰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후하게 나선 이는 돈키호테였다. 돈키호테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염소치기 형제여. 만약 내게 모험을 시작할 기회만 생긴다면, 자네가 말한 그 일을 위해 곧장 길을 떠나겠네. 분명 저 수도원에 레안드라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갇혀 있을 테니, 내가 반드시 구해내겠네. 원장 수녀가 누구든, 방해하려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네. 내가 그녀를 구해다가 자네 손에 넘겨줄 테니, 자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녀를 대하게나. 다만 기사도의 법도를 지켜야 하네. 기사도는 어떤 처녀에게도 결코 무례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말일세.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 바라건대, 악의를 품은 마법사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선한 의지를 가진 또 다른 마법사의 힘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네. 그때가 되면 내 직업적 의무에 따라 자네를 돕고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겠네. 내 직업이란 결국 약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는 일 아니겠나."

염소치기는 돈키호테를 쳐다보았다. 돈키호테의 몰골과 행색이 워낙 형편없는 것을 본 그는 깜짝 놀라, 곁에 있던 이발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기에 차림새가 이 모양이고 말투는 저 모양입니까?"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발사가 대답했다.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으며, 처녀들의 수호자이자 거인들을 경악케 하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그 유명한 라만차의 돈키호테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건 기사도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군요." 염소치기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말씀하신 저 사람의 행동은 전부 소설 속 이야기들 같습니다. 제 생각에 나리께서 저 사람을 놀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 신사분은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천하의 악당 같으니!" 이때 돈키호테가 소리쳤다. "네놈이야말로 속이 텅 비고 쪼그라든 놈이다! 나는 그 어떤 때보다 충만하거늘, 너를 낳은 그 천하의 개 같은 년이 그토록 충만했던 적이 있었겠느냐!"

말을 마친 돈키호테는 옆에 있던 빵 하나를 낚아채더니, 엄청난 기세로 염소치기의 얼굴을 내리쳤다. 그 충격에 염소치기의 코가 뭉개질 정도였다. 하지만 농담 따위는 모르는 염소치기는 자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매를 맞고 있는지 깨닫고는, 식탁이나 식사 중인 사람들을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돈키호테에게 달려들었다. 염소치기가 양손으로 돈키호테의 목을 움켜쥐고 숨통을 끊어놓으려던 찰나, 마침 달려온 산초 판사가 염소치기의 등을 덮쳐 그를 식탁 위로 내동댕이쳤다. 그 바람에 접시가 깨지고 잔이 박살 났으며, 식탁 위에 있던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쏟아졌다.

겨우 몸을 푼 돈키호테는 곧장 염소치기 위로 올라탔다. 얼굴이 피떡이 된 데다 산초에게 발길질까지 당해 만신창이가 된 염소치기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려고 식탁 위에 있는 칼이라도 찾으려 기어 다녔다. 하지만 신부와 성직자가 앞을 가로막아 방해했다. 그 와중에 이발사가 적절히 손을 써준 덕분에, 염소치기는 다시 돈키호테를 밑에 깔고

덮칠 수 있었다. 그 위로 주먹질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가련한 기사의 얼굴에서는 염소치기의 얼굴만큼이나 피가 흘러내렸다.

성직자와 신부는 배를 잡고 웃어댔고, 순찰대원들은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사람들은 양쪽을 번갈아 부추겼는데, 마치 싸움이 붙은 개들을 부추기듯 했다. 오직 산초 판사만이 절망적인 심정이었다. 성직자의 하인이 앞을 가로막고 늘어지는 바람에 주인을 도와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즐거워하고 있을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어찌나 슬프게 들리는지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소리에 가장 크게 동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돈키호테였다. 그는 염소치기 밑에 깔린 채 본의 아니게 짓눌려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네가 악마가 아니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내 팔다리를 붙잡고 늘어질 만큼 용기도 있고 힘도 세다니 말이다. 제발 부탁이니 딱 한 시간만이라도 휴전을 하자꾸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저 나팔 소리가 어찌나 슬픈지, 마치 새로운 모험이 나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리는구나."

치고받는 일에 이미 진이 빠진 염소치기가 돈키호테를 놓아주었다. 돈키호테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뜻밖에도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이 고행단처럼 언덕을 따라 내려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해에는 구름이 대지에 이슬을 내려주지 않아 가뭄이 심했다. 그래서 그 지역 곳곳에서는 하느님이 자비의 손을 펼쳐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행렬을 짓고, 기도를 올리고, 고행을 했다. 이 목적으로 인근에 있던 한 마을 사람들도 그 골짜기 언덕에 있는 경건한 작은 은둔 기도처를 향해 행렬을 지어 오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고행단의 기이한 복장을 보고는, 예전에 이런 광경을 수없이 보았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이것이 분명 모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떠돌이 기사인 자신만이 이 모험에 뛰어들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특히 검은 상복으로 덮인 형상이 행렬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는, 무례하고 몰상식한 악당들이 억지로 끌고 가는 귀한 신분의 여인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돈키호테는 망설임 없이, 느릿느릿 풀을 뜯고 있던 로시난테에게 달려가 안장 앞가지에 걸려 있던 고삐와 방패를 낚아채 순식간에 굴레를 씌웠다. 그러고는 산초에게 칼을 달라고 한 뒤 로시난테의 등에 올라타 방패를 팔에 끼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용맹한 동료들이여! 세상에 떠돌이 기사단의 서약을 맺은 기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곧 알게 되리라! 저기 포로로 잡혀가는 고귀한 부인이 자유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떠돌이 기사들의 가치를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친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의 옆구리를 힘껏 조였다. 그에게는 박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이 진실한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로시난테가 전력 질주를 했다는 기록은 단 한 번

도 없었으나, 돈키호테는 기세 좋게 고행단을 향해 달려 나갔다. 신부와 성직자, 그리고 이발사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산초가 말리며 내지르는 외침조차 그를 멈춰 세우지는 못했다.

"돈키호테 님, 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가슴속에 도대체 무슨 악마 같은 생각이 들어앉았기에 감히 우리 가톨릭 신앙에 맞서 달려드시는 겁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가 잘못 본 것이라면 차라리 저주를 받겠습니다만, 저건 고행단이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받침대 위에 모시고 가는 귀한 부인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마리아 상입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어르신! 지금 하시는 짓은 정말이지 평소의 식견과는 거리가 먼,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산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었다. 주인은 고행단에게 달려가 검은 옷을 입은 귀부인을 구출하겠다는 생각에만 온통 사로잡혀 있었다. 돈키호테는 산초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왕이 명령한다 해도 돌아보지 않았을 기세였다. 마침내 돈키호테는 행렬에 다다랐고, 잠시 쉬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로시난테를 멈춰 세우며 떨리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들, 어쩌면 선량하지 못한 자들이라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내 하려는 말을 주의 깊게 듣도록 하라!"

가장 먼저 멈춰 선 이들은 성상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었다. 한편, 연도(煉禱)를 노래하던 네 명의 성직자 중 한 명이 돈키호테의 기이한 행색과 로시난테의 초라한 모습, 그리고 돈키호테에게서 발견한 여러 우스꽝스러운 점들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형제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서 빨리 말씀하십시오. 저 형제들은 지금 살점을 도려내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두어 마디로 끝날 만큼 짧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저희가 멈춰 서서 그 말씀을 들어드릴 형편도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아름다운 부인을 즉시 풀어주십시오! 저 여인의 눈물과 슬픈 표정은, 당신들이 저 여인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으며 커다란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저로서는, 저 여인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되찾아주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돈키호테가 분명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배를 잡고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는 돈키호테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었다. 돈키호테는 더 말도 섞지 않고 즉시 칼을 뽑아 들더니 가마를 향해 돌진했다. 가마를 메고 가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동료들에게 짐을 맡기고 돈키호테를 막으러 나섰다. 그는 쉬는 동안 가마를 받치고 있던 갈퀴 혹은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돈키호테가 내리친 칼날에 그 막대기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부러지고 남은 마지막 삼분의 일 토막을 곧장 돈키호테의 어깨 쪽으로 휘둘렀다. 칼을 든 쪽과 같은 방향으로 날아온 그 무지막지한 힘에 돈키호테는 방패로 막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불쌍한 돈키호테는 결국 볼품없이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헉헉거리며 뒤쫓아오던 산초 판사는 쓰러진 돈키호테를 보고는, 그를 때린 사내를 향해 더는 때리지 말라고 소리쳤다. 돈키호테는 평생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는, 마법에 걸린 가엾은 기사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 무지막지한 사내를 멈춰 세운 것은 산초의 외침이 아니라, 돈키호테가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을 본 것이었다. 그리하여 돈키호테가 죽었다고 여긴 사내는 서둘러 옷자락을 허리춤까지 걷어 붙이고는, 마치 사슴처럼 들판을 가로질러 달아나 버렸다.

그때 돈키호테의 일행이 모두 그가 쓰러진 곳에 도착했다. 행렬 쪽 사람들은 일행이 달려오는 것을, 더구나 그들과 함께 석궁을 든 경비병들까지 오는 것을 보고는 무슨 불상사가 생길까 두려워하며 모두 성상 주위로 소용돌이처럼 모여들었다. 고행단은 머리에 쓴 고깔을 치켜올리고 채찍을 움켜쥐었으며, 성직자들은 촛대를 들고서 공격해올 자들을 맞서 싸우고 기회만 되면 되받아치겠다는 기세로 결연히 기다렸다. 하지만 운명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다행스럽게 흘러갔다. 산초 판사가 주인이 죽었다고 믿고 그 몸 위로 달려들어 세상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우스꽝스러운 통곡을 터뜨린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부는 행렬에 참여하고 있던 다른 신부와 서로 아는 사이였다. 두 무리가 서로를 알아보자, 일촉즉발이었던 긴장감은 이내 가라앉았다. 첫 번째 신부는 두 마디 말로 돈키호테가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 신부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 신부와 고행단 무리는 모두 불쌍한 기사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러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산초 판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 기사도의 꽃이시여! 고작 몽둥이질 한 번에 그토록 찬란하게 살아온 세월을 끝내버리시다니요! 오, 가문의 명예시여! 라만차와 온 세상의 영광이시여! 당신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악당들로 가득 차, 제멋대로 악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 그 어떤 알렉산드로스보다도 관대하신 분이시여! 고작 여덟 달 동안 모셨을 뿐인데, 바다가 둘러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섬을 제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 오만한 자에게는 겸손하고 비천한 자에게는 당당하신 분이시여! 위험을 향해 돌진하고 모욕을 견뎌내며, 까닭 없이 사랑에 빠지고 선인을 본받으며 악인을 응징하고 비겁한 자들의 적이 되셨던 분! 한마디로 말해, 말할 수 있는 모든 미덕을 갖춘 편력기사시여!"

산초의 외침과 신음 소리에 돈키호테가 정신을 차렸다.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이러했다.

"지극히 사랑하는 둘시네아여, 당신과 떨어져 지내는 저는 지금 이보다 더한 비참함에 처해 있습니다. 산초야, 친구여, 나를 도와 저 마법에 걸린 수레 위에 올려다오. 어깨가 이 모양이라 이제는 로시난테의 안장을 누르고 버틸 힘조차 없구나."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그러니 이 분들과 함께 제 마을로 돌아가시지요. 이분들도 주인님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이득과 명성을 가져다줄 다음 모험을 어떻게 준비할지 차근차근 의논해 보시지요."

"네 말이 옳다,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지금 흐르는 별들의 불길한 기운은 잠시 피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겠지."

사제와 신부, 그리고 이발사는 돈키호테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고 거들었다. 산초 판사의 순박한 모습에 큰 즐거움을 느낀 이들은, 돈키호테를 이전처럼 다시 마차에 태웠다. 행렬은 다시 질서를 되찾아 길을 떠났다. 염소치기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경비병들은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기에 신부가 그들에게 줄 돈을 모두 지불했다. 사제는 신부에게 돈키호테가 광기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미쳐 있는지 나중에 꼭 알려달라고 부탁한 뒤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결국 모두가 흩어져 각자의 길로 갔고, 신부와 이발사,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그리고 주인만큼이나 인내심 깊게 눈앞의 광경을 지켜보는 착한 로시난테만이 남았다.

소 몰이꾼은 황소들을 마차에 매고 돈키호테를 건초 더미 위에 앉혔다. 그러고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신부가 정해준 길을 따라 나아갔다. 그렇게 엿새를 달려 돈키호테의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침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일요일이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에 모여 있었고, 돈키호테의 마차는 광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들어갔다. 사람들은 마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보려고 모두 몰려들었다. 그러다 마차에 탄 이가 같은 마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때 한 소년이 달려가 주인아주머니와 조카딸에게 소식을 전했다. 삼촌이자 주인님께서 뼈만 남은 채 얼굴이 누렇게 떠서, 건초 더미 위에 누운 채 소 마차를 타고 오고 계신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여인이 비명을 지르고, 서로 뺨을 때리며, 그 빌어먹을 기사도 소설들을 향해 다

시금 저주를 퍼붓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었다. 돈키호테가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 소란은 더욱 극에 달했다.

돈키호테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산초 판사의 아내가 달려왔다. 그녀는 남편이 돈키호테를 종자로 모시고 떠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내는 산초를 보자마자 그 나귀 상태가 괜찮은지부터 물었다. 그러자 산초는 나귀가 주인보다 훨씬 상태가 좋다고 대답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여보, 이제 말 좀 해 봐요. 종자 노릇을 하며 얻은 이득은 좀 있나요? 나한테 가져다줄 치마는 무엇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겨줄 신발은 좀 챙겨왔나요?"

"아무것도 못 가져왔소." 산초가 말했다. "부인, 비록 그런 건 없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것들은 좀 챙겨왔소."

"그렇다면 정말 기쁘겠네요." 여자가 대답했다. "여보, 그토록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라는 게 대체 뭔지 어서 보여줘요. 당신이 없는 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얼른 보여줘야 내 마음도 환해질 것 같으니까요."

"집에 가서 보여드리지요, 부인." 산초 판사가 말했다. "지금은 우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신의 뜻에 따라 우리가 다시 모험을 떠나게 된다면, 머지않아 제가 백작이나 어느 섬의 총독이 된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냥 그런 흔한 섬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섬의 총독 말입니다."

"하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섬'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꿀은 당나귀 입에 어울리지 않는 법이라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부인,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요. 아니, 머지않아 모든 백성에게서 '마님'이라 불리는 당신의 모습에 당신 스스로도 깜짝 놀라게 될 거요."

"산초, 주인님이라니요? 섬이나 백성 같은 소리는 대체 무슨 뜻인가요?" 산초 판사의 아내인 후아나 판사가 물었다. 두 사람은 친척 관계는 아니었지만, 라만차에서는 관습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랐기에 그녀의 이름도 그렇게 불렸다.

"후아나, 이 모든 걸 그렇게 서둘러 알려고 애쓰지 말게. 그저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만 믿고 입을 다물고 있게나. 다만 지나가는 길에 한마디만 일러주자면, 모험을 찾아 떠도는 편력기사의 명예로운 종자가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즐거운 일은 없다네. 물론 실제로 마주하는 모험들이 사람이 바라는 만큼 만족스럽게 끝나지 않는 건 사실이지. 백 가지 모험을 만나면 그중 아흔아홉 가지는 엉망으로 뒤틀려 있기 마련이니까. 이건 내 경험으로 아는 사실이라네. 어떤 모험에서는 담요에 싸여 헹가래를 당했고, 어떤 모험에서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얻어맞기도 했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넘고 숲을 뒤지고 바위를 밟고 성을 찾아다니며, 여관에서는 마음껏 묵고도 빌어먹을 동

전 한 닢 치르지 않는, 그런 모험의 결말을 기다리는 건 참으로 멋진 일이라네."

산초 판사와 그의 아내 후아나 판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돈키호테의 가정부와 조카는 그를 맞아 옷을 벗기고 예전에 쓰던 침대에 눕혔다. 돈키호테는 사나운 곁눈질로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신부는 조카에게 삼촌을 잘 보살피라고 당부하며, 그가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켜보라고 이르고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들려주었다. 그러자 두 여인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질러댔다. 한쪽에서는 기사도 소설을 저주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토록 많은 거짓과 헛소리를 지어낸 작가들을 심연의 한가운데로 떨어뜨려 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결국 두 여인은 주인이자 삼촌인 그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는 바로 그 순간 다시 그를 잃게 될까 봐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저자는 돈키호테가 세 번째 모험에서 겪은 일들을 호기심을 갖고 부지런히 찾아보았으나, 적어도 공인된 문헌에서는 그에 관한 소식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라만차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소문에는, 돈키호테가 세 번째로 집을 나선 뒤 사라고사로 가서 그 도시에서 열린 유명한 마상 시합에 참가했으며, 그곳에서 그의 용맹함과 명석함을 증명할 만한 일들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단서를 얻을 수 없었으니, 만약 운 좋게도 한 노련한 의사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끝내 그 사실을 알아내지도 알지도 못했을 것

이다. 그 의사는 납으로 만든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상자는 새로 개축하던 옛 은둔자의 기도실 터를 파헤치다 무너진 기초 부분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상자 안에는 고딕체로 쓰였으나 내용은 카스티야어 운문으로 된 양피지들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돈키호테가 이룬 수많은 업적과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의 아름다움, 로시난테의 모습, 산초 판사의 충성심, 그리고 돈키호테 자신의 묘소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의 삶과 품행을 기리는 다양한 묘비명과 찬사도 함께 적혀 있었다.

그중 읽어낼 수 있어 깨끗하게 옮겨 적은 내용이 바로, 이 새롭고도 전례 없는 이야기를 기록한 신뢰할 만한 저자가 여기에 실은 내용이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라만차의 모든 기록 보관소를 뒤지며 쏟아부은 엄청난 수고에 대한 보상을 독자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세상에서 널리 읽히는 기사도 소설에 대해 식견 있는 사람들이 흔히 보여주는 만큼의 신뢰만을 보내주길 바랄 뿐이다. 저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여길 것이며,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만큼 기발한 상상력과 즐거움을 주는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내어 세상에 내놓을 용기를 얻을 것이다.

납 상자에서 발견된 양피지에 가장 먼저 적혀 있던 글귀는 이러했다.

라만차의 아르가마시야 학자들, 용맹한 돈키호테의 생애와 죽음을 기리며.

이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아르가마시야의 학자 모니콩고가 돈키호테의 묘비에 바치며.

묘비명

이아손보다 더 많은 전리품으로 라만차를 장식하고, 넓어야 할 곳에 뾰족하게 솟아 판단력을 흐렸던 풍향계 같은 사내. 카타이에서 가에타까지 그 힘을 떨치며 팔을 휘둘렀던 자. 청동판 위에 시를 새겨 넣은,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면서도 가장 명석했던 뮤즈. 아마디스들을 저만치 뒤에 따돌리고, 그 사랑과 용맹함에 기댄 채 갈라오르들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 벨리아니스의 이야기마저 잠재웠던 자. 로시난테를 타고 방랑하던 그가, 이제 이 차가운 석판 아래 잠들어 있노라.

아르가마시야 학술원의 파니아과도,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찬양하며

소네트

여기 보이는 이 여인은 투박하고 펑퍼짐한 얼굴에 가슴이 높고 자태가 당당하니, 바로 엘 토보소의 여왕인 둘시네아라네. 위대한 키호테가 지극히 연모했던 분이지. 그는 이 여인을 향한 마음 하나로 거대한 시에라 네그라 산맥의 양쪽 기슭을 누볐고, 그 유명한 몬티엘 평원을 지나 아란후에스의 풀이 우거진 평원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다녔다네. 오, 가혹한 운명이여! 로시난테가 문제였을까. 이 라만차의 귀부인과 이 불굴의 편력기사 가운데, 그녀는 꽃다운 시절에 죽음을 맞이하며 그 아름다움을 잃었고, 그는 대리석에 이름이 새겨졌음에도 사랑과 분노와 기만으로부터 결코 도망치지 못했으니 말일세.

아르가마시야의 변덕스럽고도 매우 명석한 학자가 돈키호테의 말인 로시난테를 찬양하며

소네트

광기 어린 마르스가 피비린내 나는 발자국을 남긴 오만한 다이아몬드 왕좌 위에서, 라만차의 기사는 고행의 노력을 다해 자신의 깃발을 휘날린다. 그는 적을 파괴하고, 약탈하며, 가르고, 찢어버리던 무기와 날카로운 검을 내려놓는다. 새로운 업적을 향해, 예술은 이 새로운 용사에게 걸맞은 새로운 양식을 창조해 낸다. 만약 용맹한 후손들을 통해 그리스를 수천 번이나 승리로 이끌며 그 명성을 드높인 가울이 자신의 아마다이스를 자랑스러워한다면, 오늘날 벨로나가 주재하는 전당은 키호테에게 왕관을 씌워준다. 그리고 드높은 라만차는 그리스나 가울보다도 그를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의 영광은 결코 망각에 물들지 않으니, 용맹함에 있어서는 로시난테조차 브릴라도로와 바이아르도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조롱을 일삼는 아르가마실식 학자, 산초 판사에게

소네트

산초 판사는 몸집은 작으나 용기는 누구보다 컸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세상에서 가장 순박하고 속임수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종자였음을 내가 맹세코 보증하노라. 만약 이 인색한 세기가 그를 해치려 작정하여 온갖 무례와 모욕을 퍼붓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백작의 반열에 올랐을 것이 분명하도다. 이 온순한 종자는 (허물을 용서하신다면

거짓을 보태어) 온순한 말 로시난테와 그 주인을 뒤따라 걸었노라. 오, 사람들의 헛된 희망이여! 어찌 그리 달콤한 휴식을 약속하더니, 결국 그림자와 연기, 한낱 꿈처럼 사라져 버리는가!

아르가마시야의 학자, 악마 같은 녀석이 돈키호테의 무덤 앞에서

묘비명

이곳에 기사가 잠들어 있다. 로시난테를 타고 이 길 저 길 누비며 온갖 고초를 겪은 기사다. 어리숙한 산초 판사도 그의 곁에 함께 누워 있다. 그는 종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충직한 종자였다.

아르가마시야의 학자 델 티키톡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의 묘비에 바침.

묘비명

이곳에 둘시네아가 잠들다. 비록 살집은 통통했으나, 무섭고 추악한 죽음이 그녀를 한 줌의 먼지와 재로 만들었도다. 그녀는 품격 있는 혈통이었으며 귀부인의 자태를 갖추었으니, 위대한 키호테의 불꽃이었고 마을의 영광이었노라.

읽을 수 있는 구절은 여기까지였다. 나머지 부분은 글자가 너무 닳아 없어지는 바람에, 학자 한 명에게 맡겨 추측을 통해 내용을 밝혀내도록 했다. 그 학자가 밤잠을 설쳐가며 고생 끝에 내용을 알아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는 돈키호테의 세 번째 출정을 기대하며 이 글들을 세상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다른 이가 더 훌륭한 선율로 노래하리라.

끝